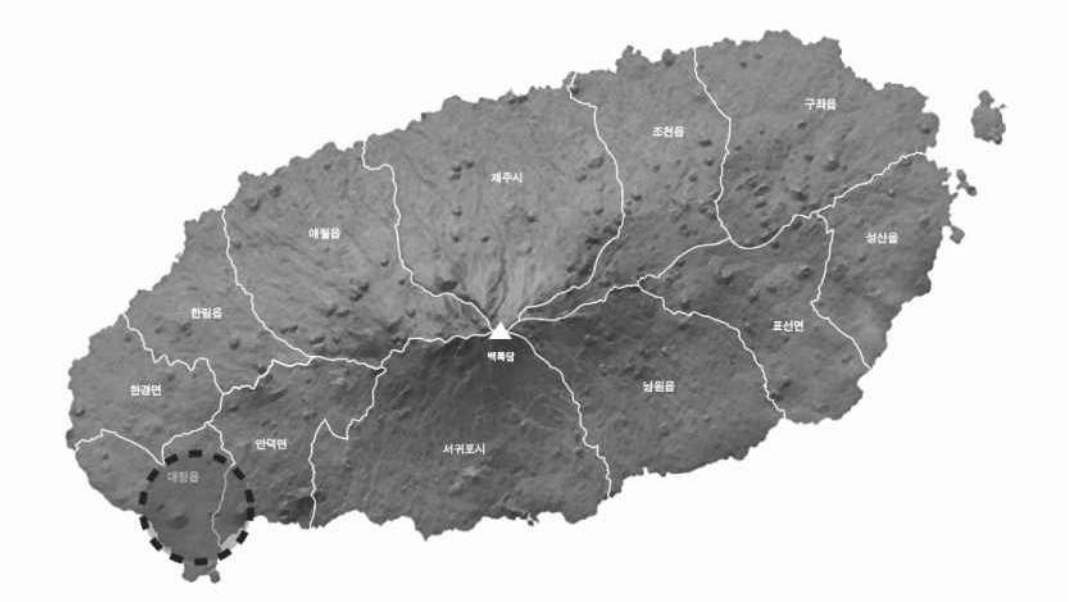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647-01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3

-대정읍 인성리

구술: 정인춘
채록·전사: 김미진
표준어 대역: 권미소, 김미진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3
대정읍 인성리

목 차

Ⅰ. 사업 개요 ····· 5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연구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 8

Ⅱ. 구술 자료 ····· 11
1. 조사 마을 ····· 11
2. 제보자 일생 ····· 30
3. 밭일 ····· 64
4. 들일 ····· 122
5. 바다일 ····· 148
6. 의생활 ····· 152
7. 식생활 ····· 187
8. 주생활 ····· 273
9. 신앙 ····· 310
10. 세시풍속 ····· 314
11. 놀이 ····· 343
12. 통과의례 ····· 366
연구 참여자 ····· 430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20년 3월 10일~2020년 12월 31일

3. 연구 참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가급적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조사한 대정읍 구억리와 애월읍 봉성리, 2015년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의 구술 채록 보고서는 자료의 양이 적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사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제보자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과 그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과 역할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5. 사업 추진 과정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하였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하였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하였다.
-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했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했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하였다.
- 제보자의 발음이 표기와 다르게 나는 경우는 발음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하였다.
- 보고서의 번호는 2019년에 이어 제주시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주시 외도동’ 구술 자료가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가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조사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이는 제보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랐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 안에 넣었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맥에 맞게 의역할 경우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두었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하였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간한 ≪제주어구술자료집≫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연구자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옥,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Ⅱ. 구술 자료

(@ 김미진, # 정인춘)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이 옛날에는 어떵헤근에 만들어져신지 들어난 말 이수과?(이 마을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들었던 말 있습니까?)

101001 # 옛날에 만듦은 어떵 헹 만들아?(옛날에 만들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

101001 @ 처음 이 동넨 어떵 헹 사름이 살아신고?(처음 이 동넨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았는가?)

101001 # 이 동넨 인성리[1] 사름덜은이 토지도 족고 경 허니까 아기덜이 출셀 시기젠 안헤여. 청년덜은 공부 안 시경 농부만 시겨.(이 동넨 인성리 사람들은 토지도 작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출세를 시키려고 안 해. 청년들은 공부 안 시켜서 농부만 시켜.)

101001 @ 아, 땅이 좋안에?(아, 땅이 좋아서?)

101001 # 응, 땅이 족안산듸사. 건디 욜로 갈랑 보성[2] 사름덜은 다 일본덜 아덜덜 나민 일본 돌앙강인에 공부 시경 훌륭헌 사름 제주도 보내는디 인성 사름덜은 그런 사름 없어. 이디 조칩이도 조 선생도 아덜 성제가 일본 간 공부시기멍 훌륭헌 사름 멘들아근에 다 허는디 인성은 우리가 클 때ᄁᆞ진이 막 청년덜이 일만 허주 공부 시긴 애기덜이 없더라. 게난 우리 어린 때도 보성선 아기덜 공부시기민 서울로 가근에이 출세허영 공장 멧 개썩 헷젠이 우리 어무니네 형제간 닮은 사름덜이 다 그렇게 헤영 보성은 발전을 더 시겨. 지금도 보성은이 육지 살면서 공장덜 멧 개썩 허민 보성 무신거 귀헌 거 싯젠 허민 물건을 주나 경 안허민 돈으로 왕창 보냉은에 막 출세시겨, 보성 사름덜. 그러는디 인성은 그런 발전이 없어. 인성은 어디 후원헤 주는 사름도 엇고.(응, 땅이 작아서인지. 그런데 요리로 갈라서 보성 사람들은 다 일본들 아들들 낳으면 일본 데려가서 공부 시켜서 훌륭한 사람 제주도 보내는데 인성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 여기 조씨 집도 조 선생도 아들 형제가 일본 가서 공부시키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다 하는데 인성은 우리가 클 때까지는 막 청년들이 일만 하지 공부시킨 아기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 때도 보성에서는 아기들 공부시키면 서울로 가서 출세해서 공장 몇 개씩 했다고 우리 어머니네 형제간

1) '인성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를 말한다.
2) '보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의 옆 마을은 대정읍 보성리를 말한다.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보성은 발전을 더 시켜. 지금도 보성은 육지 살면서 공장들 몇 개씩 하면 보성 무엇 귀한 거 있다고 하면 물건을 주나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왕창 보내서 막 출세시켜, 보성사람들. 그러는데 인성은 그런 발전이 엇어. 인성은 어디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101001 @ 옛날 혹시 어떤 하르방덜 왕 살아낫저 허는 말은 엇어?(옛날 혹시 어떤 할아버지들 와서 살았었다 하는 말은 없어?)

101001 # 엿날 하르방 사는 하르방은 그자 농촌에서 엿날 노리 잡으레 뎅기는 하르방은 이섯어. 그 집이 애기덜도 공부 안 시겨. 안성[3]도 공부 안 시기고. 어뜨난 그래.(옛날 할아버지 사는 할아버지는 그저 농촌에서 옛날 노루 잡으러 다니는 할아버지들은 있었어. 그 집의 아기들도 공부 안 시켜. 안성도 공부 안 시키고. 왠지 그래.)

101001 @ 똑 비슷헌 디 옆이 이신디예?(꼭 비슷한 데 옆에 있는데요.)

101001 # 응.(응.)

101002 @ 게민 이 마을엔 무신 성씨가 주로 이신고?(그러면 이 마을엔 무슨 성씨가 주로 있는가?)

101002 # 이 마을에 송칩이 아이덜이 출세허고 이칩이 사름덜이.(이 마을에 송씨집 아이들이 출세하고 이씨 집 사람들이.)

101002 @ 인성리는 무신 성이 하?(인성리는 무슨 성씨가 많아?)

101002 # 인성은 이칩이도 하고 오칩이도 잇고 강칩이도 잇고.(인성은 이씨 집도 많고 오씨 집도 있고 강씨 집도 있고.)

101002 @ 무슨 칩이 젤 하?(무슨 집이 제일 많아?)

101002 # 이칩이가 하.(이씨 집이 많아.)

101002 @ 할머니넨 무신 칩이라?(할머니넨 무슨 집이야?)

101002 # 우린 정씨, 우리 웨간 이칩이.(우린 정씨, 우리 외가는 이씨 집.)

101002 @ 웨간 이칩이.(외가는 이씨 집.)

101002 # 보성 이칩이. 우리 어무니네가 팔 남매. 이칩이 다 출세, 손지꼬지덜 다 출세헤여.(보성 이씨집. 우리 어머니네가 팔 남매. 이씨 집 다 출세, 손자들까지 다 출세해.)

101002 @ 할무니네 할아버진, 아부진 인성리?(할머니네 할아버지는, 아버진 인성리?)

101002 # 그냥 이 동네 인성리서 살아. 우리 아부지넨 원래 세계[4] 살단 이디 왓는디 옛날에 우린 몰랏는디 이 학교 터가 엿날 관개 살아난 터라.(그냥 이 동네 인성리에서 살아. 우리 아버지는 원래 사계 살다가 여기 왔는데 옛날에 우린 몰랐는데 이 학교 터가 옛날 관가 살았던 터야.)

101002 @ 관개가 뭐?(관가가 뭐?)

---

3) '안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의 옆 마을은 대정읍 안성리를 말한다.

4) '세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101002 # 요새 ᄀᆞ뜨민 요새 춘향이 잡아당은에 허는 그 관개. 게난에 이 혹교 터가 그 관개 터주게. 관개 터난에 그 사름 이젠 서울이엔 허주마는 경성서 오라근에 이디 살민 시집강 안 사는 사름덜 못사는 사름덜 그디 심부름꾼으로 다 집어가. (요새 같으면 요새 춘향이 잡아다가 하는 그 관가. 그러니까 이 학교 터가 그 관가 터지. 관가 터니까 그 사람 이젠 서울이라고 하지마는 경성에서 와서 여기 살면 시집가서 안 사는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 거기 심부름꾼으로 다 잡아가.)

101002 @ 응.(응.)

101002 # 집어당은에 지네 일꾼으로 시겨. 경 허는디 우리 고모님이 인물 좋안 시집간 안 사난 경성서 온 사름이 심어단 인물 곱곡 허난에 지네 각시 역할을 헷어. 그 춘향이 심어당 허듯이. 그런 역할헨 그디 가돤 사난 원래 우리 아부지넨 세곗 어른인디 할망이영 그 똘 하나 이디 오란 관개 각시로 들이박아부난 그 똘 오랑은에 사는 거 보젠 보성을 오란 살앗주게, 요 학교 뒤에.(잡아다가 자기네 일꾼으로 시켜. 그러는데 우리 고모님이 인물 좋아서 시집가서 안 사니까 경성에서 온 사람이 잡아다가 인물 곱고 하니까 자기네 각시 역할을 했어. 그 춘향이 잡아다가 하듯이. 그런 역할해서 거기 가둬서 사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넨 사계 어른인데 할머니랑 그 딸 하나 여기 와서 관가 각시로 들이박아 버리니까 그 딸 와서 사는 거 보려고 보성을 와서 살았지, 요 학교 뒤에.)

101002 @ 응.(응.)

101002 # 집 빌언 사는디 그 우리 고모가 아길 낫어. 아길 배엇어. 배난 우리 성할망이 집이 보냉은에 애길 나게꾸리 허젠 헌디 그 관개 서울서 온 사름이 집이 보내지 안허연. 지네 그 안에서 애기 나게꾸리 허난에 그디서 아기 난 누게 간수허여 줄 사름 엇이난 오꼿허게 아기가, 그 엿날엔 아기 나민 사름 잡사름도 못 뎅기게 허는디 오꼿 잘못허영 애기가 죽어부난 그 사름은 화딱지 난 경성으로 가불언게. 가부난 우리 고몬 살단 홧벵으로 죽어불고 경헨 우리 원래 세계 사람. 아부지네 하르방네 세곈디 똘덜 난 대정골[5] 오란 삼 시작허연 또시 우리 어무닌 대정골 보성 사름이난 아부진 보성 이칩이 장게들언 살고 경헷어.(집 빌려서 사는데 그 우리 고모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배었어. 배니까 우리 친할머니 집에 보내서 아길 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 관가 서울서 온 사람이 집에 보내지 않았어. 자기네 그 안에서 아기 나게끔 하니까 거기서 아기 낳아서 누구 간수해 줄 사람 없으니까 그만 아기가, 그 옛날엔 아기 낳으면 사람 잡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데 그만 잘못해서 아기가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화가 나서 경성으로 가버렸어. 가버리니까 우리 고모는 살다가 화병으로 죽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원래 사계 사람. 아버지네 할아버지네 사계인데 딸들 낳아서 대정골 와서 살기 시작해서 다시 우리 어머닌 대정골 보성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보성 이씨 집에 장가들어서 살고 그랬어.)

101002 @ 응, 경헷구나예.(응, 그렇게 했군요.)

101002 # 경 허난 이 성 둘른 것도 옛날엔이 바당에 먹돌[6]이 서. 이만썩헌 먹돌

5) '대정골'은 대정 고을의 준말로 대정현이 있었던 대정읍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잔뜩 ᄋᆞ져다근에 적 오민 적 오람젠 헤영 마치렌 허영 그 성 우이 빈주룽케[7] ᄋᆞ져 당 막 데며낫어. 먹돌 이만썩 헌 것덜.(그러니까 이 성 두른 것도 옛날엔 바다에 '먹돌'이 있어. 이만큼씩한 '먹돌' 잔뜩 가져다가 적 오면 적 온다고 해서 맞히려고 해서 그 성 위에 '빈주룽케' 가져다가 막 쌓았었어. '먹돌' 이만큼씩 한 것들.)

101002 @ 아, 영 마치젠.(아, 이렇게 맞히려고.)

101002 # 응, 경헤연 그 시절에 그 영허민 저 이제 우체국 어염이가 절동산[8]이엔 허여. 것ᄀᆞ라.(응,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이렇게 하면 저 이제 우체국 옆에가 '절동산'이라고 해. 그것보고.)

101002 @ 예.(예.)

101004 # 무사 절동산이엔 허민 경성서 그 사름 오라가민 사름덜 다 굽으렌.(왜 절동산이냐고 하면 경성에서 그 사람 와가면 사람들 다 굽으라고.)

101004 @ 절허렌?(절하라고?)

101004 # 업더지렌 헤영 사름 오라가민 그 심부름꾼덜이 절허렌 막 헤가민 분수 몰른 사름 오당 절 안헴젠 욕헤가민 업더졍 절허난. 우체국 뒤 글로 ᄂᆞ려오주게. 경성서. ᄂᆞ려오라 가민 그디 절허렌 헌 따문 그디 벨리가 절동산. 그디가 절동산.(엎드리라고 해서 사람 와가면 그 심부름꾼들이 절하라고 막 해가면 분수 모른 사람 오다가 절 안 한다고 욕하면 엎드려서 절했었어. 우체국 뒤 그리로 내려오지. 경성에서. 내려와 가면 거기 절하라고 한 때문에 거기 별명이 '절동산'. 거기가 '절동산'.)

101004 @ 아, 절동산.(아, '절동산'.)

101004 # 우체국 짓은 근방이 절동산이엔 벨리 헤낫어. 나가 이디서 나고 크고.(우체국 지은 근처가 '절동산'이라고 별명 했었어. 내가 여기서 나고 여기서 크고.)

101003 @ 할머니 옛날 어렷을 때 봐난 거 ᄀᆞᆯ아주민 뒈어예. 이 동네 사름덜은 주로 무신거 허멍 살아낫수과?(할머니 옛날 어렸을 때 봤던 거 말해주면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은 주로 무엇 하면서 살았었습니까?)

101003 # 농ᄉᆞ만 짓주게.(농사만 짓지.)

101003 @ 농ᄉᆞ만?(농사만?)

101003 # 게. 겨난 이 동네 사름덜은 좀 가난허난이 ᄒᆞᆯ 재산이 엇으난 곤란허여. 이 동네 사름덜이 곤란허영 살곡. 저 보성 사름덜은 토지가 널르난에 다 잘살아가난 애기덜이 다 면에나 도에나 엿날에 이 보성 사름덜만 간 다 지켯어. 멘서기던지 군에던지 어디든지 다 선생덜토 보성 사름덜이 선생이 밋밋[9] 나오고 그랫어. 인성 이제 선생 하나 나왓주게. 선생 애기덜 출세헌 디 엇어.(그렇지.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좀 가난하니까 조금 재산 없으니까 곤란해. 이 동네 사람들이 곤란해

6)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을 의미하는 제주어다.
7) '빈주룽케'는 '주의가 깊게', '유심히'를 뜻하는 제주어다.
8) '절동산'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우체국 근처의 지명으로 대정현성으로 오는 길목이다. 높은 벼슬아치들이 오면 절을 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9) '밋밋'은 거침없이 넘어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서 살고. 저 보성 사람들은 토지가 넓으니까 다 잘살아가니까 아기들이 다 면에나 도에나 옛날에 이 보성 사람들만 가서 다 지켰어. 면서기든지 군에든지 어디든지 다 선생들도 보성 사람들이 선생이 '밋밋' 나오고 그랬어. 인성 이제 선생 하나 나왔지. 선생 아기들 출세한 데 없어.)

101003 @ 예.(예.)

101003 # 이 보성은이 보성 임 선생 아덜이라고 임 선생네 집이 시 성젠디 우론 그 시국에 죽어부난 막둥이가 살안에 아덜 시 성제 난디 선생질헷어. 겐 대정골서 선생질 헌 사름 아기 출세헌 디가 하나토 엇은디 이디 임 선생 아덜덜은이 아덜 시 성제 다 출세허고 뚤덜토 선생허고 사우덜토 선생허고 그래서 혹교 선생 중에 출세헌 딘 임○○이 아덜네뿐이렌 허는 거라. 그렇게 가정교육도 잘 ᄀᆞ리쳐. 이제 임 선생 각신 살안에 아판 이제 서울 아덜네 집이 살단 이제 시에 오고 이디 부제칩이난 잇은디. 다른 애기덜 인성도 선생 싯고 안성도 선생 이서나도 자식덜 출세허연 아방 앚아난 자국 디딘 사름이 하나토 엇어.(이 보성은 보성 임 선생 아들이라고 임 선생네 집 삼 형제인데 위론 그 시국에 죽어버리니까 막둥이가 살아서 아들 삼 형제 낳았는데 선생질했어. 그래서 대정골에서 선생질 한 사람 아기 출세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임 선생 아들들은 아들 삼 형제 다 출세하고 딸들도 선생하고 사위들도 선생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 중에 출세한 덴 임○○ 아들네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가정교육도 잘 가르쳐. 이제 임 선생 부인은 살아서 아파서 이제 서울 아들네 집에 살다가 이제 시에 오고 여기 부잣집이니까 있는데. 다른 아기들 인성도 선생 있고 안성도 선생 있었어도 자식들 출세해서 아버지 앉았던 자국 디딘 사람이 하나도 없어.)

101003 @ 예.(예.)

101003 # 임 선생네 집뿐. 그딘이 큰아덜 선생, 족은아덜 선생, 메누리덜토 선생. 셋아덜, 셋메누리도 선생 뚤덜토 선생. 게난 셋아덜은 설계사무소 설계허는 거 허연 시에 살멍 막 집 짓는 설계허는 사름으로 잇곡 허난 다 돈 벌곡 부제로만 살게 뒌 그 집이 가정만 출세헷젠 다른 사름덜 선생 애기덜 그 집이뿐 출세헷어. 선생 애기덜 하나 뒌 디가 엇는디.(임 선생네 집뿐. 거긴 큰아들 선생, 작은아들 선생, 며느리들도 선생. 둘째아들, 둘째며느리도 선생, 딸들도 선생. 그러니까 둘째아들은 설계사무소 설계하는 거 해서 제주시에 살면서 막 집 짓는 설계하는 사람으로 있고 하니까 다 돈 벌고 부자로만 살게 된 그 집에 가정만 출세했다고 다른 사람들 선생 아기들 그 집만 출세했어. 선생 아기들 하나 된 데가 없는데.)

101001 @ 이 동넨 옛날부터 인성이엔 ᄀᆞᆯ앗수과?(이 동넨 옛날부터 인성이라고 말했습니까?)

101001 # 응, 인성.(응, 인성.)

101001 @ 다른 말 엇어?(다른 말 없어?)

101001 # 다른 말 엇어. 이 동넨 인성리서도 드러물동네[10]엔 허여.(다른 말 없

10) '드러물동네'는 제보자가 사는 자연마을 이름으로 '드러물'은 그 동네 용천수 이름이다.

어. 이 동넨 인성리서도 ‘드러물동네’라고 해.)

101001 @ 무신 동네?(무슨 동네?)

101001 # 드러물, 드러물. 이디 물이 시니까.(‘드러물’, ‘드러물’. 여기 물이 있으니까.)

101004 @ 드러물이 뭐?(‘드러물’이 뭐?)

101004 # 여기 물이 이서. 우물.(여기 물이 있어. 우물.)

101004 @ 우물 이름이 드러물?(우물 이름이 ‘드러물’?)

101004 # 응, 드러물. 저딘 드러물 나는 물이라.(응, ‘드러물’. 저긴 ‘드러물’ 나는 물이야.)

101004 @ 이디 우물터 갓다 완마씨. 그디 나는물?(여기 우물터 갔다 왔어요. 거기 산물?)

101004 # 엿날에 여름에 시원허고 겨울엔 뜨뜻허고 경헹 물 허민 여름엔 밧듸 강 오민 시원헌 물 질어오렌 허영 냉국허영 먹곡 겨울엔 ᄂᆞ물 싯젠 허민 물 져당 뜨뜻헌 물로 ᄂᆞ물 싯곡 허는디 이젠 각처에 귤밧덜 허영. 귤밧에 이제 지하 막 판에 물덜 허곡 허난.(옛날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렇게 해서 물 하면 여름엔 밭에 갔다 오면 시원한 물 길어오라고 해서 냉국해서 먹고 겨울엔 나물 씻으려고 하면 물 져다가 따뜻한 물로 나물 씻고 하는데 이젠 각처에 귤밭들 해서. 귤밭에 이제 지하 막 파서 물들 하고 하니까.)

101004 @ 지하수.(지하수.)

101004 # 그디 물이 ᄒᆞ꼼 이서도 물이 나지 안허엿어. 물 질질 낭은에 저레 ᄂᆞ리민 빨래덜토 헤여난디 이젠 그 안네 물 싯곡 허연. 요디 우물 이서.(거기 물이 조금 있어도 물이 나지 않았어. 물 질질 나서 저리 내리면 빨래들도 했었는데 이젠 그 안에 물 있고 해서. 요기 우물 있어.)

101004 @ 예, 갓다 완.(예, 갔다 왔어.)

101004 # 갓다 완? 밋창에만 물 이서.(갔다 왔어? 밑창에만 물 있어.)

101004 @ 예, ᄒᆞ꼼.(예, 조금.)

101004 # 게민 밋창에 물 이신 땐 우이 잇은 땐 허벅으로 ᄃᆞᆼ그곡 또 중간에 물 시민 드르박으로 뜨고 드르박으로 떵인에 허벅드레 질엉 허는디 막 안네 들어가민 허벅 진 냥 안네 강 안네 부리는 디서 박세기로 그 물 질엉 놩인에 또 깅이 발듯 올라와. 우리 처녀 시절에.(그러면 밑창에 물 있을 땐 위에 있을 땐 허벅으로 담그고 또 중간에 물 있으면 두레박으로 뜨고 두레박으로 떠서 허벅에 길어서 하는데 아주 안에 들어가면 허벅 진 대로 안에 가서 안에 부리는 데서 바가지로 그 물 길어서 놔서 또 게 걸어가듯 올라와. 우리 처녀 시절에.)

101004 @ 아, 그디 계단 엇이난?(아, 거기 계단이 없으니까?)

101004 # 계단 다 손젭이도 이서. 경 허멍 그 물 헤난디 각처에 귤밧 허연 다 지하수 파는 따문 저렇게 흘리질 안허여. 흘리질 안허여.(계단 다 손잡이도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 물 했었는데 각처에 귤밭 해서 다 지하수 파는 때문 저렇게 흐르

질 않아. 흐르질 않아.)

101004 @ 옛날 이름은 엇어? 이디, 인성리, 동성리, 서성리 영허는 말 엇어난?(옛날 이름은 없어? 여기, 인성리, 동성리, 서성리 이렇게 하는 말 없었어?)

101004 # 인성 ᄆᆞ을이엔 그거뿐이고.(인성 마을이라고 그거뿐이고.)

101004 @ 옛날부터 인성 ᄆᆞ을.(옛날부터 인성 마을.)

101004 # 요딘 안성 ᄆᆞ을이엔 허고 저건 보성 ᄆᆞ을이엔. 보성은 저레 가민 그 보성 ᄒᆞ쏠 영 올라가는 디 이서. 건 독고동산[11]이엔 허고.(요긴 안성 마을이라고 하고 저건 보성 마을이라고. 보성은 저리 가면 그 보성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 그건 '독고동산'이라고 하고.)

101004 @ 독고동산?('독고동산'?)

101004 # 응, 독고동산.(응, '독고동산'.)

101001 @ 무사 덕수는 새당[12]이엔 헙니께. 이딘 그런 말 엇어난?(왜 덕수는 '새당'이라고 하잖습니까? 여긴 그런 말 없었어?)

101001 # 엇어. 대정굴이엔만 허고.(없어. 대정골이라고만 하고.)

101001 @ 그냥 대정골, 이딘 옛날은 대정골.(그냥 대정골, 여긴 옛날은 대정골.)

101001 # 삼 리가 무조건 대정골.(삼 리가 무조건 대정골.)

101001 @ 대정골은 어디 어디가 대정골?(대정골은 어디 어디가 대정골?)

101001 # 이 전체 인성 ᄆᆞ을이고 안성이고 대정골 안네.(이 전체 인성 마을이고 안성이고 대정골 안에.)

101001 @ 인성, 보성, 안성 세 개가 대정골?(인성, 보성, 안성 세 개가 대정골?)

101001 # 응, 대정골.(응, 대정골.)

101001 @ 저디 상모리[13], 하모린[14] 아니고예?(저기 상모리, 하모린 아니고요?)

101001 # 응, 상모리, 하모린 아니고.(응, 상모리, 하모린 아니고.)

101001 @ 옛날 이디가 대정골이라예.(옛날 여기가 대정골이라고요.)

101001 # 이디가 대정골 삼 리.(여기가 대정골 삼 리.)

101004 @ 이 주변에 산이나 내창이나 이런 큰 바위나 이런 거.(이 주변에 산이나 내나 이런 큰 바위나 이런 거.)

101004 # 없어.(없어.)

101004 @ 단산.(단산.)

101004 # 단산[15]은 저거 세계 지경.(단산은 저거 사계 지경.)

101004 @ 건 세계 지경? 인성리 지경 아니?(그건 사계 지경? 인성리 지경 아니?)

101004 # 응, 세계 지경.(응, 사계 지경.)

---

11) '독고동산'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의 동산 이름이다.
12) '새당'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의 옛 이름이다.
13) '상모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를 말한다.
14) '하모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를 말한다.
15) '단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바굼지오름'이라고도 한다.

101004 @ 아, 건 사계 지경.(아, 그건 사계 지경.)

101004 # 옛날에 이디서 ᄃᆞ투멍 허연 세계안티 젼에 세계 단산은 세계 ᄎᆞ지허연.(옛날에 여기서 다투면서 해서 사계에 져서 사계 단산은 사계 차지했어.)

101004 @ 인성리 ᄆᆞ을에 산은 엇어?(인성리 마을에 산은 없어?)

101004 # 산 엇어.(산 없어.)

101004 @ 오름도 엇고?(오름도 없고?)

101004 # 응.(응.)

101004 @ 낭허렌 어디 갑니까? 게민.(나무하러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101004 # 낭허렌 저 산더레 올라가주게.(나무하러는 저 산으로 올라가지.)

101004 @ 아, 한라산드레.(아, 한라산으로.)

101004 # 응.(응.)

101004 @ 단산엔 안 가?(단산엔 안 가?)

101004 # 단산에 낭 못허게 헷어. 엿날에 엿날엔 단산에 저렇게 낭 없엇어. 우리 클 때. 그자 테역만 잇고 새만 낫는디 이제 살아가난 자기대로 낭밧이 뒈어불엇지. 낭이 엇어.(단산에 나무 못하게 했어. 옛날에 옛날엔 단산에 저렇게 나무 없었어. 우리 클 때. 그저 잔디만 있고 띠만 있는데 이제 살아가니까 자기대로 나무밭이 되어버렸지. 나무 없어.)

101004 @ 게민 단산은 혹시 옛날에 다른 이름으로 불러낫수과?(그러면 단산은 혹시 옛날에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습니까?)

101004 # 엿날 일름이 바굼지오름.(옛날 이름이 '바굼지오름'.)

101004 @ 아, 단산 이름이 옛날은 바굼지오름.(아, 단산 이름이 옛날은 '바굼지오름'.)

101004 # 응, 바굼지오름.(응, '바굼지오름'.)

101004 @ 건 무신 말?(그건 무슨 말?)

101004 # 몰라게. 바굼지오름이엔 헤근에. 바굼지오름에 그디 산물이 이서.(몰라. '바굼지오름'이라고 해서. '바굼지오름'에 거기 산물이 있어.)

101004 @ 산물?(산물?)

101004 # 응, 그 이제.(응, 그 이제.)

101004 @ 나는물예?('나는물'요?)

101004 # 응, 나는물 이섯어. 경 허민 바굼지오름에 강은에 시원헌 물도 질어당 먹곡 헷어. 지금도 그 물이 이실 거라.(응, 산물 있었어. 그러면 '바굼지오름'은 가서 시원한 물도 길어다 먹고 했어. 지금도 그 물이 있을 거야.)

101004 @ 이 동네 내창은 엇어?(이 동네 내창은 없어?)

101004 # 내창은 엇어.(내창은 없어.)

101004 @ 내창은 엇고 나는물은?(내창은 없고 산물은?)

101004 # 이 나는물 이선에 저 성덜 다불고 허난 저레 밋밋 밧더레 ᄂᆞ리민 빨래덜 들구 헤나신디 이젠 그런 것이 엇어져 불언.(이 산물 있어서 저 성들 쌓아버리고

하니까 저리 ‘밋밋’ 밭으로 내리면 빨래들 마구 했었는데 이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

101004 @ 거난 옛날에 뭐뭐 이서낫수과? 그런 나는물이, 이디 우물터허고.(그러니까 옛날에 뭐뭐 있었습니까? 그런 산물이, 여기 우물터하고.)

101004 # 이 우물로 팡팡 ᄂᆞ려낫주게.(이 우물로 팡팡 내렸었지.)

101004 @ 그거 ᄒᆞ나뿐?(그거 하나뿐?)

101004 # 응.(응.)

101004 @ 아, 인성 ᄆᆞ을엔 그거 ᄒᆞ나뿐.(아, 인성 마을엔 그거 하나뿐.)

101004 # 인성리 물은 죽은물[16] 저 아래 잇주게.(인성리 물은 ‘죽은물’ 저 아래 있지.)

101004 @ 어디?(어디?)

101004 # 저 알펜이.(저 아래쪽에.)

101004 @ 그딘 이름이 무신거라?(거긴 이름이 무엇이야?)

101004 # 농협 앞이. 남은앞물[17]이엔 허여. 남은앞물.(농협 앞에. ‘남은앞물’이라고 해. ‘남은앞물’.)

101004 @ 농협 앞이 남은앞물?(농협 앞에 ‘남은앞물’?)

101004 # 응, 남은앞물.(응, ‘남은앞물’.)

101004 @ 그 물도 강은에 빨래허고 물 질레도 가난?(그 물도 가서 빨래도 하고 물 길러도 갔었어?)

101004 # 엿날에 그디 먹는 물도 서근에 죽은물 질어당 먹고 그디서 빨래허곡 막 허엿주마는 이젠 빨래도 안허곡.(옛날에 거기 먹는 물도 있어서 ‘죽은물’ 길어다 먹고 거기서 빨래하고 막 했지만 이젠 빨래도 않고.)

101004 @ 이건 무사 죽은물?(이건 왜 ‘죽은물’?)

101004 # 게 ᄀᆞᆯ른 거난 물 죽엇젠. 사는 물이 아니난.(그러게 고인 거니까 물 죽었다고. 사는 물이 아니니까.)

101004 @ 아, 나는 게 아니난. 옛날에도 죽은물이라낫수과?(아, 나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도 ‘죽은물’이었었습니까?)

101004 # 게, 엿날도게 나는물이 아니난. 나는물은 산물이엔 허고.(그렇지, 옛날도 ‘나는물’이 아니니까. ‘나는물’은 산물이라고 하고.)

101004 @ 아, 나는물은 산물이고 그냥 ᄀᆞᆯ른 물은 죽은물.(아, ‘나는물’은 산물이고 그냥 고인 물은 ‘죽은물’.)

101004 # 응, 죽은물.(응, ‘죽은물’.)

101004 @ 쉐 멕이레 가젠 허민 이디 죽은물에 가? 쉐 물 멕이레.(소 먹이러 가려고 하면 여기 ‘죽은물’에 가? 소 물 먹이러.)

101004 # 게, 물 멕이레 인성 사름덜은 저 물 멕이고 보성 사는 사름덜은 저디

16) ‘죽은물’은 산물의 반대말로 비가 내려서 고인 물을 이르는 말이다.
17) ‘남은앞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농협 앞쪽에 있었던 연못을 이르는 말이다.

또 죽은물, 큰 물 이서. 그 물 멕이고. 경 허난 그 ᄀᆞ무는 해에 ᄀᆞ문 해에 제주도 다 ᄀᆞ물안 다 물 엇은 때. 보성은 질 땅이난 질왓 땅이난 저 서광, 동광 사름덜이 전시 이 독고동산 붉은물[18]이엔 헌 디 오란 물덜 멕여서, 쉐덜, 그때. 인성도 죽은물 땅이난에 재개 뿔어불고 이 보성은 질왓이난에 물이 그때도록 셔. 게민 저 동광 사름덜토 막 쉐덜 몰앙 오랑 물 멕이곡 헤낫저마는 이젠 어디던지 나는물덜 멘들앙 파 놓니까 물 멕이레도 안 뎅기고.(그렇지, 물 먹이러 인성 사람들은 저 물 먹이고 보성 사는 사람들은 저기 또 '죽은물', 큰 물 있어. 그 물 먹이고. 그러니까 그 가문 해에 가문 해에 제주도 다 가물어서 다 물 없을 때. 보성은 진 땅이니까 진밭 땅이니까 저 서광, 동광 사람들이 전부 '독고동산' '붉은물'이라고 한 데 와서 물들 먹였어, 소들, 그때. 인성도 '죽은물' 땅이니까 재게 삐어버리고 이 보성은 진밭이니까 물이 그때도록 있어. 그러면 저 동광 사람들도 막 소들 몰아서 와서 물 먹이고 했었다마는 이젠 어디든지 산물들 만들어서 파 놓으니까 물 먹이러도 안 다니고.)

101004 @ 보성은, 질왓은 땅이 ᄒᆞ꼼 진가?(보성은, 진밭은 땅이 조금 진가?)

101004 # ᄎᆞᆫᄒᆞᆨ밧, ᄎᆞᆫᄒᆞᆨ.(찰흙밭, 찰흙.)

101004 @ 아, ᄎᆞᆫᄒᆞᆨ밧.(아, 찰흙밭.)

101004 # ᄎᆞᆫ헉으로 옹기도 멘드는 거 아냐? 경 허난에 ᄎᆞᆫᄒᆞᆨ땅이난에 물이 오래 앚아.(찰흙으로 옹기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찰흙땅이니까 물이 오래 앉아.)

101004 @ 보성은. 인성은 경 안허고?(보성은. 인성은 그렇지 않고?)

101004 # 인성은 죽은물이난에 ᄀᆞ물민 먹는 물도 엇어져 불어. 게민 인성 사름덜은 이제 단산에 새미물[19]이엔 헌 거 것 강 질어당 먹곡.(인성은 '죽은물'이니까 가물면 먹는 물도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인성 사람들은 이제 단산에 '새미물'이라고 한 거 그거 가서 길어다 먹고.)

101004 @ 단산에 새미물. 이디 큰 바위나 굴 같은 건 엇수과?(단산에 '새미물'. 여기 큰 바위나 굴 같은 건 없습니까?)

101004 # 굴 같은 건 엇어. 굴 같은 건 엇어.(굴 같은 건 없어. 굴 같은 건 없어.)

101004 @ 사삼 때 어디 강 곱아낫저 허는 디 엇어?(사삼 때 어디 가서 숨었었다 허는 데 없어?)

101004 # 곱아나지 안허연, 사삼사건에. 그 일본놈덜 오란 자기대로 굴 판 것덜 잇지. 엿날부터 파진 굴은 없엇어. 게난 일본 군인덜 오란 용ᄆᆞ루[20] 근방에도 다 판에 굴덜 멘들고 경헷주. 그런 굴은 옛날부터 없어.(숨지 않았어, 사삼사건에. 그 일본놈들 와서 자기대로 굴 판 것들 있지. 옛날부터 파인 굴은 없었어.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 와서 '용ᄆᆞ루' 근방에도 다 파서 굴들 만들고 그랬지. 그런 굴은 옛날부터 없어.)

101005 @ 옛날부터 이서난 굴은 엇어예. 이 마을엔 어떤 기관들이 이서마씨?

18) '붉은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었던 연못 이름이다.
19) '새미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단산 앞의 산물 이름이다.
20) '용ᄆᆞ루'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용머리를 말한다.

학교 잇고.(옛날부터 있었던 굴은 없어요. 이 마을엔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101005 # 혹교도 보성. 옛날 멘이엔 헌 디 요디 학교 동녁펜이 꼿 사발덜 막 논 디 이서. 것이 옛날 저 멘 서난 디. 그 큰 집.(학교도 보성. 옛날 면이라고 한 데 요기 학교 동쪽편에 꽃 사발들 막 놓은 데 있어. 그것이 옛날 저 면 있었던 데. 그 큰 집.)

101005 @ 면사무소?(면사무소?)

101005 # 멘이라낫어. 요새 ᄀᆞ뜨민 읍사무소 닮은 거. 그거 이서낫어. 엿날에 그거 잇고 또시 그 보성이 학굔 저레 가는 디 보성 학교 ᄒᆞ꼬만헌 거 싯단 큰 물 저끗디 간 보성학교 짓엇단 이젠 이디 크게 또시 내려오란 혹교 짓엇주게.(면이었었어. 요새 같으면 읍사무소 같은 거. 그거 있었었어. 옛날에 그거 있고 또 이 보성이 학교는 저리 가는 데 보성 학교 조그마한 거 있다가 큰 물 곁에 가서 보성학교 지었다가 이젠 여기 크게 다시 내려와서 학교 지었지.)

101005 @ 인성 학굔 엇어?(인성 학교는 없어?)

101005 # 인성 학굔 없엇어. 게난 보성 학교서 보성학교 계숙 잇고 요디 옛날에 멘 이서나고 허난. 멘에 우리 어무니가 팔 남매난에 우리 어무니 오래비덜 이 멘에서 이성은에 허민 어멍 아방 젊은 때 죽어부난 우리 어무니 이디 사난 아칙이 조반 허민 강 외삼춘 들아당 밥 먹으렌 허곡 헤낫주. 그땐 초신 신엉 눈 오민 발 실룅 죽어지게 아프고 경헹 오랑 허멍 헤낫저마는.(인성 학교는 없었어. 그러니까 보성 학교에서 계속 있고 요기 옛날에 면 있었고 하니까. 면에 우리 어머니가 팔 남매니까 우리 어머니 오라비들 이 면에서 있어서 하면 어머니 아버지 젊을 때 죽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 여기 사니까 아침에 조반 하면 가서 외삼촌 데려다가 밥 먹으라고 하고 했었지. 그땐 짚신 신어서 눈 오면 발 시려서 죽을 듯이 아프고 그래서 와서 하면서 했었다마는.)

101005 @ 이디 성 이실 땐 관개 말고 다른 건 엇어낫수과?(여기 성 있을 땐 관가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101005 # 다른 건 엇고. 엿날에도 성만 이서나고 성 우이 엿날엔 박석돌이엔 헌 거 공구리 닮은 거 빈주룽케[21] 끌아져난디 이 시국이 벤헨 저 성담도 없어낫어. 싹 이 군인 ᄇᆞ름에 성담도 엇엇단 엿날 성담 엇엇단 이젠 또 성 다렌 헨 시꺼단 단 거.(다른 건 없고. 옛날에도 성만 있었고 성 위에 옛날엔 박석이라고 한 거 콘크리트 같은 거 '빈주룽케' 깔려 있었는데 이 시국에 변해서 저 성담도 없었어. 싹 이 군인 바람에 성담도 없었다가 옛날 성담 없었다가 이젠 또 성 쌓으라고 해서 실어다가 쌓은 거.)

101005 @ 옛날엔 엇어난 거예.(옛날엔 없었던 거요.)

101005 # 엿날에 헤난 걸로.(옛날에 했던 걸로.)

101005 @ 옛날에 헤난 식으로예. 이디 오당 보민 돌하르방도 막 하영 이시던데.(옛날에 했던 식으로요. 여기 오다가 보며 돌하르방도 아주 많이 있던데.)

---

21) '빈주룽케'는 여기저기 흔하게 널려 있거나,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1005 # 거 돌하르방 엿날부터 이슨 거. 엿날부터 이성인에 저 서펜인 서문 돌하르방 세우고 동문에 세우고 남문에도 돌하르방 세우고 기추룩 헤낫어.(거 돌하르방 옛날부터 있던 거. 옛날부터 있어서 저 서편에 서문 돌하르방 세우고 동문에 세우고 남문에도 돌하르방 세우고 그처럼 했었어.)

101005 @ 문에 ᄒᆞ나씩?(문에 하나씩?)

101005 # 우리 어린 때부터 그 돌하르방은 이섯어. 어린 때부터. 이젠 각처에 돌하르방이 천지.(우리 어릴 때부터 그 돌하르방은 있었어. 어릴 때부터. 이젠 각처에 돌하르방이 천지.)

101005 @ 경헤도 것덜은 가짜. 이제야 만든 거고 이디 신 건 옛날부터 이서난 거잖아예?(그래도 그것들은 가짜. 이제야 만든 거고 여기 있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101005 # 응, 옛날 우리 어린 때부떠 이서.(응, 옛날 우리 어릴 때부터 있어.)

101005 @ 이 조끗듸 우체국 잇고, 노인당은 ᄒᆞ나뿐이꽈?(이 곁에 우체국 있고, 노인당은 하나뿐입니까?)

101005 # 안성 노인당 또시.(안성 노인당 또.)

101005 @ 아니, 인성 노인당.(아니, 인성 노인당.)

101005 # 인성 노인당 저 밋테.(인성 노인당 저 밑에.)

101005 @ ᄒᆞ나 잇고예. 그거 말고 인성린 특별헌 거 엇수과? 추사관은?(하나 있고요. 그거 말고 인성린 특별한 거 없습니까? 추사관은?)

101005 # 거 안성 추사관 아이가?(그거 안성 추사관 아니냐?)

101005 @ 것도 안성에 뺏겨불어수과?(그것도 안성에 뺏겨버렸습니까?)

101005 # 아니, 질이 안성이주게. 이 질 우짝은 안성. 일로 질 요디 열 십 제 잇저. 겡허민 보성은 욜로 허여근에 저레 보성이지 또 요디 열 십 자로 이성 욜로 안성이지, 질 우녁짝으론 안성. 또 욜로 헨 이건 또 기역 자로 이슨 거주게. 보성이 널러.(아니, 길이 안성이지. 이 길 위쪽은 안성. 이리로 길 요기 열 십 자로 있어. 그래서 보성은 요리로 해서 저리 보성이지 또 여기 열 십 자로 있어서 요리로 안성이지, 길 위쪽으론 안성. 또 요리로 해서 이건 또 기역 자로 있는 거지. 보성이 넓어.)

101005 @ 보성이 널러.(보성이 넓어.)

101005 # 보성 지경이 널르고 토지가 좋으난에 보성 사름덜 다 출세허고 잘살앗주게. 보성엔 밧이 좋난 곡석이 좋민 농부덜 살기가 좋고, 이, 이렌 땅이 죽으난 곡석이 잘 아이 뒈민 만날 벌어봐도 힘들엉 아이덜 공부시김이 어린 때 보민 훌륭헌 남저덜, 청년덜 우리 우이 청년덜 공부시기는 사름이 엇더라게.(보성 지경이 넓고 토지가 좋으니까 보성 사람들 다 출세하고 잘살았지. 보성엔 밭이 좋으니까 곡식이 좋으면 농부들 살기가 좋고, 이, 이런 땅이 죽으니까 곡식이 잘 안 되면 만날 벌어봐도 힘들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기가 어릴 때 보면 훌륭한 남자들, 청년들 우리 위에 청년들 공부시키는 사람이 없더라.)

101005 @ 향교는 대정 향교. 건 인성리지예?(향교는 대정 향교. 그건 인성리지요?)

101005 # 셍교는 인성도 아니고 상교는 그자 세계 ᄆᆞ을에 셍교라.(향교는 인성도 아니고 향교는 그저 사계 마을의 향교야.)

101005 @ 것도 사계 ᄆᆞ을이라, 대정 향끈디?(그것도 사계 마을이야, 대정 향교인데?)

101005 # 세계 지경이난.(사계 지경이니까.)

101005 @ 것도 사계 지경?(그것도 사계 지경?)

101005 # 세계 지경게. 단산 세계 지경.(사계 지경. 단산 사계 지경.)

101006 @ 인성린 뭐 이신 게 엇인게, 다 뺏겨불언. 게민 이 마을에 접 같은 거 계 같은 거 이서낫수과?(인성린 뭐 있는 게 없네, 다 뺏겨버려서. 그러면이 마을에 접 같은 거 계 같은 거 있었습니까?)

101006 # 접?(계?)

101006 @ 계 들어근에 마을 사름덜끼리 친목.(계 들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친목.)

101006 # 친목계? 그런 거 보성덜이영 전이덜은 선게 어떵사 파장사 뒈신디 이젠 살기 좋난 그런 것도 안허고. 친목 요새 젊은 것덜 구경덜 가고 드러 헴주게.(친목계? 그런 거 보성들이랑 전에들은 있던데 어떻게 파장이야 되었는지 이젠 살기 좋으니까 그런 것도 않고. 친목 요새 젊은 것들 구경들 가고 들이 하고 있지.)

101006 @ 마을 사름덜끼리?(마을 사람들끼리?)

101006 # 자기네 마을 사름덜끼리도 허고 안성 사름덜이영 친구덜끼리 허영덜 여행가곡 허여.(자기네 마을 사람들끼리도 하고 안성 사람들이랑 친구들끼리 해서들 여행가고 해.)

101006 @ 이젠 친구덜끼리 헴주마는 옛날은 마을 사름덜ᄀᆞ치 허곡 안 혜낫수과?(이젠 친구들끼리 하고 있지마는 옛날은 마을 사람들같이 하고 안 했었습니까?)

101006 # 엿날 엿날에 우리 클 때엔 보성 학교 오랑인에 서로 시합을 부떠. 우리 아인 때이. 시합을 부뜨민 구억[22], 신펭[23] 사름덜도 텍도 엇곡 인성 사름덜도 텍도 없어. 보성 사름덜이 어떻게 요망진디 일등을 허더라.(옛날 옛날에 우리 클 때엔 보성 학교 와서 서로 시합이 붙어. 우리 아이일 때. 시합이 붙으면 구억, 신평 사람들도 턱도 없고 인성 사람들도 턱도 없어. 보성 사람들이 어떻게 야무진지 일등을 하더라.)

101006 @ 이딘 보성이.(여긴 보성이.)

101006 # 보성 사름덜이 아덜덜 무조건 그자 나민 일본 돌앙 가근에 아방은 아덜 돌앙 일본 가근에 큰 사름 멘들앙 제주도 오랑은에 직허멍덜 살고 경헌 어른덜이 한한혜낫어.(보성 사람들이 아들들 무조건 그저 낳으면 일본 데리고 가서 아버지

22) '구억'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를 말한다.
23) '신펭'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는 아들 데리고 일본 가서 큰 사람 만들어서 제주도 와서 지키면서들 살고 그런 어른들이 많았었어.)

101007 @ 인성리에 내려오는 풍습 같은 거 엇수과?(인성리에 내려오는 풍습 같은 거 없습니까?)

101007 # 그런 건 잘 모르크라. 풍습이 엇어.(그런 건 잘 모르겠어. 풍습이 없어.)

101007 @ 다른 마을허곡 ᄒᆞ꼼 ᄐᆞ난 거.(다른 마을하고 조금 다른 거.)

101007 # ᄯᅳ난 거 인성은 없어. 옛날에 이젠 보통으로 잘 살암주마는 옛날엔이 인성 토지덜토 박허여. 땅이 죽은 거난이. 곡석이 잘 뒈지 안혜영. 경 허난에 살기가 힘들어. 보리도 죽곡이 우리 클 때 그러대. 이젠 다 비료 사용헐 때난 느나엇이 마농덜토 허고 게도 지금도 보성 사름덜이 마농도 더 허곡 옛날에 감저뻿데기 헐 때도 보성 사름덜은 감저뻿데기 백 가멩이 헷저, 이백 가멩이 헷저 허는디 인성은 꼭ᄀᆞ치 말지기 헤도 근수가 안 나가. 근이 안 나가.(다른 거 인성은 없어. 옛날에 이젠 보통으로 잘 살고 있지마는 옛날엔 인성 토지들도 박해. 땅이 죽은 거니까. 곡식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 보리도 죽고 우리 클 때 그러더라. 이젠 다 비료 사용할 때니까 너나없이 마늘들도 하고 그래도 지금도 보성 사람들이 마늘도 더 하고 옛날에 절간고구마 할 때도 보성 사람들은 절간고구마 백 가마니 했다, 이백 가마니 했다 하는데 인성은 똑같이 마지기 해도 근수가 안 나가. 근이 안 나가.)

101007 @ 무사? 여물이 안 들언?(왜? 알맹이가 안 들어서?)

101007 # 땅이 단단허지 안허난. 우리도 덕수[24] 밧듸 보리 강은에 ᄒᆞᆫ 가멩이 ᄋᆞ져오랑 저울이민 이디선 ᄒᆞᆫ 가멩이 대정골 밧듸서 ᄒᆞᆫ 가멩이 저울이민 솔박으로 거려 ᄋᆞ져사 메다[25]가 꼭같아. 덕수도 경 근 안 나가.(땅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덕수 밭에 보리 가서 한 가마니 가져와서 달면 여기선 한 가마니 대정골 밭에서 한 가마니 달면 '솔박'으로 떠서 가져야 미터가 똑같아. 덕수도 그렇게 근 안 나가.)

101007 @ 땅이 안 좋아예.(땅이 안 좋아요.)

101007 # 땅이 죽은 땅이난. 인성도 그러대. 감저뻿데기도 허민 인성 지경에 감제 싱그민 뻿데기 ᄆᆞᆯ리민 저울로 저울이젠 허민 감제 막 부수와근에 허고 저디선 수왕수왕 담아도 메다가 탁탁 게난 보성 엿날 우리 나 장ᄉᆞ 뎅길 때 정읫어른덜 대정골 보리밥이 맛 좋[존]넨 허영 오랑 보리쏠덜 바꽈 가고 허더라게. 보리쏠 대정보리쏠.(땅이 죽은 땅이니까. 인성도 그렇더라. 절간고구마도 하면 인성 지경에 고구마 심으면 절간고구마 말리면 저울로 달려고 하면 고구마 막 부숴서 하고 저기선 '수왕수왕' 담아도 미터가 딱딱 그러니까 보성 옛날 우리 나 장사 다닐 때 정의 어른들 대정골 보리밥 맛 좋다고 해서 와서 보리쌀들 바꿔 가고 하더라. 보리쌀 대정보리쌀.)

---

24)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25) '메다'는 길이의 단위인 '미터'에서 온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무게의 단위인 '그램'을 써야 맞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01007 @ 대정 보리쏠이 맛 좋[존]넨.(대정 보리쌀이 맛 좋다고.)

101007 # 젊을 때 감저씨 장ᄉᆞ헷주게. 경헹 강 옷귀[26], 수망리[27] 강 감제씨 차로 하나씩 상 오민 보리쏠 ᄋᆞ정강 저 수망리 강 이장네 집이 강 감제씨 사젠 허난 그 보리쏠 먹지 맙센 허멍 지네 보리쏠 먹으렌 허난 밥 달달 털어지멍 먹지 못헤렌게. 수망리, 옷귀, 수망리.(젊을 때 고구마씨 장사했지. 그래서 가서 의귀, 수망리 가서 고구마씨 차로 하나씩 사서 오면 보리쌀 가져가서 저 수망리 가서 이장네 집에 가서 고구마씨 사려고 하니까 그 보리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네 보리쌀 먹으라고 하니까 밥 달달 떨어지면서 먹지 못하더래. 수망리, 의귀, 수망리.)

101007 @ 아, 그 동네도 땅이 안 좋아.(아, 그 동네도 땅이 안 좋아.)

101007 # 그렌 아무것도 안허고 무수 갈안 생기리만 헴덴. 생기리만. 경 허난에 이레 꿰도 갈민 좋쿠다헨 꿰씨도 ᄋᆞ져다 주고헨 막 친허게 허여낫주게. 경 허난 첨 그 어른 이젠 성씨네 집이란게 이장집, 사름덜 막 좋아라게.(그리는 아무것도 않고 무 갈아서 무말랭이만 한다고. 무말랭이만. 그러니까 이리 깨도 갈면 좋겠다고 해서 깨씨도 가져다 주고 해서 아주 친하게 했었지. 그러니까 참 그 어른 이젠 성씨네 집이던데 이장댁, 사람들 아주 좋더라.)

101008 @ 이 마을엔 무신거가 젤 하영 납니까?(이 마을엔 무엇이 제일 많이 납니까?)

101008 # 게, 미깡이 하영 나주게.(글쎄, 귤이 많이 나지.)

101008 @ 미깡 허기 전인?(귤 하기 전엔?)

101008 # 허기 전인게 고구마뺏데기 허영 젤.(하기 전엔 절간고구마 해서 제일.)

101008 @ 그게 젤 하영?(그게 제일 많이?)

101008 # 보리도 하영 나오곡게.(보리도 많이 나오고.)

101008 @ 보리허고 감저허고. 주로 허는 게 그거라낫수과?(보리하고 고구마하고. 주로 하는 게 그거였었습니까?)

101008 # 게.(그렇지.)

101009 @ 이 마을에 자랑거리?(이 마을에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 거벳긔 더 시냐? 무신 자랑헐 거 시느니? 아기덜 다 훌륭헌 사름덜 보성 사름덜은. 이디 조 선생네도 아덜 성제 일본 강 공부시기멍 훌륭헌 사름 멘들앗지. 저 보성 사름덜토 만딱 우리 그디 어무니 ᄉᆞ촌 아덜도 ᄉᆞ춘 서방 아덜 성제 일본 간에 다 공부시견 큰아덜은 제주도 오란 대학교 선생질허고 또 셋아덜은 남군서로 이섯당 도의훼 들어가고 그추룩 허멍 훌륭헌디 인성 사름덜은 아기덜 출세시기젠 안허더라게. 그자 장남추룩 일만 부령 허젠 허영. 경혜영 곡석이라도 놈의 밧듸 열 말 나는 것이 열 말 나도 근으론 텍도 없어. 땅으로도 틀령.(자랑거리 그것밖에 더 있냐? 무슨 자랑할 거 있니? 아기들 다 훌륭한 사람들 보성 사람들은. 여기 조 선생네도 아들 형제 일본 가서 공부시키면서 훌륭한 사람 만들었지. 저 보

26) '옷귀'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의 옛 이름이다.
27) '수망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성 사람들도 모두 우리 거기 어머니 사촌 아들도 사촌 서방 아들 형제 일본 가서 다 공부시켜서 큰아들은 제주도 와서 대학교 선생질하고 또 둘째아들은 남군서로 있었다가 도의회 들어가고 그처럼 하면서 훌륭한데 인성 사람들은 아기들 출세시키려고 않더라. 그저 머슴처럼 일만 부려서 하려고 해서. 그래서 곡식이라도 남의 밭에 열 말 나는 것이 열 말 나도 근으로는 턱도 없어. 땅으로도 틀려서.)

101010 @ 옛날에 한남의숙이엔 헌 학교 이서낫수과?(옛날에 한남의숙이라고 한 학교 있었습니까?)

101010 # 엇어.(없어.)

101010 @ 학교, 옛날에. 학교 닮은 거.(학교, 옛날에. 학교 같은 거.)

101010 # 엿날에 요디 학교 닮은 거 서당이엔 헌 거 이서낫어. 처암에 우리 어린 때 서당이엔 헨 허엿단 이젠 일본 간 돈 하영 벌언 오난 학교 서당이엔 헌 거 짓으렌 허연 저 물, 큰 물 앞이 간 큰 밧 산에 큰 국민혹교 허연. 게난에 모실포 아으덜토 이디 대정골 국민학교 오란 뎅겻어.(옛날에 요기 학교 같은 거 서당이라고 한 거 있었어. 처음에 우리 어릴 때 서당이라고 해서 했다가 이젠 일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오니까 학교 서당이라고 한 거 지으라고 해서 저 물, 큰 물 앞에 가서 큰 밭 사서 큰 국민학교 해서. 그러니까 모슬포 아이들도 여기 대정골 국민학교 와서 다녔어.)

101010 @ 일본 시대에?(일본 시대에?)

101010 # 응, 제국시절에. 경헨 뎅기단 그 혹교 또시 망허연, 망허질 안허고 그 혹교 이레, 이레.(응, 제국시대에. 그래서 다니다가 그 학교 다시 망해서, 망하지 않고 그 학교 이리, 이리.)

101010 @ 보성 초등학교?(보성 초등학교?)

101010 # 응, 이레 짓으렌 헤연 또 일본에서 그 보성 사름덜 돈 하영 벌어진 사름덜 후원헨 돈 주난 이디 보성 짓은 거 아니가?(응, 이리 지으라고 해서 또 일본에서 그 보성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후원해서 돈 주니까 여기 보성 지은 거 아니냐?)

101010 @ 옛날 서당 헤난 자린 아무것도 안 헴수과?(옛날 서당 했던 자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101010 # 서당 헤난 자리 아무것도 안 헤. 그자 밧 멘들안 농사덜 헤부난.(서당 했던 자리 아무것도 안 해. 그저 밭 만들어서 농사들 해버리니까.)

101010 @ 옛날에 잇긴 이서낫구나예.(옛날 있긴 있었군요.)

101010 # 응, 게난 이 보성 사름덜이 출세허난 돈 벌언에 보성 이제 훼관에도 다른 ᄆᆞ슬보다 더 특별히 ᄉᆞ뭇. 사름덜이 심벡허멍.(응, 그러니까 이 보성 사람들이 출세하니까 돈 벌어서 보성 이제 회관에도 다른 마을보다 더 특별히 사뭇. 사람들 겨루면서.)

101004 @ 이디 수월이못이엔 헌 거 이수과?(여기 '수월이못'이라고 한 거 있습니까?)

101004 # 수월이물[28]. 수월이물이엔 헌 딘 요 추사관[29]으로 우터레 가민 저 못물이 이서. 그디 먹는 물도 잇곡 헤도 오래 골르질 안헤여. 죽은 땅이라부난. 경 허난 이 사름덜이 보성 물이 오래 앚는 따문 보성 물을 시꺼당 먹곡. 그추룩 허여.(‘수월이물’. ‘수월이물’이라고 한 덴 요 추사관으로 위로 가면 저 연못물이 있어. 거기 먹는 물도 있고 해도 오래 고이질 않아. 죽은 땅이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성 물이 오래 앉는 때문에 보성 물을 실어다 먹고. 그처럼 해.)

101004 @ 수월이물은 무사 수월이물?(‘수월이물’은 왜 ‘수월이물’?)

101004 # 몰라. 우리 난 보난에 수월이물이엔 허난.(몰라. 우리 나서 보니까 ‘수월이물’이라고 하니까.)

101004 @ 사름 이름인가?(사람 이름인가?)

101004 # 아니라.(아니야.)

101004 @ 아니라?(아니야?)

101004 # 응, 그 지경마다 ᄐᆞ나. 수월이물 ᄒᆞ쏠 올라가민 다 일름덜 여묻은밧[30]이엔 허곡.(응, 그 지경마다 달라. ‘수월이물’ 조금 올라가면 다 이름이 ‘여묻은밧’이라고 하고.)

101004 @ 여묻은밧?(‘여묻은밧’?)

101004 # 수월이물로 우터레 올라가민 여묻은밧이엔 허고.(‘수월이물’로 위로 올라가면 ‘여묻은밧’이라고 하고.)

101004 @ 또 무신거 잇수과?(또 무엇 있습니까?)

101004 # ᄒᆞ쏠 더 올라가민 구억리 지경 뒈불고.(조금 더 올라가면 구억리 지경 되어버리고.)

101004 @ 이디 인성리 지경에 마을 이름은, 이딘 드레물동네엔 허고 저 알르렌 뭐엔 헙니까?(이 인성리 지경에 마을 이름은, 여긴 ‘드레물동네’라고 하고 저 아래는 뭐라고 합니까?)

101004 # 그냥 남은앞동네엔 허여.(그냥 ‘남은앞동네’라고 해.)

101004 @ 무신 동네?(무슨 동네?)

101004 # 남은앞동네[31].(‘남은앞동네’.)

101004 @ 건 무신 말인고?(그건 무슨 말인고?)

101004 # 몰라. 남은앞동넨 이 물 신 동네 낭서리 싯곡 헌 동네엔 엿날 이칩이덜 잘사난에 그 할으방덜 이제 살앗주마는 동카름[32]더렌 인성 지경이라도 아기덜 출세시긴 사름 엇어. 어떠난 그러데. 막 청년덜 일만 빌엉 허곡이.(몰라. ‘남은앞동넨’ 이 물 있는 동네 ‘낭서리’ 있고 한 동네엔 옛날 이씨 집들 잘사니까 그 할아버지들 이제 살았지마는 ‘동카름’으로는 인성 지경이라도 아기들 출세시킨 사람 없어.

28) ‘수월이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의 연못 이름이다.
29) ‘추사관’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있는 제주추사관을 이르는 말이다.
30) ‘여묻은밧’은 대정읍 인성리의 한 지명이다.
31) ‘남은앞동네’는 대정읍 인성리의 자연마을 이름이다.
32) ‘동카름’은 마을의 동쪽에 자리하여 이루어진 동네를 이른다. ‘가름’은 한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동네를 이르는 말로, 서쪽에 있는 동네는 ‘서카름’이라고 한다.

어째서 그러대. 막 청년들 일만 빌어서 하고.)

101004 @ 인성리 마을이 드레물동네, 남은앞동네 또 무신거 잇수과?(인성리 마을이 '드레물동네', '남은앞동네' 또 무엇 있습니까?)

101004 # 그거뿐이주게.(그거뿐이지.)

101004 @ 두 개뿐? 아까 동카름은 무신거라?(두 개뿐? 아까 '동카름'은 뭐야?)

101004 # 동카름은 저 동펜이 동카름.('동카름'은 저 동편에 '동카름'.)

101004 @ 서카름도 이서 게민?('서카름'도 있어 그러면?)

101004 # 응, 동카름이엔 헌 딘 또시 안성 지경이영 부쪄근에 그디 다 동카름이엔 허여.(응, '동카름'이라고 한 덴 또 안성 지경이랑 붙여서 거기 다 '동카름'이라고 해.)

101004 @ 게민 서카름은?(그러면 '서카름'은?)

101004 # 서카름은 엇고, 이 안성 지경 넘으민 이딘 안성이고 이거 인성이라도 그 동넨 동카름이엔 허여.('서카름'은 없고, 이 안성 지경 넘으면 여긴 안성이고 이거 인성이라도 그 동넨 '동카름'이라고 해.)

101004 @ 그딘 동카름이고 질 알르레 노인정 이신 동넨 남은앞동네.(거긴 '동카름'이고 길 아래로 노인정 있는 동네는 '남은앞동네'.)

101004 # 응, 인성 동네.(응, 인성 동네.)

101010 @ 그딘 인성 동네. 정난주 마리아묘, 묘지, 무덤 이수과?(거긴 인성 동네. '정난주 마리아묘', 묘지, 무덤 있습니까?)

101010 # 어디?(어디?)

101010 @ 정난주엔 헌 사름?(정난주라고 한 사람?)

101010 # 마리아 무덤.(마리아 무덤.)

101010 @ 거 어디 잇수과?(그거 어디 있습니까?)

101010 # 보성 지경.(보성 지경.)

101010 @ 것도 보성 지경? 인성이 아니고.(그것도 보성 지경? 인성이 아니고.)

101010 # 경 이제 허연 싯주게. 구경 가젠?(그렇게 이제 해서 있지. 구경 갈래?)

101010 @ ᄒᆞ꼼 잇당 나중에랑 가보쿠다. 건 무시거 헌 사름이라?(조금 있다가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건 무엇 한 사람이야?)

101010 # 건 무시거 헌 사름산디 저 육지서 교 믿으는 사름덜 그디 오랑덜 막 ᄀᆞ리쳐 ᄃᆞ렌 허민 우리 밧은 절로 가는 디난에 막 차로덜 오랑 이디 어떵 헤영 촛아가느닌 허민 나 어뜬 덴 그꼬지 ᄀᆞ리쳐도 주곡 손 방향으로 강은에 어떵 헤영 가렌 ᄀᆞ리쳐주곡 허엿주게. 게난 육지서 많이 와.(건 무엇 한 사람인지 저 육지서 교회 믿는 사람들 거기 와서 막 가리켜 달라고 하면 우리 밭은 저리로 가는 데니까 막 차로들 와서 여기 어떻게 해서 찾아가느냐고 하면 난 어떤 땐 거기까지 가리켜주고 손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가라고 가리켜주고 했었지. 그러니까 육지서 많이 와.)

101010 @ 건 옛날부터 이서낫수과?(그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101010 # 아니 엿날부떠 안 헷어. 우리 막 읔아근에 어른 뒌 후제 헷어. 아메도 그 경 오란 어떵 헤나신ᄀᆞ라. 근사허게 헨 이서. 성 둘르고. 우리 밧이 욜로 가는 디난에 어디서 오랑 촛지 못헤영 허여. 게민 나 방향도 ᄀᆞᆯ아주곡 미안허주마는 ᄀᆞ리쳐 도렌 허민 그ᄁᆞ지 ᄀᆞ리쳐주곡.(아니 옛날부터 안 했어. 우리 아주 큰 후에 어른 된 후에 했어. 아무래도 그 그렇게 와서 어떻게 했었는지. 근사하게 해서 있어. 성 두르고. 우리 밭이 요리로 가는 데니까 어디서 와서 찾지 못해서 해. 그러면 나 방향도 말해주고 미안하지마는 가리켜 달라고 하면 그까지 가리켜주고.)

101004 @ 구명물이엔 헌 거 잇수과?('구명물'이라고 한 거 있습니까?)

101004 # 구명물[33]이엔 헌 딘 덕수로 오는 디. 덕수로 오는 디 이 안성 지경 거자 오민 높은 동산 소낭 서. 그디가 구명물. 물, 엿날에 산물 나낫주게. 산물 잘잘 나민 저 알르레 밋밋[34] ᄂᆞ리는 물이 시난에 물 ᄂᆞ리게 막 홈도 파고 헷어.('구명물'이라고 한 데는 덕수로 오는 데. 덕수로 오는 데 이 안성 지경 거의 오면 높은 동산 소나무 있어. 거기가 '구명물'. 물, 옛날에 산물 있었지. 산물 좔좔 나면 저 알로 '밋밋' 내리는 물이 있으니까 물 내리게 막 홈도 파고 했어.)

101004 @ 아.(아.)

101004 # 구명물 그디 엿날에 우리 어린 때 팔월[팔뤌]에 콩ᄂᆞ물 구명물에 강 싯으민 팔월멩질에 콩ᄂᆞ물 싯으민 그해에 보리가 웁넨 허여.('구명물' 거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팔월에 콩나물 '구명물'에 가서 씻으면 팔월명절에 콩나물 씻으면 그해에 보리가 여문다고 해.)

101004 @ 보리가?(보리가?)

101004 # 보리가 웁넨 헤여.(보리가 여문다고 해.)

101004 @ 아, 웁는덴.(아, 여문다고.)

101004 # 웁아. 경헤근에 아이고 올린 팔월에 콩ᄂᆞ물 싯곡 허난에 구명물에 강 싯곡 헐 거난에 보리 올린 웁으켜. 늙은 어른덜 그렇게 허여.(여물어. 그래서 아이고 올핸 팔월에 콩나물 씻고 하니까 '구명물'에 가서 씻고 할 거니까 보리 올핸 여물겠어. 늙은 어른들 그렇게 해.)

101004 @ 아.(아.)

101004 # 경 허난 산물 잘잘 ᄂᆞ릴 때엔 웃드르 사름덜이고 어디고 다 빨래허레 그디 오랑.(그러니까 산물 좔좔 내릴 땐 '웃드르' 사람들이고 어디고 다 빨래하러 거기 와서.)

101004 @ 구명물에 강.('구명물'에 가서.)

101004 # 응, 시원헌 물에 오랑 빨래허여. 질 알녁펜이 구명물이엔 헌 디.(응, 시원한 물에 와서 빨래해. 제일 아래쪽에 '구명물'이라고 한 데.)

---

33) '구명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근처의 샘물 이름이다.
34) '밋밋'은 거침 없이 물이 흐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태어나고 어렷을 때 애기 때 태어나고 자란 그 얘기.(태어나고 어렸을 때 아기 때 태어나고 자란 그 얘기.)

102001 # 엿날엔 어린 때, 크난에 분수 몰랏단 그 시절엔 우린 가난헌 사름이난 밤인 야학에 강은에 공부허곡 낮인 일허곡 그추룩 허멍 살앗주게.(옛날엔 어릴 때, 크니까 분수 몰랐다가 그 시절엔 우린 가난한 사람이니까 밤엔 야학에 가서 공부하고 낮엔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102001 @ 할머닌 멧 번째꽈?(할머닌 몇 번째입니까?)

102001 # 나?(나?)

102001 @ 우에 오빠 언니 이서?(위에 오빠 언니 있어?)

102001 # 오빠 언니가 다 죽어불엇어.(오빠 언니가 다 죽어버렸어.)

102001 @ 다 죽어불어도 옛날에 이서낫수게?(다 죽어버려도 옛날에 있었잖습니까?)

102001 # 난 뚤 중엔 두 번채고.(난 딸 중엔 두 번째고.)

102001 @ 뚤 중엔 두 번채고 오빤 멧 명이나 이서낫수과?(딸 중엔 두 번째고 오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02001 # 우리 우이 우리 성님 이제 일본 산 성님 우이 오라방 둘리 죽어불고 그다음 우리 성님 나고, 나 나고, 나 밋틔 또 남동생 낫어. 낫는디 우리 남동생은 군인 간 죽어불고.(우리 위에 우리 형님 이제 일본 사는 형님 위에 오라버니 둘 죽어버리고 그다음 우리 형님 나고, 나 나고, 나 밑에 또 남동생 났어. 났는데 우리 남동생은 군인 가서 죽어버리고.)

102001 @ 게민 아들 셋, 딸 둘?(그러면 아들 셋, 딸 둘?)

102001 # 게, 또 뚤 ᄒᆞ난 육지 간 살고.(그렇지, 또 딸 하난 육지 가서 살고.)

102001 @ 거믄 아들 셋, 딸 셋. 거기에 할머니 둘째딸, 셋년?(그러면 아들 셋, 딸 셋. 거기에 할머니가 둘째딸, '셋년'?)

102001 # 응. 우리 아신 저 강원도 강 살멍 아기덜 댓 오누이 나고 쌍둥이ᄁᆞ지 난에 잘살아. 나만 못살아.(응. 우리 아우는 저 강원도 가서 살면서 아기들 댓 오누이 낳고 쌍둥이까지 낳아서 잘살아. 나만 못살아.)

102001 @ 이만이만 허민 잘살주. 이 큰 집이.(이만큼만 하면 잘살지. 이 큰 집에.)

102001 # 에고, 에고. 우리 언닌 시집간에 서방 ᄃᆞᆯ안 일본 가부난에 일본서 살고.(에고, 에고. 우리 언닌 시집가서 남편 데리고 일본 가버리니까 일본서 살고.)

102001 @ 게난 이젠 다 죽언 아시만 살안?(그러니까 이젠 다 죽어서 아우만 살았어?)

102001 # 아시네 살고. 성님도 언제ᄁᆞ진 경 연락 오단 이 근간은 아니 와. 성이 죽어불어신ᄀᆞ라.(아우네 살고. 형님도 언제까진 그렇게 연락 오다가 이 근간은 안

와. 형이 죽어버렸는지.)

102001 @ 아.(아.)

102001 # 우리 성님넨 공장혜연에.(우리 형님넨 공장해서.)

102001 @ 일본에서?(일본에서?)

102001 # 응, 일본에서 공장혜연 드러 살안.(응, 일본에서 공장해서 들이 살았어.)

102001 @ 남동생은?(남동생은?)

102001 # 남동생은.(남동생은.)

102001 @ 아까 군대 간 죽어불고.(아까 군대 가서 죽어버리고.)

102001 # 군인 간 죽어불언.(군인 가서 죽어버렸어.)

102001 @ 여동생은?(여동생은?)

102001 # 여동생은 육지 그냥 막바로 처녀로 육지 사름안티 시집간 육지 간 살고.(여동생은 육지 그냥 곧바로 처녀로 육지 사람에게 시집가서 육지 가서 살고.)

102001 @ 지금도 이서, 살안?(지금도 있어, 살아서?)

102001 # 지금 이서. 뚤도 쌍둥이 낭 잘 살멍.(지금 있어. 딸도 쌍둥이 낳아서 잘 살면서.)

102002 @ 예. 할머니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션마씨?(예. 할머니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102002 # 우리 아버진 정씨고 우리 어머닌 이씨고. 이칩이. 이칩이 두 번채 뚤. 우리 어머니 우이 오빠가 하나 잇고 우리 어머니 나난 다음엔 오래비덜이 댓 성제난.(우리 아버진 정씨고 우리 어머닌 이씨고. 이씨 집에. 이씨 집에 두 번째 딸. 우리 어머니 위에 오빠가 하나 있고 우리 어머니 나니까 다음엔 오라비들이 댓 형제났어.)

102002 @ 응.(응.)

102002 # 우리 이모가 시 개. 팔 남매, 우리 어무니네 팔 남매. 팔 남맨디 우리 어무니 우잇 오라방도 엿날에 선생.(우리 이모가 세 개. 팔 남매, 우리 어머니네 팔 남매. 팔 남맨데 우리 어머니 위 오라버니도 옛날에 선생.)

102002 @ 아.(아.)

102002 # 그다음엔 오라방 아덜이 오현고등학교 선생이라낫어. 교장 선생이라나고 헌디. 이제 우리 말잣 삼춘 아덜도 선생이라낫어. 그딘 다 교육자덜.(그다음엔 오라버니 아들이 오현고등학교 선생이었어. 교장 선생이었고 하는데. 이제 우리 셋째 삼촌 아들도 선생이었어. 거긴 다 교육자들.)

102002 @ 부모님은 농사지어낫수과?(부모님은 농사지었었습니까?)

102002 # 게, 농사지엇주게. 외할망네 어린 때 돌아가 부난 우리 어무니가 몯이로 어린 동생 밥헤영 멕이고, 하르방, 아부지, 어멍 어린 때 죽어부난, 하르방 우리 어무니가 ᄆᆞ산 살고 외할으방이주게. ᄆᆞ상 살고 그추룩 허단 외하르방도 죽언게. 어린 동생 총각으로 뎅기단 일본 간에 살단 제주 각시 혜연 살단 이젠 나 하난 죽어

불언. 우리 어무니네가 팔 남매. 뚤덜토 읏망져. 우리 이모 화순 양칩이 시집갓는디.(그렇지, 농사지었지. 외할머니네 어릴 때 돌아가셔 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맏이로 어린 동생 밥해서 먹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릴 때 죽어버리니까,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모셔서 살고 외할아버지지. 모셔서 살고 그처럼 하다가 외할아버지도 죽었어. 어린 동생 총각으로 다니다가 일본 가서 살다가 제주 색시 해서 살다가 이젠 나이 많으니까 죽어버렸어. 우리 어머니네가 팔 남매. 딸들도 야무져. 우리 이모 화순 양씨 집에 시집갔는데.)

102002 @ 예.(예.)

102002 # 막 글 좋아. 각처에 서울꼬지 강연허레 뎅기고 그추룩 헌디. 양칩이 간에 아기 오누이 난에 농협에 높은 자리에 앚안 싯단에 혈압 약 오꼿시리 떨어진 거 사단 먹주마는 죽어불언. 단아덜인디 게도 아덜 니 성제 난. 니 성제 난에 아덜시 성제 풀고 이제 막둥인 아방 앚아난 자리에 농협에 간 앚앗젠.(아주 글 좋아. 각처에 서울까지 강연하러 다니고 그처럼 했는데. 양씨 집에 가서 아기 오누이 낳아서 농협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혈압 약 그만 떨어진 거 사다가 먹지마는 죽어버렸어. 외아들인데 그래도 아들 사 형제 낳았어. 사 형제 낳아서 아들 삼 형제 장가보내고 이제 막둥인 아버지 앉았던 자리에 농협에 가서 앉았다고.)

102002 @ 잘 뒛네.(잘 됐네.)

102002 # 아덜덜이영 아방, 할망 닮안 공부 잘혜연에 육지 혹교덜 허연 막 출세허연 이제 직장에 뎅기고 어른덜 뒈고 손지덜이영 풀암실 거여. 게난 우리 이모가 인물도 좋곡 강연도 막 잘혜난. 서울 강연허레 가고. 서구포 강연허레 가고. 나도 서구포 오랑은에 그때 훼장으로 이섯어.(아들이랑 아버지, 할머니 닮아서 공부 잘해서 육지 학교들 해서 아주 출세해서 이제 직장에 다니고 어른들 되고 손주들이랑 결혼시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인물도 좋고 강연도 아주 잘했었어. 서울 강연하러 가고. 서귀포 강연하러 가고. 나도 서귀포 와서 그때 회장으로 있었어.)

102003 @ 어무니는 보성리 사름이라?(어머니는 보성리 사람이야?)

102003 # 응.(응.)

102003 @ 어무닌 보성리예. 어무니 형제덜도 다 잘뒈고예.(어머닌 보성리요. 어머니 형제들도 다 잘되고요.)

102004 @ 할머니 어렷을 때 시집가기 전이 애기 때 뭐 허멍 놀아낫수과?(할머니 어렸을 때 시집가기 전에 아기 때 뭐 하면서 놀았었습니까?)

102004 # 뭐 허멍 노느니? 밤인 야학소에 가고 낮인 쉬는 시간 시냐? 일허고. 또시 훈련허렌 허민 훈련허고.(뭐 하면서 노니? 밤엔 야학에 가고 낮엔 쉬는 시간 있니? 일하고. 또 훈련하라고 하면 훈련하고.)

102004 @ 무신 훈련?(무슨 훈련?)

102004 # 아이고 일본시대에 훈련허영인에. 훈련 ᄀᆞ리치는 사름은 각반 탁 치고 훈련 ᄀᆞ리쳥 발 하나둘헹 발 맞추지 못허민 두드려불곡. 겡 이제 우리도 이제 쳐녀

뒈난 모실포 학교 뎅기난이 조선말을 못 쓰게 허는 거라. 조선말을 못 쓰게 허난 훈련허단에 이제 그 훈련 ᄆᆞ치민 군인 쫑까질허레 다 이제 간호질허레 나간덴 허난 그때에 혼 열일곱살에 열여숫살에 어린 때 시집덜 보내불엇어. 시집 안 간 건 시껑 보낸덴 허난. 경헌디 우리 ᄀᆞ치 훈련허는 사름이 낭 강알에 앚안 조선말 이디말로 ᄒᆞ꼼 쓰난 어떵사 그 선생 알안 그 선생 이젠 죽엇어.(아이고 일본시대에 훈련해서. 훈련 가르치는 사람은 행전 탁 차고 훈련 가르쳐서 발 하나둘해서 발맞추지 못하면 때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처녀 되니까 모슬포 학교 다니니까 조선말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조선말을 못 쓰게 하니까 훈련하다가 이제 그 훈련 마치면 군인 부하질하러 다 이제 간호질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에 한 열일곱 살에, 열여섯 살에 어릴 때 시집들 보내버렸어. 시집 안 간 건 실어서 보낸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훈련하는 사람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조선말 여기 말로 조금 쓰니까 어떻게야 그 선생 알아서 그 선생 이젠 죽었어.)

102004 @ 아.(아.)

102004 # 강 선생이엔 헌 어른 일본말로 마도모도 선생인게. 다레가 조선 쓰가 또 허멍 확 허난에 아무도 안 허ᄀᆞ렌 허주게. 이쯔베스 나라비 허민 엿날엔 이디서 나라비 허민 영허민 착착착착 맞촹 옆으로 사주게. 옆으로 사난 그 조선말 ᄀᆞᆯ은 아이 알아신ᄀᆞ라이 귀뚱박 주먹지언 착착 뜨려도 그 아인 탁 쓰러져라게. 쓰러지난 강 선생이엔 헌 사름이 쓰러지난 아판 혼 메틀 ᄒᆞ교 안 나완.(강 선생이라고 한 어른 일본말로 ‘마도모도’ 선생인데. ‘다레가 조선 쓰가또’ 하면서 확 하니까 아무도 안 했다고 하지. ‘이쯔베스 나라비’ 하면 옛날 여기서 ‘나라비’ 하면 이렇게 하면 착착착착 맞춰서 옆으로 서지. 옆으로 서니까 그 조선말 말한 아이 알았는지 귀퉁배기 주먹쥐어서 착착 때려도 그 아인 탁 쓰러지더라. 쓰러지니까 강 선생이라고 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아파서 한 며칠 학교 안 나왔어.)

102004 @ 아.(아.)

102004 # ᄒᆞ교 안 나오난 말짼 보난 귀 ᄋᆞᆯ아젼 오꼿, 귀막아불언게.(학교 안 나오니까 나중엔 보니까 귀 열려서 그만, 귀먹어버렸어.)

102004 @ 아이고.(아이고.)

102004 # 겐 오꼿 사름이 오꼿 정신ᄁᆞ지 상헤불언. 겐 ᄒᆞ교 못 나완. 억울헤라게. 그땐이 일본 사름덜따문 일본말 쓰지 안허민 ᄒᆞ교서 죽어대시녜.(그래서 그만 사람이 그만 정신까지 상해버렸어. 그래서 학교 못 나왔어. 억울하더라. 그땐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일본말 쓰지 않으면 학교서 못살게 했었어.)

102004 @ 무신 학교라?(무슨 학교야?)

102004 # 모실포 국민ᄒᆞ교게. 그 자리 이제 신 자리 모실포 신 자리에서.(모슬포 국민학교. 그 자리 이젠 있는 자리 모슬포 있는 자리에서.)

102004 @ 이디 보성 초등학교 엇인 때꽈?(여기 보성 초등학교 없는 때입니까?)

102004 # 게, 이딘 엇은 때주게.(그렇지, 여긴 없을 때지.)

102004 @ 옛날에.(옛날에.)

102004 # 이디 이서도 이디서 훈련헤영인에 등수 먹으민 저디 모실포 가근에 훈련을 시겨. 게민 그때이 우리 친구 나영 동갑엣 아이가 급장질허고 난 부급장혜영 난 앞이 나라비에 착 사고 그 사름은 우리 친구 지 앞이 상 착착 행진헹 넘어가민 교장신듸 경례 부찔 거 아니라이. 일본말로이 고우주 센세이 데이세이 가사라 니낏허민 가이 경 ᄀᆞᆯ으민 착헹 착착 돌아가. 저만은 간 것 닮으민 그추룩 허멍 훈련헤엿어. 아이고.(여기 있어도 여기서 훈련해서 등수 먹으면 저기 모슬포 가서 훈련을 시켜.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 나랑 동갑 아이가 급장질하고 난 부급장해서 난 앞에 줄에 착 서고 그 사람은 우리 친구 자기 앞에 서서 착착 행진해서 지나가면 교장에게 경례 붙일 거 아니냐. 일본말로 '고우주 센세이 데이세이 가사라 니낏' 하면 그 애 그렇게 말하면 착해서 착착 돌아가. 저만큼 간 것 같으면 그처럼 하면서 훈련했었어. 아이고.)

102004 @ 잊어불지도 안혜영 잘도 알암저. 학교 다니기 전이 더 어릴 땐 놀이 같은 거 안 헤마씨?(잊어버리지도 않고 잘도 알고 있어. 학교 다니기 전에 더 어릴 땐 놀이 같은 거 안 했어요?)

102004 # 놀이 무사 안 헤게. 우린 ᄒᆞ교 동네난이 굴메 뛰는 거. 그거 뛰레 강 덜 막 장난허멍 놀고.(놀이 왜 안 해. 우린 학교 동네니까 그네 뛰는 거. 그거 뛰러 가서들 막 장난하면서 놀고.)

102004 @ 그네 뛰는 거.(그네 뛰는 거.)

102004 # 그네 뛰는 거.(그네 뛰는 거.)

102004 @ 아, 그게 굴메.(아, 그게 '굴메'.)

102004 # 그것덜 뛰엉 놀고 이녁덜끼리 그자 밤인 모실포 영화 오민 영화 구경허레 강 오랑.(그것들 뛰어서 놀고 자기들끼리 그저 밤엔 모슬포 영화 오면 영화 구경하러 갔다 와서.)

102004 @ 예.(예.)

102004 # 낫인 이제 일허레 가민 영화 구경헌 거 ᄀᆞᆯ을 사름이 ᄒᆞ나토 엇어. 구경헌 거 본 사름. 날ᄀᆞ라만 아이고 자이 ᄀᆞᆯ으라게, 자이. 난 글 익듯 ᄀᆞᆯ으민 아이고 자인 ᄒᆞ나토 안 잊어불어. 하나토 안 잊어불어.(낮엔 이제 일하러 가면 영화 구경한 거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구경한 거 본 사람. 나보고만 아이고 저애 말해라, 저애. 난 글 읽듯 말하면 아이고 저앤 하나도 안 잊어버려. 하나도 안 잊어버려.)

102004 @ 영환 어떵 헹 강 보는 거꽈?(영화는 어떻게 해서 가서 보는 겁니까?)

102004 # 활동 사진게.(활동 사진.)

102004 @ 천막에? 영화관?(천막에? 영화관?)

102004 # 큰 영화관에 강 그걸 구경허영 오주게.(큰 영화관에 가서 그걸 구경해서 오지.)

102004 @ 그거 구경헤난 말, ᄀᆞᆯ아줍서.(그거 구경했던 말, 말해주세요.)

102004 # 벗덜이영 구경헤영 오민 뒷날은 일허멍덜 어뜬 아인 반은 ᄀᆞᆫ곡 반도 못 ᄀᆞᆫ곡 헤가민 우리 동네 나영 동갑인 송○○이엔 헌 사름 아이고 임춘이 잘 ᄀᆞᆫ

나, 임춘이 걸으라, 걸으라 허민 나 걸아가민 아이고 자인 원 눈으로 본 거 잘 알아, 잘 알아 경헨게. 아이고, 이젠 늙어부난.(벗들이랑 구경해서 오면 뒷날은 일하면서들 어떤 아인 반은 말하고 반도 못 말하고 해가면 우리 동네 나랑 동갑인 송○○이라고 한 사람 아이고 임춘이 잘 말한다, 임춘이 말해라, 말해라 하면 나 말해가면 아이고 저앤 원 눈으로 본 거 잘 알아, 잘 알아 그렇게 했어. 아이고, 이젠 늙어버리니까.)

102004 @ 돈은 얼마나 냉 보는 거꽈?(돈은 얼마나 내서 보는 겁니까?)

102004 # 돈은 그건 공짜. 막 간다. 구경허레 밤이 일허레 강 오랑 지쳐도.(돈은 그건 공짜. 막 간다. 구경하러 밤에 일하러 갔다 와서 지쳐도.)

102004 @ 무슨 요일날, 한 달에 한 번 허는 날 이수과?(무슨 요일, 한 달에 한 번 하는 날 있습니까?)

102004 # 아니, 계속 헤라.(아니, 계속 하더라.)

102004 @ 계속. 어디서 헤주는 거라?(계속. 어디서 해주는 거야?)

102004 # 모슬포서게, 영화 허영 돌리는 사름도 돈 버는 거주게, 엿날에.(모슬포에서, 영화 해서 돌리는 사람도 돈 버는 거지, 옛날에.)

102004 @ 공기놀이 같은 것도 헤나지 안헨?(공기놀이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

102004 # 게, 공기놀이도 허고.(그렇지, 공기놀이도 하고.)

102004 @ 공긴 옛날도 공기꽈, 이름?(공긴 옛날도 공기입니까, 이름?)

102004 # 응, 공기.(응, 공기.)

102004 @ 공긴 멧 개로 허는 거꽈?(공긴 몇 개로 하는 겁니까?)

102004 # 다섯 개.(다섯 개.)

102004 @ 다섯 개로 어떵 어떵 허는 거라?(다섯 개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102004 # 다섯 개 허영인에 이젠 무주건 다섯 개 허여근에 네 번꼬지 허여근에 영허영 손 우트레 오랑 잡주마는 옛날은 경 안헤연.(다섯 개 해서 이젠 무조건 다섯 개 해서 네 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손 위에 올려서 잡지마는 옛날은 그렇게 안했어.)

102004 @ 옛날은 어떵 헤낫어?(옛날은 어떻게 했었어?)

102004 # 그냥 기자 공기 잡앙은에 영허고 영 맞치는 거 허곡 그런 거만 허멍 살앗주.(그냥 그저 공기 잡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히는 거 하고 그런 거만 하면서 살았지.)

102004 @ 공기로 영 맞쳐? 다마치기 아니고?(공기로 이렇게 맞혀? 구슬치기 아니고?)

102004 # 다마치기 아니고.(구슬치기 아니고.)

102004 @ 응. 남자 아이덜은 무신거 헙니까?(응, 남자 아이들은 무엇 합니까?)

102004 # 남자 아이덜은 팽이두들기.(남자 아이들은 팽이치기.)

102004 @ 팽이두들리기, 또?(팽이치기, 또?)

102004 # 여자 아이덜은 고무줄 잡아 뎅겨근에 고무줄 뛰기.(여자 아이들은 고무줄 잡아 당겨서 고무줄 뛰기.)

102004 @ 할머니도 고무줄 막 잘헤나실 거 닮아.(할머니도 고무줄 아주 잘했었을 거 같아.)

102004 # 잘허주게.(잘하지.)

102004 @ 키도 크고.(키도 크고.)

102004 # 언제꺼지 베뜰레기도 계속 헤낫저. 칠십 멧 술꺼지 베뜰레기 나 집이서 오랑은에 일헤영 오라근에 드러 허민 아이고 저 삼춘은 늙을 충 몰라, 늙을 충 몰라. 기추룩 헤낫저. 이 다리 아프난에 베뜰레기 안 좋아. 베뜰레기 허는 거 저 올레에 톡 걸엇당인에. 우리 하르방[35] 지치도 안헌고라 일허레 강 왕 허염젠. 그거 운동뒈연게, 운동.(언제까지 줄넘기도 계속 했었어. 칠십 몇 살까지 줄넘기 나 집에서 와서 일해서 와서 들이 하면 아이고 저 삼촌은 늙을 줄 몰라, 늙을 줄 몰라. 그처럼 했었어. 이 다리 아프니까 줄넘기 안 좋아. 줄넘기 하는 거 저 '올레'에 톡 걸었다가. 우리 할아버지 지치지도 않은지 일하러 갔다 와서 한다고. 그거 운동 돼, 운동.)

102004 @ 맞아. 옛날에 할머니 어렷을 땐 그런 거 엇어낫수게. 베틀레긴.(맞아. 옛날에 할머니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잖습니까. 줄넘긴.)

102004 # 베뜰레기 이서난. 고무줄내기도 이성 심엉 고무줄 허고 또시 고무줄내기만 헤여? 뛰어가멍 뛸락헤영 또시 삿가달도 고무줄 심은 거 삿가달로 발로 걸령 저레 가게도 허고.(줄넘기 있었어. 고무줄 놀이도 있어서 잡아서 고무줄 하고 또 고무줄놀이만 해? 뛰어가면서 뛰기 해서 또 물구나무서기도 고무줄 잡은 거 물구나무서기로 발로 걸려서 저리 가게도 하고.)

102004 @ 거난, 할머니 키 크난 완전 잘 헤나시크라예.(그러니까, 할머니 키 크니까 완전 잘했었겠어요.)

102004 # 잘헷어.(잘했어.)

102004 @ 거난.(그러니까.)

102004 # 제국시절에 성 우이 올라근에 저디 조 선생 아시 나팔 불주게.(제국시절에 성 위에 올라가서 저기 조 선생 아우 나팔 불지.)

102004 @ 예.(예.)

102004 # 데데그로 데기와 미나미나 고르세 허멍 나올 사름 빨리빨리 나오라 헌 말이주게.('데데그로 데기와 미나미나 고르세' 하면서 나올 사람 빨리빨리 나와라 한 말이지.)

102004 @ 예.(예.)

102004 # 경 허민 그 나팔 부는 거 성 우이 올랑 허는 것 닮으민 보성 사름덜 다 나오랑 세벡이 막 운동허여.(그러면 그 나팔 부는 거 성 위에 올라서 하는 것 같으면 보성 사람들 다 나와서 새벽에 막 운동해.)

35) '하르방'은 할어버지의 제주어이지만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이른다.

102004 @ 아.(아.)

102004 # 보성 사름덜이 인안성[36]덜이영 부떠근에 인안성은 부떠보질 못헤여. 오 개 리[37]서 막 훈련허민 오 개 리서 혹교 운동장에서 허민 보성 일등 헤여. 다른 인성이나 안성이나 구억, 신펭 떨어져. 게민 또 모슬포까지 가. 나 옛날 뛰기도 잘 뛰엉 뛰는 선수로 나가나고.(보성 사람들이 인안성들이랑 붙어서 인안성은 붙어보질 못해. 오 개 리에서 막 훈련하면 오 개 리서 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보성 일등 해. 다른 인성이나 안성이나 구억, 신평 떨어져. 그러면 또 모슬포까지 가. 나 옛날 뛰기기도 잘 뛰어서 뛰는 선수로 나갔었고.)

102004 @ 어.(어.)

102004 # 시에 가난 텍도 엇어라.(제주시에 가니까 턱도 없더라.)

102004 @ 더 잘허는 사름 합디가?(더 잘하는 사람 많았습니까?)

102004 # 응, 시에선 놀아라, 놀아.(응, 제주시에서 날더라, 날아.)

102005 @ 일본 제국시대 땐 공출허는 거 막 힘들어낫덴 헨게마는.(일본 제국시대 땐 공출하는 거 아주 힘들었다고 하던데마는.)

102005 # 아이고, 보성 사름은 농장이 널렁 곡석이 하난에 공출허당 남앙 먹는디 안덕 지경은 밧이 박허난 공출허당 부작허영 먹을 양석 엇이 다 공출로 바쪄부난 살지 못허난 서광[38] 사름덜 저 구억리.(아이고, 보성 사람은 농장이 넓어서 곡식이 많으니까 공출하다가 남아서 먹는데 안덕 지경은 밭이 박하니까 공출하다가 부족해서 먹을 양식 없이 다 공출로 바쳐버리니까 살지 못하니까 서광 사람들 저 구억리.)

102005 @ 응.(응.)

102005 # 구억리 그 도ᄒᆞ루눈[39]이엔 헌 대정 지경에 오랑덜 다 움막 메우멍 살앗어, 서광 사름덜. 또 덕수[40] 사름덜토 그디 이칩이 어른인디 하도 공출 힘드난 보성 오란 집 빌언 살고.(구억리 그 '도ᄒᆞ루눈'이라고 한 대정 지경에 와서들 다 움막 메우면서 살았어, 서광 사람들. 또 덕수 사람들도 거기 이씨 집 어른인데 하도 공출 힘드니까 보성 와서 집 빌려서 살고.)

102005 @ 아.(아.)

102005 # 이 보성은 원체 곡석이 항인에 공출허단 남으난에 헷주마는.(이 보성은 원체 곡식이 많아서 공출하다가 남으니까 했지마는.)

102005 @ 응.(응.)

102005 # 멘네 갈앙인에 미녕옷 헹 입게 헤시냐? 멘네 수룩[41] 바찌지 못허민 미녕도 못허게 허고.(목화 갈아서 무명옷 해서 입게 했니? 목화 '수룩' 바치지 못하

---

36) '인안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37) '오 개 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주변 다섯 개의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 구억리, 신평리를 이른다.

38) '서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를 말한다.

39) '도ᄒᆞ루눈'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지명이다.

40)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41) '수룩'은 '집단, 단체' 라는 뜻인 것 같고, 여기서는 목화 공출을 단체로 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면 무명도 못하게 하고.)

102005 @ 공출 바치는 게 무신거, 수룩 바치는 거?(공출 바치는 게 무엇, '수룩' 바치는 거?)

102005 # 공출은 그디서 바쪄불민게 그 사름덜이 서임허는 거주게, 멘네도. 게민 이젠 자유 나오난 보성 사름덜은 감제 썰엉 몰리는 것이 이백 개, 삼백 개 허여.(공출은 거기서 바쳐버리면 그 사람들이 서임하는 거지, 목화도. 그러면 이젠 자유 나오니까 보성 사람들은 고구마 썰어서 말리는 것이 이백 개, 삼백 개 해.)

102005 @ 주로 공출은 무신거 바찌라 헙니까?(주로 공출은 무엇 바쳐라 합니까?)

102005 # 보리 갈앙인에 수량 얼마 바찌라 허민 그거 바찌당 남아야 먹지게. 경허난 다른 지경 사름 보리가 수량이 얼마 부작허민 그 사름 먹는 양석ᄁᆞ지 다 허는 따문 못살안에 서광 사름덜 저 구억리 지경 오란 ᄆᆞ슬 ᄒᆞ나 멘들안 살앗어.(보리 갈아서 수량 얼마 바쳐라 하면 그거 바치다가 남아야 먹지. 그러니까 다른 지경 사람 보리 수량이 얼마 부족하면 그 사람 먹는 양식까지 다 하는 때문 못살아서 서광 사람들 저 구억리 지경와서 마을 하나 만들어서 살았어.)

102005 @ 이디 인성리 주로 무신거 바찌는 거라?(여기 인성리 주로 무엇 바치는 거야?)

102005 # 인성리도 다 그거주게. 인성리도 곡석 바찌렌 허민 바쪗주게, 어떵. 제주도적에 멘네 갈앙 바찌렌 허고. 멘네 갈앙인에 이녁냥으로 ᄌᆞ유로 미녕 헤영 입게 헤시냐?(인성리도 다 그거지. 인성리도 곡식 바치라고 하면 바쳤지, 어떻게. 제주도적에 목화 갈아서 바치라고 하고. 목화 갈아서 자기대로 자유로 무명 헤서 입게 했니?)

102005 @ 일본 사름 허지 못허게, 몰르게 곱졍이라도.(일본 사람 하지 못하게, 모르게 숨겨서라도.)

102005 # 몰르게 허젠 허민 밀세다리덜 싯는 디 다 알아.(모르게 하려고 하면 밀고자들 있는 데 다 알아.)

102005 @ 다 알아?(다 알아?)

102005 # 응, 멘네 수량 못 바찌민 그 집이 오랑 더듬앙 멘네 곱진 거 알민 더 욕 얻어먹고.(응, 목화 수량 못 바치면 그 집에 와서 더듬어서 목화 숨긴 거 알면 더 욕 얻어먹고.)

102005 @ 아이고.(아이고.)

102005 # 곡석도 수량 바찌지 못허민 더듬당 곡석 시민 욕 얻어먹엉 먹는 양석ᄁᆞ지 문딱 털어가곡 제국시절에 얼마나 독허게 살아시니? 게민 모르게 멘네 헤영 모르게 쉐[42] 아이 나게 씨 불랑 모르게 밤이 저 촌에 강은에 테와당 모르게 미녕헨 옷도 헨 입엇어.(곡식도 수량 바치지 못하면 더듬다가 곡식 있으면 욕 얻어먹어서 먹는 양식까지 모두 털어가고 제국시절에 얼마나 독하게 살았니? 그러면 모르게 목

42) '쉐'는 '세나다/쉐나다'에서 온 말로 '쉐 아니 나게'는 '덧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화 해서 모르게 '쉐' 안 나게 씨 밟아서 모르게 밤에 저 촌에 가서 태워다가 모르게 무명해서 옷도 해서 입었어.)

102005 @ 몰르게.(모르게.)

102005 # 응, 아이고.(응, 아이고.)

102005 @ 거 말고 일본 시대에 기억나는 거 또 이수과?(그거 말고 일본 시대에 기억 나는 거 또 있습니까?)

102005 # 기억나는 거 엇어. 그거뿐.(기억나는 거 없어. 그거뿐.)

102005 @ 공출허는 게 젤 힘들언예?(공출하는 게 젤 힘들었어요?)

102005 # 아이고, 안덕 지경에 밧이 박허영 죽은 헉이난 곡석을 제 수량 못 바찌민 ᄉᆞ못 안덕 사름덜 ᄉᆞ못. 이 대정 지경에 오란 사는 사름이, 보성 오란 사는 사름이 하낫주게.(아이고, 안덕 지경에 밭이 박해서 죽은 흑이니까 곡식을 제 수량 못 바치면 사뭇 안덕 사람들 사뭇. 이 대정 지경에 와서 사는 사람이, 보성 와서 사는 사람이 많았었지.)

102006 @ 사삼사건 땐 어떵 헤낫수과?(사삼사건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102006 # 사삼사건엔 어떵 허느니? 어디 것덜 빨갱이질허연 ᄉᆞ못 오란에 갑자기 우리 오레비가 모슬포 중ᄒᆞᆨ교 삼학년 땐디 어무니 죽어불고 아부지만 사는디 갑자기 오레비가 완.(사삼사건엔 어떻게 하니? 어디 것들 빨갱이질해서 사뭇 오라서 갑자기 우리 오라비가 모슬포 중학교 삼학년 땐데 어머니 죽어버리고 아버지만 사는데 갑자기 오라비가 와서.)

102006 @ 응.(응.)

102006 # 온디 이젠 오레비 죽엇젠 허난 울멍 오랏주게.(왔는데 이젠 오라비 죽었다고 하니까 울면서 왔지.)

102006 @ 사삼사건에 죽언?(사삼사건에 죽었어?)

102006 # 이 학교터서. 대정 지경 사름덜 다 심어단 다 죽여불언. 밋밋 죽어불언. 다 죽여분디 우리 오레비영 저디 조칩이 아덜허고 요디 이칩이 아이 풀에 무끄고 허연 우리 오레비가, 중학생덜 무껀에 총살시기난 우리 오레빈 총 하나토 안 맞안. 기관총으로 막 뿌려도 안 맞안. 아프덴 헌 사름은 두번 뎅기멍 막 쏘아불어도 안 맞안. 난 오레비 죽엇젠 울멍 오난에, 우리 아버지 집이 오난에 느네 오레빈 안 죽엇저. 겡헨 이젠 앞집이 하르방신듸 송칩이 하르방신듸 싯젠.(이 학교터에서. 대정 지경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죽어버렸어. '밋밋'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 오라비랑 저기 조씨 집 아들하고 요기 이씨 집에 아니 팔에 묶고 해서 우리 오라비가, 중학생들 묶어서 총살시키니까 우리 오라빈 총 하나도 안 맞았어. 기관총으로 막 뿌려도 안 맞았어. 아프다고 한 사람은 두 번 다니면서 막 쏘아버려도 안 맞았어. 난 오라비 죽었다고 울면서 오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희 오라비는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젠 앞집에 할아버지에게 송씨 집의 할아버지에게 있다고.)

102006 @ 응.(응.)

102006 # 우리 말젯 삼춘이 각시가 시난에 저 말젯 아지망 우리 아덜 ᄒᆞ루처냑

만 식게허영은에 모슬포 우리 어무니 셋오레비 집이 살멍 중흑교 헷주게. 어멍 엇으난. 가게 뒈난 우리 말젯 삼춘이 안 뭰덴 허멍이 지네 집이 안 뭰덴 허멍 허난 그 송칩이 하르방이 아덜덜 다 일본서 공부시기멍 훌륭헌 아덜덜 멘든 하르방이주게. 송○○ 하르방이라고.(우리 셋째 삼촌이 색시가 있으니까 저 셋째 숙모 우리 아들 하루저녁만 제사해서 모슬포 우리 어머니 둘째오라비 집에 살면서 중학교 했지. 어머니 없으니까. 가게 되니까 우리 셋째 삼촌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 집에 안 된다고 하면서 하니까 그 송씨 집 할아버지가 아들들 다 일본에서 공부시키면서 훌륭한 아들들 만든 할아버지지. 송○○ 할아버지라고.)

102006 @ 응.(응.)

102006 # 경 허난 조케야, 손지놈 보내라. 나 울멍 와시난 하르방 앞집이 하르방신듸 싯젠 헨 간 보난 첨. 그 시절에 곤쏠이영 서껀에 우리 오레비 밥헨 먹엄서라게.(그러니까 조카야, 손자놈 보내라. 나 울면서 왔으니까 할아버지 앞집에 할아버지에게 있다고 해서 가 보니까 참. 그 시절에 흰쌀이랑 섞어서 우리 오라비 밥해서 먹고 있더라.)

102006 @ 아.(아.)

102006 # 아니 무시거 허젠 완디, 완디 허난에. 갑자기 오지 그릅덴 헨에 서이가 오고렌. 친구덜 서이가 오난에 밤이 누난 꿈에이 노랑 강생이가, 어멍이 죽어불엇주게, 어멍이 죽어분 노랑 강생이 주멍 무사 즘잠이니, 노랑 강생이 안앙 저레 돌으렌 허난. 그 노랑 강생이 주난에 돋젠 허난, 그 엿날 돗통 잇지 안허여?(아니 무엇 하려고 왔니, 왔니 하니까. 갑자기 오고 싶었다고 해서 셋이 왔다고. 친구들 셋이 오니까 밤에 누우니까 꿈에 노란 강아지가, 어머니 죽어버렸거든, 어머니 죽어버린 놘 강아지 주면서 왜 잠자니, 노란 강아지 안아서 저리 달리라고 하니까. 그 노란 강아지 주니까 달리려고 하니까, 그 옛날 돼지우리 있잖아?)

102006 @ 예.(예.)

102006 # 드들팡 안트레 들어가 부난 손 드물안에 뒷발을 심어져렌. 강생이 뒷발 안 심어시민 우리 오레비도 그디서 죽으컬이. 뒷발을 심어젼 깨나난 꿈이난 이상허다, 이상허다 막 헤져렌게. 경 허난 우리 집은 신펭으로 ᄂᆞ려오는 질ᄀᆞᆺ 집이라.(부춛돌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손 디밀어서 뒷발을 잡았대. 강아지 뒷발 안 잡았으면 우리 오라비도 거기서 죽었을걸. 뒷발을 잡아서 깨니까 꿈이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했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신평으로 내려오는 길가 집이야.)

102006 @ 예.(예.)

102006 # 경 허난 즘은 안 들고 즘숙즘숙[43]허단 즘 ᄒᆞ쏠 들중말중 허난 막 동녁 한질이주게이.(그러니까 잠은 안 들고 '즘숙즘숙' 하다가 잠 조금 들락말락 하니까 막 동녘 한길이지.)

102006 @ 응.(응.)

102006 # 한질로 사름덜 울르멍 막 야단허멍 ᄂᆞ려오는 소리 나난 그냥 내복 바

43) '즘숙즘숙'은 졸려서 잠이 들듯 말듯 하는 모양을 이른다.

람에 홀딱허게시리 마당에 사난 저 놈도 심어오렌 심어오란 이젠 친구덜끼리 무껀 총살을 시긴 거라.(한길로 사람들이 외치면서 막 야단하면서 내려오는 소리 나니까 그냥 내복 바람에 홀딱하게 마당에 서니까 저 놈도 잡아오라고 잡아오니까 이젠 친구들끼리 묶어서 총살을 시킨 거야.)

102006 @ 응.(응.)

102006 # 나 가난 어무니가 꿈에 강생이 쥔게 드들팡에 강 그 뒷발 안 심어시민 죽엇어. 뒷발을 심어져렌. 강생이 뒷발을 심으난 어무니가 나 살려수덴 혜연. 이젠 죽은 사름 누이 일름을 더 불르고, 자꾸 불르고 산 사름 일름을 불르게 뒈난 이걸 어떵허민 좋으렌 혜연 이 동네 또 밀ᄉᆞ허는 것덜 손가락 허여근에 허는 사름신듸 강 알아듣게 우리 아덜은 총도 아이 맞안에 이렇게 헤신디 지서에 가근에 이제 우체국 앞이 엿날 안성상사옌 헌디 우체국이라낫어. 우체국에 가근에 그 지서에 가근에 주임ᄀᆞ라 ᄀᆞᆯ으렌. 살앗젠 헨 ᄀᆞᆯ으렌 허난 총도 하나토 안 맞고 헷젠 헨 ᄀᆞᆯ으렌 헨 ᄀᆞᆯ으난 그런 기관총으로 잡아 쏘아도 살고 두 번 뎅기멍 쏘아도 살앗는디 하늘에서 죄 엇은 사름이난 나오렌 허렌.(내가 가니까 어머니가 꿈에 강아지 주던데 부춘돌에 가서 그 뒷발 안 잡았으면 죽었어. 뒷발을 잡았다고. 강아지 뒷발 잡으니까 어머니가 나 살렸다고 했어. 이젠 죽은 사람 누이 이름을 더 부르고, 자꾸 부르고 산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이 동네 또 밀고하는 것들 손가락 해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알아듣게 우리 아들은 총도 안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서에 가서 이제 우체국 앞이 옛날 안성상사라고 한 데 우체국이었어. 우체국에 가서 그 지서에 가서 주임보고 말하라고. 살았다고 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총도 하나도 안 맞고 했다고 해서 말하라고 해서 말하니까 그런 기관총으로 잡아 쏘아도 살고 두 번 다니면서 쏘아도 살았는데 하늘에서 죄 없는 사람이니까 나오라고 하라고.)

102006 @ 아.(아.)

102006 # 경 허난에 이젠 우리 아버지 지꺼젼 어무니 소상에 동짓둘에 소상헤여 먹젠 날ᄀᆞ라 술헤여 도렌 혜연 술 서너 허벅 허연 놔두고 도새기 크게 질롼 놔뒷단 도새기영 술이영 시껀 간 안성 지서 직원덜 잡안 먹으렌 헨 줜.(그러니까 이젠 우리 아버지가 기뻐서 어머니 소상에 동짓달에 소상해 먹으려고 나보고 술해 달라고 해서 술 서너 허벅 해서 놔두고 돼지 크게 길러 놔두었다가 돼지랑 술이랑 실어서 가서 안성 지서 직원들 잡아서 먹으라고 해서 줬어.)

102006 @ 아.(아.)

102006 # 경헨 해방 뒈엉 모슬포 중ᄒᆞᆨ교 졸업허연 시에 이젠 고등ᄒᆞᆨ교 간 거 아니가. 고등ᄒᆞᆨ교 가난 어무니 엇곡 시에 강은에 보리쏠 ᄉᆞᆲ앙 밥 헤지느냐? 우리 시어멍네가 잘도 좋은[존] 어른덜게. 좁쏠 지곡 산뒤쏠 졍인에 서껑 헹 먹으렌 느 오레비 주라, 주라 허멍. 막 우리 오레비 ᄋᆞ망지고 일름나낫저.(그래서 해방 되어서 모슬포 죽학교 졸업해서 제주시에 이젠 고등학교 간 거 아니냐. 고등학교 가니까 어머니 없고 제주시에 가서 보리쌀 삶아서 밥 할 수 있니? 우리 시어머니네가 잘도

좋은 어른들. 좁쌀 찧고 밭벼쌀 찧어서 섞어서 해서 먹으라고 네 오라비 줘라, 줘라 하면서. 아주 우리 오라비 야무지고 이름났었어.)

102006 @ 아.(아.)

102006 # 경 허난에 주라 주라 허민 어뜬 때 영 불민 아이고 오늘 불암직허다. 강 자리 사당인에 비늘 벳겨둬근에 삼삼허게 소금허영 느네 오레비 오랏건 주곡 허렌 허멍이 우리 시어멍네가 그렇게 좋아. 자린 이제 아니 읏정 가쿠덴. 오란 쏠 읏지레 오란. 꿰 뿟곡 소금에 뿟상 꿰 보까근에 소금에 뿟은 것이 간단허게 먹기 좋쿠덴. 경 허멍 시에 고등흑교 간 일흑년 헤연 이 흑년에 올라가게 됴난에 학도벵으로 학생 모즈 쓴 냥 다 군인 가분 거 아니가?(그러니까 줘라, 줘라 하면 어떤 땐 이렇게 날 좋으면 아이고 오늘 날 좋을 것 같다. 가서 자리돔 사다가 비늘 벗겨두고 삼삼하게 소금해서 너희 오라비 왔으면 주고 하라고 하면서 우리 시어머니네가 그렇게 좋아. 자리돔은 이제 안 가져가겠다고. 와서 쌀 가지러 왔어. 깨 빻고 소금에 빻아서 깨 볶아서 소금에 빻은 것이 간단하게 먹기 좋겠다고. 그러면서 제주시에 고등학교 가서 일 학년 해서 이 학년에 올라가게 되니까 학도병으로 학생 모자 쓴 대로 다 군인 가버린 거 아니냐?)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 군인 가부난 드러 운다분다 허멍 살아가난 우리 애기 아방 우리 애기 세 술에 죽어불언 울엇지, 오레비 군인 강은에 소문 못 들언에 죽엇젠 울어가난 눈은 터도이 사름이 얼굴이 지미가 쓴디 뭐 쓴디 몰라. 경헌디 일 간 오란에 덕수 사름이 훈련 신벵으로 뽑으난 훈련 간 보는디 나 밧듸 간 오라시난 우리 시아방이 느네 오라방 살앗젠 헤여라. 이디 저 누게 훈련 받으레 가난 어디서 완젠 허난 덕수서 오고렌 허난 우리 누님도 그디 살암젠 허난 아이고 우리 일가에 성님네 아주망이엔 허난 혼 이틀 살단 올 때란 둘앙 오렌 헤렌 헤라. 가이 닐은 이제 오늘끄지 삼일이난 닐은 이제 둘레 올 거여 허멍 허연. 게난 둘안 갓주게. 둘안 가난 구 연대난게, 이 남은앞물 신 디로 저 공업사끄지 구 연대라, 연대가 아홉 연대.(군이 가버리니까 들이 울며불며 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아기 아버지 우리 아기 세 살에 죽어버려서 울었지, 오라비 군인 가서 소문 못 들어서 죽었다고 울어가니까 눈은 떠도 사람이 얼굴이 기미가 썼는지 뭐 썼는지 몰라. 그런데 일 갔다 와서 덕수 사람이 훈련 신병으로 뽑으니까 훈련 가서 보는데 나 밭에 가서 왔으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너희 오라비 살았다고 하더라. 여기 저 누가 훈련 받으러 가니까 어디서 왔나고 하니까 덕수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누님도 거기 살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일가에 형님네 아주머니라고 하니까 한 이틀 살다가 올 때는 데리고 오라고 하라고 하더라. 걔 내일은 이제 오늘까지 삼일이니까 내일은 이제 데리러 올 거야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갔지. 데리고 가니까 구 연대니까, 이 '남은앞물' 있는 데로 저 공업사까지 구 연대야, 연대가 아홉 연대.)

102006 @ 응.(응.)

102006 # 저펜이 미국 부대가 싯곡. 경헌디 구 연대서 두 부대 느려온디 다음

부대 그레 저 집더레 들어오는 거나 부대 안트레 들어오난에 가이가 아지망 오라방 부대에 이번 오람수덴 경 허연, 허연에 올레에 정문에 사난에 우리 누인 둘아근에 지 ᄉᆞ무실르레 둘앙 오렌. 겐 둘안 가난 오레비가 얼굴에 지미가 써신디 뭣산디 몰르고 아이고 나 니 얼굴 어떵 뒌 거 몰르켄. 나 손 심언 영영 씰어라게. 얼굴은 좋앗어라게. 경헤연, 경헨 그디서 흔 둘간 훈련허연에 그 아이안티 연락 흔 이틀 숙어지민 오랑 소문 듣곡 허는디 이젠 마지막으로 누님 오렌 헤렌.(저편에 미국 부대가 있고. 그런데 구 연대에서 두 부대가 내려왔는데 다음 부대 그리 저 집으로 들어오는 거나 부대 안으로 들어오니까 걔가 아주머니 오라비 부대에 이번 온다고 그렇게 해서, 해서 '올레'에 정문에 서니까 우리 누인 데려다가 사무실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니까 오라비가 얼굴에 기미가 썼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아이고 나 네 얼굴 어떻게 된 거 모르겠다고. 나 손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쓸더라. 얼굴은 좋았더라.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한 달간 훈련해서 그 아이에게 연락 한 이틀 지나면 와서 소문 듣고 하는데 이젠 마지막으로 누님 오라고 하라고.)

102006 @ 응.(응.)

102006 # 겐 날 ᄃᆞ란 가난 우린 이제 전방에 가게 뒛수다. 전방에 가난 펜지랑 허건 펜지랑 받곡 훼답이랑 허지 맙센. 경헨 이젠 가불민 다신 못 볼로고나 헨 드러 울단 전방에 간에 펜지 온 거 보난 부산 게도 ᄉᆞ무실에 간에 ᄉᆞ무 보는 계통에 선에 허연 이거 펜지헵수덴 허연. 부산서 흔 서너넉 둘 살안에 두 번째 펜지 왓어라게. 펜지 와선게 또 살단에 세 번채 펜지 온 건 전방드레 가노렌. 전방드레 가난에 다시 훼답도 못 허고 누님신듸 펜지 험도 마지막일 거우다 허멍이 얼마 엇언에 오레비 죽엇젠 전보가 왓어.(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니까 우린 이제 전방에 가게 됐습니다. 전방에 가니까 편지랑 하면 편지랑 받고 회답이랑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젠 가버리면 다신 못 보겠구나 해서 들이 울다가 전방에 가서 편지 온 거 보니까 부산 그래도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는 계통에 서서 해서 이거 편지한다고 했어. 부산서 한 서넉 달 살아서 두 번째 편지 왔더라. 편지 왔던데 또 살다가 세 번째 편지 온 건 전방으로 간다고. 전방으로 가니까 다시 회답도 못 하고 누님에게 편지하기도 마지막일 겁니다 하면서 얼마 없어서 오라비 죽었다고 전보가 왔어.)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 전보가 오난 그땐 문 그 부대 다 몰살시겻젠. 겐 죽엇젠 전보 오난 어떵 말고.(전보가 오니까 그땐 모두 그 부대 다 몰살시켰대. 그래서 죽었다고 전보 오니까 어떻게 하겠니.)

102006 @ 일본시대꽈, 아니민 사삼 지나니까 북한군허고 싸운 거?(일본시대입니까, 아니면 사삼 지나니까 북한군하고 싸운 거?)

102006 # 게 북한허고덜 싸왓주게. 북한놈덜이영 싸울 때 전정덜 허영 싸울 때 경 막 쌉단에 죽으난.(게, 북한하고들 싸웠지. 북한놈들이랑 싸울 때 전쟁들 해서 싸울 때 그렇게 막 싸우다가 죽으니까.)

102006 @ 육이오 전쟁 때?(육이오 전쟁 때?)

102006 # 그때. 북한 것덜이영 쌉단에 죽엇주게. 경 허난 죽으난에 광목도 나오고 쏠도 나오고 헷주마는이 하르방이 그까짓 거 필요 이시냐? 단아덜이.(그때. 북한 것들이랑 싸우다가 죽었지. 그러니까 죽으니까 광목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했지마는 할아버지 그까짓 거 필요 있니? 외아들이.)

102006 @ 맞아, 응.(맞아, 응.)

102006 # 막 공부 잘혜영 일름도 나곡 혜영. 엿날에 가이 한참 공부헐 때 중흑교 삼 학년 때에 서울 목ᄉᆞ 왓어. 목ᄉᆞ 오란 요디서 큰 동산 신 디서 오 개 리 신펭, 구억, 이디 삼리 오 개 리 사름 전시 오렌 헨 강연헤도 청년덜이영 서도 답벤헐 사름, 질문헐 사름 질문허라, 답벤헐 사름 답벤허라 헤도 하나 질문도 안헨디 우리 오레비 키가 크다게. 중흑생 삼 흑년짜리가 탁 손 들런 나간 질문허난 이 사름 훌륭헌 사름 뒈켄 허멍 막 그 목ᄉᆞ가 칭찬허멍 헤렌 헨게. 죽어시민 훌륭헌 사름 뒐 철.(막 공부 잘해서 이름도 나고 해서. 옛날에 걔 한참 공부할 때 중학교 삼 학년 때에 서울 목사 왔어. 목사 와서 요기서 큰 동산 있는 데서 오 개 리, 신평, 구억, 여기 삼 리, 오 개 리 사람 전부 오라고 해서 강연해도 청년들이랑 있어도 답변할 사람, 질문할 사람 질문해라, 답변할 사람 답변해라 해도 하나 질문도 안 했는데 우리 오라비가 키가 커. 중학생 삼 학년짜리가 탁 손 들어서 나가서 질문하니까 이 사람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하면서 막 그 목사가 칭찬하면서 하더라고 하더라. 죽었으면 훌륭한 사람 될 차례.)

102006 @ 살아시민. 할머니보다 멧 술 밑에?(살았으면. 할머니보다 몇 살 밑에?)

102006 # 세 술. 경헨게 군인 간 죽어불언.(세 살. 그렇게 해서 군인 가서 죽어버렸어.)

102006 @ 사삼사건 때는 다른 피해는 엇어낫수과?(사삼사건 때는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102006 # 다른 피핸 엇어난.(다른 피핸 없었어.)

102006 @ 주변에 죽은 사름도 엇고?(주변에 죽은 사람도 없고?)

102006 # 죽은 우리 형제간덜 죽은 사름도 엇고, 우리 외가에 총 맞안 죽은 사름도 엇고. 우리 외삼춘네가 우리 어무니네 팔 남매에 애기덜 죽은 사름 ᄒᆞ나토 엇어.(죽은 우리 형제간들 죽은 사람도 없고, 우리 외가에 총 맞아서 죽은 사람도 없고. 우리 외삼촌네가 우리 어머니네 팔 남매에 아기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102006 @ 응, 다행이여예.(응, 다행이네요.)

102006 # 응. 아기덜 ᄌᆞ손ᄁᆞ지. 죽은 사름 엇은디 우리 오레비 총살허난 죽어시카분덴 허난 살안 나오란. 고등학교 간.(응. 아기들 자손까지. 죽은 사람 없는데 우리 오라비 총살하니까 죽었을까 봐 하니까 살아서 나와서. 고등학교 가서.)

102006 @ 이 동네는 사삼 피해 엇어낫수과?(이 동네는 사삼 피해 없었습니까?)

102006 # 무사 엇이느니게? 사삼 피해 핫주게. 여ᄌᆞ ᄒᆞ쏠 곤 여ᄌᆞ덜 말 아이 들으민 쏘아분 것도 잇고. 다 심어단 죽이는 것덜도 싯고.(왜 없니? 사삼 피해 많지.

여자 조금 고운 여자들 말 안 들으면 쏘아버린 것도 있고.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들도 있고.)

102006 @ 산에 사름덜이 내려왕 아니민 이디 경찰덜이.(산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니면 여기 경찰들이.)

102006 # 이디 순경덜게. 이북 것덜. 것덜 글 안 것덜가?(여기 순경들. 이북 것들. 그것들 글 안 것들이냐?)

102006 @ 게난예.(그러니까요.)

102006 # 글도 모른 것덜.(글도 모른 것들.)

102006 @ 이북서 내려온 경찰덜예.(이북서 내려온 경찰들요.)

102006 # 이북 사름덜이 글도 모른 사름덜이 천지빗갈[44]. 글도 몰랑 이녁 고향에 펜지 썽 보낼 중도 모른 사름덜 다 소게바지짜리덜 오랑인에 양복 입쪄근에 ᄉᆞ못 훈련 ᄀᆞ리쳔. 이디서 일 연대, 일 연대로 구 연대ᄁᆞ지 사난 얼마나 헤시니, ᄉᆞ못. 맨 군인 떼주게. 죽은물에 공일날은 그 죽은물에덜 그 군인덜 이 물도 크고 저디 물도 큰디 빨래허는디 난리가 나낫저. 그땐 살아지는 거 닮지 안헨게.(이북 사람들이 글도 모른 사람들이 '천지빗갈'. 글도 몰라서 자기 고향에 편지 써서 보낼 줄도 모른 사람들 다 핫바지들 와서 양복 입혀서 사뭇 훈련 가르쳤어. 여기서 일 연대, 일 연대로 구 연대까지 서니까 얼마나 했니, 사뭇. 맨 군인 떼지. 고인 물에 공일날은 그 고인 물에들 그 군인들 이 물도 크고 저기 물도 큰데 빨래하는데 난리가 났었어. 그땐 사는 거 같지 않았어.)

102006 @ 게믄 이 동네는 산에서 내려온 사름보단.(그러면 이 동네는 산에서 내려온 사람보다.)

102006 # 산에서 내려온 사름도 엇고 이 동넨 산에 간 사름도 엇고. 신펭 사름덜이 산에 간에 죽은 사름도 잇고.(산에서 내려온 사람도 없고 이 동넨 산에 간 사람도 없고. 신평 사람들이 산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102006 @ 이 동네는 북한 사름덜안티 피해가 하낫구나예.(이 동네는 북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았었군요.)

102006 # 웃드르 사름덜이 피해가 한이 경 허난 웃드리선 다 소가이허연 ᄂᆞ려오렌 허난 돌덜 시꺼단 다 성 닷주게이. 성문 ᄃᆞᆯ고이. 난 그때 덕수 살 때난 아기 아방도 죽어불고 덕수 살 때난에 늙은 어른덜 이제 이레 ᄂᆞ려오렌 허난 곡석덜 그냥 집이 놔두민 그 폭도덜 파단 먹넨헨에 작박 매난 작박 소곱에 쏠 묻어뒨 온 할망, 이젠 양석 떨어지난 양석덜 순경덜 입훼허연 강은에 겨울에 늙은 하르방네 두 부체, 애기도 엇은 두 부체가 오꼿 시간이 늦언게.('웃드르' 사람들이 피해가 많아서 그러니까 '웃드리'에선 다 소개해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돌들 실어다가 다 성 쌓았지. 성문 달고. 난 그때 덕수 살 때니까 아기 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덕수 살 때니까 늙은 어른들 이제 이리 내려오라고 하니까 곡식들 그냥 집에 놔두면 그 폭도들 파다가 먹는다고 해서 '작박' 매니까 '작박' 속에 쌀 묻어두고 온 할머니, 이젠 양식

44) '천지빗갈'은 아주 많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천지만지'라고도 한다.

떨어지니까 양식들 순경들 입회해서 가서 겨울에 늙은 할아버지네 두 부부, 아기도 없는 두 부부가 그만 시간이 늦었어.)

102006 @ 응.(응.)

102006 # 들어온 것이 정문 더끄젠 헌 때 들어왓어. 더끄젠 헨 들어온디 이북 사름이 난 아덜도 뚤도 엇은 사름이우다. 이만저만 돌 소곱에 우리 물러레 가멍 들엇주게. 물 질레 가멍, 물 질레 가멍. 아이덜이영 물 질레 허벅 젼 가멍 허는 말이 질ᄀᆞᆺ 밧듸 그 하르방네 두가시 심어단에 작박 멜란에 그 곡석 ᄋᆞ졍오젠 허난 또 그디 신 곡석덜은 작박더레 싸둰 오라가난 영 늦어수덴 허난이 이북 순경은 그걸 이해허연 허는디 덕수 사름, 서부락 사름이 아주 몰상식헌 거. 그 총 도렌 허멍 그 하르방네 팡당팡당 쏘는 거 보난이. 물 질레 가는 사름덜 여러 사름 구경헌디, 어디 그 늙은 하르방 쏘느니?(들어온 것이 정문 닫으라고 한 때 들어왔어. 닫으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북 사람이 낳은 아들도 딸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만저만 돌 속에 우리 물에 가면서 들었지. 물 길러 가면서, 물 길러 가면서. 아이들이랑 물 길러 허벅 지고 가면서 하는 말이 길가 밭에 그 할아버지네 부부 잡아다가 '작박' 찌그러뜨려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또 거기 있는 곡식들은 '작박'에 싸두고 와가니까 이렇게 늦었다고 하니까 이북 순경은 그걸 이해해서 하는데 덕수 사람, 서부락 사람이 아주 몰상식한 거. 그 총 달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네 팡팡 쏘는 거 보니까. 물 길러 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 구경했는데, 어디 그 늙은 할아버지 쏘니?)

102006 @ 게난.(그러니까.)

102006 # 경 허난 총 빼어 ᄋᆞ져라게, 이북 사름은. 둬 번 쏘아도 과이 죽지 안허게 쏘아시난 빼난 또 빼언 그 놈이 쏘아라. 어디 ᄀᆞ뜬 백성인디 늙은 하르방이, 할망은 허리 굽어근에 걷도 못허는 하르방도, 그 곡석 졍 오는 거, 몰라 그것덜 끗어당 먹어신디.(그러니까 총 빼앗아 가지더라, 이북 사람은. 두어 번 쏘아도 과히 죽지 않게 쏘았으니까 빼앗으니까 또 빼앗아서 그 놈이 쏘더라. 어디 같은 백성인데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허리 굽어서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도, 그 곡식 져서 오는 거, 몰라 그것들 끌어다가 먹었는지.)

102006 @ 그것만 뺏앙 보내주지.(그것만 빼앗고 보내주지.)

102006 # 못생긴 것덜. 그것덜 아이 뒌 디가 엇어. 손가락질 동네서 드러 받고.(못생긴 것들. 그것들 안 된 데가 없어. 손가락질 동네서 들이 받고.)

102007 @ 할머니 멧 살에 결혼헨마씨?(할머니 몇 살에 결혼했어요?)

102007 # 그땐 멧 살인고, 스물 멧 살산디.(그땐 몇 살인고, 스물 몇 살인지.)

102007 @ 열 멧 살에 헌 거 아니고?(열 몇 살에 한 거 아니고?)

102007 # 응, 열 멧 살이 아니고. 나가 열일곱 살에 시집가난.(응, 열 몇 살이 아니고. 내가 열일곱 살에 시집가니까.)

102007 @ 열일곱 살에 시집간? 처음에?(열일곱 살에 시집갔어? 처음에?)

102007 # 열일곱 살에 시집간 미녕 차고, 멩지 차고, 멩지 질루고.(열일곱 살에 시집가서 무명 짜고, 명주 짜고, 명주 기르고.)

102007 @ 그딘 어디라?(거긴 어디야?)

102007 # 덕수게, 덕수.(덕수, 덕수.)

102007 @ 그게 열일곱 살에 간? 그때 시집갈 때 중매로 결혼헨?(그게 열일곱 살에 갔어? 그때 시집갈 때 중매로 결혼했어?)

102007 # 중매로 결혼헨.(중매로 결혼했어.)

102007 @ 중맨 어떵 헹 허는 거꽈?(중매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2007 # 중맨 어떵 허여?(중매는 어떻게 해?)

102007 @ 누게가 중매 사 줘?(누가 중매 서 줘?)

102007 # 우리 시누이가, 셋시누이가 대정골 시집 오난게 지네 오레비 각시 허렌 헤연.(우리 시누이가, 둘째 시누이가 대정골 시집 오니까 자기네 오라비 색시 하라고 해서.)

102007 @ 지네 오레비 각시 허렌.(자기네 오라비 색시 하라고.)

102007 # 일본서 부제로 오란 잘사난 허렌 허연. 겐 그때 우리 애기 아방이 죽지 안헌 때 호강시럽게 살앗저게. 일본서 기계 ᄋᆞ져오란 서울 창고 빌엉 데미민 흔 둘에 두 번은 창고 돌아봉 와. 이제 해방만 뒈민 그 기계 허영 그디 강 공장헐 거엔 허멍. 올 때엔 구루무도 상 오고 도화분이엔 헌 거 사오고 구루문 쭈쭈 구루무엔 상왕 동네 처녀덜도 주곡 아주망덜도 주곡 그추룩 헤라게.(일본서 부자로 와서 잘 사니까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 아기 아버지가 죽지 않을 때 호강스럽게 살았지. 일본서 기계 가져와서 서울 창고 빌어서 쌓으면 한 달에 두 번은 창고 돌아보고 와. 이제 해방만 되면 그 기계 해서 거기 가서 공장할 거라고 하면서. 올 땐 크림도 사서 오고 도화분이라고 한 거 사오고 크림은 '쭈쭈' 크림이라고 사와서 동네 처녀들 주고 아주머니들도 주고 그처럼 하더라.)

102007 @ 예.(예.)

102007 # 경 어디 서부락에서 잔치헌덴 허민 초청 와. 오렌.(그렇게 어디 서부락에서 잔치한다고 하면 초청 와. 오라고.)

102007 @ 예.(예.)

102007 #경 허민 우리 시어멍은 그 아기구덕 이레 들러다 뒁 가라 헹 나영 둘리가 가가민 우리 신랑ᄀᆞ라 야 느 각시 치메 안ᄌᆞ룩 쏙 허게 우트레 잡아뎅기라, 치메 ᄌᆞ룩 안으로 ᄒᆞ꼼 등겻저.(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그 요람 이리 들어다 두고 가라 해서 나랑 둘이 가면 우리 신랑보고 야 너희 색시 치마 안자락 쏙 하게 위로 잡아당겨라, 치맛자락 안으로 조금 늘어졌어.)

102007 @ 예.(예.)

102007 # 게민 뒤으로 강 우트로 쑥 잡아뎅겨 주고.(그러면 뒤로 가서 위로 쑥 잡아당겨 주고.)

102007 @ 허허허.(허허허.)

102007 # 나 노래 한창 헤가민 옷 흔 불 쌍 가주게이. 치메저고리이. 쌍 가민 혹허게 포따리 ᄋᆞ정강인에 화장허고 치메저고리 입엉 춤춰 가민 처암엔 누겐 철이

몰르당 말쩬 알곡 허멍 경 사이좋게 살앗저.(나 노래 한창 하면 옷 한 벌 싸서 가지. 치마저고리. 싸서 가면 훅하게 보자기 가져가서 화장하고 치마저고리 입어서 춤춰 가면 처음엔 누군지 모르다가 말째는 알고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살았어.)

102007 @ 응.(응.)

102007 # 경 또 낭 아래, 큰 폭낭 잇주게이. 큰 폭낭 아래서 기타 털곡 저 막둥이 시누이영 ᄀᆞ찌 노래덜 맞촹인에 털멍 놀아가난 첨 넘어가는 사름 불루와 뷔영 ᄀᆞᆯ아라마는 팔제 궂엉 서방질만 들구 허단 아덜 하나 안 나저라.(그렇게 또 나무 아래, 큰 팽나무 있지. 큰 팽나무 아래서 기타 치고 저 막둥이 시누이랑 같이 노래들 맞춰서 치면서 놀아가니까 참 지나가는 사람 부러워 보여서 말하더라마는 팔자 궂어서 서방질만 마구 하다가 아들 하나 못 낳더라.)

102008 @ 결혼헐 때 사주도 봅니까?(결혼할 때 사주도 봅니까?)

102008 # 사주 보주게.(사주 보지.)

102008 @ 막 좋덴, 궁합?(아주 좋다고, 궁합?)

102008 # 좋덴 허주마는게 그 시국에사 좋은 사름이나 궂인 사름이나 다 죽게 뒌 거주 어떵.(좋다고 하지마는 그 시국에야 좋은 사람이나 궂은 사람이나 다 죽게 된 거지 어떻게.)

102008 @ 아니, 게난 하르버진 멧 살 우이꽈?(아니, 그러니까 할아버진 몇 살 위입니까?)

102008 # 서너 솔 우.(서너 살 위.)

102008 @ 궁합도 좋고.(궁합도 좋고.)

102008 # 경 허덴 허난 아기 난 것이 똘이라 부난이 아덜은 ᄂᆞ시 아이 난. 아덜 낫이민 그 재산 직허멍 살컬.(그렇다고 하니까 아기 낳은 것이 딸이라 버리니까 아들은 결국 못 낳았어. 아들 낳았으면 그 재산 직하면서 살걸.)

102009 @ 결혼헐 때 무신거 헹 갑니까? 여자는?(결혼할 때 무엇 해서 갑니까? 여자는?)

102009 # 여자 이불게.(여자 이불.)

102009 @ 멧 채?(몇 채?)

102009 # 엇인 사름은 우알채만 헹 가고 이신 사름은 또시 이불 두 개, 요 두 개 헹 가고.(없는 사람은 위아래채만 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또 이불 두 개, 요 두 개 해서 가고.)

102009 @ 이불 두 개 요 두 개만? 베개도 허고?(이불 두 개, 요 두 개만? 베개도 하고?)

102009 # 베개허고, 자부동[45]도 둬 개 허고.(베개하고, 방석도 둬 개하고.)

102009 @ 자부동도 둬 개 허고.(방석도 둬 개 하고.)

102009 # 없는 사름은 이불 하나, 베개 하나 그자.(없는 사람은 이불 하나, 베개 하나 그저.)

45) '자부동'은 방석이라는 뜻으로 일본어 'ざぶとん'에서 온 말이다.

102009 @ 뭐 요강도 가졍 가?(뭐 요강도 가져 가?)
102009 # 요강은 ᄋᆞ졍 가. 요강은 사기 요강.(요강은 가져 가. 요강은 사기 요강.)
102009 @ 사기 요강? 허영헌 거?(사기 요강? 하얀 거?)
102009 # 응.(응.)
102009 @ 그, 뭐 궤도 이신 사름은 헹 가?(그, 뭐 궤도 있는 사람은 해서 가?)
102009 # 궨 안 ᄋᆞ졍 가.(궤는 안 가져 가.)
102009 @ 궨 안 ᄋᆞ졍 가.(궤는 안 가져 가.)
102009 # 궤 ᄋᆞ졍간 사름 안 허고 이불도 허영 가는 사름, 그 시절에 이불도 헹 가는 사름. 요 아니 부쪙 우이 것만 허영 가는 사름도 이서. 우린 그때에 우리 외삼춘네 아덜 시에 잘살고 외삼춘네 잘살곡 허난 나 양단으로 이불 우알 다 허연 간. 이불 두 개, 요 두 개.(궤 가져간 사람 안 하고 이불도 해서 가는 사람, 그 시절에 이불도 해가는 사람. 요 안 붙여서 위의 것만 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 우린 그때에 우리 외삼촌 아들 제주시에 잘살고 외삼촌 잘살고 하니까 나 양단으로 이불 위아래 다 해서 갔어. 이불 두 개, 요 두 개.)
102009 @ 이불 두 개, 요 두 개.(이불 두 개, 요 두 개.)
102009 # 우리 외삼춘 큰아덜이 시에 오란에 ᄒᆞᆨ교 선생 허난에 그디 간에 기지사단, 사도렌 헨 산.(우리 외삼촌 큰아들이 제주시에 와서 학교 선생 하니까 거기 가서 천 사다가, 사달라고 해서 샀어.)
102009 @ 할머닌 시집갈 때 무신거 받읍디가?(할머닌 시집갈 때 무엇 받으셨습니까?)
102009 # 응?(응?)
102009 @ 시집이서 무신거 헤줍디가?(시집에서 무엇 해주었습니까?)
102009 # 시집이서 무신거 헤주느니?(시집에서 무엇 해주니?)
102009 @ 옷 ᄒᆞᆫ 벌?(옷 한 벌?)
102009 # 옷 ᄒᆞᆫ 불.(옷 한 벌.)
102009 @ 무신 옷 ᄒᆞᆫ 불?(무슨 옷 한 벌?)
102009 # 멩지로 옷 ᄒᆞᆫ 불.(명주로 옷 한 벌.)
102009 @ 멩진 허영헌 거?(명주 하얀 거?)
102009 # 응. 멩지로 옷 ᄒᆞᆫ 불.(응. 명주로 옷 한 벌.)
102009 @ 거 ᄒᆞ나벳긔 안 헤줘?(그거 하나밖에 안 해줘?)
102009 # 거벳긔 안 헤줘.(그것밖에 안 해줘.)
102009 @ 그디 뭐 큰어멍 족은어멍덜은 뭐 안 헤줘?(거기 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들은 뭐 안 해줘?)
102009 # 안 헤줘. 이제덜은 다 경 허여도 그땐 안 허여.(안 해줘. 이제들은 다 그렇게 해도 그땐 안 해.)
102009 @ 이젠 막 결혼헐 때.(이젠 막 결혼할 때.)

102009 # 그땐이 공출 시절이라노난.(그땐 공출 시절이라서.)

102009 @ 아, 일본 시절이구나예?(아, 일본 시절이군요?)

102009 # 일본 시대에 게다 신엉 비글락비글락. 고무신도 엇어. 다 낭토막 헤영 게다 멘들앙 신곡 초신 삼앙 신곡.(일본 시대에 왜나막신 신어서 비틀비틀. 고무신도 없어. 다 나무토막 해서 왜나막신 만들어서 신고 짚신 삼아서 신고.)

102009 @ 시집갈 땐 무신 신발 신엇수과?(시집갈 때 무슨 신발 신었습니까?)

102009 # 시집가난에 그디서 가막창신 ᄋᆞ져와선게.(시집 가니까 거기서 '가막창신' 가져왔던데.)

102009 @ 아, 가막창신 앗아와십디가?(아, 가막창신 가져왔어요?)

102009 # 창신 신엉 오렌 창신 ᄋᆞ젼 왓어라.(가죽신 신어서 오라고 가죽신 가져서 왔더라.)

102009 @ 건 가죽 신발인가?(그건 가죽 신발인가?)

102009 # 가죽신. 응. 게난에 나 그 신도 신어보도 졸바로 신어보도 안헷저. 받안 내불언. 일본서 우리 형님이 붉은 고무신 둬 개 보내오난게. 빨강헌 고무신 보내서라.(가죽신. 응. 그러니까 나 그 신도 신어보기도 제대로 신어보지도 않았어. 받아서 내버렸어. 일본서 우리 형님이 붉은 고무신 두어 개 보내오니까. 빨간 고무신 보냈더라.)

102009 @ 그 시집 식구들안티 할머니가.(그 시집 식구들에게 할머니가.)

102009 # 엿날엔 그런 거 엇엇어. 시집이 식솔덜 뭣 헤단 주는 버릇이 엇엇어. 요새 신식이난 경 허주. 요즘은 다 경헤도.(옛날엔 그런 거 엇엇어. 시집에 식솔들 뭐 해다가 주는 버릇이 없었어. 요새 신식이니까 그렇지. 요즘은 다 그래도.)

102009 @ 아니 뭐 보선 헹 돌려낫젠.(아니 뭐 버선 해서 돌렸었다고.)

102009 # 보선도 아니 헷어, 엿날에. 이제 새 세상 나난 허주. 우리 덕수 이제 ○○이 각시엔 헌 사름이 시집 오란에 고모덜신듸 보선 ᄒᆞᆫ 컬리도 안 줫저. 아무것도 안 줜. 어느 절에.(버선도 안 했어, 옛날에. 이제 새 세상 나니까 하지. 우리 덕수 이제 ○○이 색시라고 한 사람이 시집 와서 고모들에게 버선 한 켤레도 안 줬어. 어느 겨를에.)

102009 @ 옛날엔 그런 거 엇어난예?(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102009 # 게, 우리 아덜 ᄑᆞ난에 큰각시가 우리 아덜 큰어멍 시난 돈을 ᄋᆞ져와서라. 돈으로 새각시 선물로 ᄋᆞ져오난 우리 메누리도 대ᄒᆞᆨ교 뎅기고 아덜도 대ᄒᆞᆨ교 뎅견에 메누린 재기 ᄆᆞᆫ저 졸업허난 우리 하르방[46]이 졸업헐 때 돈 주난에이 우리 아덜 졸업헐 땐 그 돈 준 걸로 백만 원 준 거로 노리롱헌 기지 산에 반코드허연 입고렌 자랑헤라게. 우리 큰집이 아덜도 우리 아덜 졸업헐 때 ᄀᆞ치 구경허고 헤신디. 우리 아덜 풀젠 허난 그디 우리 하르방 큰뚤이 지네 시아주방 픈 때에 돈 이십만 원썩 오란 테와렌. 이십만 원썩 테와렌 허난 아니 삼십만 원썩 테와렌 헷어. 돈 ᄋᆞ정오란 삼십만 원썩 테와렌 허난 정말산디 거짓말산디 몰란 아이고 우리 메누린 얼

46) '하르방'은 제주어로 할아버지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마사 ᄋᆞ졍 오랑사 헐디 사둔칩이 새각시 적시 천만 원 봉투에 담고 또 어멍 아방 옷 헹 입으렌 삼십만 원 담앙 가져갓주게.(그렇지,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큰마누라가 우리 아들 큰어머니 있으니까 돈을 가져왔더라. 돈으로 새색시 선물로 가져오니까 우리 며느리도 대학교 다니고 아들도 대학교 다녀서 며느린 재게 먼저 졸업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졸업할 때 돈 주니까 우리 아들 졸업할 땐 그 돈 준 걸로 백만 원 준 거로 노르스름한 천 사서 반코트해서 입었다고 자랑하더라. 우리 큰집의 아들도 우리 아들 졸업할 때 같이 구경하고 했는데. 우리 아들 팔려고 하니까 거기 우리 할아버지 큰딸이 자기네 시아주버니 결혼할 때에 돈 이십만 원씩 와서 나눠줬다고. 이십만 원씩 나눠줬다고 하니까 아니 삼십만 원씩 나눠줬다고 했어. 돈 가져와서 삼십만 원씩 나눠줬다고 하니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서 아이고 우리 며느린 얼마나 가져 와야 할지 사돈집에 새색시 깃 천만 원 봉투에 담고 또 어머니 아버지 옷 해서 입으라고 삼십만 원 담아서 가져갔지.)

102009 @ 응.(응.)

102009 # 우리 메누린 얼마사 담앙 올티 아덜이영 오란 어머니가 알앙 헙센 그 돈을 줘라게. 게난 이십만 원썩 나가 계산헷주게. 그 우리 하르방 뚤이 ᄋᆞ섯 성제. 이십만 원썩 백이십만 원, 어멍 허민 백ᄉᆞ십만 원 또시 이제 그디 고모덜, 고모덜이 세 개. 경헹 이제 다 봉투에 담안이 족은어멍네 적시영 헹 봉투에 담안에 우리 아덜이 우리 뚤레 시 성제난 세 개 허고 나허난 네 개 허고 허연 돈을 이젠 담안에 우리 아덜이 허는 말이 그때 서구포 잇은 때라. 군에 이슨 때난 어무니 ᄀᆞ찌 가근에 돈 줘뒁인에 저 모실포 강 누나네영 헙서 허곤데 경 허렌 허연. 이젠 돈 ᄋᆞ졍 간 오십만 원짜린 형님네 줍센 경헤라게.(우리 며느린 얼마야 담아서 올지 아들이랑 와서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 돈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십만 원씩 내가 계산했지. 그 우리 할아버지 딸이 여섯 형제. 이십만 원씩 내가 계산했지. 그 우리 할아버지 딸이 여섯 형제. 이십만 원씩 백이십만 원, 어머니 하면 백사십만 원 또 이제 거기 고모들, 고모들이 세 명. 그래서 이제 다 봉투에 담아서 작은어머니 깃이랑 해서 봉투에 담아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네 삼 형제니까 세 개 하고 나 하니까 네 개 하고 해서 돈을 이젠 담아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때 서귀포 있을 때야. 군에 있을 때니까 어머니 같이 가서 돈 줘두고 저 모슬포 가서 누나네랑 하십시오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젠 돈 가져가서 오십만 원짜린 형님네 주시라고 그렇게 하더라.)

102009 @ 응.(응.)

102009 # 경ᄏᆞ테 경 헤연. 오십만 원짜린 느네 거고 고모덜 적시 이거 이십만 원 짜린 고모네 적시여. 느네 어멍은 시에 사난이 어멍네 적신 이제 아방이 시에 뚤덜이영 주켄 헤라 허멍 아무거엔도 안헨 그자 난 모실포 가난 막둥이 시누이네 집이 가난 십만 원짜리 기지 그치난 ᄉᆞ만 원 옷 헌 쿰은 안헹 육만 원 궤기 사먹고 남고. 우리 뚤은 또시 십이만 원짜리난에 ᄉᆞ만 원 궤기 사먹을 거 돈을 남안 왓어. 남안 오난 우리 하르방이 고모덜 옷 안 헤준덴 헨에 메누리영 아덜이영 시에 가서

렌. 그걸 다 가젼 왓어라게.(그러길래 그렇게 했어. 오십만 원짜린 너희 거고 고모들 깃 이거 이십만 원짜린 고모네 깃이야. 너희 어머니는 제주시에 사니까 어머니네 깃은 이제 아버지가 제주시에 딸들이랑 주겠다고 하더라 하면서 아무것이라고도 않고 그저 난 모슬포 가니까 막둥이 시누이네 집에 가니까 십만 원짜리 천 자르고 오니까 사만 원 옷 한 품은 않고 육만 원 고기 사먹고 남고. 우리 딸은 또 십이만 원짜리니까 사만 원 고기 사먹을 돈을 남겨서 왔어. 남겨서 오니까 우리 할아버지 고모들 옷 안 해준다고 해서 며느리랑 아들이랑 제주시에 갔더래. 그걸 다 가져 왔더라.)

102010 @ 건 아덜 풀 때고, 할머니 결혼헐 땐 생각나는 거 엇수과?(그건 아들 결혼할 때고, 할머니 결혼할 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02010 # 생각날 거 무신거 ᄒᆞ는 거 시니?(생각날 거 무엇 하는 거 있니?)

102010 @ 할머니 결혼헐 때 가메 탕 간?(할머니 결혼할 때 가마 타고 갔어?)

102010 # 가메 아니 도께.(가마 아니 독교.)

102010 @ 도께.(독교.)

102010 # 도께에 ᄆᆞᆯ 메완.(독교에 말 메워서.)

102010 @ 아. ᄆᆞᆯ 메완. 할머니 결혼헐 때 결혼식은 헨마씨?(아. 말 메워서. 할머니 결혼할 때 결혼식은 했어요?)

102010 # 결혼식 그땐 아니 헌다게.(결혼식 그땐 안 한다.)

102010 @ 마당에서라도 안 헤?(마당에서라도 안 해?)

102010 # 마당에서 안 헤여. 그땐 가민 그자 방더레 청허여근에.(마당에서 안 해. 그땐 가면 그저 방으로 청해서.)

102010 @ 기? 텔레비전에서추룩 마당에서 절허곡 안 헤?(그래? 텔레비전에서처럼 마당에서 절하고 안 해?)

102010 # 그런 거 안 헷어.(그런 거 안 했어.)

102010 @ 아, 그런 거 안 헨.(아, 그런 거 안 했어.)

102010 # 우리 ᄋᆞᆨ도록 우리 시집 간 후제도 그런 일 엇엇어. 새각시 가민 그자 받아들영 구들드레.(우리 크도록 우리 시집 간 후에도 그런 일 없었어. 새색시 가면 그저 받아들여서 방으로.)

102010 @ 구들드레, 응. 결혼식 같은 거 엇구나예.(방으로, 응. 결혼식 같은 거 없군요.)

102010 # 식이랑마랑.(식은커녕.)

102010 @ 사진도 안 찍언?(사진도 안 찍었어?)

102010 # 사진도 안 찍엇어, 그 시절엔.(사진도 안 찍었어, 그 시절엔.)

102010 @ 언제쯤에 사진 찍엇수과? 누게네 헐 때쯤에.(언제쯤에 사진 찍었습니까? 누구네 할 때쯤에.)

102010 # 새 세상 난, 새 세상 나난에 사진덜토 찍엇주. 사진 찍는 집 엇어낫어.(새 세상 나서, 새 세상 나니까 사진들도 찍었지. 사진 찍는 집 없었어.)

102011 @ 게민 저 결혼헤근에 신혼은 어느 집이서 살앗수과? 시어멍, 시아방.(그러면 저 결혼해서 신혼은 어느 집에서 살았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102011 # 시어멍, 시아방 큰방에 살고 우린 밧거리 방에 눕곡 허연.(시어머니, 시아버지 큰방에 살고 우린 바깥채 방에 눕고 했어.)

102011 @ 밧거리?(바깥채?)

102011 # 응, 살앗주게. 안팟거리 살앗주.(응, 살았지. 안팎채 살았지.)

102011 @ 안팟거리 살앗구나예? 멧 년이나 경 살안에 집 헨 나갓수과?(안팎채 살았군요? 몇 년이나 그렇게 살아서 집 해서 나갔습니까?)

102011 # 멧 년 살지 안허고 그디서 혼 이 년 살아도 아기가 재게 엇어라게. 그딘 애기 재게 보젠 헌디.(몇 년 살지 않고 거기서 한 이 년 살아도 아기가 재게 없더라. 거긴 아기 재게 보려고 하는데.)

102011 @ 응.(응.)

102011 # 삼 년채 아기 가젼. 뚤 난에. 뚤 난에 뚤 세 설에 아방 죽어불어시녜게.(삼 년째 아기 가졌어. 딸 낳아서. 딸 낳아서 딸 세 살에 남편 죽어버렸어.)

102011 @ 아이고.(아이고.)

102011 # 세 설에 아방 죽어불고 우리 아지방은 학교서 바로 시꺼단 어디 간사 죽어불어신디.(세 살에 남편 죽어버리고 우리 아주버니는 학교서 바로 실어다가 어디 가서야 죽어버렸는지.)

102006 @ 아방은 어떵 헹 죽은 거마씨?(남편은 어떻게 해서 죽은 거예요?)

102006 # 우리 애기 아방은 창천리 출장소난 창천리 출장소에 근무허여근에 그디서 책임자라낫주게. 아, 경헌디 여름에 보난에 철구르마에 시껀 오랏어라게.(우리 아기 아버지는 창천리 출장소니까 창천리 출장소에 근무해서 거기서 책임자였지. 아, 그런데 여름에 보니까 철 달구지로 실어서 왔더라.)

102006 @ 무사?(왜?)

102006 # 한청원[47]덜.(한청원들.)

102006 @ 사삼 때?(사삼 때?)

102006 # 응, 그 위험헌 때. 철구르마에 시껀 왓이난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기 아방 여ᄌᆞ 막 좋아허는 사름이난이 마리에 이젠 안거리 큰 마리에 ᄋᆞ져단 손발을 막 조사헤라게, 어뜨난이. 그걸로 아판에 오몽을 못헷어이. 오몽을 못허난 무조건 부락사름덜 모실포 큰 창고에 다 가돳어. 큰 창고에 대정 지경에 사름은 큰 창고에 보리쏠 박듯이 앚안 직헌디 우리 애기 아방은 아프난에 우리 애기 아방 부축허영은에 오줌 싸게도 뎅기게꾸리 허여 도렌 동네 사름 빌언이 이젠 뚠 방에 밥허는 공섯간[48]에 자리 출련 눅젼. 우리 애기 아방 ᄒᆞ루 걸렁 나 가곡 허주게. 음석 허영 강. 경 먹을 때 우리 애기 아방 ᄀᆞ치 간호허는 사름 적시도 ᄋᆞ정 가곡 허는디 나가 우리 애기아방은 죽여 먹어졋저게.(응, 그 위험한 때. 소달구지에 실어서 왔으

47) '한청원'은 제주경찰국에 소속된 단체이다.

48) '공섯간'은 따로 마련한 부엌을 이르는 말로 '공싯간'이라고도 한다.

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기 아버지 여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마루에 이젠 안채 큰 마루에 가져다가 손발을 막 조사하더라, 어쩐지. 그걸로 아파서 거동을 못했어. 거동을 못하니까 무조건 부락 사람들 모슬포 큰 창고에 다 가뒀어. 큰 창고에 대정 지경에 사람은 큰 창고에 보리쌀 박듯이 앉아서 지키는데 우리 아기 아버지는 아프니까 우리 아기 아버지 부축해서 오줌 싸게도 다니게끔 해 달라고 동네 사람 빌려서 이젠 다른 방에 밥하는 부엌에 자리 차려서 눕혔어. 우리 아기 아버지 하루 걸러서 내가 가고 하지. 음식 해 가서. 그렇게 먹을 때 우리 아기 아버지 같이 간호하는 사람 깃도 가지고 가고 하는데 내가 우리 아기아버지는 죽여 먹었어.)

102006 @ 무사?(왜?)

102006 # 무사 경 허리, 혼 메틀 뒈난에 입추 산 사름이 김 형은 멀지 안헹 나가요 헌 걸 애기아방ᄀᆞ라 ᄀᆞᆫ지 안헤시민 살컬게. 김 형은 나가요 허난 나가 또시 막 기분 좋안이 당신은 저 입추 사는 사름 말이 김 형은 멀지 안헹 나가요 헙디덴 허멍 지꺼젼 애기 아방신듸 자랑허난 닷새채 또시 ᄒᆞ루 걸렁 ᄒᆞ루 가주게. 오늘 걸렁 낼 가곡 헌디 나 강 톡 내리민 애기가 다글다글 걸어 강인에 아방신듸, 엇덴 허멍 울멍 오난 입추 사는 사름은 김 형 잇어요, 잇어요 헨 나 영 간 보난 엇어라게. 엇으난 지서레 연락허난 주임이 와서라게. 완 어떻게 뒈시닌 그디 앚은 사름신듸 호명허난 한 사름 일름 호명 안 허난 올르지 못허난 풀 심언 잡아뎅기는디 아래서 올려라 헨. ᄀᆞ찌 간 죽어불언. 나가 오꼿 죽여먹은 거주. ᄀᆞᆫ지 안헤시민 아니 가주기. 일름 안 불러시난게. 난 지꺼전 애기아방신듸 ᄀᆞᆯ안.(왜 그렇게 하니, 한 며칠 되니까 보초 선 사람이 김 형은 머지않아 나가요 한 걸 아기아버지보고 말하지 않았으면 살걸. 김 형은 나가요 하니까 내가 또 아주 기분 좋아서 당신은 저 보초 서는 사람 말이 김 형은 머지않아 나가요 하더라고 하면서 기뻐서 아기 아버지에게 자랑하니까 닷새째 또 하루 걸러서 하루 가지. 오늘 걸러서 낼 가고 하는데 내가 가서 톡 내리면 아기가 '다글다글' 걸어가서 아버지에게, 없다고 하면서 울면서 오니까 보초 서는 사람은 김 형 있어요, 있어요 해서 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없더라. 없으니까 지서에 연락하니까 주임이 왔더라. 와서 어떻게 됐냐 거기 앉은 사람에게 호명하니까 한 사람 이름 호명 안 하니까 오르지 못하니까 팔 잡아서 잡아당기는데 아래서 올려라 해서. 같이 가서 죽어버렸어. 내가 그만 죽여 먹은 거지. 말하지 않았으면 안 가지. 이름 안 불렀으니까. 난 기뻐서 아기아버지에게 말했어.)

102006 @ 누가 죽인 거?(누가 죽인 거?)

102006 # 경찰에서. (경찰에서.)

102006 @ 산에 사름이엔?(산의 사람이라고?)

102006 # 아니 그런 사상에 걸렷젠 헨 죽인 거주게.(아니 그런 사상에 걸렸다고 해서 죽인 거지.)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 사상에 걸리도 안허고 우리 애기 아방은 한청원 단장으로 잇은 때주게.(사상에 걸리지도 않고 우리 아기 아버지는 한청원 단장으로 있을 때지.)

102006 @ 근디 어떵 헹 경.(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2006 # 경헨 어떵사 헤신디 경헨 죽여불고. 또 우리 아주방은 흑교서 바로 시꺼가난 어디 간사 죽여불어신디.(그렇게 해서 어떻게야 했는지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또 우리 아주버니는 학교서 바로 실어가니까 어디 가서야 죽여버렸는지.)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 우리 시아주방은 일본서 바로 오란 흑교 선생. 졸업허난. 우리 애기 아방은 졸업장 그 오는 해사 받으난에 어디 육지만 가젠 허엿주게. 경 허난 동네 청년덜 둘아단 그자 공부만 시기단에.(우리 시아주버니는 일본서 바로 와서 학교 선생. 졸업하니까. 우리 아기 아버지는 졸업장 그 오는 해야 받으니까 어디 육지만 가려고 했지.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 데려다가 그저 공부만 시키다가.)

102006 @ 그건 사삼 땐 아니고?(그건 사삼 땐 아니고?)

102006 # 사삼 때게.(사삼 때.)

102006 @ 사삼 때?(사삼 때?)

102006 # 영만 허민 다 죽일 때.(이렇게만 하면 다 죽일 때.)

102006 @ 오레비만이 아니고 애기 아방도 경.(오라비만이 아니고 아기 아버지도 그렇게.)

102006 # 영 손가락질허민 죄 엇어도 저 놈이엔 허민 탁 방 맞췅 죽일 때 아니가게, 그때사. 게난 그 덕수 ᄆᆞ슬에서 손가락질허난 죽엇젠 헌다. 경 허난 이젠 그디 이젠 알드르[49] 밧 삿주게. 큰 밧 산에 알드르 구뎅이 간 묻언. 들이쳐 불어서 이.(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죄 없어도 저 놈이라고 하면 탁 방 맞춰서 죽일 때 아니냐, 그때야. 그러니까 그 덕수 마을에서 손가락질하니까 죽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젠 거기 이젠 '알드르' 밭 샀지. 큰 밭 사서 '알드리' 구덩이 가서 묻었어. 들이뜨려 버렸어.)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 구뎅이 간에 들이치난 그 구뎅이에, 그 구뎅인 어떵헌 구뎅이냐 허민 우리 학생 때에 비행장 멘드는 디 차가 들어강은에 그디 강 퍼뒁 오민 큰 산만 헌 굴을 멘들앗어. 굴을 멘들안에.(구덩이 가서 들이뜨리니까 그 구덩이에, 그 구덩인 어떤 구덩이냐 하면 우리 학생 때 비행장 만드는 데 차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퍼두고 오면 큰 산만큼 한 굴을 만들었어. 굴을 만들어서.)

102006 @ 알드르 비행장?('알드르' 비행장?)

102006 # 게민 일본 차에 무신 버렝이ᄀᆞ치 시껑 오랑 그 창고 안에 들어강 퍼뒁 나오곡 허민 우리 학생 시절에 그 비행장에 테 요만썩 헹 싱그레 자꾸 가낫주게. 제주도 사름은 그디서 함박 썽 테 헌다, 비행장 멘든다 살곡 헐 때난. 경헨 그거 아는디 그 창고 이제 해방 뒈난 일본은 창고 ᄆᆞᆫ 부솨뒨 간 거 아니가? 멜라뒨이 가부난에.(그러면 일본 차에 무슨 벌레처럼 실어 와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퍼두고 나

49) '알드르'는 '알(아래)'과 '드르(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로 대정읍의 한 지명이다. 일제시대 비행장으로 쓰던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오고 하면 우리 학생 시절에 그 비행장에 잔디 요만큼씩 해서 심으러 자꾸 갔었지. 제주도 사람은 거기서 바가지 써서 잔디 한다, 비행장 만든다 살고 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아는데 그 창고 이젠 해방 되니까 일본은 창고 모두 부수고 간 거 아니냐? 허물고 가버리니까.)

102006 @ 응.(응.)

102006 # 이젠 해방 뒈난 제주도 사름덜 그디 뽀렝이 줏엉 풀아먹젠 그 우로 튿언에 산 튿언 철조망 이추룩 걸어진 디 거 뽀렝이 헤단덜 모실포 사름덜 풀아먹으멍 돈 벌멍 사난.(이젠 해방 되니까 제주도 사람들 거기 탄피 주워서 팔아먹으려고 그 위로 뜯어서 산 뜯어서 철조망 이처럼 걸려있는 데 그거 탄피 해다가 모슬포 사람들 팔아먹으면서 돈 벌어서 사니까.)

102006 @ 뽀렝이가 뭐?('뽀렝이'가 뭐?)

102006 # 총뽀렝이.(탄피.)

102006 @ 아, 총뽀렝이.(아, 탄피.)

102006 # 경 허난 철조망 헌 디 ᄋᆞ져단에 들이쳔 쏘아부난 더런 다리로 걸어지고 야게기 걸어지곡 허난 우리 시어멍네가 걸렝이 하나 졍 강 느 아기, 나 아기 엇이 심엉인에 업음만 허건 나오켄 허연 가난 그디 산에 올라간 것 닮으민 총 팡팡 경비원덜 쏘멍 뎅기게 군 말가? 못 뎅기게 구난 멧 년 뒈난 썩언 빠지난 물이 글로 ᄀᆞ득앗어. 누렁헌 물이 시난 저 모실포 큰 공장에 사름이 양수기 두 개 대언 이틀을 퍼도 그 누렁헌 물 믄 푸지 못헨 내불어시네. 내불엇단 멧 십 년 뒈언, 흔 이십 멧 년 뒈언 한 이십 멧 년 뒈난에 이젠 땅이 나오난 이젠 신체 봉가 가라 허난 봉그레 가난.(그러니까 철조망 한 데 가져다가 들이뜨려서 쏘아버리니까 더러는 다리로 걸리고 목으로 걸리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네가 띠 하나 져서 가서 너 아기, 내 아기 없이 잡아서 업기만 하면 나오겠다고 해서 가니까 거기 산에 올라간 거 같으면 총 팡팡 경비원들이 쏘면서 다니게 굴 말이냐? 못 다니게 구니까 몇 년 되니까 썩어서 빠지니까 물이 그리로 가득 찼어. 누런 물이 있으니까 저 모슬포 큰 공장에 사람이 양수기 두 개 대서 이틀을 퍼도 그 누런 물 모두 푸지 못해서 내버렸어. 내버렸다가 몇 십 년 되어서, 한 이십 몇 년 되어서 한 이십 몇 년 되니까 이젠 땅이 나오니까 이젠 시체 주워 가라 하니까 주우러 가니까.)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 시아방이영 우리 그 이제 그 신체 봉그레 간 신첸 봉간 오는디 대가리 하나 해골박 ᄒᆞ나 봉그민 알 거 뭣고이?(시아버지랑 우리 그 이제 그 시체 주우러 가서 시체 주워서 오는데 대가리 하나 해골박 하나 주우면 알 게 뭐니?)

102006 @ 그 사름인 줄 어떵 알아?(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

102006 # 몰르주게. 경 허난 팔십 멧 멩이 대가리만 팔십 멧 멩이 나와도 우리 ○○ 아방이엔 헌 사름은 안 나완. 안 나오난에 이젠 날ᄀᆞ라 이젠 누게 데려 가노렌 신고허영 가렌. 가난에 그 물 판 도에 간 보난에 ○○이 아주방이영 ○○이 아주방이영 양 어깨에 그 칠성판을 두 개 들런 나와라게. 두 개 들런 나오난에 하난

누게꽈 허난 산방 두에 옛날 홍칩이 아덜. 하나만 들렁 나오주게 양펜이 하나썩 다 들렁 나가렌 멩령 들으난 누겐 철이 몰르고 해골 머리 하나 들런 오고렌 허멍. 아부진 무사 안 나왐수겐 허난 놀멍 보내주 경 혼번[뻔]에 아니 보낸덴.(모르지. 그러니까 팔십 몇 명이 대가리만 팔십 몇 명이 나와도 우리 ○○ 아버지라고 한 사람은 안 나왔어. 안 나오니까 이젠 나보고 이젠 누구 데려 가노라고 신고해서 가라고. 가니까 그 물 판 입구에 가서 보니까 ○○이 아주버니랑 ○○이 아주버니랑 양 어깨에 그 칠성판을 두 개 들어서 나오더라. 두 개 들어서 나오니까 하난 누구입니까 하니까 산방산 뒤에 옛날 홍씨 집의 아들. 하나만 들어서 나오지 양편에 하나씩 다 들어서 나가라고 명령 들으니까 누군 차례 모르고 해골 머리 하나 들어서 왔다고 하면서. 아버진 왜 안 나옵니까 하니까 놀면서 보내지 그렇게 한꺼번에 안 보낸다고.)

102006 @ 응.(응.)

102006 # 이젠 오란에 이젠 날ᄀᆞ라 목욕시기렌 허난 우리 어머닌 영 봔 아니엔 허멍 드러 울어가난 말짠 시아방ᄀᆞ란 어느 거 느 아기, 나 아기곤. 다 우리 애기 아니겐. 다 우리 애긴디 느 아기, 나 아기 ᄀᆞᆯ안 뭣 허느닌. ○○ 어멍이 ○○ 아방이엔 허민 통화뒌다. 그추룩 허는 거라. ○○ 아방이엔 허민.(이젠 와서 이젠 나보고 목욕시키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닌 이렇게 봐서 아니라고 하면서 들이 울어가니까 말째는 시아버지보고 어느 것 네 아기, 내 아기냐고. 다 우리 아기 아니냐고. 다 우리 아긴데 네 아기, 내 아기 말해서 뭐 하느냐고. ○○ 어머니가 ○○ 아버지라고 하면 통한다. 그처럼 하는 거야. ○○ 아버지라고 하면.)

102006 @ 애기 이름이 ○○?(아기 이름이 ○○?)

102006 # 응, 우리 애기. ○○ 아방이엔 허민 뒌다. 어느 거 느 아기, 나 아기, 다 우리 애기덜 아니겐.(응, 우리 아기. ○○ 아버지라고 하면 된다. 어느 것 네 아기, 내 아기, 다 우리 아기들 아니냐고.)

102006 @ 예.(예.)

102006 # 아기덜 다 젊은 것덜 죽은 거난 우리 애기 아니겐. 백삼십 명 죽은 거 어떵 헐 말고. 경 허난 나 저 ○○ 아방 알아집니다. ○○ 아방 니에 버렝이 먹은 것도 엇고 니가 홁은 것도 엇고 코뚱허난 알아집니다 허멍 놀감주[50] 송장 해골 싯젠 허민 놀감주 허영 간덴. 놀감주 헤영 간 거 이런 걸로 적지멍 니를 영영 다끄멍.(아기들 다 젊은 것들 죽은 거니까 우리 아기 아니냐고. 백삼십 명 죽은 거 어떻게 할 말인가. 그러니까 나 저 ○○ 아버지 압니다. ○○ 아버지 이에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이가 굵은 것도 없고 가지런하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놀감주' 송장 해골 씻으려고 하면 '놀감주' 해서 간다고. 날감주 해서 간 거 이런 걸로 적시면서 이를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서.)

102006 @ 따끄멍.(닦으면서.)

102006 # 나 ○○ 아방 니빨 알아집니다. 버렝이 먹은 것도 엇고 어디 ᄒᆞ꼼 튀

50) '놀감주'는 끓여서 달이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감주를 이른다. '셍감주'라고도 한다.

어난 것도 알아집니다 허멍 드러 따끄멍 ○○ 아방 알아집니다. ○○ 아방 니빨 닮수다, 닮수다 허난 선뜩허게 얼굴 거닐어라게, 얼굴 나와라게.(나 ○○ 아버지 이빨 압니다.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어디 조금 튀어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들이닦으면서 ○○ 아버지 알 수 있습니다. ○○ 아방 이빨 같습니다, 같습니다 하니까 선뜻하게 얼굴이 '거닐더라게', 얼굴 나오더라.)

102006 @ 아.(아.)

102006 # 얼굴 나오난 곳사 ○○ 아방 선뜩허게 얼굴 나옵디덴 허난 그때사 우리 어무니 나완 아이고 나 아덜인자, 나 아덜인자 헨 그디 알드리 요만은 허게 무덤 싯주게. 경 허난 그때 ○○이 아주방이영 둘리 들러온 거 둘리 들러온 거 산방 뒤에 홍칩이 아덜 ᄀᆞ찌 묻고 우리 애기 아방도 ᄀᆞ찌 묻언 싯주게. ᄀᆞ찌 묻으난 큰 비석 세왓어.(얼굴 나오니까 아까 ○○ 아버지 선뜻하게 얼굴 나오더라고 하니까 그때야 우리 어머니 나와서 아이고 내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해서 거기 '알드리' 요만큼은 하게 무덤 있지. 그러니까 그때 ○○이 아주버니랑 둘이 들고온 거 둘이 들고 온 거 산방산 뒤에 홍씨 집 아들 같이 묻고 우리 아기 아버지도 같이 묻어서 있지. 같이 묻으니까 큰 비석 세웠어.)

102006 @ 아, 백조일손지묘.(아, 백조일손지묘.)

102006 # 응, 그디 이제 우리 하르방이 큰 밧 돈 줘 사고렌 그 세곗 하르방이 그디서 아기덜 죽은 디서 훼장 뒈서라게. 세곗 하르방 훼장 어른이여, 이 우리 메누리우다, 우리 족은아덜 메누리우다, 기추룩 허멍. 우리 아덜에 각시우다 허멍 이 밧 나가 돈 줘 삿저, 경 허멍 ᄀᆞᆯ으멍 헨 헷주게. 아이고, 사름이이 살아사 사름이주이. 매날 그 식게날 넘으민 가곡 허단이 우리 뚤ᄀᆞ라 가렌 허멍 헤나시네. 경 허단 이제 뚤이 뎅겨.(응, 거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큰 밭 돈 줘서 샀다고 그 사계 할아버지가 거기서 아기들 죽은 데서 회장 됐더라. 사계 할아버지 회장 어른이야, 이 위며느리입니다, 우리 작은아들 며느리입니다, 그처럼 하면서. 우리 아들의 색시입니다 하면서 이 밭 내가 돈 줘서 샀어,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해서 했지. 아이고, 사람이 살아야 사람이지. 맨날 그 제삿날 넘으면 가고 하다가 우리 딸보고 가라고 하면서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딸이 다녀.)

102006 @ 아.(아.)

102006 # 엠헌 사름덜 오죽 하영 죽어시냐? 경 허난 그디 큰 비석 세우난이 순경덜이 오란 이 비석을 ᄆᆞᆺ아 불렌.(엄한 사람들 오죽 많이 죽었니? 그러니까 거기 큰 비석 세우니까 순경들이 와서 그 비석을 마 버리라고.)

102006 @ 왜?(왜?)

102006 # 우리 백삼십 명 다 오렌 허연이 영장도 파 가불고 그 비석을 ᄆᆞᆺ아불렌 허난 그 비석 ᄆᆞᆺ은 거 흔밧듸 놓지 말앙 그레저레 놓렌. 이제 이 사름네 애기덜이 후제 크민 우리 아방네 죽여낫젠 허여근에 지네신디 원수 헌덴 순경덜이 오란이 그 성담 둘른 거영 비석이영 막 ᄆᆞᆺ안 천장만장[51] 던져불어셰. 던져불엇단 새 세상 난

51) '천장만장'은 아주 높거나 멀리라는 의미로 천 길, 만 길만큼 멀리 던져 버렸다는 의미로 쓰였다.

에 이제 크게 비석 세우고 새로 그디.(우리 백삼십 명 다 오라고 해서 시체도 파 가 버리고 그 비석을 마 버리라고 하니까 그 비석 만 거 한군데 놓지 말고 그리저리 놓으라고. 이제 이 사람네 아기들이 후에 크면 우리 아버지네 죽였었다고 해서 자기네에게 원수 한다고 순경들이 와서 그 성담 두른 거랑 비석이랑 마구 마서 천장만장 던져버렸어. 던져버렸다가 새 세상 나서 이제 크게 비석 세우고 새로 거기.)

102006 @ 예.(예.)

102006 # 크게 새로 비석 세우고 성 둘르고 이젠 경헤연.(크게 새로 비석 세우고 성 두르고 이젠 그렇게 했어.)

102006 @ 응, 비행장 이신 쪽에예?(응, 비행장 있는 쪽에요?)

102006 # 비행장에 이제 경헨. 우리 뚤, 시상이 가곡 헌다. 게난 나사 강 뒈느냐?(비행장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딸, 세상에 가고 한다. 그러니까 나야 가서 되니?)

102012 @ 큰뚤은 이제 멧 술이꽈?(큰딸은 이제 몇 살입니까?)

102012 # 칠십 멧 낫어. 이제 덕수 살암주게.(칩십 몇 났어. 이제 덕수 살고 있지.)

102012 @ 덕수 살암수과?(덕수 살고 있습니까?)

102012 # 덕수 동부락광 서부락 새에 그 훼관 옆이 이층집이. 쪼글락헌 이층집.(덕수 동부락과 서부락 사이에 그 회관 옆의 이층집. 조그마한 이층집.)

102012 @ 응. 이디 잇단에 경헹 살단에 할무니.(응. 여기 있다가 그렇게 해서 살다가 할머니.)

102012 # 경헨 난 그자 이.(그래서 난 그저 이.)

102012 @ 인성리 와불언. 경헹 이디 완 살안?(인성리 와버렸어.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살았어?)

102012 # 응, 이 우리 홍칩이 하르방 몸에게 아덜 성제 나난게.(응, 이 우리 홍씨 집 할아버지 몸에 아들 형제 나니까.)

102012 @ 게믄 할머니 큰뚤 말고 다른 뚤도 이서?(그러면 할머니 큰딸 말고 다른 딸도 있어?)

102012 # 뚤 두 개.(딸 두 명.)

102012 @ 아덜도 두 개?(아들도 두 명.)

102012 # 두 개 나난.(두 명 낳으니까.)

102012 @ 하난 죽어불언?(하나는 죽어버렸어?)

102012 # 응.(응.)

102012 @ 할머니도 파란만장허구나예, 옛날 살아난 게예?(할머니도 파란만장하구나, 옛날 살았던 게요.)

102012 # 경 허난 누에 십 년 질롓저. 봄이 질루고 가을에 질루민 다섯 해 질롯는디 십 년 질롼. 시아방 멩지로 저승옷 헷지 시어멍 저승옷 다 헤줫지. 나 우리 아이덜. 우리 아덜 장게 갈 때 도복 멩지로 바지저고리로 다 헤주난. 뚤덜 저승옷 나

다 헤줫저.(그러니까 누에 십 년 길렀어. 봄에 기르고 가을에 기르면 다섯 해 길렀는데 십 년 길렀어. 시아주버니 명주로 수의 했지, 시어머니 수의 다 해줬지. 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도폭 명주로 바지저고리로 다 해주니까. 딸들 수의 나 다 해줬어.)

102012 @ 다 합쳥 뚤은 세 개, 아덜 두 개?(다 합쳐서 딸은 세 명, 아들은 두 명?)

102012 # 하나게.(하나.)

102012 @ 하난 언제 죽어불언?(하나는 언제 죽어버렸어?)

102012 # 하난게 중흑교 이 흑년 때 차로 죽어불언.(하나는 중학교 이 학년 때 차로 죽어버렸어.)

102012 @ 아이고.(아이고.)

102012 # 차로 죽어부난에 그 돈 우리 먹어시냐? 그때 돈 ᄉᆞ백 나오난 나도 아기 돈 안 먹으켄 허멍 울멍실으멍 허고 우리 하르방도 기분 나빤 족은뚤 시집 안 간 뚤 서. 막둥이 우잇 것이 아기 내우는 저 야매[52]로 아기 내우는 사름 헤시난.(차로 죽어버리니까 그 돈 우리 먹었니? 그때 돈 사백 나오니까 나도 아기 돈 안 먹겠다고 하면서 울며불며 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기분 나빠서 작은딸 시집 안 간 딸 있어. 막둥이 위의 것이 아기 내는 저 야매로 아기 내는 사람 했으니까.)

102012 @ 응, 조산원.(응, 조산원.)

102012 # 그 돈 보냅센 허연 보냇주게. 우리 애기 아방. 우리 애기 아방도 ᄌᆞ식 픈 돈 쓰지 못허켄 허멍 그냥 놔 뒷단 그 아이안티 보내난 그때 처암으로 헉백 나오난 헉백 테레비 ᄒᆞ나 받앗저. 가이 시집도 안 간. 그 돈 받도 안혠 내불고.(그 돈 보내시라고 해서 보냈지. 우리 아기 아버지. 우리 아기 아버지도 자식 판 돈 쓰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놔뒀다가 그 아기에게 보내니까 그때 처음으로 흑백 나오니까 흑백 텔레비전 하나 받았어. 그 애 시집도 안 갔어. 그 돈 받지도 않고 내버리고.)

102013 @ 첫 번째 시집인?(첫 번째 시집은?)

102013 # 처암에 김칩이 그딘이 덕수 권당덜이 아니고 우리 시할으방이 시에 남문통에 사는디 덕수 불미허영인에 돈 잘 뭠젠 허난 시하르방이 덕수 불미허는 디 오랑 살켄 혜연 우리 시아방 ᄒᆞ나 들안 오란. 시아방 들안 오란 덕수 우리 시어멍안티 장게보내고 헨 살멍 일본 간 돈 벌언 부제 뭰. 우리 시아방네 원 나호신 딘 저 남문통. 남문통에 어른덜.(처음 김씨 집에 거긴 덕수 권당들이 아니고 우리 시할아버지 제주시 남문통에 사는데 덕수 대장간 해서 돈 잘 된다고 하니까 시할아버지 덕수 대장간하는 데 와서 살겠다고 해서 우리 시아버지 하나 데리고 왔어. 시아버지 데리고 와서 덕수 우리 시어머니한테 장가보내고 해서 살면서 일본 돈 벌어서 부자 됐어. 우리 시아버지네 원 낳으신 덴 저 남문통. 남문통의 어른들.)

102013 @ 시집살이도 하영 헷수과?(시집살이도 많이 했습니까?)

52) '야메'는 일본어 'やみ'에서 온 말로 비합법적인 방법을 이르는 말이다.

102013 # 경 허난게 그 집이서 서방 죽어분 집이서 시집살일 헤시네게.(그러니까 그 집에서 서방 죽어버린 집에서 시집살일 했잖아.)

102013 @ 그 시집이 시어른덜은 막 좋아낫지예?(그 시집 어른들은 아주 좋았었지요?)

102013 # 아이고, 좋곡말곡.(아이고, 좋고말고.)

102013 @ 응. 그땐 잘 살아 불어시민 좋을걸.(응. 그땐 잘 살아 버렸으면 좋을걸.)

102013 # 놈의 아기 봉가단 당신네 집이 나가지 못허게 허젠 겡 아기 낳으멍[나멍] 죽어분 거 키우단에 죽어시녜.(남의 아기 주워다가 당신네 집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기 낳으면서 죽어버린 거 키우다가 죽었어.)

102013 @ 양제 들연?(양자 들였어?)

102013 # 그거 키왕 어른 뒈영 장게보내영, 시아방이 헌 말이, 장게 보내영 조그만헌 삼각구 주곡 집 하나 헤여주곡 댓 말지기 밧 줘뒁 그 아이 장게 보내영 후손 나건 니 알로 놓으라[노라] 허연 그 집이서 경 종질. 시어멍네가 나를 이렇게 받아줜. 일 잘허는 머슴살이로. 경 허난 그것에 속안 멧 년 살아시녜게, 누에 질루멍. 착허덴만 허민 그자, 아이고.(그거 키워서 어른 되어서 장가보내서, 시아버지 한 말이, 장가 보내어서 조그마한 삼각형 주고 집 하나 해주고 댓 마지기 밭 줘두고 그 아이 장가 보내서 후손 나면 네 아래로 놓아라 해서 그 집에서 그렇게 종질. 시어머니네가 나를 이렇게 받아줬어. 일 잘하는 머슴살이로. 그러니까 그것에 속아서 몇 년 살았잖아, 누에 키우면서. 착하다고만 하면 그저, 아이고.)

102013 @ 경 허당은에.(그러다가.)

102013 # 그때 새파랑헌 때 나오랑.(그때 새파란 때 나와서.)

102013 @ 경 허난에.(그러니까.)

102013 # 어떤 사름 선생 뒤으로 강 뚤이고 아덜이고 ᄒᆞ나 나 도렌 헌 때 헤시민 좋으컬.(어떤 사람 선생 뒤로 가서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 낳아 달라고 한 때 했으면 좋을걸.)

102013 @ 예.(예.)

102012 # 우리 아덜 막 착헌다. 지네 성 이장 뒈엇젠 허난이 아방ᄀᆞ라 옵서 이장 뒈난에 희사허겐 허난.(우리 아들 아주 착하다. 자기네 형 이장 되었다고 하니까 아버지보고 오세요 이장 되었으니 희사하자고 하니까.)

102012 @ 게난 둘째뚤은 멧 술이나 뒛수과?(그러니까 둘째딸은 몇 살이나 됐습니까?)

102012 # 누게?(누구?)

102012 @ 뚤, 두 번째 뚤.(딸, 두 번째 딸.)

102012 # 두 번째 뚤도 혼 육십 멧 낫주게.(두 번째 딸도 한 육십 몇 났지.)

102012 @ 육십 멧 난. 세 번째도?(육십 몇 났어. 세 번째도?)

102012 # 응.(응.)

102012 @ 아덜은 오십은 뒈수과?(아들은 오십은 됐습니까?)

102012 # 오십 뒈엇주게. 아덜 ᄒᆞ나 착허난게. 아덜이 막 착헌다. 뚤덜이 너무나 착헤여도 아덜이 더 착헤여.(오십 됐지. 아들 하나 착하니까. 아들이 아주 착하다. 딸들이 너무 착해도 아들이 더 착해.)

102014 @ 아들이영 뚤이영 풀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이수과?(아들이랑 딸이랑 결혼할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2014 # 기억나는 거. 우리 아덜 낳으난[나난] 우리 족은년이 업엉 키왓주.(기억나는 거. 우리 아들 낳으니까 우리 작은딸이 업어서 키웠지.)

102015 @ 메누린 막 착허지예?(며느린 아주 착하지요?)

102015 # 메누리 막 착허여. 사둔이 경 착허여라게. 메누리 어멍이 그렇게 착허여.(며느리 아주 착해. 사돈이 그렇게 착하더라. 며느리 어머니가 그렇게 착해.)

102015 @ 어디 메누리꽈?(어디 며느리입니까?)

102015 # 성산. 경 착허난 ᄒᆞᆨ교서 간에 ᄒᆞᆨ교서 알안게. 게난 성산이난이 뚤 ᄋᆞ섯 성젠디 아니 뚤이 니 성제, 뚤이 다섯 성제고 아덜 성제 이신 집인디 니 성제ᄁᆞ진 ᄒᆞᆨ교 시견 막둥인 ᄒᆞᆨ교 안 시겨서라.(성산. 그렇게 착하니까 학교에서 가서 학교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성산이니까 딸 여섯 형제인데 아니 딸이 사 형제, 딸이 다섯 형제고 아들 형제 있는 집인데 네 형제까진 학교 시켜서 막둥인 학교 안 시켰더라.)

102015 @ 예.(예.)

102015 # 거난 사둔이 좋은 어른이라라게. 그 어른은 해녀질 헌 거 고기라도 쏘아지민 시아방 강인에 국 끌령 ᄀᆞ누라 바르 잡아지민 ᄉᆞ뭇 죽 썽 ᄀᆞ누라 헹 보내고 귀살 이만썩 허영 여남은 개 허영 보내민 나 뚤덜이영 문 주민 난 이디서 꿰허고 그땐 성헌 때난 농ᄉᆞ허민이 사둔신듸 마농, 육지 사난 뚤덜이 뚤 시 성젠 육지 사난 아덜이영 다섯 개 사난 육지레 마농허영 보낼 거 다허영 나가 문 메누리ᄀᆞ라 ᄀᆞᆯ으렌 허영 셋언니네 크게 출련 잘사난 셋언니가 전화받넨 허멍 그레 보내민덜 갈라 먹으민 그 셋언니, 우리 메누리 셋성은 깅이젯 이런 거 이만이헌 상자로 보냉 우리 사둔 닮지 안허게 궨당 닮게, 조케덜 닮게 헨 살아시네, 이제도록. 겐 우리 예펜 사둔 오꼿 죽어불언.(그러니까 사돈이 좋은 어른이더라. 그 어른은 해녀질 한 거 고기라도 쏘면 시아버지 가서 국 끓여서 드려라 오분자기 잡으면 사뭇 죽 쑤어서 드려라 해서 보내고 성게 이만큼씩 해서 여남은 개 해서 보내면 내 딸들이랑 모두 주면 난 여기서 깨하고 그땐 성한 때니까 농사하면 사돈에게 마늘, 육지 사니까 딸들이 딸 삼 형젠 육지 사니까 아들이랑 다섯 명 사니까 육지로 마늘해서 보낼 거 다해 서 내가 모두 며느리보고 말하라고 해서 둘째 언니네 크게 차려서 잘사니까 둘째 언니가 전화받는다고 하면서 그리 보내면들 나눠 먹으면 그 둘째 언니, 우리 며느리 둘째 언니는 게젓, 이런 거 이만큼 한 상자로 보내서 우리 사돈 같지 않게 권당 같게, 조카들 같게 해서 살았어, 이제도록. 그래서 우리 여자 사돈 그만 죽어버렸어.)

102015 @ 아.(아.)

102015 # 우리 메누리 오라방 성제 다 높은 자리에덜 앚곡. 뚤덜은 다 우리.(우

리 며느리 오라버니 형제 다 높은 자리에들 앉고. 딸들은 다 우리.)

102015 @ 사위덜은?(사위들은?)

102015 # 우리 사우덜은 농ᄉᆞ짓는 사름덜게.(우리 사위들은 농사짓는 사람들.)

102015 @ 응. 이디 대정골 살암수과?(응. 여기 대정골 살고 있습니까?)

102015 # 아니, 모실포.(아니, 모슬포.)

102015 @ 뚤 세 개 다? 세 개 다 모슬포 살멘?(딸 세 명 다? 세 명 다 모슬포 살아?)

102015 # 아니 덕수 그 저.(아니 덕수 그 저.)

102015 @ 아, 덕수 혼 명 살고 큰뚤은예.(아, 덕수 한 명 살고 큰딸은요.)

102015 # 응. 모슬포 둘리 살고.(응. 모슬포 둘이 살고.)

102015 @ 경헤도 조끗듸 이시난 좋으크라.(그래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좋겠어.)

102015 # 응. 뚤 난 놔두난게 예점에 하간 거 헹 오랑. 아덜도 잘 혜영 오주마는.(응. 딸 낳아서 놔두니까 잠시 온갖 거 해서 와서. 아들도 잘 해서 오지마는.)

102015 @ 경헤도 요즘엔 뚤 낳아사 호강헌덴 헙니다. 아덜은 메누리 거고, 메누리 줘부는 거고.(그래도 요즘엔 딸 낳아야 호강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 거고, 며느리 줘버리는 거고.)

102015 # 메누리도 서방 허는 거 봉 막 잘헤여. 어멍 산 때 경 시겨.(며느리도 남편 하는 거 봐서 아주 잘해. 어머니 살았을 때 그렇게 시켜.)

102015 @ 응.(응.)

102015 # 물질 갓당 큰 고기 쏘아지민 시아방 ᄋᆞ정 강 국 끌령 느 손으로 국 끌령 ᄀᆞ누렌 허고 경헤라게. 경 허난 사둔 닮지 안허게 우리 살앗주게. 경 허난 하르방 이제 상 이시난 소상에 못 올 거난 벌초 오랏단에 어무니 어디꽈 허난에 나 이만저만 집이 잇저 허난 어무니네 벌초 오란 가멍 오라방네 소상에 못 올 거난 상 봉 가켄 어머니 집 ᄀᆞ리치레 감수다 헤여.(물질 갔다가 큰 고기 쏘면 시아버지 가져가서 국 끓여서 네 손으로 국 끓여서 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돈 같지 않게 우리 살았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상 있으니까 소상에 못 올 거니까 벌초 왔다가 어머니 어디입니까 하니까 나 이만저만 집에 있어 하니까 어머니네 벌초 왔다 가면서 오라버니네 소상에 못 올 거니까 상 봐서 가겠다고 어머니 집 가르치러 갑니다 해.)

102015 @ 응.(응.)

102015 # 경 허난에 메누리 두 개, 아덜 두 개, 사둔허고 다섯이 오란 상에 다 절허연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엇으난 그때 마농이 콘테나로 값 앗당 나오게 ᄏᆞᆯ이 궂인 거 벳견에 바싹 ᄆᆞᆯ련 콘테나로 놔뒁주게. 메누리 오민 까멍 주젠 놔뒁단. 아니 줄 것도 엇고 우리 뚤은 점심 시깁센 허난 점심도 곧 먹언 오랏젠 못허게 허고 허난 이젠 그거 들런 오란 이거벳긔 ᄋᆞ져갈 거 엇젠 허난 메누리 두 개가 그 마농을 환장나게 좋아허여.(그러니까 며느리 두 개, 아들 두 개, 사돈하고 다섯이 와서 상에 다 절해서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으니까 그때 마늘이 컨테이너로 값 가

져다가 나오게 깨끗이 곶은 거 벗겨서 바싹 말려서 컨테이너로 놔뒀지. 며느리 오면 까면서 주려고 놔뒀다가. 아니 줄 것도 없고 우리 딸은 점심 시키라고 하니까 점심도 곧 먹어서 왔다고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젠 그거 들어서 와서 이거밖에 가져갈 거 없다고 하니까 며느리 두 명이 그 마늘을 환장하게 좋아해.)

102015 @ 어디 사둔칩이?(어디 사돈집에?)

102015 # 응.(응.)

102015 @ 메누리네?(며느리네?)

102015 # 사둔 메누리네가.(사돈 며느리네가.)

102015 @ 아, 사둔칩이.(아, 사돈집에.)

102015 # 우리 메누리 아주망덜이. 겐 막 지꺼젼 허난 그때부떤이 마농쫑 빵 즈근즈근 무껑 상자로 하나 반찬허렌 보내고.(우리 며느리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아주 기뻐서 하니까 그때부턴 마늘종 빼서 차근차근 묶어서 상자로 하나 반찬하라고 보내고.)

102015 @ 응.(응.)

102015 # 또 마농철 나민 영 허영 마농 둬 마다리 허영 상자 담앙 주소 알아지난 그자 사돈칩이 보내곡 허민 그디서 사둔이 깅이젓 혜영 보내고 사둔 닮게 안 살아져라. 사둔이 이제 새파랑헌디 해년디 바당에서 죽어불언.(또 마늘철 나면 이렇게 해서 마늘 두어 마대 해서 상자 담아서 주소 알면 그저 사돈집에 보내고 하면 거기서 사돈이 게젓 해서 보내고 사돈 같게 안 살게 되더라. 사돈이 이제 새파란데 해년데 바다에서 죽어버렸어.)

102015 @ 아이고.(아이고.)

102015 # 아이고, 나 잘도 울어져라.(아이고, 나 잘도 울었어.)

102015 @ 물에 들어갓단에 못 나완?(물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

102015 # 응. 바당에서 죽언. 막 착혜연. 경 미깡밧이영 어떵사 헴신디 미깡 허민 밧듸서만 살아집니덴 미깡 타민 밧듸서 그자 박스로 부쩡 육지레 보내민 풀아주곡 헙니덴 허멍 누게사 오란 맡안 헴신디.(응. 바다에서 죽었어. 아주 착해서. 그렇게 귤밭이랑 어떻게야 하는지 귤 하면 밭에서만 살게 된다고 귤 따면 밭에서 그저 박스로 붙여서 육지로 보내면 팔아주고 한다고 하면서 누구야 와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102015 @ 응.(응.)

102015 # 우리 뚤은, 우리 메누린 네 번채 뚤. 다섯 번채 뚤은 중문이 살아도 어멍광 정이 엇엉.(우리 딸은, 우리 며느린 네 번째 딸. 다섯 번째 딸은 중문에 살아도 어머니와 정이 없어서.)

3. 밭일

103001 @ 밧일은 어떤 거 어떤 거 헤낫수과?(밭일은 어떤 거 어떤 거 했었습니

까?)

103001 # 밧일은 옛날에게 조 허곡, 여름 나민 조 허곡 콩 갈곡 산뒤도 갈고게이, 꿰도 갈곡 여름 농선, 그렇게 허는 거주게. 거난 여름엔 이 밧듸 강은에 이제 갈민 조 허는 밧은 이제 좁씨 삐어.(밭일은 옛날에 조 하고, 여름 나면 조 하고 콩 갈고 밭벼도 갈고. 깨도 갈고 여름 농사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엔 이 밭에 가서 이제 갈면 조 하는 밭은 이제 좁씨 뿌려.)

보리농사

103002 @ 음, 그거 차례대로. 젤 처음에 그럼 여러 가지 농사헷는데 그 중에 보리부터 처음부터 허게예.(음, 그거 차례대로. 젤 처음에 그럼 여러 가지 농사했는데 그 중에 보리부터 처음부터 해요.)

103002 # 응,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103002 @ 예. 보리부터예, 보린 허젠 허민 뭐 어떵 뭐 준비헤근에 어떵 어떵 헤근에 순서대로 허는 거꽈?(예. 보리부터요, 보리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뭐 준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103002 # 보린이 보린 갈젠 허민이 쉐걸름 잇지, 쉐걸름. 돗통더레 담앗당 벤소 도야지 질르는 벤소에 담앗당 이제 보리 갈 철 나민 그걸 이제 걸름을 또시 만딱 마당더레 떠와, 골체로이. 저 남자 어른은 골체레 담아주곡 또시 예펜은 그걸 들엉 내영 마당더레 내쳐. 내치민 이제 그것이 이젠 다 내친 이상에 보리씨 삐여, 그 걸름더레. 보리씨 삐영은에 이젠 그 쉐로 불라. 쉐로 마당에서.(보린 보리 갈려고 하면 쇠두엄 있지, 쇠두엄. 돼지우리에 담았다가 변소 돼지 기르는 변소에 담았다가 이제 보리 갈 철 나면 그걸 이제 거름을 또 모두 마당에 떠와, 삼태기로. 저 남자 어른은 삼태기에 담아주고 또 여자는 그걸 들어서 내어서 마당으로 내쳐. 내치면 이제 그것이 이젠 다 내친 이상에 보리씨 뿌려, 그 거름에. 보리씨 뿌려서 이젠 그 소로 밟아. 소로 마당에서.)

103002 @ 응.(응.)

103002 # 불령인에 또 어느 정도 서꺼진 거 닮으민 쉐스랑으로 또 이제 영 데싸. 데쌍 또 쉐로 불리민 이젠 이렇게 메와 놓주게. 메와 놓으민[노민] 이제 또 밧듸 시껑 가젠 허민 그땐 구루마 엇엇어. 멕에 담앙 멕에 담앙 즈근즈근 불랑인에 쉐 질메에 그거게 망텡이 닮은 거 양착에 시꺼, 양착에 시껑 강은에 풀엉 밧듸 강 놓으민 밧듸서 이젠 그 걸름을 비와불주게. 멩텡이 또 시껑 오랑 담아오곡 허멍 허민 이젠 또 그 걸름을 밧딘 어떵 허느냐 허민 어멍은 강인에 어멍신듸 골체로 그 걸름을 담아다 주민 어멍은 영 보듬엉 탁탁 허데겨. 걸름을 허데경은에 허민 이제 뚤덜은 강인에 이 걸름 벙텡이를 풀어줘사주게. 다른 골체에 풀엉인에 어멍신듸 어져가믄 어멍은 골을 잡앙인에 허데경 갈민 보리가 나. 보리 나민 비료 뿌리곡 허여근에 보리가 뒈는 거주.(밟아서 또 어느 정도 섞인 거 같으면 쇠스랑으로 또 이제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서 또 소로 밟으면 이젠 이렇게 모아 놓지. 모아 놓으면 이제

또 밭에 실어서 가려고 하면 그땐 달구지 없었어. 멱서리에 담아서 멱서리에 담아서 자근자근 밟아서 소 길마에 그거 망태기 같은 거 양쪽에 실어, 양쪽에 실어서 가서 풀어서 밭에 가서 놓으면 밭에서 이젠 그 거름을 비워버리지. 망태기 또 실어서 와서 담아오고 하면서 하면 이젠 또 그 거름을 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머니는 가서 어머니에게 삼태기로 그 거름을 담아다 주면 어머니는 이렇게 보듬어서 탁탁 흩어뜨려. 거름을 흩어뜨리면 이제 딸들은 가서 이 거름 덩어리를 풀어줘야지. 다른 삼태기에 풀어서 어머니에게 가져가면 어머니는 골을 잡아서 흩어뜨려서 갈면 보리가 나. 보리 나면 비료 뿌리고 해서 보리가 되는 거지.)

103002 @ 그땐 옛날엔 비료도 없고예. 게민 보리 농사지을 때 뭐 준비헤야 뒈는 거 뭐뭐마씨?(그땐 옛날엔 비료도 없고요. 그러면 보리 농사지을 때 뭐 준비해야 되는 거 뭐뭐요?)

103002 # 준비허게 뒈는 건 저우게 저, 그땐이 비료 엇으난 사람들이 오줌 싸주게. 오줌 싸민 통개에 받아. 통개에 막 받앗당은에 허벅으로 졍 강 보리 간 디 그릇에 비왕 짝짝 뿌려. 뿌리민 보리가 좋아. 경 허여.(준비하게 되는 건 '저우게' 저, 그땐 비료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줌 싸지. 오줌 싸면 항아리에 받아. 항아리에 막 받았다가 동이로 져 가서 보리 간 데 그릇에 비워서 쫙쫙 뿌려. 뿌리면 보리가 좋아. 그렇게 해.)

103003 @ 게민 아까 그 걸름은 어떵 헹 멘드는 거꽈?(그러면 아까 그 거름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103003 # 걸름은 쉐 질르믄이 쉐막에서 쉐 질르민 쉐촐 먹으민 쉐똥 싸곡 허지. 쉐똥 싸민 그 돗통드레 벤소 옛날 벤소 이서.(거름은 소 기르면 외양간에서 소 기르면 쇠꼴 먹으면 소똥 싸고 하지. 소똥 싸면 그 돼지우리에 변소, 옛날 변소 있어.)

103003 @ 예, 도새기 기르는 디예.(예, 돼지 기르는 데요.)

103003 # 응, 그레 들이치민 도야지 똥도 싸고 그추룩 허영은에.(응, 그리 들이뜨리면 돼지 똥도 싸고 그처럼 해서.)

103003 @ 무신것도 놔야 허지 안허여? 풀 같은 거. 찝 닮은 거 안 놔? 보리찝?(무엇도 놔야 하지 않아? 풀 같은 거. 짚 같은 거 안 놔? 보릿짚?)

103003 # 아니. 전시 찝이나 뭣이나 쉐 먹으민 쉐똥에 걸름에 ᄀᆞ치 놩은에 돗통드레 들이쳐. 들이쳥 돗통에서 그거 썩어. 그 촐 두루 먹은 거영 썩으민 이제 흑 담주게. 경 허믄 이제 보리 갈 철 나민 이제 아방은 쉐스랑으로 골체레 담으민 또 똘엇은 집은 어멍이 들렁 내어근에 마당드레 비왕인에 마당더레 ᄌᆞ근ᄌᆞ근 놓으민[노민] 이제 보리씨 삐민 쉐스랑으로 보리씨 젓엉 이젠 또 쉐로 불려, 불령 또 뒈쌍 또 불령인에 이젠 영영 데며. 막 너난이 데명인에 그때부턴 멕에 담앙인에 밧듸 시꺼당 탁탁 이 밧듸 멧 개 어디 강 놀 거 허영 허믄. 밧듸 가민 어멍은 또 그 벙뎅이에 똘덜이나 놉이나 빌어근에 풀엉 골체레, 어디다 줘사 허주게. 경 허영 보리 갈곡 허주게.(아니. 모두 짚이나 무엇이나 소 먹으면 소똥에 거름에 같이 놔서 돼지우리에 들이뜨려. 들이뜨려서 돼지우리에서 그거 썩어. 그 꼴 덜 먹은 거랑 썩으면 이

제 흙 담지. 그러면 이제 보리 갈 철 나면 이제 아버지는 쇠스랑으로 삼태기에 담으면 또 딸 없는 집은 어머니가 들어서 내어서 마당에 비워서 바당에 차근차근 놓으면 이제 보리씨 뿌리면 쇠스랑으로 보리씨 저어서 이젠 또 소로 밟아, 밟아서 또 뒤집어서 또 밟아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쌓아. 막 너니까 쌓아서 그때부턴 멱서리에 담아서 밭에 실어가서 탁탁 이 밭에 몇 개 어디 가서 놓을 거 해서 하면. 밭에 가면 어머니는 또 덩어리에 딸들이나 놉이나 빌려서 풀어서 삼태기에, 어디다 줘야 하지. 그렇게 해서 보리 갈고 하지.)

103004 @ 언제쯤에 허는 거? 멧 월에?(언제쯤에 하는 거? 몇 월에?)

103004 # 그거게 이제 가을 들민 시월 낭은에 가을 들엉근에 허민 동지섣달에 걸름 내멍 보리 가는 거.(그거 이제 가을 들면 시월 나서 가을 들어서 하면 동지섣달에 거름 내면서 보리 가는 거.)

103004 @ 보린 누게가 갈아?(보린 누가 갈아?)

103004 # 그 집이 아방 시민 아방이 갈주게, 쉐로. 쉐로 걸름 낸 디 밧 갈아.(그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갈지, 소로. 소로 거름 낸 데 밭 갈아.)

103004 @ 아, 밧을 먼저 갈아?(아, 밭을 먼저 갈아?)

103004 # 아니 걸름 허데경.(아니 거름 흩어뜨려서.)

103004 @ 아, 걸름 먼저 삐여 놩 그다음에 밧을 갈아?(아, 거름 먼저 뿌려 놓고 그다음에 밭을 갈아?)

103004 # 어, 밧을 갈앙 고지 멘들아. 고지 멘들면 자기대로 보리 나주게.(어, 밭을 갈아서 이랑 만들어. 이랑 만들면 자기대로 보리 나지.)

103004 @ 응, 거난 어멍이 걸름에 헌 거 뿌리민 아방이 밧 갈앙.(응,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름에 한 거 뿌리면 아버지가 밭 갈아서.)

103004 # 응, 밧 갈앙 놔두민 이제 봄 나가민 보리가 나.(응, 밭 갈아서 놔두면 이제 봄 나가면 보리가 나.)

103005 @ 그럼 이거 보리씨 삐젠 허믄 어떵헤근에 삐여야 잘 삐여지는 거라? 막 한 군데만 막 모여불민 안 뒈잖아?(그럼 이거 보리씨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뿌려야 잘 뿌려지는 거야?)

103005 # 아니 걸름에 놓으민[노민] 걸름 마당에 골체로 아져다근에 즈근즈근 비우주게. 비우민 이제 벤소에 거 다 퍼당은에 마당 이빠이 ᄀᆞ득게 놓으민[노민] 이제 보리씨 어져당은에 아무케나 막 뿌려.(아니 거름에 놓으면 거름 마당에 삼태기로 가져다가 차근차근 비우지. 비우면 이제 변소의 거 다 퍼다가 마당 가득 가득하게 놓으면 이제 보리씨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막 뿌려.)

103005 @ 아무케나 뿌려도 뒈어?(아무렇게나 뿌려도 돼?)

103005 # 아무케나 마당에 걸름더레 보리씨 뿌리민 그 쉐스랑으로 영영영영 허멍 서꺼. 서끄민 또 쉐로 불려. 마당에서.(아무렇게나 마당에 거름에 보리씨 뿌리면 그 쇠스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섞어. 섞으면 또 소로 밟아. 마당에서.)

103005 @ 그럼 막 영 흐터졍 이서? 한군데 모이지 안허영?(그럼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 한군데 모이지 않고?)

103005 # 응, 모이지 안허영 이제 쉐로 불리민 흔 번 뒈싸. 그 걸름 불린 거 저레 내쳐뒁 흔 번 뒈쌍 또 이제 불린 이상에 다 불려졍 씨 골로로 걸름 소곱에 묻어졍 잘 못 보는 동시엔 또시 이렇게 메와 놓주게. 막 마당에 넌 거니까 이빠이 담아놩. 이제 그 멕에 담앙은에 쉐 양착에 멩탱이 두 개로 담으민 쉐 양편이 톡톡 시껑 강은에 풀엉은에 비우민 어멍네 갈젠 허민 또 어멍네가 보리 그 벙뎅이를 풀어줘살 거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은 강 골체에 다른 골체에 풀엉 어멍 날라다 주민 어멍은 착착착 뿌리멍 그렇게 하민 뿌리는 대로 아방은 그대로 갈아. 게난 그때는 비료도 엇엇어. 비료도 엇엉 또 오줌, 불르젠 한 걸 잘 헹 나뒷다근에 오줌 받앙, 오줌 허벅에 졍 가근에 짝짝 뿌리민 특별리 뿌린 데 보리가 그렇게 좋아.(응, 모이지 않고 이제 소로 밟으면 한 번 뒤집어. 그 거름 밟은 거 저리 내쳐두고 한 번 뒤집어서 또 이젠 밟은 이상에 다 밟아져서 씨 골고루 거름 속에 묻혀서 잘 못 보는 동시엔 또 이렇게 모여 놓지. 막 마당에 넌 거니까 가득 담아놔서. 이제 멱둥구미에 담아서 소 양쪽에 망태기 구 개로 담으면 소 양편에 톡톡 실어서 가서 풀어서 비우면 어머니네 갈려고 하면 또 어머니네가 보리 그 덩어리를 풀어줘야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은 가서 삼태기에 다른 삼태기에 풀어서 어머니 날라다 주면 어머니는 착착착 뿌리면서 그렇게 하면 뿌리는 대로 아버지는 그대로 갈아. 그러니까 그때는 비료도 없었어. 비료도 없어서 또 오줌, 밟으려고 한 걸 잘 해서 놔뒀다가 오줌 받아서, 오줌 '허벅'에 지고 가서 쫙쫙 뿌리면 특별히 뿌린 데 보리가 그렇게 좋아.)

103005 @ 그럼 그 오줌 걸름은 씨 삐여 놩 바로 허는 거라? 호꼼 잇당 허는 거라?(그럼 그 오줌 거름은 씨 뿌려 놓고 바로 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하는 거야?)

103005 # 보리, 오줌 뿌리는 건 보리 이제 밧듸 강 난 이상에.(보리, 오줌 뿌리는 건 보리 이제 밭에 가서 난 이상에.)

103005 @ 아, 보리 싹 난 다음에?(아, 보리 싹 난 다음에?)

103005 # 응, 난 다음에. 보리가 낭인에 자글자글 난 다음에 그걸 강 뿌리주게, 봄 나가민.(응, 난 다음에. 보리가 나서 '자글자글' 난 다음에 그걸 가서 뿌리지, 봄 나가면.)

103006 @ 응, 봄 나가민. 보리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서?(응, 봄 나면. 보리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있어?)

103006 # 그땐 술오리도 싯곡 겉보리도 싯곡 맥주보린 내중에사 낫어.(그땐 쌀보리도 잇고 겉보리도 있고 맥주보린 나중에야 났어.)

103006 @ 내중에사.(나중에야.)

103006 # 맥주보린 두줄보리.(맥주보린 '두줄보리'.)

103006 @ 두 줄로 영 난 거꽈?(두 줄로 이렇게 난 겁니까?)

103006 # 응, 두 줄로 난 거. 술오린 그냥 영 헹 멧 줄로 뭰 거고 겉보리도 멧 줄로 헌, 넉 줄산디 다섯 줄 산디 뒈는 거고. 맥주보리렌 허는 거는 두 줄로만 뒈

어. 맥주보리도 새혜 난에 신식으로 그 맥주보리가 육지서 저 허여오란 뭰 거라. 엿날엔 이디 겉보리, 겉보리가 그렇게 거칠곡이 겉보리가 맛도 엇엇어. 경헹 그 맥주보리 요 어디서 오란 맥주보리 가난 맥주보리가 경 밥헤도 맛이 좋고 또 술오린 특별리 술오리 갈민, 술오리 갈아근에 장만하민 술오리로 개역헤 먹고. 술오린 껍데기가 체가 없어. 체가 엇어. 경헤근에 술오리 밥이 더 문드로왕[53] 맛도 좋고.(응, 두 줄로 난 거. 쌀보린 그냥 이렇게 해서 몇 줄로 된 거고 겉보리도 몇 줄로 한, 네 줄인지 다섯 줄인지 되는 거고. 맥주보리라고 하는 거는 두 줄로만 돼. 맥주보리도 새해 나서 신식으로 그 맥주보리가 육지서 저 해서 된 거야. 옛날엔 여기 겉보리, 겉보리가 그렇게 거칠고 겉보리가 맛도 없었어. 그래서 그 맥주보리 요 어디서 와서 맥주보리 가니까 맥주보리가 그렇게 밥해도 맛이 좋고 또 쌀보린 특별히 쌀보리 갈면, 쌀보리 갈아서 장만하면 쌀보리로 미숫가루해서 먹고. 쌀보린 껍데기가 겨가 없어. 겨가 없어. 그래서 쌀보리 밥이 더 '문드로왕' 맛도 좋고.)

103006 @ 그럼 저 겉보리는 무사 뿌렴서? 다 술오리 뿌리주.(그럼 저 겉보리는 왜 뿌려? 다 쌀보리 뿌리지.)

103006 # 아이고 없는 사름은 겉보리도 허곡, 술오리도. 밧이 좋은 밧은 이 좋은 밧은 술오리 갈곡 맥주보리 갈민 잘 나는디 밧 나쁜 딘이 그거 안 타. 게민 겉보리로 엿날 니 줄, 줄이 니 줄로 난 거 허영은에 겉보리 갈앗주게, 엿날에.(아이고 없는 사람은 겉보리도 하고, 쌀보리도. 밭이 좋은 밭은 이 좋은 밭은 쌀보리 갈고 맥주보리 갈면 잘 나는데 밭 나쁜 덴 그거 안 타. 그러면 겉보리로 옛날 네 줄, 줄이 네 줄로 난 거 해서 겉보리 갈았지, 옛날에.)

103006 @ 아, 땅이 안 좋은 디?(아, 땅이 안 좋은 데?)

103006 # 엿날엔 겉보리 갈안. 이젠 참 신식이 뒈난 술오리 나오곡 또시 맥주보리렌 헌 건 두줄보리.(옛날엔 겉보리 갈았어. 이젠 참 신식이 되니까 쌀보리 나오고 또 맥주보리라고 한 건 '두줄보리'.)

103007 @ 보리밧 영 밟아줘야 됩니까?(보리밭 이렇게 밟아줘야 됩니까?)

103007 # 붋아줘난. 엿날엔 우리 어린 땐 안 불르단에 또시 개량뒈난에 보리 난에 탈박탈박 헌 후젠 또 불리렌 헤도 불리는 사름이 잘 없엇어. 학생들 빌어근에 불리민 그 시절에 제국시절에 불림도 헤엿어. 경헤도 매 사름 밧은 불리지 안허연.(밟아줬었어. 옛날엔 우리 어릴 땐 안 밟다가 다시 개량되니까 보리 나서 '탈박탈박' 한 후엔 또 밟으라고 해도 밟는 사람이 잘 없었어. 학생들 빌려서 밟으면 그 시절에 제국시절에 밟기도 했어. 그래도 매 사람 밭을 밟지는 않았어.)

103007 @ 아, 보리밧은 잘 안 불란?(아, 보리밭은 잘 안 밟았어?)

103007 # 불려주민 든든혜영 땅에 보리 옴넨 허주마는. 경 허곡 이 대정 지기 위에 보리쏠이 더 맛 좋코.(밟아주면 단단해서 땅에 보리 여문다고 하지마는. 그리고 이 대정 지경 위에 보리쌀이 더 맛 좋고.)

103007 @ 아, 이디 땅이 좋쿠나예?(아, 여기 땅이 좋군요?)

53) '문드롭다'는 윤기가 나고 매끈하다는 뜻이다.

103007 # 응, 대정 쪽 위에 보리가 더 맛 좋왕 저 정의, 서귀포렌 보리밥은 맛엇곡 서귀포렌 보리도 안 뒈여. 보리도 안 뒈여.(응, 대정 쪽 위에 보리가 더 맛 좋아서 저 정의, 서귀포엔 보리밥이 맛없고 서귀포엔 보리도 안 돼. 보리도 안 돼.)

10308 @ 보리밧에 검질은 어떵 멥니까?(보리밭의 김은 어떻게 맵니까?)

10308 # 보리밧은 검질이렌 헌 건 대우리렌 헌 거 이서. 대우리렌 헌 거 보리ᄀᆞ치 나도 뜻난 거. 게민 검질은 잘 엇어. 그 대우리 메어불곡 허민 뒈곡.(보리밭은 김이라고 한 건 귀리라고 한 거 있어. 귀리라고 한 거 보리같이 나도 다른 거. 그러면 김은 잘 없어. 그 귀리 매어버리고 하면 되고.)

10308 @ 멧 번이나 메사 뒈여?(몇 번이나 매야 돼?)

10308 # 혼 번 메면 뒈곡게.(한 번 매면 되고.)

10308 @ 아, 한 번 메민 뒈여? 언제쯤에 메는 거꽈?(아, 한 번 매면 돼? 언제쯤에 매는 겁니까?)

10308 # 하여튼 나민 메사주.(하여튼 나면 매야지.)

10308 @ 아, 봄 나민?(아, 봄 나면?)

10308 # 봄 나근에 이제 저 보리 부루기 상인에 헤가민 그 대우리렌 헌 건 뜻난 종류난 알아져.(봄 나서 이제 저 보리 배동 서서 해가면 그 귀리라고 한 건 다른 종류니까 알 수 있어.)

10308 @ 아, 보리영 비슷헤여?(아, 보리랑 비슷해?)

10308 # 보리영 비슷헤도 저 대우리렌 헌 건 이런 이파리 돋은 디 눈이 엇어. 보린 잇는디 이파리 돋은 디 눈이 시난에 허곡 게민 캐기 전에도 눈 엇은 건 대우리로 알아근에 메곡.(보리랑 비슷해도 저 귀리라고 한 건 이런 이파리 돋은 데 눈이 엇어. 보린 있는데 이파리 돋은 데 눈이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 패기 전에도 눈 없는 건 귀리로 알아서 매고.)

10308 @ 응, 보리밧딘 검질은 주로 대우리? 다른 검질은 잘 안 나?(응, 보리밭엔 김은 주로 귀리? 다른 김은 잘 안 나?)

10308 # 잡검질은 잡검질은 잘허민 그 즉시 나질 안헤낫어.(잡풀은 잡풀은 잘하면 그 즉시 나질 안했었어.)

103010 @ 보리밧엔예? 이제 그믄 보리 이제 멧 월달 이제 뒈민 누렁헤집니까, 익읍니까?(보리밭엔요? 이제 그러면 보리 이제 몇 월 이제 되면 누레집니까, 익습니까?)

103010 # 봄 나민게. 봄 나민 이제 보리 이제 노랑헹 익어가믄.(봄 나면. 봄 나면 이제 보리 이제 노랗게 익어가면.)

103010 # 베어사주예? 어떵 헹 비는 거라?(베어야지요? 어떻게 해서 베는 거야?)

103010 # 비믄 호미로 다 비주게. 호미로 다 비어근에 이제 밧듸서 ᄆᆞᆯ령.(베면 낫으로 다 베지. 낫으로 다 베어서 이제 밭에서 말려서.)

103010 @ 아, 비엉 영 그냥 영 널어 놔?(아, 베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널어

놔.)

103011 # 응, 즈근즈근 비어놧당 물리민 이제 무꺼당 그땐 클로 홀타서. 영 한 클로이. 클로 홀트민.(응, 차근차근 베어놨다가 마르면 이제 묶어다가 그땐 그네로 홅아서. 이렇게 한 그네로. 그네로 홅으면.)

103011 @ 집이서, 밧듸서?(집에서, 밭에서?)

103011 # 집이서게. 마당에서 허여당 마당에 눌엉 눌엉 놧당 놉 빌엉 홀트는 사름이 특별리 이서. 또 이거 영 앗아주는 사름도 특별리 아무나 이거 앗아주지 못헤. 확 잡아뎅기믄 확 주고 확 주고 헤사주게이. 경 허난에 이거 쥐는 사름도 손 뻐른 사름, 홀트는 사름도 힘 좋아근에 허곡 그런 사름 택허여근에 아무 날 우리 보리 홀타 도라, 아무 날 우리 보리 쥐여 도라 허민. 홀트민 그레 영헹 홀트민 고고리가 이디 털어지는 건 털어지고 안 털어지는 건 또 젊은 어린 아이덜 헌 열댓 살 난 소나이라도 빌엉 그걸 또시 고고리를 이레 털어치워야 헤여.(집에서. 마당에서 해다가 마당에 가려서 가려 놨다가 놉 빌려서 홅는 사람이 특별히 있어. 또 이거 이렇게 가져주는 사람도 특별히 아무나 이거 가져주지 못해. 확 잡아당기면 빨리 주고 빨리 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쥐는 사람도 손 빠른 사람, 홅는 사람도 힘 좋아서 하고 그런 사람 택해서 아무 날 우리 보리 홅아 달라, 아무 날 우리 보리 쥐어 달라 하면. 홅으면 그리 이렇게 해서 홅으면 이삭이 여기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건 또 젊은 어린 아이들 한 열댓 살 난 사내아이라도 빌려서 그걸 다시 이삭을 이리 떨어뜨려야 해.)

103011 @ 어떵 털어치와?(어떻게 떨어뜨려?)

103011 # 이렇게 클에 영헹 홀트민 이디가 고고리 부튼 양 싯주게. 부튼 양 시민 이걸 잡아 뎅경 저레 털어치와 줘사.(이렇게 그네에 이렇게 해서 홅으면 여기가 이삭 붙은 대로 있지. 붙은 대로 있으면 이걸 잡아 당겨서 저리 떨어뜨려 줘야.)

103011 @ 다시 또 클에 혼 번 더허는 거?(다시 또 그네에 한 번 더하는 거.)

103011 # 더허는 건 아니고, 털어치왓다근에 또 이 저 맥타기로 두드나 맥타기 엇은 사름은 쉐로 볼르나. 쉐로 받앙 드러 볼라. 볼르멍 발로 그 고고리 젓어간다 젓어온다 영 볼려근에 쉐똥 싸가민 솔방울로 똥고냥에 쉐똥 받앙 다른 더레 던지곡.(더하는 건 아니고, 떨어뜨렸다가 또 이 저 맥탁기로 두드리나 맥탁기 없는 사람은 소로 밟거나. 소로 받아서 들이 밟아. 밟으면서 그 이삭 저어간다 저어온다 이렇게 밟아서 소똥 싸 가면 솔방울로 똥구멍에 소똥 받아서 다른 데로 던지고.)

103011 @ 아, 쉐 볼라가민. 보리낭, 볼를 때.(아, 소 밟아가면. 보릿대, 밟을 때.)

103011 # 볼라가민 똥 싸. 똥 싸 가곡 오줌 질질 싸 가민 박세기 들어근에 거름에 뭐허는 사름, 아고, 저 쉐 오줌 쌈저 헤가민 그레 강 오줌 싸민 던지곡 똥 싸민 던지곡.(밟아가면 똥 싸. 똥 싸 가고 오줌 질질 싸 가면 바가지 들어서 거름에 뭐하는 사람, 아고, 저 소 오줌 싼다 해가면 그리 가서 오줌 싸면 던지고 똥 싸면 던지고.)

103011 @ 그믄 그 밧듸서 보리 다 비어근에 영 무끄젠 허민 뭘로 무끄는 거

라?(그러면 그 밭에서 보리 다 베어서 이렇게 묶으려고 하면 뭘로 묶는 거야?)

103011 # 무끔은 그 보리로도 무끄고 또 새 비엉 나뒷당인에 찝, 찝 닮은 걸로 새로 가근에 새왓디 강 비어근에 께 털엉 께 털엉 나뒷당근에 그걸로 무끔도 허곡.(묶기는 그 보리로도 묶고 또 띠 베어서 놔뒀다가 짚, 짚 같은 걸로 띠 가서 띠밭에 가서 베어서 매끼 틀어서 매끼 틀어서 놔뒀다가 그걸로 묶기도 하고.)

103011 @ 아, 이 무끄는 게 께?(아, 이 묶는 게 매끼?)

103011 # 보리가 또시 잘 나민 보리로 고고리로 흔 줌 쥐어 보리가 잘 안 나나민 그 보릿대로 못 무꺼. 그 보리가 낭이 나민 보리 고고리로 흔 줌 쥐어근에 확허게 오그리민 이거 벌경 딱 무끄곡.(보리가 다시 잘 나면 보리로 이삭으로 한 줌 쥐어 보리가 잘 안 나면 그 보릿대로 못 묶어. 그 보리가 줄기 나면 보리 이삭으로 한 줌 쥐어서 확하게 오그리면 이거 벌려서 딱 묶고.)

103012 @ 아, 보리낭으로도.(아, 보릿대로도.)

103012 # 응, 보리로도 경 무꺼.(응, 보리로도 그렇게 묶어.)

103012 @ 그럼 보리낭은 밧듸서는 눌지 안허고 집이 왕 누는 거주예?(그럼 보릿대는 밭에서는 가리지 않고 집에 와서 가리는 거지요?)

103012 # 응, 집이 오랑 눌엉근에 보리낭으로 불 싸멍 밥도 헤 먹곡.(응, 집에 와서 가려서 보릿대로 불 켜면서 밥도 해 먹고.)

103012 @ 게난 그 보리 다 홀타난 걸로 또다시 눌어?(그러니까 그 보리 다 훑았던 걸로 또다시 가려?)

103012 # 아, 그 보릿대? 눌어야주게. 보릿대 그거 이제 영 홀탕 이레 눌민 그 사름 보리 고고리 ᄒᆞ나 싹 심엉 다듬으멍 그걸 이제 또시 무꺼. 무껑인에 눌어러. 눌엉인에 허곡. ᄀᆞ스락은 또시 불려근에 헤나민 또 굴묵에 담아놩은에 굴묵 짇는 걸로 허곡.(아, 그 보릿대? 가려야지. 보릿대 그거 이제 이렇게 훑아서 이리 가리면 그 사람 보리 이삭 하나 싹 잡아서 다듬으면서 하고 나면 또 '굴묵'에 담아놔서 '굴묵' 때는 걸로 하고.)

103012 @ 그 혹시 저 도께질도 헙니까?(저 혹시 저 도리깨질도 합니까?)

103012 # 도께질 허지 아니헌 건. 헌 건 도께질 못헤여게. 보리가 하질 아니헌 걸 무신거 댓 말쯤이나 헌 걸 도께질헐 거니? 보리가 원체 하민이 도께질 힘들엉 못허메. 도께질 허당들 싸운 사름들도 이서.(도리깨질 하지 않은 건. 한 건 도리깨질 못해. 보리가 많지 않은 걸 무엇 댓 말쯤이나 한 걸 도리깨질할 거니?)

103012 @ 무사?(왜?)

103012 # 옛날에이 그 보리가 하민 참 마소라도 불령 홀타놩 마소로 불리멍 오줌 싸믄 닦고 똥 싸면 닦곡 허는데 보리 하지 아니헌 건 그런 마쉐도 엇인 사름들도 싯주게. 그러면 시어멍이영 메느리영 어양어양 허멍 도께로 뚜리는디 이제 넴펜은 그거 때리는 디 작대기로 영 뒈쓰고 경 허당근에 잘못허민 이 손등땡이도 두드려지고이 이해성이 엇엉 시어멍이영 쌉는 수도 싯곡. 서툴민 손등땡이 두드려불주게. 서로 마주상인에 도께로 뚜리는디.(옛날에 그 보리가 많으면 참 마소라도 밟아

서 홅아놔서 마소로 밟으면서 오줌 싸면 닦고 똥 싸면 닦고 하는데 보리 많지 않은 건 그런 마소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어양어양' 하면서 도리깨로 때리는데 이제 남편은 그거 때리는 데 작대기로 이렇게 뒤집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 손등도 때리고 이해성이 없어서 시어머니랑 싸우는 수도 있고. 서투르면 손등 때려버리지. 서로 마주서서 도리깨로 때리는데.)

103012 @ 게민 이제 저 다 홀타나민 이거 보리쌀 헹 밥헹 먹젠 허민 어떵 헹은에 허는 거꽈?(그러면 이제 저 다 홅고 나면 이거 보리쌀 해서 밥해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3012 # 다 홀타 놩 보리가 뒈민 엿날엔 기계 엇은 땐 ᄆᆞᆯ ᄀᆞ레에서 그 물 져다 놓곡 헤여근에 ᄆᆞᆯ ᄀᆞ레서 물이영 서껑 보리, 겉보리 서껑인에 방에 찌젠 허민 그 엿날 그 연자방에, 연자방에 미릇 물 져당근에 누가 서사주이. 잘못허민 ᄉᆞ뭇 늦엉 보리 지도 못헤. 그럼 새벽에 우선 선발대로 허벅을 그 연자방에 물 져다 놓는 것이 순번이 뒈여. 경헹 강근에 허민 이제 보리 어져당 그 방에 연자방더레 놓민 물 이제 그레 비우주게. 물, 연자방에더레.(다 홅아 놓고 보리가 되면 옛날엔 기계 없는 때 연자매에서 그 물 져다 놓고 해서 연자매에서 물이랑 섞어서 보리, 겉보리 섞어서 방아 찧으려고 하면 그 옛날 그 연자방아, 연자방아 미리 물 져다가 누가 있어야지. 잘못하면 사뭇 늦어서 보리 찧지도 못해. 그럼 새벽에 우선 선발대로 동이를 그 연자매에 물 져다 놓는 것이 순번이 돼. 그렇게 해서 가서 하면 이제 보리 가져다가 그 방아 연자매에 넣으면 물 이제 그리 비우지. 물, 연자매에.)

103012 @ 연자방에렌 헙니까? ᄆᆞᆯ방에렌 헙니까?(연자방아라고 합니까? 'ᄆᆞᆯ방에'라고 합니까?)

103012 # 돌방에, 돌방에.('돌방에', '돌방에'.)

103012 @ 옛날엔 뭐옌 ᄀᆞᆯ아낫수과?(옛날엔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3012 # 방에렌 헤주게. 경헤근에 돌방에서 물 서껑 지멍 허여근에 지민 이제 체영 쏠이영 서꺼질 거 아니? 서꺼지민 그거 이젠 다 이제 껍데기 베껴지고 서꺼지민 이제 마당에 널어. 그 눔의 걸. 널엇다근에 이제 ᄆᆞᆯ르민 또 ᄇᆞ름 나믄 불리고 그렇지 않으민 푸는체로 쳐, 청인에 겉보리쯤은 초블 경 먹질 못허여. 경헹 또시 보리쏠을 또시 바싹 ᄆᆞᆯ령 두불 져. 두불 지민 체 이런 디 박아진 거 또 꼽꼽히 져지주게. 경 허민 또시 마당에 널어근에 바싹 ᄆᆞᆯ리민 ᄀᆞ레로 ᄀᆞᆯ아.(방아라고 하지. 그래서 '돌방에'서 물 섞어서 찧으면서 해서 찧으면 이제 겨랑 쌀이랑 섞일 거 아니? 섞이면 그거 이젠 다 이제 껍데기 벗겨지고 섞이면 이제 마당에 널어. 그놈의 걸. 널었다가 이제 마르면 또 바람 불면 불리고 그렇지 않으면 키로 쳐, 쳐서 겉보리쯤은 초벌 찧어서 먹지 못해. 그래서 다시 보리쌀을 다시 바싹 말려서 두벌 찧어. 두벌 찧으면 겨 이런 데 박힌 거 또 '꼽꼽히' 찧어지지. 그러면 다시 마당에 널어서 바싹 말리면 맷돌로 갈아.)

103012 @ 그럼 세불 뒈는 거?(그럼 세벌 되는 거?)

103012 # ᄀᆞ레로 ᄀᆞᆯ민 세불만 뒈는 거라. ᄀᆞ레로 ᄀᆞᆯ아근에 청인에 ᄉᆞ레긴 ᄉᆞ레

기밥허곡 그디 ᄀᆞ루 난 건 ᄀᆞ루 놩 걸로는 수제비 헤 먹곡 홁은 쏠은, 홁은 쏠 헤 먹곡 허단 기계 나난이 전시 기계로 가민 ᄒᆞᆫ 번에 다 졍 나오랑이, 다 졍 나오랑 먹단 이젠 ᄆᆞᆯ방에 기계 난 땐 ᄆᆞᆯ방에로 져낫주게. 경 허당 이젠 또 기계가 정말 좋으난 마른 보리로 까까.(맷돌로 갈면 세벌만 되는 거야. 맷돌로 갈아서 쳐서 싸라긴 싸라기밥하고 거기 가루 난 건 가루 넣어서 그걸로는 수제비 해 먹고 굵은 쌀은, 굵은 쌀 해 먹고 하다가 기계 나니까 모두 기계로 가면 한 번에 다 찧어서 나와서, 다 찧어서 나와서 먹다가 이젠 연자매 기계 나온 땐 연자매로 찧었었지. 그러다가 이젠 또 기계가 정말 좋으니까 마른 보리로 깎아.)

103012 @ 아, 물 안 놩근에.(아, 물 안 놔서.)

103012 # 물 아이 놩 가끄믄 이 밥이 곤밥 닮앙 맛 좋안들. 경헹 이제ᄁᆞ지 헤여 낫주게. 이젠 보리들 갈아근에 졍 먹질 안헤영 산뒤 갈앙 산뒤밥들로만 헹 먹엉이. 보리 가는 디가 드물어.(물 안 놔서 깎으면 이 밥이 흰쌀밥 같아서 맛 좋아서. 그래서 이제까지 했었지. 이젠 보리들 갈아서 찧어서 먹질 않아서 밭벼 갈아서 밭벼밥들로만 해서 먹어서. 보리 가는 데가 드물어.)

103013 @ 그믄 보리쌀로 밥도 헹 먹곡 또 무신거 헹 먹어?(그러면 보리쌀로 밥도 해서 먹고 또 무엇 해서 먹어?)

103013 # 아, 보리쌀로 밥을 주장 헤 먹주, 뭣 허느니게? 이제 또시 개역도 헹 먹곡 집이 이제 술 먹는 사람 이시믄 보리 허여근에 보리밥 허영 술헤여 놩도 넴편에게도 멕이곡, 경 허여주.(아, 보리쌀로 밥을 주로 해 먹지, 뭐 하니? 이제 또 미숫가루도 해서 먹고 집에 이제 술 마시는 사람 있으면 보리 해서 보리밥 해서 술 해서 놔서도 남편에게도 먹이고, 그렇게 하지.)

103014 @ 그럼 보리낭허곡 보리껍데기 같은 거영 다 어디어디 써마씨? 데껴불진 안허지예?(그럼 보릿대하고 보리겨 같은 거랑 다 어디어디 써요? 던져버리진 않지요?)

103014 # 방에 지믄 껍데긴 도새기 멕이곡.(방아 찧으면 껍데긴 돼지 먹이고.)

103014 @ 아, 그건 뭐엔 ᄀᆞᆯ암수과, 보리체?(아,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보릿겨?)

103014 # 보리체. 그건 도야지 멕영 키우곡 보리낭은 눌어두서 짇을커허곡게. 불허는 짇을커.(보릿겨. 그건 돼지 먹여서 키우고 보릿대는 가려서 땔감하고. 불하는 땔감.)

103014 @ ᄀᆞ시락은 아까 뭐헌덴?(까끄라기는 아까 뭐한다고?)

103014 # ᄀᆞ스락은 굴묵에 놔근에 굴묵 짇고.(까끄라기는 '굴묵'에 놔서 '굴묵' 때고.)

103014 @ 아, 굴묵 짇고 ᄀᆞ시락은?(아, '굴묵' 때고 까끄라기는?)

103014 # 응, ᄀᆞ스락은 굴묵에 잔뜩 데멧당.(응, 까끄라기는 '굴묵'에 잔뜩 쌓았다가.)

103014 @ 아까 ᄀᆞ레에 ᄀᆞᆯ 때 그 가루는 무신거렌 ᄀᆞᆯ아. 이름 엇어?(아까 맷돌에 갈 때 그 가루는 뭐라고 말해. 이름 없어?)

103014 # 보릿ᄀᆞ루.(보릿가루.)

103014 @ 그냥 보릿ᄀᆞ루?(그냥 보릿가루?)

103014 # 보릿ᄀᆞ루 ᄀᆞᆯ멍 보리쏠 ᄀᆞᆯ아나민 ᄀᆞ루 나민 그건 또시 저 누룩도 멘들고이 ᄀᆞ루로이 누룩도 멘들고 거기 또 ᄌᆞᆷ진 보리쏠 이서 ᄉᆞ레기. ᄉᆞ레기로 순다리도 헤영 먹곡. 게민 누룩 멘들 거로 헤엿다근에 겨울 때민 순다리 허여근에 헤 먹고 그추룩 허엿주게.(보릿가루 갈면서 보리쌀 갈고 나면 가루 나면 그건 다시 저 누룩도 만들고 가루로 누룩도 만들고 거기 또 자잘한 보리쌀 있어, 싸라기. 싸라기로 '순다리'도 해서 먹고. 그러면 누룩 만들 거로 했다가 겨울 때면 '순다리' 해서 해 먹고 그처럼 했지.)

103014 @ 보리 허는 게 힘들어낫지예?(보리 하는 게 힘들었었지요?)

103014 # 게, 옛날에는 걸름 허멍 힘들엇주마는 요즘은 신식으로이 보리씨만 짝짝 삐여근에 비료 삐난에 막 살기 좋아시녜. 이젠 보리도 아이 갈아. 보리도 안 갈아이.(그렇지, 옛날에는 거름 하면서 힘들었지마는 요즘은 신식으로 보리씨만 쫙쫙 뿌려서 비료 뿌리니까 아주 살기 좋았잖아. 이젠 보리도 안 갈아. 보리도 안 갈아.)

103015 @ 옛날 보리 할 때 막 생각나는 일은 엇수과?(옛날 보리 할 때 막 생각나는 일은 없습니까?)

103015 # 생각나기는 그추룩 애만 썻주게.(생각나기는 그처럼 애만 썼지.)

103015 @ 아니 뭐 보리 헐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헌 건 엇수과?(아니 뭐 보리 할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한 건 없습니까?)

103015 # 일어나지는 아니허곡 그루후제 또시 해방 뒈가난에, 옛날엔 보리 홀타근에 도께로 때리주게. 경 허곡 한 사름은 또시 ᄆᆞᆯ로나 쉐로나 마당에서 ᄇᆞᆯ려근에 ᄀᆞ스락 저 ᄇᆞ름 나는 디로 ᄆᆞᆫ 들러당 그냥 들러 가져게? 그 무슨 ᄀᆞᆯ체로 허여근에 들러당 장남들이 들러당.(일어나지는 않고 그 후에 또 해방 되어가니까, 옛날엔 보리 홅아서 도리깨로 때리지.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말로나 소로나 마당에서 밟아서 까끄라기 저 바람 부는 데로 모두 들어다가 그냥 들고 갈 수 있어? 그 무슨 삼태기로 해서 들어다가 장남들이 들어다가.)

103015 @ ᄀᆞᆯ체는 어떤 거?(삼태기는 어떤 거?)

103015 # 들러 가는 ᄀᆞᆯ체 영 허는 거 이서. 경헤근에 불려다근에 또 방에 지민 그것 보린 방에 지민 또 체가 잇주게. 체 시민 또시 마당에서 ᄆᆞᆯ방에 졍 ᄆᆞᆯ리왕 그 체 ᄆᆞᆯ리민 또 불려. 불령 이제 쏠 나민 첸 도야지 멕이곡 또시 ᄆᆞᆯ령 겉보린렌 헌 건 멧 불을 져사 먹어. 초불 져선 이런 디 체 박아져근에 거칠엉 먹질 못헤여.(들고 가는 삼태기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렇게 해서 불렸다가 또 방아 찧으면 그것 보리는 방아 찧으면 또 겨가 있지. 겨 있으면 또 마당에서 연자매 찧어서 말려서 그 겨 말리면 또 불려. 불려서 이제 쌀 나면 겨는 돼지 먹이고 또 말려서 겉보리라고 한 건 몇 벌을 찧어야 먹어. 초벌 찧어서는 이런 데 겨 박혀서 거칠어서 먹질 못해.)

103015 @ 보리를 막 하영 헤낫주예? 옛날엔?(보리를 아주 많이 했었지요? 옛날

엔?)

103015 # 아이고, 보리 하영 허곡, 경 허단 보리 기계 난에 맥탁기로 때려 가가민은 보리 서 뭇 어떤 집은 서른 섬 헷저, 멧 섬 헷저, 경 허당 또시 이 감저 절간 허난이 감저뻿데기 허영이.(아이고, 보리 많이 하고, 그러다가 보리 기계 나서 맥탁기로 때려 가면 보리 세 뭇 어떤 집은 서른 섬 했다, 몇 섬 했다, 그러다가 또 이 고구마 절간하니까 절간고구마 해서.)

103015 @ 감저 ᄒᆞ꼼 잇당 보리만 먼저 ᄀᆞᆯ앙 순서대로. 게민 보리 무사 옛날에는 보릿고개여, 보리 익기 전이 강 타당 먹엇저 허는 말 허는디.(고구마 조금 있다가 보리만 먼저 갈아서 순서대로. 그러면 보리 왜 옛날에는 보릿고개다, 보리 익기 전에 가서 따다가 먹었다 하는 말 하는데.)

103015 # 보릿고개는 이 숭년엔 보리 누릿누릿허민 이 가난한 집은 보리 익기 전이 그 보릴 가근에 ᄒᆞᆯ 익은 디로 ᄆᆞᆷ은 디로 비어당 이제 그 ᄆᆞ스락 엇게 손으로 장만헤영 이젠 또 저 시리, 시리에 쳐 그 보릴, 겉보릴 시리에 쳥 ᄆᆞᆯ르민 또시 이제 시리에 쳥 이제 마당에서 ᄆᆞᆯ리앙 ᄆᆞ레로 ᄀᆞᆯ민, 그때 사는 것이 사는 거냐이? 그 솔오리민 허주마는 겉보릴 ᄆᆞ레에 ᄀᆞᆯ멍 영 ᄆᆞ스락 그 체영 ᄆᆞᆫ 나가민 밥도 ᄎᆞᆷ 입에 넣으민 수악헹 먹도 못허멍도 그것도 잇는 집이라사 엇인 집엔 엇어. 그런 것도 없는 집엔 엇엇어.(보릿고개는 이 흉년엔 보리 누릇누릇하면 이 가난한 집은 보리 익기 전에 그 보리를 가서 조금 익은 데로 여문 데로 베어다가 이제 그 까끄라기 없게 손으로 장만해서 이젠 또 저 시루, 시루에 쪄서 그 보리를, 겉보리를 시루에 쪄서 마르면 또 이제 시루에 쪄서 이제 마당에서 말려서 맷돌로 갈면, 그때 사는 것이 사는 거니? 그 쌀보리면 하지마는 겉보리를 맷돌에 갈면 이렇게 까끄라기 그 겨랑 모두 나가면 밥도 참 입에 넣으면 '수악'해서 먹지도 못하면서도 그것도 있는 집이라야 없는 집엔 없어. 그런 것도 없는 집엔 없었어.)

조농사

103016 @ 그럼 이제 조 헤보게예, 조, 좁쌀예. 조농사 허젠 허민 무신거 무신거 미리 준비헤야 뒙니까?(그럼 이제 조 해봐요, 조, 좁쌀요. 조농사 하려고 하면 무엇 무엇 미리 준비해야 됩니까?)

103016 # 조허젠 허민 밧에 보리 그르에이 조 가져가근에 좁씨 삐영 갈민 이제 조가 검질 내영근에 조코구리 나민 비여당 이제 그 조코구리를 타당 고고리만 타당 낭뎅이에 이제 또 저 소 멕일 거로 허곡 허민 놉 빌어근에 앚앙들 막 조 타주게. 하영 부젯칩이사 놉 빌어근에 허주마는 가난한 집은 이녁냥으로 타당근에 멧 날 메칠 타당.(조하려고 하면 밭에 보리 그루에 조 가져가서 좁씨 뿌려서 갈면 이제 조가 김 내어서 조 이삭 나면 베어다가 이제 그 조 이삭을 따다가 이삭만 따다가 줄기에 이제 또 저 소 먹일 거로 하고 하면 놉 빌려서 앉아서들 막 조 따지. 많이 부잣집이야 놉 빌려서 하지마는 가난한 집은 자기대로 따다가 몇 날 며칠 따다가.)

103017 @ 순서대로 헤보게예. 조팟뒨 먼저 걸름 허매, 헙니까?(순서대로 해봐

요. 조밭엔 먼저 거름 해, 합니까?)
103017 # 조팟딘 걸름 안 놔.(조밭엔 거름 안 놔.)
103017 @ 아, 조팟딘 걸름 안 놔?(아, 조밭엔 거름 안 놔?)
103017 # 응, 걸름 아이 놔근에 그냥 허영 조씨 삐영.(응, 거름 안 놓고 그냥 해서 좁씨 뿌려서.)
103018 @ 언제, 언제 허여, 조는?(언제, 언제 해, 조는?)
103018 # 그건게.(그건.)
103018 @ 멧 월에?(몇 월에?)
103018 # 다음에게 보리.(다음에 보리.)
103018 @ 보리 혼 오월에 빕니까? 유월에 빕니까?(보리 한 오월에 뱁니까? 유월에 뱁니까?)
103018 # 오월 낭 비민 유월 낭인에 조를 허고, 칠월에도 조를 허곡 순번으로게.(오월 나서 베면 유월 나서 조를 하고, 칠월에도 조를 하고 순번으로.)
103018 @ 조 저 장마 끗나민?(조 저 장마 끝나면?)
103018 # 응, 장마 끗나민.(응, 장마 끝나면.)
103018 @ 허기 전이?(하기 전에?)
103018 # 장마 안 헤도 조 허곡 장마 끗낭도 이제 물 자꾸 앚는 딘 장마 끗나사 조씨 뿌리고 경 아닌 물른 밧딘 장마 안에 헤여근에 마에 싹 나고.(장마 안 해도 조 하고 장마 끝나서도 이제 물 자꾸 앉는 덴 장마 끝나야 좁씨 뿌리고 그렇지 않은 마른 밭엔 장마 안에 해서 마에 싹 나고.)
103019 @ 아, 마에? 좁씬 어떵 헹 뻡니까?(아, 마에? 좁씨는 어떻게 해서 뿌립니까?)
103019 # 그냥 그자 멕에 영영 뿌리멍.(그냥 그저 멱서리에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서.)
103019 @ 멕 막 크지 안허여?(멱서리 아주 크지 않아?)
103019 # 멩텡이.(망태기.)
103019 @ 멩텡이?(망태기.)
103019 # 들러메영 멩텡이 들러메영 삐여둬근에 남젠 밧 갈곡 허민.(둘러매서 망태기 둘러매서 뿌려두고 남자는 밭 갈고 하면.)
103019 @ 여자가 삐여?(여자가 뿌려.)
103019 # 아니게 남자가 삐곡, 남자가 밧 갈민 조 간 딘 물로 불려야 조가 좋아. 안 불리민 안 뒈. 쉐로나 밧을 불려야.(아니 남자가 뿌리고, 남자가 밭 갈면 조 간 덴 말로 밟아야 조가 좋아. 안 밟으면 안 돼. 소로나 밭을 밟아야.)
103019 @ 보리는 안 불려도 뒈는데 조는 불려사예? 좁씨는 삐젠 허민 이것도 좁씨 쪼꼴락헌 거라부난 간 딘 막 가고 안 간 딘 안 가고.(보리는 안 밟아도 되는데 조는 밟아야요? 좁씨는 뿌리려고 하면 그것도 좁씨 조그마한 거라서 간 덴 막 가고 안 간 덴 안 가고.)

103019 # 경 허난 아니 그래도 고지 길 잡앙 삐민 쭉 고르게 헤져.(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랑 길 잡아서 뿌리면 쭉 고르게 할 수 있어.)

103020 @ 아, 거믄 아까 조팟 불릴 땐 어떵 헹 불리는 거꽈?(아, 그러면 아까 조밭 밟을 땐 어떻게 해서 밟는 겁니까?)

103020 # 조팟은 쉐 이신 사름은 쉐 이신 사름은 연메어근에[54] 고지 잡앙 어려어려허멍 불려가민 좁씨 삔 거 서꺼져근에 든든히.(조밭 소 있는 사람은 소 있는 사람은 '연메어근에' 이랑 잡아서 '어려어려'하면서 밟아가면 좁씨 뿌린 거 섞여서 단단히.)

103020 @ 무신거 메여근에? 연메여근에? 연이 뭐?(무엇 메어서? '연메어근에'? '연'이 뭐?)

103020 # 쉐 두 개민 이리 연메여사게.(소 두 개면 이리 '연메어사게'.)

103020 @ 아, 두 개 가치?(아 두 개 같이?)

103020 # 응, 게민 쉐 하나 큰 쉐 조름에 족은 쉐 두 개 메곡 물 한 사름들은이 물 하민 물 하나 웅매 심으민 물들은 와랑자랑 어랑자랑 ᄀᆞ치 조름에 물민 ᄀᆞ치 둘아. 게난 우리 아방네도 물테가 시민 저 세계 사름들은이 여름 나민 그 조팟 불려도렌 헤영이 우리 시집이 나 살 때 보민 비께, 비께 우선 선물로.(응, 그러면 소 하나 큰 소 뒤에 작은 소 두 개 메고 말 많은 사람들은 말 많으면 말 하나 수말 잡으면 말들은 '와랑자랑 어랑자랑' 같이 뒤에 몰면 같이 달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네도 말떼가 있으면 저 사계 사람들은 여름 나면 그 조밭 밟아 달라고 해서 우리 시집에 나 살 때 보면 수염상어, 수염상어 우선 선물로.)

103020 @ 비께가 뭐?('비께'가 뭐?)

103020 # 바당에 비께.(바다에 수염상어.)

103020 @ 아, 바닷궤기?(아, 바닷고기?)

103020 # 응, 큰 거 ᄉᆞ뭇 가죽 벳겨뒁 헤 먹는 거. 그거 세계 사름들 우선 어져와. 조팟 불려 도렌. 조팟 불릴 때 시아방이영 나영 물 몰앙 가근에 와랑자랑 불려오주게.(응, 큰 거 사뭇 가죽 벗겨두고 해 먹는 거. 그거 사계 사람들 우선 가져와. 조밭 밟아 달라고. 조밭 밟을 때 시아버지랑 나랑 말 몰아서 가서 '와랑자랑' 밟고 오지.)

103020 @ 쉐 엇이민 혹시 낭이나 돌로도 영 헙니까?(소 없으면 혹시 나무나 돌로도 이렇게 합니까?)

103020 # 돌로도 못 헤여. 게난 쉐로 쉐 신 사람 쉐 하나로 불리민 졸바로 불려지지 안허주게. 게민 또 가시낭 비영 섬비 닮은 거 허영 그레 돌 놓곡 불려도 굴려도 불려지지 아니허민 어불통 어불통[55]허민 그땐 저 섬비 쉐 조름에 그 섬비 메영 근에 쉐 몰멍 고르게 뎅기민 문짝 바닥 골라지주게.(돌로도 못 해. 그러니까 소로 소 있는 사람 소 하나로 밟으면 제대로 밟지 못하지. 그러면 또 가시나무 베어서

54) '연메다'는 소 등을 두 마리 나란히 메는 것을 말한다.
55) '어불통어불통'은 밭을 갈고 나서 흙이 울퉁불퉁한 모양을 이른다.

끙게 같은 거 해서 그리 돌 놓고 밟아도 굴려도 밟아지지 않으면 ‘어불통 어불통’ 하면 그땐 저 끙게 소 뒤에 그 끙게 매어서 소 몰면서 고르게 다니면 매끈 바닥 고르게 되지.)

103020 @ 섬비 허는 건 무신 낭으로 헙니까?(끙게 하는 건 무슨 나무로 합니까?)

103020 # 산에 그 누룩낭이렌 헌 거 이서. 누룩낭, 아무 낭이나 안 뒈여. 누룩낭이엔 헌 거. 누룩낭으로 섬비 메영 영헹 메민 쉐 조름에 그거 허영 쉐 하나 두 개 블린 건 골고루 블려지지 안허주게. 쉐로 멧 개 블려근에 마지막은 그 섬비로 끄서 근에 조 나민 조컴질도.(산에 그 느릅나무라고 한 거 있어. 느릅나무, 아무 나무나 안 돼. 느릅나무라고 한 거. 느릅나무로 끙게 메어서 이렇게 해서 매면 소 뒤에 그거 해서 소 하나 두 개 밟은 건 골고루 밟아지지 않지. 소로 몇 개 밟아서 마지막은 그 끙게로 끌어서 조 나면 조 김도.)

103021 @ 조컴질은 어떵 멥니까?(조 김은 어떻게 맵니까?)

103021 # 조컴질은 즞은 건 방[56] 벌여근에 살려사주게. 방 벌영. 방 벌여사. 보리 검질은 그자 나는 냥 즞이 나도 뒈곡 드물게 나도 뒈는디. 조는 즞으민 조코구리 이만썩벳긔 안 허여. 똑 반 버무령 그자 허민 조쿠리가 이만썩 헤영 조도 좋곡.(조 김은 잦은 건 ‘방’ 벌려서 살려야지. ‘방’ 벌려서. ‘방’ 벌려야. 보리 김은 그저 나는 대로 잦게 나도 되고 드물게 나도 되는데. 조는 잦으면 조 이삭이 이만큼씩밖에 안 해. 꼭 반 버무려서 그저 하면 조 이삭이 이만큼씩 해서 조도 좋고.)

103021 @ 어느 만이씩 벌령 허는 거꽈?(어느 만큼씩 벌려서 하는 겁니까?)

103021 # 이 주먹 ᄒᆞ나 들어갈 정도로.(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103021 @ 아, 주먹 ᄒᆞ나 들어갈 정도로?(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103021 # 응, 영영영영 메민.(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면.)

103021 @ 그럼 조컴질 메는 건 힘들켜예?(그럼 조 김 매는 건 힘들겠네요?)

103021 # 힘들어, 검질도 나곡 허민 검질도 초불 안 메여. 초불은 조 나민 소끄곡 두불은 검질 나민 검질메곡.(힘들어, 김도 나고 하면 김도 초벌 안 매. 초벌은 조 나면 솎고 두벌은 김 나면 김매고.)

103021 @ 아, 초불은 그냥 소끄는 거곡 두불은 검질메는 거고? 그럼 조컴질은 두 번 메는 거꽈?(아, 초벌은 그냥 솎는 거고 두벌은 김매는 거고? 그럼 조 김은 두 번 매는 겁니까?)

103021 # 응, 두 번 메는 거.(응, 두 번 매는 거.)

103022 @ 보린 혼 번만 메도 뒈고? 그믄 조팟듸 검질은 어떤 검질 납니까?(보린 한 번만 매도 되고? 그럼 조밭에 김은 어떤 김 납니까?)

103022 # 절완지.(바랭이.)

103022 @ 아, 절완지.(아, 바랭이.)

103022 # 절완지영 복쿨이영.(바랭이랑 깨풀이랑.)

---

56) ‘방’은 좁씨가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다른 싹과 여유를 두는 공간을 말한다.

103023 @ 복쿨이영 두 개가 젤 하영 나? 조팟듼? 게민 이제 조 다 컨예. 조 비어살 건디 멧 월달이민 조 빕니까?(깨풀이랑 두 개가 젤 많이 나? 조밭엔? 그러면 이제 조 다 컸어요. 조 베어야 할 건데 몇 월이면 조 벱니까?)

103023 # 가을 들민 조 익어가민 비주게. 가을에.(가을 들면 조 익어가면 베지. 가을에.)

103023 @ 어떵 비여, 조는?(어떻게 베, 조는?)

103023 # 호미로 조 비어근에 놔뒀당 물르민 무꺼당 집이서 이제 조코구리 톧앙.(호미로 조 베어서 놔뒀다가 마르면 묶어다가 집에서 이제 조이삭 뜯어서.)

103023 @ 응, 보리허듯이. 보리랑 뭐가 달라?(응, 보리하듯이. 보리랑 뭐가 달라?)

103023 # 조코구리 이젠 집이 조 시꺼당근에 놔둠서 조코구리만 따주게.(조이삭 이젠 집에 조 실어다가 놔두면서 조이삭만 따지.)

103023 @ 손으로? 손으로?(손으로? 손으로?)

103023 # 호미로.(낫으로.)

103023 @ 아, 호미로. 홀테로 안 허고예?(아, 낫으로. 그네로 안 하고요?)

103023 # 호미로 영 놔근에 조 이디서 잡앙 조코고리 따근에 이제 조찝은 그냥 무꺼근에 눌고 조코고리는 바싹 물리민 이제 저 물ᄀᆞ레 강 물ᄀᆞ레 강근에 조코고리 어졍 가근에 빙빙 둘러가민 그 조 털어지주게. 게민 각지 허여근에 조칵지 쉐 멕이고 조첸 도야지 멕이고 그추룩.(낫으로 이렇게 놔서 조 여기서 잡아서 조이삭 따서 이제 조짚은 그냥 묶어서 가리고 조이삭은 바싹 마르면 이제 저 연자매 가서 연자매 가서 조이삭 가져가서 빙빙 둘러가면 그 조 떨어지지. 그러면 깍지 해서 조깍지 소 먹이고 조겨는 돼지 먹이고 그처럼.)

103023 @ 조는 이거 영 무끄젠 허민 하영씩 못 무끄지예?(조는 이거 이렇게 묶으려고 하면 많이씩 못 묶지요?)

103023 # 아니 이만썩 흔 아름썩 무꺼.(아니, 이만큼씩 한 아름씩 묶어.)

103023 @ 흔 아름씩 무꺼?(한 아름씩 묶어?)

103023 # 조가 좋으민 조가 낭뎅이 낭 좋으민 조고고리로 확 오그렁 톡 오그렁 조낭 멧 개 헤영 탁 무끄곡 조낭이 낭 나지 안허연 건 새 비어당 어디 가근에 드르팟에 강 새 헤여 어디 담에 새들 비영 그걸 깨 털어강근에 무껑 허민 조 께 털엉 무끈 조코구린 요만썩 허주게. 요만썩, 조 좋으민 고고리가 이만썩 허민 조낭 댓 개 영 조코고리 싹 오그렁 조 무끄는디.(조가 좋으면 조가 줄기가 나무가 좋으면 조이삭으로 확 오그려서 톡 오그려서 조 줄기 몇 개 해서 탁 묶고 조 줄기가 나무 나지 않은 건 띠 베어다가 어디 가서 들판에 가서 띠 해서 어디 담에 띠들 베어서 그걸 매끼 틀어가서 묶어서 하면 조 매끼 틀어서 묶은 조이삭 요만큼씩 하지. 요만큼씩, 조 좋으면 이삭이 이만큼씩 하면 조 줄기 댓 개 이렇게 조이삭 싹 오그려서 조 묶는데.)

103024 @ 그민 이것도 저 도께로 헤근에 두드리기도 헙니까? 조도.(그러면 이것

도 저 도리깨로 해서 두드리기도 합니까? 조도.)

103024 # 도께로도 두들곡 또 물ᄀᆞ령 가근에 고고리 어졍 강 물ᄀᆞ령서 둥그리멍 영영 허영 각메기[57] 허멍 허곡.(도리깨로 두드리고 또 연자매 가서 이삭 가져가서 연자매서 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메기' 하면서 하고.)

103024 @ 각메기가 뭐?('각메기'가 뭐?)

103024 # 그 각지, 각지.(그 깍지, 깍지.)

103024 @ 응, 조 껍데기?(응, 조 껍데기?)

103024 # 조 고고리에 그 낭뎅이가 싯주게. 경 허곡 체영 무시거 털어져도 그 터럭이 이서. 그거 조칵지엔 헤여. 조칵지 그거 조칵지 다 털어지믄 털멍 허여근에 담아당 쉐.(조 이삭에 그 줄기가 있지. 그리고 겨랑 무엇 떨어져도 그 털이 있어. 그거 조 깍지라고 해. 조 깍지 그거 조 깍지 다 떨어지면 떨면서 해서 담아다가 소.)

103024 @ 조칵메기가 그거?(조 깍지가 그거?)

103024 # 응, 조칵메기 그거.(응, 조 깍지 그거.)

103024 @ 그거 마께로도 영 뿟아?(그거 방망이로 이렇게 빻아?)

103024 # 마께로도 두들곡, 하지 안헤사 그 한 것사 마께로 두드려지느냐? 거난 고고리 막 타당 조 한 사름들 열 말지기쯤이나 허믄 멕으로 멧 개 담아당근에 물ᄀᆞ레레 강 탕 나둠서 흔 번 놓아근에 방에서 둥그리믄 각진 각지냥으로 조는 조냥으로 담아두곡 그거 막허영 이제 각진 조칵진 쉐 멕이곡 이젠 체영 싯주게. 그건 또시 집에 오랑근에 쉐막에서 푸믄 조챈 도새기 멕이곡, 각진 쉐 멕이곡.(방망이로도 두드리고, 많지 않아야 그 많은 거야 방망이로 두드릴 수 있니? 그러니까 이삭 막 따다가 조 많은 사람들 열 마지기쯤이나 하면 멱서리로 몇 개 담아다가 연자매에 가서 따서 놔두면서 한 번 넣어서 방아에서 굴리면 깍진 깍지대로 조는 조대로 담아두고 그거 마구해서 이젠 깍진 조 깍진 소 먹이고 이젠 겨랑 있지. 그건 또 집에 와서 외양간에서 푸면 조겨는 돼지 먹이고, 깍진 소 먹이고.)

103024 @ 응, 거난 마께로도 조꼼만.(응, 그러니까 방망이로도 조금만.)

103024 # 마께로는 하찮은 거 두들리고 댓 말지기 여남은 말지기 허믄 마께로 어떵 때릴 말이냐?(방망이로는 하찮은 거 두드리고 댓 마지기 여남은 마지기 하면 방망이로 어떻게 때릴 말이냐?)

103025 @ 게민 좁쌀 멘들젠 허민 물방에 가야 뒈는 거예?(그러면 좁쌀 만들려고 하면 연자매 가야 되는 거요?)

103025 # 좁쌀 멩글젠 허믄 또시 그땐 기계 엇은 땐이 물ᄀᆞ레서 조 어졍 강 바싹 물령 물ᄀᆞ레서 쉐내와근에 삐져.(좁쌀 만들려고 하면 또 그땐 기계 없는 땐 연자매서 조 가져가서 바싹 말려서 연자매에서 '쉐내와근에' 빻아.)

103025 @ 그땐 물 안 놔?(그땐 물 안 놔?)

103025 # 물 아이 놩게. 물른 채 막 져가민 체가 나오민 이젠 또시 그거 문딱

57) '각메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알을 떨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이다.

퍼근에 또 푸는체로 퍼. 물ᄀᆞ레 신 디서 푸는체로 퍼근에 니 하나씩 시민 또 두불져. 두불 져근에 그거 불려근에 좁쌀 헤 먹곡.(물 안 놔서. 마른 채 막 찧어가면 겨가 나오면 이젠 또 그거 모두 까불러서 또 키로 까불러. 연자매 있는 데서 키로 까불러서 뉘 하나씩 있으면 또 두벌 찧어. 두벌 찧어서 그거 불려서 좁쌀 해 먹고.)

103025 @ 그디서 그냥. 집이 안 가졍 왕?(거기서 그냥. 집에 안 가져와서?)

103025 # 기계 날 땐 기계에 가근에 한 번에 잘잘 기계에 ᄂᆞ리고.(기계 날 땐 기계에 가서 한 번에 좔좔 기계에 내리고.)

103025 @ 그럼 그거 물방에 갈 때는 물ᄀᆞ레 그거 허레 갈 때는 무신거 무신거 아상 가야 뒈여?(그럼 그거 연자매 갈 때는 연자매 그거 하러 갈 때는 무엇 무엇 가져가야 돼?)

103025 # 물ᄀᆞ레 갈 땐게 무신거 어졍 가느니? 그 저 조코고리 장만허레 갈 땐, 장만허레 갈 땐 그자 조코고리 강은에 물ᄀᆞ레 놩은에 그 ᄲᅳᆺ아주렌 헹 허민 이제 그 각지, 각진 이제 둥글치민 솔박 가져강근에 하루 담으곡 또 체영 ᄀᆞ치 담아 조체영 담앙은에 이젠 경 두 가지에 갈려지민 조칵지 그건 조코구리 부터난 건 그냥 털멍 조팡울 아이 부뜨게 허영, 그건 그냥 무슨 맥에 담아당 쉐 멕이고 조체영 헌 건 집에 어져다근에 쉐막에서 퍼근에 조첸 도야지 멕이곡 조는 그대로 물령 또 방에 지멍 쏠 멘들곡.(연자매 갈 땐 무엇 가져가니? 그 저 조이삭 장만하러 갈 땐, 장만하러 갈 땐 그저 조이삭 가서 연자매 놔서 그 빻아주라고 해서 하면 이제 그 깍지, 깍지는 이제 굴리면 '솔박' 가져가서 하루 담고 또 겨랑 같이 담아 조 겨랑 담아서 이젠 그렇게 두 가지에 갈라지면 조 깍지 그건 조이삭 붙었던 건 그냥 떨면서 조방을 안 붙게 해서, 그건 그냥 무슨 멱서리에 담아다가 소 먹이고 조 겨랑 한 건 집에 가져다가 외양간에 퍼서 조 견 돼지 먹이고 조는 그대로 말려서 또 방아 찧으면서 쌀 만들고.)

103026 @ 좁쌀로는 무신거 무신거 헹 먹는 거꽈?(좁쌀로는 무엇 무엇 해서 먹는 겁니까?)

103026 # 좁쌀은게 보리밥 숢아근에 버질버질헤가민 좁쌀 서껑도 먹곡 또시 좁쌀로 집이 술 먹는 사름 이시민 좁쌀 술 헤여놩근에 술도 허여근에 저 지주로도 쓰곡.(좁쌀은 보리밥 삶아서 '버질버질'해가면 좁쌀 섞어서도 먹고 또 좁쌀로 집에서 술 먹는 사람 있으면 좁쌀 술 해서 놔서 술도 해서 저 제주로도 쓰고.)

103026 @ 떡도 헹 먹고?(떡도 해서 먹고?)

103026 # 떡도 헹 먹고게, 좁쌀 떡. 맛 좋주게.(떡도 해서 먹고, 좁쌀 떡. 맛 좋지.)

103026 @ 보리밥에 영 ᄒᆞ쏠 놓는 거 말고도 좁쌀로만도 밥헹 먹어?(보리밥에 이렇게 조금 넣는 거 말고도 좁쌀로만도 밥해서 먹어?)

103026 # 조팝으로도 헹 먹어. 좁쌀 보리쌀 겨울에 매집이 시카부덴. 옛날엔 매집이 엇어. 가난헌 집인 흐린좁쌀도 엇어. 모인좁쌀로 밥허민 가르륵허게 ᄉᆞ뭇 밥은 하영 먹어도 배고프곡. 흐린좁쌀은 찰기가 이서근에 부제칩이가 흐린좁쌀이 싯곡.

가난한 집인 흐린좁쌀도 엇어.(조밥으로도 해서 먹어. 좁쌀 보리쌀 겨울에 매집 있을까 봐. 옛날엔 매집에 없어. 가난한 집은 차좁쌀도 없어. 메좁쌀로 밥하면 '가르륵'하게 사뭇 밥은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차좁쌀은 찰기가 있어서 부잣집이 차좁쌀이 있고. 가난한 집은 차좁쌀도 없어.)

103026 @ 좁쌀도 여러 종류가 잇주예?(좁쌀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103026 # 게.(그렇지.)

103026 @ 무신 좁쌀, 무신 좁쌀?(무슨 좁쌀, 무슨 좁쌀?)

103026 # 흐린좁쌀이여, 모인좁쌀이여, 검은 좁쌀도 잇고 경 허주.(차좁쌀이다, 메좁쌀이다, 검은 좁쌀도 있고 그렇지.)

103026 @ 조 삘 땐 무신 조, 무신 조 이서?(조 뿌릴 땐 무슨 조, 무슨 조 있어?)

103026 # 조 삘 때게 검은조도 삐여근에.(조 뿌릴 때 검은조도 뿌려서.)

103026 @ 그냥 검은조, 흐린조만 헙니까?(그냥 검은조, 차조만 합니까?)

103026 # 흐린조영, 모인조영.(차조랑, 메조랑.)

103026 @ 뭐 막 이름도 이선게만은. 개발시리여 뭐 강돌와리여 허는 거 이서라.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 옛날에 뭐 하영 헤낫수과?(뭐 막 이름도 있던데마는. '개발시리'며 뭐 '강돌와리'며 하는 거 있더라.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옛날에 뭐 많이 했었습니까?)

103026 # 동대기엔 헌 거.('동대기'라고 한 거.)

103026 @ 동대기?('동대기'?)

103026 # 응, 동대기 고고리.(응, '동대기' 이삭.)

103026 @ 그건 흐린 거?(그건 차진 거?)

103026 # 조팟 강 보민 고고리가 이만썩 헤근에 막 허민 아이고 누게네 밧듸 강 보난 조코고리 동대기 고고리가 물탁물탁 조도 좋아라 경 허주게. 비료도 아이 주민 조코고리가 요만썩 헤여.(조밭 가서 보면 이삭이 이만큼씩 해서 막 하면 아이고 누구네 밭에 가서 보니까 조이삭 '동대기' 이삭이 '물탁물탁' 조도 좋더라 그렇게 하지. 비료도 안 주면 조이삭이 요만큼씩 해.)

103026 @ 조 종류가 여러 개 잇는 게 아니고?(조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103026 # 응, 여러 개 이서. 흐린조도 잇고, 모인조도 잇곡.(응, 여러 개 있어. 차조도 있고, 메조도 있고.)

103027 @ 그럼 아까 조찝은 쉐 멕이고? 쉐 잘 먹읍니까?(그럼 아까 조짚은 소 먹이고? 소 잘 먹습니까?)

103027 # 아이고, 아니 줭 못 먹나.(아이고, 안 줘서 못 먹는다.)

103027 @ 엇엉 못 먹어? 쉐가 조찝을 좋아헙니까?(없어서 못 먹어? 소가 조짚을 좋아합니까?)

103027 # 조찝게. 조찝을 누게 줘서? 쉐 줫주게. 산뒤찝이나 조찝이나.(조짚. 조

짚을 누가 줘? 소 줬지. 밭볏짚이나 조짚이나.)

103027 @ 산뒤찝이나 조찝이나. 조농사헐 땐 뭐가 젤 힘든 거 뭐마씸?(밭볏짚이나 조짚이나. 조농사할 땐 뭐가 젤 힘든 거 뭐예요?)

103027 # 조농사헐 땐? 밧이 ᄒᆞ쏠 쎈 밧은 좁씨 삐영 공구리 쳐둥 든든히 불라사 씨 잘 사. 두루 불리민 두루 불려진 딘 박싹 나근에 좁씨가 안 사. 안 나.(조농사할 땐? 밭이 조금 센 밭은 좁씨 뿌려서 '공구리' 쳐두고 단단히 밟아야 씨 잘 서. 덜 밟으면 덜 밟힌 덴 '박싹' 나서 좁씨가 안 서. 안 나.)

103027 @ 박싹 나근에? 박싹 나는 게 뭐?('박싹' 나서? '박싹' 나는 게 뭐?)

103027 # 조 안 낭, 안 난 디 강 박싹 낫젠 허여. 기추룩 허민 공구리 마당ᄀᆞ치 찌깍허게 불리민 조가 구짝 나고 경 허민 물테 이신 사름들은 저 세계 밧 불리레 가민 잘 불리민 조 잘 나곡 경혜. ᄆᆞ쉐 엇은 사름 이녁 쉐로 불리는 거 닮고 사름 발로 ᄒᆞ쏠 불리민이 조가 졸바로 안 나. 것도 힘들엇어, 옛날에.(조 안 나서, 안 난데 가서 '박싹' 났다고 해. 그렇게 하면 '공구리' 마당처럼 '찌깍하게' 밟으면 조가 곧게 나고 그러면 말떼 있는 사람들은 저 사계 밭 밟으러 가면 잘 밟으면 조 잘 나고 그래. 마소 없는 사람 자기 소로 밟는 거 같고 사람 발로 조금 밟으면 조가 제대로 안 나. 그것도 힘들었어, 옛날에.)

103027 @ 거난 조 불리는 게 젤 힘들구나, 조는예. 보리는 걸름 만드는 게 힘들고.(그러니까 조 밟는 게 젤 힘들구나, 조는요. 보리는 거름 만드는 게 힘들고.)

103027 # 걸름도 만드는 거 힘들지 안허여. 옛날에 쉐 질르민 쉐걸름 돗통더레 들이치지. 또 보리 갈젠 허믄 돗통에 걸름 마당더레 파내영 이제 골루루 놔근에 불랑 마당에 골체로 다 비우주게. 비우민 쉐스랑으로 영영 골라, 우불두불헌 디 보리씨 다 들어가카부덴 경 허민 영영 뎅기멍 골라근에 이제 보리씨 삐영 삐여근에 이젠 또 쉐로 불려. 쉐로 불령 또시 이제 뒈쌍은에 또 불령근에 이젠 영 뒈민 멕에 담으멍 밧듸 시꺼 가곡.(거름도 만드는 거 힘들지 않아. 옛날에 소 기르면 소두엄 돼지우리에 들이뜨리지. 또 보리 갈려고 하면 돼지우리에 거름 마당에 파내서 이제 골고루 놔서 밟아서 마당에 삼태기로 다 붓지. 부으면 쇠스랑으로 이렇게 이렇게 골라, 울퉁불퉁한 데 보리 씨 다 들어갈까 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골라서 이제 보리씨 뿌려서 뿌려서 이젠 또 소로 밟아. 소로 밟아서 또 이제 뒤집어서 또 밟아서 이젠 이렇게 되면 멱서리에 담으면서 밭에 실어서 가고.)

103027 @ 조 하영 헤낫수과? 할머니 옛날에.(조 많이 했었습니까? 할머니 옛날에.)

103027 # 조도 하영 허주. 이 대정 지경에 조가 맛 좋고. 대정 지경에 보리쏠이 맛 좋곡.(조도 많이 하지. 이 대정 지경에 조가 맛 좋고. 대정 지경에 보리쌀이 맛 좋고.)

103028 @ 얼마나 하영 헙니까? 보통, 부제칩이?(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통, 부잣집에?)

103028 # 부제칩이 어이구 조 멧 섬썩 허곡 보리쏠도 서른 섬 헷저, 마흔 섬 헷

저. 옛날에게 하르방네도 보리쏠 멧 섬썩. 우리 거기 우리 저 하르방네도이 보리 섬 우리 집인이 보리가 원체 밧도 좋곡, 밧덜이 다 세계 밧덜이난이 보리 좋으믄이 맥타기 허는 사름들이 저 내령 오랑인에 기계 맥타기 허젠 허민 강 가와들 빼어다근에 우선 이녁 거 허젠 문 허곡 헤도 맥타기 임자네가 우리 보리 아무 날 클 두 개 앚젼에 장남 둘이 헹 홀탐젠 허민 으레껏 허여 도렌 헤도 우리 집인 오더라게. 보리 큰 두 눌 눌민 장남 둘이 빌령 하는 사름도 둘리 뒤치는 건 홀튼 디 빠내는 사름도 둘리 허영 허민 낭 무끄는 사름 허민, 게민 보리 홀타 논 것이 춤말로 눈만은 두 개 허주게. 게민 옛날에 사름들이 맥타기 허영 보리 때리주게. 지네 걸로 알앙인에 우선 오랑 헤줘라게.(부잣집에 아이고 조 몇 섬씩 하고 보리쌀도 서른 섬 했다, 마흔 섬 했다. 옛날에 할아버지네도 보리쌀 몇 섬씩. 우리 거기 우리 저 할아버지네도 보리 섬 우리 집은 보리가 원체 밭도 좋고, 밭들이 다 사계 밭들이니까 보리 좋으면 맥탁기 하는 사람들이 저 내려와서 기계 맥탁기 하려고 하면 가서 '가와들' 빼어서 우선 자기 거 하려고 모두 하고 해도 맥탁기 임자가 우리 보리 아무 날 그네 두 개 안쳐서 머슴 둘이 해서 홅고 있다고 하면 으레껏 해 달라고 해도 우리 집은 오더라. 보리 큰 두 가리 가리면 머슴 둘 빌려서 하는 사람도 둘이 뒤치는 건 홅은데 빼내는 사람도 둘이 해서 하면 나무 묶는 사람 하면, 그러면 보리 홅아 놓은 것이 참말로 눈만큼 두 개 하지.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이 맥탁기 해서 보리 때리지. 자기네 걸로 알아서 우선 와서 해주더라.)

콩농사

103029 @ 게민 이제 콩 헤보게, 콩, 콩은 어떵 허는 거꽈?(그러면 이제 콩 해봐요, 콩, 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3029 # 콩은이 보리 끗나믄이 보리 끗나민 그냥 콩씨 삐영 갈아. 콩씨 삐영 갈곡 또 야속헌 사름은이 콩 삐영 간 디 콩 고랑에 녹디 ᄒᆞ나씩 문드려이. 녹디 문드려 놔두민 콩도 나곡 녹디도 나믄 녹디 먼저 게민 콩 비기 전이 먼저 뽑으멍 비멍 허영 장만허곡 콩은 말제사 장만허곡 요즘은 녹딘 잘 안 갈아도 콩을 경 하영 갈앙들 몃 섬썩 헷젠 허고 헌다.(콩은 보리 끝나면 보리 끝나면 그냥 콩씨 뿌려서 갈아. 콩씨 뿌려서 갈고 또 야속한 사람은 콩 뿌려서 간 데 콩 고랑에 녹두 하나씩 떨어뜨려. 녹두 떨어뜨려 놔두면 콩도 나고 녹두도 나면 녹두 먼저 그러면 콩 베기 전에 먼저 뽑으면서 베어서 해서 장만하고 콩은 말째야 장만하고 요즘은 녹둔 잘 안 갈아도 콩을 그렇게 많이 갈아서들 몇 섬씩 했다고 하고 한다.)

103030 @ 그럼 콩은 언제 가는 거꽈?(그럼 콩은 언제 가는 겁니까?)

103030 # 콩은 이제 이 보리 끗나믄 조 하는 때영 ᄀᆞ치 ᄀᆞᆯ주게.(콩은 이제 이 보리 끝나면 조 하는 때랑 같이 갈지.)

103030 @ 그럼 이 밧뒨 조 갈곡 이 밧뒨 콩 갈곡 영 허는 거꽈?(그럼 이 밭엔 조 갈고 이 밭엔 콩 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103030 # 감저도 싱글 ᄀᆞ리에 감저 싱그저 그땐 여름엔 콩 갈저, 조 갈저, 감저

싱그저 잘도 바빠.(고구마도 심을 즈음에 고구마 심으랴 그땐 여름엔 콩 갈랴, 조 갈랴, 고구마 심으랴 아주 바빠.)

103031 @ 콩밧뒨 걸름 안 허여?(콩밭엔 거름 안 해?)

103031 # 콩에도 걸름 안 허고 조팟뒨 그자 조가 어떵 안 뒘 직허믄 비료나 흑쏠 주주, 비료도 안 줘낫어.(콩에도 거름 안 하고 조밭엔 그저 조가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면 비료나 조금 주지, 비료도 안 줬었어.)

103032 @ 응, 비료 엇일 땐예. 콩씨는 게난 아까 밧 갈아난 디레 영영 골로 뿌리는 거꽈?(응, 비료 없을 땐요. 콩씨는 그러니까 아까 밭 갈았던 데로 이렇게 이렇게 골로 뿌리는 겁니까?)

103032 # 아니 갈기 전이 콩씨 삐여.(아니 갈기 전에 콩씨 뿌려.)

103032 @ 아, 갈기 전이 삐영 그다음 갈아?(아, 갈기 전에 뿌려서 그다음 갈아?)

103032 # 삐영 그냥 갈아.(뿌려서 그냥 갈아.)

103033 @ 콩밧듸 검질은 어떵 메어?(콩밭에 김은 어떻게 매?)

103033 # 검질은 메여사.(김은 매야.)

103033 @ 멧 번이나 메사?(몇 번이나 매야?)

103033 # 혼 번.(한 번.)

103033 @ 것도 혼 번이면 뒈어?(그것도 한 번이면 돼?)

103033 # 콩 검질은 무조건 팔월 낭 혼 번 멘다.(콩 김은 무조건 팔월 나서 한 번 맨다.)

103033 @ 팔월 낭?(팔월 나서?)

103033 # 조 검질은 두 번 메곡. 산뒤 허믄 산뒤 검질은 세 번 메야.(조 김은 두 번 매고. 밭벼 하면 밭벼 김은 세 번 매야.)

103034 @ 콩밧뒨 어떤 검질이 하영 납니까?(콩밭엔 어떤 김이 많이 납니까?)

103034 # 절완지영 그 복쿨이영 헌 것들 많이 난다게.(바랭이랑 깨풀이랑 한 것들 많이 난다.)

103034 @ 아, 똑ᄀᆞ타 조영? 무신 검질이 젤 메기 궂어?(아, 똑같아 조랑? 무슨 김이 젤 매기 궂어?)

103034 # 절완지가 짓으민[58] 절완지가 메기 궂어. 절완지는 딱 줄 벋으멍 땅 부떤에 절완지렌. 절완지가 메기 궂어.(바랭이가 '짓으민' 바랭이가 매기 궂어. 바랭이는 딱 줄 벋으면서 땅에 붙어서 바랭이라고. 바랭이가 매기 궂어.)

103035 @ 게민 콩 다 익언예. 게민 어떵허여? 콩 어떵 타는 거꽈?(그러면 콩 다 익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콩 어떻게 따는 겁니까?)

103035 # 콩 이젠이 기계로 비어도.(콩 이젠 기계로 베어도.)

103035 @ 옛날에는?(옛날에는?)

103035 # 옛날에는 손으로 콩 비주게.(옛날에는 손으로 콩 베지.)

58) '짓다'는 '나무나 풀 따위가 무성하게 나다'라는 뜻이다.

103035 @ 어떵 헤근에?(어떻게 해서?)

103035 # 손으로 호미로 비어. 비어 놓으민[노민] 이제 그거 메왕인에 기계로도 때리곡 집이 시꺼당 무껑 시꺼당 마당에 놩도 때리곡. ᄒᆞ꼼 헌 거 마당에 놩 때리지. 이제 하도 신식이 뒈난 콩도 기계로 싹 강 비엉 기계서 잘잘 나온다.(손으로 낫으로 베어. 베어 놓으면 이제 그거 메워서 기계로도 때리고 집에 실어다가 묶어서 실어다가 마당에 놔서도 때리고. 조금 한 거 마당에 놔서 때리지. 이제 하도 신식이 되니까 콩도 기계로 싹 가서 베어서 기계에서 좔좔 나온다.)

103035 @ 옛날에, 옛날에 기계 엇일 때 어떵 헤낫수과?(옛날에, 옛날에 기계 없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35 # 기계 엇일 때 콩 거꺼근에.(기계 없을 때 콩 꺾어서.)

103035 @ 콩 먼저 비엉 호미로 비엉 그다음 어떵 헤? 것도 그디서 ᄆᆞᆯ려?(콩 먼저 베서 낫으로 베어서 그다음 어떻게 해? 그것도 거기서 말려?)

103035 # 새 비엉 께 털민 콩낭 이만썩 헤영 무껑 이제 쉐에 시꺼당 집이 놔근에 도께로 ᄯᅳ려. 어야홍어야홍[59] ᄯᅳ렁 우이 다 ᄯᅳ려진 거 털어진 거 닮으민 또 마당에 논 거 뒈싸. 뒈쌍 또 두드려. 콩낭은 콩낭대로 허곡 콩은 또시 ᄇᆞ름 나는 디 강 불리곡. 이젠 얼마나 살기 좋고 농사짓기 좋암시니?(띠 베어서 매끼 틀면 콩대 이만큼씩 해서 묶어서 이제 소에 실어다가 집에 놔서 도리깨로 때려. '어야홍어야홍' 때려서 위에 다 때린 거 떨어진 것 같으면 또 마당에 놓은 거 뒤집어. 뒤집어서 또 두드려. 콩대는 콩대대로 하고 콩은 또 바람 나는 데 가서 불리고. 이젠 얼마나 살기 좋고 농사짓기 좋니?)

103036 @ 게난예. 그럼 콩으론 무신거 무신거 헤 먹는 거꽈?(그러니까요. 그럼 콩으론 무엇 무엇 해 먹는 겁니까?)

103036 # 콩은 무신거 헤 먹느니? 옛날엔이 못사는 사름들은이 조 모인좁쌀이렌 헌 거 이서. 모인좁쌀에 콩 ᄀᆞᆯ아당은에 죽 썽 먹곡. 콩국도 끌렁 먹곡. 경 허주마는 요즘은이 콩으로 음석 별로 헤여 먹지 안허여. 메주나 허곡 그자.(콩은 무엇 해 먹니? 옛날엔 못사는 사람들은 조 메좁쌀이라고 한 거 있어. 차좁쌀에 콩 갈아다가 죽 쑤어서 먹고. 콩국도 끓여서 먹고. 그렇게 하지마는 요즘은 콩으로 음식 별로 해 먹지 않아. 메주나 하고 그저.)

103036 @ 콩ᄂᆞ물도 헹?(콩나물도 해서?)

103036 # 콩ᄂᆞ물들도 이제 놩 ᄑᆞ는 데 시난. 옛날엔 식게허젠 허민 두말들이 시리로 콩 놔근에 드러 물 주멍 헷다근에 콩ᄂᆞ물로 헨. 이젠 제사 돌아와도 콩ᄂᆞ물 사당 먹곡.(콩나물들도 이제 놓아서 파는 데 있으니까. 옛날엔 제사하려고 하면 두 말들이 시루로 콩 놔서 들이 물 주면서 했다가 콩나물로 했어. 이젠 제사 돌아와도 콩나물 사다가 먹고.)

103036 @ 콩ᄀᆞ루는 뭐 헹 먹습니까? 콩ᄀᆞ루 ᄀᆞᆯ민.(콩가루는 뭐 해서 먹습니까? 콩가루 갈면.)

---

59) '어야홍어야홍'은 도리깨로 타작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한 구절이다.

103036 # 콩ᄀᆞ루 헤여근에게 콩국도 끌령 먹곡이 또 죽도 쒕 먹고 죽 쑬 땐 엇은 사름은 모윈좁쌀에 콩ᄀᆞ루 서꺼근에 물 삭삭 뀌어가멍 들이쳥 젓으멍 허영 ᄂᆞ물 썰어놔근에 콩죽 쑤곡 이신 사름은 고운 쏠에 콩ᄀᆞ루에 서꺼근에 물 삭삭 정헤영 들이쳥 허영 또시 ᄂᆞ물 썰어놔근에 죽 쒕 먹곡 기추룩 헤여.(콩가루 해서 콩국도 끓여서 먹고 또 죽도 쑤어서 먹고 죽 쑬 땐 없는 사람은 메좁쌀에 콩가루 섞어서 물 삭삭 끓여가면서 들이뜨려서 저으면서 해서 나물 썰어놔서 콩죽 쑤고 있는 사람은 고운 쌀에 콩가루에 섞어서 물 싹싹 저렇게 해서 들이뜨려서 해서 또 나물 썰어놔서 죽 쑤어서 먹고 그처럼 해.)

103037 @ 그 콩고질, 콩껍데기, 콩대?(그 '콩고질', '콩껍데기', '콩대'?)

103037 # 콩껍데기. 콩깍지엔 허주게. 그건 쉐 멕이고.(콩껍데기. 콩깍지라고 하지. 그건 소 먹이고.)

103037 @ 그다음 낭은?(그다음 줄기는?)

103037 # 낭도 쉐 멕이고.(나무도 소 먹이고.)

103037 @ 낭은 뭐엔 골아?(줄기는 뭐라고 말해?)

103037 # 그냥 콩낭이렌 허주게. 콩낭도 쉐 잘 먹으난게.(그냥 '콩낭'라고 하지. '콩낭'도 소 잘 먹으니까.)

103037 @ 아, 쉐 잘 먹으난 것도 눌엉 놔뒷당 쉐 주고?(아, 소 잘 먹으니까 그것도 가려 놔뒀다가 소 주고?)

103037 # 흔 펜이 데명 놧다근에 부제칩인 한다. 하간 것이 한다.(한 편에 쌓아놨다가 부잣집은 많다. 온갖 것이 많다.)

103037 @ 콩농사 짓는 데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건 엇어?(콩농사 짓는 데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건 없어?)

103037 # 어렵지 안허여. 콩농사 간단헤여. 콩은 갈앙 그자 콩 검질 간단허게 메곡 뭐 두불도 아이 메곡 초벌 메영 내불곡 콩 거꺼근에 ᄆᆞᆯ르민 어져다근에 이제 두드려불민 뒈곡. 이젠 기계 나난 콩 거꺼근에 메와 놓으민[노민] 기계로 뚜려주곡 콩낭이 이만이 나민 기계 디밀앙 확 비멍 두들곡 얼마나 살기들 좋아시니?(어렵지 않아. 콩농사 간단해. 콩은 갈아서 그저 콩 김 간단하게 매고 뭐 두벌도 안 매고 초벌 매서 내버리고 콩 꺾어서 마르면 가져다가 이제 두드려버리면 되고. 이젠 기계 나니까 콩 꺾어서 모아 놓으면 기계로 때려주고 콩대가 이만큼 나면 기계 들이밀어서 확 베면서 두드리고 얼마나 살기들 좋았니?)

103037 @ 옛날에는 경헤도 콩이 ᄒᆞ꼼 편안헌 거? 농사짓는 거 중에서는?(옛날에는 그래도 콩이 조금 편안한 거? 농사짓는 거 중에서는?)

103037 # 응, 콩은 편안헤여. 검질도 경 흔 번만 메곡.(응, 콩은 편안해. 김도 그렇게 한 번만 매고.)

밧벼 농사

103039 @ 그민 이제 산뒤. 산뒤 허젠 허민 먼저 산뒤 허기 전에 미리 준비헤야

뒈는 거 뭐 이수과?(그러면 이제 밭벼. 밭벼 하려고 하면 먼저 밭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103039 # 산뒤 허젠 헹 미리 준비하는 건 엇어. 저 밧 번헹 놧당 산뒤 허젠 허민 검질 나지 못허게 내불민 검질 하영 날 거난 밧을 미리 미리 갈앙 놔뒀다근에 산뒤 허민 검질 하영 아이 낭이. 산뒤 나민 초불 검질 허민 산뒤도.(밭벼 하려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 없어. 저 밭 애벌갈이해서 놨다가 밭벼 하려고 하면 김 나지 못하게 내버리면 김 많이 날 거니까 밭을 미리 미리 갈아서 놔뒀다가 밭벼 하면 김 많이 안 나서. 밭벼 나면 초벌 김 하면 밭벼도.)

103039 @ 아까 무신거 밧 번헹 놔뒷당? 번허는 건 어떤 거?(아까 무엇 밭 '번헹' 놔뒀다가? '번허는' 건 어떤 거?)

103039 # 혼 번 뒈쓰는 거.(한 번 뒤집는 거.)

103039 @ 아, 초불 가는 거구나예?(아, 초벌 가는 거군요?)

103039 # 응, 초불 가는 거.(응, 초벌 가는 거.)

103040 @ 그믄 산뒨 언제 가는 거꽈?(그러면 밭변 언제 가는 겁니까?)

103040 # 산뒤? 산뒨 이제 오월돌에들 가는 거주게.(밭벼? 밭변 이제 오월에들 가는 거지.)

103040 @ 오월달에 보리 비기 전이?(오월에 보리 베기 전에?)

103040 # 응, 비기 전이 갈아근에 산뒤가 막 나.(응, 베기 전에 갈아서 밭벼가 막 나.)

103040 @ 어, 보리 빌 때 뒈민?(어, 보리 벨 때 되면?)

103040 # 경헤근에 보리 막 장만헤 놩 그때 산뒤 검질들 막 메어.(그렇게 해서 보리 막 장만해 놔서 그때 밭벼 김들 막 매.)

103040 @ 산뒤는 어떵 헹 가는 거마씨?(밭벼는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103040 # 산뒤도 그냥 바닥에 삐엉 갈아.(밭벼도 그냥 바닥에 뿌려서 갈아.)

103040 @ 아, 먼저 삐영 그다음엔 쉐로 밧 갈아?(아, 먼저 뿌려서 그다음엔 소로 밭 갈아?)

103040 # 응, 산뒤 간 딘 ᄆᆞ쉐로 불리도 안허곡 그건 마에 허는 거난 마에 나는 거난이. 경헹 그자 산뒤 검질은 세불 메어사 혀.(응, 밭벼 간 덴 마소로 밟지도 않고 그건 장마에 하는 거니까 장마에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저 밭벼 김은 세벌 매어야 해.)

103043 @ 산뒨 세불 메사 뒈여? 검질을?(밭변 세벌 매야 돼? 김을?)

103043 # 응, 산뒤 검질 두불 맬 땐 이디 문딱 ᄂᆞ슬앙 홀타불곡[60] 야게기도 산뒤 이디 문 홀타불곡.(응, 밭벼 김 두벌 맬 땐 여기 모두 날카로워서 '홀타불곡' 목도 밭벼 여기 모두 홅아버리고.)

103043 @ 그거 영 자라면서 산뒤 자라면서?(그거 이렇게 자라면서 밭벼 자라면

60) '홀트다'는 보통 곡식의 이삭 등을 떼어 내기 위하여 홅이의 틈에 끼워 잡아당기는 행위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밭벼 이삭 등이 날카로워서 일하는 사람의 살갗을 스쳐가며 상처를 낸다는 의미이다.

서?)

103043 # 응, 산뒤 영 세와 놓으민[노민] 그걸로 ᄂᆞ슬아 산뒤 그 낭[61].(응, 밭벼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걸로 날카로워 밭벼 그 줄기.)

103044 @ 산뒤 낭 이파리가 ᄂᆞ슬아? 아까 산뒤 씨는 그냥 영영 삐면 뒈는 거예? 그럼 산뒤 밧듸 검질은 어떤 게 하영 납니까?(밭벼 줄기 이파리가 날카로워? 아까 밭벼 씨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요? 그럼 밭벼 밭에 김은 어떤 게 많이 납니까?)

103044 # 산뒤 밧듼 검질이렌 헌 걸 절완지, 복쿨 나오민 초불 메곡, 두불 메여도 또 검질 시민 세불ᄁᆞ지 메여.(밭벼 밭엔 김이라고 한 건 바랭이, 깨풀 나오면 초벌 매고, 두벌 매어도 또 김 있으면 세벌까지 매.)

103044 @ 세불 멜 때도 젤 하영 나는 게 절완지하고 복쿨?(세벌 맬 때도 제일 많이 나는 게 바랭이하고 깨풀?)

103044 # 응, 하나씩 무끄는 것이 커근에 메여불어사주 이녁 밧은이. ᄂᆞᆷ의 밧 보는 사름들은 졸바로 메도 아니헌다. 씨제왕[62] 내불어.(응, 하나씩 묶는 것이 커서 매어버려야지 자기 밭은. 남의 밭 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매지도 않는다. '씨제왕' 내버려.)

103044 @ 검질도 메젠 허민 수눌어 가멍 ᄂᆞᆷ의 밧듸 메주곡 헙니까?(김도 매려고 하면 품앗이 하면서 남의 밭에 매주고 합니까?)

103044 # 응, ᄂᆞᆷ의 밧듸 메어 줭은에.(응, 남의 밭에 매어 줘서.)

103043 @ 경헤사 우리 밧듸도 와서 헤주고? 검질메는 거 ᄒᆞᆫ 번 ᄀᆞᆯ아줍서. 어떵헹 검질멥니까?(그래야 우리 밭에도 와서 해주고? 김매는 거 한 번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김맵니까?)

103043 # 검질메는 거게, 이 밧듸 멧 사름 메겟다 허민 멧 사름 수눌엉 가근에 그 사름네 거 메어줭 멧 사름 수눌엉 또시 사름이 부작허민 다시 메어주켄 헤근에 수눌어근에 강 메어근에 산뒤 검질도 두불 메곡 조컴질도 두불 메곡.(김매는 거, 이 밭에 몇 사람 매겠다 하면 몇 사람 품앗이해서 가서 그 사람네 거 매어주고 몇 사람 품앗이해서 또 사람이 부족하면 다시 매어주겠다고 해서 품앗이해서 가서 매어서 밭벼 김도 두벌 매고 조 김도 두벌 매고.)

103043 @ 검질도 잘 메는 사람 싯곡 못 메는 사람 싯주예?(김도 잘 매는 사람 있고 못 매는 사람 있지요?)

103043 # 그럼, 그럼.(그럼, 그럼.)

103043 @ 어떵헌 사람이 잘 메는 사름이꽈?(어떤 사람이 잘 매는 사람입니까?)

103043 # 아멩헤도 걸싼 사름이 잘 메주.(아무래도 걸싼 사람이 잘 매지.)

103043 @ 걸싼 사름? 그 어떤 게 걸싼 사름?(걸싼 사람? 그 어떤 게 걸싼 사람?)

---

61) '낭'은 나무를 이르는 제주어이지만 밭벼 등의 곡식의 줄기를 말할 때도 '낭'이라고 표현한다.
62) '씨제우다'는 관리를 잘못해서 잡초 등의 씨가 떨어져 무성하게 된다는 뜻이다.

103043 # 잘허는 사름. 나 미칠 사름은 엇어. 강 들어보라.(잘하는 사람. 나 미칠 사람은 없어. 가서 물어봐라.)

103043 @ 검질도 잘 메낫수과?(김도 잘 맸었습니까?)

103043 # 아이구, 쉐로 밧도 갈아낫저.(아이구, 소로 밭도 갈았었어.)

103043 @ 검질멜 때는 영 ᄀᆞ치 영 앉앙 쭐주런히 앉앙 영 메여 가?(김맬 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줄느런히 앉아서 이렇게 매어 가?)

103043 # 꿑작[63] 앚아근에 헷주. 다 ᄒᆞᆫ 고지썩.('꿑작' 앉아서 했지. 다 한 이랑씩.)

103043 @ 굳작 앚아근에 ᄒᆞᆫ 고지썩? 게민 어떤 사름은 저만이 가고 어떤 사름은 막 조름에 떨어질 거 아니꽈예?('굳작' 앉아서 한 이랑씩?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만치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뒤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103043 # 떨어지면 어떵 허느냐게, 헐 수 엇주게.(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지.)

103043 @ 그럼 잘허는 사름은 뭐옌 허고 못허는 사름은 뭐옌 허곡, ᄀᆞᆫ는 말 엇어?(그럼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말하는 말 없어?)

103043 # 잘허는 사름도 못하는 사람네 메여줭 ᄀᆞ치 수눌엉 가는 것이 좋주게. 손메영[64] 가근에 허는 것이 좋아.(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네 매어줘서 같이 품앗이해서 가는 것이 좋지. '손메영' 가서 하는 것이 좋아.)

103043 @ 손메는 건 어떤 거?('손메는' 건 어떤 거?)

103043 # 아니 사름들이 홈치 메왕 강 허는 거지.(아니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서 하는 거지.)

103045 @ 아, 여러 명이. 게민 이제 밧, 산뒤 익언예. 그럼 그것도 비어사 헙니께?(아, 여러 명이. 그러면 이제 밭, 밭벼 익었어요. 그럼 그것도 베어야 하잖아요?)

103045 # 비여사주.(베어야지.)

103045 @ 호미로 영 비영 밧듸서.(호미로 이렇게 베어서 밭에서.)

103045 # ᄆᆞᆯ리와.(말려.)

103045 @ ᄆᆞᆯ리와? 그냥 바닥이?(말려? 그냥 바닥에?)

103045 # 응. 바닥이 그자 비멍 착착 놩은에 ᄆᆞᆯ리민 놔근에 시꺼당 보리 홀트듯이 영 홀타. 홀타근에 또 마당에 놔근에 도께로 ᄀᆞ스락 털어지게 두듬도 허곡 경 아이헌 사름은 또시 ᄆᆞᆯᄀᆞ레에 시꺼당 허는 사름도 싯곡 경혜. 우리 시집은 ᄆᆞᆯ이 하난 산뒤 하영 헹도 ᄆᆞᆯ테우리 강 ᄒᆞᆫ번 와르르르 허민 ᄆᆞᆯ들이 와닥닥와닥닥 ᄇᆞᆯ려. 보리도 경 허영 ᄇᆞᆯ리곡 경 허더라.(응. 바닥에 그저 베면서 착착 놔서 말리면 놔서 실어다가 보리 홅듯 이렇게 홅아. 홅아서 또 마당에 놔서 도리깨로 까끄라기 떨어지게 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또 연자매에 실어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 시집은 말이 많으니까 밭벼 많이 해도 '말테우리' 가서 한번 와르

63) '꿑작'은 '곧게, 바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제주어지만 여기서는 '줄느런히, 나란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굳작'이라고도 한다.

64) '손매다'는 서로 손을 맞잡아 협력하여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르르 하면 말들이 와닥닥와닥닥 밟아. 보리도 그렇게 해서 밟고 그렇게 하더라.)

103045 @ 아, 몰릴 때?(아, 말릴 때?)

103045 # 응, 몰릴 때. ᄀᆞ스락 털어지게.(응, 말릴 때. 까끄라기 떨어지게.)

103045 @ 아, ᄀᆞ스락 털어지게 흔번 영 불라불어? 홀튼 다음에?(아, 까끄라기 떨어지게 한번 이렇게 밟아버려? 홅은 다음에?)

103045 # 홀타난 다음에.(홅은 다음에.)

103045 @ 그 마당에 벳 좋은 날은 무사 멍석 영 꼴앙 날레[65]도 널고 영 헙니께?(그 마당에 볕 좋은 날은 왜 멍석 이렇게 깔아서 '날레'도 널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103045 # 멍석 아이 꼴앙 흑땅에 그냥.(멍석 안 깔아서 흙땅에 그냥.)

103045 @ 흑땅에 그냥?(흙땅에 그냥?)

103045 # 흑땅게 공구리나 다름엇엇주게. 경 허난 그냥.(흙땅 콘크리트나 다름없었지. 그러니까 그냥.)

103046 @ 거기 헤근에 햇빛 난 날은 영 몰리곡예? 경헷당 몰방에 강 찧엉 오곡? 다른 거영 다 비슷비슷헌디 저 산뒨 경헤도 ᄒᆞ꼼 더 여러 번 헤사 헙니까? 곱게 헹 밥헹 멕이젠 허민 멧 번이나 몰방에 그건 헤사 뒈여?(거기 해서 햇볕 난 날은 이렇게 말리고요? 그랬다가 연자매 가서 찧어서 오고? 다른 거랑 다 비슷비슷한데 저 밭변 그래도 조금 더 여러 번 해야 합니까? 곱게 해서 밥해서 먹이려고 하면 몇 번이나 연자매 그건 해야 돼?)

103046 # 산뒤? 산뒤도 그 두불 진 뿐이주, 두불 져. 조도 두불 지곡 다 두불 져도 쏠 나오게 뭔 거난이. 초불 져근에 푼체로 펑 이젠 두불 지주게. 그 가을 곡석은. 조영 이젠 산뒨 허주마는. 보리는 몰ᄀᆞ레서 물 놩은에 지민 몰ᄀᆞ레 물허벅 져다근에 몰ᄀᆞ레서 몰방에 지민 체 나오민 또 그것도 이제 마당에 멍석에 널엉 그 체 몰리민 이제 체 펑 ᄇᆞ름 나민 ᄇᆞ름에 불리나. 기영 안허민 펑 또 그 보리쏠을 바싹 몰려, 몰령 이제 두불 져사 먹주이. 또 이젠 두불 질 땐 또 이젠 물 져다근에 물 ᄒᆞ쏠 놩은에 몰ᄀᆞ레서 또 두불 져.(밭벼? 밭벼도 그 두벌 찧은 뿐이지, 두벌 찧어. 조도 두벌 찧고 다 두벌 찧어도 쌀 나오게 된 거니까. 초벌 찧어서 키로 까불러서 이젠 두벌 찧지. 그 가을 곡식은. 조랑 이젠 밭변 하지마는. 보리는 연자매에서 물 넣어서 찧으면 연자매 물동이 져다가 연자매서 연자매 찧으면 겨 나오면 또 그것도 이제 마당에 멍석에 널어서 그 겨 말리면 이제 겨 까불러서 바람 나면 바람에 불리거나. 그렇게 안하면 까불러서 또 그 보리쌀을 바싹 말려, 말려서 이제 두벌 찧어야 먹지. 또 이젠 두벌 찧을 땐 또 이젠 물 져다가 물 조금 놔서 연자매서 또 두벌 찧어.)

103046 @ 산뒤도 게민 몰ᄀᆞ레서 두불 질 때 물 놔사 뒈여?(밭벼도 그러면 연자매에서 두벌 찧을 때 물 놔야 돼?)

103046 # 아니 산뒤는 ᄆᆞ른 채. 조도 ᄆᆞ른 채.(아니 밭벼는 마른 채. 조도 마른

65) '날레'는 햇볕에 말리려고 멍석에 널어 은 곡식을 이른다.

채.)

103046 @ 아, 게민 보리만 물 놔근에 가는 거꽈? 다른 건 다 ᄆᆞ른 채 허곡?(아, 그러면 보리만 물 넣어서 가는 겁니까? 다른 건 다 마른 채 하고?)

103046 # 조영 산뒤는 ᄆᆞ른 채 허여. 경 허난 보린 물 놔근에 두불도 초불 져놔근에 두불도 물 놩 져도 거칠어. 경 허믄이 ᄀᆞ레서 ᄀᆞᆯ아. 두불 진 것도.(조랑 밭벼는 마른 채 해. 그러니까 보린 물 넣어서 두벌도 초벌 찧어놔서 두벌도 물 넣어서 찧어도 거칠어. 그러면 맷돌에서 갈아. 두벌 찧은 것도.)

103046 @ 거믄 저 산뒤로 식게라도 밥허젠 허민 그냥 ᄆᆞᆯ방에서 졍 두불 지민 밥헤져? 또 ᄀᆞ레에 안 ᄀᆞᆯ아도?(그러면 저 밭벼로 제사라도 밥하려고 하면 그냥 연자매에서 찧어서 두벌 찧으면 밥할 수 있어? 또 맷돌에 안 갈아도?)

103046 # 응, 밥헤여. 산뒤밥 헤여.(응, 밥해. 밭벼밥 해.)

103046 @ 산뒤쌀로 헌 밥은 평상시에 먹는 건 아니잖아예? 식게 때나 먹는 거 아니?(밭벼쌀로 한 밥은 평상시에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 때나 먹는 거 아니?)

103046 # 식게 때나 먹주게. 또 일헐 때 서껑 먹곡.(제사 때나 먹지. 또 일할 때 섞어서 먹고.)

103046 @ 아, 일할 때 서꺼근에. 무신거에 보리에 서껑?(아, 일할 때 섞어서. 무엇에 보리에 섞어서?)

103046 # 보리밥 헐 때에게 우에 서꺼근에 장남들 멕이곡.(보리밥 할 때 위에 섞어서 장정들 먹이고.)

103046 @ 어, 게민 산뒤론 주로 식게 때 밥허는 거 일할 때 밥하는 거 말고 또 무신거 헹 먹읍니까?(어, 그러면 밭벼론 주로 제사 때 밥하는 거 일할 때 밥하는 거 말고 또 무엇 해서 먹습니까?)

103046 # 떡게, 떡도 헹 먹고 산뒤로 떡도 헤여근에 크게 출리는 딘 시리 앚졍 시리떡을 치곡 크게 안 허는 딘 새미[66] 줍으나 송펜을 줍으나 허영 먹고 경 허주게. 크게 출리는 집들은 시리에 쳐근에 곤떡[67]은 시리에 비왕 빗떡[68]으로 비곡 식게 하영 안 출리는 집은 그자 새미 줍앙도 먹곡 기추룩 헤여.(떡, 떡도 해서 먹고 밭벼로 떡도 해서 크게 차리는 덴 시루에 안쳐서 시루떡을 찌고 크게 안 하는 덴 '새미' 접거나 송편을 접거나 해서 먹고 그렇게 하지. 크게 차리는 집들은 시루에 쪄서 '곤떡'은 시루에 비워서 '빗떡'으로 베고 제사 많이 안 차리는 집은 그저 '새미' 접어서도 먹고 그처럼 해.)

103046 @ 빗떡? 빗떡은 뭐?('빗떡'? '빗떡'은 뭐?)

103046 # 빗[69]으로 빈 거. 시리에 쳥 빗으로 빈 거.('빗'으로 벤 거. 시루에 쪄서 '빗'으로 벤 거.)

---

66) '새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집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67) '곤떡'은 '곤떡'은 흰 쌀떡을 말한다.

68) '빗떡'은 떡을 쪄서 가로로 길게 자른 한 덩어리를 '빗'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떡'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빗'으로 자른 떡이라고 할 수 있다.

69) '빗'은 떡을 쪄서 가로로 길게 자른 덩어리나 이를 세는 단위이다.

103047 @ 아, 시리에 청 빗으로 영 잘른 거. 산뒤찝은 무신거 합니까?(아, 시루에 쪄서 '빗'으로 이렇게 자른 거. 밭볏짚은 무엇 합니까?)

103047 # 산뒤찝은 쉐도 멕이곡게, 뭣을 허느냐? 그자 쉐 주장허주게.(밭볏짚은 소도 먹이고, 뭣을 하니? 그저 소 '주장' 하지.)

103047 @ 쉐 주장. 뭐 헐 때 꼴기도 허지 안헤?(소 '주장'. 뭐 할 때 깔기도 하지 않아?)

103047 # 아니.(아니.)

103047 @ 안 꼴아? 그걸로 뭐 신발도 삼아?(안 깔아? 그걸로 뭐 신발도 삼아?)

103047 # 건 나룩찝으로.(그런 볏짚으로.)

103047 @ 건 나룩찝? 산뒤찝은 안 뒈여?(그건 볏짚? 밭볏짚은 안 돼?)

103047 # 산뒤찝 요만썩 헌 거. 나룩찝으로 신 삼아.(밭볏짚 요만씩 한 거. 볏짚으로 신 삼아.)

103047 @ 그럼 산뒤찝은 쓸 데 엇어?(그럼 밭볏짚은 쓸 데 없어?)

103047 # 산뒤찝은 쫄라근에 허지 못허여. 나룩찝으로 신 삼아근에. 나룩찝으로 이제 멕도 줄곡.(밭볏짚은 짧아서 하지 못해. 볏짚으로 신 삼아서. 볏짚으로 이제 멱서리도 겯고.)

103047 @ 게민 산뒤찝은 쉐 멕이는 거뿐 헐 거 없구나예.(그러면 밭볏짚은 소 먹이는 거뿐 할 게 없군요.)

103047 # 쉐 멕이는 거뿐.(소 먹이는 거뿐.)

103047 @ 이거 거민 이것도 고고리나 껍데기 이수게?(이거 그러면 이것도 이삭이나 껍데기 있잖습니까?)

103047 # 체.(겨.)

103047 @ 체 것도 도새기 줘?(겨도 그것도 돼지 줘?)

103047 # 도새기 주고.(돼지 주고.)

103047 @ 거난 주로 체는 도새기 주고 낭은 쉐 주고.(그러니까 주로 겨는 돼지 두고 줄기는 소 주고.)

103047 # 산뒤.(밭벼.)

103047 @ 산뒤도 경 허고 콩도 경 허곡?(밭벼도 그렇게 하고 콩도 그렇게 하고?)

103047 # 나룩도 체 쉐 주곡 나룩낭은 또시 멕 줃곡.(벼도 겨 소 주고 볏짚은 또 멱서리 겯고.)

103047 @ 나룩 말고 이제 산뒤, 산뒤는?(벼 말고 이제 밭벼, 밭벼는?)

103047 # 산뒤낭는 멕도 못 줄아. 나룩찝은 헷다근에 멕 이쁘게 줃는 사람 싯곡 멍석도 줃곡 신도 삼곡.(밭볏짚은 멱서리도 못 결어. 볏짚은 했다가 멱서리 이쁘게 겯는 사람 있고 멍석도 겯고 신도 삼고.)

103047 @ 아, 나룩은. 이디도 나룩 헤낫수과?(아, 벼는. 여기도 벼 했었습니까?)

103047 # 나룩 헷주게. 논덜 이선.(벼 했지. 논들 있어서.)

103047 @ 아, 이디도 논 잇구나예? 아, 요디 보성드레?(아, 여기도 논 있군요? 아, 요기 보성으로?)

103047 # 아니, 산뒤들 막 난에 허연 밧듸들 다 나룩덜 겁나게덜 헤 먹어낫어.(아니, 밭벼들 막 나서 해서 밭에들 다 벼들 겁나게들 해 먹었었어.)

고구마 농사

103049 @ 그럼 이제 감저 헤보게예, 감저.(그럼 이제 고구마 해봐요, 고구마.)

103049 # 고구마? 고구마 메 놧당 감저에 갈 때엔 탕은에 집이 놧당 봄 나민 이제 감저에 가근에 우영에 묻엉 놔두주게. 묻어 놔두민 줄 나민, 줄은 이제 질게 나민, 이만큼씩 끄창 가민 밧 갈멍 톡톡 싱그주게. 싱경 놔두민 이제 감저 들민 그 줄거뒁 비어둬근에 감저 손으로 파고게.(고구마? 고구마 모 놨다가 고구마에 갈 땐 따서 집에 놨다가 봄 나면 이제 고구마에 가서 텃밭에 묻어서 놔두지. 묻어서 놔두면 기는줄기 나면, 기는줄기를 이제 길게 나면, 이만큼씩 잘라서 가면 밭 갈면서 톡톡 심지. 심어서 놔두면 이제 고구마 들면 그 기는줄기 걷어서 베어두고 고구마 손으로 파고.)

103049 @ 게난 감저 허젠 허민 미리 준비헤 놔둬야 뒈쿠다예. 어떵해?(그러니까 고구마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 놔둬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

103049 # 게. 감저씨 놔두젠 허민 이젠 감저씨 신식 나난 육지 강 사당 허곡 웨방 강 사단 헷주이. 옛날엔 감저 파다근에 우영에 구뎅이 파. 구뎅이 팡 보릿대 영 사방에 세와. 감저씨 이제 그디 ᄋᆞ져다근에 비우주게. 비와근에 이젠 헹 나뒷다근에 봄 나가민 그 감저 내여근에 이제 우영에 묻엉 놔두민 줄 나주게. 줄 나민 이제 비어, 요만썩.(그렇지. 씨고구마 놔두려고 하면 이젠 씨고구마 신식 나니까 육지 가서 사다가 하고 외방 가서 사다가 했지. 옛날엔 고구마 파다가 텃밭에 구덩이 파. 구덩이 파서 보릿대 이렇게 사방에 세워. 씨고구마 이제 거기 가져다가 붓지. 부어서 이젠 해서 놔뒀다가 봄 나가면 그 고구마 내서 이제 텃밭에 묻어서 놔두면 기는줄기 나지. 기는줄기 나면 이제 베어, 요만큼씩.)

103049 @ 줄만 비어?(기는줄기만 베어?)

103049 # 줄만 비어근에 밧듸 가민 줄을 싱그는 거라, 싱그민 감저 터.(기는줄기만 베어서 밭에 가면 기는줄기를 심는 거야, 심으면 고구마 터.)

103050 @ 감전 게난 언제 싱그는 거꽈? 줄 언제 강 밧듸 강 심읍니까? 줄 요멘씩 쫄랑헌 거.(고구만 그러니까 언제 심는 겁니까? 기는줄기를 언제 가서 밭에 가서 심습니까? 기는줄기 요만큼씩 자른 거.)

103050 # 감전 멀지 안헹 가을쯤 팔 때 뒛주게. 파게 뒛어.(고구만 멀지 않아서 가을쯤 팔 때 됐지. 파게 됐어.)

103050 @ 싱그는 건 언제 싱그는 거라?(심는 건 언제 심는 거야?)

103050 # 싱그는 거 봄 감저 내논다게.(심는 거는 봄 고구마 내놓는다.)

103051 @ 아, 감저 메는 봄에 놓는 거구나예. 감저 밧듸도 걸름 헙니까?(아, 감

자 모는 봄에 놓는 거군요. 고구마 밭에도 거름 합니까?)

103051 # 감저 싱그젠 허민 비료 줘사주게.(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비료 줘야지.)

103051 @ 비료 안 날 때.(비료 안 날 때.)

103051 # 비료 옛날에 안 쓸 땐 감저 졸바로 들어시냐게?(비료 옛날에 안 쓸 땐 고구마 제대로 들었니?)

103051 @ 따로 걸름 주는 거 없구나예?(따로 거름 주는 거 없군요?)

103051 # 엇어낫어. 그냥 보리 그르에 갈아근에 감저 싱그민 감저 무시거 줄거리만 준준헷는디 이젠 신식 비료 다락 주민 감저 이만썩한 감저영. 우리 뚤네 감저 하영 싱건.(없었었어. 그냥 보리 그루에 갈아서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무엇 줄기만 자잘했는데 이젠 신식 비료 '다락' 주면 고구마 이만큼씩한 고구마랑. 우리 딸네 고구마 많이 심었어.)

103052 @ 게민 감전 아까 감저줄 싱그민 그디 영 밑에 영 나는 거구나예?(그러면 고구만 아까 고구마줄기 심으면 거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는 거군요?)

103052 # 감저 영 싱경 놔두민 줄로 감저 들어, 줄로이. 감저 들민 이젠 또 그 줄을 걷주게. 거둬불어 둬근에 또 쉐로 이젠 기계로 갈주게. 기계로 갈민 감저 나오주게.(고구마 이렇게 심어서 놔두면 줄기로 고구마 들어, 줄기로. 고구마 들면 이젠 또 그 줄기를 걷지. 걷어버려 두고 또 소로 이젠 기계로 갈지. 기계로 갈면 고구마 나오지.)

103052 @ 옛날에는 어떵 헷수과?(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52 # 줄 거둬근에 쉐로 갈앗주게. 쉐로 갈곡 ᄒᆞ쏠썩 헌 건 손으로 파곡. 요즘 밧 감저들 서뭇 열 말지기영 무신 스무 말지기영 헌 사름들 손으로 파느냐? 줄 거둬근에 다 기계로 잘잘잘 갈민 조름에들 예펜들 막 줏어 놓으민[노민] 선별허는 사름들이 준 거 허는 사람, 굵은 거 허는 사름 선별허영 탁탁 팔곡 나쁜 거 ᄆᆞᆫ 그 차진 건 공장더레 시끄곡.(줄 걷어서 소로 갈았지. 소로 갈고 조금씩 한 건 손으로 파고. 요즘 밭 고구마들 사뭇 열 마지기랑 무슨 스무 마지기랑 한 사람들 손으로 파니? 줄기 걷어두고 다 기계로 잘잘잘 갈면 뒤에들 여편네들 막 주워 놓으면 선별하는 사람들이 잔 거 하는 사람, 굵은 거 하는 사람 선별해서 탁탁 팔고 나쁜 거 모두 잘라진 건 공장으로 싣고.)

103052 @ 옛날엔 줄 먼저 다 거둰 그다음 쉐가 갈아? 쉐가 갈민 줏어근에 영 감자 담앙 오는 거?(옛날엔 줄 먼저 다 걷어서 그다음 소가 갈아? 소가 갈면 주워서 이렇게 고구마 담아서 오는 거?)

103052 # 쉐가 밧 가운디로 갈민 헤싸지민 예펜들이 앚아근에 그 줏으멍 놓으민[노민].(소가 밭 가운데로 갈면 갈라지면 여편네들이 앉아서 그 주우면서 놓으면.)

103053 @ 게민 감저 밧듸도 검질메사 헐 거 아니꽈예?(그러면 고구마 밭에도 김매야 할 거 아닙니까요?)

103053 # 메여. 감저 밧듸도 메어.(매, 고구마 밭에도 매.)

103053 @ 그딘 멧 번 헤여?(거긴 몇 번 해?)

103053 # 흔 번게.(한 번.)

103054 @ 아, 흔 번만 메민 뒈어? 감저 밧듸도 나는 검질은 절완지?(아, 한 번만 매면 돼? 고구마 밭에도 나는 김은 바랭이?)

103054 # 절완지도 나고 잡검질도 나.(바랭이도 나고 잡초도 나.)

103054 @ 잡검질은 뭐 이수과?(잡초는 뭐 있습니까?)

103054 # 복쿨영 뭐 허드랑헌 거 하영 나.(깨풀이랑 뭐 자질구레한 거 많이 나.)

103054 @ 아까 복쿨이영 또 절완지 복쿨 말곤 또 엇어?(아까 깨풀이랑 또 바랭이, 깨풀 말곤 또 없어?)

103054 # 쉐비늠도 나곡 여러 가지 나. 하도 비료만 쓰는 따문 검질 종류가 하.(쇠비름도 나고 여러 가지 나. 하도 비료만 쓰는 때문 김 종류가 많아.)

103056 @ 게믄 감저 눌 헤근에 나뒷다근에 팡도 먹고 허는 거꽈?(그러면 고구마 가리 해서 놔뒀다가 파서도 먹고 하는 겁니까?)

103056 # 이젠 감저 눌 허영 허지 안허여.(이젠 고구마 가리 해서 하지 않아.)

103056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3056 # 옛날엔 감저 우영에 구뎅이 팡 보릿대 영 문 헹 세완 그레 헤영 눌르멍 멜싹헷당[70] 겨울에 먹음도 허곡 봄 나믄 또시 그 감저 파내근에 또시 우영에 묻으주게. 줄 나믄 그 줄 나주마는 요즘은 이런 온돌방들 하난 박스에 담주게. 박스에 담으민 온돌방이영 더운 디 흔 멧 개 착착 놔두민 안 썩어, 안 썩어. 옛날엔 우리 어린 땐 그 구들에 이제 무시거 벡장이렌 헌 거 이섯어. 이불 놓는 벡장. 그 벡장에 찝가멩이로 담앗다근에 찝가멩이 채 다 세우주게. 구들 두 개민 흔착 구들 허민 세 왕인에 그리 이제 사발에 물 거령 찝가멩이에 감저 논 디 톡톡 놩 놔둬. 그 감저가 뿔아 먹는지 물 굴어. 경 허다근에 봄 나민 그 감저 이제 허는디 요즘은 박스에 담아, 박스에 담아근에 이런 온돌방 저런 구석에 즈근즈근 데명 나둬 봄 나도록 먹어도 썩도 안헤. 안 썩어.(옛날엔 고구마 텃밭에 구덩이 파서 보릿대 이렇게 모두 해서 세워서 그리 해서 누르면서 '멜싹헷당' 겨울에 먹기도 하고 봄 나면 또 그 고구마 파내어서 또 텃밭에 묻지. 줄기 나면 그 줄기 나지마는 요즘은 이런 온돌방들 많으니까 박스에 담지. 박스에 담으면 온돌방이랑 더운 데 한 몇 개 착착 놔두면 안 썩어, 안 썩어. 옛날엔 우리 어린 땐 그 방에 이제 무엇 벽장이라고 한 거 있었어. 이불 놓는 벽장. 그 벽장에 짚 가마니로 담았다가 짚 가마니 채 다 세우지. 방 두 개면 한쪽 방 하면 세워서 그리 이제 사발에 물 떠서 짚 가마니에 고구마 놓은 데 톡톡 놔서 놔둬. 그 고구마가 빨아 먹는지 물 줄어. 그러다가 봄 나면 그 고구마 이제 하는데 요즘은 박스에 담아, 박스에 담아서 이런 온돌방 저런 구석에 차근차근 쌓아서 놔두고 봄 나도록 먹어도 썩지도 않아. 안 썩어.)

103056 @ 안 썩어? 썩던데 나는.(안 썩어? 썩던데 나는.)

103056 # 안 썩어근에 경 허믄 먹당 남은 건 허주게.(안 썩어서 그러면 먹다 남은 건 하지.)

---

70) '멜싹ᄒᆞ다'는 짜인 물건이 아주 망그러져 납죽하게 되다.

103057 @ 감저뻿데기는 어떵 헹 허는 거꽈?(절간고구마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3057 # 감저뻿데기는 옛날엔 기계로 썰엇주게. 기계로 썰엇인디 요즘은 감저뻿데기 안 허여. 옛날엔 이디서 대정골서 감저뻿데기 헐 때 한 사름이 이백 개 헷저, 삼백 개 헷저, 경헌디.(절간고구마는 옛날엔 기계로 썰었지. 기계로 썰었는데 요즘은 절간고구마 안 해. 옛날엔 여기서 대정골에서 절간고구마 할 때 한 사람이 이백 개 했다, 삼백 개 했다, 그렇게 했는데.)

103057 @ 가마니로? 마다리로?(가마니로? 마대로?)

103057 @ 가마니로.(가마니로.)

103057 @ 가마니로 이백 개, 삼백 개?(가마니로 이백 개, 삼백 개?)

103057 @ 응, 이백 개, 삼백 개 헐 땐디 우린이 밧듸 잔뜩 가마니로 담아오라근에 대정골 오라근에 저울이민 ᄀᆞᆯ라. 이 대정골 보리도 덕수 밧듸 보리허영 ᄒᆞᆫ 말쯤은 더 놔사 근이 나가곡 이디 건 ᄒᆞᆫ 말을 덜 놔사 근이 뒈어.(응, 이백 개, 삼백 개 할 땐데 우린 밭에 가득 가마니로 담아와서 대정골 와서 재면 줄어. 이 대정골 보리도 덕수 밭에 보리해서 한 말쯤은 더 놔야 근이 나가고 여기 건 한 말을 덜 놔야 근이 돼.)

103057 @ 땅이 이디가 더 좋안예?(땅이 여기가 좋아서요?)

103057 # 응, 고구마도 경헷어. 덕숫밧듸 고구만이 그 가마니에 놔근에 우이 막 부수와근에 이빠이 담아사 제 근수 나가곡 이디에 가마니 주둥이에 오그리게 뒈여. 이 대정골 건 근이 나가.(응, 고구마도 그랬어. 덕수 밭의 고구만 그 가마니에 넣어서 위에 막 부수어서 가득 담아야 제 근수 나가고 여기 가마니 주둥이에 오그리게 돼. 이 대정골 건 근이 나가.)

103057 @ 그럼 밧듸서 옛날엔 뻿데기 만들엇수과?(그럼 밭에서 옛날엔 절간고구마 만들었습니까?)

103057 # 아고, 뻿데기덜 이백 개, 삼백 개.(이고, 절간고구마들 이백 개, 삼백 개.)

103057 @ 그거 어떵 헹 멘드는 거꽈? 기계에?(그거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기계에?)

103057 # 기계로 썰엉.(기계로 썰어서.)

103057 @ 기계로 썰엉 밧듸서 ᄆᆞᆯ려?(기계로 썰어서 밭에서 말려?)

103057 # 감저 이젠 파주. 파민 이제 메와 놓으민[노민] 기계 어져다근에 막 썰주게. 썰민 그 감저 썬 건 ᄀᆞᆯ체에 담아다근에 주민 착착 뿌리주게. 그 밧에 전시 널어.(고구마 이젠 파지. 파면 이제 모아 놓으면 기계 가져다가 막 썰지. 썰면 그 고구마 썬 건 삼태기에 담아다가 주면 착착 뿌리지. 그 밭에 전체 널어.)

103057 @ 아, 밧듸. 뭐 ᄭᆞᆯ앙? 바닥에 뭐 ᄭᆞᆯ아?(아, 밭에. 뭐 깔아서? 바닥에 뭐 깔아?)

103057 # 아니 ᄭᆞᆯ아. 흑바닥에 다 ᄭᆞᆯ아근에 이제 허대경 뇌두민 이젠 ᄆᆞᆯ름만 허

민 들여야주게. 잘못 들인 건 썩음도 허민 깝도 아이 주고이.(안 깔아. 흙바닥에 다 깔아서 이제 섞어 놔두면 이젠 마르기만 하면 들여야지. 잘못 들인 건 썩기도 하면 값도 안 주고.)

103057 @ 비 와불민 큰일 나쿠다예.(비 와버리면 큰일 나겠습니다.)

103057 # 썩지 아니혀사 깝도 잘 받곡. 경 허여.(썩지 않아야 값도 잘 받고, 그렇게 해.)

103057 @ 옛날엔 그것도 공출헹 가난?(옛날엔 그것도 공출해서 갔어?)

103057 # 공출은 아니허곡 그거 허연 돈 벌엇주게.(공출은 않고 그거 해서 돈 벌었지.)

103057 @ 전분 공장?(전분 공장?)

103057 # 전분 공장 헹 그건 또시 감저 썰 나우 엇은 거 전분 공장에 지금도 전분 공장에 들여. 감저 막 끄차진 것덜 이제 흔착 끄차진 거, 준 거 ᄀᆞ튼 건 사가지 아니허는 따문 그건 큰 마다리에 담으민 전분 공장에 다 시꺼가.(전분 공장 해서 그건 또 고구만 썰 나위 없는 거 전분 공장에 지금도 전분 공장에 들여. 고구마 막 잘라진 것들 이제 한쪽 잘라진 거, 잔 거 같은 건 사가지 않는 때문 그건 큰 마대에 담으면 전분 공장에 다 실어가.)

103056 @ 파치를 전분 공장에 보내는 거구나예?(파치를 전분 공장에 보내는 거군요?)

103057 # 파치도 응, 막 끄차진 것덜 홁은 감저도 반썩 끄차지고 허민. ᄀᆞ진 건 풀곡.(파치도 응, 막 잘라진 것들 굵은 고구마도 반씩 잘라지고 하면, 온전한 건 팔고.)

103057 @ 뻿데긴 헷당 뭐 허는 거꽈?(절간고구마는 했다가 뭐 하는 겁니까?)

103057 # 이젠 뻿데기도 안 헤여.(이젠 절간고구마도 안 해.)

103057 @ 게난. 옛날엔 뻿데기 경 하영 헹 뭐 허는 거?(그러니까. 옛날엔 절간고구마 그렇게 많이 해서 뭐 하는 거?)

103057 # 뻿데기 허난에 공출헤시녜게.(절간고구마 하니까 공출했잖아.)

103057 @ 공출?(공출?)

103057 # 응, 누게네 집에 멧 백 개 헷저, 누게네 집에 멧 백 개 헷저 허멍 게난 이 대정골 보성 사름들은 뻿데기 이백 개 헷저, 삼백 개 헷저. 우리도 백 개 허는디이 덕숫밧듸 거 근이 안 나가라게. 이디 밧듸 거영 오랑 허여 보민 골체로 반썩은 더 놔사. 덕수렌이 흑이 죽으난이 메다가 안 나가. 보리도 그래, 보리도.(응, 누구네 집에 몇 백 개 했다, 누구네 집에 몇 백 개 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정골 보성 사람들은 절간고구마 이백 개 했다, 삼백 개 했다. 우리도 백 개 하는데 덕수 밭에 거 근이 안 나가더라. 여기 밭에 거랑 와서 해 보면 삼태기로 반씩은 더 놔야. 덕수쪽엔 흙이 죽으니까 미터가 안 나가. 보리도 그래, 보리도.)

103057 @ 감젓눌 헷다근에 그걸로 다음에 씨고구마 허는 거지예? 씨감저예? 씨감저가 그거 놔두는 거?(고구마 가리 했다가 그걸로 다음에 씨고구마 하는 거지요?

씨고구마요? 씨고구마가 그거 놔두는 거?)

103057 # 씨감저 이젠 구뎅이 팡 묻지 안허여. 방안에 놧당.(씨고구마 이젠 구덩이 파서 묻지 않아, 방안에 놨다가.)

103057 @ 옛날엔 구뎅이 팡 묻어놧던 거예?(옛날엔 구덩이 파서 묻어놨던 거요?)

103057 # 다 이제 구들이 서너 개씩 헤근에 시민 박스로 멧 개 톡톡 헹 놔두민 게.(다 이제 방이 서너 개씩 해서 있으면 박스로 몇 개 톡톡 해서 놔두면.)

103058 @ 고구마 그 줄기는 감저줄은 뭐 허는 거마씨?(고구마 그 줄기는 고구마줄기는 뭐 하는 거예요?)

103058 # 감저줄은 옛날엔 쉐 먹엇주마는 요즘은 감저줄 손으로 것도 아니허곡 경운기로 뚠딱 부수멍 부솨불어. 기계로 다 썰어불어. 썰어불민 다음엔 이제 그 이파리 더러 시든 거 닮으민 뒷날부터 경운기로 달달달 다 갈아가민 감저 나오민 사름들이 감저 다 줏어 놩은에.(고구마줄기는 옛날엔 소 먹었지마는 요즘은 고구마줄기 손으로 그것도 않고 경운기로 모두 부수면서 부숴버려. 기계로 다 썰어버려. 썰어버리면 다음엔 이제 그 이파리 더러 시든 거 같으면 뒷날부터 경운기로 달달달 다 갈아가면 고구마 나오면 사람들이 고구마 다 주워 놔서.)

103058 @ 옛날엔 감자줄 뭐 헤낫수과?(옛날엔 고구마줄기로 뭐 했었습니까?)

103058 # 옛날엔 손으로 거둬근에 쉐 멕여시네게. 쉐 멕여.(옛날엔 손으로 거둬서 소 먹였잖아. 소 먹여.)

103058 @ 응, 쉐 멕영. 주로 감저줄은 쉐 멕이는 걸로만 써? 다른 거 쓰는 건 엇어?(응, 소 먹여서. 주로 고구마줄기는 소 먹이는 걸로만 써? 다른 거 쓰는 건 없어?)

103058 # 다른 건 엇어난.(다른 건 없었어.)

103059 @ 감저 허멍 특별히 힘들거나 기억나는 일은 엇수과?(고구마 하면서 특별히 힘들거나 기억나는 일은 없습니까?)

103059 # 기억나는 건 엇곡 나가 우리 시집이 경 그추룩 시어멍네영 살단에 시어멍 죽어불고 허난에 이제 그 밧 이제 덕숫밧듸 열두 말지기에 반은 조허곡 반은 이제 감저 싱그난에 이제 수눌엉 그거 판에 ᄒᆞ루 이제 막 메와놩 기계로 그땐 반에 기계 하나 나완. 그 반에 하나 나오민 순번 이서사 할 거게.(기억나는 건 없고 내가 우리 시집이 그렇게 그처럼 시어머니네랑 살다가 시어머니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그 밭 이제 덕수 밭에 열두 마지기에 반은 조하고 반은 이제 고구마 심으니까 이제 품앗이해서 그거 파서 하루 이제 막 모아 놔서 기계로 그땐 반에 기계 하나 나왔어. 그 반에 하나 나오면 순번 있어야 할 거.)

103059 @ 응.(응.)

103059 # 경헹 이제 ○○이 어멍 빌언에 파난에 이제 또 지네 거 허여 도렌 허곡 허여가난에 재게 그거 썰진 못허게 뒈연. ○○이 어멍네 건 강 ᄒᆞ루 허여뒨에 기곌 맞추난 이제 저냑 썰어사주, 이제 저냑 안 썰민 순번으로 저 다른 사름 가민

저 대정골 지경 서들[71]이렌 헌 디 가민 흔 사흘 셔사 온덴 허난, 아이고 게민 어떵허리 허연이 우리 셋년ᄀᆞ라 감절 막 메와 노렌 헹 나뒷주게. 우린 일허러 뎅기멍 메와 노렌 헹 나두난 메와 놔선게. 밤인 이제 우리 큰년은 나신듸레 들러다 놓렌 허곡 셋년은 또시 ᄀᆞᆯ체레 담아주곡 허연 그 밧듸 썰어시네. 썰언에 이젠 이틀 시난에 비가 오게 뒈여.(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빌려서 파니까 이제 또 자기네 거 해 달라고 하고 해가니까 재게 그거 썰진 못하게 됐어. ○○이 어머니네 건 가서 하루 해두고 기계를 맞추니까 이제 저녁 썰어야지, 이제 저녁 안 썰면 순번으로 저 다른 사람 가면 저 대정골 지경 '서들'이라고 한 데 가면 한 사흘 있어야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리 해서 우리 둘째딸보고 고구말 막 모아 놓으라고 해서 놔뒀지. 우린 일하러 다니면서 모아 놓으라고 해서 놔두니까 모아 놨더라. 밤엔 이제 우리 큰딸이 나에게 들어다 놓으라고 하고 둘째딸은 또 삼태기에 담아주고 해서 그 밭에서 썰었어. 썰어서 이젠 이틀 있으니까 비가 오게 돼.)

103059 @ 아이고.(아이고.)

103059 # 이틀 시난 비가 오게 뒈난 아이고 비 오면 어떵허리, 이거 썩으민 어떵허리 헨게 그자 그걸 그자 이틀 시들시들허난 이틀 뒌 날은 삼일 시민 비 온덴 허난 그거 뚜껍게 썰곡 헌 건디 그거 나 문짝이 담아당이 마당에 널어시네. 마당에 너난 술내가 나라, 술 냄새가. 그 썩은 냄새 술내가 팡팡 나도이 마당에 널어근에 이레 널엉 뒈쌋닥 저레 뒈쌋닥 허멍이 옆이 피죽은이 ᄐᆞ루 허고이 너풀너풀 감저 잘뒈난 홁은 거 지깍허난에 이젠 공판 이젠 사게, 이젠 폴게 뒌 거 아니?(이틀 있으니까 비가 오게 되니까 아이고 비 오면 어찌하리, 이거 썩으면 어찌하리 해서 그저 그걸 그저 이틀 시들시들하니까 이틀 된 날은 삼일 있으면 비 온다고 하니까 그거 두껍게 썰고 한 건데 그거 나 말끔히 담아다가 마당에 널었어. 마당에 너니까 술내가 나더라, 술 냄새가. 그 썩은 냄새 술내가 팡팡 나도 마당에 널어서 이리 널어서 뒤집었다가 저리 뒤집었다가 하면서 옆에 피죽은 따로 하고 너풀너풀 고구마 잘 되니까 굵은 거 가득하니까 이젠 공판 이젠 사게, 이젠 팔게 된 거 아니?)

103059 @ 응.(응.)

103059 # 폴게 뒈난 저 서부락 상사 저 끝에 시껑 가렌 허민 쉐구루마도 엇곡 허난에 이젠 놈의 구루마 빌언에 시껑가젠 허난 시껑가난에 서부락 상사 신 디 강 보난 질르레 밋밋 사름들 막 ᄉᆞ뭇 하영 헌 사름들이난 우린 저 도루묵[72]더레 새동네[73]ᄁᆞ지 가사 그걸 놈의 구루마에 빌언 시껑강 푸게 뒈연. 푸게 뒈연 이제 간디 아니 가난에 이제 나도 이젠 그디 가고 헌디 강 보난에 대정골 우리 어머니 육촌이 아덜이 감저 공판허는 디 서기로 간게, 아덜이.(팔게 되니까 저 서부락 향사 저 끝에 실어서 가라고 하면 소달구지도 없고 하니까 이젠 남의 달구지 빌려서 실어가려고 하니까 실어가니까 서부락 향사 있는 데 가 보니까 길에 '밋밋' 사람들 막 사뭇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우린 저 '도루묵'으로 '새동네'까지 가야 그걸 남의 달구지에

71) '서들'은 대정읍 지역의 지명이다.
72) '도루묵'은 대정읍의 한 지명이다.
73) '새동네'는 대정읍의 한 지명이다.

빌려서 실어가서 푸게 되었어. 푸게 되니까 이젠 갔는데 아니 가니까 이제 나도 이젠 거기 가고 한데 가서 보니까 대정골 우리 어머니 육촌 아들이 고구마 공판하는데 서기로 갔어, 아들이.)

103059 @ 응.(응.)

103059 # 서기로 가난에 나 이제 그디 저울 잇는 거 보젠이 저울 떠놔근에 탁 저울이는 디 보곡 검사허는 거 보젠 들어가난에 그 서기 헌 아이가, 아이고 누님도 감저 허젠 옵디강 허난, 어 감저 하진 아니허다마는 시꺼오란 저디 잇저. 경 허난 놔둡서 이 저울 신 근방에 다 자리 비우민 저울이 영 들어가 나민 이레 어져옵서 허난 나가 그거 어떵 그걸 져오느니?(서기로 가니까 나 이제 거기 저울 있는 거 보려고 저울 떠놓고 탁 재는 데 보고 검사하는 거 보려고 들어가니까 그 서기 한 아이가, 아이고 누님도 고구마 하려고 오셨어요 하니까, 어 고구마 많진 않다마는 실어와서 저기 있어. 그러니까 놔두세요. 이 저울 있는 근방에 다 자리 비면 저울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리 가져오세요 하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그걸 져오니?)

103059 @ 응.(응.)

103059 # 경 허난이 그 서기가 놔뒷당 이레 자리헙센 허난이 사름들 잘도 고마와. ○○이넨 하나 어져다주지도 안헤라. 서부락 사름들이 그 말 들엇덴 화닥탁화닥탁 그디 간 메여당 탁탁 놔 줘라게. 경 허난 감저피죽[74]은 옆이 건이 뚜로 허곡 너풀너풀허게 썩어도 썩은 거 몰라. 헉 부떠부난이. 썩은 거 몰르고 놈들은 밧듸서 난 거 푸린 곰펭이, 흰 곰펭이, 붉은 곰펭이 헤도 난 감저가 헉이 부떠부난 곰펭일 못 봐. 경헌디 피죽으로 헌 거난 담앙 갓주게.(그러니까 그 서기가 놔뒀다가 이리 자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 아주 고마워. ○○이네는 하나 가져다주지도 않더라. 서부락 사람들이 그 말 들었다고 화닥탁화닥탁 거기 가서 매어다가 탁탁 놔 주더라. 그러니까 '감저피죽'은 옆의 건 따로 하고 너풀너풀하게 썩어도 썩은 거 몰라. 흙 붙어버리니까. 썩은 거 모르고 남들은 밭에서 난 거 파란 곰팡이, 흰 곰팡이, 붉은 곰팡이 해도 난 고구마가 흙이 붙어버리니까 곰팡일 못 봐. 그런데 '피죽'으로 한 거니까 담아서 갔지.)

103059 @ 피죽은 무신거?('피죽'은 무엇?)

103059 # 피죽이렌 헌 건 옆이 껍데기. 껍데긴 ᄐᆞ루 ᄀᆞᆯ려. ᄐᆞ루 ᄀᆞᆯ련 이건 피죽, 이건 이거우덴 허난 이제 그 이거 검사하는 사름ᄀᆞ라 아이고 나가 이거 나 혼자 살멍 밤인 기계도 엇언 밤이 기계로 빌언 썰곡 허난에 나 혼자 ᄉᆞ뭇 기가 막히게 헌 거난 양님[75] 멧 개 줍센 헷주게.('피죽'이라고 한 건 옆의 껍데기. 껍데긴 따로 골라. 따로 골라서 이건 '피죽' 이건 이것입니다 하니까 이제 그 이거 검사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나 혼자 살면서 밤엔 기계도 없어서 밤에 기계로 빌려서 썰고 하니까 나 혼자 사뭇 기가 막히게 한 거니까 '양님' 몇 개 달라고 했지.)

103059 @ 양님이 뭐?('양님'이 뭐?)

---

74) '감저피죽'은 고구마의 껍질을 말한다.

75) '양님'은 생각해서 조금 더 주는 것이라고 제보자가 설명하고 있다.

103059 # ᄒᆞᄊᆞᆯ 생각혜 도렌 헌 말로. 양님 이거 멧 개 줍서게 허난이 그 사름은 탁탁 검사만 헹 가곡 도장 찍는 사름이 또 이서. 것도 육지놈 ᄒᆞ나는. 저 양반 보고 ᄀᆞᆯ으시오 헤라게. 경 허난 그 사름은 아, 나가 이만저만헹 혼자 사는 사름인디 애기들이영 밤에 간에 썰언 이거 기가 막히게 헌 거 요건 나쁜 거고 요건 좋은 거우덴 허난 헉 부떠부난 곰펭이 핀 거 못 봐. 거멍헤부난이. 맨날 널엇다 뒈쌋다 헤근에 ᄆᆞᆯ리기도 잘 ᄆᆞᆯ렷젠 허고 허연 양님 주렌 허난이 스물다섯 개 일등으로 줘라게. 스물다섯 마다리.(조금 생각해 달라고 한 말로. ‘양님’ 이거 몇 개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은 탁탁 검사만 해서 가고 도장 찍는 사람이 또 있어. 그것도 육지놈 하나는. 저 양반 보고 말하시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내가 이만저만해서 혼자 사는 사람인데 아기들이랑 밤에 가서 썰어서 이거 기가 막히게 한 거 요건 나쁜 거고 요건 좋은 겁니다 라고 하니까 흙 붙어버리니까 곰팡이 핀 거 못 봐. 거메버리니까. 맨날 널었다 뒤집었다 해서 말리기도 잘 말렸다고 하고 해서 ‘양님’ 주라고 하니까 스물다섯 개 일등으로 주더라. 스물다섯 마대.)

103059 @ 아.(아.)

103059 # 일등으로 주난이 하도 고마원게. 그 서기 어디 가불지 안헤시민 우리 어머니 육촌에 아들인디 대정골 가인 살고 헌디 오꼿 육지 가불언 만나지 못헤연. 너미너미 그 고마완이. 게민 이녁 핏줄이 좋은 거라. 핏줄이 경 허난 그 서기가 누님이렌 허곡 허난 그 사름들 검사원들도 ᄒᆞ꼼 생각혜주고이. 경 허난이 이제 우리 아기 아방이 그때 뭣 헐 때산지사이 그 검사원들 ᄃᆞᆯ아당 ᄃᆞᆨ 잡앙 멕이난에 일등헷젠 날ᄀᆞ라. 아이고 그런 모략ᄁᆞ지 헤라. 아이고, 사름이 경 허는 거 아니주게. 올바르게 깨끗허게 허믄이 경 허난 밧듸서 넌 건이 문딱 감저들이 이추룩 거뭇불긋 거뭇불긋허고 검은 것도 모르고 붉은 것도 몰라. 막 흑에서만 막 둥그려부난이. 꺼껑 봐사 곰펭이 핀 거 알주. 멘들어 놓난 물건닮게 멘들긴 헷저게.(일등으로 주니까 하도 고맙더라. 그 서기 어디 가버리지 않았으면 우리 어머니 육촌의 아들인데 대정골 그 아인 살고 한데 그만 육지 가버려서 만나지 못했어. 너무너무 그 고마워서. 그러면 자기 핏줄이 좋은 거라. 핏줄이 그러니까 그 서기가 누님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검사원들도 조금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기 아버지가 그 때 뭐 할 때인지 그 검사원들 데려다가 닭 잡아서 먹이니까 일등했다고 나보고. 아이고 그런 모략까지 하더라. 아이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지. 올바르게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밭에서 넌 건 모두 고구마들이 이처럼 ‘거뭇불긋 거뭇불긋’하고 검은 것도 모르고 붉은 것도 몰라. 막 흙에서만 막 굴려버리니까. 꺾어서 봐야 곰팡이 핀 거 알지. 만들어 놓으니까 물건같이 만들긴 했어.)

기타 농사

103060 @ 게민 이 동넨 수박이나 참웨 같은 건 안헤낫지예?(그러면 이 동넨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건 안 했었지요?)

103060 # 전인 ᄒᆞ꼼씩 헤낫저.(전엔 조금씩 했었어.)

103060 @ 헤낫수과?(했었습니까?)

103060 # 겐디 이젠 안 헤여.(그런데 이젠 안 해.)

103060 @ 거난 전인 어떵 헹 헤낫수과?(그러니까 전엔 어떻게 해서 했었습니까?)

103061 # 춤웬이 우리 사우가 셋사우가 모슬포서 춤웨 허민 춤웨 메 놀 때 와도렌 헌다. 춤웨 메 놓민.(참외는 우리 사위가 둘째 사위가 모슬포서 참외 하면 참외 모 놓을 때 와 달라고 한다. 참외 모 놓으면.)

103061 @ 메는 어떵 놓는 거꽈?(모는 어떻게 놓는 겁니까?)

103061 # 씨로 하우스에서 메 놔. 하우스에서 메 놓으민[노민] 이젠 또 호박 메도 놓주게. 호박 메 놓으민[노민] 그 호박줄이 저, 실헌ᄀᆞ라. 춤웨 순 땅에 호박에 어디서 순 따근에 까까뒁 요레 톡 부치민이 집게로 톡 잡아. 톡 잡앙은에 그 하우스서 어느 정도 컹 줄이 요만이 벋으민 또 밧듸 강 싱경 비니루 더끄주게. 밧듸 강 듬성듬성 싱경 비니루 더끄민 이젠 강 보민 드랑드랑드랑드랑 열암서.(씨로 하우스에서 모 놔. 하우스에서 모 놓으면 이젠 또 호박 모도 놓지. 호박 모 놓으면 그 호박 줄이 저, 실한지. 참외 순 땅에 호박에 어디서 순 따서 깎아두고 요리 톡 붙이면 집게로 톡 잡아. 톡 잡아서 그 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커서 줄이 요만큼 벋으면 또 밭에 가서 심어서 비닐 덮지. 밭에 가서 듬성듬성 심어서 비닐 덮으면 이젠 가서 보면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렸어.)

103061 @ 응.(응.)

103061 # 열암시민 또시 이제 그 이파리 큰 이파리 일곱 개, 하나, 둘, 일곱 개 세와놩 다음엔 마지막으로 쫄르는 것이 이서. 마지막으로 그 쫄라불렌 허민 그거 가지 돋아근에 다 벋엉이 춤웨가 이만썩 올아. 춤웨가 이만썩 열민 우리 사우네가 최고 춤웨 일등헤여. 게난 다른 사름들은 춤웨 죽어불엇저, 뭣 헷저 헤도 삼 년이나 춤웨 헤영 막 잘 뒈민 상인이 춤웨 헤연에 오랑은에 막 참웨 탐수덴 허민 날ᄀᆞ라 오렌 헤영 헌다게. 막 장남 빌어근에 날르민. 이디 우리 애기 아방도 강은에 어쩔 땐 날르젠 허민 젊은 놈은 탁허게 콘테나 들른디 진 못허켄 영헹 오랑 날르곡 허민 춤웨 최고 고리 열앙 익은 건이 우리 셋사우가 저 후라시만썩 헌 거 서너 개 탕 오랑, 탕 오랑은에 아니 춤웨 벌써 익어시냐 허난 최고 고리로 올아 익은 거는 아부지 드리젠 탄 와수덴 헤근에 서너 개 탄 온다게.(열리면 또 이제 이파리 큰 이파리 일곱 개 하나, 둘, 일곱 개 세워서 다음엔 마지막으로 자르는 것이 있어. 마지막으로 그 잘라버리라고 하면 그거 가지 돋아서 다 벋어서 참외가 이만큼씩 열려. 참외가 이만큼씩 열리면 우리 사위네가 최고 참외 일등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외 죽어버렸다, 뭐 했다 해도 삼 년이나 참외 해서 아주 잘 되면 상인이 참외 해서 와서 막 참외 딴다고 하면 나보고 오라고 해서 한다. 막 장정 빌려서 나르면. 여기 우리 아기 아버지도 가서 어쩔 땐 나르려고 하면 젊은 놈이 탁하게 컨테이너 들었는데 자긴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와서 나르고 하면 참외 최고 시기 열려서 익은 건 우리 둘째사위가 저 플래시만큼씩 한 거 서너 개 따 와서, 따 와서 아니 참외

벌써 익었니 하니까 최고 시기에 열려서 익은 거는 아버지 드리려고 따서 왔다고 해서 서너 개 따서 온다.)

103061 @ 아.(아.)

103061 # 매해 삼년이나 경 타당 울 아부지, 하르방 멕여라게. 지네 아방 아니라도이. 경 멕이멍 허영 고맙곡 허연게 춤 그디 강 그추룩 허민 이젠 마지막은 마지막 비우게 뒈민 막 마지막도 춤웨 잘 열안. 잘 여난에 날ᄀᆞ라 그 ○○이네 친한 철에 아난 이제 이만저만헨에 그 어머니네 그 시궨당 ○○이네 보레 오랑은에 춤웨 오랑인에 마지막으로 탕 가렌 허렌 허믄이 타당 먹으렌 허민 마지막 탈 거라도 탕 풀 거 셔도 안 타근에 내불민 올 때이 저 우리 큰집이 우리 하르방 각시허곡 ○○이 각시네 두가시 오랑 경운기 주렌 혜영 이빠이 타곡 또시 이제 저 마다리에 또 타놓고 헹 시꺼간다게. 시꺼가도이 지네 거 멧 년 미깡 헤도 우리 아이네 미깡 요거 댓 개 어져당 주렌 우리 그디 덕수리 동부락이 가민 밧 댓 말지기 싯저. 밧듸서 경운기에 미깡 타근에 선과장더레 시꺼가멍도 댓 개 줭 먹어본 디 엇다.(매해 삼년이나 그렇게 따다가 울 아버지, 할아버지 먹이더라. 자기네 아버지 아니라도. 그렇게 먹이면서 해서 고맙고 해서 참 거기 가서 그처럼 하면 이젠 마지막은 마지막 비우게 되면 막 마지막도 참외 잘 열렸어. 잘 열리니까 나보고 그 ○○이네 친한 차례 아니까 이제 이만저만해서 그 어머니네 그 시권당 ○○이네 보러 와서 참외 와서 마지막으로 따서 가라고 하라고 하면 따다가 먹으라고 하면 마지막 딸 거라도 따서 팔 거 있어도 안 따서 내버리면 올 때 저 우리 큰집의 우리 할아버지 부인하고 ○○이네 부인 부부가 와서 경운기 주라고 해서 가득 따고 또 이제 저 마대에 또 따놓고 해서 실어간다. 실어가도 자기네 거 몇 년 귤 해도 우리 아이네 귤 요거 댓 개 가져다 주라고 우리 거기 덕수리 동부락에 가면 밭 댓 마지기 있어. 밭에서 경운기에 귤 따서 선과장으로 실어가면서도 댓 개 줘서 먹어본 적 없다.)

103061 @ 예(예.)

103061 # 사름이믄 줘야 허주이. 삼 년이나 그추룩 헤연에 헤당 먹어라, 게도 하나도 아이 줜게. 우리 사우가 마지막으로 호박 메 놔주커메 수박 메 놔주커메 어머니네 보리 비여나건 수박을 싱급서 헤라게. 경 허난 경 허켄 헹 보리가 늦언 재게 못 비언. 못 비난 수박 메가 지레기가 이만썩 나불언게. 경 허난 비언에 이젠 우리 사우가 허는 말이 보리낭 헤여근에 다 무꺼근에 눌엉 놔둡센. 눌엉 놔두민 수박 줄 벋어가민 수박 줄 벋는 데레 톡톡 보리낭 서 쿨썩 노민 그 보릿대에 얽으멍 수박 줄이 벋읍니덴 헤연. 아니 그 수박은 오란 신문지 질이만썩 헌 걸 어져오란 싱근디 문딱 물란 죽어불언.(사람이면 줘야 하지. 삼 년이나 그처럼 해서 해다가 먹더라, 그래도 하나도 안 주더라. 우리 사위가 마지막으로 호박 모 놔주겠으니 수박 모 놔주겠으니 어머니네 보리 베고 나면 수박을 심으세요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리가 늦어서 재게 못 베었어. 못 베니까 수박 모가 길이가 이만큼씩 나버렸어. 그러니까 베어서 이젠 우리 사위가 하는 말이 보릿대 해서 다 묶어서 가려서 놔두라고. 가려서 놔두면 수박 줄기 벋어 가면 수박 줄기 벋는 데로 톡톡 보

릿대 세 줄기씩 놓으면 그 보릿대에 얽으면서 수박 줄기가 벋는다고 해. 아니 그 수박은 와서 신문지 길이만큼씩 한 걸 가져와서 심었는데 모두 말라서 죽어버렸어.)

103062 @ 어뜨난?(어째서?)

103062 # 몰라, 죽어부난 사우신듸 수박 멘 다 죽어불엇저 허난 수박 멘 멩 깁니다. 문 땡겨봔에 프리룽헷건 살아납니덴. 마 뒈민 그것이 살아납니덴 허난. 아 이제 오란 문 헤 보난에 요추룩 헌 거 파리룽헹 이서라게. 아이구 이젠 잘뒛젠 헤근에 옛날에 통으로 오줌을 서너 개 받은 게 시난 하르방ᄀᆞ라 시껑 급센 헤연 바가쓰에 비완에이 그 수박 싱근 곳에 좀 먼 발로 졸락졸락 줜 놔둰. 줜 놔두난 마에 뒈난 탁 벌견에 이제 밧이 다 더꺼진 거 아니가? 더꺼지난 시에서 온 사름이 수박 헹 좋앗젠 허난 오란에 종지만썩 헌 거 미릇 수정 세영 오백 원 주켄.(몰라, 죽어버리니까 사위에게 수박 모두 다 죽어버렸다 하니까 수박 몬 명 깁니다. 모두 당겨봐서 파르스름하면 살아난다고. 장마 되면 그것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아 이제 와서 모두 해 보니까 요처럼 한 거 파르스름해서 있더라. 아이구 이젠 잘됐다고 해서 옛날에 통으로 오줌을 서너 개 받은 게 있으니까 할아버지에게 실어서 가자고 해서 양동이에 비워서 그 수박 심은 곳에 좀 먼 발로 '졸락졸락' 줘서 놔뒀어. 줘서 놔두니까 마가 되니까 탁 벌어져서 이제 밭이 다 덮인 거 아니냐? 덮이니까 시에서 온 사람이 수박 해서 좋았다고 하니까 와서 종지만큼씩 한 거 미리 숫자 세어서 오백 원 주겠다고.)

103063 @ 아, 익기도 전이?(아, 익기도 전에?)

103060 # 응, 타기 전이. 주커메 수정 세영 다 주켄. 경 허난 게 다음에 오민 다음에 들어봉 사우한티 의논혜영 허켄 허난 사운, 야 이만썩 헌 거 오백 원 주켄 헤라 허난 우리 춤웨 ᄋᆞ져가는 상인헌티 ᄀᆞᆯ아보쿠덴 헹 그 사름은 오난 또 그거만썩 헌 걸 칠백 원 주켄. 칠백 원 주켄 허난 그 밧을 다 더꺼지난이 ᄒᆞ루 두 차 탑센 ᄒᆞ루 ᄒᆞᆫ 차 타렌 허민 저디 하르방 손지 달고 우리 셋뚤에 손지 오랑 하나썩 날르렌 허주게. 날르민 행실머리 우리 하르방 나빠도 나가 이해혜영이 지네 손진 두 개 주곡 또 우리 손진 하나만 주는 거라. 경헤도 곱갈랑 줨젠 나 일부로 ᄀᆞᆫ질 안헷저. 그런가 헹 내불엇지이. ᄀᆞᆯ아가믄 싸와지곡 허는디.(응, 따기 전에. 주겠으니 숫자 세어서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게 다음에 오면 다음에 물어봐서 사위에게 의논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사위는, 야 이만큼씩 한 거 오백 원 주겠다고 하더라 하니까 우리 참외 가져가는 상인에게 말해보겠다고 해서 그 사람 오니까 또 그거만큼씩 한 걸 칠백 원 주겠다고. 칠백 원 주겠다고 하니까 그 밭을 다 덮이니까 하루 두 차 따라고 하루 한 차 따라고 하면 저기 할아버지 손주 달고 우리 둘째딸에 손주 와사 하나씩 나르라고 하지. 나르면 행실머리 우리 할아버지 나빠도 내가 이해해서 자기네 손주 두 개 주고 또 우리 손주는 하나만 주는 거야. 그래도 나눠서 준다고 나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그런가 해서 내버렸지. 말해가면 싸워지고 하는데.)

103063 @ 응.(응.)

103060 # 이제 큰집은 가게 보난 가게에 이제 놩 풀 거메 좋은[존] 것도 싯걸당

주민 하르방 좋은[존] 거 멧 번 타가도 좋은[존] 거 얼마사 받앙 풀아신디 원 돈 한 푼 받아오는 양도 없고 헌디 혼번은 하르방 큰아덜이 친구 하나 달고 허연에 탈탈이 몰앙 오랏어라. 수박 타주민 풀아다 주쿠덴. 수박 혼 탈탈이 타주난에 풀아사 먹엇인디 어디사 헤신디 간 곳이 엇어, 간 곳이 엇어이. 그추룩 헤도 어떵 허느니, 내불주이.(이제 큰집은 가게 보니까 가게에 이제 놔서 팔 거니까 좋은 것도 있으면 주면 할아버지 좋은 거 몇 번 따가도 좋은 거 얼마야 받아서 팔았는지 원 돈 한 푼 받아오는 양도 없고 한데 한번은 할아버지 큰아들이 친구 하나 달고 해서 경운기 몰아서 왔더라. 수박 따주면 팔아다 주겠다고. 수박 한 경운기 따주니까 팔아야 먹었는지 어디야 했는지 간 곳이 없어, 간 곳이 없어. 그처럼 해도 어떻게 하니, 내버리지.)

103063 @ 응.(응.)

103063 # 내불엉 허민 나가 ᄂᆞ물 배추 저디 우리 오라방 허민 누님 쩍시 놔뒷수다. 우리 애기 아방이 덕수 살 때난 놔 둬시난 케어가렌 허민 우리 애기 아방 오랑 케어가렌 허주게. 게민 백열 풀기 케어보믄 백열 풀기라라게. 난 열 풀기만 허주 백 풀기는 시껑가민 이 선생 어멍이렌 허는 사름 이서. 훼장, 훼장 허는 어른이랑 다섯 풀기 주국 그디 고○○ 할망이 식게 넘어나민 우리 애기 떡 주렌 헹 주민 그 할망 이영 서너 풀기 주곡 저 폭낭 아래 ○○ 어멍이렌 헌 사름 셔낫저. 지금 죽어불언. 경 그 어른도 서너 풀기 줍센 허여 헤 놔두민 혼 얼마 시민 오랏어, 하르방이. 저 고○○ 할망네영 배추 줜 허민 주지 못허게 헨에 저 훼장만 줫어 허난 훼장은 멧 풀기 훼장 십 풀기만 줫어, 다섯 풀기 더 주젠 허난 큰집이 주지 못허게 헤서 안 줫어게. 아니 무사 지네 거옌? 아니 나가 주렌 헌 걸 무슨 따문 안 줘시넨 허멍이. 야 삼 년이나 ᄂᆞ물 케강 경 주렌 헤도 그 이 선생네 어멍이엔 훼장은 주고 그 할망 들신딘 하나도 아이 줜게. 지 거라도 헐 티.(내버려서 하면 내가 나물 배추 저기 우리 오라버니 하면 누님 깃 놔뒀습니다. 우리 애기 아버지 덕수 살 때니까 놔 뒀으니까 캐어가라고 하면 우리 아기 아버지 와서 캐어가라고 하지. 그러면 백열 포기 캐어보면 백열 포기더라. 난 열 포기만 하지 백 포기는 실어가면 이 선생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회장, 회장 하는 어른이라서 다섯 포기고 주고 거기 고○○ 할머니 제사 넘으면 우리 아기 떡 주라고 해서 주면 그 할머니랑 서너 포기 주고 저 팽나무 아래 ○○ 어머니라고 한 사람 있었어. 지금 죽어버렸어. 그렇게 그 어른도 서너 포기 주라고 해서 놔두면 한 얼마 있으면 왔어, 할아버지. 저 고○○ 할머니네 배추 줬어 하면 주지 못하게 해서 저 회장만 줬어 하니까 회장은 몇 포기 회장 십 포기만 줬어, 다섯 포기 더 주려고 하니까 큰집이 주지 못하게 해서 안 줬어. 아니 왜 자기네 거냐고? 아니 내가 주라고 한 걸 무슨 때문에 안 줬냐고 하면서. 야 삼 년이나 나물 캐어가서 그렇게 주라고 그 이 선생네 어머니라고 회장은 주고 그 할머니에겐 하나도 안 줬어. 자기 것이라도 할 터.)

103060 @ 게난.(그러니까.)

103060 # 그런 나쁜 사름이 어디 시느니?(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니?)

103060 @ 게난 수박하고 참웨는 막 옛날에는 안 헤낫지예?(그러니까 수박하고 참외는 아주 옛날에는 안 했었지요?)

103060 # 응.(응.)

103062 @ 요새야 헌 거주예? 나중에야예? 고치도 헤낫수과?(요새야 한 거지요? 나중에야요? 고추도 했었습니까?)

103062 # 응, 고치 허난이 삼 년생 사당 싱그난이 그디가 널르난에 뭣을 허련헹 고추씨 사당 막 널어 놔두난 팔월 나난에 고치가 지락허게 올아서라게. 여난 타당은에 옥상에서 물리곡 타당 옥상에서 물리곡 허난에 큰 마다리로 아홉 개 물려져라.(응, 고추 하니까 삼 년생 사다가 심으니까 거기가 넓으니까 뭣을 하리 해서 고추씨 사다가 막 널어서 놔두니까 팔월 나니까 고추가 '지락'하게 열었더라. 열리니까 따다가 옥상에서 말리고 따다가 옥상에서 말리고 하니까 큰 마대로 아홉 개 말렸더라.)

103062 @ 아이고, 경 하영?(아이고, 그렇게 많이?)

103062 # 이젠 저디 저 서울 약국 우리 삼촌네가 저 우이 미깡밧 허난 날ᄀᆞ라 놉 빌어근에 미깡 타 도렌 허난 미깡 타레 가난 우리 서울 약국 어멍ᄀᆞ라 양, 나이 상태 허여근에양 고치 아홉 마다리 물려져십디다게 허난, 집에 어져오라, 나 풀아주마 허연 집이 넌 거영 열한 마다리 시꺼간 그 삼춘네 한 마다리 물린 걸 큰 마다리로 하나 물린 건 먹읍센 허곡 열 마다린 풀아줘라게.(이젠 저기 서울 약국 우리 삼촌네가 저 위에 귤밭 하니까 나보고 놉 빌려서 귤 따 달라고 하니까 귤 따러 가니까 우리 서울 약국 어머니보고 보세요, 나 이 상태 해서요 고추 아홉 마대 말렸습니다 하니까, 집에 가져와라, 나 팔아주마 해서 집에 넌 거랑 열한 마대 실어가서 그 삼촌네 한 마대는 말린 걸 큰 마대로 하나 말려서 그건 드시라고 하고 열 마대 팔아주더라.)

103062 @ 응.(응.)

103062 # 경 허난 이 하르방이 우리 집이 뎅기단 족은집인 고치 하영 열안 경헷젠 자랑허난 고치 도렌 헤렌, 큰집이. 도렌 허난 나 물령은 안 주켄. 혼물 익걸랑 타가렌 헨. ᄒᆞ룬 시난에 오고렌 연락 완. 저 차부에 오고렌 허난 하르방이영 간에 이젠 타레 간에 이젠 탈만 헤신가 헨 강 보난이 정부미 마다리로 다섯 개 탄 여섯 개째를 앚앙 탐서라. 허난 저 알녁편이 두 판이 남아, 경 허난 밉상발룅 그거 다 타가렌 허주마는이 지넨 그 사름들은이 우리 애기나 나나 우리 애기 제사 먹으레 가도 떡 ᄒᆞᆫ번 어져오지도 안헌디. 저거랑 타가지 맙서. 똘네 오랑 타당 먹으렌 허켄 허난 하르방도 맞다 허멍 헹 헤신게. 나 거 그만큼 먹어도이 지넨 손 페우지 안허연 식게 넘어나도 우리 애기한티 떡 ᄒᆞᆫ번 날 쌍 강 주렌 안 허여.(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우리 집에 다니다가 작은집은 고추 많이 열어서 그랬다고 자랑하니까 고추 달라고 하더라고, 큰집이. 달라고 하니까 나 말려서는 안 주겠다고. 한물 익거든 따가라고 해서. 하루는 있으니까 왔다고 연락 왔어. 저 차부에 왔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랑 가서 이젠 따러 가서 이젠 딸만 했다 해서 가보니까 정부미 마대로 다섯 개 따

서 여섯 개째를 앉아서 따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 아랫쪽에 두 판이 남아, 그러니까 미워서 그거 다 따가라고 하지마는 자기네는 그 사람들은 우리 아기나 낳거나 우리 아기 제사 먹으러 가도 떡 한번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저거랑 따가지 마세요. 딸네 와서 따다 먹으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맞다 하면서 해서 했어. 내 거 그만큼 먹어도 자기네는 손 펴지 않아서 제사 지나도 우리 아기한테 떡 한번 날 싸 가서 주라고 안 해.)

103062 @ 고친 거난 영 낭 싱그는 거꽈?(고추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심는 겁니까?)

103062 # 응, 낭 싱거. 그냥 고치씨 삐여 놔두난에.(응, 나무 심어. 그냥 고추씨 뿌려 놔두니까.)

103062 @ 씨 삐여 놔두믄 기냥 나는 거?(씨 뿌려 놔두면 그냥 나는 거?)

103062 # 경 허연에 고치 문 허엿주게. 경 허영.(그래서 고추 모두 했지. 그래서.)

103063 @ 배추나 무도?(배추나 무도?)

103063 # 배추도 무도 씨로 질르고 배추도 씨로 질롸.(배추도 무도 씨로 기르고 배추도 씨로 길러.)

103063 @ 아, 씨로 질롸? 할머니 감저도 헤난? 지슬, 지슬, 지슬도 이제 하영 허지예?(아, 씨로 길러? 할머니 감자도 했었어? 감자, 감자, 감자도 이제 많이 하지요?)

103065 # 이제 지슬 하영 헹들 지슬, 가을 지슬 이제 파게 뒀주게.(이제 감자도 많이 해서들 감자, 가을 감자 이제 파게 됐지.)

103065 @ 지슬은 어떵 헹 하는 거꽈?(감자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3065 # 지슬은 어떵 허느니? 지슬씨 놧다근에 지슬씨로 강은에 또 논다게.(감자 어떻게 하니? 감자씨 놨다가 감자씨고 가서 또 놓는다.)

103065 @ 씨로 강은에?(씨로 가서?)

103065 # 응, 씨로 강. 지슬씨 놀 땐이 지슬씬 눈이 이서. 눈 시민 큰 지슬 눈신 딜로 돌르멍 묻곡이 준 건 그냥 묻곡이. 경혀근에 방 벌영 이만썩 묻나게.(응, 씨로 가서. 감자씨 놓을 땐 감자씬 눈이 있어. 눈 있으면 큰 감자 눈 있는 데로 도려내면서 묻고 잔 건 그냥 묻고. 그렇게 해서 칸 벌려서 이만큼씩 묻는다.)

103065 @ 아, 방 벌영.(아, 칸 벌려서.)

103065 # 응, 방 벌영. 거민 홁은 건 썰엉 그 눈 바리멍 눈 바리멍 썰어근에 눈 돌르멍 묻곡 족은 건 그자 반착 그차근에 묻곡.(응, 칸 벌려서. 그러면 굵은 건 썰어서 그 눈 보면서 눈 보면서 썰어서 눈 도려내면서 묻고 작은 건 그저 반쪽 잘라서 묻고.)

103065 @ 거믄 언제 싹 나근에 큽니까?(그러면 언제 싹 나서 큽니까?)

103065 # 거민 이제 봄이 건 허민 이제 파게 뒈곡. 이제 파게 뒀주게.(그러면 이제 봄의 건 하면 이제 파게 되고. 이제 파게 됐지.)

103065 @ 그럼 두 번 놔?(그럼 두 번 놔?)

103065 # 두 번. 가을 지슬도 허곡, 봄 지슬도 허곡.(두 번. 가을 감자도 하고, 봄 감자도 하고.)

103065 @ 아, 봄에 놓으민[노민] 이제 파게 뒈곡 가을에 놓으민[노민].(아, 봄에 놓으면 이제 파게 되고 가을에 놓으면.)

103065 # 봄이 파게 뒈곡.(봄에 파게 되고.)

103065 @ 아, 봄에 파게 뒈곡? 두 번 헤지는 거구나예?(아, 봄에 파게 되고? 두 번 할 수 있는 거군요?)

103065 # 응.(응.)

103065 @ 언제 게 맛 좋읍니까?(언제 것이 맛 좋습니까?)

103065 # 응?(응?)

103065 @ 어느 게 맛 좋아?(어느 것이 맛 좋아?)

103065 # 아무 때라도 맛 존나, 지슬은. 고구만 이제 파게들 뒘주게. 고구마, ᄀᆞ슬 때는 이제 막 파. 작년이 고구마 우리 뚤은 밧 두 개, 삼 년인디. 이디서 멧 개 ᄋᆞ져오라 이디서 멧 개 ᄋᆞ져오라 허민 팡인에 ᄋᆞ져감을 바빤. 놉 빌언 문 배달헤시네.(아무 때라도 맛 좋다, 감자는. 고구마는 이제 파게들 되고 있지. 고구마, 가을 때는 이제 막 파. 작년에 고구마 우리 딸은 밭 두 개, 삼 년인데. 여기서 몇 개 가져와 여기서 몇 개 가져와라 하면 파서 가져가기 바빴어. 놉 빌려서 모두 배달했어.)

10306 @ 옛날에도 감저 헤낫수과? 아니 지슬도 헤낫수과?(옛날에도 고구마 했었습니까? 아니 감자도 했었습니까?)

103065 # 옛날에 우리 어린 때도 지슬 헤난.(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감자 했었어.)

103065 @ 아, 그때도 지슬을 헤난?(아, 그때도 감자를 했었어?)

103065 # 그때 지슬은 잘 안 뒈여, 토종이난이 안 뒈라. 경헨게 이젠 막 지슬들 이만썩들 뒈여.(그때 감자는 잘 안 돼, 토종이라서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젠 막 감자들 이만큼들 돼.)

103065 @ 요번이 준 지슬 벳경은에 준 것도 쳥 먹으난 잘도 맛 좋아라.(요번에 준 감자 벗겨서 준 것도 쪄서 먹으니까 아주 맛 좋더라.)

103065 # 그거 ᄀᆞ을 지슬 가네 그.(그거 가을 감자 걔네 그.)

103065 @ 이제사 이제사 판 거.(이제야 이제야 판 거.)

103065 # 응, ᄒᆞ쏠 파고렌, 먹젠.(응, 조금 팠다고, 먹으려고.)

103065 @ 먹젠? 아직 다 안 뒈도?(먹으려고. 아직 다 안 돼도?)

103065 # 응, ᄒᆞ쏠 판에 이제 나신디 벳경 두 봉다리 ᄋᆞ져와서라게. 겨난 이제 니 한 봉다리 줘시네.(응, 조금 파서 이제 나에게 벗겨서 두 봉지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 한 봉지 줬잖아.)

103067 @ 모멀도 헤나수과, 이디?(메밀도 했었습니까, 여기?)

103067 # 모멀도 허주게. 모멀은이 칠월[칠뤌]돌에 모멀 놔근에 가을에 빈다.(메밀도 하지. 메밀은 칠월에 메밀 놔서 가을에 벤다.)

103065 @ 금방 자라는구나예? 한 두석 달 만에 나?(금방 자라는군요? 한 두석 달 만에 나?)

103067 # 아니 모멀은 이 칠월돌에 모멀 놓주게. 우리 어린 때 우리 어머니네 칠월돌에 모멀밧 갈젠 허믄이 새벽에, 칠월에 밧 갈젠 허민 더우는 따문 새벽에 캄캄한 때 강은에 가민 모멀 갈 때 모멀 씨 불채에 서껑 강은에 어머니신디 날라다 주민 영영영 방[76] 벌영 영 놔. 기민 쉐로 갈아근에 가을 때민 그 뒈여근에 장만하곡 허주게. 경 허믄 그 모멀쏠도 모멀도 베싹 몰리민이 ᄀᆞ레에서이 두불 ᄀᆞᆯ악 세불 ᄀᆞᆯ악 헤영 모멀쏠 멘들기도 힘들어. 게난 모멀쏠 아무나 멘들도 못헤여. 게난이 이 공장에 오랑 모멀 겁지레 온 사름덜 그 칠 중 몰랑 홀 중 몰랑 나 올린 어뜨난 모멀 겁지는 데 와줍센 안 헴저. 올힌 모멀이 엇은고라이. 흔 댓 헤이 큰 공장에 모멀 겁지레 오민 삼촌 오랑은에 모멀 겁져줍센 허민.(아니, 메밀은 이 칠월에 메밀 놓지. 우리 어린 때 우리 어머니네 칠월에 메밀밭 갈려고 하면 새벽에, 칠월에 밭 갈려고 하면 덥기 때문 새벽에 캄캄한 때 가서 가면 메밀 갈 때 메밀 씨 재에 섞어서 가서 어머니께 날라다 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 벌려서 이렇게 놔. 그러면 소로 갈아서 가을 때면 그 되어서 장만하고 하지. 그러면 그 메밀쌀도 메밀 바싹 말리면 맷돌에서 두벌 갈고 세벌 갈고 해서 메밀쌀 만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메밀쌀 아무나 만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공장에 와서 메밀 거피하러 온 사람들 그 칠 줄 몰라서 할 줄 몰라서 나 올해는 어쩐지 메밀 거피하는 데 와 달라고 안 한다. 올핸 메밀 없는지. 한 댓 해 큰 공장에 메밀 거피하러 오면 삼촌 와서 메밀 거피해주세요 하면.)

103067 @ 겁지는 게 어떵 허는 거?('겁지는' 게 어떻게 하는 거?)

103067 # 껍데기 벳기는 거. 기계로 벳기믄 그 멧 번 치는 거라. 한 번에 치지 안허영. 큰 쏠 멘들곡 좀진 쏠 멘들곡 말젠 ᄀᆞ루도 나오곡.(껍데기 벗기는 거. 기계로 벗기면 그 몇 번 치는 거야. 한 번에 치지 않고. 큰 쌀 만들고 가는 쌀 만들고 말째는 가루 나오고.)

103067 @ 그거 뭐 따로 따로 이름 따로 이수과?(그건 뭐 따로따로 이름 따로 있습니까?)

103067 # 게.(그렇지.)

103067 @ 뭐렌 ᄀᆞᆯ아?(뭐라고 말해?)

103067 # 홁은 쏠은 모멀쏠 홁은 ᄉᆞ레기쏠이렌 허곡 그디 ᄀᆞ루는 는젱이 ᄀᆞ루엔 허곡.(굵은 쌀은 메밀쌀 굵은 싸라기라고 하고 거기 가루는 나깨 가루라고 하고.)

103067 @ 아, 는젱이 ᄀᆞ루렌 허고.(아, 나깨 가루라고 하고.)

103069 # 는젱이 ᄀᆞ루 범벅도 헹 맛 좋게 허곡 없는 사름은 수제비도 헹 맛 좋아. 지지미도 헤영 맛 좋곡.(나깨 가루 범벅도 해서 맛 좋게 하고 없는 사람은 수제

76) '방'은 곡식의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들어가는 자리를 말한다.

비도 해서 맛 좋아. 부침개도 해서 맛 좋고.)

103067 @ 옛날에도 모멀쏠 하영 헤나수과?(옛날에도 메밀쌀 많이 했었습니까?)

103067 # 옛날에 모멀 우리 아부지네도 불채에 모멀 씨 헤영 어멍 강 영영 뿌리민 어멍신디 모멀 골체로 날라다 놓으민[노민] 어멍이 경 헤여낫주게.(옛날에 메밀 우리 아버지네도 재에 메밀 씨 해서 어머니 가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어머니께 메밀 삼태기로 날라다 놓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했었지.)

103067 @ 옛날도 헤난예?(옛날도 했었어요?)

103067 # 이젠이 저 웃드르레 모멀덜 하영 갈아신디 어떵 안 뒈신ᄀᆞ라. 공장에 아이 겁져신ᄀᆞ라. 올헨이 겁지는 디 와줍센 아니헴신게. 작년이영 재작년에 멧 년은 나가 그 웃드르레서 온 사름덜 젊은 사름덜 헐 충 몰랑 큰 쏠, 족은 쏠 멘들지 못하민 날ᄀᆞ라 오랑은에 협센 허민 그 사름덜 허영 가멍이 소레기쏠도 주곡 는젱이도 주곡 허민 빌엉 오랑 동네 사름덜 는젱이 조배기 헹 먹으렌 주곡 드러 나 경 헷주게.(이젠 저 '웃드르'에 메밀들 많이 갈았는데 어떻게 안 됐는지. 공장에 안 거폈는지. 올핸 거피는 데 와 달라고 안 하고 있네. 작년이랑 재작년에 몇 년은 내가 그 '웃드르'에서 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할 줄 몰라서 큰 쌀, 작은 쌀 만들지 못하면 나보고 와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해서 가면서 싸라기도 주고 나깨도 주고 하면 빌어 와서 동네 사람들 나깨 수제비 해서 먹으라고 주고 들이 나 그렇게 했지.)

103067 @ 그건 어떵 헹은에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3067 # 모멀쏠 겁지는 거?(메밀쌀 거피하는 거?)

103067 @ 응.(응.)

103067 # 체로 쳥게.(체로 쳐서.)

103067 @ 아, 체로 쳥.(아, 체로 쳐서.)

103067 # 응, 체로 멧 번 쳐.(응, 체로 몇 번 쳐.)

103067 @ 경헹 골라 내는 거? 큰 거, 족은 거 영 따로따로.(그래서 골라 내는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따로따로.)

103067 # 응, 체 여러 가지로 쳐. 말젠 그디서 기계서 불리곡. 이젠 산뒤도 그냥 기계로 잘잘 나오멍 짛는 거 아이가. 보리도 그냥 올리믄 쏠로 나와. 옛날엔 물방에 경 공장에 강 물방에 경 체에 널엉 드러 경 헤낫저마는.(응, 체 여러 가지로 쳐. 말째는 거기서 기계서 불리고. 이젠 밭벼도 그냥 기계로 잘잘 나오면서 찧는 거 아니냐. 보리도 그냥 올리면 쌀로 나와. 옛날엔 물방아 찧어서 공장에 가서 물방아 찧어서 체에 널어서 들이 그렇게 했었다마는.)

103067 @ 그럼 그거 말고 이 동네에서 다른 농사는 무신거 지읍니까?(그럼 그거 말고 이 동네에서 다른 농사 무엇 짓습니까?)

103067 # 그거벳긔 안 허여난.(그것밖에 안 했었어.)

103067 @ 미깡?(귤?)

103067 # 미깡.(귤.)

103067 @ 미깡은 언제쯤에 헤수과?(귤은 언제쯤에 했습니까?)

103067 # 미깡은 헌 때 오랫주게.(귤은 한 때 오랬지.)

103067 @ 멧 살 때쯤에 왕 헌 거 닮으꽈? 미깡은.(몇 살 때쯤에 와서 한 거 같습니까? 귤은?)

103067 # 우리 나 헐 때엔 그 처녀 시절에부터 저 정의 사름들은 미깡 헷어.(우리 나 할 때엔 그 처녀 시절에부터 저 정의 사람들은 귤 했어.)

103067 @ 이딘 언제쯤에 헷어?(여긴 언제쯤에 했어?)

103067 # 경헌디. 나두 어른 뒈난. 어른 뒈난에 대정 집 우에 덕수가 젤 문저 헤서. 덕수 화순더레. 우리 화순 이모네가 살아신디 화순 이모네가 미깡 하민 날ᄀᆞ라 미깡낭 싱글 때 오라, 전정헐 때 오라, 타레 오렌 허민 그거 강 주로 헤여나난이 미깡낭 나가 경 앚지는 걸 잘 앚져. 미강낭 어린 거 허여 온 사름은 날ᄀᆞ라 오랑근에 앚져 도렌 헌다. (그런데 나도 어른 되니까. 어른 되니까 대정 집 위에 덕수가 젤 먼저 했어. 덕수 화순으로. 우리 화순 이모네가 살았는데 화순 이모네가 귤 하면 나보고 귤나무 심을 때 와라, 전정할 때 와라, 따러 오라고 하면 그거 가서 주로 했었으니까 귤나무 내가 그렇게 앉히는 걸 잘 앉혀. 귤나무 어린 거 해 온 사람은 나보고 와서 앉혀 달라고 한다.)

103067 @ 예.(예.)

103067 # 경헨 미깡낭 이렇게 가지가 영 돋으민 이것이 남쪽더레 가게 톡허게시리 영 앚져주곡 가진 북쪽더레 가게 영 헹은에 앚졋주게. 경 헤여근에 허난 저 우리 하르방 아덜 그 ○○ 아덜네도 존 낭 오랑 앚져 도렌 헹 존 낭 앚지고 홁은 낭도 막 메어다네 오랑 앚져 주렌 헹이 싱그당이 밤이 홁은 낭, 홁은 낭 메어단에 싱그단이 여섯 개산디사 문 못 싱그난에 ○○ 아덜이 걸읍서, 가게 허나난 우리 육촌 오래비네가 미깡낭 홁은 거 메당 싱그단에 댓 개 남으난에 우리 싱그쿠덴 헨에 뒷날 싱그난 그 낭은 오꼿 죽어불어라게. 죽어부난 야 이거 밤이슬 맞아근에 낼 오랑 싱그민 아니 산다, 아이 산다. 그자 구뎅이 파는 체만 헹 흙만 지치라, 지치라 허멍이 밤 아홉시 뒈도록 찻불 세완에 그걸 싱것저마는이.(그래서 귤나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돋으면 이것이 남쪽으로 가게 톡하게끔 이렇게 앉혀주고 가진 북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앉혔지.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저 우리 할아버지 아들 그 ○○ 아들도 좋은 나무 와서 앉혀 달라고 해서 좋은 나무 앉히고 굵은 나무도 막 매어다가 와서 앉혀 달라고 해서 심다가 밤에 굵은 나무, 굵은 나무 매어다가 심다가 여섯 개인지 모두 못 심으니까 ○○ 아들이 갑시다, 가게 하니까 우리 육촌 오라비가 귤나무 굵은 거 매다가 심다가 댓 개 남으니까 우리 심겠다고 해서 뒷날 심으니까 안 산다, 안 산다. 그저 구덩이 파는 체만 해서 흙만 끼얹어라, 끼얹어라 하면서 밤 아홉시 되도록 초벌 세워서 그걸 심었다마는.)

103067 @ 경헹 옛날에 그 저 미깡낭 헹 허민 어떵헤근에 질롸?(그래서 옛날에 그 저 귤나무 해서 하면 어떻게 해서 길러?)

103067 # 미깡낭 어떵허느니? 미깡낭 메놩은에 개탕쉬낭 메놩 미깡낭도 메놩 개탕쉬낭 쫄랑 그레 이제 접붙영 미깡낭이영 접붙영 이제 크민 이젠 흔 이 년생 뒈민

밧듸 강 싱그는 거주게.(귤나무 어떻게 하니? 귤나무 매어놔서 탱자나무 매어놔서 귤나무도 매어놔서 탱자나무 잘라서 그리 이제 접붙여서 귤나무랑 접붙여서 이제 크면 이젠 한 이 년생 되면 밭에 가서 심는 거지.)

103067 @ 아, 경헹근에 싱그는 거구나예. 그믄 이제 그다음에 멧 년 뒈사 미깡이 열려?(아, 그래서 심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몇 년 되어야 귤이 열려?)

103067 # 게난 우리 삼 년생 사당 싱건에 그헤에 꽃 피난에 따분디 뒷헤에 또 꼿을 믄딱 땃어. 따단에 낭 다섯 개산디사 냉경. 하루방이 저 모슬포 아이덜 미깡도 엇인디 이걸랑 내불라. 둬 콘테나 허건 아이들 타당 먹으렌 허게. 모슬포 딸들 우리 하르방 막 우촨[77]허난게. 경 허난 허게 허멍 허난 경헤근에 헹 내부난 이제 그거 다섯 낭 파레 가가난 콘테나 열 개나 허카 허멍 타레 갓주게.(그러니까 우리 삼 년생 사다가 심어서 그해에 꽃 피니까 따버렸는데 뒷해에 또 꽃을 모두 땄어. 따다가 나무 다섯 개인지 남겨서. 할아버지가 저 모슬포 아이들 귤도 없는데 이것은 내버려라. 둬 컨테이너 하면 아이들 따다 먹으라고 하자. 모슬포 딸들 우리 할아버지 아주 '우촨'하니까. 그러니까 하자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버리니까 이제 그거 다섯 나무 파러 가니까 컨테이너 열 개나 할까 하면서 따러 갔지.)

103067 @ 예.(예.)

103067 # 타레 가난 이웃집 사름도 ᄀᆞ치 가멍 뭣허레 감수광? 허난에 새 낭에 미깡 다섯 콘테나 열앗젠 허멍 타레 감저 허난 ᄀᆞ치 강 보겐 허난 스무 콘테나도 더 나. 어이구 우리 미깡은 자바라[78]엔 헌 거. 일본서 묘목 ᄀᆞᆯ안에 밧 빌언에 그 밧 메나믄 싱거 줄 거렌 싱그난에 흔 넘으난 이거 풀지 못헹 헐 때 우리 간 그거 사단 싱그난. 싱그난 낭은 소낭 이만썩 헌 거 비영 싱그게 뒌 거 아니? 비영 싱그게 뒈난에 군에서 오란에 소낭 이만썩 헌 거, 빈 거 도장 놓으레[노레] 오란 군에서 서기 오란 이 미깡낭 어떵헹 싱그젠 헴수광? 허난에 어떵헤여, 이 뿔리영 믄 파뒁 싱그켄 허난 놈 싱경은에 삼 년 뒌 거보다 더 잘됩니덴. 어찌어찌 구뎅이만 팡인에 삼년 생이난 싱거만 놓으민[노민] 놈 삼 년 심근 거보단 이상 뒙니덴. 기추룩 허난 그 낭뿔리 이만썩 헌 걸 창창 비어네 눅젼에 도장 놓으레[노레] 온 사름이 경 ᄀᆞᆯ으난 그 낭뿔리 벋어가던 것이 다 얽어졋주게. 경 허민 어떵 파당 보민 허민 톱으로 쌋다 ᄉᆞ뭇 나대로 그찻다 혜영 어떵헹 앚지멍 싱그는디 우리가 가멍 보민 그 저끗듸 우리 밧 저끗듸 벌통 논 사름 이서.(따러 가니까 이웃집 사람도 같이 가면서 뭐하러 갑니까? 하니까 새 나무에 귤 다섯 컨테이너 열었다고 하면서 따러 간다 하니까 같이 가서 보자고 하니까 스무 컨테이너도 더 나. 어이구 우리 귤은 '자바라'라고 한 거. 일본서 묘목 말해서 밭 빌려서 그 밭 매고 나면 심어 줄 거라고 심으니까 한 넘으니까 이거 팔지 못해서 할 때 우리 가서 그거 사다가 심으니까. 심으니까 나무는 소나무 이만큼씩 한 거 베어서 심게 된 거 아니? 베어서 심게 되니까 군에서 와서 소나무 이만큼씩 한 거, 벤 거 도장 놓으러 오니까 군에서 서기 와서

77) '우추다'는 위로 올리다는 뜻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78) '자바라'는 귤의 품종을 말한다.

이 귤나무 어떻게 해서 심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 이 뿌리랑 모두 파두고 심겠다고 하니까 남 심어서 삼 년 된 거보다 잘된다고. 어찌어찌 구덩이만 파서 삼 년생이니까 심어만 놓으면 남 산 면 심은 거보단 이상 된다고. 그처럼 하니까 그 나무뿌리 이만큼씩 한 걸 창창 베어서 눕혀서 도장 놓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나무뿌리 벋어가던 것이 다 얽어졌지. 그러면 어떻게 파다가 보면 하면 톱으로 켰다 사뭇 나대로 잘랐다 해서 어떻게 해서 앉히면서 심는데 우리가 가면서 보면 그 곁에 우리 밭 곁에 벌통 놓은 사람 있어.)

103067 @ 예.(예.)

103067 # 육지서 옛날엔 벌통 이디 제주도 하영 오라낫저게. 경 허믄 그 수도에 오라근에 그 물 스피카통 같은 걸루 하나 졍 가. 졍 가난 우리 저 이 스피카통 서너 개 씻어 나둬신게 씻어근에 톡허게 씻엉 물 시껑 급서, 물 시껑강 뭣허젠? 허난에 시껑 급서. 나가 수단껏 허쿠덴. 싯껑 간에 이젠 그 벌장시ᄀᆞ라 이 벌도 물 먹는 따문 벌도 저 그릇에 물도 놓고 헤라게. 경 허난 이 물 시껑 오라시메 어디다 놘에 벌도 주고 먹고 허렌 허난이 고마운ᄀᆞ라, 그 사름 그 작산 거 삼천오백 평이주게, 구뎅이 파는디 매날 오랑 ᄀᆞ치 혜줘. ᄀᆞ치혜주난 그 낭 싱거시녜게. 경 허난게 그 사름 나도 페우난 그 사름 싱거준 거 아이가? 게믄이 자꾸 상추도 헤영 강 먹으렌도 주곡이 꿀도 따지난 꿀도 줘라. 서로 고마와 붸엉. 경 허멍 살앗저, 우린.(육지서 옛날엔 벌통 여기 제주도 많이 왔었어. 그러면 그 수도에 와서 그 물 '스피카통' 같은 걸로 하나 져서 가. 져서 가니까 우리 저 이 '스피카통' 서너 개 씻어 놔뒀는데 씻어서 톡하게 씻어서 물 실어서 갑시다, 물 실어가서 뭐하려고? 하니까 실어서 갑시다, 내가 수단껏 하겠다고, 실어서 가서 이제 그 벌장사보고 이 벌도 물 먹는 때문 벌도 저 그릇에 물도 놓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물 실어서 왔으니까 어디다 놔서 벌도 주고 먹고 하라고 하니까 고마운지, 그 사람 그 많은 거 삼천오백 평이지, 구덩이 파는데 매일 와서 같이 해줘. 같이 해주니까 그 나무 심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나도 펴니까 그 사람 심어준 거 아니냐? 그러면 자꾸 상추도 해서 가서 먹으라고도 주고 꿀도 따니까 꿀도 주더라. 서로 고마워 보여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우리.)

103067 @ 거난 이젠 미깡을 제일 하영 허잖아예?(그러니까 이젠 귤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103067 # 젤 하영 허연 미깡 그때엔 막 여난 일사 막 걸릴 때라. 막 잘 열안 일사 걸리난에 우리 삼 년을 쌋저, 미깡. 일사 걸린 걸 신문지로 고무줄 베개만이 헌 걸 사당은에 홀목에 고무줄 걸령 신문지 반 열앙 ᄉᆞ령 신문지로 미깡 싸고 미깡 싸고 혜염시난 두 해째 쌈시난이 두 해째 싸는 해엔 어떤 사름이 넘어가단에 우리 바리멍 아이고 영감네 농사 잘 지엇어요 헤라게 들어오멍. 허난에 예 허멍 뭣허러 온 양반이여? 우리 하르방이 허난 극조생 사레 왓어요 허난 내중에랑 이것도 사 가렌 허난 그러지요 허멍 헤연. 아이고 미깡 엄청나게 잘 열앗네 헤라게.(제일 많이 해서 귤 그땐 막 열리니까 일사병 막 걸릴 때야. 아주 잘 열어서 일사병 걸리니까 우린

삼년을 쌌다, 귤. 일사병 걸린 걸 신문지로 고무질 베개만큼 한 걸 사다가 손목에 고무줄 걸려서 신문지 반 열어서 사려서 신문지로 귤 싸고 귤 싸고 하고 있으니까 두 해째 싸고 있으니까 두 해째 싸는 해엔 어떤 사람이 넘어가다가 우리 보면서 아이고 영감네 농사 잘 지었어요 하더라 들어오면서. 하니까 예 하면서 뭣하러 온 양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하니까 극조생 사러 왔어요 하니까 나중에랑 이것도 사가라고 하니까 그러지요 하면서 했어. 아이고 귤 엄청나게 잘 열었네 하더라.)

103067 @ 예.(예.)

103067 # 경 허난 경 허켄 허단에 이젠 흔 극조생 산에 그 사름네가 우리 미깡이 극조생 탕인에 거자 이제 두불 죽게 뒈가민 익는 미깡이라. 경헌디 두불 타게 안뒌디 ᄒᆞ루 오란에 아래 거 영 걷엉 보난에 퍼렁하지 안혜영 새울새울 혜연게. 색깔이. 혜슬혜슬 허난 이젠 또 신문지 싼 거 영 벳견 보난 퍼렁허질 안혜연. 경 허난에 영감 이제 이거 안 팔겟어요? 허난 사가켄 허믄 이제라도 풀지요, 허난이 두 차만 타주세요. 이천 관이. 두 차만 타주세요. 경 허렌 헹 두 차 탄에 콘테나 시꺼 와선게 두 차 탄에 콘테나에 탁탁 제겨 놓으난[노난] 무시거 요만썩 헌 거 헤뜩헤뜩헨 거 놘에 오늘 놓으난에[노난에] 모리 놓으난에[노난에] 싹 비니루 걷엉 탁 시끄젠 헹 보난 노랑하게 고와라게.(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젠 한 극조생 사서 그 사람네가 우리 귤이 극조생 따서 거의 이제 두벌 죽게 도어 가면 익는 귤이야. 그런데 두벌 따게 안 되었는데 하루 와서 아래 것 이렇게 걷어서 보니까 퍼렇지 않고 '새울새울' 했어, 색깔이. '헤슬헤슬' 하니까 이젠 또 신문지 싼 거 이렇게 벗겨서 보니까 퍼렇지 않아. 그러니까 영감 이제 이거 안 팔겠어요? 하니까 사가겠다고 하면 이제라도 팔지요, 하니까 두 차만 따주세요. 이천 관. 두 차만 따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두 차 따서 컨테이너에 탁탁 쌓아 놓으니까 무엇 요만큼씩 한 거 히뜩히뜩한 거 놔서 오늘 놓으니까 모래 놓으니까 싹 비닐 걷어서 딱 실으려고 해서 보니까 노랗게 곱더라.)

103067 @ 약 놘에?(약 놔서?)

103067 # 응, 경 허난 그자 그 밧듸 거 무데기로 무데기로 영감 얼마 받으켄 허난 삼천오백 아이 주카 허난 아이고 영감 너미 과혜요, 과혜요 허난 받을 말 하세요, 받을 말 하세요, 막 헤라게. 경 허난 얼말 줄첸 허난에 삼천이백 주켄. 삼천 이백 주켄 허난에 우리 하르방은 그러믄 안 풀켄. 이젠 다른 사름 아는 사람도 싯곡 안 풀켄 허난 게민 어서 삼천오백에 헙시다 허연이 삼 년간을 계속 그 사름 ᄋᆞ져간. 삼 년간을 익건 ᄋᆞ져가. 경 허영 올 때엔 일반미 ᄒᆞ나 찹쌀 흔 가멩이, 두 가멩이 어져와. 미깡 사레 오민 나 들앙 뎅기멍 극조생 밧 ᄀᆞ르쳥 믄 사곡 밧떼기로 타놔기네 창고떼기 믄 사주곡 허민 그거 섣달 그믐도록 우리가 담아주곡 헷주게. 경 헹 돈 벌어져라, 그때. 이 겁나게 벌엇어.(응, 그러니까 그저 그 밭의 거 무더기로 무더기로 영감 얼마 받겠다고 하니까 삼천오백 안 줄까 하니까 아이고 영감 너무 과해요, 과해요 하니까 받을 말하세요, 받을 말하세요, 막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냐고 하니까 삼천이백 주겠다고. 삼천이백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

러면 안 팔겠다고. 이젠 다른 사람 아는 사람도 있고 안 팔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서 삼천오백에 합시다 해서 삼 년간을 계속 그 사람 가져갔어. 삼 년간을 익으면 가져가. 그래서 올 때엔 일반미 하나 찹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가져와. 귤 사러 오면 나 데리고 다니면서 극조생 밭 가르쳐서 모두 사고 밭떼기로 따 놔서 창고떼기 모두 사주고 하면 그거 섣달 그믐도록 우리가 담아주고 했지. 그렇게 해서 돈 벌게 되더라, 그때. 이 겁나게 벌었어.)

103067 @ 겁나게 벌언? 전이 뭐 무신 씨 헹은에 어디 풀레 가고 헤낫젠 헌 건 무신거?(겁나게 벌었어? 전에 뭐 무슨 씨 해서 어디 팔러 가고 했었다고 한 건 무엇?)

103067 # 무시거?(무엇?)

103067 @ 무신 씨 헤근에 어디 풀레 가낫덴 허멍.(무슨 씨 해서 어디 팔러 갔었다고 하면서.)

103067 # 무신 씨?(무슨 씨?)

103067 @ 어디 뭐, 무신 씨엔 골아라마는?(어디 뭐, 무슨 씨라고 말하더라마는?)

103067 # 지슬씨 저 수망리[79] 강 지슬씨 사당.(감자씨 저 수망리 가서 감자씨 사다가.)

103067 @ 씨장시 헤낫덴 허멍. 그건 어떵 헤난 거꽈?(씨장사 했었다고 하면서 그건 어떻게 했던 겁니까?)

103067 # 큰 차로 강은에 수망리 강은에 지슬 구뎅이 판 거 강 보민 수망리엔 헌 딘 남원리 옷귀, 수망리옌 헌 딘이 보리도 안 갈곡 여름 곡석도 안 뒈는 데라. 보리 갈안이 영 복다리 벗지 안헨에 몰라불엇더라게. 게난 이딘 보리 갈앙 아이 뒌덴. 보리 갈앙 캐도 아니헙니다. 내가 쏠 ᄋᆞ정 강 이장네 집이서 그 쏠로 밥헹 먹어가난 이장 각시가 아이고 그 쌀라근에 우리 줘둬 갑센 허멍 줘둬 갑센 허난 줘두고 그 집이 쏠로 밥을 헹 먹젠 허난 밥을 난 물 맞추지 못헤라게. 사락사락[80] 허난. 경 허난 이젠 밥 먹고프도 아이 허고 허난 이젠 라면 사단이 나 산뒤쌀 ᄋᆞ정 갓주게.(큰 차로 가서 수망리 가서 감자 구덩이 판 거 가서 보면 수망리라고 한 덴 남원리 의귀, 수망리라고 한 덴 보리도 안 갈고 여름 곡식도 안 되는 데야. 보리 갈아서 이렇게 겨 벗지 않아서 말라버렸더라. 그러니까 여긴 보리 갈아서 안 된다고. 보리 갈아서 패지도 않습니다. 내가 쌀 가져서 가서 이장네 집에서 그 쌀로 밥해서 먹어가니까 이장 부인이 아이고 그 쌀은 우리 줘두고 가라고 하면서 줘두고 가라고 하니까 줘두고 그 집의 쌀로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난 물 맞추지 못하더라. 사락사락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이젠 라면 사다가 나 밭벼쌀 가져갔지.)

103067 @ 그거 언제꽈, 게난? 멧 살 때쯤이?(그거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몇 살

79) '수망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80) '사락사락'은 밥 등이 설익거나 풀기가 없어서 껄끄러운 모양이다.

때쯤에?)

103067 # 그것이 나가 멧 살이엇인고이?(그것이 내가 몇 살이었는고?)

103067 @ 쉰 뒈영?(쉰 되어서?)

103067 # 쉰은 뒛주게. 쉰, 흔 마흔일곱, 여답에 뒈실 거라. 그때 이젠 산뒤쌀 ᄋᆞ졍간에 산뒤쌀 익을 만허난 라면 대여섯 개 풀어놘에 이 따뜻하게 이젠 저냑 점 멘들앗주게. 게난 이장네도 두가시허곡 시어멍 시아방네도 셔라게. 게난 옵센 헹 헤연에 나 이상헌 거 헷수다 오랑 먹읍센 허난, 야 이거 벨 거 먹어졈젠이. 곤쌀 놧단이 라면 놘 푸난이 그렇게 라면 스프 놓곡 허난이 맛 좋아. 아이고 영도 헹 먹읍네깡 허난 이거 영 헹 먹어보지 안헷저마는 나 흔번 헤봐수덴 헤연이 경 허난 하르방도 이거 벨 거 다 헹 먹어졈젠 허멍 헨디 그딘 어욱 비어단 이파리 그치멍 불 솜곡 어욱댄 뭣헙니깡 허난 거적 여껑인에 영 비슥허게 놓으민[노민] 밧드레 영 비슥허게 놓으민[노민] 무수 썰어근에 생기리 지쳥 그것에 ᄆᆞᆯ린덴 그딘.(쉰은 됐지. 쉰, 한 마흔일곱, 여덟에 되었을 거야. 그때 이젠 밭벼쌀 가져가서 밭벼쌀 익을 만하니까 라면 대여섯 개 풀어놔서 이 따뜻하게 이젠 저녁 겸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장네 부부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네도 있더라. 그러니까 오시라고 해서 해서 나 이상한 거 했습니다. 와서 드세요 하니까, 야 이거 별 거 먹게 된다고. 흰쌀 놨다가 라면 넣어서 푸니까 그렇게 라면 스프 놓고 하니까 맛 좋아. 아이고 이렇게도 해서 먹습니까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먹어보지 않았다마는 나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거 별 거 다 해서 먹게 된다고 하면서 했는데 거긴 억새 베어다가 이파리 자르면서 불 때고 억새줄기는 뭐합니까 하니까 거적 엮어서 이렇게 비슥하게 놓으면 밭에 이렇게 비슥하게 놓으면 무 썰어서 무말랭이 끼얹어서 그것에 말린대 거긴.)

103067 @ 응.(응.)

103067 # 무수만 뒈주 아무것도 안 뒌덴. 경헹 미깡밧도 뒈는 디도 없고 밋밋 돔박낭만 신 디라라. 경헌 디란게 지네 집에 오랑은에 돔박 타당 동박 지름허영 아픈 사름도 먹엉 좋고 폐병 들린 사름도 먹엉 좋넨 막 허난. 경헹 나 감자씨 한 차 싯껑 오란 사름들신디 줄 때 보난에 가이 봐지난 야 니네 돔박낭 어떵 헤시니? 허난 막 버렝이 일언에 ᄉᆞ뭇 버렝이 일언 마루레 기어가난 우리 우영밧듸 건 제초제 헤불엇수다. 허난 아이고야 무사 그거 헤시니게 니 돔박지름 빠 먹으컬게. 돔박지름 니 빵 먹으민 좋넨 헤라게.(무만 되지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귤밭도 되는 데도 없고 '밋밋' 동백나무만 있는 데더라. 그런 데던데 자기네 집에 와서 동백 따다가 동백 기름해서 아픈 사람도 먹어서 좋고 폐병 걸린 사람도 먹어서 좋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나 감자씨 한 차 실어서 와서 사람들에게 줄 때 보니까 걔 보이니까 야 너희 동백나무 어떻게 했니? 하니까 막 벌레 일어서 사뭇 벌레 일어서 마루로 기어가니까 우리 텃밭의 건 제초제 해버렸습니다. 하니까 아이고야 왜 그거 했니 너 동백기름 빼 먹을걸. 동백기름 너 빼서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

103067 @ 응.(응.)

103067 # 니 그거 빵 먹으렌 허난 그 우녁 펜이 놈이 밧딜로 간 딘 잇수덴. 야 그 돔박기름 빤 먹어가난 그긴 가인 오꼿 도망가 불언게. 도망가 부난 막 좋으난 [조난] 가이 어멍이 오랑은에 돔박 이거 줏어 나둬시난 한 말 ᄋᆞ정강인에 지름 빠 먹으라 먹으라 허건데 뒛수덴 허멍 나도 돔박 산방[81]에 강도 타단에 돔박 지름 빵 아이덜 주곡 허멍 기추룩. 작년도 돔박 지름 두 뒈 빠전게이 아이덜 ᄆᆞ딱 갈란줘시네.(너 그거 빼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 위편의 남의 밭으로 간 덴 있다고. 야 그 동백기름 빼서 먹어가니까 거긴 그 앤 그만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니까 아주 좋아서 그 얘 어머니 와서 동백 이거 주워 놔뒀으니까 한 말 가져가서 기름 빼서 먹어라 먹어라 하길래 됐습니다 하면서 나도 동백 산방산에 가서도 따다가 동백기름 빼서 아이들 주고 하면서 그처럼. 작년도 동백기름 두 되 빼었는데 아이들 모두 갈라줬어.)

103067 @ 예.(예.)

103067 # 게난 올힌 돔박 안 열안 이 낭이영 이 낭이영. 밧듸 잇던 돔박낭 미깡밧 옆이 싱그난에 헤여젼게 올힌 타레 안 가젠. 똘들ᄀᆞ라 타당 먹쿠건 허곡 아니허켄 허젠. 넘은해도 지름 빠난 두 뒈란게 셋똘도 지네 도렌 헨에 지네 서방 아프난 멕이켄 허곡 족은똘도 ᄋᆞ져가 불곡. 이 펫병이영이 거셋병 아픈 사름도 돔박지름 먹으믄 경 좋아.(그러니까 올핸 동백 안 열려서 이 나무랑 이 나무랑. 밭에 있던 동백나무 귤밭 옆에 심으니까 했는데 올핸 따러 안 가려고. 딸들보고 따다가 먹고 싶으면 하고 아니하겠다고 하려고. 지난해도 기름 빼다가 두 되던데 둘째딸도 자기네 달라고 해서 자기네 서방 아프니까 먹이겠다고 하고 막내딸도 가져가 버리고. 이 폐병이랑 거시기병 아픈 사람도 동백기름 먹으면 그렇게 좋아.)

103067 @ 응.(응.)

103067 # 경헹 나 그때 돔박지름 산방에 간 타단에 두어 헤 뒌 후제 우리 요 동녘집이 사름이 저사름 돔박지름 빵 뎅겨나신게 셔? 허난 어뜨난 씸? 허난 어디 서촌서 어뜬 할망 오란 아들 군인 간디 막 아프난 제주도 군인 대장이 제주도 강은에 돔박지름이나 상 먹어보렌 헨 이디 왓젠 허멍 어디 돔박지름 풀 디 시넨 허멍 헹 우리도 이 돔박낭 아이 싱근 때난이 경 허난 전이 나 재작년이 허여난 거 검은 맥주펭으로 하나 잇수덴 헨에 그 할망 주난이 종이돈이라도 주주마는 쉐돈으로 그자 술우렝이 한 줌을 주건데, 나 아이 받으쿠다. 이거 ᄋᆞ정강 아들 먹엉 병 좋으민 난 좋수다. 아니 받으쿠덴 허멍 헹 그냥 받읍서, 받읍서 헤도 아이 받안 줘시네게.(그래서 나 그때 동백기름 산방산에 가서 따다가 두어 해 된 후에 우리 요 동녘집 사람이 당신 동백기름 빼서 다니던데 있어? 하니까 왜요? 하니까 어디 서촌에서 어떤 할머니 와서 아들 군인 갔는데 막 아프니까 제주도 군인 대장이 제주도 가서 동백기름이나 사서 먹어보라고 해서 여기 왔다고 하면서 어디 동백기름 팔 데 있냐고 하면서 해서 우리도 이 동백나무 안 심은 때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에 나 재작년에 했던 거 검은 맥주병으로 하나 있다고 해서 그 할머니 주니까 종이돈이라도 주지마

81) '산방'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을 말하는 것이다.

는 쇠돈으로 그저 살짝 한 줌을 주던데, 나 안 받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아들 먹어서 병 나으면 난 좋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면서 해서 그냥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도 안 받아서 줬어.)

103067 @ 응.(응.)

103067 # 주난 그 동녘집이 사름은 경헌 충 알아시믄 나 도렌 허컬. 지 도렌 허믄 나 돈 받주게이. 그 할망 어디 강 어디 걸엉 오랑이 게난 아이고 아덜 먹엉 좋으민[조민] 뒈수다 허멍 헤시네. 경헹 나 경헤줫저. 난 놈덜 드러 줘진다. 아기덜도 봐지민 드러 돈 주곡. 경 우리 그 하르방 큰아들에 족은 손지 군인갓젠 허난 이젠 돈 십만 원 아무것도 아닌디 그땐 십만 원도 커라. 십만 원 줫저, 나. 니 군인 강 오랑은에 대혹교 들어가민 나 백만 원 주켄 헌디 대혹교 아이 들어가신고라.(주니까 그 동녘집 사람은 그런 줄 알았으면 나 달라고 할걸. 자기 달라고 하면 나 돈 받지. 그 할머니 어디 가서 어디 걸어서 와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 먹어서 좋으면 됐습니다 하면서 했어. 그래서 나 그렇게 해줬어. 난 남들 들이 주게 된다. 아기들도 보이면 들이 돈 주고. 그렇게 우리 그 할아버지 큰아들에 작은 손자 군인 갔다고 하니까 이젠 돈 십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땐 십만 원도 크더라. 십만 원 줬어, 나. 너 군인 갔다와서 대학교 들어가면 나 백만 원 주겠다고 헌데 대학교 안 들어갔는지.)

103067 @ 게민 이제 농사는 그거 이제까지 말한 거 말고 또 다른 건 엇지예?(그러면 이제 농사는 그거 이제까지 말한 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지요?)

103067 # 다른 건 엇어.(다른 건 없어.)

103066 @ 이딘 피나 이런 건 안허지예?(여긴 피나 이런 건 안하지요?)

103066 # 피도 아이 갈아.(피도 안 갈아.)

103068 @ 담배?(담배?)

103068 # 담배는 옛날에 헤난.(담배는 옛날에 했었어.)

103068 @ 헤낫수과?(했었습니까?)

103068 # 응.(응.)

103068 @ 담밴 어떵헹 허는 거꽈?(담배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3068 # 담밴 메 놩 싱경. 싱거근에 입담밴 튿으멍 우리 친정아부지 담배 싱경 그땐 담배도 공출헤나신디. 싱그렌 법이서 ᄂᆞ려왕. 경헹 담배 싱거근에 걸름 잘 줭 싱그민 담배 이파리가 이만썩 허여. 게민 알잎으로 믄 튿앙 집에 오랑인에 이제 여까근에 이런 그늘진 디, 벳 난 디 안 ᄆᆞᆯ려. 그늘진 디 다 연메엉[82] ᄆᆞᆯ리민 발갛게 ᄆᆞᆯ라. 경헤근에 마지막으로 그거 이제 공판헐 땐 시껑가민 썩지 아니허곡 잘 ᄆᆞᆯ리믄 일등으로 값 주곡. 그 시절에 제국 시절에 경 헤낫어.(담배는 모 놔서 심어서. 심어서 잎담배는 뜯으면서 우리 친정아버지 담배 심어서 그땐 담배도 공출했었는데. 심으라고 법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담배 심어서 거름 잘 줘서 심으면 담배 이파리가 이만큼씩 해. 그러면 알잎으로 모두 뜯어서 집에 와서 이제 엮어서 이런 그늘

82) '연메다'는 이어서 매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담뱃잎을 여러 개 이어서 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진 데, 볕 난 데 안 말려. 그늘진 데 다 '연매엉' 말리면 발갛게 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거 이제 공판할 때 실어가면 썩지 않고 잘 말리면 일등으로 값 주고. 그 시절에 제국시절에 그렇게 했었어.)

103068 @ 아, 제국시절에.(아, 제국시절에.)

103068 # 응, 경 허고 또 담배도 삼동초엔 헌 거 이서. 삼동초엔 헌 건이 이파리도 몰리지 안헹이 삼동초엔 헌 건 퍼렁헌 때 이파리 튿어당 썰엉 몰령인에 촌엣 하르방들 담배로 먹는 거, 삼동초. 경헤영 우리 친정아부진 섹유통, 양철 섹유통 둬 개에 잔뜩 담앙 놧당인에 그거 통대로 이만이 담앙인에 파싹파싹 피우곡 허당 하르방 죽어부난 섹유통으로 하나 남아선게. 하나 남으난 요디 늙은 하르방 우져단 주멍. 난 막 놈 주지만 기릅나게.(응, 그리고 또 담배도 삼동초라고 한 거 있어. 삼동초라고 한 건 이파리도 말리지 않고 삼동초라고 한 건 파란 때 이파리 뜯어다가 썰어서 말려서 촌의 할아버지들 담배로 먹는 거, 삼동초. 그렇게 해서 우리 친정아버지 석유통, 양철 석유통 두어 개에 잔뜩 담아서 놨다가 그거 통대로 이만큼 담아서 '파싹파싹' 피우고 하다가 할아버지 죽어버리니까 석유통으로 하나 남았더라. 하나 남으니까 요기 늙은 할아버지 가져다 주면서. 난 마구 남 주고만 싶어.)

103068 @ 담배도 옛날에 헤낫구나예?(담배도 옛날에 했었군요?)

103068 # 응, 삼동초엔 헌 건 그냥 몰리지 안허영 써는 거고. 썰엉 몰리는 거고.(응, 삼동초라고 한 건 그냥 말리지 않고 써는 거고. 썰어서 말리는 거고.)

103068 @ 건 다 이파리로예?(그건 다 이파리로요?)

103068 # 입추엔 헌 건 이파리로 막 몰령 공판에 일, 이등 멕영. 썩지 안허민 일등. 노랑케 그늘에서 몰려.(엽초라고 한 건 이파리로 막 말려서 공판에 일, 이등 먹여서. 썩지 않으면 일등. 노랗게 그늘에서 말려.)

103068 @ 그늘에서 몰려야 뒈는 거?(그늘에서 말려야 되는 거?)

103068 # 응, 그늘에서 몰려사 문딱 여까근에 빈주룽케[83] 세왕 창고에 빈주룽케 걸엉.(응, 그늘에서 말려야 모두 엮어서 '빈주룽케' 세워서 창고에 '빈주룽케' 걸어서.)

103068 @ 뭐에 끼웡?(뭐에 끼워서?)

103068 # 응?(응?)

103068 @ 뭐에 널어?(뭐에 널어?)

103068 # 그거 거적 여끈 거 못 박아근에.(그거 거적 엮은 거 못 박아서.)

103068 @ 줄에 헹은에?(줄에 해서?)

103068 # 줄에 여깡인에. 이 저 누람지 여끄듯이 여끈 거 영 돌아메엉.(줄에 엮어서. 이 저 이엉 엮듯이 엮은 거 이렇게 달아매서.)

103068 @ 아, 창고에?(아, 창고에?)

103068 # 응, 창고에 빈주룽케.(응, 창고에 '빈주룽케'.)

103068 @ 건 옛날에 제국시대에만 허고 그다음에는 안 헷지예?(그건 옛날 제국

83) '빈주룽케'는 흔히 널려 있거나 눈에 잘 보이게라는 뜻이다.

시대에만 하고 그다음에는 안 했지요?)
103068 # 응, 제국시대에. 제국시대. 일본 시대에이.(응, 제국시대에. 제국시대. 일본 시대에.)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옛날에 쉐 질롸낫주예? 할머니네 집이서. 쉐 질롸난 말 ᄒᆞ꼼 물어보쿠다예? 쉔 어떵 질릅니까?(옛날에 소 길렀었지요? 할머니네 집에서. 소 길렀던 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요.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 쉐 어떵 질르느니? 암쉐 질루민 부렝이 촞이민 부렝이 놓으민[노민] 새끼 나곡.(소 어떻게 기르니? 암소 기르면 부룽이 찾으면 부룽이 놓으면 새끼 낳고.)
104002 @ 쉐도 종류가 막 여러 개지예?(소도 종류가 아주 여러 개지요?)
104002 # 게.(그렇지.)
104002 @ 무신 이름 ᄒᆞ꼼 ᄀᆞᆯ아봅서.(무슨 이름 조금 말해주십시오.)
104002 # 일름 젯 빠는 소도 잇곡 그냥 새끼 나는 토종도 잇고 경 허난.(이름 젓 빼는 소도 있고 그냥 새끼 낳는 토종도 있고 그러니까.)
104002 @ 아니 색깔에 따라서.(아니 색깔에 따라서.)
104002 # 색깔에 노랑쉐도 잇곡, 검은쉐도 잇곡 얼룩달룩한 쉐도 잇곡, 우린 노랑쉐만 질롼.(색깔에 누렁소도 있고, 검정소도 있고 얼룩덜룩한 소도 있고, 우린 누렁소만 길렀어.)
104002 @ 노랑쉐만 질롼? 이 뿔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 여러 개로 불릅니까?(누렁소만 길렀어? 이 뿔 모양에 따라서 이름 여러 개로 부릅니까?)
104002 # 뿔도 여러 갈로 불러도.(뿔도 여러 갈래로 불러도.)
104002 @ 뿔 영 뭰 쉔 뭐렌 ᄀᆞᆯ아?(뿔 이렇게 된 손 뭐라고 말해?)
104002 # 바로 난 뿔이 좋은 거주게.(바로 난 뿔이 좋은 거지.)
104002 @ 옆으로 영 난 건?(옆으로 이렇게 난 건?)
104002 # 그건 몰라. 그런 건.(그건 몰라. 그런 건.)
104002 @ 영 오그라진 것도 잇지 안헤?(이렇게 오그라진 것도 있지 않아?)
104002 # 에유 저 쉐 뿔 오그라젼에, 오그라진 건 막 뭐 허여.(에유 저 소 뿔 오그라져서, 오그라진 건 막 뭐해.)
104002 @ 뭐 허여?(뭐 해?)
104002 # 오그라진 쉐뿔 오그라진 건 잘 엇어.(오그라진 쇠뿔 오그라진 건 잘 없어.)
104002 @ 아, 잘 엇어? 소는 보통 뭐헐 때 씁니까?(아, 잘 없어? 소는 보통 뭐

할 때 씁니까?)

104003 # 소 뭣 헐 때 쓰느냐? 윽으면은 밧 가는 거, 짐 시끄는 거 베와근에 짐 시끄고 새끼 나는 암쉔 새끼 내우고.(소 뭐 할 때 쓰니? 크면 밭 가는 거, 짐 싣는 거 배워서 짐 싣고 새끼 낳는 암손 새끼 낳고.)

104003 @ 쉐 처음에 처음부터 밧을 잘 갈진 않을 거 아니꽈예? 어떵 질들입니까?(소 처음에 처음부터 밭을 잘 갈진 않을 거 아닙니까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 쉐 체음에 코 뀌영 밧 가는 거 ᄀᆞ리치젠 허민 코 뀌영은에 밧듸 강 남자 어른은 그 잠데 메우곡 코 뀐 건 이제 이끄렌 헤영 코 뀌기, 코 잘못 허민 문 돌아나젠 바들랑바들랑허민 그 코 영 뀐 거, 뀐 걸 딱 심어근에 영 헹 이꺼가고 쉐 부랑하민 코 뀐 더레 낭을 큰큰한 낭을 영 대영 꼬딱도 못허게 헤영인에 밧 가는 거 ᄀᆞ리쳐. 앞이 이끄는 사름이 셔.(소 처음에 코 꿰어서 밭 가는 거 가르치려고 하면 코 꿰어서 밭에 가서 남자 어른은 그 쟁기 메우고 코 꿴 건 이제 이끌라고 해서 코 꿰기, 코 잘못 하면 모두 달아나려고 바둥바둥하면 그 코 이렇게 꿴 거, 꿴 걸 딱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소 부랑하면 코 꿴 데에 나무를 큰 나무를 이렇게 대어서 까딱도 못하게 해서 밭 가는 거 가르쳐. 앞에 이끄는 사람이 있어.)

104004 @ 이 코 영 뀐 건 무신거렌 골아?(이 코 이렇게 꿴 건 무엇이라고 말해?)

104004 # 코 뀌우는 거렌 헤.(코 꿰는 거라고 해.)

104002 @ 이름 뭐? 코 뀌는 거 그냥?(이름 뭐? 코 꿰는 거 그냥?)

104002 # 응, 저 밧 갈젠 허난 코 뀌엇구나게 허멍 ᄀᆞ르치젠 헴수다 헤영, 쉐 ᄀᆞ리치젠 헴젠 경헤근에 허민 쉐 고개 센 건 안 셍은에 어진 건이 그냥 이 성만이 코 뀐 걸로 코빼기 심어도 졸졸 가는디, 행실머리 나쁜 건이 고개 털멍 난리가 나민 낭 이만이 헌 걸로 허영은에 바짝허영 피뜰락도 못허게 앞이 이끄는 사름이 이끄렌 헤여.(응, 저 밭 갈려고 하니까 코 꿰었구나 하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해서, 소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면 소 고개 센 건 안 세서 어진 건 그냥 이 성만큼 코 꿴 걸로 코빼기 잡아도 졸졸 가는데, 행실머리 나쁜 건 고개 떨면서 난리가 나면 나무 이만큼 한 걸로 해서 바짝해서 꼼짝도 못하게 앞에 이끄는 사람이 이끌라고 해.)

104004 @ 무사 돌도 끗읍니까?(왜 돌도 끝니까?)

104004 # 돌도 건 밧 갈 때 ᄀᆞ리치는 거.(돌도 그건 밭 갈 때 가르치는 거.)

104004 @ 그건 어떵헹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4004 # 돌 고냥 똘라진 큰 돌 잇주게. 게민 멍에 씌왕은에 그 잠데 메우는 것에 끼왕인에 거리 빙빙 세세 ᄀᆞ리쳐. 문 길로 뎅기멍 ᄀᆞ리쳐.(돌 구멍 뚫린 큰 돌 있지. 그러면 멍에 씌워서 그 쟁기 메우는 것에 끼워서 거리 빙빙 '세세' 가르쳐. 모두 길로 다니면서 가르쳐.)

104004 @ 그거 무신 돌이엔 골아?(그거 무슨 돌이라고 말해?)

104004 # 그거 쉐 ᄀᆞ리치는 돌이 이섯서. 큰큰헌 돌 넙쩍허연 ᄀᆞ냥 똘라지민 낭

찔렁은에 그 낭에 똥꼬냥에 메영.(그거 소 가르치는 돌이 있었어. 크디큰 돌 넓적해서 그냥 뚫리면 나무 찔러서 그 나무에 엉덩이에 매어서.)

104005 @ 쉐도 나이에 따랑 ᄀᆞᆫ는 말 잇주예? ᄒᆞᆫ 살은 무신거옌 ᄀᆞᆯ아?(소도 나이에 따라서 말하는 말 있지요? 한 살은 무엇이라고 말해?)

104005 # ᄒᆞᆫ 솔은 금승, 두 솔은 다간, 세 솔은 사릅. 그거는 그거뿐.(한 살은 하릅, 두 살은 두습, 세 살은 사릅, 그거는 그거뿐.)

104005 @ 그거뿐? 세 솔ᄁᆞ지벳긔 안 헤?(그거뿐? 세 살까지밖에 안 해?)

104005 # 금승, 다간, 사릅. 사릅은 사릅 뒈민 어른 구실헌다.(하릅, 두습, 사릅. 사릅은 사릅 되면 어른 구실한다.)

104005 @ 어른 구실허는 거예.(어른 구실하는 거요.)

104005 # 응, 밧도 갈곡.(응, 밭도 갈고.)

104006 @ 그다음에 게민 아까 잠데 메왕은에 밧 갑니께? 잠데는 일름이 막 여러 가지 잇수과? 잠데 무신거 무신거 잇수과?(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쟁기 메워서 밭 갈잖습니까? 쟁기는 이름이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까? 쟁기 무엇 무엇 있습니까?)

104006 # 이거 심는 건 잠데 거 뭣이렌 헷저마는.(이거 잡는 건 쟁기 거 무엇이라고 했다마는.)

104006 @ 양중머리?(‘양중머리’?)

104006 # 양중머리[84]. 양중머리 심으라, 심으라, 심으라 헹 양중머리 심엉은에 허곡 또시.(‘양중머리’. ‘양중머리’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해서 ‘양중머리’ 잡아서 하고 또.)

104006 @ 벳도 잇고예?(볏도 있고요?)

104006 # 벳도 잇고, 그 무신거 잠데에 걸려 메는 거, 거ᄀᆞ라 머시여 헷저마는 무신 코엔 헷저마는 잊어불언 몰르켜.(볏도 있고, 그 무엇 쟁기에 걸어 매는 거, 그것보고 무엇이다 했다마는 무슨 코라고 했다마는 잊어버려서 모르겠어.)

104006 @ 잘 생각헤 봐 할머니, 생각나는 거 엇수과?(잘 생각해 봐 할머니,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04006 # 잊어불언 뭐. 옛날에 난 쉐 ᄀᆞ리치는디 쉐 이껀 더러 쉐 이껀 헤나곡 밧도 쉐로 헤나곡 헤나난.(잊어버려서 뭐. 옛날에 난 소 가르치는데 소 이끌어서 더러 소 이끌어서 했었고 밭도 소로 했었고 했었어.)

104006 @ 헤나신디.(했었는데.)

104006 # 응, 잘 몰르켜.(응, 잘 모르겠어.)

104006 @ 예, 여기 다 가졍와수다. 한번 봐 봅서.(예, 여기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104006 # 이건, 이건 뭣이엔 헤신고?(이건, 이건 무엇이라고 했는고?)

104006 @ 이게 양중머리.(이게 ‘양중머리’.)

84) ‘양중머리’는 쟁기술의 우두머리 끝에 질러 박힌 가로나무를 말한다.

104006 # 양중머리, 이건 벳, 이건 보섭.(‘양중머리’, 이건 벳, 이건 보습.)

104006 @ 그다음에.(그다음에.)

104006 # 이건 쉐 돌아매는 뭣인고? (이건 소 달아매는 무엇인고?)

104006 @ 이건 뭐엔 골아?(이건 뭐라고 말해?)

104006 # 잠데.(잠데.)

104006 @ 요건?(요건?)

104006 # 그 무슨거옌 헤라마는, 뭣이렌 헤라마는 잊어불언.(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마는, 뭐라고 하더라마는 잊어버렸어.)

104006 @ 이건 무신거라 이건? 쉐에 걸려메는 거?(이건 무엇이야 이건? 소에 걸려매는 거?)

104006 # 멍에. 이건 무슨 모가지에 걸리는 거 잊어불언.(멍에. 이건 무슨 모가지에 걸리는 거 잊어버렸어.)

104006 @ 접게.(‘접게’.)

104006 # 접게[85]. 이건 쉐 멍에에 접게, 이건 쉐 멍에 다 잇구나게.(‘접게’. 이건 소 멍에의 ‘접게’, 이건 소 멍에 다 있구나.)

104006 @ 게난 이디 저 인성리에서는 무신거옌 골아나신고 헨에.(그러니까 여기 저 인성리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었는가 해서.)

104006 # 꼭ᄀᆞ타. 멍에여, 쉐 무시거여 다 ᄀᆞ타.(똑같아. 멍에며, 소 무엇이며 다 같아.)

104006 @ 질메는? 아고 질메가 없네.(길마는? 아고 길마가 없네.)

104006 # 쉐질메.(소길마.)

104006 @ 쉐질메, 질메는 질메도 이름이 여러 개 이수과?(소길마, 길마는 길마도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까?)

104006 # 신디 엇인디 뭐.(있는지 없는지 뭐.)

104006 @ 질메에 뭐 앞가지 잇고 뒤에 잇고 뭐 넣는 거 잇고 쉐 우티 놓는 거 잇고 영 안 헤?(길마에 뭐 앞가지 있고 뒤에 있고 뭐 넣는 거 있고 소 위에 놓는 거 있고 이렇게 안 해?)

104006 # 멍에 싯곡 쉐 등퀘.(멍에 있고 소 떰치.)

104006 @ 등퀘 잇고.(떰치 있고.)

104006 # 쉐질멧가지, 등퀘 위 쉐질멧가진 걸치고.(소길맛가지, 떰치 위 소길맛가진 걸치고.)

104006 @ 무신거라, 다시 이건 질멧가지예? 요 이디 밑에 영 저 아까 등퀘 끌앙예. 요건 뭐라 요건 쉐 궁둥이레.(무엇이야, 다시 이건 길맛가지요? 요 여기 밑에 이렇게 저 아까 떰치 깔아서요. 요건 뭐야 요건 소 엉덩이에.)

104006 # 쉐 조름에 허는 거.(소 뒤에 하는 거.)

104006 @ 응, 이름 뭐라?(응, 이름 뭐야?)

85) ‘접게’는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는 나뭇가지다.

104006 # 양중머리렌 무신건가? 무신거? 몰라, 나도 잊어불언.(양지머리라고 무엇인가? 무엇? 몰라, 나도 잊어버렸어.)

1040062 @ 이름 잊어불언예?(이름 잊어버렸어요?)

104006 # 나도 쉐로 밧 갈곡 헹 다 알아젼게 이건 산테[86].(나도 소로 밭 갈고 해서 다 알았는데 이건 '산테'.)

104009 @ 게민 할머니 옛날에 쉐 목장에도 올려 보내고 헙니까? 그건 어떵 허는 거?(그러면 할머니 옛날에 소 목장에도 올려 보내고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거?)

104009 # 목장에 저 고지 강 놓는 거주게.(목장에 저 숲에 가서 놓는 거지.)

104009 @ 언제?(언제?)

104009 # 봄 나민 겨울엔 막에서 멧당 봄 나근에 풀이 막 남직허민 농서 끗나민 목장에 다 올려. 올령인에 또시 일할 때만 또 몰아당은에 일허곡.(봄 나면 겨울엔 막에서 맸다가 봄 나서 풀이 날 것 같으면 농사 끝나면 목장에 다 올려. 올려서 또 일할 때만 또 몰아다가 일하고.)

104009 @ 그믄 저 마을 사람들이 흔 명씩 대표로 헹 돌아가멍 허는가?(그러면 저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대표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가?)

104009 # 돌아가멍도 보곡 이녁만썩도 보곡. 이 보성은 ᄆᆞ을 목장이 막 널르고 물도 좋곡 허난이 목장에 보는 사름이 딱 이서. 그 목장에 쉐 어디 다른 목장드레 튀어 나는 수도 싯곡 또 다른 세계 사름이 그디 오는 수도 싯곡, 목장에서 살멍 목장에 집 짓언에 보성은이 목장에 집 짓어근에 그 목장 직허는 사름 일 년에 보리 한 말썩 각 호에서.(돌아가면서도 보고 자기만큼씩도 보고. 이 보성은 마을 목장이 아주 넓고 물도 좋고 하니까 목장에 보는 사람이 딱 있어. 그 목장에 소 어디 다른 목장으로 뛰어 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세계 사람이 거기 오는 수도 있고, 목장에서 살면서 목장에 집 지어서 보성은 목장에 집 지어서 그 목장 지키는 사람 일 년에 보리 한 말씩 각 호에서.)

104009 @ 그믄 뭐렌 골아? 테우리?(그러면 뭐라고 말해? '테우리'?)

104009 # 응, ᄆᆞ쉬 보는 테우리. 경 허영 살멍 그 보리 받앙은에 살앗어. 보성만 경헷주. 인성더레 안성더레도 고지 쉐 올리는 사름이 잘 엇어난. 보성은이 쉐가 하곡이 보성 목장에 집 짓엉 그 쉐 보는 사름 쉐 흔 마리에 얼마썩 받앙은에 허는 사름 이서낫어. 보성이 막 살기 좋곡 보성 목장에 물 좋곡, 물도 좋아. 이 구억 사름들이 보성 목장에 오랑 물 져당 먹곡 헷더라, 그때. 보성은이 목장더레도 산물코지[87]렌 헌 데 잇엇어. 산물 나는 것도 잇곡. 그냥 소 먹는 물도 선헌 디, 밧듸 바당물만썩 헌 거 이서. 경헌디 이제 목장 파장뒈 부난.(응, 마소 보는 '테우리'. 그렇게 해서 살면서 그 보리 받아서 살았어. 보성만 그렇게 했지. 인성으로 안성으로도 숲소 올리는 사람이 잘 없었어. 보성은 소가 많고 보성 목장에 집 지어서 그 소 보는

86) '산테'는 긴 두 나무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가마처럼 앞뒤로 들게 한 들것이다.
87) '산물코지'는 대정읍 보성리의 한 지명이다.

사람 소 한 마리에 얼마씩 받아서 하는 사람 있었어. 보성이 아주 살기 좋고 보성 목장에 물 좋고, 물도 좋아. 이 구억 사람들이 보성 목장에 와서 물 져다가 먹고 했더라, 그때. 보성은 목장으로도 '산물코지'라고 한 데 있었어. 산물 나는 것도 있고. 그냥 소 먹는 물도 선한 데, 밭에 바닷물만큼씩 한 거 있어. 그런데 이제 목장 파장돼 버리니까.)

104009 @ 마을 목장 관리하는 건 마을 사름들이 다 같이 허는 거지예?(마을 목장 관리하는 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지요?)

104009 # 마을 사름들이 봄 나민이 강은에 다 가시낭덜 비곡 어욱밧덜 불 부찌곡 허영 새순 나게시리덜 호당 가, 쉐 질르는 사름덜 호당 강은에 어욱에 부치곡 허영 가시 자왈덜도 더러 비어불곡 허민.(마을 사람들이 봄 나면 가서 다 가시나무들 베고 억새밭들 불 붙이고 해서 새순 나게끔들 호마다 가, 소 기르는 사람들 호마다 가서 억새에 붙이고 해서 가시 덤불들도 더러 베어버리고 하면.)

104009 @ 호당 가? 그거 아까 그거 무신거?(호마다 가? 그거 아까 그건 무엇?)

104009 # 그 동네 사름 다. 흔 집이 사름덜 ᄒᆞ나썩 다 가.(그 동네 사람 다. 한 집에 사람들 하나씩 다 가.)

104009 @ 흔 집에 ᄒᆞ나썩?(한 집에 하나씩?)

104009 # 응, 다 가. 다 강은에 그추룩 허곡 담 널어진 데 다른 더레 돌아나는 담, 성담 잇주게, 성담 다 돌아보멍 다허곡 경헹은에 그추룩 단도리헷당은에 멀지 안헤영 쉐 놓게 뒈민 그 고사리 묵은 고사리 다 불 부청. 불 부청 새 풀 나게시리. 경헹 새 풀 난 이상엔 아무 날은 쉐 목장에 올리게 뒛젠 허민 전시 들앙 몰아강덜 쉐덜 올려. 경헹 흔 사름네 집에 쉐가 멧 마리썩 헨. 쉐 보는 사름 그 목장 안에 집 짓언 살멍 삯 받아난. 다른 세곈 경 안헤여. 인성도 그런 사름 엇곡 보성, 저 안성도 엇언. 이 보성.(응, 다 가. 다 가서 그처럼 하고 담 허물어진 데 다른 데로 달아나는 담, 담 있지, 담 다 돌아보면서 다하고 그래서 그처럼 단속했다가 멀지 않아서 소 놓게 되면 그 고사리 묵은 고사리 다 불 붙여서. 불 붙여서 새 풀 나게끔. 그렇게 해서 새 풀 난 이상엔 아무 날은 소 목장에 올리게 됐다고 하면 모두 데리고 몰아가서들 소들 올려. 그래서 한 사람네 집에 소가 몇 마리씩 해서. 소 보는 사람 그 목장 안에 집 지어서 살면서 삯 받았어. 다른 사곈 그렇게 안 해. 인성도 그런 사람 없고 보성, 저 안성도 없었어. 이 보성.)

104009 @ 보성만.(보성만.)

104009 # 이 보성만 보성 목장이 널르고 물 좋곡 허난에.(이 보성만 보성 목장이 넓고 물 좋고 하니까.)

104009 @ 게민 옛날에는 할머니 어렷을 때는 쉐 물 멕이레도 가곡 헤낫수과?(그러면 옛날에는 할머니 어렸을 때는 소 물 먹이러도 가고 했었습니까?)

104009 # 응.(응.)

104009 @ 이껑 강?(이끌고 가서?)

104009 # 응, 아니 우린 저끗듸 물 신 디서만 사난에.(응, 아니 우린 곁에 물 있

는 데서만 사니까.)

104009 @ 아, 경헐 필욘 엇언? 쉐 풀 멕이레 올라가곡 안 헤? 어렷을 때?(아, 그럴 필욘 없었어? 소 풀 먹이러 올라가고 안 해? 어렸을 때?)

104009 # 쉐 멕이레들 그자 강인에 집에서 밧 가는 쉐덜 멕이레 강 그자 멕이곡 어디 촐 좋은 디 시민 에왕 내불곡 기추룩 헷주게. 멕이레 뎅기진 안헤연. 저 인성, 안성더렌 농장이 잘 엇은 따문 순번으로 쉐덜 메영인에 쉐 멕이레 가곡 또시 그런 디 물 엇이믄 저 보성, 집이 오랑 물 멕영 혼 사름이 쉐 여남은 개 마탕인에 오랑 물 멕영 그 자기네 안성 집에 강 멕이곡 기추룩 헤라게. 게난 이 보성은 귀헌 것이 엇이 살앗어.(소 먹이러들 그저 가서 집에서 밭 가는 소들 먹이러 가서 그저 먹이고 어디 꼴 좋은 데 있으면 에워서 내버리고 그처럼 했지. 먹이러 다니진 않았어. 저 인성, 안성엔 목장이 잘 없는 때문 순번으로 소들 매어서 소 먹이러 가고 또 그런데 물 없으면 저 보성, 집에 와서 물 먹여서 한 사람이 소 여남은 개 맡아서 와서 물 먹여서 그 자기네 안성 집에 가서 먹이고 그처럼 했어. 그러니까 이 보성은 귀한 것이 없이 살았어.)

104009 @ 응, 아까 그건 그런 건 무신 쉐렌 헤? 번쉐렌 허여?(응, 아까 그건 그런 건 무슨 소라고 해? '번쉐'라고 해?)

104009 # 번쉐[88].('번쉐'.)

104009 @ 맞아, 번쉐?(맞아, '번쉐'?)

104009 # 응, 번쉐. 네 사름이 쉐 내놩 돌아가멍 번쉐허는 거.(응, '번쉐'. 네 사람이 소 내놔서 돌아가면서 '번쉐'하는 거.)

104010 @ 돌아가멍 번쉐허는 거. 응, 할머니 소 질르멍 힘들엇던 거나 아니면 기억나는 거 이수과?(돌아가면서 '번쉐'하는 거. 응, 할머니 소 기르면서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4010 # 엇어.(없어.)

104010 @ 송아지도 내와난?(송아지도 낳았었어?)

104010 # 송아지도 내왓주.(송아지도 낳았었지.)

104010 @ 어떵헹 내웁니까?(어떻게 해서 낳습니까?)

104010 # 송아지도 낳단에 노시 나도 말도 아니 허난이 막 입담으로 드러 뭣이엔 골으믄 무시것이 동티난덴 주갈주갈허멍 허단 쉐가 드러 누원 가달 등등 들르멍 흥흥 헤여가난 아이고 삼싱할망이나 번쉐 것이 다 직헌덴 강 서근에 좋게 나살 걸 좋게 나살 걸 허멍 이 술술 쓸어가난에 쉐가 응응 허멍 가달 들르당도이 ᄒᆞ쏠 ᄒᆞ꼼 숨 쉬어라게. 숨 쉬언 또시 응응 헤가난 낳아라게.(송아지도 낳다가 결코 나도 말도 안 하니까 막 입담을 들이 뭐라고 말하면 무엇이 동티난다고 '주갈주갈'하면서 하다가 소가 들이 누워서 다리 동동 들면서 흥흥 해가니까 아이고 삼승할머니나 '번쉐' 그것이 다 지킨다고 가서 서서 좋게 낳아야 할 걸, 좋게 낳아야 할 걸 하면서 이

88) '번쉐'는 소를 기르는 사람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들에 몰고 나가 먹이는 소다.

살살 쓸어가니까 소가 응응 하면서 다리 들다가도 조금 조금 숨 쉬더라. 숨 쉬어서 또 응응 해가니까 낳더라.)

104010 @ 아.(아.)

104010 # 낳으난[나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몬들락히 낳앗구나 허멍 헤낫어, 나가. 경헹 이젠 우리 동네 사름 고칩이 사름이 쉐 새끼 난디 젖을 일절 아이 먹엄젠. 젖을 안 주젠 발로 영영 헴젠 허건데 아이고 건 동티 낫수다. 뭐 쎈 새끼 난 디 강 무시거옌들 ᄀᆞᆯ으난[ᄀᆞ난] 동티 낫구나게. 상불 페우곡 장정 허여근에 상불 페우곡 아이고 철 모르는 사름덜 뭣이엔 ᄀᆞᆯ아신디사 아이구 잘못헷구나 헤영근에 상불 페왕인에 헛주둥이 노려근에 내불어 봅서, 어떵허느니. 경헷당 송애기가 그레 가지 아니허건 송애기 이꺼당 그 젖신더레 허멍 그자 모든 동물이나 생물이나 그자 쥐 짓은 거랑 사하게 헤 줍센 헤여근에 ᄀᆞᆯ으멍 상불 페웁센 허난 요디 고칩이 사름은게 우리 서로 오라방 누이 허는 사름인디 야 누이 말 들으난야 송애기 젯 먹엄저게, 젯 먹엄저게. 나 짐작 삼앙 ᄀᆞᆯ앗주게. 짐작 삼아. 경헹 먹어라게.(낳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온전히 낳았구나 하면서 했었어, 내가. 그래서 이젠 우리 동네 사람 고씨 집 사람이 소 새끼 낳았는데 젖을 일절 안 먹는다고. 젖을 안 주려고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아이고 그건 동티 났습니다. 뭐 쎈 새끼 낳은 데 가서 무엇이라고들 말하니까 동티 났구나. 향불 피우고 장정 해서 향불 피우고 아이고 철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말했는지 아이구 잘못했구나 해서 향불 피워서 헛주둥이 놀려서 내버려 보세요, 어떻게 하니. 그랬다가 송아지가 그리 가지 않으면 송아지 이끌어다가 그 젖에 하면서 그저 모든 동물이나 생물이나 그저 죄 지은 거랑 사하게 해 달라고 해서 말하면서 향불 피우라고 하니까 요기 고씨 집 사람은 우리 서로 오라버니 누이 하는 사람인데 야 누이 말 들으니까 송아지 젖 먹는다, 젖 먹는다. 나 짐작 삼아서 말했지. 짐작 삼아서. 그래서 먹더라.)

104010 @ 정성 들이민 다예.(정성 들이면 다요.)

104010 # 상불 피우렌 헤서. 무시거 새끼 남젠 무시거엥 헛주뎅이 노련들 그거 아이라게, 아이들이라도 봉.(향불 피우라고 해서. 무엇 새끼 낳는다고 무엇이라고 헛주둥이 놀려서들 그거 아니냐, 아이들이라도 봐서.)

말 기르기

104011 @ ᄆᆞᆯ도 질롸낫수과?(말도 길렀었습니까?)

104011 # ᄆᆞᆯ도 질롯주게.(말도 길렀었지.)

104011 @ ᄆᆞᆯ은 어떵헹 질릅니까?(말은 어떻게 해서 기릅니까?)

104011 # ᄆᆞᆯ은? ᄆᆞᆯ은 어떵헹 질뤄? ᄆᆞᆯ은 그자 집에 메지 안헤여. 목장에나 우리 그 큰뚤 하르방네 ᄆᆞᆯ이 삼십일.(말은? 말은 어떻게 해서 길러? 말은 그저 집에 매지 않아. 목장에나 우리 그 큰딸 할아버지네 말이 삼십일.)

104011 @ 삼십일?(삼십일?)

104011 # ᄆᆞᆯ이 서른 개 새끼 낳는 거 서른 개. 서른 개민 봄 나민이 봄 나민 ᄆᆞᆫ

짝 몰아당인에 올레 밧듸 놩 올레 저끗디 우리 물ᄀᆞ레 셔. 물ᄀᆞ레 시민 물ᄀᆞ레서 하나씩 심으멍 물 갈기 비곡 목장에 올려살 거난이 갈기 비곡 꽁지 비곡 그추룩 헤영 조박조박 무껑 놔두민 저 서모관[89] 사름덜 오랑 받아 가.(말이 서른 개 새끼 낳는 거 서른 개. 서른 개면 봄 나면 모두 몰아다가 '올레' 밭에 놔서 '올레' 곁에 우리 연자매 있어. 연자매 있으면 연자매에서 하나씩 잡으면서 말 갈기 베고 목장에 올려야 할 거니까 갈기 베고 꼬리 베고 그처럼 해서 '조박조박' 묶어서 놔두면 저 '서모관' 사람들 와서 받아 가.)

104012 @ 다 잘라? 물 터럭을? 물총.(다 잘라? 말 털을? 말총.)

104012 # 응, 물총, 이 뒤에 거영. 꽁지에 거영.(응, 말총, 이 뒤에 거랑. 꼬리에 거랑.)

104012 @ 그거 갓 만드는 거 망건.(그거 갓 만드는 거 망건.)

104012 # 다 그디서 허영 그디서 헌 거 다 그만썩 다 그 자국에 거 다 무껑인에 잔뜩 헤 놔두민 저 모관서 탕건 입제허는 곳에서 사름 받으레 와. 받으레 오민 그 물 심엉인에 나 갈기영 드러 비민 우리 시아방 그 판 돈 날 하영 주곡 헤난.(다 거기서 해서 거기서 한 거 다 그만큼씩 다 그 자국의 거 다 묶어서 잔뜩 해 놔두면 저 모관에서 탕건 입자하는 곳에서 사람 받으러 와. 받으러 오면 그 말 잡아서 나 갈기랑 들이 베면 우리 시아버지 그 판 돈 나를 많이 주고 했었어.)

104012 @ 말도 종류가 색깔에 따라서 이름 잇지예? 뭐엥 ᄀᆞᆫ는 이름 이수과?(말도 종류가 색깔에 따라서 이름 있지요? 뭐라고 말하는 이름 있습니까?)

104012 # 물이 앞이 문 티끌이 간징[90] 이신 건 페랍넨 헤여.(말이 앞에 모두 티끌이 '간징' 있는 건 까다롭다고 해.)

104012 @ 간징이?('간징이'?)

104012 # 이디 ᄒᆞ쏠 머리에 흰 점이 시나 어떵허민 에효 물 간징 저런 거 물 페라워 페라워 경 허여. 새끼 나민 이런 디 흰 것이 시나 어떵 헌다게.(여기 조금 머리에 흰 점이 있나 어떻게 하면 에휴 말 '간징' 저런 거 말 까다로워 까다로워 그렇게 해. 새끼 낳으면 이런 데 흰 것이 있거나 어떻게 한다.)

104012 @ 응, 그걸 아까 무신거옌 ᄀᆞᆯ아마씨?(응, 그걸 아까 무엇이라고 말해요?)

104012 # 간징.('간징'.)

104012 @ 간징?('간징'?)

104012 # 물 간징 신 모양이여. 페라우켜 경 허여.(말 '간징' 있는 모양이야. 까다롭겠다 그렇게 해.)

104012 @ 간징 신 모양이여, 페라우켜 영허여 응. 경 허고 또 거멍헌 물 무신거옌 ᄀᆞᆯ아?('간징' 있는 모양이야, 까다롭겠다 이렇게 해 응. 그리고 또 거먼 말 무엇이라고 말해?)

---

89) '서모관'은 제주시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조천읍 지역에서 탕건을 만들 때 필요한 말총을 사갔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90) '간징'은 간자말의 이마에 있는 흰 무늬를 말한다.

104012 # 검은물이엔 허곡.(검정말이라고 하고.)
104012 @ 벌경헌 물은?(벌건 말은?)
104012 # 붉은물이엥 허곡.(붉은 말이라고 하고.)
104012 @ 하얀 건?(하얀 건?)
104012 # 흰물이엔 허곡.(흰말이라고 하고.)
104012 @ 뭐 이런 거 잇수게? 일가라, 이청총, 청총마 영 허는 거 잇수게?(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일가라, 이청총, 청총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104012 # 청총물?(청총마?)
104012 @ 응, 그런 건 안 들어봔?(응, 그런 건 안 들어봤어?)
104012 # 아니 그런 거 들어도 그것이 그거라게. 청총마 영 헤영 그자.(아니 그런 거 들어도 그것이 그거야. 청총마 이렇게 해서 그저.)
104012 @ 게난 그런 거 잇지예? 가라물, 청총물 영허지 안허여?(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요? 가라말, 청총마 이렇게 하지 않아?)
104012 # 응.(응.)
104013 @ 말은 뭐헐 때 쓰는 거? 밧도 안 갈곡.(말은 뭐할 때 쓰는 거? 밭도 안 갈고.)
104013 # 밧도 안 갈곡 헤도이 밧 불린 때 시세 나곡이 물 낭인에 풀곡. 그 웅매 하난이 그자 주릇 그건 줄대 헤영 메곡 수컷 놓고 기추룩 헌다게.(밭도 안 갈고 해도 밭 밟을 때 시세 나고 말 낳아서 팔고. 그 수말 많으니까 그저 '주릇' 그건 줄대 해서 매고 수컷 놓고 그처럼 한다.)
104013 @ 웅매가 수컷 아니?(수말이 수컷 아니?)
104013 # 웅매가 수컷. 경 허민 그 수컷이 집이서 일도 하영, 그것이 빌엉 허곡 허여.(수말이 수컷. 그러면 그 수컷이 집에서 일도 많이, 그것이 빌려서 하고 해.)
104013 @ 무신거 허는 일 허여?(무엇 하는 일 해?)
104013 # 옛날 물ᄀᆞ레 방에 질 때도 물 메왕인에 방에도, 재곡 쉐보다 재여. 달랑달랑달랑.(옛날 연자매 방아 찧을 때도 말 메워서 방아도, 재고 소보다 재. 달랑달랑달랑달랑.)
104013 @ 아, 짐도 시꺼?(아, 짐도 실어?)
104013 # 짐도 시끄주게. 짐도 시끄곡.(짐도 싣지. 짐도 싣고.)
104013 @ 어디 갈 때 탕도 뎅겨난? 옛날엔?(어디 갈 때 타서도 다녔어? 옛날엔?)
104013 # 게, 하르방 탕도 뎅기곡.(그러게, 할아버지 타서도 다니고.)
104013 @ 아, 하르방 옛날엔 탕도 뎅겨난?(아, 할아버지 옛날엔 타서도 다녔었어?)
104013 # 게 경 허여근에 그 물 웅매가 다른 물덜 오랑은에 그 자기네 가습덜 허카부덴 막 뿔 낭 헝헝헝 허믄 다른 물 뎅기지 못하게도 감시하곡 허메. 사름보다 더. 쉔 경 아니헤도, 물은 저.(그러게 그렇게 해서 그 말 수말이 다른 말들 와서 그

자기네 가속들 할까 봐 막 뿔 나서 '헝헝헝' 하면 다른 말 다니지 못하게 감시하고 해. 사람보다 더. 소는 그렇게 안 해도, 말은 저.)

104013 @ 말은 말도 나이에 따라서 이름이 ᄐᆞ나지예? ᄒᆞᆫ 살짜리 이름은 뭐엔 ᄀᆞᆯ아?(말은 말도 나이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요? 한 살짜리 이름은 뭐라고 말해?)

104013 # 사릅이엔 허곡 세 살짜린 사릅, 금승, 금승은 이제사 난 거 금승 몽생이엔 허곡.(사릅이라고 하고 세 살짜린 사릅, 하릅, 하릅은 이제야 낳은 거 하릅 망아지라고 하고.)

104013 @ 금승 몽생이엔 ᄀᆞᆯ아?(하릅 망아지라고 말해?)

104013 # 쉔 다간 송애기 이제사 나근에 헌 건 금승 송애기엔 허곡.(소는 두습 송아지 이제야 낳아서 한 건 하릅 송아지라고 하고.)

104013 @ 몽생이, 몽생이.(망아지, 망아지.)

104013 # 몽생이게.(망아지.)

104014 @ 거난 몽생인 한 살은 금승, 두 살 뒈민 다간이렌은 안 허주예?(그러니까 망아진 한 살은 하릅, 두 살 되면 두습이라고는 안 하지요?)

104014 # 세 살 뒈민 사릅 몽생이.(세 살 되면 사릅 망아지.)

104014 @ 사릅 몽생이엔 ᄀᆞᆯ아?(사릅 망아지라고 말해?)

104014 # 쉐도 다간 송애기엔 허곡, 사릅 쉐엔 허곡.(소도 두습 송아지라고 하고, 사릅 소라고도 하고.)

104014 @ 쉔 경 ᄀᆞᆫ는디 혹시 ᄆᆞᆯ은 이수, 삼수 영 안 헙니까?(소는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말은 이수, 삼수 이렇게 안 합니까?)

104014 # 무사 아니여게. 이수, 삼수 허주게.(왜 아니야. 이수, 삼수 하지.)

104014 @ 쉐는 금승, 다간, 사릅, 나릅 영 허곡 ᄆᆞᆯ은 금승, 이수, 삼수, ᄉᆞ수, 영 ᄀᆞᆫ는 거 맞아?(소는 하릅, 두습, 사릅, 나릅 이렇게 하고 말은 하릅, 이수, 삼수, 사수,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104014 # 응.(응.)

104015 @ ᄆᆞᆯ 질루멍 기억나는 거나 아니면 ᄆᆞᆯ 질룰 때 재밋엇던 거나 힘든 거나 이런 거 뭐 잇수과?(말 기르면서 기억나는 거나 아니면 말 기를 때 재미있었던 거나 힘든 거나 이런 거 뭐 있습니까?)

104015 # 힘든 건 벨루 엇언. 목장에 강 놔불곡 허영 그 밧 ᄇᆞᆯ릴 때 그자 몰앙인에 몰앙 뎅기멍 춤 시아방 몰앙 가가민 당신 ᄃᆞᆫ지 못허영 거두지 못허난 ᄀᆞ치 글렌 헤영 강 허여날 뿐이난 그자 봄 낭인에 부종팟 끗나민 ᄆᆞᆯ 갈기 비게 뒈민 ᄃᆞᆯ아 당인에 올레에 집 이슨 ᄆᆞᆯᄀᆞ레서 갈기 비엉 팔고 경 허더라.(힘든 건 별로 없었어. 목장에 가서 놔버리고 해서 그 밭 밟을 때 그저 몰아서 몰아 다니면서 참 시아버지 몰아서 가면 당시는 달리지 못해서 거두지 못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가서 했을 뿐이니까 그저 봄 나서 '부종팟' 끝나면 말 갈기 베게 되면 데려다가 '올레'에 집 있는 연자매서 갈기 베어서 팔고 그렇게 하더라.)

104015 @ 집 이슨 ᄆᆞᆯᄀᆞ레서?(집 있는 연자매에서?)

104015 # 집 안에 물방에 이섯어. 집 이슨 물방에.(집 안에 연자매 있었어. 집 있는 연자매.)

104015 @ 집 이슨 물방에? 그디서 갈기 다 비어근에?(집 있는 연자매? 거기서 갈기 다 베어서?)

104015 # 시꺼당 딱 집 안에 메어근에 그 물ᄀᆞ레 이런 거 잇주게. 이런 것에 딱 메민 오몽 못허주게. 경 허민 이거 비곡, 꼴리 비곡.(실어다가 딱 집 안에 매어서 그 연자매 이런 거 있지. 이런 것에 딱 매면 움직이지 못하지. 그러면 이거 베고, 꼬리 베고.)

104015 @ 아, 경헤근에 풀앙예?(아, 그래서 팔아서요?)

먹이

104016 @ 게믄 쉐하고 물은 무신거 멕입니까?(그러면 소하고 말은 무엇 먹입니까?)

101016 # 촐.(꼴.)

104016 @ 촐.(꼴.)

104016 # 무조건 촐. 물은 멕일 거 쉐만이 경 잘 멕이지 안허여.(무조건 꼴. 말은 먹일 거 소만큼 그렇게 잘 먹이지 않아.)

104016 @ 그럼 물은 뭐 멕여?(그럼 말은 뭐 먹여?)

104016 # 물은 그자 촐만 비어당 촐만 주곡 촐도 집이 메영인에 촐 주는 버릇 엇어. 물 밑으로 ᄒᆞ루 몰아당 빈 밧듸 촐 졍 강 허데경 내불민 지네 먹고.(말은 그저 꼴만 베어다가 꼴만 주고 꼴도 집에 매어서 꼴 주는 버릇 없어. 말 밑으로 하루 몰아다가 빈 밭에 꼴 져다가 흩어 내버리면 자기네 먹고.)

104016 @ 응, 집이서 메영 주진 안허고?(응, 집에서 매어서 주진 않고?)

104016 # 응.(응.)

104017 @ 게믄 쉐촐은 어떵헹 준비헤?(그러면 쇠꼴은 어떻게 해서 준비해?)

104017 # 쉐촐은 이녁 촐밧덜 비영게 촐밧 비어다근에 눌엉 ᄉᆞ뭇 저 낭만썩 눌엉 멧 개 눌엇다근에 목장에 물 보레 가멍 촐 한 줌 졍 강은에 동산에 사근에 웨여 가믄 그 웬 줄 알아. 저디서도 왈랑왈랑 물들 돌아오민 그 촐 풀엉 픽픽 던지민 먹어.(쇠꼴은 자기 꼴밭들 베어서 꼴밭 베어다가 가려서 사뭇 저 나무만큼씩 가려서 몇 개 가렸다가 목장에 말 보러 가면서 꼴 한 줌 져서 가서 동산에 서서 외쳐가면 그 외친 줄 알아. 저기서도 '왈랑왈랑' 말들 달려오면 그 꼴 풀면서 픽픽 던지면 먹어.)

104017 @ 게믄 주로 자기네 촐밧 이시민 헤도 엇이민 어디 강?(그러면 주로 자기네 꼴밭 있으면 해도 없으면 어디 가서?)

104017 # 엇질 안헌다게. 경 허고게 곡석낭이영 한다게.(없지 않아. 그리고 곡식 줄기랑 많아.)

104017 @ 아, 곡석 헤난 낭이영?(아, 곡식 했던 줄기랑?)

104017 # 경 매 사름 ᄆᆞᆯ이 하영 안 질롸.(그렇게 매 사람 말이 많이 안 길러.)

104017 @ 쉐도?(소도?)

104017 # 쉐도 매 사름이 경 하영 질르지 안허여. 저 섯동산에 섯동네 박 부장네 ᄆᆞᆯ 흔 멧 개 실 뿐이주.(소도 매 사람이 그렇게 많이 기르지 않아. 저 '섯동산'에 '섯동네' 박 부장네 말 한 몇 개 있을 뿐이지.)

104018 @ 촐 베젠 허민 어떵 헹은에 벱니까?(꼴 베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벱니까?)

104018 # 촐 손으로 비주게.(꼴 손으로 베지.)

104018 @ 사름덜 빌어근에 허여?(사람들 빌려서 해?)

104018 # 응, 사름덜 빌엉. 비영 놧당 ᄆᆞᆯ르민 강 무꺼.(응, 사람들 빌려서. 베어서 놨다가 마르면 가서 묶어.)

104018 @ 뭘로 비여?(뭘로 베?)

104018 # 호미로.(호미로.)

104018 @ 호미로? 손으로 다 일일이? 뭐 큰 거 영영 사근에 허는 거 엇어?(호미로? 손으로 다 일일이? 뭐 큰 거 이렇게 이렇게 서서 하는 거 없어?)

104018 # 아니, 그거 이제사 벌초허는 기계도 낫주마는 그런 걸로 비민 허꺼정 무꺼져게?(아니, 그거 이제야 벌초하는 기계도 났지마는 그런 걸로 베면 흩어져서 묶을 수 있어?)

104018 @ 아니 그거 말고. 큰.(아니 그거 말고. 큰.)

104018 # ᄌᆞ근ᄌᆞ근 비멍 ᄌᆞ근ᄌᆞ근 놧당인에 새 비영 깨 털어근에 다 ᄌᆞ근ᄌᆞ근 무꺼사주. 경 무껑 시꺼당 주곡. 메틀에 ᄒᆞ루 목장에 ᄆᆞᆯ 보레 가젠 허믄 흔 짐 졍 강 동산에서 ᄆᆞᆯ 임제 말소리 나고 지침허는 소리 나믄 어후 울러가민 그 ᄆᆞᆯ덜 이녁 임제 알앙 돌아오는 것이 저파.(차근차근 베면서 차근차근 놨다가 띠 베어서 매끼 틀어서 다 차근차근 묶어야지. 그렇게 묶어서 실어다 주고. 며칠에 하루 목장에 말 보러 가려고 하면 한 짐 져서 가서 동산에서 말 임자 말소리 나고 기침하는 소리 나면 어후 외쳐가면 그 말들 자기 임자 알아서 달려오는 것이 대단해.)

104019 @ 기민 촐 비어근에 그거 날랑 오젠 허민 어떵헹 날라 와?(그러면 꼴 베어다가 그거 날라서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날라 와?)

104019 # 어떵 날라 와? 다 무껑은에 쉐로 막 시껑 시꺼당인에 집이 오랑 눌엉 놔두주게.(어떻게 날라 와? 다 묶어서 소로 다 실어서 실어다가 집에 와서 가려서 놔두지.)

104019 @ 눌엉 놔둬. 그믄 보통 집이 쉐 지르젠 허민 가을 들민 강 촐 헤와사 뒈는 거?(가려서 놔둬. 그러면 보통 집에 소 기르려고 하면 가을 들면 가서 꼴 해와야 되는 거?)

104019 # 게, 가을에 집이 쉐나 드릇쉐나 드릇쉐영 드릇쉐도 메틀에 촐 졍 강 멕이고 집이선 그자 매날 그자 아침, 저냑 멕이곡. 집이 쉔 밧 갈곡 주장허는 거곡. 드릇 쉔 새끼 나곡 그자 뭐 허는 쉐라.(그렇지, 가을에 집에 소나 '드릇쉐'나 '드릇

쉐'랑 '드릇쉐'도 며칠에 꼴 져서 가서 먹이고 집에서 그저 매일 그저 아침, 저녁 먹이고. 집의 손 밭 갈고 주로 하는 거고.)

104020 @ 게민 아까 아까 곡석에 그것덜은 주로 콩허고.(그러면 아까 아까 곡식에 그것들을 주로 콩하고.)

104020 # 콩낭도 쉐 멕이곡.(콩대도 소 먹이고.)

104020 @ 조칩.(조짚.)

104020 # 조칩도 쉐 멕이곡 산뒤찝도 쉐 멕이곡.(조짚도 소 먹이고 밭볏짚도 소 먹이고.)

104018 @ 콩허고 조허고 산뒤? 주로 이 세 개를 멕이는 거구나예? 보리낭은 잘 안 먹어?(콩하고 조하고 밭벼? 주로 이 세 개를 먹이는 거군요? 보릿대는 잘 안 먹어?)

104020 # 보리낭 안 먹어.(보릿대 안 먹어.)

104020 @ 아, 보리낭은 안 먹어? 보리낭은 그냥 밑에 ᄀᆡ는 거?(아, 보릿대는 안 먹어? 보릿대는 그냥 밑에 까는 거?)

104020 # 응.(응.)

104021 @ 촐 베는디 비 와근에 못허고 한 적은 엇수과?(꼴 베는데 비 와서 못하고 한 적은 없습니까?)

104021 # 무사게? 촐 비엉 놔두민 비 오랑인에 오꼿 젖으민 더 메틀 몰리곡 경 아니허민 재수 좋으민 일기 보멍 물찌 보멍 비 언제 온덴 헤영 그때도 허영 비영 그자 혼 사흘 뒈민 화닥화닥 무꺼야지. 무껑 시꺼오주.(왜? 꼴 베어서 놔두면 비 와서 그만 젖으면 더 며칠 말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수 좋으면 일기 보면서 물때 보면서 비 언제 온다고 해서 그때도 해서 베어서 그저 한 사흘 되면 '화닥화닥' 묶어야지. 묶어서 실어오지.)

104018 @ 게난 촐 날르는 게 제일 나쁩디다. 어렷을 때. 막 이디 뭐 올란예? 막 ᄀᆞ렵고 허난 촐 날르레 가는 게 제일 실픈디, 실퍼나신디.(그러니까 꼴 나르는 게 제일 나쁩디다. 어렸을 때. 막 여기 뭐 올라서요. 아주 가렵고 하니까 꼴 나르러 가는 게 제일 하기 싫은데, 하기 싫었었는데.)

104021 # 이젠 옛날엔 그 목장에 뎅겨나민 서미역[91]이엔 헌 거 이서, 소 부그리[92] 닮은 거. 이런 데 올랑인에 막 ᄀᆞ리왕 보민 뺑끄랑케 먹엉 싯곡, 이젠 그런 벌거지가 엇어. 저 웃드르 뎅겨도. 웃드르 전인 무신거 허레 뎅기민 이 아랫도리가 시뻘겋게 젠젠헌 거 막 올르는디 이젠 그런 것이 엇어. 고사리 꺼그레 뎅겨봐도 그런 벌거지가 없어.(이젠 옛날엔 그 목장에 다녀오면 '서미역'이라고 한 거 있어, 소 '부그리' 같은 거. 이런 데 올라서 막 가려워서 보면 빵빵하게 먹어서 있고, 이젠 그런 벌레가 없어. 저 '웃드르' 다녀도. '웃드르' 전엔 무엇 하러 다니면 이 아랫도리가 시벌겋게 자잘한 거 막 오르는데 이젠 그런 것이 없어. 고사리 꺾으러 다녀봐도

91) '서미역'은 진드기를 이르는 말로 작은 것은 '서미역', 큰 것은 '부그리'라고 한다.
92) '부그리'는 소나 말에 붙어사는 해충으로, 진드기가 성장한 것을 말한다.

그런 벌레가 없어.)

104021 @ 촐 헐 때 힘들엇던 건?(꼴 할 때 힘들었던 건?)

104021 # 힘들믄 무슨. 놈이영 대동허는 거난 허는 거로구나만.(힘들면 무슨. 남이랑 대동하는 거니까 하는 거로구나만.)

땔감

104022 @ 옛날에 짇을커는 어떤 거 어떤 거 헤근에 짇을커 헤낫수과?(옛날에 땔감은 어떤 거 어떤 거 해서 땔감 했었습니까?)

104022 # 옛날에 가을 들믄 짇을커 허젠 허믄이 소낭밧듸 강 글겡이 이서, 글겡이로 그 솔잎 털어진 거 긁엉 또 그 베로 무껑 졍 오랑인에, 왕 눌엉 놧당은에 그걸로 짓곡 곡석대 조대여 보릿대영 헌 건이 보리낭은 쉐 세왕에 쉐 메믄 똥 밋터레 끌아줭인에 그거 걸름 멘들젠 허영 보릿댄 불도 안 솜아, 아졍. 그 쉐가 똥 싸믄 오줌 싸곡 허믄 그레 끌아줘사주게. 기추룩 헤영인에 허믄 보릿댄 경헹 이만썩 눌어 또 경 허곡 쉐촐 헤여당 멧 눌 눌어근에 쉐 먹엉 뭐 그추룩 허난.(옛날에 가을 들면 땔감 하려고 하면 소나무밭에 가서 긁개 있어, 긁개로 그 솔잎 떨어진 거 긁어서 또 그 바로 묶어서 져서 와서, 와서 가려서 놨다가 그걸로 때고 곡식대 조대다, 보릿대랑 한 것이 보릿대는 소 세워서 소 매면 똥 밑으로 깔아줘서 그거 거름 만들려고 해서 보릿댄 불도 안 때, 아껴서. 그 소가 똥 싸면 오줌 싸고 하면 그리 깔아줘야지. 그렇게 해서 하면 보릿댄 그처럼 해서 이만큼씩 가려 또 그렇게 하고 쇠꼴 해다가 몇 가리 가려서 소 먹여서 뭐 그처럼 하니까.)

104022 @ 낭 허레도 가곡예?(나무 하러도 가고요?)

104022 # 게 낭 허레도 이제 가을 들믄 친구덜이영 낭 허레 가곡. 소낭밧듸 강 글겡기로 긁어당 솔썹 긁엉 또 무껑 졍 오랑 이만썩 눌멍 살곡 기추룩 헤시네.(그러게 나무 하러도 이제 가을 들면 친구들이랑 나무 하러 가고. 소나무밭에 가서 긁개로 긁어다가 솔잎 긁어서 또 묶어서 져 와서 이만큼씩 가려서 살고 그처럼 했어.)

104022 @ 게난 저 소낭밧듸 강 긁엉 온 거영 그다음 낭 헹 온 거영 이걸로 짇을커 헹 살앗구나예?(그러니까 저 소나무밭에 가서 긁어서 온 거랑 그다음 나무 해서 온 거랑 이걸로 땔감 해서 살았군요?)

104022 # 응, 그런 거. 막 솔썹 근어당인에 이만은 눌어. 눌어둬서 그거 빠멍 짇곡.(응, 그런 거. 막 솔잎 긁어다가 이만큼은 가려. 가려두고 그거 빼면서 때고.)

104023 @ 게믄 처음부터예? 소똥, 말똥은 안헤낫수과?(그러면 처음부터요? 소똥, 말똥은 안했었습니까?)

104023 # 소똥, 말똥은 또시 줏어당인에 저런 마당 흔펜이서 몰령, 몰령 쉐똥이영 몰똥이영 줏어당 멕으로 줏어오랑이 경 줏어당인에 몰렷당인에 굴묵에 놩 굴묵 때는 거라.(소똥, 말똥은 또 주워다가 저런 마당 한편에서 말려서, 말려서 소똥이랑 말똥이랑 주워다가 멱서리로 주워와서 그렇게 주워다가 말렸다가 '굴묵'에 놔서 '굴묵' 때는 거야.)

104023 @ 아, 그건 굴묵 때는 거?(아, 그건 '굴묵' 때는 거?)

104023 # 응, 경 허민 놈보단 ᄀᆞ슬에 조 헤나민 그르에 ᄆᆞᆯ이영 쉐영들 놓주게. 경 허민 놈보단 새벽이 가사 그 똥을 줏어. 먼저 간 사름이 그 똥을 다 줏어.(응, 그렇게 하면 남보다 가을에 조 하고 나면 그루에 말이랑 소랑들 놓지. 그렇게 하면 남보다 새벽에 가야 그 똥을 주워. 먼저 간 사람이 그 똥을 다 주워.)

104023 @ 아, 줏어 가부니까.(아, 주워 가버리니까.)

104023 # 경 허민이 요디 고칩이 사름인디 족은각시 헨 아덜 하나 난에 ᄃᆞᆯ안 사는디 그 큰어멍이 그 족은각시에 아덜을 아기로 취급 아니 ᄒᆞ영이 매날 똥 줏으레 가렌 헤영 막 허끄민 날보다 ᄒᆞᆫ 살 위라도이 나가 다 져. 똥 줏으레 ᄀᆞ치 새벽이 가민 난 거짓말로이 똥 수정을 세주게. ᄆᆞᆯ 메운 디 강 나 저 ᄆᆞᆯ똥 저거 한 밧, 두 밧, 멧 밧이영 거짓말헤영 그 나 수정 센 건 나 줏어 난 다음에 남으민 줏어도 경 아니믄 아니라. 솔직헹 남자가이.(그러면 요기 고씨 집 사람인데 작은계집 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데리고 사는데 그 큰어머니가 그 작은계집의 아들을 아기로 취급 안 해서 맨날 똥 주우러 가라고 해서 막 섞으면 날보다 한 살 위라도 내가 다 져. 똥 주우러 같이 새벽에 가면 난 거짓말로 똥 숫자 세지. 말 맨 데 가서 나 저 말똥 저거 한 밭, 두 밭, 몇 밭이라고 거짓말해서 그 나 숫자 센 건 나 줍고 난 다음에 남으면 주워도 그렇게 아니면 아니라. 솔직해서 남자가.)

104023 @ 할머니 거옌 나가 먼저 다 헤불엇어 영헨?(할머니 거라고 내가 먼저 다 해버렸어 이렇게 했어?)

104023 # 응. 하나 둘 저거 나 똥 수정 센 거 담지 말렌 허믄이 그 사름 하나가 하나라. 솔직허연이. 경 허연 다슴어멍이영 살단 저 웃드리서 소가이헤 온 하르방네가 애기 엇언 고칩인디 애기 엇으난 그 아덜 주민 ᄒᆞ교 시키켄 헹 국민학교 시키곡 대학 시켱 그 아덜 그 하르방넨 믿는 사름이난 가이도 믿으난 엉토당토 출세헨게. 날보다 ᄒᆞᆫ 살 위인디.(응. 하나 둘 저거 나 똥 숫자 센 거 담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 하나가 하나야. 솔직해서. 그렇게 해서 의붓어머니이랑 살다가 저 '웃드리'에서 소개해 온 할아버지가 아기 없어서 고씨 집인데 아기 없으니까 아들 주면 학교 시키겠다고 해서 국민학교 시키고 대학 시켜서 그 아들 그 할아버지넨 믿는 사람이니까 걔도 믿으니까 얼토당토 출세했어. 나보다 한 살 위인데.)

104023 @ ᄒᆞᆫ 살 위?(한 살 위?)

104023 # 응, 큰어멍이영 살믄 밥도 졸바로 못 얻어먹곡이 노망허는 하르방이영 ᄀᆞ치 누웡 자게시리 헤영이 허곡 허연 지네만 잘살젠 헌디. 그 가이 못살게 헌 집이 애기덜은 출세헌 애기가 하나도 엇어. 그 사름은 그 웃드르 저 무*에 가서 소가이 헌 사름 애기 엇인 사름 고씨난에 도렌 헹 키운 사름이 그 사름이 고씨 집이서 중학교 시견 고등학꼰 안 시겨도 중학교 시견에 사는디 경찰관 뒈연이. 경찰관 뒌 디 장게가난 아덜덜이 머리가 좋아. 아덜덜 서너니 성제 뚤까지 다 큰 학교 헹 출세헤연. 경 허난 그 사름은 경헤도 그 집이 간에 학골 시기난 머리 좋난에 이디서 살멍도 밧 이전 못허는 사름덜이 군에 강 밧도 이전헤 주곡 그런 거 허멍 살단 죽

언. 경헌디 그 사름 아덜덜만 다 출세혜연.(응, 큰어머니랑 살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노망하는 할아버지랑 같이 누워서 자게끔 해서 하고 해서 자기네만 잘살려고 했는데. 그 걔 못살게 한 집의 아기들은 출세한 아기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저 '웃드르' 저 무*에 가서 소개 한 사람 아기 없는 사람 고씨니까 달라고 해서 키운 사람이 그 사람이 고씨 집에서 중학교 시켜서 고등학꾼 안 시켜도 중학교 시켜서 사는데 경찰관 되었어. 경찰관 되었는데 장가가니까 아들들이 머리가 좋아. 아들들 서너 형제 딸까지 다 큰 학교 해서 출세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집에 가서 학교를 시키니까 머리 좋으니까 여기서 살면서도 밭 이전 못하는 사람들이 군에 가서 밭도 이전해 주고 그런 거 하면서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 아들들만 다 출세했어.)

104023 @ 게난 쉐똥하고 물똥은 어디레 담앙 올 거라? 뭐에 담앙 와?(그러니까 소똥하고 말똥은 어디에 담아서 올 거야? 뭐에 담아서 와?)

104023 # 멕다리, 멕, 멕.(멱서리, 멱서리, 멱서리.)

104023 @ 멕 들렁 가?(멱서리 들고 가?)

104023 # 멕 들렁 강인에 그 멕에 ᄀᆞ득으민 또 졍 오라.(멱서리 들어서 가서 그 멱서리에 가득하면 또 져서 와.)

104023 @ 아, 졍 오라, 응.(아, 져서 와, 응.)

104023 # 졍 오랑, 졍 오랑인에 젖은 건 마당 흔 펜이서 널곡 ᄆᆞ른 건 굴묵더레 비우곡 헤영 굴묵 짇엉 불채 나믄 불채도 밧듸 강인에 걸리곡.(져서 와, 져서 와서 젖은 건 마당 한 편에서 널고 마른 건 '굴묵'에 비우고 해서 '굴묵' 때서 재 나면 재도 밭에 가서 걸게 하고.)

104023 @ 아, 걸름허는 걸로?(아, 거름하는 걸로?)

104023 # 응. 굴묵 때사 방 뜻으난게.(응. '굴묵' 때야 방 따뜻하니까.)

104024 @ 아, 방 뜻으게? 응, 게민 아까 저 솔썹 걷어난 얘기 다시 ᄀᆞᆯ아줍서. ᄎᆞ근ᄎᆞ근.(아, 방 따뜻하게? 응, 그러면 아까 저 솔잎 걷었던 얘기 다시 말해주세요.)

104024 # 솔썹은 소낭밧듸 강 글겡이로 걷엉 이젠 막 메왕 놓주게. 이디 모닥저디 모닥 헤노민 흔밧듸로 메왕 대 이렇게 놔. 대 ᄋᆞ정강인에 시 밧듸로 대 놩 그레 솔썹을 풀에, 솔썹 막 풀 잘 붙어. 영영 헤영 요레 놓곡 영영영 놩인에 이젠 둘리가 그거 무끄주게. 시 밧딜로 대 놩 시 밧딜로 무껑인에 무끈 이상엔 졍 오랑인에 드러 걷어오민 눌도 눌곡. 솔썹 눌도 눌곡 또시 그 솔썹으로 불 숨곡 기추룩 허멍 살앗주게.(솔잎은 소나무밭에 가서 긁개로 걷어서 이젠 막 모아 놓지. 여기 모으고 저기 모으고 해놓으면 한군데로 모아서 대 이렇게 놔. 대 가져가서 세 군데로 대 놔서 그리 솔잎을 풀에, 솔잎 막 풀 잘 붙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리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서 이젠 둘이가 그거 묶지. 세 군데로 대 놔서 세 군데로 묶어서 묶은 이상에는 져서 와서 들이 걷어오면 가리도 가리고. 솔잎 가리도 가리고 또 그 솔잎으로 불 때고 그처럼 하면서 살았지.)

104024 @ 그건 가을에 허는 거주예? 솔썹 줏으레예?(그건 가을에 하는 거지요? 솔잎 주우러요?)

104024 # 응. 가을에, 응, 가을에.(응. 가을에, 응, 가을에.)

104024 @ 그믄 겨울 동안 그거 솔썹, 솔썹으로 짇을커 허는 거?(그러면 겨울 동안 그거 솔잎, 솔잎으로 땔감 하는 거?)

104024 # 응, 동네. 게. 경 허민 저 덕수 지경은이 마가 심허영이 그 솔썹은 마 타질 안헤여. 눌엉 놔둬도이. 치박허질 안허영 우리 집이 살 땐 마에도 그거 강인에 골체 ᄋᆞ정 강인에 골겡이로 박박 빵인에 정제 들엿당 숨으민 불도 숨곡 잉경이도 심경이 헤영 그레 고구마도 구웡 먹곡 헷는디 덕순 그런 솔입 허여당 줍지 안허곡 보리낭 눌엇당인에 보리낭은 추거워근에 내만 팡팡 나멍 불 잘 못 숨더라게.(응, 동네. 그러게. 그렇게 하면 저 덕수 지경은 장마가 심해서 그 솔잎은 마 타질 않아. 가려 놔도. '치박'하질 않아서 우리 집에 살 땐 장마에도 그거 가서 삼태기 가져가서 호미로 박박 빼서 부엌 들였다가 때면 불도 때고 잉걸도 '심경이' 해서 그리 고구마도 구워서 먹고 했는데 덕수는 그런 솔잎 해다가 줍지 않고 보릿대 가렸다가 보릿대 추져서 연기만 팡팡 나면서 불 잘 못 때더라.)

104024 @ 응, 아까 잉경인 뭐?(응, 아까 잉걸은 뭐?)

104024 # 불, 불, 불부튼 잉겡이.(불, 불, 불붙은 잉걸.)

104024 @ 거기다 무신거 헌다고?(거기다 무엇 한다고?)

104024 # 잉겡이 이선. 그 불채 삭아지질 안헤연.(잉걸 있어서. 그 재 삭아지질 않아서.)

104024 @ 삭아지질 안헌 거.(삭질 않은 거.)

104024 # 보릿댄 보리낭 숨으민 벌써 불 가가민 삭아지는디 솔썹은 삭아지지 안허여. 잉겡이 실강허민 고구마 그디 실강헌 디로 고구마 찔렁 놔두민 고구마도 익곡.(보릿대는 보릿대 때면 벌써 불 가가면 삭아지는데 솔잎은 삭아지지 않아. 잉걸 왕성하면 고구마 거기 왕성한 데로 고구마 찔러서 놔두면 고구마도 익고.)

104025 @ 낭 허레도 가낫수과?(나무 하러도 갔었습니까?)

104025 # 낭 허레. 경 허난이 시국 뒈놓으난[뒈노난] 이제 공출허렌 헌 거지. 혼 집에 혼 다라민 열 줄레라. 열 개 무끄렌 허는 거주게. 혼 줄레.(나무 하러. 그러니까 시국 되어 놓으니까 이제 공출하라고 한 거지. 한 집에 한 '다라'면 열 묶음이야. 열 개 묶으라고 하는 거지. 한 묶음.)

104025 @ 열 줄레?(열 묶음?)

104025 # 응, 열 줄레.(응, 열 묶음.)

104025 @ 낭을?(나무를?)

104025 # 응, 무껑인에 열 개. 낭 ᄆᆞᆫ 떼엉인에 요만썩 헤영 무껑 열 줄렐 바치라 허난 이젠 그 폭낭 아래 우리 시아방이 ᄀᆞ치 이제 당신네 메누리 ᄀᆞ치 강은에 허렌 혼 반엔 혼 반에 사름덜 빠지지 말앙 혼밧듸 다랄 짓으렌 허난 이젠 난 이젠 점심 싸고 헹 강 보난에 우리 반에 사름덜 하나토 엇언게. 남자덜 신 집은이. 하나

도 엇으난 집이 오란에 이젠 시아방ᄀᆞ라 아이고 반에 다 나가불언 하나도 엇입데다 허난에 시아방이 게믄 어떵헐티 허난 나만이라도 가쿠다 허연 이젠 고지 간이 좁싸리왓이렌 헌 디 이서. 그디 간에 이젠 곶 트멍에 창창 춤가시낭 이거만썩한 춤가시낭 창창 들어사난에 더듬단 보난 영 헌 디가 춤가시낭 과짝 허연. 과짝허난 그까짓 새끼덜한티 지렌 헤연이 그 근방에 춤가시낭 이만썩헌, 이만썩 허주게. 이거보다 더 독져. 이만썩헌 춤가시낭을 등케기로.(응, 묶어서 열 개. 나무 모두 떼어서 요만큼씩 해서 묶어서 열 묶음을 바쳐라 하니까 이젠 그 팽나무 아래 우리 시아버지 같이 이제 당신네 며느리 같이 가서 하라고 한 반에는 한 반에 사람들 빠지지 말고 한군데 '다라'를 지으라고 하니까 이젠 난 이젠 점심 싸고 해서 가 보니까 우리 반에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 남자들 있는 집은.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와서 이젠 시아버지보고 아이고 반에 다 나가버려서 하나도 없던데요 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나만이라도 가겠습니다 해서 이젠 숲에 가서 '좁싸리왓'이라고 한데 있어. 거기 가서 이젠 숲 틈에 창창 참가시나무 이거만큼씩한 참가시나무 창창 들어서니까 더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 데가 참가시나무 곧게 해서. 곧으니까 그까짓 새끼들에게 지리 해서 그 근방에 참가시나무 이만큼씩한, 이만큼씩 하지. 이거보다 더 두꺼워. 이만큼씩한 참가시나무를 둥치로.)

104025 @ 무신걸로?(무엇으로?)

104025 # 나대로.('나대'로.)

104025 @ 나대로?('나대'로?)

104025 # 응, 나대가 이서. 나대 알아져? 나대로 팡팡 뭇안, 톱으로도 안 그차. 톱으로 언제랑 그치느니? 팡팡 서너 번 찍으민 탁 드러눕곡 팍팍 밋밋 드러 눅지난에 똠도 바락 나곡 덥고 허난 수건 이젠 이렇게 졸라멘에 막 뭇앗주게. 겡 수건으로 똠도 씰고 앚앙 쉬언. 이디가이 콩, 콩방울만썩 다 붕물어. 붕무난이 그거 가지 다듬젠 허난 다듬을 생각이 섬뜨근헤여. 눅져 놓으믄[노믄] 헌디. 겜불로 경 허렌 헨 장갑이 어디 셔, 그 시절에 장갑이 엇으난 수건 영 졸라멧단 걸로 ᄇᆞ련. ᄇᆞ련 요디 딱 졸라 메연 또 나대 심언에 그 낭을 가지 착착 허멍 이 지레기 이만썩 두 개썩 그치멍 막 내쳇주게. 내치난 한참 시난 시아방이 오란 어디곤 불르난 아무 데레 옵서 허난 오난 저딘 밧 하나 넘으민 질이난에 그레 그치멍 내치난 시아방 또시 그디서 이젠 무껑인에 쉐레 시끄젠 허민 날ᄀᆞ라 나오렌 혜영 흔 착 시끄렌 허곡 당신이 시끄곡 당신이 졍인에 좁싸레왓 너른 밧이 이서서. 글로 강인에 그 반에 사름은 다라시 쓰렌 헌 밧이난.(응, '나대'가 있어. '나대' 알아? '나대'로 팡팡 마서, 톱으로도 안 잘라. 톱으로 언제랑 자르니? 팡팡 서너 번 찍으면 탁 드러눕고 팍팍 '밋밋' 드러 눕히니까 땀도 '바락' 나고 덥고 하니까 수건 이젠 이렇게 졸라매서 막 맜지. 그래서 수건으로 땀도 쓸고 앉아서 쉬었어. 여기가 콩, 콩방울만큼씩 다 부르터. 부르트니까 그거 가지 다듬으려고 하니까 다듬을 생각이 섬뜩해. 눕혀 놓으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랴 해서 장갑이 어디 있어, 그 시절에 장갑이 없으니까 수건 이렇게 졸라맸던 걸로 찢어서. 찢어서 요기 딱 졸라매서 또 '나대' 잡아서 그 나무를 가

지 착착 하면서 이 길이 이만큼씩 두 개씩 자르면서 막 내쳤지. 내치니까 한참 있으니까 시아버지 와서 어디냐고 부르니까 아무 데로 오세요 하니까 오니까 저긴 밭 하나 넘으면 길이니까 그리 자르면서 내치니까 시아버지 또 거기서 이젠 묶어서 소에 실으려고 하면 나보고 나오라고 해서 한 쪽 실으라고 하고 당신이 싣고 당신이 져서 '좁싸레왓' 넓은 밭이 있었어. 그리로 가서 그 반에 사람을 '다라시' 쓰라고 한 밭이니까.)

104025 @ 다라시 쓰는 게 뭐?('다라시' 쓰는 게 뭐?)

104025 # 그걸 이제 영 즈근즈근 놓으렌[노렌]. 경 허난에 간 보난 아무도 낭 허여다 논 것도 엇곡 아무도 엇으난 우리가 질 처음으로 낭 헤당 즈근즈근 놧주게. 경 허난 열 두 줄레 그거 영 무끄는 것이 열두 개가 흔 다라라. 흔 다라 헤연에 무껑인에 줴고 무껑 줴곡 허당 남으난에 쉐에 시끄곡 시아방도 지곡 허연 오게 뒈도 그 사름덜 오지 안헤여.(그걸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놓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가서 보니까 아무도 나무 해다 놓은 거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나무 해다가 차근차근 봤지. 그러니까 열 두 묶음 그거 이렇게 묶는 것이 열 두 개가 한 '다라'야. 한 '다라' 해서 묶어서 조이고 묶어서 조이고 하다가 남으니까 소에 싣고 시아버지도 지고 해서 오게 돼도 그 사람들 오지 않아.)

104025 @ 그 사름덜은 다 남자덜인디?(그 사람들은 다 남자들인데?)

104025 # 남자덜인디.(남자들인데.)

104025 @ 할머니만 혼자 여자가 간?(할머니만 혼자 여자가 갔어?)

104025 # 응, 여자만 간. 기추룩 허멍 세상 살단 이제 감제 메 놘에 싱그레 가젠 허난이 장남 빌엇주게. 구루마로 잔뜩 감제 하나 시껀 좁싸레왓이렌 헌 거 열두 말지기 싱그레 갓어. 게난 집이 사는 장남이영. 또 집이 이제 우리 시아방네 큰뚤에 손지가 이선에 지집빠 손주 가이 둘곡 시누이가 처녀곡 허난 갓주게. 가난 밧듸 강 기다려도 장남이 아니 오란. 장남 아니 오난 나가 우리 아부지 밧 갈 때 쉐 이끄렌 허믄 이꺼나난 그 멍에 찌울 중도 알곡 또 벳이 영 갈민 이레 질 거, 이레 질 거 알아지난 나가 갈아보쿠덴 허난 시어멍 어떵 헹 니 알앙 헤질탸, 멍에영 끼울 충 알아질탸 허난, 아부지 허는 거 봥인에 헤 보쿠덴 헨에 우리 아부지 허듯이 멍에 이젠 쉐로 헤연이 이거 허연 졸라메고 이제 등에 걸로 헤연 그 잠데 뿔에 이젠 감앗주게. 감안에 시누이ᄀᆞ라 심으렌 헤연. 이끄렌, 질을 ᄀᆞ르치레 이끄렌 허난 처암엔 고지 하나가 고지 하난데 이걸 이젠 처암엔 영 터 가고 이디 영 터 오난 이디 가운디 남앗어.(응, 여자만 갔어. 그처럼 하면서 세상 살다가 이제 고구마 모 놔서 심으러 가려고 하니까 장정 빌렸지. 달구지로 잔뜩 고구마 실어서 '좁싸레왓'이라고 한 거 열두 마지기 심으러 갔어. 그러니까 집에 사는 장정이랑. 또 집에 이제 우리 시아버지네 큰딸에 손주가 있어서 계집애 손주 걔 데리고 시누이가 처녀고 하니까 갔지. 가니까 밭에 가서 기다려도 장정이 안 와서. 장남 안 오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밭 갈 때 소 이끌려고 하면 이끌었었으니까 그 멍에 끼울 줄도 알고 또 볏이 이렇게 갈면 이리 끼울 거, 이리 끼울 거 아니까 내가 갈아보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어떻게 해서 너 알아서 할 수 있니, 멍에랑 끼울 줄 알겠니 하니까, 아버지 하는 거 봐서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하듯이 멍에 이젠 소로 해서 이거 해서 졸라매고 이제 등에 그걸로 해서 그 쟁기 뿔에 이젠 감았지. 감아서 시누이보고 잡으라고 해서. 이끌라고, 길을 가르치러 이끌라고 하니까 처음엔 이랑 하나가 이랑 하난데 이걸 이젠 처음엔 이렇게 터 가고 여기 이렇게 터 오니까 여기 가운데 남았어.)

104025 @ 예.(예.)

104025 # 남으난이 그걸 갈젠 허난 피들락피들락허멍 못 갈아. 한솔, 한소[93]엔 한다. 한솔 못 털어. 못 터난 다음부턴 무조건 흔 번 갈곡 흔 번 갈민 이것이 고랑이 뒈더라게. 경헹 이제 감저 싱그는디 서녁밧은 닷 말지기 검은 암쉐 오란에 화순 사름 오란 밧을 갈아. 밧을 가는디 ᄒᆞ꼼 시난에 흔 열 시 멧 쯤은 뒈난에 예펜이 점심밥을 젼 오멍 우리 밧들로 넘어가멍 아휴 대마도 물질 강 보민 몰로 여자가 밧 가는디 이젠 쉐로 여자가 밧 갈암구나 허멍 ᄀᆞᆯ으멍 넘어강게 이젠 밧은 그 사름 닷 말지기난 다 갈곡 우린 열두 말지기를 갈아사 싱그게 뒌.(남으니까 그걸 갈려고 하니까 '피드락피들락'하면서 못 갈아. '한소'를, '한소'라고 한다. '한소'를 못 털어. 못 터니까 다음부턴 무조건 한 번 갈고 한 번 갈면 이것이 이랑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고구마 심는데 서쪽밭은 닷 마지기 검은 암소 와서 화순 사람 와서 밭을 갈아. 밭을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열 시 몇 쯤은 되니까 여편네가 점심밥을 져서 오면서 우리 밭으로 넘어가면서 아휴 대마도 물질 가서 보면 말로 여자가 밭을 가는데 이젠 소로 여자가 밭 가는구나 하면서 말하면서 넘어가던데 이젠 밭은 그 사람 닷 마지기니까 다 갈고 우린 열두 마지기 갈아야 심게 됐어.)

104025 @ 응.(응.)

104025 # 그 사름, 그 장남 오지도 안허연. 무슨 사고사 나신디. 경 허난 이젠 지네 밧 다 갈아지난 쉐 ᄒᆞ쏠 먹어사 이제 촐 먹어사 이제 테역밧드레 ᄋᆞ져다 놓으믄[노믄] 촐 ᄒᆞ쏠 먹어사 밧 불릴 거난 갈아졈수광 허난에 그 남자가 우리 한참 기다리단 허는 거 닮으난 어떵 헹 헴신고 오랑 봔에 아이고 밧 잘 갈아졋수다 허멍 아이고 장남 빌언 놔두난 영허곡 졍허곡 허연 헐 수 엇이 갈아보켄 헨 갈앗수다 허난 아이고 잘 갈안 잘 싱거졋수다 허멍 영헙서 나 갈아주쿠덴 허난 막 고마완.(그 사람, 그 장정 오지도 않았어. 무슨 사고야 났는지. 그러니까 이젠 자기네 밭 다 가니까 소 조금 먹어야 이제 꼴 먹어야 이제 잔디밭으로 가져다 놓으면 꼴 조금 먹어야 밭 밟을 거니까 갈리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남자가 우리 한참 기다리다가 하는 거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가 와서 봐서 아이고 밭 잘 갈렸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장정 빌려서 놔두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갈아보겠다고 해서 갈았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잘 갈아서 잘 심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갈아주겠다고 하니까 막 고마워서.)

104025 @ 응.(응.)

104025 # 그 사름이 갈민 고랑에 ᄑᆞᆺ을 놓나 이제 콩을 놓나 허민 씨 삐영 좁씨

93) '한소'는 밭을 갈 때 두 개의 고랑 사이의 가운데를 가는 것이라고 제보자는 설명하고 있다.

삐영인에 불리주게. 쉐도 하나 그 밧을 불리젠 허민 언제랑 불리느니. 경 허난 우리 시집이 물이, 불리는 물이 열 개 싯곡 웅매 끗엉 뎅기는 것도 싯곡 허난에 집이 사는 장남ᄀᆞ라 저 우이 강은에 물 몰아당 저 조팟 불려 주렌 허난 그 밧듸 물 다섯, 물 열 개에 몽생이 데려부난 열 멧 개에 몰아 놓으난[노난] 그 밧으로 ᄀᆞ득주게이. 경 허난 그디 주인 아주망ᄀᆞ란 조름에서 물 떨어졍은에 돌아나부는 거 메우멍 그레 조름더레 몰렌 하고 우리 집의 장남은 영 빙빙 돌멍, 금세 밧은 불려 나완.(그 사람이 갈면 이랑에 팥을 놓거나 이제 콩을 놓거나 하면 씨 뿌려서 좁씨 뿌려서 밟지. 소도 하나 그 밭을 밟으려고 하면 언제야 밟니. 그러니까 우리 시집에 말이, 밟는 말이 열 개 있고 수말 끌어서 다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집에 사는 장정보고 저 위에 가서 말 몰아다가 저 조밭 밟아 달라고 하니까 그 밭에 말 다섯, 말 열 개에 망아지 데려버리니까 열 몇 개에 몰아 놓으니까 그 밭으로 가득하지. 그러니까 거기 주인 아주머니보곤 뒤에서 말 떨어져서 달아나버리는 거 메우면서 그리 뒤로 몰라고 하고 우리집 장정은 이렇게 빙빙 돌면서, 금세 밭은 밟아서 나왔어.)

104025 @ 우리 집이 장남은 누게?(우리 집의 장정은 누구?)

104025 # 장남 살아난.(장정 살았었어.)

104025 @ 아, 살아난? 사람 데령은에? 일허는 사름?(아, 살았어? 사람 데리고? 일하는 사람?)

104025 # 일허질 안허곡 우리 시아방 ᄉᆞ춘의 아덜. 크민 장게 보내영 후손 낳으민[나민] 우리 애기 허젠 돌아오랏주게.(일하지 않고 우리 시아버지 사촌의 아들. 크면 장가 보내서 후손 낳으면 우리 아기 하려고 데려왔지.)

104025 @ 양제허젠.(양자하려고.)

104025 # 열닛에 난 거. 열니 설 난 거 돌아오랑 사는디. 시아방이영 ᄆᆞ쉬 보레도 가곡이 드러 허곡 허여신디 오꼿허게시리 우리 동세가 그 아일 막 궂은 체혜연지네 아덜 먹을 재산 갈라 먹을 거난이. 막 궂은 체혜연 가이 못살게 혜연 오꼿 보내, 궂은 체 헤부난 가이냥으로 가불언.(열넷 난 거. 열네 살 난 거 데리고 와서 사는데. 시아버지랑 마소 보러 가고 들이 하고 했는데 그만 우리 동서가 그 아이를 막 궂은 체해서 자기네 아들 먹을 재산 갈라서 먹을 거니까. 막 궂은 체해서 걔 못살게 해서 그만 보내, 궂은 체 해버리니까 그 애대로 가버렸어.)

104025 @ 아까 할머니 영 밧 여기 갈앙 영 돌아왕 요 가운디 무신거라?(아까 할머니 이렇게 밭 여기 갈아서 이렇게 돌아와서 요 가운데 무엇이야?)

104025 # 한소.(‘한소’.)

104025 @ 한소?(‘한소’?)

104025 # 응, 가운데ᄀᆞ라 한소 튼덴 헌다.(응, 가운데보고 ‘한소’ 튼다고 한다.)

104025 @ 한소 튼덴?(‘한소’ 튼다고?)

104025 # 한소 간덴.(‘한소’ 간다고.)

104025 @ 아, 가운데 영 가는 거를? 한소 튼덴 ᄀᆞᆯ아?(아,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거를? ‘한소’ 튼다고 말해?)

104025 # 응.(응.)

104025 @ 응, 너무 멀리 갈아지면 경 허는 거?(응, 너무 멀리 갈면 그렇게 하는 거?)

104025 # 응, 경 허난에 그거 이제 요추룩 헨 이젠 영 헨 가난에 요것이 남앗주게. 남으난에 이거 생밧이 뒌 거 아니? 생밧이 뒈난 또 그거 새로 갈아불어사 양편 더레 갈려질 건디 갈질 못헤라게, 맹클맹클허멍. 경헹 다음부턴 흔 고지 두 번만 갓다 오민 고지가 멘들어져. 경헹 그 사름 밧 불련 좋곡 우린 또시 밧 감저 싱경 좋고 헹 살아시녜. 경 허난이 시아방이 나를 막 자랑허곡 나를 애끼난이 어디 서방 얻엉 강인에 ᄐᆞ루 강 나강 살젠을 못 헤라게. 경헌디 우리 큰뚤 아방은 김은 ᄀᆞ튼 김씨라도 권당은 아니주게. 우리 시하르방이 엿날에 덕수 보섭을 잘헤, 저 쉐 불미를 잘허곡 헌덴 허난에 쒜버렝이[94] 줏으켄 시하르방, 우리 시아방 어린 때 둘안 오란 어멍도 엇은 총각 둘안 오란 살멍 혜연 이제 우리 시어멍한티 장게간에, 장게간 새 서방 새각신데 일본 강 살멍 공장 헤연 공업 공장 헤연 돈 벌멍 살앗주게.(응,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요처럼 해서 이젠 이렇게 해서 가니까 요것이 남았지. 남으니까 이거 생밭이 된 거 아니? 생밭이 되니까 또 그거 새로 갈아버려야 양편으로 갈릴 건데 갈질 못하더라, '맹클맹클'하면서. 그래서 다음부턴 한 이랑 두 번만 갔다 오면 이랑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 사람 밭 밟아서 좋고 우린 또 밭 고구마 심어서 좋고 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시아버지 나를 막 자랑하고 나를 아끼니까 어디 서방 얻어서 가서 따로 가서 나가서 살려고를 못 하더라. 그런데 우리 큰딸 아버지는 김씨는 같은 김씨라도 권당은 아니지. 우리 시할아버지가 옛날에 덕수 보습을 잘해, 저 소 풀무를 잘하고 한다고 하니까 '쒜버렝이' 주우라고 시할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어머니도 없는 총각 데리고 와서 살면서 해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에게 장가가서, 장가가서 새신랑 새색시인데 일본 가서 살면서 공장 해서 공업 공장 해서 돈 벌면서 살았지.)

104025 @ 예.(예.)

104025 # 경 허난 돈 보내민 하르방네가 밧 사주곡 돈 보내믄 뭣 사주곡 허멍 막 군물통 옆에 서편이 열두 말지길 사곡 또 질 우녁 편이 또 ᄋᆞ답 말지기 사곡 허멍 막 밧 사주민이 고마왕인에 일본서 돈 벌멍 돈 보내난 지네도 그디서 떼먹으멍 살아실 거여. 그 ᄋᆞᆨ은 사름덜 쥐새끼ᄀᆞ치 ᄋᆞᆨ은 사름덜이난. 경 허멍 일본서 오란 ᄉᆞ뭇 그디 집 안팟거리 큰 집 산에 살멍 혜연 아덜덜 그디서 풀곡 헷주게. 뚤들은 일본서 큰뚤들이영 다 풀곡 막둥이뚤허곡 우리 아주방허곡 헨 서 오누이 둘앙 오랑 사난 우리 아주방은 일본서 큰 학교 허난 오자말자 장게간에 일본서 장게간 오난 선생으로 허곡 우리 애기 아방도 일본서 학교 졸업혜여도 안적 직장 엇언 해방이 그때 그 기계만 들어오난 서울 창고 허연 머치난 창고 흔 달에 두 번 세 번 강은에 보레 가주게. 어떠헴신고 보레 강 올 땐, 그때 구루무 일름이 주주라. 주주 구루무

94) '쒜버렝이'는 대장간의 쇳덩이를 말하는 것으로 대장간에서 잔일을 하는 것을 '쒜버렝이 줍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상 오랑 홀어멍도 주곡, 핫어멍도 주곡, 처녀도 주곡 헌디.(그러니까 돈 보내면 할아버지네가 밭 사주고 돈 보내면 뭐 사주고 하면서 막 '군물통' 옆에 서쪽편에 열두 마지기 사고 또 길 위쪽 편에 또 여덟 마지기 사고 하면서 막 밭 사주면 고마워서 일본서 돈 벌면서 돈 보내니까 자기네도 거기서 떼먹으면서 살았을 거야. 그 약은 사람들 쥐새끼같이 약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일본서 와서 사뭇 거기 집 안팎채 큰 집 사서 살면서 해서 아들들 거기서 팔고 했지. 딸들은 일본서 큰딸이랑 다 팔고 막내딸하고 우리 아주버니하고 해서 세 오누이 데리고 와서 사니까 우리 아주버니는 일본서 큰 학교 하니까 오자마자 장가가서 일본서 장가가서 오니까 선생으로 하고 우리 아기 아버지도 일본서 학교 졸업해도 아직 직장 없어서 해방이 그때 그 기계만 들어오니까 서울 창고 해서 맡기니까 창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가서 보러 가지. 어떻게 하는가 보러 가서 올 땐, 그때 크림 이름이 '주주'야. 주주 크림 사 와서 홀어머니도 주고, 핫어머니도 주고, 처녀도 주고 한데.)

104025 @ 핫어멍은 뭐?(핫어머니는 뭐?)

104025 # 핫어멍은 서방 신 어멍.(핫어머니는 남편 있는 어머니.)

104025 @ 아, 서방 신 어멍은 핫어멍?(아, 남편 있는 어머니는 핫어머니?)

104025 # 응, 홀어멍은 서방 엇은.(응, 홀어머니는 남편 없는.)

104025 @ 거난 건 알고.(그러니까 건 알고.)

104025 # 경헹인에 주민덜 ᄉᆞ뭇 좋앙 쌍인에 허멍 ᄉᆞ뭇 우리 애기 아방 그.(그래서 주민들 사뭇 좋아서 싸서 하면서 사뭇 우리 아기 아버지 그.)

104025 @ 인기가 완전 좋앗겟네.(인기가 아주 좋았겠네.)

104025 # 인기 좋아. 경 허민 그 폭낭 아래이 우리 애기 아방이 육지 강 오민 유행가 하나썩 새로 노래가 하나썩 혜영 와. 경 허믄 우리 시누이영 그디 의자 ᄋᆞ져다 놓곡 진 기타로 맞촤. 소리 띵띵 혜영 맞촹 뜰리믄 또 뜰렷젠 허멍 맞추고 경 노래 유행가 멧 개 일본 노래 베와줘라게. 베와줭 노래허멍 살단 서방 죽어부난. 서방 사난이 노래 잘허곡 우리 애기 아방 춤 잘 추민이 다른 부락에서 초청 와. 잔칫날. 가문잔칫날 막 붉도록 놀아. 게민 난 애기 나근에 안 가켄 허민 우리 시어멍 아기 이리 들러다뒁 가라, 가라, 니 소나이영 가라, 가라 허민 막 서방은 가겐 헤도 안 가켄 허민 치메저고리 ᄐᆞ루 싸곡 수건 하나 싸곡 혜영 나영 ᄀᆞ치 가가민 우리 시어멍이 치메 안자룩 ᄒᆞ쏠 등기민 아덜 일름 불르멍 니네 각시 그 치메자락 우트레 쏙 잡아뎅기렌 허믄 뒤에 강 우트레 쏙 올려주곡 헤라게.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인기 좋아. 그러면 그 팽나무 아래 우리 아기 아버지 육지 가서 오면 유행가 하나씩 새로 노래가 하나씩 해서 와. 그렇게 하면 우리 시누이랑 거기 의자 가져다놓고 자긴 기타로 맞춰. 소리 띵띵 해서 맞춰서 틀리면 또 틀렸다고 하면서 맞추고 그렇게 노래 유행가 몇 개 일본 노래 배워주더라. 배워줘서 노래하면서 살다가 남편 죽어버리니까. 남편 사니까 노래 잘하고 우리 아기 아버지 춤 잘 추면 다른 부락에서 초청 와. 잔칫날. '가문잔칫날' 막 밝도록 놀아. 그러면 난 아기 낳아서 안 가겠다고 하면 우리 시어머니 아기 이리 들어다두고 가라, 가라, 네 남편이랑 가라,

가라 하면 막 남편은 가자고 해도 안 가겠다고 하면 치마저고리 따로 싸고 수건 하나 싸고 해서 나랑 같이 가면 우리 시어머니 치마 안자락 조금 늘어지면 아들 이름 부르면서 너희 색시 그 치맛자락 위로 쏙 잡아당기라고 하면 뒤에 가서 위로 쏙 올려주고 하더라.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

104025 @ 예.(예.)

104025 # 경 강은에 이젠 막 노래 시작허믄 나 노래 한참 혜영 막 신나게 노래 헤가민 우리 ○○ 아방은 포따리 ᄋᆞ경강 술짝 강 화장허영이 얼굴에 화장허영 수건 썽 한복 입엉 춤추레 오민 체음엔 누게 허는 철이 몰란이. 막 ᄉᆞ뭇 놀당 말젠 보민 아이고 우리 애기 아방이 ○○이라. 아이고 ○○이로구나, ○○이로구나 허멍 혜영 경 초청허멍 허단 그 더러운 시국 나난이.(그렇게 가서 이젠 막 노래 시작하면 나 노래 한참 해서 막 신나게 노래 해가면 우리 ○○ 아버지는 보자기 가져가서 살짝 가서 화장해서 얼굴에 화장해서 수건 써서 한복 입어서 춤추러 오면 처음엔 누가 하는 차례 몰라서. 막 사뭇 놀다가 그만두려고 보면 아이고 우리 아기 아버지가 ○○이야. 아이고 ○○이로구나, ○○이로구나 하면서 해서 그렇게 초청하면서 하다가 그 더러운 시국 나니까.)

104026 @ 숫도 헤낫수과?(숯도 했었습니까?)

104026 # 응?(응?)

104026 @ 숫 구워납디가?(숯 구웠었습니까?)

104026 # 숫, 숫은 안 구워난.(숫, 숫은 안 구웠었어.)

104026 @ 굽는 거 봐나긴 헨?(굽는 거 보긴 했어?)

104026 # 숫도 이 대정 지경드렌 안 헤여.(숯도 이 대정 지경으로 안 해.)

104026@ 풀레 온 거 사긴 헤난?(팔러 온 거 사긴 했었어?)

104026 # 풀레 오민 삼은 허주게.(팔러 오면 사기는 하지.)

104026 @ 거 상 무신거 허는 거라?(그거 사서 무엇 하는 거야?)

104026 # 풀레 오민 상인에 화리에 불도 살르고.(팔러 오면 사서 화로에 불도 사르고.)

104026 @ 응.(응.)

104026 # 이 저 궤기 굴 때 화리에 살뢍 제숙도 굽고 경헷주게.(이 저 고기 구울 때 화로에 살라서 제육도 굽고 그랬었지.)

사냥

104028 @ 아, 혹시 사냥허는 사름덜도 봐납디가?(아, 혹시 사냥하는 사람들도 봤었습니까?)

104028 # 응?(응?)

104028 @ 사농바치덜 봐납디가? 꿩 사냥허곡 노리 사냥허곡.(사냥꾼들 봤었습니까? 꿩 사냥하고 노루 사냥하고.)

104028 # 응, 우리 동네 송칩이 하르방이 가죽감티 쓰곡 가죽신 멘들앙 신곡 또

안성 오칩잇 어른이 가죽감티 쓰고 아랫도리도 가죽으로, 노리 잡으레.(응, 우리 동네 송씨 집 할아버지가 '가죽감티' 쓰고 가죽신 만들어서 신고 또 안성 오씨집 어른이 '가죽감티' 쓰고 아랫도리도 가죽으로, 노루 잡으러.)

104030 @ 아, 노리 잡으레.(아, 노루 잡으러.)

104030 # 노리 잡으레. 우린 이제 보성 요 학교 뒤에 사난에 그 송칩잇 하르방도 학교 뒤에 살아. 그 하르방 송칩이 하르방 아덜덜은 혹교에 선생덜도 허곡 출세허고 저 안성 오칩잇 아덜덜은 혹교엔 안 헤여. 경 그 하르방이 가죽감티 쓰고 이런 거 가죽 토시, 손도메 이거 허영 찌곡 이 신발도 가죽으로 신 헤영 신엉 아이고 저 하르방넨 노리 잡으레 이디 송 하르방신듸 오랑 우룩맞촨에[95] 올레로 안 강 우리 우영팟으로 그디 성 영헌 골목 이서. 우리 올레, 우리 우영팟듸가 성 영 다졋주게. 영 성 다지민 요디 들어간 딜로 허영 산에 강 노리 잡앙 온덴 허영 그추룩 헤영 가죽신, 가죽모즈, 이 손도메도 허영 강 노리 ᄉᆞ망일민 잡앙덜 올랑덜 그 송칩이 하르방네 집서 잡앙덜 갈르곡이 기추룩 허는디 오칩잇 하르방넨 아덜이 서너 성제 뒈도 혹교 안 시겨신ᄀᆞ라 출세 못 허고, 그 송칩이 하르방은 아덜 하난디 혹교 선생질허단 죽언. 그 하르방 아덜은 출세허연. 게 손지덜도 막 ᄋᆞ망져. 잘 뒈고.(노루 잡으러. 우린 이제 보성 요 학교 뒤에 사니까 그 송씨 집 할아버지도 학교 뒤에 살아. 그 할아버지 송씨 집 할아버지 아들들은 학교에 선생들도 하고 출세하고 저 안성 오씨 집 아들들은 학교 안 해. 그렇게 그 할아버지 '가죽감티' 쓰고 이런 거 가죽 토시, 토시 이거 해서 끼고 이 신발도 가죽으로 신 해서 신어서 아이고 저 할아버지네는 노루 잡으러 여기 송 할아버지에게 와서 '우룩맞촨에' '올레'로 안 가서 우리 텃밭으로 거기 있어서 이런 골목 있어. 우리 '올레', 우리 텃밭이 있어서 이렇게 쌓아졌지. 이렇게 있어서 쌓아지면 요기 들어간 데로 해서 산에 가서 노루 잡아서 온다고 해서 그처럼 해서 가죽신, 가죽모자, 이 토시도 해서 가서 노루 'ᄉᆞ망일민' 잡아서들 와서들 그 송씨 집 할아버지네 집에서 잡아서 가르고 그렇게 하는데 오씨 집 할아버지넨 아들이 서너 형제 돼도 학교 안 시켰는지 출세 못 하고, 그 송씨 집 할아버지는 아들 하난데 학교 선생질하다가 죽었어. 그 할아버지 아들은 출세했어. 그러게 손주들도 아주 'ᄋᆞ망져'. 잘 되고.)

104028 @ 그렇게 허는 사름을 사농바치엔 ᄀᆞᆯ아?(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냥꾼이라고 말해?)

104028 # 응.(응.)

104028 @ 사냥꾼?(사냥꾼?)

104028 # 그냥 사냥꾼.(그냥 사냥꾼.)

104030 @ 주로 노리 잡으레 다녀예?(주로 노루 잡으러 다녀요?)

104030 # 순 노리만 잡으레.(순 노루만 잡으러.)

104029 @ 꿩은 안 해?(꿩은 안 해?)

104029 # 꿩은 잡앙 온 말 아녀고 노리 사농 감젠은 허더라.(꿩은 잡아서 온 말

95) '우룩맞추다'는 자웅이 서로 소리 질러 부르며 응하다라는 뜻이다.

않고 노루 사냥 간다고는 하더라.)

104030 @ 노리 사농 감젠.(노루 사냥 간다고.)

104030 # 산에 강은에 노리 사농 감젠.(산에 가서 노루 사냥 간다고.)

104030 @ 경헤낫구나예. 할머니가 거 허는 거 봐나진 안헷지예?(그랬었군요. 할머니가 그거 하는 거 보진 않았었지요?)

104030 # 마치고 뭐 허는 건 봐나지 안허고 잡아근에 졍 오는 건 봐낫어. 졍 오랑인에 그거 송칩이 하르방네 집이, 송칩이 아덜은 선생이 뒈고 오칩잇 아덜덜은 선생 뒌 사름 엇언.(맞히고 뭐 하는 건 보지 않고 잡아서 져서 오는 건 봤었어. 져서 와서 그거 송씨 집 할아버지네 집 송씨 집에, 아들은 선생이 되고 오씨 집 아들들은 선생 된 사람 없어.)

5. 바다일

105001 @ 이디 인성린 바당 엇주예?(여기 인성린 바다 없지요?)

105001 # 바당 엇어. 이 대정골은 바당 없어.(바다 없어. 이 대정골은 바다 없어.)

105001 @ 바당에서 허는 일은 잘 몰르주예?(바다에서 하는 일은 잘 모르지요?)

105001 # 바당엔 해녀덜 허고.(바다엔 해녀들 하고.)

105001 @ 바당에 강 무신거 잡곡 헤낫수과?(바다에 가서 무엇 잡고 했었습니까?)

105001 # 응.(응.)

105001 @ 무신거 잡아납디가?(무엇 잡았었습니까?)

105001 # 바르[96]도 테고.('바르'도 떼고.)

105020 @ 바르가 뭐?('바르'가 뭐?)

105020 # 전복 새끼.(전복 새끼.)

105020 @ 아.(아.)

105020 # 전복 새끼ᄀᆞ라 바르.(전복 새끼보고 '바르'.)

105020 @ 응.(응.)

105020 # 강은에 나 바르 낭푼이로 하나썩 잡앙 온다.(가서 나 '바르' 양푼으로 하나씩 잡아서 온다.)

105020 @ 예.(예.)

105001 # 메역 허경[97] 나믄 눈 썽 강 메역 헤여근에 우리 시누이 집이 흔 짐 져근에 보내두곡 또 나 말쩬 물천[98] 잡앙 오곡.(미역 '허경' 나면 물안경 쓰고 가서

96) '바르'는 작은 전복을 의미하는 제주어고 지역에 따라 '오분재기'를 말하기도 한다.
97) '허경'은 금채기가 끝나고 해산물을 채취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98) '물천'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말한다.

미역 해서 우리 시누이 집에 한 짐 져서 보내두고 또 나 말째 '물천' 잡아서 오고.)

105001 @ 메역도 허레 가낫수과?(미역도 하러 갔었습니까?)

105001 # 메역허레 세계 바당에 강. 허경허민이 물꾼[99] 허경허는 날이 이서.(미역하러 사계 바다에 가서. '허경'하면 '물꾼' '허경'하는 날이 있어.)

105001 @ 응.(응.)

105001 # 해녀질 안 헌 사름 혼불 허렌 허민 그 곳디 든 거 허렌 허민 물꾼이엔 허영 눈 썽 나타나민 저 웃드르 해녀덜 못허게 막 허주게. 지네 해녀덜 거렌. 게민 눈 바당 안에 거자 강인에 그 사름덜 보지 못허게 눈 썽 들어강 메역허영 귀로 그 창인에 허리에 차사주. 베 졸라메영이. 허리에 차주. 귀에 안 그창인에 허민 질질 빠져불어.(해녀질 안 한 사람 한벌 하라고 하면 그 갯가에 든 거 하라고 하면 '물꾼'이라고 해서 물안경 써서 나타나면 저 '웃드르' 해녀들 못하게 막 하지. 자기네 해녀들 거라고. 그러면 물안경 바다 안에 거의 가서 그 사람들 보지 못하게 물안경 써서 들어가서 미역해서 미역귀로 잘라서 허리에 차야지. 바 졸라매서. 허리에 차지. 미역귀 안 자르고 하면 줄줄 빠져버려.)

105001 @ 아.(아.)

105001 # 귀로 그창인에 허리에 톡 차민 빠지질 안헤여.(미역귀로 잘라서 허리에 톡 차면 빠지지 않아.)

105001 @ 여기, 오.(여기, 오.)

105001 # 게민 탁 그창은에 허리에 창 싹 밀리고 탁 그창 허리에 싹 밀리고. 잔뜩 허리에 창 오민 큰 바구리로 하나 허영 우리 시누이신듸 비와줭 건 몰르게 허는 거주게.(그러면 탁 잘라서 허리에 차서 싹 밀고 탁 잘라서 허리에 싹 밀고, 잔뜩 허리에 차서 오면 큰 바구니로 하나 해서 우리 시누이에게 비워줘서 건 모르게 하는 거지.)

105001 @ 응.(응.)

105001 # 몰르게 허영 정 혼저 올라가렌 헤뒁 말젠 물천 잡으민 낭푼이로 하나 바르 테고 구살도 테곡 헹 올라오곡.(모르게 해서 져서 빨리 올라가라고 해두고 말째는 '물천' 잡으면 양푼을 하나 '바르' 떼고 소라도 떼고 해서 올라오고.)

105001 @ 해녀도 아닌디 그런 것도 잘 헤낫구나.(해녀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잘 했었구나.)

105001 # 응, 게. 나 해녀질. 경 허난 세계 진짜 해녀덜이 웃드르 해녀덜 저 해녀질 아녀 노렌 허멍 헤영인에 눈이영 곱졋당 말젠 물에 들어강 눈 썽 문 헤염젠 막 헤여낫어.(응, 게. 나 해녀질. 그러니까 사계 진짜 해녀들이 '웃드르' 해녀들 저 해녀질 안 한다고 하면서 해서 물안경이랑 숨겼다가 말째는 물에 들어가서 물안경 써서 모두 헤엄친다고 막 했었어.)

105001 @ 허허허. 눈은 옛날에 두 개 안경 닮은 거?(허허허. 물안경은 옛날에 두 개 안경 같은 거?)

105001 # 응, 경헌 거 썽 영 썽. 이제도 해녀덜 쓰는 거.(응, 그런 거 써서 이렇

99) '물꾼'은 바다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게 써서. 이제도 해녀들 쓰는 거.)

105001 @ 응.(응.)

105001 # 나가 손 걸엉이 우리 시아방이 팔월[팔뤌] 열여드레 날이 시하르방 식게민 팔월[팔뤌] 보름 뒈민 갯ᄀᆞ이 계속 가렌 헤영. 겡 바르 잡아당 적갈허곡. 물꾸럭 시꺼오민, 심어오민이 어뜬 땐 물꾸럭 두시 개 심어져.(내가 손 걸어서 우리 시아버지 열여드레 날이 시할아버지 제사면 팔월 보름 되면 갯가에 계속 가라고 해서. 그래서 '바르' 잡아다가 적하고. 문어 실어오면, 잡아오면 어떤 땐 문어 두세 개 잡을 수 있어.)

105001 @ 예.(예.)

105001 # 경 허민 상퉁이[100] 뒈쓰지 말앙 그냥 오렌 허민 쉐고젱이 ᄋᆞ정강은에 구덕 바위에 걸엉 쉐고젱이에 끼멍 영 상퉁이 뒈쓰민 그 먹을 빠불어사 헐 거주게이.(그러면 '상퉁이' 뒤집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하면 쇠꼬쳉이 가져가서 바구니 바위에 걸어서 쇠꼬챙이에 끼면서 이렇게 '상퉁이' 뒤집으면 그 먹을 빼버려야 할 거지.)

105001 @ 응.(응.)

105001 # 상퉁이 확 뒈쌍 먹 빵 던져불주게. 시아방 화병으로 그 먹 그냥 먹켄 허영 어뜬 땐 첨 물꾸럭 시 개 잡을 때, 두 개 잡을 때.('상퉁이' 확 뒤집어서 먹 빼서 던져버리지. 시아버지 화병으로 그 먹 그냥 먹겠다고 해서 어떤 땐 참 문어 세 개 잡을 때, 두 개 잡을 때.)

105001 @ 아이고.(아이고.)

105001 # 보름 물찌에 하여컨 일고ᄋᆞ답 물ᄁᆞ지 계속 시아방 가렌 허영 강 오고. 바르 잡아근에[찹아그네] 시하르방 삼월에 식게난 삼월 보름 가까울 때 식게난 적허고.(보름 물때에 하여튼 일고여덟 물까지 계속 시아버지 가라고 해서 갔다 오고. '바르' 잡아서 시할아버지 삼월에 제사니까 삼월 보름 가까울 때 제사니까 적 하고.)

105001 @ 응.(응.)

105001 # 그추룩 헤낫어. 이제 나 이 우리 애기 아방이영 살멍도 갯ᄀᆞ이 강은에 모실포 바당에 강도 바르영 전복이영 하영 테고 물꾸럭도 흔번에 강 두 개 잡아지민 동넷 사름 서너이 갈랑 ᄋᆞ지렌 허고 하나 헌디. 이 보성 사름덜이 도야지 잡고 알드르 먹으레 감젠 허멍이 이디 보성 강 부장이엔 헌 사름이 무사 날ᄀᆞ라 삼춘이엔 헤신곤 허난이 엿날에 서부락에 사름이 강칩이 보성 강칩이 시집왓어. 뚤이 시집오난에 아방 죽언에 고렴을 간 거주게이. 경 허난 나도 그 이디 대정골 시집온 아이 아방 죽은 디 고렴 가멍 보난이 그 동부락으로 영 나오민 삼커림이라.(그처럼 했었어. 이제 나 이 우리 아기 아버지랑 살면서도 갯가에 가서 모슬포 바다에 가서도 '바르'랑 전복이랑 많이 떼고 문어도 한번에 가서 두 개 잡으면 동네 사람 서너이 갈라서 가지라고 하고 하나 했는데. 이 보성 사람들이 돼지 잡고 '알드르'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여기 보성 강 부장이라고 한 사람이 왜 나보고 삼촌이라고 했나 하니까 옛날에 서부락에 사람이 강씨 집에 보성 강씨 집에 시집왔어. 딸이 시집오

100) '상퉁이'는 상투의 제주어이지만 여기서는 문어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니까 아버지 죽어서 조문을 간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 여기 대정골 시집온 아이 아버지 죽은 데 조문 가면서 보니까 그 동부락으로 이렇게 나오면 삼거리야.)

105001 @ 응.(응.)

105001 # 삼커림인디 보성 사름이 저레 막 뛰어가라게. 강칩이 사름이 막 뛰어가난. 야! 닌 무사 그레 감디 허난 말 맙서, 말 맙서 허멍 점방 우트레 둘아. 어뜨난 말 말렌 허멍 둘암신고 허난. 아, 그디 간 보난 청년덜이 싹 두 줄로 산 어떤 놈 일려 세완 팍 박쳔 발로 바락 불르고 팍 박쳔 바락 불르난 아 누게가 이디서 다 죽엄신고 그 사름이 하나 둘으난 혹시나 대정골 사름인가 누겐가 허난 사름이 꽉 두 줄로 사. 그 사름 가운디 일려 세왕 콱허영 잡아 두들민 발로 바락바락 불르곡 허난 요 흔 줄에 사름 영 밀령 들어가난 이딘 두 줄로 사도 ᄒᆞ꼼 새가 늦언. 보난 이디 강칩이 사름이라게.(삼거리인데 보성 사람이 저리 막 뛰어가더라. 강씨 집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야! 넌 왜 그리 가니 하니까 말 마세요, 말 마세요 하면서 가게 위로 달려. 왜 말 말라고 하면서 달리고 있나 하니까. 아, 거기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싹 두 줄로 서서 어떤 놈 일으켜 세워서 팍 박쳐서 발로 바락 밟고 팍 박쳐서 바락 밟으니까 아 누가 여기서 다 죽고 있나 그 사람이 하나 달리니까 혹시나 대정골 사람인가 누군가 하니까 사람이 꽉 두 줄로 서. 그 사람 가운데 일으켜 세워서 콱해서 잡아 두드리면 발로 바락바락 밟고 하니까 요 한 줄에 사람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니까 여긴 두 줄로 서도 조금 새가 늦었어. 보니까 여기 강씨 집 사람이야.)

105001 @ 무사?(왜?)

105001 # 강칩이 아인디 ᄒᆞ쏠 깡으로 ᄒᆞ꼼 논 아이. 아, 경 허난 거짓말로이 아이고 경 허지 말라게 이거 우리 오라방 아덜이여게. 경 허난 그 청년덜 싹 무너사라게. 우리 애기 아방이 그디서 청년덜 글 ᄀᆞ리치고 막 헤여나난산디사이. 아이고 느네 경 허지 말라게 이거 우리 오라방 아덜이여게 허난 싹 무너사난 제우 일려세완 아니 까진 디가 시냐? 부축허연 차부에 오란 버스 헤연 시껀 보내시네. 시껀 보낸 그 집이 누이 가게 볼 때 ᄀᆞᆯ으난, 아이고 고맙수다, 아이고 삼춘 고맙수다, 우리 오라방 깡패질허는 따문 ᄉᆞ못 어디서 술 먹엉 뭐 헤염젠 허믄 우린 ᄉᆞ뭇 줌을 못 잠니덴, 아이고 삼춘 고맙수덴 허연 그 아이ᄀᆞ란 아부지네 집이 올 때 ᄀᆞᆯ으멍 허난 고맙덴 헤영 우리 아이 둘안 올 땐 과자도 주곡 헨게.(강씨 집 아인데 조금 깡으로 조금 논 아이. 아, 그러니까 거짓말로 아이고 그러지 마라 이거 우리 오라버니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청년들 싹 물러서더라. 우리 아기 아버지 거기서 청년들 글 가르치고 막 했었기 때문인지. 아이고 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오라버니 아들이어게 하니깐 싹 물러서니까 얼른 일려세워서 안 까진 데가 있니? 부축해서 정류장에 와서 버스 해서 실어서 보냈어. 실어서 보내서 그 집에 누이 가게 볼 때 말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삼촌 고맙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깡패질하는 때문 사뭇 어디서 술 먹어서 뭐 한다고 하면 우린 사뭇 잠을 못 잔다고, 아이고 삼촌 고맙다고 해서 그 아이보고 아버지네 집에 올 때 말하면서 하니까 고맙다고 해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올 땐 과자도 주고 했어.)

105001 @ 응.(응.)

105001 # 나가 이제 대정골 오란 살게 뒈난 그 사름네 농사 잘 아이 져도 두가시가 앚안 마농 깜서라게. 아이고 이젠 영 얌전헤연 앚안 마농도 깜구나게 허난 예 허멍 아이고 아무 때에 이만저만 헤신디 누게 날 뜨릴 사름이 싯수과 허곤데 저디 강 들어보라 니 하도 누겐 철이 몰란 흔 줄은 사름 못 보게 딱 사고 두 줄챈 흔 줄은 손으로 밀련 영 보난 고망 난 디 간 보난 느난에, 아이고 우리 오라방 아덜이여게, 느네 경 허지 말렌 허난, 싹 무너사난 나 차부에 시껀 오란 버스에 시껀 보냇저게. 경헨 나 멧 년 전이 느네 이디 셋누이ᄀᆞ라 ᄀᆞᆯ앗저 허멍. 그땐이 오라방 아덜이엔 허난 고모, 고모. 미시거 영 봐지민 요샌 고모 뭣 헴수과, 고모 영 못 보는게, 못 보는게 허멍이. 영 넘어가당 놀레 옵서, 놀레 옵서. 이제 지금이라도 고모, 고모 허여. 사름이 인정이 경 허는 거라.(내가 이제 대정골 와서 살게 되니까 그 사람네 농사 잘 안 지어도 부부가 앉아서 마늘 까고 있더라. 아이고 이젠 이렇게 얌전해서 앉아서 마늘도 까는구나 하니까 예 하면서 아이고 아무 때에 이만저만 했는데 누가 날 때릴 사람이 있습니까 하길래 저기 가서 물어봐라 너 하도 누구 차례인지 몰라서 한 줄은 사람 못 보게 딱 서고 두 줄째는 한 줄은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보니까 구멍 난 데 가서 보니까 너니까,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아들이다, 너희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싹 물러서니까 나 정류장에 실어 와서 버스에 실어서 보냈다. 그래서 나 몇 년 전에 너희 여기 둘째시누이보고 말했다 하면서. 그땐 오라버니 아들이라고 하니까 고모, 고모. 무엇 이렇게 보이면 요샌 고모 뭐 하십니까, 고모 영 못 보는데, 못 보는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이제 지금도 고모, 고모 해. 사람이 인정이 그렇게 하는 거야.)

105002 @ 듬북이나 이런 것도 헤납디가?(듬북이나 이런 것도 했었습니까?)

105002 # 응?(응?)

105002 @ 듬북, 감태.(듬북, 감태.)

105002 # 그런 거 안 헤여.(그런 거 안 해.)

105002 @ 밧듸 걸름허젠 허민 그런 거 헹 와낫젠 헨게마는.(밭에 거름하려고 하면 그런 거 해서 왔었다고 하던데마는.)

105002 # 아니 그건 저 세계[101] 사름덜, 바당ᄀᆞ듸 사름덜. 이디 사름덜은 안 헤.(아니 그건 저 사계 사람들, 바닷가의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안 해.)

105002 @ 이디 사름덜은 그런 거 안 헤예.(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감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잇습니까?(옷감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있습

101) '세계'는 안덕면 사계리를 말하는 것이다.

니까?)

106001 # 곳감?(곶감?)

106001 @ 옷, 옷. 기지, 기지 무슨 기지, 무신 기지 이서?(옷, 옷. 천, 천 무슨 천, 무슨 천 있어?)

106001 # 옷ᄀᆞ음, 엿날엔 베가 잇고, 멩지 잇고 광목이엔 헌 건.(옷감, 옛날엔 베가 있고, 명주 있고 광목이라고 한 건.)

106001 @ 광목도 잇고.(광목도 있고.)

106001 # 미녕.(무명.)

106001 @ 미녕 잇고.(무명 있고.)

106001 # 그거뿐.(그거뿐.)

106001 @ 이것뿐.(이것뿐.)

106001 # 미녕은 멘네로 허영은에 집에서 미녕 차고.(무명은 목화로 해서 집에서 무명 짜고.)

명주

106002 @ 제일 처음엔 멩지.(제일 처음엔 명주.)

106002 # 멩진 누에 질롱.(명주는 누에 길러서.)

106002 @ 그 멩지실은 어떵 헹 만드는 거꽈?(그 명주실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106002 # 누에 질루주게. 멘에 강은에 누에씰 받아왕 누에씨 무신거 젠젠헌 좁쏠 닮은 거 이런 디 종이에 바짝 부텅 이서. 흰 종이에이. 부텅 시민 어디다 놔두민 게여미, 새까만 게여미 닮은 거 나와. 나와가민 뽕 어랑진[102] 걸로 어랑어랑한 뽕잎을 튿앙인에 막 줌질이 썰엉은에 이젠 그 가물가물 대가리 그 동그락 동그락 헌 것이 가물가물 나와.(누에 기르지. 면에 가서 누에씨를 받아와서 누에씨 무엇 자잘한 좁쌀 같은 거 이런 데 종이에 바싹 붙어 있어. 흰 종이에. 붙어 있으면 어디다 놔두면 개미, 새까만 개미 같은 거 나와. 나와 가면 뽕 '어랑진' 걸로 '어랑어랑한' 뽕잎을 뜯어서 아주 자잘하게 썰어서 이젠 그 가물가물 대가리 그 동그랗고 동그란 것이 가물가물 나와.)

106002 @ 응.(응.)

106002 # 게여미, 막 족은 게여미 닮은 거 나오민 그레 영 주민 그것이 먹어가민이 대가리가 헤뚜룩허영 커 가이. 경헹은에 컹은에 허민 이제 누에가 이만은 크민 초불 줌, 두불 줌, 세불 줌자민 고치 뒈게 뒈어. 게민 뽕 주민 경 먹으민 누에 한밥이엔이, 구들 두 개에 놩인에 뽕 바구리를, 타당, 탁탁 그냥 놩인에 줘동 이디 오랑 뽕 졍 가 보민 벌써 다 먹어. 뽕 먹는 소리가 와상 와상 와상 와상. 경 허민이 난 뽕 강인에 튿아오고 우리 시어멍네이 이제 그거 허데경 줍센 허고. 밤인 또시 좀 잘 시간 시냐? 그 누에 똥을 치와사주게.(개미, 아주 작은 개미 같은 거 나오면

102) '어랑지다'는 나뭇잎이나 풀잎 따위가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것을 말한다.

그리 이렇게 주면 그것이 먹어가면 대가리가 해읍스름하게 해서 커 가. 그래서 커서 하면 이제 누에가 이만큼은 크면 초벌 잠, 두벌 잠, 세벌 잠자면 고치가 되게 돼. 그러면 뽕 주면 그렇게 먹으면 누에 한밥이라고, 방 두 개에 놔서 뽕 바구니를, 따다가, 탁탁 그냥 놔서 주고 여기 와서 뽕 지고 가 보면 벌써 다 먹어. 뽕 먹는 소리가 아삭 아삭 아삭. 그러면 난 뽕 가서 뜯어오고 우리 시어머니네 이제 그거 흩어서 주시라고 하고. 밤엔 또 잠 잘 시간 있니? 그 누에 똥을 치워야지.)

106002 @ 똥도 치와야 뒈여?(똥도 치워야 돼?)

106002 # 누에 똥 똥글똥글 싼 거 자주 치와줘사주게. 경헤가민 한밥 뒈엉 니불 쩡 잠 깨영 한밥 뒈민 뽕 주민 먹으멍 허당 실을 이른 디 흔들흔들 실이 나와. 실 나오민 이젠 올리게 뒛젠 헤영이.(누에 똥 동글동글 싼 거 자주 치워줘야지. 그렇게 해가면 한밥 되어서 네벌 껴서 잠 깨어서 한밥 되면 뽕 주면 먹으면서 하다가 실을 이런 데 흔들흔들 실이 나와. 실 나오면 이젠 올리게 됐다고 해서.)

106002 @ 올리게 뒛젠?(올리게 됐다고?)

106002 # 올리게 뒛젠이 이젠 이거 이제 올리게 뒛젠, 고치 만들게 뒛젠 헤영 이제 저 무시거 ᄂᆞ물 지지 세왕은에 유채낭 닮은 거 그거 허영 곱게 털엉 무껑 놧다인에 체엄에 ᄒᆞ쏠썩 홀 땐 바구니에 담아. 그 유채낭 영 뭉드그령 바구리에 담앙 그 누에 톡톡 올려놔근에 바구리에 지냥으로 올라가근에 막 고치 짓엉 고치 안에 들어가. 차츰차츰 들어강 고치 뒈어. 경 막 한밥에 뒈민 차롱착에 저 동백낭 그쳐당 두드려 바짝 세우주게.(올리게 됐다고 이젠 이거 이제 올리게 됐다고, 고치 만들게 됐다고 해서 이제 저 무엇 나물 지지 세워서 유챗대 같은 거 그거 해서 곱게 떨어서 묶어서 놨다가 처음에 조금씩 할 땐 바구니에 담아. 그 유채대 이렇게 뭉뚱그려서 바구니에 담아서 그 누에 톡톡 올려놔서 바구니에 자기대로 올라가서 막 고치 지어서 고치 안에 들어가. 차츰차츰 들어가서 고치 돼. 그렇게 막 한밥이 되면 채롱에 저 동백나무 잘라다가 두드려서 바짝 세우지.)

106002 @ 예.(예.)

106002 # 동백낭 오늘 그창은에 놓민 이파리 영허영 안 뒈어. 그창 ᄒᆞᆫ 이틀 뒈민 이파리가 영 웅크리민 저디 동백낭 저런 서들기[103] 그쳐당 구들 하나 잔뜩 놓으민[노민] 차롱착에 가근에 픽픽 던졍 놔두민 고치 낭 위에 올라근에 헤영케 고치가 열어. 헤영케 올아. 경헹 ᄒᆞᆫ 이틀 뒈면 그도 이젠 타주게이. 내치멍 탕인에 이젠 벳기는 거라, 벳경인에 이젠 터럭을 벳경 몽들랑 몽들랑 이제 고치 뒈민 이젠 누에 싸는 어른 빌어당 솟듸 놩 숢아. 솟듸 놩 숢아가민 영영 허민 실 나와. 영영 이젠 젓가락으로나 무신, 실 나오민 실은 이젠 물레에 이렇게 감아. 물레에 감앙인에 이젠 이디서 물레 영영 들르멍 실을 ᄒᆞ는 어른은 이걸로 짜륵짜륵허믄 이디서 물레 감곡 그추룩 허영 가름[104] 짓주게. 가름 짓어.(동백나무 오늘 잘라서 놓으면 이파리 이렇게 해서 안 돼. 잘라서 한 이틀 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웅크리면 저기 동백나무

103) '서들기'는 나무의 가지나 줄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04) '가름'은 물레에서 실을 빼서 뭉텅이가 되게 감아놓은 것을 말한다.

저런 ‘서들기’ 잘라다가 방 하나 가득 놓으면 채롱에 가서 픽픽 던져서 놔두면 고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얗게 고치가 열려. 하얗게 열려. 그래서 한 이틀 되면 그도 이젠 따지. 내치면서 따서 이젠 벗기는 거야, 벗겨서 이젠 털을 벗겨서 ‘몽들랑 몽들랑’ 이제 고치 되면 이젠 누에 싸는 어른 빌려다가 솟에 놔서 삶아. 솥에 놔서 삶아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실 나와. 이렇게 이렇게 이젠 젓가락으로나 무슨, 실 나오면 실은 이젠 물레에 이렇게 감아. 물레에 감아서 이젠 여기서 물레 이렇게 이렇게 둘르면서 실을 하는 어른은 이걸로 ‘짜륵짜륵’하면 여기서 물레 감고 그처럼 해서 ‘가름’ 짓지. ‘가름’ 짓어.)

106002 @ 가름 짓는 건 무시거?(‘가름’ 짓는 건 뭐?)

106002 # 게, 저 실이민 영 헤영인에.(그러게, 저 실이면 이렇게 해서.)

106002 @ 영 웅크려근에?(이렇게 웅크려서?)

106002 # 실이믄 영 허는 거 이거 가름.(실이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가름’.)

106002 @ 아, 그게 가름 짓는 거?(아, 그게 ‘가름’ 짓는 거?)

106002 # 영헹 가름 짓엉근에 놧다근에 가름 일단 짓은 다음에 한 며칠 뒈민 이젠 메여사 허는 거라이. 메게 뒈민 그른 무슨것에 이런 디 그 줄을 다 고냥에 똘른 더레 다 끼왕, 끼왕인에 이젠 이디 잡앙 뎅경 그걸 이젠 다시 풀 썽 가시리 풀 썽 막 문지겨근에 이제 저레 둥경 강인에 이 도꼬마리 닮은 것에 이젠 졸라매여. 대가지에 뀌엉. 졸라매영인에 이제 풀 적지멍 이제 술술 쓸엉 감곡 술술 쓸엉 감곡 허영. 일단은 다 감은 이상에 다 헤지민 이젠 베클에 놩인에, 베클에 놩 차게 뒈어. 베클드레 놩이. ᄇᆞ디집 뀌왕 ᄇᆞ디에 이젠 다 뀌와, ᄇᆞ디에 다 뀌왕인에 이제 ᄇᆞ디집 더껑인에 이젠 허리에 창인에 이젠 이렇게 두들멍 차주게.(이렇게 해서 ‘가름’ 지어서 놨다가 ‘가름’ 일단 지은 다음에 한 며칠 되면 이젠 매야 하는 거야. 매게 되면 그런 무엇에 이런 데 그 줄을 다 구멍에 뚫은 데로 다 끼워서, 끼워서 이젠 여기 잡아 당겨서 그걸 이젠 다시 풀 쑤어서 풀가사리 풀 쑤어서 막 문대서 이제 저리 당겨서 가서 이 도투마리 같은 것에 이젠 졸라매어. 댓가지에 끼워서. 졸라매서 이제 풀 적시면서 이제 살살 쓸어서 감고 살살 쓸어서 감고 해서. 일단은 다 감은 이상에 다 하고 나면 이젠 베틀에 놔서, 베틀에 놔서 짜게 돼. 베틀에 놔서. 바디집 끼워서 바디에 이젠 다 끼워, 바디에 다 끼워서 이젠 바디집 덮어서 이젠 허리에 차서 이젠 이렇게 두드리면서 짜지.)

106002 @ 이거, 이거 무신거라?(이거, 이거 무엇이야?)

106002 # 이건 꼬릿박.(이건 북.)

106002 @ 꼬릿박.(북.)

106002 # 꼬리 감은 거 이제 그 꼬리가 이추룩 헹 감은 거 영 감은 거 시민 이 감은 것이 요레 들이치주게. 들이쳐근에 욜로 실 나오게 허영 영영영 들이쳐 가민 그 실 이디 거 다 풀어지주게. 경헹은에 다 하영 창인에 허민 경 허난 미녕은 ᄒᆞ루서른 자 차져.(꾸리 감은 거 이제 그 꾸리가 이처럼 해서 감은 거 이렇게 감은 거 있으면 이 감은 것이 요리 들이뜨리지. 들이뜨려서 요리로 실 나오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이뜨려 가면 그 실 여기 그거 다 풀리지. 그래서 다 많이 짜서 하면 그러니까 무명은 하루 서른 자 짤 수 있어.)

106002 @ 멩지부터.(명주부터.)

106002 # 멩진이 하루종일 체암에 종일 차난 흔 자벳긔 못 차.(명주는 하루종일 처음에 종일 짜니까 한 자밖에 못 짜.)

106002 @ 아, 경 힘들어.(아, 그렇게 힘들어.)

106002 # 얼마나 즘진 거니게. 게고이 압이 진 땐 압 ᄇᆞ따사 ᄒᆞ쏠 압이 너무 진 땐 어이구 어거 어느제랑 다시 멩지 찰 생각이 엇언이. 그때 멩진 흔 두 빌레기[105] 헤연 제우 차난 다음부턴 누에 질롸근에 실 멘들앙 실에, 저 호근리[106] 사름들 오랑인에 멩지 ᄋᆞ져오랑 바꽈 가민 바꽈 갓주, 멩지는 차 보질 안헷저. 힘들언. 미녕은 ᄒᆞ루 서른 자 차져. 아제기 일어낭인에 조반 먹곡 헹 서른자 차 가민 우리 시아방은 놉 빌엉 차젠 허민 곤쏠 서껑 밥 헤영은에 멕이고 생선 사당 궝 멕인다. 저 메누리 헴시민 잘허렌 허멍 허민 저 우리 시어멍은 하르방 안 ᄀᆞᆯ아도 메누리 잘 헹 멕염수다 허멍 겡 막 날 애껴라게. 미녕 차고 멩지 차고 허연. 멩진 다시 찰 생각 엇언. 멩진 허민 실로 주민 멩지 바꽈. 게민 나 멩지로도 풀고 또시 시어멍 시아방 옷 헹 입으렌도 허고이.(얼마나 잔 거니. 그리고 앞이 긴 땐 앞 짧아야 조금 앞이 너무 길 땐 어이구 이거 언제랑 다시 명주 짤 생각이 없어. 그땐 명주 한 두 필해서 겨우 짜니까 다음부턴 누에 길러서 실 만들어서 실에, 저 호근리 사람들 와서 명주 가져와서 바꿔 가면 바꿔 갔지, 명주 짜 보질 않았어. 힘들어서. 무명은 하루 서른 자 짤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조반 먹고 해서 서른 자 짜 가면 우리 시아버지는 놉 빌어서 짜려고 하면 흰쌀 섞어서 밥해서 먹이고 생선 사다가 구워서 먹인다. 저 며느리 하고 있으면 잘하라고 하면서 하면 저 우리 시어머니는 할아버지 안 말해도 며느리 잘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막 나를 아끼더라. 무명 짜고 명주 짜고 했어. 명주는 다시 짤 생각 없었어. 명준 하면 실로 주면 명주 바꿔. 그러면 나 명주로도 팔고 또 시어머니 아버지 옷 해서 입으라고도 하고.)

106003 @ 멩지실은 종류가 무신 실, 무신 실 두 개 이수게?(명주실은 종류가 무슨 실, 무슨 실 두 개 있잖습니까?)

106003 # 두 개 엇어. 단지 한 가지. 멩지실.(두 개 없어. 단지 한 가지. 명주실.)

106003 @ 생멩지 이런 거, 생멩진 뭐라?(생명주 이런 거, 생명주는 뭐야?)

106003 # 생멩진, 생멩지엔 헌 건이 멩지 창인에 그냥 풀 안 헹인에 그자 허영 솖지 아녕, 솖지 아녕 미녕 멩지 창인에 그냥 풀 멕인 거. 그냥 풀만 죽여뒁 생멩지로 그냥 상그렝이 잇는 것ᄀᆞ라 생멩지지.(생명주, 생명주라고 한 건 명주 짜서 그냥 풀 안 하고 그저 해서 삶지 않고, 삶지 않고 무명 명주 짜서 그냥 풀 먹인 거. 그냥 풀만 죽여두고 생명주로 그냥 '상그렝이' 있는 것보고 생명주지.)

106003 @ 아, 또시 풀 헤영 막 다듬이 막 두불, 세불 막 다듬앙 빗이 나게 헌

105) '빌레기'는 피륙을 세는 단위인 '필'을 말하는 것이다.
106) '호근리'는 지명으로 서귀포시 호근동을 말한다.

거는 그냥 멩지엔 허고.(아, 또 풀 해서 막 다듬이 막 두벌, 세벌 막 다듬어서 빛이 나게 한 거는 그냥 명주라고 하고.)

106003 @ 아, 그건 그냥 멩지고.(아, 그건 그냥 명주고.)

106003 # 생멩지는 여름에 중의적삼들 헹 입고.(생명주는 여름에 고의적삼들 해서 입고.)

106004 @ 아, 생멩지로. 그믄 이런 멩지로 헹 입는 옷은 아까 여름에 헹 입는 건 생멩지로 중의적삼 입고, 또 멩지로 무신거 헹 입읍니까?(아, 생명주로. 그러면 이런 명주로 해서 입는 옷은 아까 여름에 해서 입는 건 생명주로 고의적삼 입고, 또 명주로 무엇 해서 입습니까?)

106004 # 저슬에 저 늙은 어른덜이 죽으민 죽은, 바지저고리 헹 입곡이 남자 어른은 도복. 여자 어른은 장옷.(겨울에 저 늙은 어른들이 죽으면 죽은, 바지저고리 해서 입고 남자 어른은 도포. 여자 어른은 장옷.)

106004 @ 아, 그건 다 멩지로?(아, 그건 다 명주로?)

106004 # 경 아무나 멩지로 허카부덴? 우린 멩지로 질르난 우리 시어멍도 멩지로 장옷 허고 시아방도 멩지로 도복 헷주. 경 허난 시아방이 나 죽엉 가건 니 헤 준 멩지로 헤 준 옷 입져 도라, 입져 도라 헤도 못 입지고 시어멍은 먼저 죽어가난 나 손으로 문딱 목욕시키고 나 손으로 헤진 옷 입젓저.(그렇게 아무나 명주로 할까 봐? 우린 명주로 기르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명주로 장옷 하고 시아버지도 명주로 도포 했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 죽어서 가면 너 해준 명주로 해 준 옷 입혀 달라, 입혀 달라 해도 못 입히고 시어머니는 먼저 죽어가니까 내 손으로 모두 목욕시키고 내 손으로 한 옷 입혔어.)

무명

106007 @ 그믄 이제 미녕에. 미녕은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무신 미녕, 무신 미녕.(그러면 이제 무명에. 무명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무슨 무명, 무슨 무명.)

106007 # 게, 미녕도게 일곱.(그렇지, 무명도 일곱.)

106007 @ 광목도 미녕이주예?(광목도 무명이지요?)

106007 # 광목은 멘네로 제주도산 아녕 육지서가.(광목은 목화로 제주도산 아니고 육지서가.)

106007 @ 닷새 미녕, 닷새 미녕 이런 거 이서?(닷새 무명, 닷새 무명 이런 거 있어?)

106007 # 닷새 미녕. 일곱새옌 헌 것은, 일곱새옌 헌 건 즘진 거, 닷새 미녕이엔에 헌 건 홁은 미녕.(닷새 무명. 일곱새라고 한 것은, 일곱새라고 한 건 자잘한 거, 닷새 무명이라고 한 건 굵은 무명.)

106007 @ 아, 일곱새 미녕, 닷새 미녕 영 허는디 일곱새 미녕은 즘진 거?(아, 일곱새 무명, 닷새 무명 이렇게 하는데 일곱새 무명은 자잘한 거?)

106007 # 응, 좀진 거, 좀질게 허영.(응, 자잘한 거, 자잘하게 해서.)

106007 @ 일곱새가 무신거가 일곱샌 거라?(일곱새가 무엇이 일곱새인 거야?)

106007 # 좀질게 허영인에 올도 더 놓고 꼬리도 더 들주게. 좀진 거 실이 좀지난. 일곱새 미녕이 경 ᄒᆞ쏠 서툰 사름은 부릉부릉 졸아근에 닷새 미녕 아이고 엿새, 닷새 미녕 헷저. 허여도 왜냐 미녕은 서른 자 차져, ᄒᆞ루에. 서른 자 한글리 차져.(자잘하게 해서 올도 더 놓고 꾸리도 더 들지. 자잘한 거 실이 자잘하니까. 일곱새 무명이 그렇게 조금 서툰 사람은 부릉부릉 짜서 닷새 무명 아이고 엿새, 닷새 무명 했다. 해도 왜냐 무명은 서른 자 짤 수 있어, 하루에. 서른 자 한가하게 짤 수 있어.)

106007 @ 게민 저 광목은 육지서 헹 오는 거고 미녕은.(그러면 저 광목은 육지서 해서 오는 거고 무명은.)

106007 # 광목은 육지서 헹 와사.(광목은 육지에서 해서 와야.)

106007 @ 육지서 헹 오는 거? 생목, 토목, 생목 영허는 것도 이수과?(육지서 해서 오는 거? 생목, 토목, 생목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106007 # 엇어.(없어.)

106007 @ 엇어?(없어?)

106007 # 단지, 멩지, 생멩지, 노인멩지. 노인[107] 건 이제 저 재 혜영이 노영 보그락허게 노인멩지엔 허고 생멩지는 그냥 뿔앙 생 걸로 바들락 헌 것ᄀᆞ라 생멩지렌 허곡.(단지, 명주, 생명주, 숙명주. '노인' 건 이제 저 재 해서 '노여서' 부드럽게 숙명주라고 하고 생명주는 그냥 빨아서 생 걸로 '바들락' 한 것보고 생명주라고 하고.)

106007 @ 생멩지허고 노인멩지?(생명주하고 숙명주?)

106007 # 응.(응.)

106007 @ 노인멩지는 어떵 헌 거라?(숙명주는 어떻게 한 거야?)

106007 # 노인 건 물 데운 디서게 뿔아불민 그 ᄒᆞ쏠 발이 죽어지주게. 실이 보도라와, 노인 멩지는. 게고 센 거 그자 센 거로 혜 두민 보드락혜영 생멩지 여름에 생멩지로 아이구 저 난닝구 혜연 입언 오난 안그렝이 잘도 좋다 허멍.('노인' 건 물 데운 데서 빨아버리면 그 조금 발이 죽지. 실이 보드라워, 숙명주는. 그리고 센 거 그저 센 거로 해 두면 '보드락'해서 생명주 여름에 생명주로 아이고 저 런닝 해서 입어서 오니까 '안그렝이' 잘도 좋다 하면서.)

106008 @ 미녕 다시 얘기할게예. 미녕으로는 무신 옷 멘들아마씸?(무명 다시 얘기할게요. 무명으로는 무슨 옷 만들어요?)

106008 # 미녕으로 이불안도 허곡, 감 들영은에 갈중이, 점뱅이도 허고, 또 없는 사람은 바지저고리도 혜영.(무명으로 이불안도 하고, 감 들여서 갈중의, 잠방이도 하고, 또 없는 사람은 바지저고리도 해서.)

106008 @ 미녕으로예? 주로 미녕을 하영 입엇구나예?(무명으로요? 주로 무명을 많이 입었군요?)

---

107) '노이다'는 재를 넣고 삶아서 명주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6008 # 미녕 주장[108]. 하여튼 봄 나민 갈옷허영 감 들영 갈옷 그자. 매해에 갈옷 허주게. 혼 헤 헌 걸로 입어지냐? 매날.(무명 '주장'. 하여튼 봄 나면 갈옷해서 감 들여서 갈옷 그저. 매해 갈옷 하지. 한 해 한 걸로 입을 수 있니? 맨날.)

106005 @ 그민 미녕은 어떵 헹 멘드는 거꽈?(그러면 무명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106005 # 미녕? 미녕게 이제.(미녕? 미녕 이제.)

106005 @ 멘네?(목화?)

106005 # 멘네 갈앙.(목화 갈아서.)

106005 @ 멘네 갈앙.(목화 갈아서.)

106005 # 갈아근에 캐민 타당.(갈아서 패면 따다가.)

106005 @ 무신거 타당?(무엇 따다가?)

106005 # 멘네 타당게.(목화 따다가.)

106005 @ 멘네.(목화.)

106005 # 캔 거 타당인에 이젠 집이서 막 물려. 바싹 물령. 메틀, 메틀 물려. 물리지 안허민 버렝이 바글바글 일어. 물리민 이제 씨 빠는 거 이서. 물레 씨 빠는 거. 경 영 헤가민 멕여가민 씬 털어지곡 멘넨 베끗듸레 나가. 나가민 이제 그걸 이젠 그디 닥살 훼초리로 몽뎅이로 두들어근에 바쌍 물령. 이젠 그 멘네 태우는 클에 강, 클에 강인에 이젠 즘질이 태와가민 또시 저 대죽 꼭대기, 대죽 그 고고리 부튼 디 대가 ᄀᆞ는 거 곱닥헌 것들 잇주게이.(팬 거 따다가 이젠 집에서 막 말려. 바싹 말려서. 며칠, 며칠 말려. 말리지 않으면 벌레 바글바글 일어. 말리면 이제 씨 빼는 거 있어. 물레 씨 빼는 거. 그렇게 이렇게 해가면 먹여 가면 씨는 떨어지고 목화는 밖으로 나가. 나가면 이제 그걸 이젠 거기 '닥살' 회초리로 몽둥이로 두드려서 바싹 말려서. 이젠 그 목화 태우는 틀에 가서, 틀에 가서, 기계에 가서 이젠 자잘하게 태워가면 또 저 대죽 꼭대기, 대죽 그 이삭 붙은 데 대가 가는 거 고운 것들 있지.)

106005 @ 예.(예.)

106005 # 그거 이젠 허여당 놔뒷당인에 그거 태우레 가민 그거 멧 개 ᄋᆞ정 가. 게민 소게 태워가민 소게 ᄋᆞ져당 잡아뎅경 영 놩인에 대죽낭 놩 영영영 밀민 그것이 쏙 빠불고 허영 그거 이젠 멧 개 소랑허게시리 멘들주게. 막 멘들앙 그 멘네 다시 빌내기, 니 빌내기 다 태우민.(그거 이젠 해다가 놔뒀다가 그거 태우러 가면 그거 몇 개 가져서 가. 그러면 솜 태워가면 솜 가져다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놔서 수수깡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면 그것이 쏙 빠지고 해서 그거 이젠 몇 개 갸름하게끔 만들지. 막 만들어서 그 목화 다 세 필, 네 필 다 태우면.)

106005 @ 시 빌레기, 니 빌레기가 뭐?(세 '빌레기', 네 '빌레기'가 뭐?)

106005 # 혼 빌이 마흔 자주게.(한 필이 마흔 자지.)

106005 @ 아, 혼 빌이 마흔 자.(아, 한 필이 마흔 자.)

106005 # 혼 빌이 마흔 자민게 허는 사람은 댓 빌썩도 허주게. 그추룩 허민 이

108) '주장'은 주로 많이 사용하거나, 중심이 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젠 그거 이젠 그거 영 정 밀어당이 속에 태우는 디 강 이 대죽낭 솔뚝이로 영 헤놓민 이젠.(한 필이 마흔 자면 하는 사람은 댓 필씩도 하지. 그처럼 하면 이젠 그거 이젠 그거 이렇게 저렇게 밀어다가 속에 태우는 데 가서 이 수수깡 소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젠.)

106005 @ 흔 빌은 어만이허꽈? 흔 빌 어만이? 흔 빌은 어만큼 헌 게 흔 빌?(한 필은 얼만큼입니까? 한 필 얼만큼? 한 필은 얼마만큼 한 게 한 필?)

106005 # 흔 빌은, 흔 빌은 어?(한 필은, 한 필은 어?)

106005 @ 얼만이?(얼마만큼?)

106005 # 흔 빌은 마흔 자가 흔 빌.(한 필은 마흔 자가 한 필.)

106005 @ 게난 마흔 자는?(그거니까 마흔 자는?)

106005 # 자로, 자로 재여.(자로, 자로 재.)

106005 @ 자로 재근에, 멘네를 그렇게 헹은에.(자로 재서, 목화를 그렇게 해서.)

106005 # 경헤근에 그 소게 태왕인에 그 즈룩을 영 멘들앙 무껑 오민 이제 집이 물레가 잇주게. 거민 이거 실 좀 빵인에 이제 고지게가 이제 노슨 거 끼우곡 물레 메우곡 허민. 이 실 빤 거 고지게엔 이제 어욱 껍데기 이파리 신 거 떼어뒁인에 어욱 대에 거 영 영 떼엉 그 고지게 쒜레 영 꼭 끼왕. 끼왕인에 이 실 끗겡이에 ᄒᆞ쏠 그 심 닮은 끗겡이레 영 톡허게 부쩌근에 허민 이거 영영 줏으멍 조르르륵 헹 요마니 가민 초록허고. 조로로록 헹 초록허고. 허영 이만이 허민 ᄀᆞ득으민 빠불고 헤영 말짼 이거 빤 거 이젠 꼬리 감앙인에 그건 이거 꼬릿박에 놩 차는 거고 이 이건 그냥 장지서로 허영 이젠 놀앙인에 이젠 풀 멕영 도꾸마리에 감앙 풀 싹싹 멕이고 솔로 싹싹 씰엉인에 이젠 그 그걸로 이젠 밀렷다 저레 밀렷다 막 헤영 곱게 헤지민 또 잡아뎅경 허멍 헹은에, 허영 미녕을 뒈민 베클에 이제 놩인에 발로 초신에 영 끼우고 이걸로 영 허민 착착착착 겡헤영 미녕 찻주게.(그래서 그 솜 태워서 그 자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묶어서 오면 이제 집에 물레가 있지. 그러면 이거 실 좀 빼서 이제 실꾸리가 이제 날카로운 거 끼우고 물레 메우고 하면. 이 실 뺀 거 실꾸리라고 이제 억새 껍데기 이파리 있는 거 떼어두고 억새 대의 거 이렇게 이렇게 떼어서 그 실꾸리 쇠에 이렇게 꼭 끼워서. 끼워서 이 실 끄트머리에 조금 그 심 같은 끄트머리에 이렇게 톡하게 붙여서 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자으면서 '조르르륵' 해서 요만큼 가면 '초록'하고. '조로로록' 해서 '초록' 하고. 해서 이만큼 하면 가득하면 빼버리고 해서 말째는 이거 짼 이거 뺀 거 이젠 꾸리 감아서 그건 이거 북에 놔서 짜는 거고 이 이건 그냥 '장지서'로 해서 이젠 날아서 이젠 풀 먹여서 도투마리에 감아서 풀 싹싹 먹이고 솔로 싹싹 쓸어서 이젠 그 그걸로 이젠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가 막 해서 곱게 하면 또 잡아당겨서 하면서 해서, 해서 무명이 되면 베틀에 이제 놔서 발로 짚신에 이렇게 끼우고 이걸로 이렇게 하면 착착착착 그렇게 해서 무명 짰지.)

106005 @ 응.(응.)

106005 # 게민 미녕도 체암엔 압 이디 너미 진 땐 하영 차진 못헤여. 막 차기

존 땐 서른 멧 자썩 차져. 멩진 다시 헐 생각 엇어. 이젠 멩진 기계로 이거 허난 허주. 이제도 미녕도 기계로들 육지에선 허지 안헴서게. 경 허난 미녕도 시어멍 거 두 클 차. 게민 여름에도 마에도 쉐막에 베클을 앗아불지 안허영 게민 칙칙허민 ᄀᆞ스락 불 클 아래 피왕인에 마에도 그 미녕 나 거 차지, 시어멍 거 차지, 또 그 놈이 할망 빌엉 꼬리 빌엉 줏으민 꼬리 빌엉 줏은 할망 거도 차주지. ᄉᆞ뭇 미녕 참으로 다 죽어.(그러면 무명도 처음엔 앞 여기 너무 긴 땐 많이 짜진 못해. 막 짜기 좋은 땐 서른 몇 자씩 짤 수 있어. 명주는 다시 할 생각 없어. 이젠 명주 기계로 이거 하니까 하지. 이제도 무명도 기계로들 육지에선 하지 않니. 그러니까 무명도 시어머니 거 두 틀 짜. 그러면 여름에도 장마에도 외양간에 베틀을 앗아버리지 않고 그러면 칙칙하면 까끄라기 불 틀 아래 피워서 장마에도 그 무명 나 거 짜지, 시어머니 거 짜지, 또 그 남의 할머니 빌려서 꾸리 빌려서 자으면 꾸리 빌려서 자은 할머니 것도 짜주지. 사뭇 무명 참으로 다 죽어.)

106005 @ 응.(응.)

106005 # 게, 멩진 다시 찰 생각 엇어. 멩진 그냥 질룅 그자.(그러게, 명주는 다시 짤 생각 없어. 명주는 그냥 길러서 그저.)

106005 @ 폼도 해?(팔기도 해?)

106005 # 강인에 그 사름들이 멩지 얻엉 오랑 실 바꽈가.(가서 그 사람들이 명주 얻어서 와서 실 바꿔가.)

106011 @ 홍세미녕은 뭐마씨?(‘홍세미녕’은 뭐예요?)

106011 # 홍세미녕[109]이엔 헌 건 그거 결혼허는 디 미녕 흔 빌 그 새각시칩 집이 홍세미녕으로 ᄋᆞ져가는 거.(‘홍세미녕’이라고 한 건 그거 결혼하는 데 무명 한 필 그 새색시집 집에 ‘홍세미녕’으로 가져가는 거.)

106011 @ 거, 뭐렌 헹 주는 거라?(그거, 뭐라고 해서 주는 거야?)

106011 # 뭐 허렌사 쥠신디 미릇 경.(뭐 하라고야 주는지 미리 그렇게.)

106011 @ 옷 헹 입으렌?(옷 해서 입으라고?)

106011 # 곽 닮은 것에 담앙인에 보내. 이젠 저 그런 것에.(상자 같은 것에 담아서 보내. 이젠 저 그런 것에.)

106011 @ 함?(함?)

106011 # 함인디 이젠 그 비단 ᄀᆞ튼 거 담앙 보내, 전인 중간엔 비단 ᄀᆞ튼 거 담앙 보내고 헹 그런 거주게.(함인데 이젠 그 비단 같은 거 담아서 보내, 전엔 중간엔 비단 같은 거 담아서 보내고 해서 그런 거지.)

모시

106015 @ 모시도 헤낫수과?(모시도 했었습니까?)

106015 # 모신 제주돈 안 헤난.(모시는 제주도는 안 했었어.)

106014 @ 제주돈 안 헤난예. 모시로도 옷 헹 입곡예.(제주도는 안 했었어요. 모

109) ‘홍세미녕’은 결혼식을 알리는 혼서를 놓은 함에 함께 놓는 무명을 말한다.

시로도 옷 해서 입고요.)

106014 # 게, 모시로 옷 헹 입고. 모시로, 모시로 중의적삼 헹 입고, 모시로 두루막도 헹 입고, 팔월에 멩질에 남즈덜.(그러게, 모시로 옷 해서 입고. 모시로, 모시로 고의적삼 해서 입고, 모시로 두루마기도 해서 입고, 팔월에 명절에 남자들.)

106014 @ 하양허게. 건 돈 한 사람이나 헹 입주예?(하얗게. 그건 돈 많은 사람이나 해서 입지요?)

106014 # 아무나 입으카부덴.(아무나 입을까 봐.)

106014 @ 게난예.(그러니까요.)

106014 # 게.(그렇지.)

106015 @ 제주도에서는 모시 잘 안 나는 거지예?(제주도에서는 모시 잘 안 나는 거지요?)

106015 # 안 낭은에 육지서 모시 오민 모시 상인에. 두루막 허영 입지고. 나 모시 두루막 허고 멩지 중의적삼 헹 입젠. 멩질 먹으레 팔뤌멩질에.(안 나서 육지서 모시 오면 모시 사서. 두루마기 해서 입히고. 나 모시 두루마기 하고 명주 고의적삼 해서 입혔어. 명절 쇠러 팔월명절에.)

삼

106016 @ 베, 베.(베, 베.)

106016 # 베도 육지서 오는 거.(베도 육지서 오는 거.)

106016 @ 아, 이디서 안 허는 거?(아, 여기서 안 하는 거?)

106017 @ 베는 어떤 옷 헹 입습니까?(베는 어떤 옷 해서 입습니까?)

106017 # 베도게 중의적삼 헹 입고 잘사는 사름이 중의적삼 헹 입주. 아무나 헹 입어?(베도 고의적삼 해서 입고 잘사는 사람이 고의적삼 해서 입지. 아무나 해서 입어?)

106017 @ 모시나 베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구나예.(모시나 베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군요.)

106017 # 게, 나도 우리 사우덜 시 성제 다 베로 중의적삼 허고 모시 두루막 헹 입지고. 저 베로 중의적삼 헹 입으렌 베 흔 빌 ᄋᆞ정가난 베 중의적삼 헹 입는 사람 어디수과 헤도 놔둬 오랏주게. 우리 아덜도 장게갈 때 멩지로 바지저고리 도복 멩지로 다 헤연 입지고. 베로 중이적삼 헤여줜 입으렌 여름에 입으렌 허고. 우리 오라방 아덜도 베로 중의적삼 헤연 줘지쿠덴, 아덜도 허영 입으렌 베 얻어당 줫주게.(그러게, 나도 우리 사위들 삼 형제 다 베로 고의적삼 하고 모시 두루마기 해서 입히고. 저 베로 고의적삼 해서 입으라고 베 한 필 가져가니까 베 고의적삼 해서 입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해도 놔두고 왔지. 우리 아들도 장가갈 때 명주로 바지저고리 도포 명주로 다 해서 입히고. 베로 고의적삼 해줘서 입으라고 여름에 입으라고 하고. 우리 오라버니 아들도 베로 고의적삼 해서 줄 수 있겠다고, 아들도 해서 입으라고 베 얻어다가 줬지.)

도구

106020 @ 아까 미녕헐 때 저예 멘네 씨 빼는.(아까 무명할 때 저요 목화 씨 빼는.)

106020 # 물레.(물레.)

106020 @ 그거 무신거옌 골아마씨?(그거 무엇이라고 말해요?)

106020 # 물레옌 허여. 거 씨빠는물레.(물레라고 해. 그거 씨아.)

106020 @ 물레옌 허여.(물레라고 해.)

106020 # 경 허민이 물레 읏추룩 허민이 이레 멘네 영 먹어가민 이레 멘넨 나가고 씬 이레 다륵다륵 털어져. 게난 그 제국 시절에이 이 물레 소리 나민이 멘네 실 불람젠 허영 공출 안 헴젠 헤연 고자질 헤놓으민[헤노민] 그 집이 미녕 ᄒᆞ나토 못 허게시리 헤부는 따믄이 이 퀴에이 저 지름을 불르나.(그러면 물레 요처럼 하면 이리 목화 이렇게 먹여가면 이리 목화는 나가고 씨는 이리 '다륵다륵' 떨어져. 그러니까 그 제국 시절에 이 물레 소리 나면 목화 씨를 바른다고 해서 공출 안 한다고 해서 고자질 해놓으면 그 집에 무명 하나도 못 하게끔 해버리는 때문 이 귀에 저 기름을 바르거나.)

106020 @ 소리 안 나게?(소리 안 나게?)

106020 # 응, 경 헤여근에 멘네, ᄌᆞ록 밤이 멘네씨 불르고 경헷어. 멘네 갈민 멘네 공출 얼마 허렌 딱 때려불민 미녕을 못 헨 입엇어, 그땐. 얼마나 제국 시절에.(응, 그렇게 해서 목화, 자루 밤에 목화씨 바르고 그렇게 했어. 목화 갈면 목화 공출 얼마 하라고 딱 때려버리면 무명을 못 해서 입었어, 그땐. 얼마나 제국 시절에.)

106020 @ 씨 불르는 거 말고 그냥 영영 실 감는 물레도 이수게?(씨 바르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실 감는 물레도 있잖아요?)

106020 # 그건 물레 줏넹 허여. 실 빠는 물레. 그건 댓가지로 영 헤영 허곡.(그건 물레 잣는다고 해. 실 빼는 물레. 그건 댓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고.)

106020 @ 그건 이름 뭐엔 골아?(그건 이름 뭐라고 말해?)

106020 # 것도 물레엔 허여.(그것도 물레라고 해.)

106020 @ 아, 똑ᄀᆞ치?(아, 똑같이?)

106020 # 건 물렌디 그냥 쒜 이젠 실 빵은에 감는 쒜 메와지주게. 경 허민 요거 실 빵인에 요런 것에 메우민 영영 물레 줏으멍 헤가민 그 멘네 조르륵허게 실 나와.(그건 물레인데 그냥 쇠 이젠 실 빼서 감는 쇠 메워지지. 그러면 요거 실 빼서 요런 것에 메우면 이렇게 이렇게 물레 자으면서 해가면 그 목화 조르륵하게 실 나와.)

106020 @ 응.(응.)

106020 # 실 나오민 이 손젭이 기계 톡 허영 영 허민 초록허게 그디 들이치민 그게 감아지곡.(실 나오면 이 손잡이 기계 톡 해서 이렇게 하면 '초록'하게 거기 들이뜨리면 그게 감기고.)

106020 @ 응.(응.)

106020 # 겡 헨 그거 고지게 빵인에 흔 빌레기 멧 개 헤지민 몽둥이에 감앙 미녕 놀앙인에 미녕 차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그거 실꾸리 빼서 한 필 몇 개 하면 몽둥이에 감아서 무명 날아서 무명 짜는 거지.)

106021 @ 베틀은?(베틀은?)

106021 # 그거ᄀᆞ라 베클ᄀᆞ라 베틀이렌 허주게.(그것보고 베틀보고 베틀이라고 하지.)

106021 @ 베클은 실 짜는 거주예?(베틀은 실 짜는 거지요?)

106021 # 응.(응.)

106021 @ 그믄 저 아까 저 뭐지? 멩지 짜는 거영 미녕 짜는 베클이 ᄐᆞ나?(그러면 저 아까 저 뭐지? 명주 짜는 거랑 무명 짜는 베틀은 달라?)

106021 # ᄐᆞ나지 안허여.(다르지 않아.)

106021 @ 아, ᄀᆞ튼 걸로 그냥 허는 거꽈?(아, 같은 걸로 그냥 하는 겁니까?)

106021 # ᄀᆞ뜬 걸로 그냥 허는디.(같은 걸로 그냥 하는데.)

106021 @ ᄀᆞ튼 걸로 허는 거구나예? 옛날에 할머니네 집에 이서낫수과?(같은 걸로 하는 거군요? 옛날에 할머니네 집에 있었습니까?)

106021 # 셔낫주게. 셔난디 어디레사 다.(있었지. 있었는데 어디에야 다.)

106021 @ 게난 어디로사 다 치와불엇인디사.(그러니까 어디로야 다 치워버렸는지.)

106021 # ᄇᆞ디집이엔 헌 건 ᄇᆞ디 영 허영 끼왕 허는 거고. 꼬릿박이엔 헌 건 꼬리 감앙인에 이젠 담앙 영 허민 꼬릿박으로 왓다 갓다 허멍.(바디집이라고 한 건 바디 이렇게 해서 끼워서 하는 거고. 북이라고 한 건 꾸리 감아서 이젠 담아서 이렇게 하면 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106020 @ 잠깐만예. 게난 아까 씨 빠는 건.(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씨 빼는 건.)

106020 # 물레씨 ᄇᆞᆯ르는 거.(물레씨 바르는 거.)

106020 @ 씨 ᄇᆞᆯ르는 거? 씨ᄇᆞᆯ르는물레예. 그 씨ᄇᆞᆯ르는물레는 그것도 영 일름이 다 이수게?(씨 바르는 거? 씨아요. 그 씨아는 그것도 이렇게 이름이 다 있잖습니까?)

106020 # 응, 씨ᄇᆞᆯ르는물렌 그냥 요만은 허영 저 멘네 영 멕이멍 영영영 허민.(응, 씨아는 그냥 요만큼은 해서 저 목화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6020 @ 돌리는 건 이름 뭐라?(돌리는 건 이름 뭐야?)

106020 # 그냥 이거 손젭이 영 둘름만 허민.(그냥 이거 손잡이 이렇게 두르기만 하면.)

106020 @ 손젭이.(손잡이.)

106020 # 그 멘네 씬 앞터레 털어지곡 멘넨 뒤터레 털어지주게.(그 목화 씨는 앞으로 떨어지고 목화는 뒤로 떨어지지.)

106020 @ 게난 그거 이름 이 앞에.(그러니까 그거 이름 이 앞에.)

106020 # 그냥 그거 물레엔 허메. 멘네 씨불르는물레.(그냥 그거 물레라고 해. 목화 씨아.)

106020 @ 그거 말고 이거 돌리는 건 손젭이. 그다음에 씨 멘네 앞더레 털어지게 허는 영 바치는 거 이수게? 이건 무신거옌 골아?(그거 말고 이거 돌리는 건 손잡이. 그다음에 씨 목화 앞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렇게 받치는 거 있잖습니까? 이건 뭐라고 말해?)

106020 # 거 씬 그냥 털어진덴 허영.(그거 씨는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106020 @ 그냥 씨 털어진덴 허여?(그냥 씨 떨어진다고 해?)

106020 # 그냥 이런 디 받앙인에 허곡.(그냥 이런 데 받아서 하고.)

106020 @ 기둥 잇고.(기둥 있고.)

106020 # 지둥 엇어.(기둥 없어.)

106020 @ 바닥 잇고?(바닥 있고?)

106020 # 바닥에 그냥 멘네씨 불를 땐 그냥 이 바닥에 물레가 영 놔. 놓민 이디서 멕여가민 이디 멘네 그냥 가고 이레 씨 털어지곡 이거만 영영 둘름만 허민 멘네 불르는 거나 뭐 어린 아이덜이라도 허는 거고. 경 허주.(바닥에 그냥 목화씨 바를 땐 그냥 이 바닥에 물레가 이렇게 놔. 놓으면 여기서 먹여가면 여기 목화 그냥 가고 이리 씨 떨어지고 이거만 이렇게 이렇게 두르기만 하면 목화 바르는 거나 뭐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106020 @ 영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뒈어 잇는 거. 꽈배기처럼 이렇게 뒈어 잇는 거 그 사이레 영 집어넣으민 까지는 거 아니?(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꽈배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까지는 거 아니?)

106020 # 톱니? 그건 무시거 아니냐게.(톱니? 그거 무엇 아니냐게.)

106020 @ 씨불르는물레.(씨아.)

106020 # 씨불르는물레가 저 톱니 닮은 게, 아니.(씨아가 저 톱니 같은 게, 아니.)

106020 @ 톱니 닮은 거 아니?(톱니 같은 거 아니?)

106020 # 무조건 이레 허민 두 개가 낭이영 두 개가 영 먹어가민 멘넨 저레 털어지곡 씬 이레 털어지곡. 톱니 헌 거 엇어. 멘네 씨 불르는 거.(무조건 이리 하면 두 개가 나무랑 두 개가 이렇게 먹여가면 목화는 저리 떨어지고 씨는 이리 떨어지고. 톱니 한 거 없어. 목화 씨 바르는 거.)

106020 @ 그거에 이름들이 각각의 이름들 엇어?(그거에 이름들이 각각의 이름들 없어?)

106020 # 그냥 멘네씨 불르는 기계옌만 허여.(그냥 목화씨 바르는 기계라고만 해.)

106020 @ 응. 물레 바탕, 물레 즈룩, 물렛귀, 씨앗귀 뭐 이런 거 엇어?(응. 물레

바탕, 물레 자루, ‘물렛귀’, ‘씨앗귀’ 뭐 이런 거 없어?)

106020 # 엇어. 물레 줏는 건 또시 이 물레 줏는 기계엔 헤영 영영영 줏이멍 빙빙빙 둘러가민 실 나오민 그추룩 허게 올리민 지냥으로 감아지곡. 실 이만은 나갓당 영 헹 올리민 자륵허게 자기대로 힘으로.(없어. 물레 잣는 건 또 이 물레 잣는 기계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으면서 빙빙빙 둘러가면 실 나오면 그처럼 하게 올리면 자기대로 감기고. 실 이만큼은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자륵허게’ 자기대로 힘으로.)

106020 @ 물레가 이거밖에 없네, 이거는 그냥 물레지예?(물레가 이거밖에 없네, 이거는 그냥 물레지요?)

106020 # 이건 저 실 빼는 거.(이건 저 실 빼는 거.)

106020 @ 그저 실 빼는 거예?(그저 실 빼는 거요?)

106020 # 응.(응.)

106020 @ 그건 실 빼는 물레예, 그냥 물레예.(그건 실 빼는 물레요, 그냥 물레요.)

106020 # 응. 실 빼는 건 곳사 건. 실 영영영 허여 가민 그 가레기 끼왕 가레기레 실 올라가게시리.(응. 실 빼는 건 아까 건. 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그 가락 끼워서 가락 실 올라가게끔.)

106020 @ 이거예 요것도 다 이름이 잇지 안헤? 요건 무신거, 요건 무신거, 요건 무신거 각각의 이름이 엇어?(이거요 요것도 다 이름이 있지 않아? 요건 무엇, 요건 무엇, 요건 무엇 각각의 이름이 없어?)

106020 # 이건 물레엔 허여, 물레.(이건 물레라고 해, 물레.)

106020 @ 전체는 물렌디 요건 손젭이.(전체는 물레인데 요건 손잡이.)

106020 # 이건 손젭이 둘러 가민.(이건 손잡이 둘러 가면.)

106020 @ 요건 뭐라? 이름이 이름 엇어?(요건 뭐야? 이름이 이름 없어?)

106020 # 일름 엇어.(이름 없어.)

106020 @ 요거는, 요거, 이름이 따로 엇어?(요거는, 요거, 이름이 따로 없어?)

106020 # 따로 엇어. 그자 씨빠는물레옌 허고, 줏는 물레옌만 헤여, 그땐.(따로 없어. 그저 씨아라고 하고, 잣는 물레라고만 해, 그땐.)

106020 @ 줏는 물레옌만 허고.(잣는 물레라고만 하고.)

106020 # 씨빠는물레 빌리렌 허고.(씨아 빌리라고 하고.)

106020 @ 그냥 그게 아까 쟁기처럼 잠데 일름추룩 혹시 일름이 없냐고?(그냥 그게 아까 쟁기처럼 쟁기 이름처럼 혹시 이름이 없냐고?)

106020 # 없어.(없어.)

106020 @ 이름 엇어.(이름 없어.)

106020 # 물레, 씨 빠는 물레 빌립센 허고. 베클 그냥.(물레, 씨 빼는 물레 빌리라고 하고. 베틀 그냥.)

106020 @ 베클 말고 이것부터 이름을. 영 허민예 요건 손잡이, 요건 바퀴, 요거

는 뭐 받침. 이런 말 엇어?(베틀 말고 이것부터 이름을. 이렇게 하면 요건 손잡이, 요건 바퀴, 요거는 뭐 받침. 이런 말 없어?)

106020 # 엇어.(없어.)

106020 @ 괴머리. 물레 바퀴.(괴머리, 물레 바퀴.)

106020 #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6020 @ 가락.(가락.)

106020 # 요건 그자 영영 둘러가민 이레 실 나왕.(요건 그저 이렇게 이렇게 둘러 가면 이리 실 나와서.)

106020 @ 실이 감아지는 거?(실이 감기는 거?)

106020 # 초록허민 요디 실 감아지곡.('초록'하면 요기 실 감기고.)

106020 @ 실 감아지는 건 이름 엇어? 무신거에 감아진덴 안 헤?(실 감기는 건 이름 없어? 무엇에 감긴다고 안 해?)

106020 # 이거 무신 가락이렌 헷어.(이거 무슨 가락이라고 했어.)

106020 @ 가락?(가락?)

106020 # 무슨 가락이렌. 곳새 건 실 빠는 물레엔 허곡.(무슨 가락이라고. 아까 건 실 빠는 물레라고 하고.)

106020 @ 요기는 또 이름 엇어? 요 근처에는?(요기는 또 이름 엇어? 요 근처에는?)

106020 # 엇어. 이거 그자 이건.(없어. 이거 그저 이건.)

106020 @ 바퀴?(바퀴?)

106020 # 바퀴엔도 안 허고 물레엔만 허난 몰라, 그 시절에.(바퀴라고도 않고 물레라고만 하니까 몰라, 그 시절에.)

106020 @ 다르게 얘기하는 거 이름은 엇어?(다르게 얘기하는 거 이름은 없어?)

106020 # 응.(응.)

106021 @ 그믄 베클은? 베클에도 영 아까 ᄇᆞ디집허고 무신거 이서나수게?(그러면 베틀은? 베틀에도 이렇게 아까 바디집하고 무엇 있었잖습니까?)

106020 # 응.(응.)

106021 @ 뭐, 뭐 이수과?(뭐, 뭐 있습니까?)

106021 # ᄇᆞ디 잇고, ᄇᆞ디집 잇고.(바디 있고, 바디집 있고.)

106021 @ ᄇᆞ디 잇고, ᄇᆞ디집 잇고.(바디 있고, 바디집 있고.)

106021 # ᄇᆞ디엔 헌 건 그 빗 닮은 거주게.(바디라고 한 건 그 빗 같은 거지.)

106021 @ 응.(응.)

106021 # ᄇᆞ디엔 헌 건. 빗 닮은 거 영 올랏다 ᄂᆞ렷다 잘 빗져지는 거고.(바디라고 한 건. 빗 같은 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잘 빗기는 거고.)

106021 @ 응.(응.)

106021 # ᄇᆞ디집이엔 헌 건 그 낭으로 그거 끼와사 허는 거고.(바디집이라고 한 건 그 나무로 그거 끼워야 하는 거고.)

106021 @ ᄇᆞ디하고 ᄇᆞ디집허고 또 뭐 이수과?(바디하고 바디집하고 또 뭐 있습니까?)

106021 # 꼬릿박게.(북.)

106021 @ 꼬릿박도 잇고. 그다음.(북도 있고. 그다음.)

106021 # 물케도 잇서. 물케. 물케엔 헌 건 여기서 차는 거.(말코도 있어. 말코. 말코라고 한 건 여기서 짜는 거.)

106021 @ 어디 앉으는 거꽈?(어디 앉는 겁니까?)

106021 # 이디서 차는 거주게. 이건 또시 이렇게 요디서 앚앙 차주게. 거 ᄇᆞ디 아냐? 요거 ᄇᆞ디라.(여기서 짜는 거지. 이건 또 이렇게 요기서 앉아서 짜지. 그거 바디 아니냐? 요거 바디야.)

106021 @ 어느 게 ᄇᆞ디?(어느 게 바디?)

106021 # 요 새에 거 요거.(요 사이의 거 요거.)

106021 @ 요게 ᄇᆞ디.(요게 바디.)

106021 # 이디서 이젠 이거 다 차민 또 낭으로 요디 감은 거 낭으로 착 허게 밀령 탁 잡아뎅기민 이거 감앙인에 이디 왓닥 왓닥 왓닥 허여.(여기서 이젠 이거 다 짜면 또 나무로 요기 감은 거 나무로 착 하게 밀어서 탁 잡아당기면 이거 감아서 여기 왔다 왔다 왔다 해.)

106021 @ 응.(응.)

106021 # 요디 요 줄거린 영영영영 허여사 이 새에 엇갈멍 꼬리가.(요기 요 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 사이에 엇갈리면서 꾸리가.)

106021 @ 들어가는 거. 꼬릿박은 어디수과?(들어가는 거. 북은 어디 있습니까?)

106021 # 꼬릿박은 이디 엇은게.(북은 여기 없네.)

106021 @ 이건 엇어?(이건 없어?)

106021 # 응.(응.)

106021 @ 꼬릿박은 무신거 허는 거라?(북은 무엇 하는 거야?)

106021 # 꼬릿박은 꼬리가 이제 이레 들어가주게, 감은 거. 들어강인에 올로 드물랏닥 이착으로 드물앗닥 이착으로 드물앗닥 이착으로 드물앗닥 헤영. 발로 또시 높엿다 늦앗다 그추룩 허는 거.(북은 꾸리가 이제 이리 들어가지, 감은 거. 들어가서 요리로 들이밀었다가 이쪽으로 들이밀었다가 이쪽으로 들이밀었다가 해서. 발로 또 높였다 낮췄다 그처럼 하는 거.)

106021 @ 응.(응.)

106021 # 발론 요디 발젭이가 서. 발젭이 시민 요 양 줄거리 잇지. 줄거리가 영헷다 영헷다 허민 이디가 서꺼지멍 헤지는 거주게. 흔밧듸레, 요거 요 새에 건 요건 꼬릿박. ᄇᆞ디집이로구나, ᄇᆞ디집. 꼬릿박은 엇은게. 요건 ᄇᆞ디집. ᄇᆞ디 요디 헤영 요거 ᄇᆞ디집이고. 꼬릿박엔 허는 건 꼬리 감앙은에 들이쳥 들이쳤단 낫단 헤. 꼬릿박은 엇은게.(발로는 요기 발받침이 있어. 발받침이 있으면 요 양쪽 줄 있지. 줄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 여기가 섞이면서 하는 거지. 한군데에, 요거 요 사이의

건 요건 북. 바디집이로구나, 바디집. 북은 없네. 요건 바디집. 바디 요기 해서 요거 바디집이고. 북이라고 하는 건 꾸리 감아서 들이뜨려서 들이뜨렸다가 나왔다가 해. 북은 없네.)

106021 @ 꼬릿박은 엇어?(북은 없어?)

106021 # 응. 꼬릿박 엇어. 긋사 이거 감은 거 요 알로 탁허게 들이치믄 영 일려 세우민 이것이 이리 오랑인에 또 허는 거고.(응. 북은 없어. 아까 이거 감은 거 요 아래로 탁하게 들이뜨리면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 이것이 이리 와서 또 하는 거고.)

106021 @ 응.(응.)

106021 # 요거 ᄇᆞ디집 요거.(요거 바디집 요거.)

106021 @요거 ᄇᆞ디집.(요거 바디집.)

106021 # ᄇᆞ디 그디 끼왕 요거 톡 허민 이 ᄇᆞ디집이 손으로 영 밀렷당 앞더레 두들엇당 이착으로 밀령에 이착으로 꼬릿박만 이착으로 두들고 이착 허민 또시 이착으로 두들고 양편으로 꼬릿박 탁 던지민 이착으로 두들고. 이 꼬릿박 일로 던지민 일로 두들고 경헤영 차 앉주게. 왓다 갓다, 왓다 갓다 발로 경헹 이 새가 ᄇᆞ따. ᄇᆞ뜨민 발로 또시 낭으로 영 허민 그 ᄆᆞᆯ케가 드러눵 또 일려 세왕 이 앞에 눕게 허고.(바디 거기 끼워서 요거 톡 하면 이 바디집이 손으로 이렇게 밀렸다가 앞으로 두드렸다가 이쪽으로 밀어서 이쪽으로 북만 이쪽으로 두드리고 이쪽 하면 또 이쪽으로 두드리고 양편으로 북 탁 던지면 이쪽으로 두드리고. 이 북 이리로 던지면 이리로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차 앉았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발로 그렇게 해서 이 사이가 바특해. 바특하면 발로 다시 나무로 이렇게 하면 그 말코가 드러누워서 또 일으켜 세워서 이 앞에 눕게 하고.)

106021 @ ᄆᆞᆯ케가 뭐?(말코가 뭐?)

106021 # ᄆᆞᆯ케, ᄆᆞᆯ케.(말코, 말코.)

106021 @ 그게 뭐?(그거 뭐?)

106021 # 그게 이거.(그게 이거.)

106021 @ 어느 게 ᄆᆞᆯ케?(어느 게 말코?)

106021 # 이거, 이거. 낭으로.(이거, 이거. 나무로.)

106021 @ 이게 ᄆᆞᆯ케?(이게 말코?)

106021 # 요놈이 낭으로 풀젠 허민 낭 양착으로 요걸 탁허게 이 알 누들민 어펴지민 영 허영은에 감앙인에 허는 거. 따로 꼬릿박도 엇은게.(요놈이 나무로 풀려고 하면 나무 양쪽으로 요걸 탁하게 이 아래 누르면 엎어지면 이렇게 해서 감아서 하는 거. 따로 북도 없네.)

106021 @ 게난, 사진을 하나 가져왕 할머니한테 잘 물어봐사크라.(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할머니한테 잘 물어봐야겠어.)

106021 # 꼬리엔 헌 건 이, 꼬리엔 헌 건 이디 실 감은 거ᄀᆞ라 꼬리엔 허주게. 꼬릿박이 영 가는 거 영 가는 거 엇은게.(꾸리라고 한 건 이, 꾸리라고 한 건 여기

실 감은 거보고 꾸리라고 하지. 북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없네.)

106021 @ 응.(응.)

106021 # 아이고 그거 누게 벨 걸로 알앙 그거 누게 문화재 뭐 허켄 허멍 ᄃᆞ렌 허멍 줏어 갓는디 놔두컬. 꼬릿박이영 ᄇᆞ디집이영 도꼬마리. 그 실 하영 감아진 건 도꼬마리.(아이고 그거 누구 별 걸로 알아서 그거 누가 문화재 뭐 하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면서 주워 갔는데 놔둘걸. 북이랑 바디집이랑 도투마리. 그 실 많이 감긴 건 도투마리.)

106021 @ 도꼬마리.(도투마리.)

106021 # 응.(응.)

106021 @ 아주망이영 영 앚앙.(아주머니랑 이렇게 앉아서.)

106021 # 앚안. 맞아.(앉아서. 맞아.)

106021 @ 둘이서 영 앚아근에.(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106021 # 요건 ᄇᆞ디집, 요건.(요건 바디집, 요건.)

106021 @ 요거?(요거?)

106021 # 어, 요건 ᄇᆞ디집.(어, 요건 바디집.)

106021 @ 이디 뭐 손에 뭐 심엇저?(여기 뭐 손에 뭐 잡았네?)

106021 # 이거 꼬리, 꼬리.(이거 꾸리, 꾸리.)

106021 @ 이게 꼬리?(이게 꾸리?)

106021 # 응, 꼬리, 꼬리.(응, 꾸리, 꾸리.)

106021 @ 그다음에 발로 발에 뭐 무껀?(그다음에 발로 발에 뭐 묶었어?)

106021 # 아래, 아래. 이건 기계로 이 이 이거 무꺼실 거라. 이거 초신 신은 냥이, 초신 신언 이것이 영 허민 이거 우터레 올라가곡 영 늦치민 드러눕고 이걸로 요거 싯네. 이걸로 요거 영 허민 요것이 올라가고 또시 영 놓민 이것이 또 드러눕곡 경 허는 거.(아래, 아래. 이건 기계로 이 이 이거 묶었을 거야. 이거 짚신 신은 대로, 짚신 신어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거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늦추면 드러눕고 이걸로 요거 있네. 이걸로 요거 이렇게 하면 요것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또 드러눕고 그렇게 하는 거.)

106021 @ 다음에 요거 사진 제가 크게 하나 다시 뽑앙 왕 다시 잘 물어보쿠다예.(다음에 요거 사진 제가 크게 하나 다시 뽑아서 와서 다시 잘 물어보겠습니다.)

106021 # 응.(응.)

바느질

106022 @ 다음엔 바느질, 바농질허젠 허민 바농질헐 때 뭐 뭐 뭐 이십니까?(다음엔 바느질, 바느질하려고 하면 바느질할 때 뭐 뭐 뭐 있습니까?)

106022 # 바농질 허민 뭣 뭣 헤여? 옷 허는디 뭐 실도 뀌엉 허곡. 저고리도 멘들고 바지도 멘들고.(바느질 하면 뭐 뭐 해? 옷 하는데 뭐 실도 꿰어서 하고. 저고리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106022 @ 바농도 여러 종류 바농 이수과?(바늘도 여러 종류 바늘 있습니까?)

106022 # 아니여, 바농은 크고 족고.(아니야, 바늘은 크고 작고.)

106022 @ 큰 바농은 무신거 족은 바농은 무신거엔 안 골아?(큰 바늘은 무엇 작은 바늘은 무엇이라고 안 말해?)

106022 # 큰 바농은 뭐 두꺼운 옷이나 헐 때 허곡.(큰 바늘은 뭐 두꺼운 옷이나 할 때 하고.)

106022 @ 무슨 바농 영 안 골아?(무슨 바늘 이렇게 안 말해?)

106022 # 안 골아. 바농은 그자 이녁 손에 맞은 거 놔두서 평생 쓰곡 허주.(안 말해. 바늘은 그저 자기 손에 맞은 거 놔두고 평생 쓰고 하지.)

106022 @ 바농허고 실허곡 영 담앙 놔두는 그 통은 무신거엔 골읍니까?(바늘하고 실하고 이렇게 담아서 놔두는 그 통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6022 # 바농상지. 바농상지.(반짇고리. 반짇고리.)

106022 @ 바농상지?(반짇고리.)

106022 # 응, ᄀᆞ세영 범세 거고 ᄀᆞ세영 실이영 바농이영 다 논 거. 실 감는 건 실패.(응, 가위랑 범사 거고 가위랑 실이랑 바늘이랑 다 놓은 거. 실 감는 건 실패.)

106022 @ 실패. 게민 손에 영 바농.(실패. 그러면 손에 이렇게 바늘.)

106022 # 골메.(골무.)

106022 @ 골메.(골무.)

106022 # 바농으로 찔러분덴 헹 골메.(바늘로 찔러버린다고 해서 골무.)

106022 @ 그다음 바농 영 여러 개 어디 영 꼭 끼왕 놔두는 거 이수게? 바농예 이런 무신거에 영 끼왕 놔두지 안헤?(그다음 바늘 이렇게 여러 개 어디 이렇게 꼭 끼워서 놔두는 거 있잖습니까? 바늘요 이런 무엇에 이렇게 끼워서 놔두지 않아?)

106022 # 골메 아니지. 것도 나도 서낫저마는 ᄀᆞᆫ지 못허켜.(골무 아니지. 그것도 나도 있었다마는 말하지 못하겠어.)

106022 @ 졸레? 바농졸레?(겨레? 바늘겨레?)

106022 # 저 속엔 소게 담아두곡.(저 속엔 솜 담아두고.)

106022 @ 맞아, 맞아. 소게 담앙.(맞아, 맞아. 솜 담아서.)

106022 # 소게 담앙은에 곱딱허게 멘들앙인에 그레 바농 꼽고.(솜 담아서 곱게 만들어서 그리 바늘 꽂고.)

106022 @ 응, 그거 무신거옌 골아? 꼭꼭 찔렁 놔두는 거예.(응, 그거 무엇이라고 말해? 꼭꼭 찔러서 놔두는 거요.)

106022 # 몰라, 거 오꼿 잊어불언. 바농질 안 헹 골메 끼왕인에 이디 뭐 헌덴 골메가 잇고.(몰라, 그거 그만 잊어버렸어. 바느질 안 하고 골무 끼워서 여기 뭐 한다고 골무가 있고.)

106022 @ 실을 아까 실패에 감지 안헹 그냥 영영 뭉쳥 놔두는 걸 뭐렌 골아? 실꾸러미.(실을 아까 실패에 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놔두는 걸 뭐라고 말해?)

106022 # 가름[110] 짓은 거? 실가림이엔 허주.(‘가름’ 짓는 거? ‘실가림’이라고 하지.)

106022 @ 실가림이엔 허여.(‘실가림’이라고 해.)

106022 # 뭣에 감지 안헌 거 실가림이엔 허여.(뭐에 감지 않은 거 ‘실가림’이라고 해.)

106022 @ 바농 이디 영 실 끼우는 딘 무신거라? 바농귀?(바늘 여기 이렇게 실 끼우는 덴 무엇이야? 바늘귀?)

106022 # 바농귀.(바늘귀.)

106022 @ 바농귀에 실 어떵 끼는 거라?(바늘귀에 실 어떻게 끼우는 거야?)

106022 # 응.(응.)

106022 @ 실 어떵허여?(실 어떻게 해서?)

106022 # 실 영 허게시리 삐령인에 톡 허게시리 영 발리왕 꼭 끼주게. 바농귀도 늙은 어른들 끼지 아녕 끼어 드렌도 문 허곡 허더라.(실 이렇게 하게끔 ‘삐령인에’ 톡 하게끔 이렇게 바루어서 꼭 꿰지. 바늘귀도 늙은 어른들 꿰지 않고 꿰어 달라고 모두 하고 하더라.)

106022 @ 저 옷 만들 때에 ᄀᆞ세로 영 대충 영 말앙 헙니께. 거 뭐렌 ᄀᆞᆯ아? 요샛 말로는 옷 마른다 허는디.(저 옷 만들 때에 가위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아서 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말해? 요새 말로는 옷 마른다 하는데.)

106022 # 옷 ᄆᆞᆯ르는 거.(옷 마르는 거.)

106022 @ 옷 ᄆᆞᆯ르는 거예.(옷 마르는 거요.)

106023 @ 그다음에 바느질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이수과?(그다음에 바느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까?)

106023 # 엇다.(없다.)

106023 @ 영영영영 허는 건 꼬는 거? 영 끼엇당 영 끼엇당 영 허는 건?(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꼬는 거? 이렇게 끼웠다가 이렇게 끼웠다가 이렇게 하는 건?)

106023 # 바농질이렌 허주. 뭣이엔.(바느질이라고 하지. 뭐라고.)

106023 @ 그럼 영헹 뒤로 영헹 다시 끼우는 건 영 끼우는 건.(그럼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해서 다시 끼우는 건 이렇게 끼우는 건.)

106023 # 그건 몰라.(그건 몰라.)

106023 @ 우리 무사 바농질을.(우리 왜 바느질을.)

106023 # 바농질을 그자 영영영 이레 주웡인에 영 헹 잡아당.(바느질을 그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리 주워서 이렇게 해서 잡아다가.)

106023 @ 경 허는디 무사 이레 영 찔렁 영 뺑 뒤로 강 다시 영 빼는 것도 이수게. 요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강 영 뺑 그다음에 다시 뒤로 영 강 영 빼는 거.(그렇게 하는데 왜 이리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빼서 뒤로 가서 다시 이렇게 빼는 것도 있잖

110) ‘가림’은 물레에서 실을 빼서 뭉텅이가 되게 감아놓은 것을 말한다.

아요. 요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빼서 그다음에 다시 뒤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빼는 거.)

106023 # 뒷바농질[111] 허는 거. 뒷바농질 허영.('뒷바농질' 하는 거. '뒷바농질' 해서.)

106023 @ 뒷바농질 이서?('뒷바농질' 있어?)

106023 # 뒷바농질 허는 건 그건 웨로 그냥 주멍 허질 안허곡 곱잡젠[112] 헹 뒷바농질 허는 거주게.(뒷바농질 하는 건 그건 외로 그냥 주우면서 하질 않고 '곱잡젠' 해서 '뒷바농질' 하는 거지.)

106023 @ 곱잡는 건 뭐?('곱잡는' 건 뭐?)

106023 # 바농이 이렇게 줭인에 웨로 주민 재기 그차지곡 뒷바농질 영 주어 낭 또시 이 바농으로 두 번 끼는 거ᄀᆞ라 뒷바농질이렌 허여.(바농이 이렇게 주워서 외로 주우면 재게 잘라지고 '뒷바농질' 이렇게 줍고 나서 또 이 바늘로 두 번 끼우는 거보고 '뒷바농질'이라고 해.)

106023 @ 곱잡는 건 두 개 천 두 개 합치는 거?('곱잡는' 건 두 개 천 두 개 합치는 거?)

106023 # 응.(응.)

106023 @ 이거영 이거영 영 두 개 영 부쳐근에 여기 저기 뒷바농질 헹 합치는 거?(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여서 여기 저기 '뒷바농질' 해서 합치는 거.)

106023 # 응.(응.)

106023 @ 곱잡는 게?('곱잡는' 게?)

106023 # 응.(응.)

106023 @ 그다음에 이런 데 무사 이런 끗뎅인 영영영 허기도 허지 안헤? 끝에.(그다음에 이런 데 왜 이런 끄트머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아? 끝에.)

106023 # 감치는 거.(감치는 거.)

106023 @ 감치는 것도 잇고예. 그다음.(감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106023 # 그랑그랑허민 그 바우 감치라 영.(그렁그렁하면 그 가장자리 감쳐라 이렇게.)

106023 @ 바우 감치라 영 허곡. 옷 단 ᄀᆞ튼 디 영 허민 옷 단 이런 디 영영 헤근에 요기 헐 땐 어떵 헤?(가장자리 감쳐라 이렇게 하고. 옷 단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옷 단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기 할 땐 어떻게 해?)

106023 # 거 그냥 옷 단 감치렌 허고 그냥 단 감치렌 허곡 경 허여.(그거 그냥 옷 단 감치라고 하고 그냥 단 감치라고 하고 그렇게 해.)

106023 @ 아, 그냥 감쳐, 이기도?(아, 그냥 감쳐, 여기도?)

---

111) '뒷바농질'은 바늘질 한 땀을 하고 뒤로 다시 가서 바느질을 하는 것으로 박음질을 말한다.
112) '곱잡다'는 옷감을 두 겹으로 잡는 것을 말한다.

106023 # 응.(응.)
106023 @ 옷 터지민 주엉 입주예?(옷 터지면 주워서 입지요?)
106023 # 응. 옷 줭.(응, 옷 주어서.)

옷 종류

106024 @ 그다음은 옷의 종류. 남자 옷은 무신 옷, 무신 옷 이수과? 남자 옷 위에 건?(그다음은 옷의 종류. 남자 옷은 무슨 옷, 무슨 옷 있습니까? 남자 옷 위의 건?)
106024 # 남자 옷 우이 저고리.(남자 옷 위에 저고리.)
106024 @ 저고리.(저고리.)
106024 # 쪼께.(조끼.)
106024 @ 쪼께.(조끼.)
106024 # 우이 제 맞젠 허믄 두루막.(위에 제 맞으려고 하면 두루막.)
106024 @ 두루막.(두루막.)
106024 # 그거.(그거.)
106024 @ 바지는?(바지는?)
106024 # 바진게 그거.(바진 그거.)
106024 @ 바지엔 안허고 뭐엔 골아?(바지라고 않고 뭐라고 말해?)
106024 # 바지엔 허여.(바지라고 해.)
106024 @ 중의엔 안허고?(중의라고 않고?)
106024 # 여름엔 중의.(여름엔 중의.)
106024 @ 여름엔 중의.(여름엔 중의.)
106024 # 저슬엔 바지.(겨울엔 바지.)
106024 @ 저슬엔 바지.(겨울엔 바지.)
106024 # 소게 논 건 소게바지.(솜 놓은 건 솜바지.)
106024 @ 소게 논 건 소게바지.(솜 놓은 건 솜바지.)
106025 @ 게믄 여자 옷엔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그러면 여자 옷엔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106025 # 여자 옷도 그래. 치메.(여자 옷도 그래. 치마.)
106025 @ 치메.(치마.)
106025 # 속치메.(속치마.)
106025 @ 속치메.(속치마.)
106025 # 저고리.(저고리.)
106025 @ 저고리. 속곳은 무신거엔 골아?(저고리. 속곳은 뭐라고 말해?)
106025 # 속곳이렌 헌 건 속곳 해녀들 입는 속곳 엿날.(속곳이라고 한 건 속곳 해녀들 입는 속곳 옛날.)
106025 @ 해녀들 말고 그냥 여자들도.(해녀들 말고 그냥 여자들도.)

106025 #그냥 입는 사람은 속에 입는 건.(그냥 입는 사람은 속에 입는 건.)

106025 @ 뭐렌 골아?(뭐라고 말해?)

106025 # 그냥 다 속곳이렌 허여.(그냥 다 속곳이라고 해.)

106025 @ 아, 다 그냥 속곳이렌 허여?(아, 다 그냥 속곳이라고 해?)

106025 # 옛날 어른덜토 해녀 아니라도 엿날 그 해녀들 입는 속곳처럼 헹 입단 이젠 빤스닮게 헤영 우리 이제 입듯이 입엄주게. 쉽게덜.(옛날 어른들도 해녀 아니라도 옛날 그 해녀들 입는 속곳처럼 해서 입다가 이젠 팬티같이 해서 우리 이제 입듯이 입고 있지. 쉽게들.)

106025 @ 그믄 여자 옷은 치메저고리 위에 뭐 입습니까?(그러면 여자 옷은 치마저고리 위에 뭐 입습니까?)

106025 # 치메저고리에 뭣 입어?(치마저고리에 뭐 입어?)

106025 @ 뭐 안 입어? 마고자나 쪼께나 뭐 이런 거 안 입어?(뭐 안 입어? 마고자나 조끼나 뭐 이런 거 안 입어?)

106025 # 그런 거 안 입어낫어. 마고지도 안 입고. 이제 신식이 뒈난 우이덜 두루막덜 헹 입지주, 여자덜.(그런 거 안 입었었어. 마고자도 안 입고. 이제 신식이 되니까 위에들 두루마기들 해서 입히지, 여자들.)

106026 @ 아이옷은 애기덜 옷은 어떵 헹?(아기옷은 아기들 옷은 어떻게 해서?)

106026 # 아기덜 옷도 그거주게. 아기덜 옷도 그자. 소나이덜은 강알 터진 바지 허영 오줌 싸게 허고, 지지빠이덜은 그레 허고.(아기들 옷도 그거지. 아기들 옷도 그저. 사내아이들은 개구멍바지해서 오줌 싸게 하고, 계집아이들은 그리 하고.)

106026 @ 그냥 치메저고리?(그냥 치마저고리?)

106026 # 치메저고리엔 또시 어린애덜은 니치름 헷젠 헹 툭바지 허영 이제 침질질허게 니치름 흘리게 허고. 엿날 아기덜사 옷 졸바로 헹 입어시냐? 요새 신식 애기덜 옷도 수정이 없어.(치마저고리엔 또 어린아이들은 '니치름' 했다고 해서 턱받이 해서 이제 침 질질하게 '니치름' 흘리게 하고. 옛날 아기들이야 옷 제대로 해서 입었니? 요새 신식 아기들 옷도 수가 없어.)

106028 @ 바지 허민 바지에, 바지가 영 이시민 바지도 이름이 다 잇지예? 요긴 무신거옌 골아, 바지? 바지 요 밑에는?(바지 하면 바지에,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바지도 이름이 다 있지요? 요긴 무엇이라고 말해, 바지? 바지 요 밑에는?)

106028 # 바짓단.(바짓단.)

106028 @ 바짓단. 요기는?(바짓단. 요기는?)

106028 # 허, 허리게.(허, 허리.)

106028 @ 허리.(허리.)

106028 @ 요기는?(요기는?)

106028 # 그건 그냥 그런 말은 엇어. 바지 그건 바지강알.(그건 그냥 그런 말은 없어. 바지 그건 바짓가랑이.)

106028 @ 요긴 강알벳긔 없고. 그다음엔 저고리, 저고리는 여러 개 이름 이수게

예? 이시민 영 이시민 요딘 무신거라?(요긴 가랑이밖에 없고. 그다음엔 저고리, 저고리는 여러 개 이름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긴 뭐야?)
106028 # 허릿짓 첨 저고리 짓.(허리깃 첨 저고리 깃.)
106028 @ 저고리 짓. 그다음 여기 영 하얀 걸로 영 허민.(저고리 깃. 그다음 여기 이렇게 하얀 걸로 이렇게 하면.)
106028 # 동전.(동정.)
106028 @ 동전. 요딘?(동정. 요긴?)
106028 # 건 소미.(그건 소매.)
106028 @ 요건 소미, 요딘?(요건 소매, 요긴?)
106028 # 소밋ᄌᆞ룩.(소맷자락.)
106028 @ 소밋ᄌᆞ룩.(소맷자락.)
106028 # 요 구석은 저껭이 ᄌᆞ룩, 저껭이, 저고리 저껭이.(요 구석은 겨드랑이 자락, 겨드랑이, 저고리 겨드랑이.)
106028 @ 저껭이, 요딘?(겨드랑이, 요긴?)
106028 # 그딘 앞섶.(거긴 앞섶.)
106028 @ 앞섶.(앞섶.)
106028 # 이짝은 밧섶, 저 짝은 안섶.(이쪽은 겉섶, 이쪽은 안섶.)
106028 @ 이디가 안섶, 이디가 밧섶?(여기가 안섶, 여기가 겉섶?)
106028 # 응.(응.)
106028 @ 요건? 고름.(요건? 고름.)
106028 # 골름.(고름.)
106028 @ 골름. 이디 영 단추 달민.(고름. 여기 이렇게 단추 달면.)
106028 # 단추 ᄃᆞᆯ앙인에.(단추 달아서.)
106028 @ 이거 무신거엔 ᄀᆞᆯ아?(이거 무엇이라고 말해?)
106028 # 그냥 단추만 ᄃᆞᆫ.(그냥 단추만 단.)
106028 @ 그냥 단추엔 ᄀᆞᆯ아?(그냥 단추라고 말해?)
106028 # 응.(응.)
106028 @ 이디도 여기 뭐 이수과?(여기도 여기 뭐 있습니까?)
106028 # 엇어. 이딘 진동이엔 허여. 진동. 저고리 진동.(없어. 여긴 진동이라고 해. 진동. 저고리 진동.)
106028 @ 이디?(여기?)
106028 # 응.(응.)
106028 @ 진등?(진등?)
106028 # 진동.(진동.)
106028 @ 진동. 그다음에 치메, 치멘 이디 끈 이시믄?(진동. 그다음에 치마, 치만 여기 끈 있으면?)
106028 # 치메 이건 허리. 치멧허리.(치마 이건 허리, 치마 허리.)

106028 @ 허리. 요건?(허리. 요건?)
106028 # 이건 치메 골름이고게. 이건 아래 치메단.(이건 치마 고름이고. 이건 아래 치맛단.)
106028 @ 치메단.(치맛단.)
106028 # 단 오리는 거ᄀᆞ라 치메단.(단 오리는 거보고 치맛단.)
106028 @ 요건?(요건?)
106028 # 고름게.(고름.)
106028 @ 고름? 치메 골름?(고름? 치마 고름?)
106028 # 치메 골름. 엿날엔 치메 골름이사 고무줄 헤영덜.(치마 고름. 옛날엔 치마 고름이야 고무줄 해서들.)
106028 @ 이건 이건 뭐옌 ᄀᆞᆯ아?(이건 이건 뭐라고 말해?)
106028 # 치메 지러기지 뭐.(치마 길이지 뭐.)
106028 @ 그냥 지러기? 이거 여기에는 치메폭?(그냥 길이? 이거 여기는 치마폭?)
106028 # 응, 치메폭, 폭은 이렇게 헤사.(응, 치마폭, 폭은 이렇게 해야.)
106028 @ 이렇게 나눠서?(이렇게 나눠서?)
106028 # 게. 흔 폭, 두 폭 헹.(그렇지. 한 폭, 두 폭 해서.)
106028 @ 흔 폭, 두 폭 헹예? 다음에 하나 더예.(한 폭, 두 폭 해서요? 다음에 하나 더요.)
106028 @ 보선.(버선.)
106028 # 보선.(버선.)
106028 @ 보선도 일름이 다 잇지예?(버선도 이름이 다 있지요?)
106028 # 앞코지.(앞코.)
106028 @ 앞코지.(앞코.)
106028 # 뒤칙이.(뒤축.)
106028 @ 뒤칙이, 그다음.(뒤축, 그다음.)
106028 # 거뿐.(그거뿐.)
106028 @ 요딘?(요긴?)
106028 # 그딘 신으민 발 들어가는 디주게.(거긴 신으면 발 들어가는 데지.)
106028 @ 보선목?(버선목.)
106028 # 보선목, 대비[113]목.(버선목, 버선목.)
106028 @ 대비목?(대비목?)
106028 # 보선목.(버선목.)
106028 @ 그다음에 요딘?(그다음에 요긴?)
106028 # 보선코제비.(버선코.)
106028 @ 여기가 코제비고 앞코지고. 이딘 엇어?(여기가 코고 앞코고. 여긴 없

113) '대비'는 일본식 버선인 'たび'에서 온 말이다.

어?)
106028 # 몰라.(몰라.)
106028 @ 이디 터지민 천 받앙근에 이건 뭐?(여기 터지면 천 받아서 이건 뭐?)
106028 # 발창.(발창.)
106028 @ 이딘 그냥 발창? 이딘?(여긴 그냥 발창? 여긴?)
106028 # 뒤창.(뒤창.)
106028 @ 요기 영 들어가는 건?(요기 이렇게 들어가는 건?)
106028 # 뒤코지 찢어졋젠 허여.(뒤축 찢어졌다고 해.)
106028 @ 여기 따로 부르는 이름 엇어?(여기 따로 부르는 이름 없어?)
106028 # 응.(응.)
106029 @ 단추는, 할머니. 종류가 단추는 여러 종류 이수과?(단추는, 할머니. 종류가 단추는 여러 종류 있습니까?)
106029 # 응, 묻은단추 잇고.(응, 맺음단추 있고.)
106029 @ 무슨 단추?(무슨 단추?)
106029 # 묻이는 단추. 묻앙은에 허는 단추가 잇고.(맺는 단추. 맺어서 하는 단추가 있고.)
106029 @ 묻는단추가 잇고.(맺음단추가 있고.)
106029 # 구제기 단추가 잇고.(소라 단추가 있고.)
106029 @ 구제기 단춘 뭐?(소라 단추는 뭐?)
106029 # 그거 아니가?(그거 아니야?)
106029 @ 이거?(이거?)
106029 # 응, 이거 구제기 닥살로 단추 멘들엉.(응, 이거 소라 껍데기로 단추 만들어서.)
106029 @ 아, 구제기 단추? 아까 묻는단추가 잇고.(아, 소라 단추? 아까 맺음단추가 있고.)
106029 # 묻는단춘 그 헝겊 기지 영 ᄇᆞ려근에 영 떼왕은에 묻앙인에 적삼에 ᄃᆞ는 것ᄀᆞ라.(맺음단춘 그 헝겊 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떼서 맺어서 적삼에 다는 것 보고.)
106029 @ 아, 그게 묻는단추.(아, 그게 맺음단추.)

제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에 대헤서 얘기헤 주십시오. 옷감을 손질할려면.(옷감 손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옷감을 손질하려면.)
106030 # 옷감 손질허젠 허민.(옷감 손질하려고 하면.)
106030 @ 게난 풀 멕이곡 다듬이 허곡 허는 거 어떵 허는지.(그러니까 풀 먹이고 다듬이 하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106030 # 뿔앙인에.(빨아서.)

106030 @ 뿔앙인에.(빨아서.)
106030 # ᄏᆞ콜이 뿔앙 풀 멕영.(깨끗이 빨아서 풀 먹여서.)
106030 @ 풀 멕영.(풀 먹여서.)
106030 # ᄒᆞ쏠 ᄉᆞ뭇 ᄆᆞᆯ라불민 안 뒈여. ᄒᆞ쏠 보들보들허민 ᄌᆞ근ᄌᆞ근 개영. 올바르게 개영. ᄌᆞ근ᄌᆞ근 불르나 두드나 또 어느 정도 허민 또시 이저 베 ᄀᆞ튼 건 두드리게 헤여. 두드려사.(조금 사뭇 말라버리면 안 돼. 조금 보들보들하면 차근차근 개어서. 올바르게 개어서. 자근자근 밟거나 두드리나 또 어느 정도 하면 또 이제 베 같은 건 두드리게 해. 두드려야.)
106030 @ 두드려사 뒈여. 뭘로 두드려?(두드려야 돼. 뭘로 두드려?)
106030 # 마께로게, 마께로 저.(방망이로, 방망이로 저.)
106030 @ 다듬이?(다듬이?)
106030 # 다듬이. 다듬이 마께로 허여근에 다듬이 아래 것도 싯곡 헤영 두들엉.(다듬이, 다듬이 방망이로 해서 다듬이 아래 것도 있고 해서 두드려서.)
106030 @ 뭐에 감앙?(뭐에 감아서?)
106030 # 감지 안허영.(감지 않아서.)
106030 @ 아랫 건 무신거엔 ᄀᆞᆯ아?(아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
106030 # 것ᄀᆞ라 무신거렌 ᄀᆞᆯ아낫저마는 원 이젠이. 익숙어낫주마는 이젠 오래부난. 뭣이엔 ᄀᆞᆯ아신고, 에휴 모르켜 잊어불언.(그것보고 뭐라고 말했었다마는 원 이젠. 익숙했었다마는 이젠 오래버리니까. 뭐라고 말했는고, 에휴 모르겠다 잊어버렸어.)
106030 @ 다듬이돌, 다듬이 마께. 그 어디 멩질이나 허젠 허민 멩질 때 뒈가민 옷 다 그거 준비헹 다 놔둬사켜예, 다 뿔앙인에 풀 멕여근에예.(다듬잇돌, 다듬잇방망이. 그 어디 명절이나 하려고 하면 명절 때 되어가면 옷 다 그거 준비해서 다 놔둬야겠네요, 다 빨아서 풀 먹여서요.)
106030 # 게, 팔월에 다 풀헤영 다렁 싹허게 놔두주게. 겨울에도 경 허곡.(그렇지, 팔월에 다 풀해서 다려서 싹하게 놔두지. 겨울에도 그렇게 하고.)
106031 @ 염색하는 거?(염색하는 거?)
106031 # 물색 헴젠 헹.(물색 한다고 해서.)
106031 @ 어떵 헹 염색헙니까? 먼저 갈옷은 어떵 염색허여?(어떻게 해서 염색합니까? 먼저 갈옷은 어떻게 염색해?)
106031 # 갈옷은 어떵 헤여? 갈옷 감 들이는 거?(갈옷은 어떻게 해? 갈옷 감 들이는 거?)
106031 @ 예.(예.)
106031 # 감 들이는 건 감 삐정인에.(감 들이는 건 감 빻아서.)
106031 @ 지금 지금 땅인에 헙니까?(지금 지금 따서 합니까?)
106031 # 응.(응.)
106031 @ 이제 탕 감 덜 익은 거예?(이제 따서 감 덜 익은 거요?)

106031 # 경 헹인에 삐졍.(그렇게 해서 빻아서.)
106031 @ 이디서 삐졍? 뭐에 놩?(여기서 빻아서? 뭐에 넣어서?)
106031 # 믹서에라도 갈앙인에.(믹서에라도 갈아서.)
106031 @ 옛날에.(옛날에.)
106031 # 엿날엔.(옛날엔.)
106031 @ 도고리에.(함지박에.)
106031 # 엿날엔 마께로 도고방에에서 도고방에 그것에 삐졍 경 헹은에 젭지라 근에 허는디 요즘은 저 다라에도 마께로 두드려 까졍이 복삭 까지민 그 믓은 거영 놩인에 옷기지 놩인에 막 놀려가민.(옛날엔 방망이로 절구에서 절구 그것에 빻아서 그렇게 해서 짜서 하는데 요즘은 저 대야에도 방망이로 두드려 까져서 복삭 까지면 그 마은 거랑 놔서 옷감 놔서 막 움직여가면.)
106031 @ 미녕으로?(무명으로?)
106031 # 미녕이나 광목이나.(무명이나 광목이나.)
106031 @ 광목으로예?(광목으로요?)
106031 # 막 움직여 가민 풀 골루로 감 물들어. 경 허민 감 주셍이 탁탁 털어둬 널엉인에.(막 움직여 가면 풀 골고루 감 물들어. 그렇게 하면 감 찌꺼기 탁탁 떨어두고 널어서.)
106031 @ 어디다 널어?(어디다 널어?)
106031 # 널믄게 그냥 옷 이제 거는 좋난 거는 것에.(널면 그냥 옷 이제 거는 좋으니까 거는 것에.)
106031 @ 빨랫줄에?(빨랫줄에?)
106031 # 응, 걸주게.(응, 걸지.)
106031 @ 땅바닥에 널어라.(땅바닥에 널더라.)
106031 # 땅바닥에 넌 건 기지로 헌 거.(땅바닥에 넌 건 천으로 한 거.)
106031 @ 아, 기지로 헌 거.(아, 천으로 한 거.)
106031 # 기지로 허곡 땅바닥에 편안히 널게시리 허고 지붕 위에도 널고 그래. 또 이슬 맞치젠 허민 아직 마당에 검질 낀 디 싹 허고 이젠 공그리 허난 뭐, 엿날엔.(천으로 하고 땅바닥에 편안히 널게끔 하고 지붕 위에도 널고 그래. 또 이슬 맞히려고 하면 아직 마당에 검불 깐 데 싹 하고 이젠 콘크리트 하니까 뭐, 옛날엔.)
106031 @ 거 혼 번만 헹 뒈는 게 아니지예? 멧 번 헤사주예.(그거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몇 번 해야지요.)
106031 # 멧 번 안 형 간단허게 재기 뒈어. 이젠 장에서 그거 골아주민 물 ᄋᆞ경 강 버무령 그자 널민 뒈어. 엿날엔 ᄉᆞ뭇 뻣앙 물 잘 안 나민 구지생이 놩 옷 놩인에 드러 부비멍 경 헷어.(몇 번 안 해서 간단하게 재게 돼. 이젠 장에서 그거 말해 주면 물 가져가서 버무려서 그저 널면 돼. 옛날엔 사뭇 빻아서 물 잘 안 나오면 '구지생이' 놔서 옷 놔서 들이 부비면서 그렇게 했어.)
106031 @ 경 헹 널엇다 뒈삿닥 헤사 뒈여?(그렇게 해서 널었다가 뒤집었다가

해야 돼?)

106031 # 이슬 맞추곡, 벳 맞추곡 경 헤사.(이슬 맞히고, 볕 맞히고 그렇게 해야.)

106031 @ 아, 벳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맞춰야 헤여?(아, 볕만 맞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맞혀야 해?)

106031 # 게, 밤이 이슬에 내불민 붉으민 그.(그렇지, 밤에 이슬에 내버리면 밝으면 그.)

106031 @ 들이지 안헹인에.(들이지 않고.)

106031 # 고와, 고와.(고와, 고와.)

106031 @ 그 물색은 어떵 헹, 헤근에 염색허는 거꽈?(그 물감은 어떻게 해서, 해서 염색하는 겁니까?)

106031 # 염색허는 건 그 검은 물 사당인에 물 끌령도 허곡 놀물에도 보민 탕인에 놀영 막 놀려. 놀영인에 험도 허곡.(염색하는 건 그 검은 물감 사다가 물 끓여서도 하고 날물에도 보면 타서 놀려서 막 놀려. 놀려서 하기도 하고.)

106031 @ 물색은 거멍헌 거?(물감은 까만 거?)

106031 # 응, 검은 물.(응, 검은 물감.)

106031 @ 또 다른 색깔도 물들여낫수과?(또 다른 색깔도 물들였었습니까?)

106031 # 다른 색깔도 다 들엿주게. 붉은 물도 들여나곡.(다른 색깔도 다 들였지. 붉은 물도 들였었고.)

106031 @ 그거 사당 헤?(그거 사다가 해?)

106031 # 물색 거 픈는 사람이 옛날엔 이서낫어. 다 육지서 오란 그 물색 픈는 사람덜토. 지금도 이저 오일장 장날마다 이제 요즘 감 ᄋᆞ져강덜 다 물 빼왐주. ᄉᆞ뭇 비평인에[114] 어떤 땐 간에 못 헤렌 허는 사람 성게. 감 ᄋᆞ정가도.(물감 그거 파는 사람이 옛날엔 있었어. 다 육지서 와서 그 물감 파는 사람들도. 지금도 이제 오일장 장날마다 이제 요즘 감 가져가서들 다 물 빼서 오지. 사뭇 붐벼서 어떤 땐 가서 못 했다고 하는 사람 있어. 옷감 가져가도.)

106031 @ 무사 못 헤여?(왜 못 해?)

106031 # 막 비피영게 막 마타근에 그거 물 짜주민 물 ᄋᆞ져오랑 옷에 들이젠 허민 바빵.(막 '비피영게' 막 맡아서 그거 물 짜주면 물 가져와서 옷에 들이려고 하면 바빠서.)

106031 @ 비피영이 뭐?('비피영'이 뭐?)

106031 # 바빵. 이소가시낭[115].(바빠서. '이소가시낭'.)

106031 @ 이소가시낭?('이소가시낭'?)

106031 # 건 일본말. 바빵.(그건 일본말. 바빠서.)

---

114) '비피다'는 바쁘다는 뜻이라고 제보자는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북적거리거나 붐비다는 뜻이다.
115) '이소가시낭'은 '바쁘다'의 일본어 'いそがし-い'에서 온 말이다.

신발

106032 @ 신발. 신발도 옛날 신어난 거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신발. 신발도 옛날 신었던 거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106032 # 게. 초신.(그렇지. 짚신.)

106032 @ 또?(또?)

106032 # 가막창신.('가막창신'.)

106032 @ 가막창신.('가막창신'.)

106032 # 고무신.(고무신.)

106032 @ 고무신.(고무신.)

106032 # 고무신은 이 제국시절 나사 이섯어.(고무신은 이 제국시절 나야 있었어.)

106032 @ 낭신?(나막신.)

106032 # 그건 저 남신.(그건 저 나막신.)

106032 @ 남신.(나막신.)

106032 # 엿날엔 저 제국시절엔이 신 어루난이 낭덜 게다[116] 팡 이레 발가락 끼왕인에 게다 신언 뎅겨시녜. 혹교에도. 집이서 낭 까깡인에 졸바로 까까지지도 안 허곡 이레 고냥 똘랑 친 들앙인에 욜로 혜영 게다 신엉 비들락비들락 제국시절엔 혹교 뎅겻어, 아이구.(옛날엔 저 제국시절엔 신 어려우니까 나무들 '게다' 파서 이리 발가락 끼워서 '게다' 신어서 다녔잖아. 학교에도. 집에서 나무 깎아서 제대로 깎아지지도 않고 이리 구멍 뚫어서 끈 달아서 요리로 해서 '게다' 신어서 '비들락비들락' 제국시절엔 학교 다녔어, 아이구.)

106032 @ 것도 멘들앙 신어납디가?(그것도 만들어서 신었었습니까?)

106032 # 멘들앙 우린 안 신언. 우리 아부진 신이 곱닥허게 삼아. 잘도 곱게 삼앙 새각시덜 신 삼아도렌 허민 치지물 들영은에 곱게 신 삼앙 문 새각시신듸 주곡.(만들어서 우린 안 신었어. 우리 아버지는 신 곱게 삼아. 잘도 곱게 삼아서 새색시들 신 삼아 달라고 하면 치자물 들여서 곱게 신 삼아서 모두 새색시에게 주고.)

106032 @ 신도 삼아낫수과? 할머니도 삼는 거 봐난?(신도 삼았었습니까? 할머니도 삼는 거 봤었어?)

106032 # 아니 신 삼는 건 봐낫주게.(아니 신 삼는 건 봤었지.)

106035 @ 어떵 헨 삼는 거꽈, 그건?(어떻게 해서 삼는 겁니까, 그건?)

106035 # 우리 아버지가 보민이 찍, 찍 소독 빵 소독 빵인에 나룩찍 서난디 그 차불곡 이제 원 다가리 그차뒁 이디 것만 허영 이젠 또 솖아. 그것이 보다랍게 솖앗당인에 그때 치지물이 이서이. 치짓물 그걸 들영. 들이민 우리 아부지가 이추룩 옷 걷엉 그 치짓물 들은 것이 요추룩 헌 것이 요레 영 허영 떼왕 영 허민 똥글락허게시리 이추룩 허게 뒈주게. 똥글락허게 노 꽈지주게. 영 노 꽈지민 신 삼을 때엔 요것이 이레 삼아강 요거 놓곡 요레 놓곡 삼아강 요레 놓곡 허영 말짼 이제 이걸 요디 거 끼웡 욜로 끼웡 욜론 이제 초신 곱닥허게 뒈고 두치긴 또시 영 혜영 가 놩

116) '게다'는 일본어 'げた'로 일본식 나막신을 말한다.

인에 뒤치기 마지막으로 또 오기령인에 뒤치기 멘들앙 그추룩 허고. 아버지 경 허더라.(우리 아버지가 보면 짚, 짚 고갱이 빼서 고갱이 빼서 볏짚 있었는데 잘라버리고 이제 원 대가리 잘라두고 여기 것만 해서 이젠 또 삶아. 그것이 보드랍게 삶았다가 그때 치자물이 있어. 치자물 그걸 들여서. 들이면 우리 아버지가 이처럼 옷 걷어서 그 치자물 들인 것이 이처럼 한 것이 요리 이렇게 해서 비틀어서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끔 이렇게 하게 되지. 동그랗게 노 꼬아지지. 이렇게 노 꼬아지면 신 삼을 때엔 요것이 이리 삼아가서 요거 놓고 요리 놓고 삼아가서 요리 놓고 해서 말째는 이제 이걸 요기 거 끼워서 요리로 끼워서 요리론 이제 짚신 곱게 되고 뒤축은 또 이렇게 해서 가 놔서 뒤축 마지막으로 또 오그려서 뒤축 만들어서 그처럼 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더라.)

106035 @ 응.(응.)

106035 # 거민 새각시 초신 삼아 도렌 허민 치짓물 들영 그 소둘기 찍 소둘기 빵 치짓물 들영 곱닥 메경 이 옷 거둬뒁 영 허영인에 멘들곡 영 헹 멘들곡 허민 곱닥허게 뒈어. 노랑허게 곱닥허게 뒈민, 신 삼앙 새각시네 주민 없는 집은 노래도 이서. 시집간 짚신을 신어서 시집을 가느냐 허는 노래도 이섯어.(그러면 새색시 짚신 삼아 달라고 하면 치자물 들여서 그 고갱이 짚 고갱이 빼서 치자물 들여서 곱게 먹여서 이 옷 거둬두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면 곱게 돼. 노랗게 곱게 되면, 신 삼아서 새색시네 주면 없는 집은 노래도 있어. 시집가서 짚신을 신어서 시집을 가느냐 하는 노래도 있었어.)

106035 @ 응.(응.)

106035 # 게, 시집가는 디 창신이 헤주는 건 보통이 넘은 집.(그러게, 시집가는데 '창신' 해주는 건 보통이 넘은 집.)

106033 @ 창신이 가죽신?('창신'이 가죽신?)

106033 # 응, 가막창신.(응, '가막창신'.)

106033 @ 가막창신은 어떵헌 거마씨?('가막창신'은 어떤 거예요?)

106033 # 게, ᄉᆞ방에 검은 걸로 허연에 검은 가죽. 아메도 검은 거 멕인 거라, 검은 가죽.(그렇지, 사방에 검은 걸로 해서 검은 가죽. 아무래도 검은 거 먹인 거야, 검은 가죽.)

106033 @ 가막창신?('가막창신'?)

106033 # 가막창신에 코제비렌 헤뚜룩헌 거 상끗허게 놩인에 예쁘게 허여. 에펜신은.('가막창신'에 '코제비'라고 '헤뚜룩헌' 거 '상끗허게' 놔서 예쁘게 해. 여편네신은.)

106033 @ 창신은 시집갈 때 신으는 거?('창신'은 시집갈 때 신는 거?)

106033 # 시집 가민 신랑칩이서 신을 내 놔.(시집 가면 신랑집에서 신을 내 놔.)

106033 @ 아, 창신을 하나 헤 줘?(아, '창신'을 하나 해 줘?)

106033 # 응, 게 엇인 집은 아이고 창신도 못 헤줜 찝신 헤영 줫젠게 노래도, 시집을 갈 적마다 찝신이 웬 말이냐 허주게.(응, 그러게 없는 집은 아이고 '창신'도

못 해줘서 짚신 해서 줬다고 노래도, 시집을 갈 적마다 짚신이 웬 말이냐 하지.)

106036 @ 초신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짚신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106036 # 게, 게, 게, 물에 들영인에 초신 곱게 허는 것도 깍 부병.(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물 들여서 짚신 곱게 하는 것도 총 비벼서.)

106036 @ 응.(응.)

106036 # 애당초 깍을 미리 부병 허는 거 싯곡 삼으멍 구멍 깍 나오고 삼으멍 나오는 건 농장에 뎅기멍 신게시리 허곡.(애당초 총을 미리 비벼서 하는 거 있고 삼으면서 구멍 총 나오고 삼으면서 나오는 건 농장에 다니면서 신게끔 하고.)

106036 @ 무신 신, 무신 신이렌 골아?(무슨 신, 무슨 신이라고 말해?)

106036 # 그냥.(그냥.)

106036 @ 깍 논 건 무신 신, 깍 안 논 건 무신 신?(총 놓은 건 무슨 신, 총 안 놓은 건 무슨 신?)

106036 # 무신 신, 무신 신은 아녀. 부변에 곱닥헌 건 저거 새각시 신이엔 허여.(무슨 신, 무슨 신은 안 해. 비벼서 고운 건 저거 새색시 신이라고 해.)

106036 @ 응.(응.)

106036 # 그냥 찝신은 무조건 삼으멍 이거 떼왕인에 줃고 이거 떼왕 줃곡 허영 말쨴 이렇게 끼왕에 뒤칙이 차민 이디도 뒤치기 창인에 일루 영 허영 끼왕 허민 신이 뒈는 거주.(그냥 짚신은 무조건 삼으면서 이거 비틀어서 겯고 이거 비틀어서 겯고 해서 말째는 이렇게 끼워서 뒤축에 짜면 여기도 뒤축 짜서 이리로 이렇게 해서 끼워서 하면 신이 되는 거지.)

106036 @ 응.(응.)

106036 # 그 미릇 나룩찍 소둘기 허영인에 이디 미릇 부빈 건 곱닥허게시리 삼아강 영 줄아가멍 톡허게 멕이고 줄아가멍 톡 멕여근에 줄아가멍 톡 멕여근에 치짓물 들영 요건 곱닥허게.(그 미리 볏짚 고갱이를 해서 여기 미리 비빈 건 곱게끔 삼아가서 이렇게 결어가면서 톡하게 먹이고 결어가면서 톡 먹여서 결어가면 톡 먹여서 치자물 들여서 요건 곱게.)

106036 @ 건 곱게 멘든 거고.(그건 곱게 만든 거고.)

106036 # 곱게 멘들앙 새각시 시집갈 때 삼아. 시집이서 그런 신 헤 줘.(곱게 만들어서 새색시 시집갈 때 삼아. 시집에서 그런 신 해 줘.)

106036 @ 응.(응.)

106036 # 없는 집은 경 헤여.(없는 집은 그렇게 해.)

모자

106037 @ 모자의 종류를 말해 보세요. 옛날엔 모자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서낫수과?(모자의 종류를 말해 보세요. 옛날엔 모자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있었습니까?)

106037 # 엿날엔 모즈. 제국시절엔 그 복공 모자 그 폭발허민 쓰는 소게 모자이

그거 주장 헹 썻주. 모자 헤영 쓴 지가.(옛날엔 모자. 제국 시절엔 그 복공 모자 폭발하면 쓰는 솜 모자 그거 '주장' 해서 썼지. 모자 해서 쓴 지가.)

106037 @ 무시거 헌 모자? 소게 헹은에?(무엇 한 모자? 솜 해서?)

106037 # 소게로 이것이 소게 아니라게이?(솜으로 이것이 솜 아니냐?)

106037 @ 예.(예.)

106037 # 소게민 모자 영 헤연 이거 영헨 질게 헤영 영 헤영 써낫주. 요 모ᄌᆞ가 엇어낫어. 엇어낫어. 모자 엇언.(솜이면 모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길게 헤서 이렇게 해서 썼었지. 요 모자가 없었어. 없었어. 모자 없었어.)

106038 @ 여름에 쓰는 모자.(여름에 쓰는 모자.)

106038 # 여름에.(여름에.)

106038 @ 패랭이.(패랭이.)

106038 # 패랭이벳긔 엇어.(패랭이밖에 없어.)

106038 @ 패랭이 무신 걸로 멘드는 거라?(패랭이 무슨 걸로 만드는 거야?)

106038 # 보릿 소들기 빵. 보리 소들기 빵인에 당. 보리낭 소들기 빵인에 그거 뱅뱅뱅뱅 읏끄멍 허영 막 멘들고 멘들앙 헤낫주게.(보리 고갱이 빼서. 보리 고갱이 빼서 당, 보릿대 고갱이 빼서 그거 뱅뱅뱅뱅 엮으면서 하면서 막 만들고 만들어서 했었지.)

106038 @ 건 보리낭 패랭이라?(그건 보릿짚 패랭이야?)

106038 # 게, 보리낭 패랭이.(그렇지, 보릿짚 패랭이.)

106038 @ 밀낭 패랭인?(밀짚 패랭인?)

106038 # 밀낭은 밀낭으로 헌 건 밀낭 패랭이주.(밀짚으로 밀짚으로 한 건 밀짚 패랭이지.)

106038 @ 밀낭도 이서낫수과?(밀짚도 있었었습니까?)

106038 # 게, 밀도 갈앙, 밀낭.(그렇지, 밀도 갈아서, 밀짚.)

106038 @ 주로 여름엔 패랭이?(주로 여름엔 패랭이?)

106038 # 패랭이. 돈만 들면 별 거 다 셔. 이젠 얼마나 살기덜 좋아시니? 패랭이도 멘들지 못헹인에 ᄉᆞ뭇. 엿날엔 양말도 엇엉인에 미녕실 헤 놔뒷단 미녕실로 양말 짱 신젠 허민 뒤치기 멘들 충 몰란 뒤치기 날ᄀᆞ라 멘들아 도렌덜 친구덜 오란 ᄉᆞ뭇 나라비허곡. 또시 앞이 앞칙이 ᄆᆞ차 ᄃᆞ렌 ᄆᆞᆫ 허곡.(패랭이. 돈만 들면 별 거 다 있어. 이젠 얼마나 살기들 좋았니? 패랭이도 만들지 못해서 사뭇. 옛날엔 양말도 없어서 무명실 해 놔뒀다가 무명실로 양말 짜서 신으려고 하면 뒤축 만들 줄 몰라서 뒤축 나보고 만들어 달라고들 친구들 와서 사뭇 줄 서고. 또 앞에 앞축 마쳐 달라고 모두 하고.)

106038 @ 삿갓 닮은 건? 삿갓?(삿갓 같은 건? 삿갓?)

106038 # 삿갓? 삿갓은 대나무로 헹 삿갓 헌 거.(삿갓? 삿갓은 대나무로 해서 삿갓 한 거.)

106038 @ 삿갓도 이서낫수과?(삿갓도 있었습니까?)

106038 # 응.(응.)
106038 @ 그냥 삿갓이엔 헤?(그냥 삿갓이라고 해?)
106038 # 응.(응.)
106035 @ 삼으로, 초신인데 삼으로 삼는 것도 이서?(삼으로, 짚신인데 삼으로 삼는 것도 있어?)
106035 # 삼으론 제주돈 안 삼아.(삼으로는 제주도는 안 삼아.)
106035 @ 안 삼아?(안 삼아?)
106035 # 응.(응.)
106035 @ 짚신 삼는 건 짚신 뭐 헌덴 허여?(짚신 삼는 건 짚신 뭐 한다고 해?)
106035 # 찝신이엔 그냥.(짚신이라고 그냥.)
106035 @ 찝신 멘드는 건 뭐옌 허여?(짚신 만드는 건 뭐라고 해?)
106035 # 초신이엔 허여.(짚신이라고 해.)
106035 @ 초신 멘드는 거.(짚신 만드는 거.)
106035 # 초신 줄암젠.(짚신 겯는다고.)
106035 @ 줄암젠예?(겯는다고요?)
106035 # 초신 줄앙 에이구 하르방 맨날 앚앙 초신 삼암젠도 허곡 초신 줄암젠도 허곡. 멕 줄암젠도 허곡 멩텡이도 찝으로 줄암주게.(짚신 결어서 에이구 할아버지 매일 앉아서 짚신 겯는다고도 하고 짚신 겯는다고도 하고. 멱서리 겯는다고도 하고 망태기도 짚으로 겯지.)
106039 @ 털로 만든 모잔 아까 무시거라? 사농허레 가는 사람덜 쓰는 모자 이십니께?(털로 만든 모잔 아까 무엇이야? 사냥하러 가는 사람들 쓰는 모자 있잖습니까?)
106039 # 털모제게.(털모자게.)
106039 @ 그냥 털모제?(그냥 털모자?)
106039 # 그냥 가죽모제엔 헤라 그땐. 털모제엔 이제 신식으로.(그냥 가죽모자라고 하더라 그땐. 털모자라고 이젠 신식으로.)
106039 @ 옛날엔?(옛날엔?)
106039 # 가죽감티 쓰고.('가죽감티' 쓰고.)
106039 @ 가죽감티.('가죽감티'.)
106039 # 가죽감티 쓰곡 노리 잡으러 감서라, 경.('가죽감티' 쓰고 노루 잡으러 가더라, 그렇게.)
106040 @ 감티. 이 동네는 뭐 양태나 멩건이나 이런 거 안 만들엇지예? 탕건이나.('감티'. 이 동네는 뭐 양태나 망건이나 이런 거 안 만들었지요? 탕건이나.)
106040 # 안 멘들아.(안 만들어.)
106040 @ 이 동네는예.(이 동네는요.)
106040 # 이 동네 엿날엔 이 동네 이 근방은 다 기생들만 사는 동네고 저 관개허난 이 동네 뭔 멘들게 굴어시냐?(이 동네 옛날엔 이 동네 이 근방은 다 기생들만

사는 동네고 저 관기 하니까 이 동넨 무엇은 만들게 굴었니?)
106044 @ 도롱이.(‘도롱이’.)
106044 # 조롱이 무시거?(‘조롱이’ 무엇?)
106044 @ 비 올 때 입으는 건 뭐?(비 올 때 입는 건 뭐?)
106044 # 비 올 때 입은 거 새로 멘들앙 쓰는 거?(비 올 때 입는 거 띠로 만들어서 쓰는 거?)
106044 @ 응.(응.)
106044 # 그 일름 잊어불엇인게. 새로 멘들앙인에 영헹 톡허게 허는 거.(그 이름 잊어버렸어. 띠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톡하게 하는 거.)
106044 @ 응.(응.)
106044 # 우리 대정더렌 그런 거 멘들앙 쓰는 사람 엇어. 우리 클 땐.(우리 대정으론 그런 거 만들어서 쓰는 사람 없어. 우리 클 땐.)
106044 @ 아, 산에 갈 때 입언게예. 산에 갈 때 쉐 보레 갈 때.(아, 산에 갈 때 입던데요. 산에 갈 때 소 보러 갈 때.)
106044 # 게메 우리 동넨 쉐 보레 갈 때도 뭐 그런 거 썽 허는 사람이 엇어. 저 웃드레나 그런 거 싯주. 우리 어릴 때.(글쎄 우리 동넨 소 보러 갈 때도 뭐 그런 거 써서 하는 사람이 없어. 저 ‘웃드레’나 그런 거 있지. 우리 어릴 때.)
106044 @ 우장? 우장, 우장 쓴덴 안 혜?(비옷? 비옷, 비옷 입는다고 안 해?)
106044 # 안 허여. 우리 나 어령인에 뎅길 때 그런 거 새로 허영인에 무신거 노람지추룩 경헹 영 쓰는 거 엇엇어.(안 해. 우리 나 어려서 다닐 때 그런 거 띠로 해서 무엇 이엉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없었어.)
106044 @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06044 # 응, 일본 시대난에 우리 어머니네 멧 오누이가 일본 간 사난 그런 거 구천 모르게 살안. 고무신도 이디 엇인 때 일본서 ᄉᆞ뭇 고무신도 헹 보내곡 헨 찝신은 드러 삼앙인에 신어도.(응, 일본 시대니까 우리 어머니네 몇 오누이가 일본 가서 사니까 그런 거 귀천 모르게 살았어. 고무신도 여기 없을 때 일본서 사뭇 고무신도 해서 보내고 해서 짚신 들이 삼아서 신어도.)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먼저 밥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밥이 이서낫수과? 옛날엔?(먼저 밥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밥이 있었습니까? 옛날엔?)
107001 # 엿날엔 보리쏠 영 숣당.(옛날엔 보리쌀 이렇게 삶다가.)
107001 @ 아니, 무신 밥 보리밥, 조팝, 또?(아니, 무슨 밥 보리밥, 조밥, 또?)
107001 # 보리밥, 조팝, 또 쏠밥게 그거뿐.(보리밥, 조밥, 또 쌀밥 그거뿐.)

107001 @ 다른 건 엇어? 그믄 밥허젠 허믄 무슨 쌀로 허여?(다른 건 없어? 그러면 밥하려고 하면 무슨 쌀로 해?)

107001 # 밥허젠 허믄 미릇 보리쏠 씻어근에 숢앙 조 엇은 사름은 보리밥으로 물 맞춰 그냥 그대로 도마리[117] 뒈는디 밧 신 사름은 조 허믄 보리쏠 놩 숢당인에 물이 ᄒᆞ쏠 거저 보리쏠이 익은 거 닮으믄 좁쏠 우터레 서껑 서껑인에 ᄒᆞ쏠 보글보글 궤영인에 놔뒷당인에 배술기로 젓으믄 골로로 좁쏠 서꺼졍이에 밥맛 좋고, 보리밥은 엿날에 ᄆᆞᆯ방에 기계로 안 짛은 땐 방에로 지믄 그 눈이 이서. 보리쏠. 눈이 성인에 졸바로 안 헤근에 ᄀᆞ레에 ᄀᆞᆯ믄 그것이 곧 입이 거칠어낫어. 경헤도 그 밥 엇엉 못 먹어낫지. 경 허단 이젠 기계도 잘 나난 ᄆᆞᆫ드레기 까끄믄 곤밥닮게 헹게 보리밥 숢다근에 물이 거자 바질바질 헤가믄 좁쏠 놩인에 또 숢앙 이젠 배술기로 젓엉 놧당 또 이제 또 ᄒᆞᆫ 번 숢아 거 뿔루는 거엔 허영 물을 빠지게 하는 거엥 경 헹은에 거려놩 먹주게.(밥하려고 하면 미리 보리쌀 씻어서 삶아서 조 없는 사람은 보리밥으로 물 맞춰서 그냥 그대로 '도마리' 되는데 밭 있는 사람은 조 하면 보리쌀 놔서 삶다가 물이 조금 거의 보리쌀이 익은 거 같으면 좁쌀 위로 섞어서 섞어서 조금 보글보글 끓어서 놔뒀다가 죽젓개로 저으면 골고루 좁쌀 섞어져서 밥맛 좋고, 보리밥은 옛날에 연자매 기계로 안 찧을 땐 방아로 찧으면 그 눈이 있어. 보리쌀. 눈이 있어서 제대로 안 해서 맷돌에 갈면 그것이 곧 입이 거칠었었어. 그래도 그 밥 없어서 못 먹었었지. 그러다가 이젠 기계도 잘 나오니까 깔끔하게 깎으면 흰쌀밥같이 해서 보리밥 삶다가 물이 거의 바질바질 해가면 좁쌀 놔서 또 삶아서 이젠 죽젓개로 저어서 놨다가 또 이제 또 한 번 삶아 그거 잦히는 거라고 해서 물을 빠지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떠놔서 먹지.)

107004 @ 혹시 반지기밥은 무신 거꽈?(혹시 '반지기밥'은 무엇입니까?)

107004 # 반지기밥은 곤쏠 ᄒᆞ쏠 서껏젠 허영 반지기밥.('반지기밥'은 흰쌀 조금 섞었다고 해서 '반지기밥'.)

107004 @ 아, 보리밥에 좁쌀 ᄒᆞ꼼 서끄는 거?(아, 보리밥에 좁쌀 조금 섞는 거?)

107004 # 좁쏠 서끈 건 반지기옌 아니고 곤쏠 ᄒᆞ끔. 아이고 이 집은 반지기밥 헴구나, 곤쏠 서껌젠 헌 말로.(좁쌀 섞은 건 반지기라고 않고 흰쌀 조금. 아이고 이 집은 '반지기밥' 하는구나, 흰쌀 섞는다고 한 말로.)

107004 @ 아, 곤쏠 서껏젠 ᄒᆞ는 말로. 곤쏠 ᄒᆞ꼼 서끄믄 그게 반지기밥.(아, 흰쌀 섞었다고 하는 말로. 흰쌀 조금 섞으면 그게 '반지기밥'.)

107004 # 응, 반지기밥. 경 그 곤쏠 서껑 먹는 집도 없엇어.(응, '반지기밥'. 그렇게 그 흰쌀 섞어서 먹는 집도 없었어.)

107004 @ 잘사는 집이나 경 허는 거지예?(잘사는 집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7004 # 잘사는 집도 업엇서. 다 보리쏠 숢당 좁쏠 놩은에 먹어. 좁쏠도 모인 좁쏠 놩 허믄 밥이 갈갈갈갈헤여. 흐린좁쏠 놓으믄이[노믄이] 밥이 그자 풀풀헤여

117) '도마리'는 일본어 'とまり'에서 온 말로 '끝'의 의미로 쓴 것이다.

근에 먹기 좋고. 겡 안 허민 밧이 박헌 딘 모인조 허는 거고 밧이 좋은 딘 또시 흐린조 갈아.(잘사는 집도 없었어. 다 보리쌀 삶다가 좁쌀 놔서 먹어. 좁쌀도 메좁쌀 놔서 하면 밥이 '갈갈갈갈' 해. 차좁쌀 놓으면 밥이 그저 '풀풀'해서 먹기 좋고. 그렇게 안 하면 밭이 박한 덴 메조 하는 거고 밭이 좋은 덴 또 차조 갈아.)

107005 @ 흰쏠밥은 언제 먹는 거라?(흰쌀밥은 언제 먹는 거야?)

107005 # 흰쏠밥이엔 헌 거는 제ᄉᆞ 때나 먹고 멩질 때나 먹엇주. 멩질 때, 팔월멩질, 정월멩질 그레나 먹엇주. 엿날에 가난한 집은 곤밥도 멩질에도 첨 서속 서껑 헤낫젠 허여.(흰쌀밥이라고 한 거는 제사 때나 먹고 명절 때나 먹었지. 명절 때, 팔월명절, 정월명절 그리나 먹었지. 옛날에 가난한 집은 쌀밥도 명절에도 참 서속 섞어서 했었다고 해.)

107005 @ 서속이 뭐?(서속이 뭐?)

107005 # 게, 보리쏠이나 좁쏠이나 서껑, 쏠이 부작허영, 우린 어린 때 그런 거 몰랏는디.(그러니까, 보리쌀이나 좁쌀이나 섞어서, 쌀이 부족해서, 우린 어릴 때 그런 거 몰랐는데.)

107005 @ 할머니네 부자랏구나.(할머니네 부자였구나.)

107005 # 아니 부제 아니라도, 농ᄉᆞᆯ 지니까게.(아니 부자 아니라도, 농사를 지으니까.)

107005 @ 산뒤?(밭벼?)

107005 # 산뒤 지곡, 다. 아무 디나 산뒤 안 돼. 헉 죽은 딘 산뒤가 안 뒈어. 케영 나오질 못헤여. 밧은 산뒤가 나왕인에 흔들흔들 허지만은 경 허난 조 허는 밧도 밧이 좋아야 조허고 보리도 좋은 밧듸 갈민, 갈민 이 지경에서 세계 집에 강 보리 갈민 보리밥 맛이 더 특벨허여 더 좋아.(밭벼 짓고, 다. 아무 데나 밭벼 안 돼. 흙 죽은 덴 밭벼가 안 돼. 패어서 나오지 못해. 밭은 밭벼가 나와서 흔들흔들 하지만 그러니까 조 하는 밭도 밭이 좋아야 조하고 보리도 좋은 밭에 갈면, 갈면 이 지경에서 사계 집에 가서 보리 갈면 보리밥이 맛이 더 특별하게 더 좋아.)

107005 @ 사계가 땅이 좋구나예?(사계가 땅이 좋군요?)

107005 # 응, 땅이 좋은디 만디 몰르는디 우리 시집이서 세계 밧을 일본서 밧멧 개 사민 그디 누게 베렌 헤영 주엉 갈라 오라근에 방에 지민 ᄆᆞᆯ거리에서 방에 져봐도이 채도 노랑ᄒᆞ고 쏠도 곱닥허게 헤져. 이 지경이서 보리 낭인에 ᄆᆞᆯ방에서 쳐가민 채도 거멍허고 보리쏠도 거멍허영 두불 졍은에 또 ᄀᆞ레에서 ᄀᆞᆯ곡 헹 먹느네, 그냥 ᄀᆞ레서.(응, 땅이 좋은지 만지 모르는데 우리 시집에서 사계 밭을 일본에서 밭 몇 개 사면 거기 누구 베라고 해서 주어서 갈아 와서 방아 찧으면 연자매에서 방아 찧어봐도 겨도 노랗고 쌀도 곱게 돼. 이 지경에서 보리 나서 연자매에서 쳐가면 겨도 거멓고 보리쌀도 거매서 두벌 찧어서 또 맷돌에서 갈고 해서 먹어, 그냥 맷돌에서.)

107005 @ 땅이 좋아사예.(땅이 좋아야요.)

107005 # 땅 좋은 딘 초불만 져도 보리쏠이 고왕 먹어.(땅이 좋은 덴 초벌만 찧

어도 보리쌀이 고와서 먹어.)

107005 @ 그믄 곤밥은 허는 방법은 어떵 헹 허는 거꽈?(그러면 흰쌀밥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05 # 곤밥이엔 허는 건 쏠밥게, 제ᄉᆞ 때나 먹지.(흰쌀밥이라고 하는 건 쌀밥, 제사 때나 먹지.)

107005 @ 허젠 허민? 보리밥이영 ᄒᆞ꼼 ᄐᆞ나주예? 이제사 밥통이 톡 눌러 불문 뒈주마는.(하려고 하면? 보리쌀이랑 조금 다르지요? 이제야 밥통에 톡 눌러 버리면 되지마는.)

107005 # 아니 그때도 곤밥은 맛이 이서.(아니 그때도 흰쌀밥은 맛이 있어.)

107005 @ 헐 때 어떵 헹 허여?(할 때 어떻게 해서 해?)

107005 # 씻엉은에게 물이영 간 맞촹은에 밥통에서.(씻어서 물이랑 간 맞춰서 밥통에서.)

107005 @ 밥통 엇일 때.(밥통 없을 때.)

107005 # 솟듸도 영 맞촹인에 밥허민 곤밥이 뒈어.(솥에도 이렇게 맞춰서 밥하면 흰쌀밥이 돼.)

107005 @ 뜸도 들여야 뒐 거 아니?(뜸도 들여야 될 거 아니?)

107005 # 게 금방 거려지나게? 밥 허여동 국 헌다, 반찬 헌다, 짐치도 헌다 헤가민 틈 자주게.(그러게 금방 뜰 수 있니? 밥 해두고 국 한다, 반찬 한다, 김치도 한다 해가면 뜸이 들지.)

107006 @ 좁쌀만 놩은에 보리쌀 안 서껑 좁쌀로만도 밥헹 먹어낫수과?(좁쌀만 놔서 보리쌀 안 섞어서 좁쌀로만도 밥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06 # 게, 보리쏠은 부젯집이서사 서껑 먹지. 보리쏠 당대에 좁쏠 나기 전인 가난한 집인 문저 먹어. 조팝만 주장 먹어. 조팝도 흐린조로 부제칩이가 싯주. 모인 조허민 조팝허민 갈갈갈갈.(그렇지, 보리쌀은 부잣집에서야 섞어서 먹지. 보리쌀 당대에 좁쌀 나기 전엔 가난한 집은 먼저 먹어. 조밥만 주로 먹어. 조밥도 차조로 부잣집이 있지. 메조하면 조밥하면 '갈갈갈갈'.)

107006 @ 좁쌀로만 밥허민? 그건 밥허는 방법이 다릅니까?(좁쌀로만 밥하면? 그건 밥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107006 # 게, 모인좁쏠은 좁쏠밥을 허는디 물 팔팔 끼려가민 좁쏠 들이쳥은에 뀌여가민 거자 어느 정도 뒛구나 허민 젓주게, 젓엉인에 물이 바들바들허민 두께 더껑 내불민 밥이 뒈는디. 보리쏠은 보리쏠 솖앙 부끄주게, 부껑 솖앙은에 보리쏠이 익을 만허민 또 좁쏠 우터레 산하게[118] 허꺼, 허껑 또 솖당은에 또 그거 골로게 젓어사, 겡 서꺼.(그렇지, 메좁쌀은 좁쌀밥을 하는데 물 팔팔 끓어가면 좁쌀 들이뜨려서 끓어가면 거의 어느 정도 됐구나 하면 젓지, 저어서 물이 바글바글하면 뚜껑 덮어서 내버리면 밥이 되는데. 보리쌀은 보리쌀 삶아서 끓어오르지, 끓어올라서 삶아서 보리쌀이 익을 만하면 또 좁쌀 위로 '산하게' 섞어, 섞어서 또 삶다가 또 그거

118) '산하게'는 '골고루 흩어져 퍼지게'라는 뜻이다.

골고루 저어야, 그렇게 섞어.)

107006 @ 아까 조팝은 물 꿰엉은에 좁쌀 놓는 거?(아까 조밥은 물 끓어서 좁쌀 놓는 거?)

107006 # 물 팔팔 끌령.(물 팔팔 끓여서.)

107006 @ 처음 씻엉은에 그냥 물 맞춰 솖는 게 아니고.(처음 씻어서 그냥 물 맞춰서 삶는 게 아니고.)

107006 # 좁쏠 엿날 어른덜은 씻엉 아니허여. 그냥 밧듸서 허영 졍은에 ᄀᆞᆯ이 불령 망데기[119], 통개[120]에 담앗당은에 물 팔팔 끼려가민 좁쏠 ᄋᆞ져당 산허게 놩은에 배술기로 혼번 젓엉 물이 어느 정도 맞을로구나 허영 불 솜당 밥허는 사름 짐작허지게. 어느 정도 물이 뒛구나 헹 두께 저 불 께왕 내불민 틈 지왕, 게고 흐린좁쏠은 맛 좋는디 모인존 허민 모인좁쏠이엔 헌 건 거리민 달달달달 털어지곡이 모인좁쏠 밥 하영 먹어도 배고프고.(좁쌀 옛날 어른들은 씻어서 안 해. 그냥 밭에서 해서 찧어서 깨끗이 불려서 '망데기', '통개'에 담았다가 물 팔팔 끓여가면 좁쌀 가져다가 '산하게' 놔서 죽젓개로 한번 저어서 물이 어느 정도 맞겠구나 해서 불 때다가 밥하는 사람 짐작하지. 어느 정도 물이 됐구나 해서 뚜껑 저 불 꺼서 내버리면 뜸 들여서, 그리고 차좁쌀은 맛 좋은데 메조는 하면 메좁쌀이라고 한 건 뜨면 '달달달달' 떨어지고 메좁쌀 밥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107006 @ 아, 모인좁쏠은 밥 하영 먹어도 배고파? 찰기가 없어가지고.(아, 메좁쌀은 밥 많이 먹어도 배고파? 찰기가 없어가지고.)

107006 # 진이 엇엇어게.(진이 없었어.)

107006 @ 진이 엇어부난예.(진이 없어서요.)

107006 # 응.(응.)

107007 @ 풋도 놩은에 밥도 헙니까? 풋.(팥도 놔서 밥도 합니까?)

107007 # 풋도게 풋 솖앙인에 풋이 솖아사 ᄀᆞ찌 놩은에 밥허여, 풋밥.(팥도 팥 삶아서 팥이 삶아야 같이 놔서 밥해, 팥밥.)

107007 @ 풋밥 허젠 허민 어떵 풋은 먼저 솖아?(팥밥 하려고 하면 어떻게 팥은 먼저 삶아?)

107007 # 풋은 먼저 솖아, 좁쏠에 풋은 허는 건 드믈어. 보리쏠이영 곧 저 풋이영 ᄀᆞ찌 솖당은에 물이 바들바들허민 좁쏠 우레 삭 서껑은에 혼번 솖앙 ᄒᆞ끔 틈 잔 것 닮으민 배술기로 골로로 젓어.(팥은 먼저 삶아, 좁쌀에 팥은 하는 건 드물어. 보리쌀이랑 곧 저 팥이랑 같이 삶다가 물이 '바들바들'하면 좁쌀 위에 싹 섞어서 한번 삶아서 조금 뜸 든 것 같으면 죽젓개로 골고루 저어.)

107007 @ 풋밥 헐 때도? 풋 놓을 때도 좁쏠도 놔?(팥밥 할 때도? 팥 놓을 때도 좁쌀도 놔?)

107007 # 풋 놀 때도 보리쏠이영 ᄀᆞ찌 놔.(팥 놓을 때도 보리쌀이랑 같이 놔.)

---

119)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아니한 옹기를 말한다.
120) '통개'는 항아리의 일종이다.

107007 @ 픗 놓을 때 보리쏠하고 픗하고 같이 솖아?(팥 놓을 때 보리쌀하고 팥하고 같이 삶아?)

107007 # 응, 겡 헹은에 물이 픗도 익곡 픗도 익는 것도 보리쏠이영 똑ᄀᆞ뜨지게.(응, 그렇게 해서 물이 팥도 익고 팥도 익는 것도 보리쌀이랑 똑같지.)

107007 @ 똑같아.(똑같아.)

107007 # 응.(응.)

107008 @ 혹시 이 동네도 피밥, 피로 헹 먹읍니까?(혹시 이 동네도 피밥, 피로 해서 먹습니까?)

107008 # 대정은 피 안 갈아.(대정은 피 안 갈아.)

107008 @ 아, 피론 밥 안 헹 먹어예.(아, 피로는 밥 안 해서 먹어요.)

107008 # 아, 저 동더렌 피벳긔 안 갈아.(아, 저 동쪽에는 피밖에 안 갈아.)

107009 @ 밥헐 때 감저도 놩 먹어낫수과?(밥할 때 고구마도 넣어서 먹었었습니까?)

107009 # 그럼, 보리밥 헐 때 보리쏠 솖앙은에 이제 귀주게, 귀민 이제 감제 씻엉 딱딱딱 썰어. 어느 정도 썰엉은에 이젠 보리밥 위터레 놩은에 솖아가민 감저도 솖아지민 물도 끓곡 허민 배술기로 골로로 젓엉 겡 감저밥 허여. 그거 배불게스리 허는 거주, 영양은 엇는 거. 감저밥만 경 먹어놓으민[노민] 아이덜은 봄 나민 막 빈뎅이[121] 일엉은에.(그럼, 보리밥 할 때 보리쌀 삶아서 이제 끓지. 끓으면 이제 고구마 씻어서 딱딱딱 썰어. 어느 정도 썰어서 이젠 보리밥 위에 놔서 삶아가면 고구마도 삶아지면 물도 끓고 하면 죽젓개로 골고루 저어서 그래서 고구마밥 해. 그거 배부르게끔 하는 거지, 영양은 없는 거. 고구마밥만 그렇게 먹어놓으면 아이들은 봄 나면 막 '빈뎅이' 일어서.)

107009 @ 무신거 일어?(무엇 일어?)

107009 # 이런 디 막 빈뎅이 닮은 거 일어.(이런 데 막 '빈뎅이' 같은 거 일어.)

107009 @ 빈뎅이 닮은 거?('빈뎅이' 같은 거?)

107009 # 문작허게 술지지 아니허난게.(매끈하게 살찌지 않으니까.)

107009 @ 버즘 닮은 거?(버짐 같은 거?)

107009 # 응, 경 허여, 엿날에.(응, 그렇게 해, 옛날에.)

107010 @ 혹시 놈삐도 밥에 놩 먹읍니까?(혹시 무도 밥에 놔서 먹습니까?)

107010 # 놈삐 밥에 놩 먹음은 드물어.(무 밥에 놔서 먹기는 드물어.)

107010 @ 드물어.(드물어.)

107010 # 응.(응.)

107011 @ 톳, 톳은?(톳, 톳은?)

107011 # 톳도 저 해변에서 영 밥에. 해변 사름들 없는 사람들 톳밥 헹 먹엇젠 허는디 이 대정 지경엔 놈삐 놩 밥허는 디도 나도 이거 살아도 본 디 없고 톳도 놩 허는 디 해변더레 못사는 딘 그런 거 서껑 허영 먹넨 그때도 들어낫어. 무수도 썰

121) '빈뎅이'는 사람의 피부 표면에 입혀진 얇은 겉껍질을 말한다.

엉 허고 그거 불루왕은에 배불게 하영 허젠 허난.(톳도 저 해변에서 이렇게 밥에. 해변 사람들 없는 사람들 톳밥 해서 먹었다고 하는데 이 대정 지경엔 무 놔서 밥하는 데도 나도 이거 살아본 적도 없고 톳도 놔서 하는 데 해변으로 못사는 덴 그런 거 섞어서 해서 먹는다고 그때도 들었었어. 무도 썰어서 하고 그거 불려서 배부르게 많이 하려고 하니까.)

107011 @ 불루왕은에.(불려서.)

107011 # 응.(응.)

107012 @ 혹시 패밥은?(혹시 패밥은?)

107012 # 패, 대정 지경인 안 놔. 저 동더레 땅이 나쁜 디 그런 거 패 놓고, 무수밥 허곡 허주.(패, 대정 지경엔 안 넣어. 저 동쪽엔 땅이 나쁜 데 그런 거 패 넣고, 무밥 하고 하지.)

107012 @ 이 동네는 그런 거 엇어예?(이 동네는 그런 거 없어요?)

107012 # 응.(응.)

107013 @ 게난 밥은 영 잇고 이제 국은 무신 국, 무신 국 이신고?(그러니까 밥은 이렇게 있고 이제 국은 무슨 국, 무슨 국 있는가?)

107013 # 국은게 ᄂᆞ물 갈아근에, 배추국도 잇곡, 무수국 잇곡, 메역국도 잇곡.(국은 나물 갈아서, 배춧국도 있고, 뭇국도 있고, 미역국도 있고.)

107013 @ 주로 그거?(주로 그거?)

107013 # 응, 게고 이제 봄 나민 ᄂᆞ물도 갈곡 이젠 여름 저슬 엇이 ᄂᆞ물 갈곡 짐치 허는디 그 시절엔 여름엔 ᄂᆞ물 갈앙 짐치 허곡 그자 ᄉᆞᆼ키 먹을 거 허영은에 허민 동지 사멍 꺼껑 먹지만은, 난젱이엔 헌 거 알아져?(응, 그리고 이제 봄 나면 나물도 갈고 이제 여름 겨울 없이 나물 갈고 김치 하는데 그 시절엔 여름엔 나물 갈아서 김치 하고 그저 푸성귀 먹을 거 해서 하면 장다리 서면서 꺾어서 먹지만은, 냉이라고 한 거 알아?)

107013 @ 예.(예.)

107013 # 이젠 주로 봄 나민 그 난젱이가 시세 좋아. 막 케영 ᄑᆞ는 사름덜 이서.(이젠 주로 봄 나면 그 냉이가 시세 좋아. 막 캐어서 파는 사람들 있어.)

107013 @ 옛날도 그거 헹 국 끌려난?(옛날도 그거 해서 국 끓였었어?)

107013 # 엿날도 그런 거 우영 시민 그거 ᄀᆞ찌 헤영은에 ᄂᆞ물에 ᄀᆞ찌 국은 끌렁 먹엇지만은. 이젠이 그것이 더 맛이 쿠싱헌 냄살 나는 때문에 역불 그 난젱이 켕덜 막 풀고.(옛날도 그런 거 텃밭 있으면 그거 같이 해서 나물에 같이 국은 끓여서 먹었지마는. 이젠 그것이 더 맛이 구수한 냄새 나는 때문에 일부러 그 냉이 캐서들 막 팔고.)

107014 @ 음, 맞아. 게민 먼저 ᄂᆞ물국부터예, ᄂᆞ물국 허젠 허민 어떵 헹 끌리는 거꽈?(음, 맞아. 그러면 먼저 나물국부터요, 나물국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끓이는 겁니까?)

107014 # ᄂᆞ물국은 이제 뭰장 풀어놩 국 끌리당 귀어가민 ᄂᆞ물 썰엉 들이청은에

숢으민 ᄂᆞ물쿡.(나물국은 이제 된장 풀어놔서 국 끓이다가 끓어가면 나물 썰어서 들이뜨려서 삶으면 나물국.)

107014 @ 하하. 찬물에다 그냥 뭰장을 풀어?(하하. 찬물에다 그냥 된장을 풀어?)

107014 # 응.(응.)

107014 @ 경헹 끌려?(그래서 끓여?)

107014 # 응, 뀌어가민 ᄂᆞ물 썰어놩.(응, 끓어가면 나물 썰어 넣어서.)

107014 @ 뀌어가민 ᄂᆞ물 썰어놩 게민 ᄂᆞ물국 뒈는 거?(끓어 가면 나물 썰어 넣어서 그러면 나물국 되는 거?)

107014 # 응.(응.)

107014 @ 뭐 무신 요즘엔 다시다 같은 거 놓주마는.(뭐 무슨 요즘엔 다시다 같은 거 넣지마는.)

107014 # 엿날은 다시다도 아이 놩, 메르치도 우리 클 때는 메리치도 안 놔낫어. 메르치도 없엇어. 경 허민이 장 담앙인에 장이 맛존 집인 장국 끌려도 맛이 잇는디 이 소금이 조종 못한 사름은 장 고리민이 그 집이 일 가민, 아이고 그 집이 일 가민 나 원 국 먹지 실펀, 장 냄살 낭, 겡헤도 홀 수 엇이 그걸 놩 끌리지게. 그 사름넨 먹는 사름은 심상헌디 일허레 간 사름은 먹지 못헌덴 허여. 게난 장 담는 것도 기술이메. 메주 숢앙인에 잘 틔왕 소금으로 조종헤사주게. 조종 안 허민 장이 고린내가 나. 고린내 나가민 또 버렝이가 바글바글 일곡. 그추룩 허여. 난 장 담앙 맛존넨 헹은에이 그 우리 친구덜 밧듸 가젠 허민 뭰장 밧듸 ᄋᆞ정강 국 헹 먹젠 허민 나신듸 뭰장 빌레 와.(옛날은 다시다도 안 넣어서, 멸치도 우리 클 때는 멸치도 안 넣었었어. 멸치도 없었어. 그러면 장 담가서 장이 맛있는 집은 장국 끓여도 맛이 있는데 이 소금이 조정 못한 사람은 장 고리면 그 집에 일 가면 아이고 그 집에 일 가면 나 원 국 먹기 싫어, 장 냄새 나서,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이 그걸 넣어서 끓이지. 그 사람네는 먹는 사람은 심상한데 일하러 간 사람은 먹지 못한다고 해. 그러니까 장 담그는 것도 기술이야. 메주 삶아서 잘 띄워서 소금으로 조정해야지. 조정 안 하면 장이 고린내가 나. 고린내 나가면 또 벌레가 바글바글 일고. 그처럼 해. 난 장 담가서 맛 좋다고 해서 그 우리 친구들 밭에 가려고 하면 된장 밭에 가져가서 국 해서 먹으려고 하면 나에게 된장 빌리러 와.)

107014 @ 할머니가 잘헤낫구나.(할머니가 잘했었구나.)

107014 # 그거 조정을 못 허난. 하여튼 장 담젠 허민이 소금을 ᄀᆞᆯ주게, 미릇. 소금을 ᄀᆞᆯ앙인에 허민 계란을 하나 톡 틔우민 구리전 돈만은 동글동글 터. 그거이 지금도 구리동전만이 동글동글 틔민 돗수 맞은 거. 경 허민 메주 허영은에 그것에 들이치주게. 경 허민 맞는디 어떤 사름은 싱겁게 헤영 고렁은에, 고렁 장, 국 허민 고린내 낭 못 먹으켄 허멍.(그거 조정을 못 하니까. 하여튼 장 담그려고 하면 소금을 갈지, 미리. 소금을 갈아서 하면 계란을 하나 톡 띄우면 구리동전 돈만큼 동글동글 떠. 그게 지금도 구리동전만큼 동글동글 뜨면 도수 맞는 거. 그렇게 하면 메주 해서

그것에 들이뜨리지. 그렇게 하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싱겁게 해서 고려서, 고려서 장, 국 하면 고린내 나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

107015 @ 콩나물로도 국 끌렁 먹어?(콩나물로도 국 끓여서 먹어?)

107015 # 뭐?(뭐?)

107015 @ 콩나물.(콩나물.)

107015 # 콩나물로도, 콩나물로도 집이서 콩 놩은에 국 끌릴 때 들이쳥 먹어.(콩나물로도, 콩나물로도 집에서 콩 넣어서 국 끓일 때 들이뜨려서 먹어.)

107015 @ 응? 장국으로?(응? 장국으로?)

107015 # 응.(응.)

107015 @ 뒌장 헹은에?(된장 해서?)

107015 # 응.(응.)

107016 @ 응, 놈삐국은?(응, 무국은?)

107016 # 놈삐도, 놈삐 즘질이 썰엉은에 뀌여가믄 들이쳥.(무도, 무 자잘하게 썰어서 끓어가면 들이뜨려.)

107016 @ 뒌장에 헹은에 장국에.(된장에 해서 장국에.)

107017 @ 콩 골앗당 콩국도 끌려 먹읍니께.(콩 갈았다가 콩국도 끓여서 먹잖습니까?)

107017 # 콩 골앗당은에 콩ᄀᆞ루영 없는 집은 좁쏠이영 서껑 물 뀌어가민 그레 놩은에 젓으멍 부꺼분 따문 젓으멍 허영 또시 콩죽이엔 헌 건 ᄂᆞ물 썰어놩 죽 쒕은에이 먹곡, 콩국이엔 헌 건 또시 ᄀᆞ루 탕은에 물 뀌여가민 들이쳥 젓어가민, 되어가민 또 ᄂᆞ물 썰엉은에 콩국이 뒈고.(콩 갈았다가 콩가루랑 없는 집은 좁쌀이랑 섞어서 물 끓어가면 그리 넣어서 저으면서 끓어 넘치는 때문 저으면서 해서 또 콩죽이라고 한 건 나물 썰어넣어서 죽 쒀서 먹고, 콩국이라고 한 건 또 가루 타서 물 끓어 가면 들이뜨려서 저어가면, 되어가면 또 나물 썰어서 콩국이 되고.)

107017@ 콩국을 나가 멘날 맛없게 끌려가지고 옛날 어머니가 끌려줄 때는 영영 뭉쳐지게 뒈는데 난 허민예, 막예.(콩국을 내가 맨날 맛없게 끓여 가지고 옛날 어머니가 끓여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데 난 하면요, 막요.)

107017# 응, 덩어리 져.(응, 덩어리 져.)

107017@ 덩어리 안 졍 막.(덩어리 안 져서 막.)

107017# 드글드글.('드글드글'.)

107017@ 그게 안 뒈어.(그게 안 돼.)

107017# 바당에 ᄆᆞᆷ 트듯이 드글드글 그것이 잘 뒌 거.(바다에 모자반 뜨듯이 '드글드글' 그것이 잘 된 거.)

107017@ 어떵허민 잘 뒈는 거? 잘 헤집니까?(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 잘 할 수 있습니까?)

107017# 어떤 사름은 ᄀᆞᆫ을 맞춰야 물도 족게 말곡 ᄀᆞ루도 족게 말아사 너미 물은 하곡 ᄀᆞ루 족으민 지르륵허여. 그것에도 마촹.(어떤 사람은 간을 맞춰야 물도 적

게 말고 가루도 적게 말아야 너무 물은 많고 가루 적으면 ‘지르륵’해. 그것에도 맞춰서.)

107017@ 그민 그 ᄀᆞ루는 물에 카근에 놓는 거지예?(그러면 그 가루는 물에 타서 넣는 거지요?)

107017 # 응.(응.)

107017 @ ᄀᆞ루채 놓는 게 아니고예?(가루째 넣는 게 아니고요?)

107017 # 응, 물 뀌여가민 ᄀᆞ루 캉 것에 놩은에 젓어근에 또 어느 정도 바글바글 뀌여 가민 놈삘 썰어놓나 ᄂᆞ물을 썰어놔.(응, 물 끓어가면 가루 타서 그것에 놔서 저어서 또 어느 정도 바글바글 끓어가면 무를 썰어 넣거나 나물을 썰어넣어.)

107017 @ 게민 콩국 뒈는 거?(그러면 콩국 되는 거?)

107017 # 콩ᄀᆞ루에 좁쏠 서껑은에 콩죽이엥 허영이.(콩가루에 좁쌀 섞어서 콩죽이라고 해서.)

107017 @ 건 콩죽?(그건 콩죽?)

107017 # 겡 헹은에 또시 쏠도 익은 거 닮고 어느 정도 뀌여가민 ᄂᆞ물 썰어놩 콩죽 헹 먹고.(그렇게 해서 또 쌀도 익은 거 같고 어느 정도 끓어가면 나물 썰어넣어서 콩죽 해서 먹고.)

107017 @ 콩죽에도 ᄂᆞ물 들어가? 죽인디?(콩죽에도 나물 들어가? 죽인데?)

107017 # 응, 콩죽에도 ᄂᆞ물 들어가.(응, 콩죽에도 나물 들어가.)

107017 @ 아, 국도 아니고 죽에도 게난 콩죽은 아까 다시 한번 어떵한다고? 죽, 죽. 콩ᄀᆞ루허고 좁썰허고.(아, 국도 아니고 죽에도 그러니까 콩죽은 아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죽, 죽. 콩가루하고 좁쌀하고.)

107017 # 좁쏠허고 서껑 물 뀌어가민 들이청은에 그거 부꺼불어. 부끄기 전이 잘 마탕은에 뀌여가민 ᄂᆞ물 썰엉 들이쳐.(좁쌀하고 섞어서 물 끓어가면 들이뜨려서 그거 끓어 넘쳐버려. 끓어 넘치기 전에 잘 맡아서 끓어가면 나물 썰어서 들이뜨려.)

107017 @ 게난 좁쏠이 들어가면 죽 안에.(그러니까 좁쌀이 들어가면 죽 안에.)

107017 # 좁쏠 들어간 건 죽이 뒈고. 콩국은 그냥 콩ᄀᆞ루만 놓고 ᄂᆞ물 놓면 콩국이 뒈고.(좁쌀 들어간 건 죽이 되고. 콩국은 그냥 콩가루만 넣고 나물 넣으면 콩국이 되고.)

107018 @ 게민 호박잎국은?(그러면 호박잎국은?)

107018 # 호박잎국은 박박 밀엉.(호박잎국은 박박 밀어서.)

107018 @ 호박잎을?(호박잎을?)

107018 # 응, 호박잎이 이제 뎅가리 거 쫙쫙 찢엉은에 박박 밀엉 썰엉은에 물 뀌여 가민 호박잎국 장 놓고 간 맞촹 먹는 거.(응, 호박잎이 이제 둥치 그거 쫙쫙 찢어서 박박 밀어서 썰어서 물 끓어 가면 호박잎국 장 넣고 간 맞춰서 먹는 거.)

107018 @ 장은 간장? 뒌장?(장은 간장? 된장?)

107018 # 간장 놔야지게.(간장 놔야지.)

107018 @ 장물이엔 허여?(‘장물’이라고 해?)

107018 # 응, 장물을 놔야지, 뒌장 아니 놔, 호박국엔. 호박잎국엔 ᄀᆞ루 ᄒᆞ끔 서끄곡 허는 따문 뒌장 안 놔.(응, 장물을 넣어야지, 된장 안 넣어, 호박국엔. 호박잎국엔 가루 조금 섞고 하는 때문 된장 안 넣어.)

107018 @ ᄀᆞ루 서끈 건 언제 놔? ᄀᆞ루는 언제 놓습니까?(가루 섞은 건 언제 놔? 가루는 언제 넣습니까?)

107018 # 호박잎 놩 뀌여가민 무슨 ᄀᆞ루영 그레 ᄀᆞ치 ᄀᆞ루 사발에 탓당 막 젓엉. 젓엉은에 호박잎도 익은 것 닮곡 어느 정도 이녁 짐작으로 뒈민 장 신 사름은 장물 놓고 장 엇은 사름은 소금 놓고 그래.(호박잎 넣어서 끓어가면 무슨 가루랑 그리 같이 가루 사발에 탔다가 막 저어서. 저어서 호박잎도 익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자기 짐작으로 되면 장 있는 사람은 장물 넣고 장 없는 사람은 소금 넣고 그래.)

107018 @ ᄀᆞ루 푼 거 언제 놓는 거라?(가루 푼 거 언제 넣는 거야?)

107018 # ᄀᆞ루 탄 건?(가루 탄 건?)

107018 @ 언제 놓는 거라?(언제 넣는 거야?)

107018 # 하튼 ᄀᆞ루 탄 거 물 뜨뜻헤가민 벌써 물에 놩은에 젓어사.(하여튼 가루 탄 거 물 따뜻해가면 벌써 물에 넣어서 저어야.)

107018 @ 호박잎 놓기 전이?(호박잎 넣기 전에?)

107018 # 응.(응.)

107018 @ 먼저? ᄀᆞ루 먼저 놓고 그다음 호박잎 놓고 그다음 장물 놓고?(먼저? 가루 먼저 넣고 그다음 호박잎 넣고 그다음 간장 넣고?)

107018 # 응, 호박잎 익은 거 닮으민게, 다 뒌 거 닮으민.(응, 호박잎 익은 거 같으면, 다 된 거 같으면.)

107019 @ ᄆᆞᆷ국은 어떵허는 거?(모자반국은 어떻게 하는 거?)

107019 # ᄆᆞᆷ국은 ᄆᆞᆷ ᄏᆞᆯ이 ᄲᆞᆯ앙인에 그자 썰엉, ᄆᆞᆷ ᄏᆞᆯ이 ᄲᆞᆯ앙은에 썰엉은에 장국을 수왕수왕 뀌여가민 들이쳥은에 또시 ᄆᆞᆷ국.(모자반국은 모자반 깨끗이 빨아서 그저 썰어서, 모자반 깨끗이 빨아서 썰어서 장국을 ‘수왕수왕’ 끓어가면 들이뜨려서 다시 모자반국.)

107019 @ 아, ᄆᆞᆷ국도 장국으로 끌립니까?(아, 모자반국도 장국으로 끓입니까?)

107019 # 응, 장물로 경헹 ᄆᆞᆷ국은 경 허민 엿날에 ᄒᆞ쏠 배불게 먹젠 허민 ᄀᆞ루가 잇주게, 모멀ᄏᆞ루나 무신 ᄀᆞ루 시민 탕인에 놓으민[노민] ᄆᆞᆷ국 먹음이도 허고.(응, 간장으로 그렇게 해서 모자반국은 그렇게 하면 옛날에 조금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면 가루가 있지, 메밀가루나 무슨 가루 있으면 타서 넣으면 모자반국 먹기도 하고.)

107019 @ 미도 허는 건 뭐꽈?(‘미도’ 하는 건 뭡니까?)

101019 # 배가 불어. 엿날 뒈야지 잡는 잔치에 ᄆᆞᆷ국 끌렁들 다 먹어.(배가 불러. 옛날 돼지 잡는 잔치에 모자반국 끓여서들 다 먹어.)

107019 @ 그때는 국물이 뒈야지궤기 국물로 허는 거 아니?(그때는 국물이 돼지고기 국물로 하는 거 아니?)

107019 # 응. 뒈야지 국물에 ᄀᆞ루 탕 놩 먹는 거 ᄒᆞᆫ 사발썩.(응. 돼지 국물에 가루 타서 먹는 거 한 사발씩.)

107019 @ 아, 뒈야지 국물 엇이민 그냥 장물에 허는 거?(아, 돼지 국물 없으면 그냥 장물에 하는 거?)

107019 # 응. 뒈야지 국물 엇이민 그냥 맹물에 ᄆᆞᆷ국 끌려도 먹고 바당에서 ᄆᆞᆷ또시 ᄇᆞᆯ앙 ᄒᆞᆯ이 ᄇᆞᆯ앙은에 솖지 아녕 읏러 번 ᄇᆞᆯ앙 문작허게 ᄇᆞᆯ아지민 복삭하게[122] 썰엉은에 ᄆᆞᆷ채 헤영 썰엉이 양념, 다 궤영 마늘이영 다 놩은에 지름 문드리곡 헹은에 그건 반찬으로.(응, 돼지 국물 없으면 그냥 맹물에 모자반국 끓여서도 먹고 바당에서 모자반 또 빨아서 깨끗이 빨아서 삶지 않고 여러 번 빨아서 '문작허게' 빨면 '복삭허게' 썰어서 모자반채 해서 썰어서 양념, 다 끓여서 마늘이랑 다 놔서 기름 떨어뜨리고 해서 그건 반찬.)

107019 @ 그건 반찬으로예.(그건 반찬으로요.)

107019 # 그런 거 맛 좋앙 잘 먹어.(그런 거 맛 좋아서 잘 먹어.)

107020 @ 생선 놩은에 바닷궤기 놩은에 국 끌리는 건 어떵 국 끌립니까?(생선 넣어서 바닷고기 넣어서 국 끓이는 건 어떻게 국 끓입니까?)

107020 # 바닷궤긴 미릇 비늘 신 거 다 벳기곡 헹 미릇 바당궤기 솖아, 바당궤긴 오래 솖아사 국이 맛 좋아. 낼 어버이날이민 오늘 큰 궤기 상 비늘 다 베끼고 썰엉은에 오늘 저녁에 궤왕 놧당 내일 아직인 어버이날이나 아직인 국 끌령은에 어른들 멕이젠 허민 놩인에 솽솽 꿰가민 이젠 메역 ᄇᆞᆯ앙 놩은에 간 마치민 그렇게 맛이 좋아. 우린 어떠난 경 알아신고 허난이 우리 셋사우네가이 셋사우 아방네가 아홉 성제라낫어. 아홉 성젠디 이칩인디, 모슬포 이칩인디 막 방상도 시르시르허난[123] 우리 사우가, 셋사우가 닐 어버이날이면 오늘 궤기 가져와. 가문돔이나 벤자리나 어버이날 아싯날, 어머니 이거 그날 당장 끌리민 맛엇입니다, 바당고긴. 궤왕 놧당 바글바글 궤왕놧당은에 아직에랑 메역이영 양념 놩은에 메역 놓고 허영 장이영 놩은에 국 끌여사 더 등거웁니덴[124] 허난, 우리 경헹 먹어 보지 안헷어이.(바닷고긴 미리 비늘 있는 거 다 벗기고 해서 미리 바닷고기 삶아, 바닷고긴 오래 삶아야 국이 맛 좋아. 내일 어버이날이면 오늘 큰 고기 사서 비늘 다 벗기고 썰어서 오늘 저녁에 끓여서 놨다가 내일 아침엔 어버이날이나 아침엔 국 끓여서 어른들 먹이려고 하면 넣어서 '솽솽' 끓어가면 이젠 미역 빨아서 넣고 간 맞추면 그렇게 맛이 좋아. 우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나 하니까 우리 둘째 사위네가 둘째 사위 아버지네가 아홉 형제였었어. 아홉 형제인데 이씨 집인데, 모슬포 이씨 집인데 막 일가붙이도 '시르시르허난' 우리 사위가, 둘째 사위가 내일 어버이날이면 오늘 고기 가져와. 감성돔이나 벤자리나 어버이날 전날, 어머니 이거 그날 당장 끓이면 맛없습니다, 바닷고긴. 끓여서 놨다가 바글바글 끓여놨다가 아침에랑 미역이랑 양념 넣어서 미역 넣고 해서 장이랑 넣어서 국 끓여야 더 '등거웁니덴'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해

122) '복삭하다'는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123) '시르시르허다'는 일가붙이 숫자가 아주 많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124) '등겁다'는 음식이 아주 구수하거나 기름기가 있어 눅눅하다는 말이다.

서 먹어보지 않았어.)

107020 @ 응.(응.)

107020 # 우리 셋사우 골으난 그때부턴 무조건 어버이날 아싯날 사와.(우리 둘째사위 말하니까 그때부턴 무조건 어버이날 전날 사와.)

107020 @ 응.(응.)

107020 # 하늘에 해 박은 해 안 사올 때가 없어. 족도 안헹 큰 걸로 상 오랑 문딱 잡고 바당에 메역허영 문 썰고 헹오랑 경헙센 허민 경 허민 우리 하르방도 그런 거 먹어본 양반가?(하늘에 해 박은 해 안 사올 때가 없어. 적지도 않고 큰 걸로 사와서 모두 잡고 바다에 미역해서 모두 썰고 해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거 먹어본 양반이냐?)

107020 @ 응.(응.)

107020 # 나영 살멍 고급으로 참말 이거 처암으로 먹는 건디 이거 참 맛 좋덴 허여이, 맛 좋덴 이디 오라방네 살민 처남 강 둘아오라, 흔 ᄉᆞ발 먹으렌 허영 둘아당 멕일 때도 시곡, 이 뒤칩이 이 선생이엔 허는 사름 이서, 이○○이. 어멍이 이디 오란 ᄀᆞ치 사난 훼장, 훼장 헷주게. 제국 시절에영 막 늙은 어른 하나, 뒤칩이 강은에 훼장 둘아당 국 한 사발 주라, 경 허민 오랑 먹으민이 지네 아덜 국민ᄒᆞᆨ교 선생이난 올 시간 뒈민 막 ᄌᆞ들아, 할망이. 우리 하르방이영 흔 동네 살아나난, 훼장 ᄌᆞ들지 맙서, ○○이 온 것에 어떵헙네까, 아이구 이디 오난 동네 놀레도 가지 못허게 허곡 이 아시 시난 이디 오람주, 아무데나 가지 못허게 허영 딱 문 ᄌᆞᆼ가불어.(나랑 살면서 고급으로 참말 이거 처음으로 먹는 건데 이거 참 맛 좋다고 해. 맛 좋다고 여기 오라버니네 살면 처남 가서 데려와라, 한 사발 먹으라고 해서 데려다가 먹일 때도 있고, 이 뒷집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 이○○이. 어머니가 여기 와서 같이 사니까 회장, 회장 했지. 제국 시절에랑 막 늙은 어른 하나, 뒷집에 가서 회장 데려다가 국 한 사발 주라, 그러면 와서 먹으면 자기네 아들 국민학교 선생이니까 올 시간 되면 막 걱정해,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랑 한 동네 살았었으니까, 회장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온 것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여기 오니까 동네 놀러도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아우 있으니까 여기 오고 있지, 아무데나 가지 못하게 해서 딱 문 잠가버려.)

107020 @ 집이서만 이시렌?(집에서만 있으라고?)

107020 # 집이서만 살렌. 그치륵 허멍 막 그 할망 고생허당 죽엇저. 게민 나 솔째기 불렁 주곡 허당이 우리 집 오랑 먹어가난이 각시ᄀᆞ라 골아신디 문을 안팍에서 다 ᄌᆞᆼ간 할망 나오질 못허게 허여.(집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 할머니 고생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나 살짝이 불러서 주고 하다가 우리 집 와서 먹어가니까 색시보고 말했는지 문을 안팎에서 다 잠가서 할머니 나오질 못하게 해.)

107020 @ 무사, 노실허여?(왜, 노망해?)

107020 # 몰라, 나오지 못허게 허민 메누리도 나쁜 사름이주. 나오지 못허게 허민 그 앞의 미깡낭 허끄만헌 거 시난 이때 막 배고프난이 그 퍼렁헌 미깡을 탕 막

먹어.(몰라, 나오지 못하게 하면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지. 나오지 못하게 하면 그 앞에 귤나무 조그마한 거 있으니까 이때 막 배고프니까 그 퍼런 귤을 따서 막 먹어.)

107020 @ 예.(예.)

107020 # 경 허난 그 이 선생 각시신듸, 니 무사 경헴디게 경헴디 허민 무신거 말이꽈, 아방이 경 허렌 허는 걸 어떵헙니까, 어떵헙니까 헤여. 경헨이 ᄂᆞ시 이 집이도 놀레 못 오게 허민이 영 보민 마당에 뎅기는 거 닮으민 메누린 어디 안 뎅기는 사름이난 선생은 보성학교 가불고 허민. 뎅기는 것 닮으민 찐빵 시리에서 풀앗어, 전이. 무신것에 치멍이 가게칩이서 풀민 강은에 찐빵 두 개 상은에 그디서 종이에 쌍인에 올레 문 독독 두드려, 할망이, 마당도 쬐그만헌 디난게 요리 갓다 요레 갓다허영 문 톡톡 두드려 가민 이거 ᄋᆞ정강 곱정 강 먹으렌.(그러니까 그 이 선생 색시에게 너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 그래서 끝내 이 집에도 놀러 못 오게 하면 이렇게 보면 마당에 다니는 거 같으면 며느린 어디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선생은 보성 학교 가버리고 하면. 다니는 거 같으면 찐빵 시루에서 팔았어, 전에. 무엇에 찌면서 가게에서 팔면 가서 찐빵 두 개 사서 거기서 종이에 싸서 '올레' 문 똑똑 두드려, 할머니, 마당도 조그마한 데니까 요리 갔다 요리 갔다 해서 문 톡톡 두드려 가면 이거 가져가서 숨겨서 가서 먹으라고.)

107020 @ 예.(예.)

107020 # 곱정 강 먹을 때 걸린 모냥이라. 걸리난에, 그 아이가 누겐고 허민 우리 시어멍 오라방 웨손, 뚤이주게이.(숨겨서 가서 먹을 때 걸린 모양이야. 걸리니까, 그 아이가 누군고 하면 우리 시어머니 오라버니 외손, 딸이지.)

107020 @ 예.(예.)

107020 # 오라방, 오라방 뚤에 뚤, 뚤에 뚤이난 날ᄀᆞ라 무신거 허젠 삼춘 그 빵 사단 멕염수과? 지체 못허게 멕이지 맙서, 경헤도 난.(오라버니, 오라버니 딸의 딸, 딸의 딸이니까 나보고 무엇 하려고 삼촌 그 빵 사다가 먹입니까? 지체 못하게 먹이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난.)

107020 @ 고맙덴 헤사주.(고맙다고 해야지.)

107020 # 나 자꾸 경헨 멕엿주게. 아이고, 불쌍허게 죽엇저.(나 자꾸 그렇게 해서 먹였지. 아이고, 불쌍하게 죽었어.)

107020 @ 생선국은 바당궤기는 무신 궤기, 무신 궤기로 국 끌려져?(생선국은 바닷고기는 무슨 고기, 무슨 고기로 국 끓일 수 있어?)

107020 # 그땐 북바리, 가문돔, 벤자리 그런 거게. (그땐 붉바리, 감성돔, 벤자리 그런 거.)

107020 @ 아.(아.)

107020 # 주로 게영 허젠 허민이.(주로 갱 하려고 하면.)

107020 @ 응.(응.)

107020 # 옛날엔 아기 어멍 아기 나민 젓이 엇이민 그 북바리 사당은에 국 끌영 먹으면이 젓이 경 자락[125] 나와, 애기 어멍.(옛날은 아기 어머니 아기 낳으면 젖이 없으면 그 붉바리 사다가 국 끓여서 먹으면 젖이 그렇게 '자락' 나와, 아기 어머니.)

107020 @ 옥돔은 안 헤?(옥돔은 안 해?)

107020 # 옥돔은 그거 고급 거, 옥돔은 옥돔 경 아기 어멍 국 끌령 줘봐도.(옥돔은 그거 고급 거, 옥돔은 옥돔 그렇게 아기 어머니 국 끓여서 줘봐도.)

107020 @ 옥돔은 무신거엔 골읍니까?(옥돔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7020 # 생성.('생성'.)

107020 @ 생성.('생성'.)

107020 # 저 돔이 큰개[126]레 서귀포레 옥돔 나지, 이 대정 지경엔 옥돔.(저 돔이 대포에 서귀포에 옥돔 나지, 이 대정 지경엔 옥돔.)

107020 @ 옥돔 안 나?(옥돔 안 나?)

107020 # 게, 경 허민 지숙 허젠 허민 그런 거 다 사오주게.(그렇지, 그러면 제육 하려고 하면 그런 거 다 사오지.)

107020 @ 그디 강, 큰개 강은에?(거기 가서, 대포 가서?)

107020 # 응, 대포, 중문 근방에 강은에.(응, 대포, 중문 근방에 가서.)

107020 @ 아.(아.)

107020 # 우리 아부지네가 원래 이 동네난에 대포 우리 아부지네 육촌 간 시민 생성 물리왕은에 우리집이 ᄋᆞ경와, 지숙 허렌.(우리 아버지네가 원래 이 동네니까 대포 우리 아버지네 육촌 간 있으면 생선 말려서 우리 집에 가져와, 제육 하라고.)

107020 @ 이 동네는 그게 없으니까.(이 동네는 그게 없으니까.)

107020 # 바당궤기 하영, 하민 우린 이디서 농ᄉᆞ허여 지민 먹으렌. 그디 사름덜은 주로 바당에 거만 튿어먹으멍 사난게.(바닷고기 많이, 많으면 우린 여기서 농사해서 지으면 먹으라고. 거기 사람들은 주로 바다의 것만 뜯어먹으면서 사니까.)

107021 @ 미역 놩은에 국도 끌리주예?(미역 넣어서 국도 끓이지요?)

107021 # 게, 메역 놩게.(그러게, 미역 넣어서.)

107021 @ 생선국할 때만 메역 놓읍니까?(생선국할 때만 미역 넣습니까?)

107021 # 뒈야지 국 헐 때도 메역 놔.(돼지 국 할 때도 미역 넣어.)

107021 @ 건 어떵 헹 끌리는 거라?(그건 어떻게 해서 끓이는 거야?)

107021 # 게, 뒈야지궤기 놩은에 솖당은에 뀌어가민 메역 뿐 거 들이쳥은에 간 맞추고, 그 바당궤기도 궤기 익엉은에 삶으민 장 놓고, 메역 놩은에 뀌민 간 맞촹은에 먹지.(그렇지, 돼지고기 넣어서 삶아다가 끓어가면 미역 뺀 거 들이뜨려서 간 맞추고, 그 바닷고기도 고기 익어서 삶으면 장 넣고, 미역 넣어서 끓으면 간 맞춰서 먹지.)

107021 @ 뒌장국에는 메역 안 놔?(된장국에는 미역 안 넣어?)

---

125) '자락'은 '와락'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126) '큰개'는 서귀포시 대포동의 옛 이름이다.

107021 # 뒌장국도 그냥 이디서 먹을 땐 뒌장국에 메역 잘 안 놔.(된장국도 그냥 여기서 먹을 땐 된장국에 미역 잘 안 넣어.)

107021 @ ᄂᆞ물 놓주예?(나물 넣지요?)

107021 # 응.(응.)

107022 @ 냉국은?(냉국은?)

107022 # 냉국이엔 헌 건게.(냉국이라고 한 건.)

107022 @ 어떵 헹 만드는 거꽈?(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107022 # 냉국이렌 헌 건 메역 ᄂᆞ물 데왕인에 그냥 썰엉 맹물에 장 양념허영 거ᄀᆞ라 냉국이렌 허고. 또 메역국도 그냥 솖지 아녕 뿔앙 문작하게[127] 뿔앙 썰엉은에 메역에 장 문딱 간 맞추주게. 간 맞추민 그레 물 놩은에 싱거우냐, 짜냐 허민 것ᄀᆞ라 냉국.(냉국이라고 한 건 미역 나물 데워서 그냥 썰어서 맹물에 장 양념해서 그것 보고 냉국이라고 하고. 또 미역국도 그냥 삶지 않고 빨아서 '문작허게' 빨아서 썰어서 미역에 장 모두 간 맞추지. 간 맞추면 그리 물 넣어서 싱거우냐, 짜냐 하면 그것 보고 냉국.)

107022 @ 아, 건.(아, 그건.)

107022 # 끌리지 아니허난 냉국.(끓이지 않으니까 냉국.)

107022 @ 끌이지 안허난. 뒌장으로 허는 거지예?(끓이지 않으니까. 된장으로 하는 거지요?)

107022 # 응, 뒌장을 양념을 허나 장물을 양념을 허영은에.(응, 된장을 양념을 하거나 간장을 양념을 해서.)

107022 @ 아, 장물로도?(아, 간장으로도?)

107022 # 응, 경헤민 메역 뿔앙은에 다 장에 이제 마농 썰어 놓고 뭐 고치도 놓고 깨도 헹 놩은에 장에 우선 놓주게. 메역 뿔앙 썰엉 거렁 놩은에 디불디불허게 서껑은에 씨원헌 물 놓민 냉국.(응, 그러면 미역 빨아다가 다 된장에 이제 마늘 썰어 넣고 뭐 고추도 넣고 깨도 해서 놔서 된장에 우선 넣지. 미역 빨아서 썰어서 떠서 넣고 '디불디불허게' 섞어서 시원한 물 넣으면 냉국.)

107022 @ 옛날에는 밧듸 갈 때 밧듸서도 냉국 헹 먹잖아예. 그땐 어떵 헹 허는 거꽈?(옛날에는 밭에 갈 때 밭에서도 냉국 해서 먹잖아요. 그땐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22 # 밧듸 갈 때 메역 냉국 헤영 가는 디 없어.(밭에 갈 때 미역 냉국 해서 가는 데 없어.)

107022 @ 밧듸 갈 때 어떵허여?(밭에 갈 때 어떻게 해?)

107022 # 그자 ᄂᆞ물 데왕 강 그냥 장도 안 버무렁 강은에 장은 이만한 단지에 가졍강 이젠 점심 먹게 뒈민 이런 다라에 ᄂᆞ물 데왕 썬 거 ᄋᆞ정강 뒌장 버무렁. 밧듸 가민 물이 시원허느냐?(그저 나물 데쳐서 가서 그냥 장도 안 버무려서 가서 된장은 이만한 단지에 가져가서 이젠 점심 먹게 되면 이런 대야에 나물 데쳐서 썬 거

127) '문작하다'는 무르고 연한 물건 따위가 조금만 건드려도 뚝 끊어지거나 잘라진다는 의미이다.

가져가서 된장 버무려서. 밭에 가면 물이 시원하니?)

107022 @ 게난.(그러니까.)

107022 # 그 항아리에, 허벅에 담앙 강 그거 비왕 국 허민 그자 그것이 냉국 뒈어.(그 항아리에, '허벅'에 담아서 가서 그거 비워서 국 하면 그저 그것이 냉국 돼.)

107022 @ 응, 그냥 된장에 ᄂᆞ물 데운 거.(응, 그냥 된장에 나물 데친 거.)

107022 # 덕수가 그렇게 박허더라게.(덕수가 그렇게 박하더라.)

107022 @ 이 동네에선 어떵 헤마씨?(이 동네에선 어떻게 해요?)

107022 # 이 동네도 경 박허는 사름는 허는디 그자락은 안헤, 바당 가까우곡 허난.(이 동네도 그렇게 박한 사람은 하는데 그다지는 안 해, 바다 가깝고 하니까.)

107022 @ 이 동네는 뭐 저 ᄂᆞ물 데운 거 말고 물웬 안 놔?(이 동네는 뭐 저 나물 데친 거 말고 '물웨'는 안 넣어?)

107022 # 게 물웨도 썰엉 가야 혀. 채소로 썰엉 강. 물웨도 썰엉 강인에 밧듸 강은에 홈치 썰엉 그릇에 담앙 가. 그딘 가민 썰지 아니허민 안 뒈주게. 경 허민 어떤 딘 가민이 ᄂᆞ물 썰지 아니허영 강 칼 아정강 촥촥촥허게시리 허영은에 뒌장 버무령 국허민 좀 무신 먹으멍들 뭣이엔 ᄀᆞᆯ아. 홈치 집이서 썰엉 오주.(그러게. '물웨'도 썰어서 가야 해. 채소로 썰어서 가서. '물웨'도 썰어서 가서 밭에 가서 한꺼번에 썰어서 그릇에 담아서 가. 거긴 가면 썰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떤 덴 가면 나물 썰지 않아서 가서 칼 가져가서 '촥촥촥'하게끔 해서 된장 버무려서 국 하면 좀 무슨 먹으면서들 뭐라고 말해. 한꺼번에 집에서 썰어서 오지.)

107022 @ 썰엉 오주, 안 썰엉 왓젠?(썰어서 오지, 안 썰어서 왔다고?)

107022 # 아이구 엿날사 박허영.(아이고, 옛날이야 박해서.)

107023 @ 성게국? 구살국?(성게국? '구살국'?)

107023 # 오죽 맛 좋느냐?(오죽 맛 좋니?)

107023 @ 구살국은 어떵 끌리는 거꽈?(성게국은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107023 # 성게국은게 물 팔팔 끌려가민 성게 깡인에.(성게국은 물 팔팔 끓어가면 성게 까서.)

107023 @ 옛날 말로 ᄀᆞᆯ아사 구살로.(옛날 말로 말해야 '구살'로.)

107023 # 응, 귀살 그레 깡은에 놩인에게 만딱 간 맞추고 메역 놓고 ᄒᆞ영.(응, 성게 그리 까서 놔서 모두 간 맞추고 미역 넣고 해서.)

107023 @ 메역은 나중에?(미역은 나중에?)

107023 # 응, 메역은 나중에 경 먹주.(응, 미역은 나중에 그렇게 먹지.)

107023 @ 거 무신 날이나 먹는 거주예?(거 무슨 날이나 먹는 거지요?)

107023 # 아무나 먹도 아니혀, 얼마나 빗나카부덴.(아무나 먹지도 않아, 얼마나 비쌀까 봐.)

107023 @ 지금도 비싸.(지금도 비싸.)

107023 # 지금도 비싸. 우리 메누리 어멍이 해넌디 우리 집 올 때 이만썩 헌 거 열다섯 개, 열 개 헤영 ᄋᆞ져와.(지금도 비싸.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해넌데 우리 집

올 때 이만큼씩 한 거 열다섯 개, 열 개 해서 가져와.)

107023 @ 냉동헹? 생 걸로?(냉동해서? 생 걸로?)

107023 # 아니, 만딱 담앙인에 무슨, 무슨 상자에 담앙이, 그 풀어지지 안허게 담은.(아니, 모두 담아서 무슨, 무슨 상자에 담아서, 그 풀어지지 않게 담은.)

107023 @ 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

107023 # 응, 아이스박스에 담앙 오민이 아이덜토 갈라주고 나도 주고정헌 사름도 주고 그추룩 허는디. 막 고마와. 바당에 뎅기당이 큰 궤기 쏘아지민 뚤 불렁은에 ᄋᆞ정강 시아방 국 끌령은에 허렌 허여. 우리 바당궤기 국 끌릴 축 모르카부덴이 우선 강은에 저 바당고긴 오래 끓이당, 숢당, 궤기 맛이 나. 경 강은에 느 손으로 허영 드리렌 허곡.(응,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오면 아이들도 갈라주고 나도 주고 싶은 사람도 주고 그처럼 하는데. 아주 고마워. 바다에 다니다가 큰 고기 쏘아지면 딸 불러서 가져가서 시아버지 국 끓여서 하라고 해. 우린 바닷고기 국 끓일 줄 모를까봐 우선 가서 저 바닷고긴 오래 끓이다가, 삶다가, 고기 맛이 나. 그렇게 가서 네 손으로 해서 드리라고 하고.)

107023 @ 아.(아.)

107023 # 경 허당 아이고야 깜짝이 해녀질 허당 바당에서 죽언.(그러다가 아이고야 갑자기 해녀질 하다가 바다에서 죽었어.)

107023 @ 아이고. 보말도 국 헹 먹읍니까?(아이고. 고둥도 국 해서 먹습니까?)

107023 # 보말도 국.(고둥도 국.)

107023 @ 그건 어떵 헹 먹어?(그건 어떻게 해서 먹어?)

107023 # 보말 내엉은에 그 닥살이영 다 다듬앙은에 똥채 놩은에 메역 뿔아 놩 국 끌려.(고둥 내어서 그 소라딱지랑 다 다듬어서 똥째 넣어서 미역 빨아 넣어서 국 끓여.)

107023 @ 먼저 보말, 보말이엔 허여, 무신거옌 허여? 이딘. ᄀᆞ메기?(먼저 고둥, 고둥이라고 해, 무엇이라고 해? ‘ᄀᆞ메기’?)

107023 # 보말이엔 헤여. 보말 일름도 이 저 문다데기가 잇고 또시 코ᄐᆞ데기옌 헌 것이 잇고 헤여. 문다데기옌 헌 건 닥살이 이레 딱딱헌 거 이시메. 딱지 딱딱헌 거 허곡 코ᄐᆞ데기옌 헌 건 얄룬 거 영 부트민 내젱 허민 바농으로 그거 테어도 내기가 궂어. 문다드레긴 씨우릉헌 게 맛이 좋아. 코ᄐᆞ드데기렌 헌 건 그건 내기도 힘드는디 맛은 좋아, 쓴 맛도 없고이. 수두리보말이렌 헌 거 이만썩 헌 거 홁은 거 잡아당은에이.(‘보말’이라고 해. ‘보말’ 이름도 저 눈알고둥이 있고 또 남방울타리고둥이라고 한 것도 있고 해. 눈알고둥이라고 한 건 딱지 이리 딱딱한 거 있어. 딱지 딱딱한 거 하고 남방울타리고둥이라고 한 건 얇은 거 이렇게 붙으면 내려고 하면 바늘로 그거 떼어도 내기가 궂어. 눈알고둥은 씁쓸한 게 맛이 좋아. 남방울타리고둥이라고 한 건 그건 내기도 힘든데 맛은 좋아, 쓴 맛도 없고. 이 꽹이고둥이라고 한 거 이만큼씩 한 거 굵은 거 잡아다가.)

107023 @ 응.(응.)

107023 # 나 바당에 가민 바르도 하영 잡고 구제기도 하영 잡고 메역도 바당에 세계[128] 바당에 가민 덕수 살멍, 허리 딱 무껑 강은에 눈 썽 강은에. 몰로로 해녀덜 못 본 때 바당에 메역. 얕헌 디 들엉 숨 청은에 이젠 귀로 비어사 허리 차주. 귀로 비지 아니허민 밋밋밋 나오라. 귀로 그창 귀로 톡 허영 뒤터레 밀리곡 뒤터레 밀리곡 흔 허리 창인에 나왕이 숨비기왓에 왕인에, 이젠 숨비기왓이 없어.(나 바다에 가면 오분자기도 많이 잡고 소라도 많이 잡고 미역도 바다에 사계 바다에 가면 덕수 살면서, 허리 딱 묶어서 가서 물안경 써서 가서, 모르게 해녀들 못 본 때 바다에 미역. 얕은 데 들어서 숨 참아서 이젠 미역귀로 베어야 허리에 차지. 미역귀로 베지 않으면 '밋밋밋' 나와. 미역귀로 잘라서 미역귀로 톡해서 뒤로 밀고 뒤로 밀고 한 허리 차서 나와서 순비기나무 밭에 와서, 이젠 순비기나무 밭이 없어.)

107023 @ 숨비기왓이 뭐?('숨비기왓' 뭐?)

107023 # 바당ᄀᆞ듸 풀이 이만썩 헌 거 이서서. 낭 닮은 거.(바닷가에 풀이 이만큼씩 한 거 있었어. 나무 같은 거.)

107023 @ 아.(아.)

107023 # 경헌디 이서난디 그 숨비기가 그땐 우리 헐 때 시민 우리 씨누이, 막둥이 씨누이 오랑은에 ᄀᆞ디 시렌 헤영, 바구리영 ᄋᆞ정오랑 시렌 허영 흔숨 들엉은에 흔 바구리 헤지민 정인에 흔저 가렌 헤동 난 또시 물천[129] 잡아왕.(그런데 있었었는데 그 순비기나무가 그땐 우리 할 때 있으면 우리 시누이, 막둥이 시누이 와서 가에 있으라고 해서, 바구니랑 가져와서 있으라고 해서 한숨 들어서 한 바구니 하면 져서 어서 가라고 해두고 난 또 '물천' 잡아와서.)

107023 @ 물천 잡아왕?('물천' 잡아와서?)

107023 # 하이구, 물천이엔 헌 건 보말이고, 바르고, 물꾸럭이고 닥치는 냥 심엉인에 와.(아이구, '물천'이라고 한 건 고둥이고, 오분자기고, 문어고 닥치는 대로 잡아서 와.)

107023 @ 바르는 무신거ᄀᆞ라 바르렌?('바르'는 무엇보고 '바르'라고?)

107023 # 전복 새끼.(전복 새끼.)

107023 @ 아, 전복 새끼가 바르[130].(아, 전복 새끼가 '바르'.)

107023 # 젠젠헌 거 바르.(자잘한 거 '바르'.)

107023 @ 넙패로도 국 헙니까?(넓패로도 국 합니까?)

107023 # 넘패로 국 허여.(넓패로 국 해.)

107023 @ 그건 어떵 헹 먹어?(그건 어떻게 해서 먹어?)

107023 # 넘패이 이렇게 봄이 나주게. 돌에 나민이 넘패 뽑앙 넘패 그냥 국 끌리민 맛엇어. 그 바당에서 박박박허게시리 밀엉인에 바당물에서 시쳥 오랑 이젠 집이선 물 아이 놩은에 보까. 보깡인에 어느 정도 보까지는 거 닮으민 남자로 영영영 츰 부서지게 데경인에 넘패 그추룩 헤영. 또 메역새엔 헌 거 이서이.(넓패 이렇게

128) '세계'는 안덕면 사계리를 말하는 것이다.
129) '물천'은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말한다.
130) '바르'는 흔히 제주에서 오분자기를 이르는 말인데 제보자는 전복 새끼라고 설명하고 있다.

봄에 나지. 돌에 나면 넓패 뽑아서 넓패 그냥 국 끓이면 맛없어. 그 바다에서 박박 박하게끔 밀어서 바닷물에서 씻어 와서 이젠 집에선 물 안 넣어서 볶아. 볶아서 어느 정도 볶아지는 거 같으면 국자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참 부서지게 으깨서 넓패 그처럼 해서. 또 미역새라고 한 거 있어.)

107023 @ 응.(응.)

107023 # 그거 뽑앙인에, 넘패국이 등거왕 맛이 좋아.(그거 뽑아서, 넓패국이 '등거왕' 맛이 좋아.)

107023 @ 아.(아.)

107023 # 메역새엔 헌 건 초락져. 메역새엔 헌 거 메역 닮은 이파리 닮은 거 허민 그거 뽑앙인에 그거 이제 메역 사지 못허는 사름은 메역새 놩은에 그 제사 때 게영도 허주게.(미역새라고 한 건 떫어. 미역새라고 한 거 미역 같은 이파리 같은 거 하면 그거 뽑아서 그거 이제 미역 사지 못하는 사람은 미역새 넣어서 그 제사 때 국도 하지.)

107023 @ 그걸로?(그걸로?)

107023 # 응. 넘팬 막 맛 좋아. 넘패국은, 넘패국은 까릿까릿헌 따문에 허영 오랑 그 모살 부뜬 거 돌 부뜬 거 테어동인에 돌에서 박박 밀엉 싯엉 오주게, 바당에서.(응. 넓패는 아주 맛 좋아. 넓패국은, 넓패국은 까끌까끌하기 때문에 해서 와서 그 모래 붙은 거 돌 붙은 거 떼어두고 돌에서 박박 밀어서 씻어서 오지, 바다에서.)

107023 @ 예.(예.)

107023 # 싯엉 오랑 솟듸서 보까 물 아이 놩. 보깡은에 어느 정도 뒈민 남자로 그거 막 영영영 허영 장 놩 국 끌리민 첨 그거 장남덜 흔 사발썩 ○○이 시 사발 먹어라.(씻어서 와서 솥에서 볶아, 물 안 넣고. 볶아서 어느 정도 되면 국자로 그거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 넣어서 국 끓이면 참 그거 장정들 한 사발씩. ○○이 세 사발 먹더라.)

107023 @ 우미국?(우뭇국?)

107023 # 우미국은. 우미엔 헌 건 바당에 강은에 줏어당 이젠 벳듸 놩 막 바레여. 헤영케 바리민 그 모살 부뜬 거 잇주게, 그거 부떠난 자리에 이젠 물르민 마께로 독독독 두드령 털어지게 허영 이젠 그 우미 솖지게. 솖으민 삭 녹아불민 채로 걸렁은에 다라이에 영 놔두민 우미가 언디어.(우뭇국은. 우뭇가사리라고 한 건 바다에 가서 주워다가 이젠 볕에 놔서 막 바래. 하얗게 바래면 그 모래 붙은 거 있지, 그거 붙었던 자리에 이젠 마르면 방망이로 독독독 두드려서 떨어지게 해서 이젠 그 우미 삶지. 삶으면 삭 녹아버리면 채로 걸러서 대야에 이렇게 놔두면 우미가 엉겨.)

107023 @ 아.(아.)

107023 # 우미 언디민 우미 그자 칼로 솩솩솩 썰엉은에 시원헌 냉국허영 숭키도 아이 놩 그자 마농 썰어 놓고 꿰나 놓곡 허영 냉국허민이 어떤 어른들은 둬 사발썩 먹어. 그거 더우 탄 사름 우미국 먹엉은에 더우도 깬덴 허고.(우무 엉기면 우미 그저 칼로 싹싹싹 썰어서 시원한 냉국해서 푸성귀도 안 넣어서 그저 마늘 썰어 넣고

깨나 넣고 해서 냉국하면 어떤 어른들은 둬 사발씩 먹어. 그거 더위 탄 사람 우뭇국 먹어서 더위도 깬다고 하고.)

107023 @ 아.(아.)

107023 # 그냥 또시 썰엉인에 무청 반찬추룩 그냥 거렁 먹음도 허고.(그냥 또 썰어서 무쳐서 반찬처럼 그냥 떠서 먹기도 하고.)

107023 @ 예. 뭐 다른 거 안 놓고 그냥 우미만 놓는 거지예?(예. 뭐 다른 거 안 넣고 그냥 우무만 넣는 거지요?)

107023 # 우미.(우무.)

107023 @ 요즘엔 콩ᄀᆞ루 놓고 헨게마는.(요즘엔 콩가루 넣고 하던데마는.)

107023 # 콩ᄀᆞ루 놘 먹지 아니헌디, 께여 무스거이.(콩가루 넣어서 먹지 않는데, 깨며 무엇.)

107023 @ 양념예.(양념요.)

107023 # 양념허영 우미국에 마늘도 썰어 놓고 경헹 먹엇주. 콩ᄀᆞ루 요즘덜 놔실 거라, 콩ᄀᆞ룬 우린 안 서꺼봔. 콩ᄀᆞ루, 놀콩ᄀᆞ루 아니헹은에 보끈 콩ᄀᆞ루라사 혀.(양념해서 우뭇국에 마늘도 썰어 넣고 그렇게 해서 먹었지. 콩가루 요즘들 넣었을 거야, 콩가룬 우린 안 섞어봤어. 콩가루, 날콩가루 안 해서 볶은 콩가루라야 해.)

107023 @ 파래도 국 끌렁 먹어?(파래도 국 끓여서 먹어?)

107023 # 파래는 아니.(파래는 아니.)

107023 @ 파래는 안 먹어. 옛날에도 물훼 헹 먹어낫수과?(파래는 안 먹어. 옛날에도 물회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23 # 응, 자리물훼 헹 먹지게.(응, 자리돔물회 해서 먹지.)

107023 @ 그건 어떵 헹 먹어?(그건 어떻게 해서 먹어?)

107023 # 자리 강 사당, 비늘 베껑. 대가리도 쫄라두곡 가시도 다듬어 뒁 좀질이 썰엉, 늙은 어른신딘 더 좀질이 썰곡 늙은 어른들 엇이민 그자 자리 하나민 댓 개씩 썰엉은에 이젠 장에 양념허지 안혀게? 장 이제 뒌장에 고치장이여 고치ᄀᆞ루여 믄 서껑은에 께영 버무렁 그 자리훼 헌 것에 무청은에 물 놓으민[노민] 그렇게 자리훼.(자리돔 가서 사다가, 비늘 벗겨서. 대가리도 잘라두고 가시도 다듬어 두고 자잘하게 썰어서, 늙은 어른에겐 더 자잘하게 썰고 늙은 어른들 없으면 그저 자리돔 하나면 댓 개씩 썰어서 이젠 장에 양념하지 않아? 장 이제 된장에 고추장이며 고춧가루며 모두 섞어서 깨랑 버무려서 그 자리돔회 한 것에 무쳐서 물 넣으면 그렇게 자리돔회.)

107023 @ 뭐 특별허게 더 놓는 건 없고?(뭐 특별하게 더 넣는 건 없고?)

107023 # 특별허게 놓는 거 엇어.(특별하게 넣는 거 없어.)

107023 @ 뭐 조피?(뭐 초피.)

107023 # 조피도 이 웃드르엔 조피도 엇엉 안 놔. 해변 사럼덜은 그런, 그런 거미릇 헤당 조피 놔. 우린 저디 조피낭 싱경은에 우리 뚤네 훌터당은에 더러 자리훼에 먹젠 허민 우리 아덜이 자리훼 잘 먹어. 뒈야지 궤기 잘 안 먹엉이 네 발 탄 거.

이거 탕은에 자리훼 헴저, 오렌 허영 우리 뚤네 자리 허여 주켄 흔 사발썩 얻어 먹으레 뎅겨낫주.(초피도 이 '웃드르'에는 초피도 없어서 안 넣어. 해변 사람들은 그런, 그런 거 미리 해다가 초피 넣어. 우린 저기 초피나무 심어서 우리 딸네 홅어다가 더러 자리회에 먹으려고 하면 우리 아들이 자리회 잘 먹어. 돼지고기 잘 안 먹어서 네 발 달린 거. 이거 타서 자리회 한다, 오라고 해서 우리 딸네 자리돔 해서 주겠다고 한 사발씩 얻어 먹으러 다녔었지.)

107023 @ 경헐 때 조피 놔? 조피?(그렇게 할 때 초피 넣어? 초피?)

107023 # 뒌장에 조피를 우선 놔, 놩인에, 발이 죽주게. 경 허민 그 자리 줌질이 썰엉은에 그레 버무리민 조피 냄살 코시롱이 나곡이.(된장에 초피를 우선 놔, 놔서, 발이 죽지. 그러면 그 자리돔 자잘하게 썰어서 그리 버무리면 초피 냄새 고소하게 나고.)

죽류

107024 @ 무신 죽, 무신 죽 헹 먹어나수과? 옛날엔?(무슨 죽, 무슨 죽 해서 먹었었습니까? 옛날엔?)

107024 # 폿죽 헹 먹고 녹디죽도 헹 먹고 콩죽도 헹 먹고 그추룩 그냥 또시 심심허민 곤쏠 놩 흰죽으로 쒕은에. 흰죽으로 쒕은에 먹젠 허민 흰죽이 너미 심심허민 이 놀계란 흰죽더레 탁 하나 타 놓으민이 젓어근에 먹주. 난 이 장남 빌엉이 밧 갈젠 허민 이 밥 사발 흑쏠 밥 사발 흑끔 거령놩 그디 놀계란 탁 탕은에 우터레 밥 거려불민 몰라. 겡헹은에 밥상 들러가민 이 난 놉 빌엉은에 밧 갈젠 허민 시아방 밥ᄀᆞ치 출려.(팥죽 해서 먹고 녹두죽도 해서 먹고 콩죽도 해서 먹고 그처럼 그냥 또 심심하면 흰쌀 넣어서 흰쌀죽으로 쑤어서. 흰쌀죽으로 쑤어서 먹으려고 하면 흰쌀죽이 너무 심심하면 이 날계란 흰쌀죽에 탁 하나 타서 넣으면 저어서 먹지. 난 이 장정 빌려서 밭 갈려고 하면 이 밥사발 조금 밥사발 조금 떠놔서 거기 날계란 탁 타서 위에 밥 떠버리면 몰라. 그래서 밥상 들고 가면 난 놉 빌려서 밭 갈려고 하면 시아버지 밥같이 차려.)

107024 @ 응.(응.)

107024 # 시아방 상 경 허민 나 게민 니네 밧 갈암시냐게, 내불라, 내불라 헤도 시아방도 밥사발에 국에 밥 흑쏠 놓고 계란 하나 탕인에 우이 더끄민 우리 시아방 자꾸 허난 심상헹 먹는디. ○○이넨 경 안헹 먹어나시난 출령 가민 밥터레 놓민 아이구 이거 무신거, 이거 무신거 잘못 시아방 상 든 따문, 우리 메누리 특벨히 그거 아무나 헹 주는 거 아니여. 그거 박박 밥에 젓엉 먹으라, 기꽝 허멍 경헌디 우리 시아방 우선 밥 들어가민 그거 젓어. 젓엉 먹으난 아무나 경 계란 탄 밥, 장 놩 줘시냐? 그추룩 밧 빌엉 갈 땐 주고 잘 주당 보난 놈 헐 땐 둘앙 가도 아니 혀.(시아버지 상 그렇게 하면 나 그러면 너희 밭 갈고 있니, 내버려라, 내버려라 해도 시아버지도 밥사발에 국에 밥 조금 놓고 계란 하나 타서 위에 덮으면 우리 시아버지 자꾸 하니까 심상해서 먹는데. ○○이넨 그렇게 않고 먹었었으니까 차려서 가면 밥에 넣

으면 아이구 이거 무엇, 이거 무엇 잘못 시아버지 상 든 때문, 우리 며느리 특별히 그거 아무나 해서 주는 거 아니야. 그거 박박 밥에 저어서 먹어라,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 우선 밥 들어가면 그거 저어. 저어서 먹으니까 아무나 그렇게 계란 타서 밥, 장 넣어서 줬니? 그처럼 밭 빌려서 갈 땐 주고 잘 주다 보니까 남 할 땐 데리고 가지도 않아.)

107025 @ 곤죽은 어떵 헹 쑤는 거꽈?(흰쌀죽은 어떻게 해서 쑤는 겁니까?)

107025 # 곤죽이엔 헌 건 흰죽 기냥 곤쏠 놩 쒕은에 쏠 익으민 게 곤죽게.(흰쌀죽이라고 한 건 흰죽 그냥 흰쌀 넣어서 쑤어서 쌀 익으면 그게 흰쌀죽.)

107025 @ 그건 어떵헐 때 먹는 거라?(그건 어떻게 할 때 먹는 거야?)

107025 # 심심허민 흰죽이나 쒕 먹으카 허영, 아픈 사름도 흰죽 쒕 주고.(심심하면 흰쌀죽이나 쑤어서 먹을까 해서, 아픈 사람도 흰쌀죽 쑤어서 주고.)

107025 @ 아, 아픈 사람도 먹고.(아, 아픈 사람도 먹고.)

107025 # 게난 흰죽은 심심허영 맛엇어. 흰죽 쑬 때 이 모멀쏠 사당 줌진 모멀쏠 사당 곤쏠 놩은에 문 익은 것 닮으민 그 믁물쏠 줌지롱헌 거 위에 더껑 두어 번 젓으민 흰죽이 그렇게 기똥차게 맛 좋아.(그러니까 흰쌀죽은 심심해서 맛없어. 흰쌀죽 쑬 때 이 메밀쌀 사다가 잔 메밀쌀 사다가 흰쌀 놔서 모두 익은 것 같으면 그 메밀쌀 자잘한 거 위에 덮어서 두어 번 저으면 흰죽이 그렇게 기똥차게 맛 좋아.)

107025 @ 모멀쏠 ᄒᆞ끔 놓으민[노민]?(메밀쌀 조금 넣으면?)

107025 # ᄒᆞ쏠 놓으민[노민] 경 허난 그거 아무 집이나 허카부덴? 쳇, 우리 시아방도 체암 먹은덴 헤라. 우리 친정에서 아부지가 술 잡수민 술 하영 먹은 따문 우리 어머니 흰죽 쑤당 모멀쏠 놩은에 젓엉 한 사발 ᄋᆞ져당, 보민 그것엔 흰죽 더운 죽 먹당은에 뭰술 ᄋᆞ져오렌 헹 뭰술 서껑 먹고 경 허는 거 봐난, 나가 저 흰죽에.(조금 넣으면 그러니까 그거 아무 집이나 할까 봐? 첫, 우리 시아버지도 처음 먹는다고 하더라. 우리 친정에서 아버지가 술 잡수면 술 많이 먹은 때문 우리 어머니 흰쌀죽 쑤다가 메밀쌀 놔서 저어서 한 사발 가져다가, 보면 그것에 흰쌀죽 더운 죽 먹다가 '뭰술' 가져오라고 해서 '뭰술' 섞어서 먹고 그러는 거 봤었어, 내가 저 흰쌀죽에.)

107025 @ 뭰술은 뭐?('뭰술'은 뭐?)

107025 # 뭰술은 이 좁쏠에 술 허여.('뭰술'은 이 좁쌀에 술 해.)

107025 @ 술 멘든 거?(술 만든 거?)

107025 # 응, 좁쏠에 술 헹은에 그 물은 청주옝 헤영은에 멩질에 지숙에 쓰곡 그 건진 또시 딱딱딱 때령 놧당은에 그 흰죽 쑬 때 거려 놩 흰죽에 탕 먹어.(응, 좁쌀에 술 해서 그 물은 청주라고 해서 명절에 제주로 쓰고 그 건진 또 딱딱딱 때려서 놨다가 그 흰쌀죽 쑬 때 떠 놔서 흰죽에 타서 먹어.)

107025 @ 그게 뭰술.(그게 '뭰술'.)

107025 # 술 잡수는 분덜 그거 보기 허는 거.(술 잡수는 분들 그거 보신하는 거.)

107025 @ 보기허는 거?(보신하는 거?)

107025 # 우리 아부지 산 때 경헹 보기헤난.(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그렇게 해서 보신했었어.)

107026 @ 조축은 좁쏠로도 죽 헙니까?(조죽은 좁쌀로도 죽 합니까?)

107026 # 게. 그것이 조축이 좁쏠 죽이지게. 흐린좁쏠은 죽 안 뒈어.(그렇지. 그것이 조죽이 좁쌀 죽이지. 차좁쌀은 죽 안 돼.)

107026 @ 어떵 헹 헤여?(어떻게 해서 해?)

107026 # 모인좁쏠로 헤사, 끌려사 죽 쒀가민 풀풀허지. 흐린좁쏠은 죽 쒀가민 지르륵허영 물 ᄐᆞ로 건지 ᄐᆞ로 다 죽이 뒈도 맛이 없어. 모인좁쏠이라사 죽이 맛좋아. 엿날 엇은 사름은 콩ᄀᆞ루에 모인좁쏠 서껑인에 콩죽 쒕덜 ᄉᆞᆼ키 하영 놩 먹으민 뿔루앙 살아시네.(메조로 해야, 끓여야 죽 쑤어가면 풀풀하지. 차좁쌀은 죽 쑤어가면 '지르륵허영' 물 따로 건지 따로 다 죽이 돼도 맛이 없어. 메좁쌀이라야 죽이 맛 좋아. 옛날 없는 사람은 콩가루에 메좁쌀 섞어서 콩죽 쑤어서들 푸성귀 많이 넣어서 먹으면 불려서 살았어.)

107028 @ 아, 콩죽.(아, 콩죽.)

107028 # 콩죽은 부제칩인 곤쏠 놩은에 쒕은에.(콩죽은 부잣집은 흰쌀 넣어서 쑤어서.)

107028 @ 아, 좁쏠 대신에 곤쏠 놔?(아, 좁쌀 대신에 흰쌀 넣어?)

107028 #응, 곤쏠 놩 쑤당은에 곤쏠 익은 거 닮으민 ᄂᆞ물 썰어 놓곡 헤영은에 콩죽이렌 헤, 콩죽엔 ᄉᆞᆼ키 놔.(응, 흰쌀 넣어서 쑤다가 흰쌀 익은 거 같으면 나물 썰어 넣고 해서 콩죽이라고 해, 콩죽엔 푸성귀 넣어.)

107027 @ 그러면 풋죽은?(그러면 팥죽은?)

107027 # 풋죽은 풋 솖앙게 풋 솖앙은에 엿날에 풋 솖앙 데경은에 몬작몬작 폭 솖아지민 데경은에 쏠 놩 쑤민 풋죽이엔.(팥죽은 팥 삶아서 팥 삶아서 옛날에 팥 삶아 으깨서 '몬작몬작' 푹 삶아지면 으깨서 쌀 넣어서 쑤면 팥죽이라고.)

107027 @ 어떵헌 때 먹는 거꽈, 풋죽은?(어떤 때 먹는 겁니까, 팥죽은?)

107027 # 풋죽은 동지 때에 동짓날 뒈민 풋죽 쒀. 경 허곡 사둔칩이 갈 때 풋죽 쒕 가는 거 아니가?(팥죽은 동지 때에 동짓날 되면 팥죽 쑤어. 그리고 사돈집에 갈 때 팥죽 쑤어서 가는 거 아니냐?)

107027 @ 응, 상낫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응, 초상났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107027 # 응, 사둔네 죽엇젠 허민 풋죽 서너 허벅 쒕은에 ᄋᆞ져가주게.(응, 사돈 죽었다고 하면 팥죽 서너 허벅 쑤어서 가져가지.)

107029 @ 모멀죽.(메밀죽.)

107029 # 모멀쏠은 또시게 물 팔팔 끌여가민 모멀쏠 들이쳥 젓어가민 모멀죽이 뒈는 거 흰죽으로 그냥 먹는 거. 곤쏠 흰죽으로게 더 맛 좋아. 하여튼 흰죽 쒕 먹젠 허민 곤쏠 ᄒᆞ끔 넝 솖당 이 모멀쏠 ᄒᆞ쏠 놓민 죽이 드러, 그렇게 코싱허게 모멀 내

음살 낭 맛 좋아. 환자덜 모멀죽 쒕 먹네.(메밀쌀은 또 물 팔팔 끓여가면 메밀쌀 들이뜨려서 저어가면 메밀죽이 되는 거 흰죽으로 그냥 먹는 거. 흰쌀 흰죽으로 더 맛 좋아. 하여튼 흰쌀죽 쑤어서 먹으려고 하면 흰쌀 조금 넣어서 삶았다가 이 메밀쌀 조금 넣으면 죽이 들이, 그렇게 고소하게 메밀 냄새 나서 맛 좋아. 환자들 메밀죽 쑤어서 먹어.)

107031 @ 듹죽.(닭죽.)

107031 # 듹죽. 듹은 솖앙은에 듹은 건져불고 듹 솖아난 물에 쏠 놩은에 쑤는 거지게. 또 어떤 집은 우린 이 듹 잡으민 듹 알러레 쏠을 담앙은에 듹 다 솖아지고 쏠도 솖아지민 듹은 털엉 내치곡 그 쏠로 죽은 쑤는디 나 영 뎅겨보난이 듹 솖아난 물에 곤쏠 놩 죽 쑤더라.(닭죽. 닭은 삶아서 닭은 건져버리고 닭 삶았던 물에 쌀 넣어서 쑤는 거지. 또 어떤 집은 우린 이 닭 잡으면 닭 아래에 쌀을 담아서 닭 다 삶고 쌀도 삶으면 닭은 떨어서 내치고 그 쌀로 죽을 쑤는데 나 이렇게 다녀보니까 닭 삶았던 물에 흰쌀 놔서 죽 쑤더라.)

107031 @ 듹죽은 언제 헹 먹어?(닭죽은 언제 해서 먹어?)

107031 # 듹죽은 아무 때라도 듹 많이 질루믄게. 하이튼 촌에서 듹은 정월 비에기 내리주게. 정월 비에기 내리민 유월 스무날 듹 잡앙 먹는 날이라. 그날은 듹 하이튼 집이 식솔 하민 서너 ᄆᆞ리 잡아.(닭죽은 아무 때라도 닭 많이 기르면. 하여튼 촌에서 닭은 정월 병아리 내리지. 정월 병아리 내리면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이야. 그날은 닭 하여튼 집에 식솔 많으면 서너 마리 잡아.)

107031 @ 응.(응.)

107031 # 서너 ᄆᆞ리 잡앙은에 ᄏᆞᆯ이 그거 솖아난 물에 곤쏠 놩인에 죽 쑤고 또 식솔 엇인 딘 이 듹 안터레 쏠 담앙 쏠도 익곡 궤기도 익으민 궤긴 털곡 그 쏠로 그디서 죽 쒕은에 소금 놩 양념헹 맞춰 먹지.(서너 마리 잡아서 깨끗이 그거 삶았던 물에 흰쌀 넣어서 죽 쑤고 또 식솔 없는 덴 이 닭 안으로 쌀 담아서 쌀도 익고 고기도 익으면 고긴 떨고 그 쌀로 거기서 죽 쒀서 소금 넣어서 양념해서 맞춰서 먹지.)

107032 @ 갱죽도 이서마씨? 갱죽?(갱죽도 있어요? 갱죽?)

107032 # 갱죽은 없엇어.(갱죽은 없었어.)

107032 @ 채소 놓는 죽.(채소 넣은 죽.)

107032 # 채소 논 건 저 국죽[131], 국죽.(채소 넣은 건 저 '국죽', '국죽'.)

107032 @ 국죽. 그건 어떵헙니까?('국죽'. 그건 어떻게 합니까?)

107032 # 국죽이엔 헌 건 이 밥 먹당 식으민 밥도 많이 잇곡이 그냥 밥 먹고프지 아니허민 그 밥을 놩은에 쑤당 숭키 놓민 국죽.('국죽'이라고 한 건 이 밥 먹다가 식으면 밥도 많이 있고 그냥 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 밥을 넣어서 쑤다가 푸성귀 넣으면 '국죽'.)

107032 @ 밥을 놩 끌리당 숭키 놩?(밥을 넣어서 끓이다가 푸성귀 넣어서?)

131) '국죽'은 시래기 따위의 채소류를 넣고 멀겋게 끓인 죽인 '갱죽'을 말하는 것 같다.

107032 # 숭키 놩은에 게민 그건 국죽. 콩죽이엔 헌 건이 물 팔팔 끌려가민 콩ᄀᆞ루에 쏠에 서껑 좁쏠이나 곤쏠이나 서껑 이젠 부끄지 아니허게 잘 젓엉 어느 정도 이넉 짐작으로 뭰 것 닮으민 무수 썰어 놓나 ᄂᆞ물 썰어 놓나 헹은에 콩죽.(푸성귀 넣어서 그러면 그건 갱죽. 콩죽이라고 한 건 물 팔팔 끓어 가면 콩가루에 쌀에 섞어서 좁쌀이나 흰쌀이나 섞어서 이젠 끓어 넘치지 않게 잘 저어서 어느 정도 자기 짐작으로 된 것 같으면 무 썰어 넣거나 나물 썰어 넣거나 해서 콩죽.)

107032 @ 건 콩죽이고, 응.(그건 콩죽이고, 응.)

107032 # 국죽이엔 헌 건 이 식은밥 시민, 식은밥 시민 그자 솟듸 들이쳥 숢당 숭키 놩은에 숢당 국죽으로.(갱죽이라고 한 건 이 찬밥 있으면, 찬밥 있으면 그저 솥에 들이뜨려서 삶다가 푸성귀 놔서 삶다가 갱죽으로.)

107032 @ 건 뭘로 간허는 거꽈?(그건 뭘로 간하는 겁니까?)

107032 # 그건 ᄂᆞ물을 썰어 놓거나게 ᄂᆞ물 썰어놩.(그건 나물 썰어 넣거나 나물 썰어넣어서.)

107032 @ 장물로 간허여?(간장으로 간해?)

107032 # 장물이나 소금이나 간허여. 경 허난 이 없는 집이가 국죽허지, 이슨 집인 국죽 안 쑨다게. 밥 먹당은에 하영 남으민 그게 불룹젠 국죽이엔 허주.(간장이나 소금이나 간해. 그러니까 이 없는 집이 갱죽하지, 있는 집은 갱죽 안 쑨다. 밥 먹다가 많이 남으면 그게 불리려고 갱죽이라고 하지.)

107033 @ 거 말고도 다른 죽도 이수꽈? 이제까지 말한 죽 말고 다른 죽?(그거 말고도 다른 죽도 있습니까? 이제까지 말한 죽 말고 다른 죽?)

107033 # 다른 죽은 엇어.(다른 죽은 없어.)

107033 @ 꿩죽?(꿩죽?)

107033 # 꿩 거 아무나 헹 죽 쒕 먹느냐? 이 근간은 그런 것도 엇어. 엿날에이 젊은 아이덜 저 꿩 잡젠 허민 드르팟듸 강은에 섬비 비영은에 영 헤영은에 들어가 게꾸리 그레 콩 줄레나 ᄋᆞ져당 삐엉 내불민 이 강 보민 꿩들이 그거 줏어 먹엄시민 무시거엔 ᄀᆞᆯ아가민 그 자왈러레 들어가노렌 밧 가운디 낭 비어당은에 이렌 족게허곡 저디 들어오는디 너르게 허민 그 꿩 공젱이레 들어강 막은 창에 강 심어당은에, 잡아당 먹곡 헷주게.(꿩 그거 아무나 해서 죽 쑤어서 먹니? 이 근간은 그런 것도 없어. 옛날에 젊은 아이들 저 꿩 잡으려고 하면 들판에 가서 쥐똥나무 베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끔 그리 콩 쭉정이나 가져다가 뿌려서 내버리면 이 가서 보면 꿩들이 그거 주워 먹고 있으면 무엇이라고 말해가면 그 덤불에 들어간다고 밭 가운데 나무 베어다가 이런 작게 하고 저기 들어오는데 넓게 하면 그 꿩 올가미에 들어가서 막은 창에 가서 잡아다가, 잡아다가 먹고 했지.)

범벅

107034 @ 범벅은?(범벅은?)

107034 # 범벅은?(범벅은?)

107034 @ 무신 범벅, 무신 범벅 헹 먹어낫수과?(무슨 범벅, 무슨 범벅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4 # ᄂᆞ물 범벅도 허고.(나물 범벅도 하고.)

107034 @ 또?(또?)

107034 # 조펌벅도 허고.(조범벅도 하고.)

107034 @ 또?(또?)

107034 # 그거뿐이주.(그거뿐이지.)

107034 @ 모멀허고 조, 두 개?(메밀하고 조, 두 개?)

107034 # 응, 또시 엿날에.(응, 또 옛날에.)

107034 @ 는젱이, 느젱이?(나깨, 나깨?)

107034 # 는젱이도 범벅허여. 모멀는젱이도 범벅 허여.(나깨도 범벅해. 메밀나깨도 범벅 해.)

107034 @ 감저?(고구마?)

107034 # 감저 솖으당은에 감저 익어가민 는젱이 ᄀᆞ루 허껑은에 소금 놩은에 버무령 는젱이범벅.(고구마 삶다가 고구마 익어가면 나깨 가루 섞어서 소금 넣어서 버무려서 나깨범벅.)

107034 @ 보통 무신 범벅 하영 헹 먹어낫수과?(보통 무슨 범벅 많이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4 # 우린 경 범벅 하영 헨 먹어보지 안헷저. 하르방 시어멍이 그디 보라, 식은밥 시냐? 식은밥 싯건 식은밥 솖당은에 그디 는젱이 ᄀᆞ루 버무리라. 경 허영 그추룩 헹 먹엇주이.(우린 그렇게 범벅 많이 해서 먹어보지 않았어. 할아버지 시어머니가 거기 봐라, 찬밥 있니? 찬밥 있거든 찬밥 삶아다가 거기 나깨 가루 버무려라. 그렇게 해서 그처럼 해서 먹었지.)

107034 @ 식은밥에?(찬밥에?)

107034 # 응, 식은밥 솖당 솖당은에 모멀ᄀᆞ루 그레 버무령 젓으민, 이 식은밥.(응, 찬밥 삶다가, 삶다가 메밀가루 그리 버무려서 저으면, 이 찬밥.)

107034 @ 그건 범벅이라, 죽이라?(그건 범벅이야, 죽이야?)

107034 # 범벅 뒈어불주게. ᄀᆞ루 놩 버무리민 범벅 뒈불어.(범벅 되어버리지, 가루 넣어서 버무리면 범벅 돼버려.)

107034 @ 모멀 범벅은 어떵 헹 멘들어마씨?(메밀 범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107034 # 모멀ᄀᆞ루 물 팔팔 끼려가민 이 모멀ᄀᆞ루 놓지. 모멀ᄀᆞ루 놓고 소금도 이녁이 간 맞게시리 똑 놓주게. 경 허민 ᄀᆞ루 놩인에 바글바글 귀여가. 귀여가민 골로로 ᄀᆞ루 젓엉 겡 모멀펌벅. 모멀은 범벅헤영 먹지 안허메, 아까왕.(메밀가루 물 팔팔 끓여 가면 이 메밀가루 넣지. 메밀가루 넣고 소금도 자기 간 맞게끔 똑 넣지. 그러면 가루 넣어서 바글바글 끓어가. 끓어가면 골고루 가루 저어서 그래서 메밀범벅. 메밀은 범벅 해서 먹지 않아, 아까워서.)

107034 @ 아.(아.)

107034 # 모멀로 묵허곡 모멀쏠 허주. 경헌디 모멀 ᄀᆞᆯ아나민 는젱이엔 헌 거 잇서.(메밀로 묵하고 메밀죽 하지. 그런데 메밀 갈고 나면 나깨라고 한 거 있어.)

107034 @ 그걸로 범벅 헹 먹는 거.(그걸로 범벅 해서 먹는 거.)

107034 # 게, 그걸로 범벅 헹 먹음 또시 국 끌리는 데 그 ᄀᆞ루 쪙은에 는젱이 ᄌᆞ베기 톡톡 들이쳥 ᄂᆞ물국터레 들이쳥 경도 헹 먹고.(그렇지, 그걸로 범벅 해서 먹기 또 국 끓이는 데 그 가루 찧어서 나깨 수제비 톡톡 들이뜨려 나물국에 들이뜨려서 그렇게도 해서 먹고.)

107034 @ 아, 아까 범벅은?(아, 아까 범벅은?)

107034 # 범벅은 물 팔팔 끌려가민 ᄀᆞ루 놓곡 소금 놩인에 어거레 놩 아니혀. 저 물 팔팔 끌려가민 ᄀᆞ루 놩 ᄒᆞ끔 솖아가멍 이제 소금 우터레 놓지게. 이녁 간 맞게 놓앙은에 ᄒᆞ쏠 영 솖아져가민 불 솜으멍 막 젓어. 놀ᄀᆞ루 엇이 막 젓으민 범벅이 뒈는 거.(범벅은 물 팔팔 끓어가면 가루 넣고 소금 넣어서 곧 넣어서 안 해. 저 물 팔팔 끌어가면 가루 넣어서 조금 삶아가면서 이제 소금 위에 넣지. 자기 간 맞게 넣어서 조금 이렇게 삶아져가면 물 때면서 막 저어. 날가루 없이 막 저으면 범벅이 되는 거.)

107034 @ 는젱이 범벅 말고는 무신 범벅 이수과?(나깨 범벅 말고는 무슨 범벅 있습니까?)

107034 @ 는젱이 범벅 말고도 엿날에 옥수수 아니 저 무시거 옥수수가 아니고 무신 대죽 이섯어. 쏠대죽 이젠 그거 엇어. 그거 막 나 육지라도 뎅기는 사름ᄀᆞ라 허여다 도렌 헤도 그것이 그렇게 맛 좋아.(나깨 범벅 말고도 옛날에 옥수수 아니 저 무엇 옥수수가 아니고 무슨 수수 있었어. 쌀수수 이젠 그거 없어. 그거 막 나 육지라도 다니는 사람에게 해다 달라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맛 좋아.)

107034 @ 그건 어떵 헹 허는 거?(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거?)

107034 # 그거이 고고리가 뽕글뽕글 옴아. 쏠대죽 육지 텔레비에 나와라마는. 그런 거 엿날엔 이디 갈앙은에 이추룩 몽클락 몽클락 헤여. 쏠대죽. 콩밧듸 담 에염엘 허나 ᄒᆞ나썩 서끄민 그거 헤여당 장만허민이 여물이 픽픽 옴아. 읏물민 이 ᄀᆞ레서 ᄒᆞᆫ 번 가르륵허게 ᄀᆞᆯ민 여물만 털어졍 껍데기 홀딱허민이 그 대죽 ᄀᆞ루 ᄀᆞᆯ앙, ᄀᆞᆯ앙인에 범벅허민 기가 막히게 맛 좋아라.(그거 이삭이 '뽕글뽕글' 여물어. 쌀수수 육지 텔레비전에 나오더라마는. 그런 거 옛날에 여기 갈아서 이처럼 '몽클락 몽클락' 해. 쌀수수. 콩밭에 담 옆에를 하나 하나씩 섞으면 그거 해다가 장만하면 알맹이가 '픽픽' 여물어. 여물면 이 맷돌에서 한 번 '가르륵허게' 갈면 알맹이만 떨어져서 껍데기 '홀딱'하면 그 수수 가루 갈아서, 갈아서 범벅하면 기가 막히게 맛 좋더라.)

107034 @ 아.(아.)

107034 # 그 ᄀᆞ루 ᄀᆞᆯ앙 또시 대죽떡 헤여도 맛 좋고. 이젠 이 그 씨 엇어. 육지에 뎅기는 사름ᄀᆞ라 그 씨 봐지건 헤여오렌 헤도 테레비에 보면 그 씨 서. 이추룩 허는 대죽 이서.(그 가루 갈아서 또 수수떡 해도 맛 좋고. 이젠 이 그 씨 없어. 육

지에 다니는 사람보고 그 씨 보이면 해오라고 해도 텔레비에 보면 그 씨 잇어. 이처럼 하는 수수 있어.)

107034 @ 근디 제주도엔 그런 거 잘 안 보여?(근데 제주도엔 그런 거 잘 안 보여?)

107034 # 엇어, 제주도엔 엇어.(없어, 제주도엔 없어.)

107034 @ 옛날엔 헹 먹어나신디?(옛날엔 해서 먹었었는데?)

107034 # 엿날엔 콩밧 고랑에영 어염에 놓으민[노민] 그거 허영 멧 말썩 허영 대죽 범벅도 헹 먹고 대죽 ᄌᆞ베기도 허곡 막 맛 좋아.(옛날엔 콩밭 고랑에랑 옆에 놓으면 그거 해서 몇 말씩 해서 수수 범벅도 해서 먹고 수수 수제비도 하고 막 맛 좋아.)

수제비

107035 @ ᄌᆞ베긴?(수제빈?)

107035 # 대죽떡도 헹 먹고.(수수떡도 해서 먹고.)

107035 @ 대죽떡도 헹 먹고.(수수떡도 해서 먹고.)

107035 # ᄌᆞ베긴게 그 ᄀᆞ루 쪙은에 톡톡허게 톹아놩은에.(수제빈 그 가루 찧어서 톡톡하게 뜯어 넣어서.)

107035 @ ᄌᆞ베긴 무신 ᄌᆞ베기 무신 ᄌᆞ베기 이서낫수과?(수제비는 무슨 수제비 무슨 수제비 있었습니까?)

107035 # 모멀 ᄎᆞ베기도 헹 먹고 대죽 ᄌᆞ베기도 헹 먹고 보리 ᄌᆞ베기도 헹 먹어낫어.(메밀 수제비도 해서 먹고 수수 수제비도 해서 먹고 보리 수제비도 해서 먹었었어.)

107035 @ 보리 ᄌᆞ베기도 허여?(보리 수제비도 해?)

107035 # 게. 보리게. 없는 사름덜은 뿔룹젠게.(그렇지. 보리. 없는 사람들은 불리려고.)

107035 @ ᄌᆞ베기는 어떵 헹 허는 거꽈?(수제비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35 # ᄌᆞ베기는게 ᄀᆞ루에 물에 쪙인에 영영 쪙 이제 그거 물 뀌어가민 톡톡 영영 헤영도 놓고 그냥 톹앙도 놓고 모멀ᄏᆞ룬이 그자 이젠 반죽허지. 물 데왕 반죽허민 물 팔팔 끌려가민 이제 돔베에서 납작납작허게 헤영인에 싹싹 썰엉인에 그냥 들이쳥은에.(수제비는 가루에 물에 반죽해서 이렇게 이렇게 반죽해서 이제 그거 물 끓어 가면 톡톡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넣고 그냥 뜯어도 넣고 메밀가룬 그저 이젠 반죽하지. 물 덥혀서 반죽하면 물 팔팔 끓어가면 이제 도마에서 납작납작하게 해서 싹싹 썰어서 그냥 들이뜨려서.)

107035 @ 칼국수 아니?(칼국수 아니?)

107035 # 응, 칼국수추룩 칼국순 ᄌᆞᆷ질게 헤도 ᄌᆞᆷ질게 아니 홁게 톡톡 썰엉 놓으민[노민] 맛 좋아. 모멀ᄏᆞ루로 무신 음식이라도 허기도 좋고 맛도 좋아.(응, 칼국수처럼 칼국순 자잘하게 해도 자잘하게 아니 굵게 톡톡 썰어 넣으면 맛 좋아. 메밀가

루도 무슨 음식이라도 하기도 좋고 맛도 좋아.)

107036 @ 칼국순 모멀만 헹 먹읍니까? 다른 칼국수는 안 헹 먹어?(칼국순 메밀만 해서 먹습니까? 다른 칼국수는 안 해서 먹어?)

107036 # 모멀이 주장하더라게. 모멀 칼국수 허영은에 하르방덜 지름 놓곡 헹은에 드리민 맛도 좋고. 모멀 칼국수에 메역도 뿔앙 놓곡 허민 막 맛 좋아. 우리 친정 아방이 나가 시아방 들앙 살젠 허난 매날 밥만 먹지 아니헌다, 노영.(메밀이 '주장' 하더라. 메밀 칼국수 해서 할아버지들 기름 넣고 해서 드리면 맛도 좋고. 메밀 칼국수에 미역도 빨아서 넣고 하면 아주 맛 좋아.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내가 시아버지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매일 밥만 먹지 않는다, 물려서.)

107036 @ 맞아.(맞아.)

107036 # 밥만 먹지 아니허난에 좁쏠에 보리쏠에 서껑 기계 강 골아당 가만이 무신거 흔 사발 쪙 칼국수추룩 썰엉, 썰엉은에 장국 헤영은에 근헤곡 허렌 허난이. 게난 우리 첨 ○○이 하르방이 나 손에 별 거 다 먹어봠저, 경 골아라. 아니 먹어난 음식 나 손에 먹노렌.(밥만 먹지 않으니까 좁쌀에 보리쌀에 섞어서 기계 가서 갈아다가 가만히 무엇 한 사발 반죽해서 칼국수처럼 썰어서, 썰어서 장국 해서 간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참 ○○이 할아버지가 나 손에 별 거 다 먹어본다, 그렇게 말하더라. 안 먹었던 음식 내 손에 먹는다고.)

107036@ 아.(아.)

107036 # 큰메누리, 족은메누리 뚤덜 헤도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엇덴. 지름 놓고 헤영은에 허여, 막 맛 좋아. 그 좁쏠에 보리쏠에 서껑인에 쪙인에 막 달룹게[132] 찌주게. 쪙인에 이젠 손으로 껑껑 누르떠근에 썰엉인에 장국 깨우는 디 들이청 지름도 놓고 허영은에 흔 사발 권허민, 사발에 두 개 권허민이 하나만 먹카부덴? 두 사발 다 먹어. 놈이 일 허레 뎅기는 할망이영, 하르방이영.(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딸들 해도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다고. 기름 넣고 해서 해, 아주 맛 좋아. 그 좁쌀에 보리쌀에 섞어서 반죽해서 막 '달룹게' 반죽하지. 반죽해서 이젠 손으로 '껑껑' 눌러서 썰어서 장국 끓이는 데 들이뜨려서 기름도 넣고 해서 한 사발 권하면, 사발에 두 개 권하면 하나만 먹을까 봐? 두 사발 다 먹어. 남의 일 하러 다니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107036 @ 건 무신거엔 골아?(그건 뭐라고 말해?)

107036 # 칼국수.(칼국수.)

107036 @ 그냥 칼국수? 뭐 숭킨 안 놔?(그냥 칼국수? 뭐 푸성귀는 안 넣어?)

107036 # 숭키 놈도 허지게. 숭키도 놓고 마농도 놓고. 난이 아인 때부터 마농 종류엔 헌 건 못 먹어. 뒈야지궤기도 니 발 탄 것도 못 먹어난. 이제 니 발 탄 거 할 수 엇엉 먹어져도 마농 종류 대산이나 무시거나 먹지 못허여. 엿날에 마농 대산이 싱그민 데왕인에 지름장 무치민 먹는 사름덜은이 겁나게 먹어. 겁나게 먹어.(푸성귀 넣기도 하지. 푸성귀 넣고 마늘도 넣고. 난 아이 때부터 마늘 종류라고 한 건

132) '달룹게'는 '달룹다'에서 온 말로 '반죽 등이 아주 잘 주물러져서 부드럽게'라는 뜻이다.

못 먹어. 돼지고기도 네 발 달린 것도 못 먹었었어. 이제 네 발 달린 거 할 수 없어서 먹어도 마늘 종류 '대산'이나 무엇이나 먹지 못해. 옛날에 마늘 '대산이' 심으면 데쳐서 기름장 무치면 먹는 사람들은 겁나게 먹어. 겁나게 먹어.)

107036 @ 건디 그런 것도 못 먹어?(그런데 그런 것도 못 먹어?)

107036 # 난 마농 종류 새우리나 마농이나 그런 종륜 못 먹어. 미나리 못 먹고.(난 마늘 종류 부추나 마늘이나 그런 종륜 못 먹어. 미나리 못 먹고.)

107036 @ 먹으민 어디 아파?(먹으면 어디 아파?)

107036 # 아니 어떵은 아이 헌디 비위에 안 맞앙 안 먹어. 양에, 양에 알아? 양에도 난 못 먹어.(아니 어떻게는 안 하는데 비위에 안 맞아서 안 먹어. 양하, 양하 알아? 양하도 난 못 먹어.)

107036 @ 게믄 뭐 먹엉 삽니까?(그러면 뭐 먹어서 삽니까?)

107036 # 게메 경헤도 살아시네게.(글쎄 그래도 살았잖아.)

107036 @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첨.(건강하게 잘 사는 거 참.)

107036 # 우리 이젠 미깡밧듸 알로 좍 양에 싱그민 양엣근 흔 마다리썩 헌다게. 경 허민 씻엉은에 똘네 양펜이 다 가졍가렌이, 다 가져가고. 흔 열흘 전이 막 비 올 때 간 거난이 양엣근 나젠 막 헴서라.(우리 이젠 귤밭의 아래로 쫙 양하 심으면 양하 꽃이삭 한 마대씩 한다. 그러면 씻어서 딸 양편에 다 가져서 가라고이, 다 가져가고. 한 열흘 전에 막 비 올 때 간 거니까 양하 꽃이삭 나려고 막 하고 있더라.)

107036 @ 응. 이제?(응. 이제?)

107036 # 이제 양엣근 잇주게. 경 허난 똘덜ᄒᆞ라 이녁냥으로 헤당 먹으라. 난 이젠 못 헤다 주켜. 허영 ᄒᆞ쿨이 씻엉은에 서너 집이 갈라줘. 우리 메누린 이 양엣근 그냥 장 좁으멍 보삭보삭 잘 먹어. 마농도 깡인에이 장 좁앙은에 마농 깡인에 우리 메누리 시집오란 이거 멧 년 뭰디 흔 삼십 년이 넘게 산디 이녁냥으로 마농까 본 적 엇다. 나가 곧장 대승[133] 흔 뒈, 두 뒈 깡은에 아덜 오민 가져가렌, 우리 아덜은 마농 내 난덴 차에 시끄도 못허게 헤여.(이제 양하 꽃이삭 있지. 그러니까 딸들보고 자기대로 해다가 먹어라. 난 이젠 못 해다 주겠다. 해서 깨끗이 씻어서 서너 집에 갈라줘. 우리 며느린 이 양하 꽃이삭 그냥 장 찍으면서 '보삭보삭' 잘 먹어. 마늘도 까서 장 집어서 마늘 까서 우리 며느리 시집와서 이거 몇 년 됐는데 한 삼십 년이 넘게 살았는데 자기대로 마늘 까본 적이 없다. 내가 곧장 '대승' 한 되, 두 되 까서 아들 오면 가져가라고, 우리 아들은 마늘 냄새 난다고 차에 싣지도 못하게 해.)

107036 @ 냄새 오래 가.(냄새 오래 가.)

107036 # 경헤도 쌍 가렌 헹 쌍 강은에 헌디, 올리도 마농, 아파도 서넉 뒈 깟주게.(그래도 싸서 가라고 해서 싸서 가서 하는데, 올해도 마늘, 아파도 서넉 되 깠지.)

107036 @ 응.(응.)

133) '대승'은 큰 되라는 뜻으로 곡식을 계량하는 관되를 말한다.

107036 # 오카부덴 깡 아덜ᄀᆞ라 ᄋᆞ져가렌 허난 두 번이나 아덜놈이 새끼 오라도 아니 ᄋᆞ져가난 문 썩언 낭 알더레 비와불어시녜. 아까우게. 게난 그루후제 나 안 깜저.(올까 봐 까서 아들보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두 번이나 아들놈의 새끼 와도 안 가져가니까 모두 썩어서 나무 아래 비워버렸어. 아깝게. 그러니까 그 후에 나도 안 깐다.)

107036 @ 마농 까는 게 요기 손 완전 아픕디다. 막 알리덴데 그냥 다시 난 마농 안 까켜, 까진 거 사당 먹으켜 헷수다. 마농 ᄒᆞ꼼 까는데도 여기가 막 아파.(마늘 까는 게 요기 손 완전 아픕디다. 아주 아리던데 그냥 다시 난 마늘 안 까겠어, 까진 거 사다가 먹겠어 했습니다. 마늘 조금 까는데도 여기가 아주 아파.)

107036 # 우리 메누리 시집온 지 올리만 안 ᄋᆞ져갓주, 온 적마다 ᄋᆞ져가렌 허민 메누린 다 ᄋᆞ져가. 양엣근도 장 줍앙 ᄂᆞᆯ차 보삭보삭 먹고.(우리 며느리 시집온 지 올해만 안 가져갔지, 올 적마다 가져가라고 하면 며느린 다 가져가. 양하 꽃이삭도 장 찍어서 날것째 '보삭보삭' 먹고.)

107036 @ 마농을 깟더니 이런 디 막 알려.(마농을 깠더니 이런 데 막 아려.)

107036 # 우리 아덜은 마농 차에 시끄도 못헤게.(우리 아들은 마늘 차에 싣지도 못해.)

107036 @ 냄새가 오래 가, 오래 가.(냄새가 오래 가, 오래 가.)

107036 # 막 쌍인에 시껑은에 가져가렌 허민 아덜 온 때 안 가져가. 메누리 온 땐 억지로 ᄋᆞ져가고.(막 싸서 실어서 가져가라고 하면 아들 온 때 안 가져가. 며느리 온 땐 억지로 가져가고.)

김치

107037 @ 짐치?(김치?)

107037 # 짐치?(김치?)

107037 @ 무슨 짐치, 무슨 짐치 이서낫수과?(무슨 김치, 무슨 김치 있었습니까?)

107037 # 배추짐치, 무수짐치.(배추김치, 무김치.)

107037 @ 옛날에 두 개가 주장?(옛날에 두 개가 '주장'?)

107037 # 게.(그렇지.)

107038 @ 배추짐친 어떵 헹 멘들어낫수과? 옛날 헤난 걸로.(배추김친 어떻게 해서 만들었었습니까? 옛날 했던 걸로.)

107038 # 엿날에 배추 케당은에 착 갈랑. 착 갈랑, 착 갈랑은에 이젠 배추가 가운디로 착 잘르주게이. 갈르민 이제 배추 섶 트는 더레 소금을 놓멍 이제 배추 죽이지게. 죽이민 ᄏᆞᆯ이 씻엉, ᄏᆞᆯ이 씻엉은에 물 빠질 동안 이제 고추ᄀᆞ루 위에 양념이 마농 삐져 놓고, 꿰도 놓고, 고추ᄀᆞ루 간 맞게시리 맞촹, 맞촹은에 이제 짐치에 버무리멍 ᄌᆞ근ᄌᆞ근 망데기레 꼭꼭 찔르고 또 마농지엔 헌 건이.(옛날에 배추 캐다가 짝 갈라서. 짝 갈라서, 짝 갈라서 이젠 배추가 가운데로 짝 자르지. 가르면 이

제 배추 잎 나는 데 소금을 놓으면서 이제 배추 죽이지. 죽이면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물 빠질 동안 이제 고춧가루 위에 양념이 마늘 빻아 넣고, 깨도 넣고, 고춧가루 간 맞게끔 맞춰서, 맞춰서 이제 김치에 버무리면서 차근차근 '망데기'에 꼭꼭 찌르고 또 마늘지라고 한 건.)

107038 @ 마농진 ᄒᆞ꼼 잇당예. 할머니 배추짐치 옛날에는 더 어렷을 때 할머니 어렷을 때 어떵 헹 먹어난?(마늘진 조금 있다가요. 할머니 배추김치 옛날에 더 어렸을 때 할머니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먹었었어?)

107038 # 어린 때도 우리 어머니네 그추룩 허더라.(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네 그처럼 하더라.)

107038 @ 배추가 옛날에 제주도에 배추가 속 앚인 배추가 엇어나지 안헤수과?(배추가 옛날에 제주도에 배추가 속 앉은 배추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107038 # 아이, 이섯어.(아니, 있었어.)

107038 @ 이섯어?(있었어?)

107038 # 우영에 갈앙은에 많이 속 앚기 전이 이녁 우영에 갈앙은에 속 ᄒᆞ쏠썩 앚아가민 케멍 먹음 시작허영 마지막은 속 앚아.(텃밭에 갈아서 많이 속 앉기 전에 자기 텃밭에 갈아서 속 조금씩 앉아가면 캐면서 먹기 시작해서 마지막은 속 앉아.)

107038 @ 아.(아.)

107038 # 엿날에도 이서, 우리 어린 때도.(옛날에도 있어, 우리 어린 때도.)

107038 @ 고치ᄀᆞ루도 얼마 엇어낫덴 허멍?(고춧가루도 얼마 없었다고 하면서?)

107038 # 아이, 고치 우리 어머니 산 때 주로 싱거.(아니, 고추 우리 어머니 살았을 때 주로 심어.)

107038 @ 밧듸 싱근 걸로.(밭에 심은 걸로.)

107038 # 싱거. 고치 싱경 고치ᄀᆞ루 헤영 ᄂᆞᆷ 엇은 사름 줌도 허곡 경헤여.(심어. 고추 심어서 고춧가루 해서 남 없는 사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

107038 @ 그디 멜첫이나 이런 것도 놔?(거기 멸치젓이나 이런 것도 넣어?)

107038 # 게, 멜쳇 놔, 멜쳇을 놓나. 또시 저 바당궤기, 무신 고기 다가리젓 헌 거 그런 거라도 놓나 헤사주 맛 좋아.(그렇지, 멸치젓 넣어, 멸치젓을 넣어. 또 저 바닷고기, 무슨 고기 대가리젓 한 거 그런 거라도 넣거나 해야지 맛 좋아.)

107038 @ 그런 것도 놔? 이제사 놓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놔낫수과?(그런 것도 넣어? 이제야 넣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넣었습니까?)

107038 # 엿날 우리 시고모가 바당에 시고모 냄편이 뎅기문이 그디 각제기 다가리, 뭐 하간 궤기 다가리, 코돋은망데기[134] 이만헌 걸로 젓 담앙 집이 ᄋᆞ져와. 시에 살멍이 ᄋᆞ져오민 그거 그 국물로 짐치에 담으민 그렇게 맛이 좋아.(옛날 우리 시고모가 바다에서 시고모 남편이 다니면 거기 전갱이 대가리, 뭐 하간 고기 대가리, '코돋은망데기' 이만한 걸로 젓 담가서 집에 가져와. 제주시에 살면서 가져오면 그거 그 국물로 김치 담그면 그렇게 맛이 좋아.)

134) '코돋은망데기'는 부리가 있는 중두리 정도의 크기의 옹기를 말한다.

107038 @ 젓갈 대신에.(젓갈 대신에.)

107038 # 응. 젓갈 대신 엿날도 멜쳇 헤영은에 젓 담는 거 이녁 집이 다 멜쳇 담곡, 자리젓 담곡, 촌에. 이젠 자리젓, 멜쳇 담는 집도 잘 엇으메.(응. 젓갈 대신 옛날도 멸치젓 해서 젓갈 담는 거 자기 집에 다 멸치젓 담고, 자리돔젓 담고, 촌에. 이젠 자리돔젓, 멸치젓 담는 집도 잘 없어.)

107039 @ 열무짐치는?(열무김치는?)

107039 # 열무짐치, 이파리. 열무 갈앙인에 그 죽영은에 허는 것ᄀᆞ라 열무짐치.(열무김치, 이파리. 열무 갈아서 그 죽여서 하는 것보고 열무김치.)

107039 @ 옛날에도 헹 먹어낫수과?(옛날에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9 # 게, 엿날에 ᄂᆞ물, 열무, 무수 ᄂᆞ물 갈민 줓주게, 줓아. 줓이민 더러 뽑앙은에 헤영 먹주게.(그렇지, 옛날에 나물, 열무, 무 나물 갈면 잦지, 잦아. 잦으면 더러 뽑아서 해서 먹지.)

107039 @ ᄎᆞ마귀 짐치는 뭐라?('ᄎᆞ마귀' 김치는 뭐야?)

107039 # ᄎᆞ마귀[135]가 열무. 이제 신식 말로 열무. 엿날에 ᄎᆞ마귀.('ᄎᆞ마귀'가 열무. 이제 신식 말로 열무. 옛날에 'ᄎᆞ마귀'.)

107039 @ 옛날에 ᄎᆞ마귀 그게 저 무수 갈앙 줓이 난 거 뽑앙은에 그게 열무고 'ᄎᆞ마귀' 똑 ᄀᆞ튼 거?(옛날에 'ᄎᆞ마귀' 그게 저 무 갈아서 잦게 난 거 뽑아서 그게 열무고 'ᄎᆞ마귀' 꼭 같은 거?)

107039 # 드물게 헹 놔두면 ᄂᆞᆷ삐 이만썩 크곡.(드물게 해서 놔두면 무 이만큼씩 크고.)

107040 @ 옛날에 물짐치도 헹 먹어낫수과?(옛날에 물김치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40 # 물짐치도 허엿어.(물김치도 했어.)

107040 @ 그건 어떵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40 # 물짐친 어떵 헤여? ᄎᆞ마귀, 어린 ᄎᆞ마귀 나민 소악소악 썰엉은에 죽엿당 이 물 잇게 헤영인에 마늘이영 삐정은에 간 맞게 허영 그거 물짐치도 허곡. 또 무수가 들민 무수도 채소를 썰엉도 허영 먹어, 그건 무채소옌 헌디. 그냥 물짐치도 ᄂᆞᆷ삐 이런 거민 짝 벌렁 소악소악 썰엉인에 소금에 버무렷당인에.(물김친 어떻게 해? 'ᄎᆞ마귀', 어린 'ᄎᆞ마귀' 나면 '소악소악' 썰어서 죽였다가 이 물 있게 해서 마늘이랑 빻아서 간 맞게 해서 그거 물김치도 하고. 또 무가 들면 무도 채소를 썰어서도 해서 먹어, 그건 무채소라고 하는데. 그냥 물김치도 무 이런 거면 짝 쪼개서 '소악소악' 썰어서 소금에 버무렸다가.)

107042 @ 고춧ᄀᆞ루 안 놩은에?(고춧가루 안 넣어서?)

107042 # 응?(응?)

107042 @ 고춧가루 안 놔?(고춧가루 안 넣어?)

107040 # 고치ᄀᆞ루영 다 서꺼. 물짐치에도 놔, 더러. 하영 놓지 아니혀. 벌겋게

135) 'ᄎᆞ마귀'는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한다.

아니 험뿐이주. 물짐치엔 벌겋게 버무리지 아니헤도.(고춧가루랑 다 섞어. 물김치에도 넣어, 더러. 많이 넣지 않아. 벌겋게 안 하는 것뿐이지. 물김치라고 벌겋게 버무리지 않아도.)

107040 @ 이제사 헹 먹는 거 아니고 옛날에 헹 먹어낫수과?(이제야 해서 먹는 거 아니고 옛날에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40 # 우린 어린 때부터 허더라.(우린 어릴 때부터 하더라.)

107040 @ 아, 어린 때도 헹 먹어난?(아, 어릴 때도 해서 먹었었어?)

107040 # 어린 때 어머니네 허난에 어머니 본 봉 나도 허엿주게.(어릴 때 어머니네 하니까 어머니 본 봐서 나도 했지.)

107040 @ 아니, 제주도에선 물짐치 잘 안헹 먹은다 헨게마는 할머니넨 헤낫구나.(아니, 제주도에선 물김치 잘 안 해서 먹는다 하던데마는 할머니넨 했었구나.)

107040 # 우린 엿날에 대정골[136] 살멍 ᄂᆞ물 갈앙 동네 사름도 주고 ᄂᆞ물 하영 갈아지민 동네 사름도 뽑앙인에 넘어감시면 ᄋᆞ정강 먹으렌 헹 막 주고 우잣 너른디 헤영.(우린 옛날에 대정골 살면서 나물 갈아서 동네 사람도 주고 나물 많이 갈면 동네 사람도 뽑아서 지나가고 있으면 가져가서 먹으라고 해서 막 주고 텃밭 넓은데 해서.)

107041 @ 동지 짐치는 무신거꽈?(봄동김치는 무엇입니까?)

107041 # ᄂᆞ물 동지 산 걸로 헌 거, 동지짐치.(나물 장다리 선 걸로 한 거, 봄동김치.)

10741 @ ᄂᆞ물이면 무수, 놈삐?(나물이면 무, 무?)

10741 # 놈삐 동지 산 건 허여보지 안헷주마는 배추 갈앗당 봄 나가민 동지 사주게.(무 장다리 선 건 해보지 않았지마는 배추 갈았다가 봄 나가면 장다리 서지.)

10741 @ 예.(예.)

10741 # 동지 딱딱 꺼꺼당은에 절이민 동지짐치 맛 좋아.(장다리 딱딱 꺾어다가 절이면 봄동김치 맛 좋아.)

107042 @ 놈삐는, 놈삐짐치는 어떵 헹?(무는, 무김치는 어떻게 해서?)

107042 # 놈삐짐치는 그자 통베기로 착 갈랑도 담앗당은에 건져 내영 썰멍 먹곡 그렇지 아니면 급허게 먹을 때민 즘질이 썰엉도 먹곡 채소로 썰엉 버무령 먹곡.(무김치는 그저 '통베기'로 짝 갈라서도 담았다가 건져내어서 썰면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먹을 때면 자잘하게 썰어서도 먹고 채소로 썰어서 버무려서도 먹고.)

107042 @ 짐치로?(김치로?)

107042 # 응.(응.)

107042 @ 지금 깍뚜기 허는 거추룩?(지금 깍두기 하는 거처럼?)

107042 # 깍뚜기도 지금 이제 허는 것도게 그 썰엉인에 먹을 만썩 썰엉인에 양념 버무령 장만허고.(깍두기도 지금 이제 하는 것도 그 썰어서 먹을 만큼씩 썰어서 양념 버무려서 장만하고.)

---

136) '대정골'은 대정 고을의 준말로 대정현이 있었던 대정읍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107042 @ 아까 통베기로 허는 건 무수 반짝으로만 딱 썰엉은에 짐치 담그는 거?(아까 '통베기'로 하는 건 무 반쪽으로만 딱 썰어서 김치 담그는 거?)

107042 # 응.(응.)

107042 @ 경헷당 먹을 때 썰엉 먹는 거.(그렇게 했다가 먹을 때 썰어서 먹는 거.)

107042 # 응.(응.)

107042 @ 아, 그렇게도 헹 먹어낫수과? 육지식 아니고 제주도식 그것도?(아, 그렇게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육지식 아니고 제주도식 그것도?)

107042 # 게.(그렇지.)

107042 @ 옛날에도 헹 먹어난?(옛날에도 해서 먹었었어?)

107042 # 무수 착 갈랑 이파리 저 홁은 이파린 째어뒁 준 이파리 요만썩 헌 거 착 갈랑은에 소금에 절엿당은에 그냥 허영.(무 짝 갈라서 이파리 저 굵은 이파린 찢어두고 잔 이파리 요만큼씩 한 거 짝 갈라서 소금에 절였다가 그냥 해.)

107042 @ 큰, 이만이 큰 놈삐도?(큰, 이만큼 큰 무도?)

107042 # 게. 이만이 큰 건 절엿당은에 이제 그건 양념 얼마 안 놔. 그냥 절엿당은에 그냥 소금물에 절인 거난 죽엇지.(그렇지. 이만큼 큰 건 절였다가 이제 그건 양념 얼마 안 놔. 그냥 절였다가 그냥 소금물에 절인 거니까 죽었지.)

107042 @ 예.(예.)

107042 # 게민 썰엉인에 그때 고치ᄀᆞ루영 꿰영 버무령 먹곡 경 아니허민 그냥 먹는 수도 싯곡.(그러면 썰어서 그때 고춧가루랑 깨랑 버무려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는 수도 있고.)

107043 @ 파김치?(파김치?)

107043 # 파짐치도 파 다듬안에 패마농 짐치라도 대산인 짐치 못허는 거. 파 다듬앙인에 소금에 절엿당 그자 양님 버무령 먹는 거.(파김치도 파 다듬어서 쪽파 김치라도 마늘은 김치 못하는 거. 파 다듬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그저 양념 버무려서 먹는 거.)

107043 @ 옛날도 헹 먹어낫수과?(옛날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43 # 엿날도 마농, 마농 하영 싱그난 들구 집이서 마농덜 싱그민 헹 먹엇주게.(옛날도 마늘, 마늘 많이 심으니까 마구 집에서 마늘들 심으면 해서 먹었지.)

107043 @ 옛날도?(옛날도?)

107043 # 응, 우리 어멍네 누에 질르고 우리 웨가에 교육자 집이난이 경 시시허게 반찬 안 헤낫어. 우리 웨삼춘 엿날에 우리 웨삼춘도 선생, 웨삼춘 아덜네도 다, 우리 어멍네가 팔 남맨데, 오라방, 우리 큰오라방 난 다음 우리 어머니 낳주. 게난 오래비덜이 다섯 개. 형제간이 팔 남매. 팔 남매 막 착허게 살아. 게난 웨할망도 누에 질르난 우리 어머니도 누에 질르고, 우리 화순[137] 이모도 누에 질르고, 나도 누에 질런. 이거 아메도 그런 것도 유전으로 가는 모냥이라이.(응, 우리 어머니네 누

137)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를 말한다.

에 기르고 우리 외가에 교육자 집이니까 그렇게 시시하게 반찬 안 했었어. 우리 외삼촌 옛날에 우리 외삼촌도 선생, 외삼촌 아들네도 다, 우리 어머니네가 팔 남맨데, 오라버니, 우리 큰오라버니 낳은 다음 우리 어머니 낳았지. 그러니까 오라비들이 다섯 명. 형제간이 팔 남매. 팔 남매 막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누에 기르니까 우리 어머니도 누에 기르고, 우리 화순 이모도 누에 기르고, 나도 누에 길렀어. 이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유전으로 가는 모양이야.)

107043 @ 할머니 여덟 번째 중 할머니 멧 번째?(할머니 여덟 번째 중 할머니 몇 번째?)

107043 # 여자 중에?(여자 중에?)

107043 @ 아니 다 합쳥은에.(아니 다 합쳐서.)

107043 # 여ᄌᆞ 중에 나, 우이로 다 죽어불언게.(여자 중에 나, 위로 다 죽어버렸어.)

107043 @ 게난 경헤도 멧 번채? 할머니가, 여자 중엔?(그러니까 그래도 몇 번째? 할머니가, 여자 중엔?)

107043 # 여ᄌᆞ, 난 두 번채.(여자, 난 두 번째.)

107043 @ 여자 중엔 두 번째.(여자 중엔 두 번째.)

107043 # 우리 언닌 일본 간에 넴편이영 간 공장 헤연 살고 우리 동생은 또 육지 간 살고.(우리 언닌 일본 가서 남편이랑 가서 공장 해서 살고 우리 동생은 또 육지 가서 살고.)

107044 @ 달래, 드릇마농으로도 짐치 헹 먹어낫수과?(달래, 달래로도 김치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44 # 응, 드릇마농 맛 좋아.(응, 달래 맛 좋아.)

107044 @ 이젠 맛 좋게 먹주마는.(이젠 맛 좋게 먹지마는.)

107044 # 이제도 맛 좋아.(이제도 맛 좋아.)

107044 @ 옛날도 헹 먹어난?(옛날도 해서 먹었었어?)

107044 # 게, 드릇마농 헤당인에 콩국 끌리는 디도 놓곡.(그렇지, 달래 해다가 콩국 끓이는 데도 넣고.)

107044 @ 아, 콩국 끌리는 디도 놔?(아, 통국 끓이는 데도 넣어?)

107044 # 응, 콩국 끌리는 디도 그거 썰어 놓곡 콩죽 쑤는 디도 썰어 놩 먹고 경 허여.(응, 콩국 끓이는 데도 그거 썰어 넣고 콩죽 쑤는 데도 썰어 넣어서 먹고 그렇게 해.)

107044 @ 이거 하영 헤지민 이걸로 짐치도 헹 먹곡?(이거 많이 하면 이걸로 김치도 해서 먹고?)

107044 # 응, 뿔리 다듬지 아니헹 뿔리채 그 동그라진 거채 헤영은에 짐치헤영 놔두민 밧듸 일 가민 그거 ᄋᆞ젼 가민 이거 어디 션 헤시넨 허영이 엿날에 저 알드르[138] 뜬 땅에 그것 가민 바구리로 하나썩 헤영 오라낫저. 경 허민 짐치 헤여.(응,

138) '알드르'는 아래쪽에 있는 들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지역 명칭으로 쓰였다.

뿌리 다듬지 않고 뿌리째 그 동그란 거째 해서 김치해서 놔두면 밭에 일 가면 그거 가져서 가면 이거 어디 있어서 했냐고 해서 옛날에 저 '알드르' 뜬 땅에 그것 가면 바구니로 하나씩 해서 왔었어. 그러면 김치 해.)

107045 @ 갓김친 이제사 헹 먹는 거주예? 제주도엔 갓김치 엇어낫지예?(갓김친 이제야 해서 해서 먹는 거지요? 제주도엔 갓김치 없었었지요?)

107045 # 응, 갓짐치엔 헌 건 그 무시거 아니라게. 저 저 일름, 유, 유.(응, 갓김치라고 한 건 그 무엇 아니냐. 저 저 이름, 들깨, 들깨.)

107045 @ 아니 유 말고, 갓, 갓.(아니 들깨 말고, 갓, 갓.)

107045 # 나 술도 잘허고, 감주도 잘허고, 인성서 감주 허여 오렌 헹은에 서구포 오란. 인성 감주 헐 사름덜 엇고 술 헐 사름도 엇고.(나 술도 잘하고, 감주도 잘하고, 인성에서 감주 해오라고 해서 서귀포 와서. 인성 감주 할 사람들 없고 술 할 사람도 없고.)

107045 @ 갯ᄂᆞ물, 갯ᄂᆞ물.(갓, 갓.)

107045 # 갯ᄂᆞ물, 맞다. 갯ᄂᆞ물.(갓, 맞다. 갓.)

107045 @ 갯ᄂᆞ물로 짐치 헹 먹어낫수과?(갓으로 김치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45 # 응, 갯ᄂᆞ물짐친 새금트름헌[139] 게 갯내음살 낭 좋아.(응, 갓김친 '새금트름헌' 게 갯내 나서 좋아.)

107043 @아, 제주도도.(아, 제주도도.)

107043 # 갯ᄂᆞ물 어린 때 허영인에 짐치 헌다. 향기가 그렇게 좋아, 갯ᄂᆞ물.(갓 어릴 때 해서 김치 한다. 향기가 그렇게 좋아, 갓.)

107045 @ 이제 허는 갓김치하고 다르지예?(이제 하는 갓김치하고 다르지요?)

107045 # 다르지 아니혀, 똑가타.(다르지 않아, 똑같아.)

107045 @ 이제 갓김친 육지서 가져옵니께, 영 길쭉헌 거.(이제 갓김친 육지서 가져오잖습니까, 이렇게 길쭉한 거.)

107045 # 이디서 갯ᄂᆞ물 갈앙인에 짐치 헤보라. 더 맛 좋나.(여기서 갓 갈아서 김치 해봐라. 더 맛 좋다.)

107045 @ 옛날에도 이런 것도 헹 김치 먹어난?(옛날에도 이런 것도 해서 김치 먹었었어?)

107045 # 엿날도 그런 거 이서난. 갯ᄂᆞ물 지지 세왕 지름도 빵인에덜 먹고 그추룩 헤낫어.(옛날도 그런 거 있었어. 갓 지지 세워서 기름도 빼서들 먹고 그처럼 했었어.)

107045 @ 아, 걸로 지름도 빵 먹고.(아, 그걸로 기름도 빼서 먹고.)

107045 # 응.(응.)

107045 @ 할머니 안 먹은덴 헤라만은 새우리짐친?(할머니 안 먹는다고 하더라마는 부추김친?)

107046 # 새우리짐치허곡. 새우리 아이 먹으난 짐치도 아이 먹어. 마농짐치도

139) '새금트름허다'는 새콤하고 씁쓸한 맛이 난다는 뜻이다.

아이 먹어. 새우리 하민 짐치허는 거주게.(부추김치하고. 부추 안 먹으니까 김치도 안 먹어. 마늘김치도 안 먹어. 부추 많으면 김치하는 거지.)

107047 @ 아까 저 배추짐치영, 놈삐짐치영예, 짐치허는 법 다시 한번만 골아줍서.(아까 저 배추김치랑, 무김치랑요, 김치하는 법 다시 한번만 말해주세요.)

107047 # 놈삐도 썰엉인에 소금에 버무렷당 확 씻어둰은에 양님 버무리고 배추도게 착 갈랑인에 그 새레, 새레 소금 잘 들어가게시리 허영인에 놔뒷당 죽은 거 닮으민 ᄏᆞᆯ이 씻엉인에 또 양님 다, 마농 삐졍 놓고 양님 다 놔사헐 거 아니라게이. 이제 마농 삐져 놓고 고치가루 놓고 또 꿰ᄀᆞ루영 좀 서껑 생강도 ᄲᅳᆺ아 놓곡 경헹인에 양념을 흔 장테[140] 허민 이제 이파리 걷으멍 영영 볼랑.(무도 썰어서 소금에 버무렸다가 확 씻어두고 양념 버무리고 배추도 짝 갈라서 그 사이에, 사이에 소금 잘 들어가게끔 해서 놔뒀다가 죽은 거 같으면 깨끗이 씻어서 또 양념 다, 마늘 빻아 놓고 양념 다 넣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마늘 빻아 넣고 고춧가루 넣고 또 깻가루랑 조금 섞어서 생강도 빻아 넣고 그렇게 해서 양념을 한 장태 하면 이제 이파리 걷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107047 @ 건 이제사 허는 식이여. 나 우리 이제 짐치허는 식. 옛날도 경헤연?

(그건 이제야 하는 식이다. 나 우리 이제 김치 하는 식. 옛날도 그렇게 했어?)

107047 # 엿날도 그랫어.(옛날도 그랬어.)

107047 @ 응.(응.)

107047 # 엿날도 우영밧듸 갈주. 그렇게 헷어.(옛날도 텃밭에 갈지. 그렇게 했어.)

젓갈

107048 @ 젓갈은 무신 젓갈, 무신 젓갈 헤낫수과?(젓갈은 무슨 젓갈, 무슨 젓갈 했었습니까?)

107048 # 도야지궤기.(돼지고기.)

107048 @ 그런 젓갈 말고 자리젓, 이런 거.(그런 산적 말고 자리돔젓, 이런 거.)

107048 # 자리젓, 멜첫.(자리돔젓, 멸치젓.)

107048 @ 또 무신 젓 이서낫수과?(또 무슨 젓 있었습니까?)

107048 # 그거뿐.(그거뿐.)

107049 @ 그거뿐? 보통 자리젓, 멜첫? 자리젓은 어떵헤근에 먹어?(그거뿐? 보통 자리돔젓, 멸치젓? 자리돔젓은 어떻게 해서 먹어?)

107049 # 자리젓은 자리 사당인에 소금에 간 맞게시리 버무령 딱허게 돌 찔러, 돌 지들령 놔두민 자리 익으민 자리 앗아내엉 늙은 어른들 먹지 못허민 그 자리 돔베 놩 막 뭇앙, 양념 버무령 놓곡이 또 경 안헌 사름은 자리채 고치ᄀᆞ루, 꿰ᄀᆞ루에 버무령 놓으민[노민] 자리 들렁 보삭보삭 씹으멍 먹고.(자리돔젓은 자리 사다가 소금에 간 맞게끔 버무려서 딱하게 돌 찔러, 돌 지질러서 놔두면 자리돔 익으면 자리

140)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하되 그보다 크게 만든 질그릇이다.

돔 꺼내서 늙은 어른들 먹지 못하면 그 자리 도마에 놔서 막 마서, 양념 버무려 놓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리돔째 고춧가루, 깻가루에 버무려서 놓으면 자리돔 들어서 바삭바삭 씹으면서 먹고.)

107049 @ 자리젓 허젠 허민 자리, 얼만이 소금 얼만이 놉니까?(자리돔젓 하려고 하면 자리돔, 얼마만큼 소금 얼마만큼 넣습니까?)

107049 # 자리 ᄒᆞᆫ 말이문 소금 그자 양재기로, 자리 ᄒᆞᆫ 말은 ᄒᆞ나 놔살 거라.(자리돔 한 말이면 소금 그저.(자리 한 말이면 소금 그저 양푼으로, 자리 한 말은 하나 넣어야 할 거야.)

107049 @ 양재기로 ᄒᆞ나?(양푼으로 하나?)

107049 # 싱거우민 고렁 안 뒈곡이. 짜민 또 맛엇곡, 간 맞게시리 영 보멍 장 담는 것도이 메주 솖앙.(싱거우면 고려서 안 되고, 짜면 또 맛없고, 간 맞게끔 이렇게 보면서 장 담그는 것도 메주 삶아서.)

107049 @ 그건 ᄒᆞ꼼 잇당. 젓갈부터, 자리젓 헤난 거부터예.(그건 조금 있다가. 젓갈부터, 자리돔젓 했던 거부터요.)

107049 # 자리젓 짐작허영 버무려 보민 어느 정도 뒈는 거 ᄒᆞ쏠 알아져. ᄒᆞ끔 영 혜영은에 버무려지민 어느 정도는 뒈카? 자리젓도 짜민 맛없어. ᄒᆞ끔 싱거와사 고르초롱헌 냄살 나멍 맛은 기똥차게 좋아.(자리돔젓 짐작해서 버무려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조금 알 수 있어. 조금 이렇게 해서 버무려지면 어느 정도는 될까? 자리돔젓도 짜면 맛없어. 조금 싱거워야 '고르초롱헌' 냄새 나면서 맛은 기똥차게 좋아.)

107049 @ 멧 월달에 허는 거꽈?(몇 월에 하는 겁니까?)

107049 # 허이튼 유월달덜 자리덜 상은에 젓 담는 거주.(하여튼 유월 자리돔들 사서 젓갈 담는 거지.)

107049 @ 메칠이나 이시민 먹어져?(며칠이나 있으면 먹을 수 있어?)

107049 # 익어야 허주기.(익어야 하지.)

107049 @ 얼마나 시민 익어?(얼마나 있으면 익어?)

107049 # 얼마사 익을디 놔뒀당은에 딱허게 자리젓 담앙인에 이젠 그디 ᄑᆞ리 아이 뎅기는 풀이 이섯어, 엿날에. ᄑᆞ리 못 뎅기는 풀.(얼마야 익을지 놔뒀다가 딱하게 자리돔젓 담아서 이젠 거기 파리 안 다니는 풀이 있었어, 옛날에. 파리 못 다니는 풀.)

107049 @ 풀?(풀?)

107049 # 응, 막 사름 이런 디 훌터부는 풀 비엇당인에 자리젓 담은 망데기[141]에 영허게 위 바위 더껑 돌 딱 지들롸 놔두민 ᄑᆞ리가 그디 뎅기질 아니혀.(응, 막 사람 이런 데 훑어버리는 풀 베어다가 자리돔젓 담근 '망데기'에 이렇게 하게 위 가장자리 덮어서 돌 딱 지질러서 노두면 파리가 거기 다니질 않아.)

107049 @ 무신, 이름은 몰라? 풀 이름?(무슨, 이름은 몰라? 풀 이름?)

141)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이다.

107049 # 그 무신 풀인디. 그땐 알아젼게 놈덜 자리 담으믄 그거 헤여당 허렌 골아져젼게. 가시 돋은 풀이라. 이 대에 가시 돋은 풀인디 이젠 몰라. 그런 거 하도 제초제 헤불고 허난 그런 풀도 저런 디 안 나.(그 무슨 풀인데. 그땐 알았는데 남들 자리돔 담으면 그거 해다가 하라고 말했는데. 가시 돋은 풀이야. 이 대에 가시 돋은 풀인데 이젠 몰라. 그런 거 하도 제초제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풀도 저런 데 안 나.)

107050 @ 멜첫은? (멸치젓은?)

107050 # 멜첫도.(멸치젓도.)

107050 @ 언제 멧 월쯤에?(언제 몇 월쯤에?)

107050 # 멜쳇도 봄이 허여.(멸치젓도 봄에 해.)

107050 # 멜첫은 봄이.(멸치젓은 봄에.)

107050 # 여름에도 허곡. 멜 나올 때마다 헤여.(여름에도 하고. 멸치 나올 때마다 해.)

107050 @ 아, 멜 나올 때마다.(아, 멸치 나올 때마다.)

107050 # 여름에 보민 유월둘에 엿날에 날뤠[142], 멜 들주게. 멜 들민.(여름에 보면 유월에 옛날에 일과리, 멸치 들지. 멸치 들면.)

107050 @ 날뤠는 무신거?(날뤠는 무엇?)

107050 # 일과리.(일과리.)

107050 @ 아, 일과리.(아, 일과리.)

107050 # 그디 날뤠, 소금줄레기[143], 소금줄레기 허는디. 그디 멜팜부리[144] 이젠 멜팜부리가 없어. 멜팜부리가 막 마당에 놀아뎅겨이.(거기 일과리, '소금줄레기', '소금줄레기' 하는데. 거기 '멜팜부리' 이젠 '멜팜부리'가 없어. '멜팜부리'가 막 마당에 날아다녀.)

107050 @ 멜팜부리가 뭐?('멜팜부리'가 뭐?)

107050 # 밥주리.(잠자리.)

107050 @ 밥주리?(잠자리?)

107050 # 응, 빨강헌 밥주리.(응, 빨간 잠자리.)

107050 @ 예.(예.)

107050 # 그것이 막 이젠 그런 것도 없어. 수정엇이 막 놀아 뎅겨가민 일허레 강은에 사름덜이 아이구 오늘는 멜이 떰직허다, 멜이 하영 나왐직허다 허멍 낼랑 새벡이 멜 사레 가사켄 허여이. 섹유통 정 날뤠 가, 날뤠 강인에 섹유통에 져사 조름에 그 바당물 흘치치 안헹 허주게. 겡 사당은에 젯 담는디 멜쳇 맛 좋아. 그걸로 짐치도 허곡 멜쳇으로 이젠 다허영 프는 따문 사당 허주이.(그것이 막 이젠 그런 것도 없어. 수없이 막 날아 다니면 일하러 가서 사람들이 아이구 오늘은 멸치가 뜰 것 같다, 멸치가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면서 내일랑 새벽에 멸치 사러 가야겠다고

142) '날뤠'는 대정읍 일과리의 옛 지명이다.
143) '소금줄레기'는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144) '멜팜부리'는 잠자리 떼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많이 날아다니면 멸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해. 석유통 져서 일과리 가, 일과리 가서 석유통에 져야 뒤에 그 바닷물 흘리지 앟아서 하지. 그렇게 해서 사다가 젓 담그는데 멸치젓 맛 좋아. 그걸로 김치도 하고 멸치젓으로 이젠 다 해서 파는 때문 사다가 하지.)

107050 @ 건 소금 얼마니 놓읍니까? 자리젓보다 하영 놔?(그건 소금 얼마나 넣습니까? 자리돔젓보다 많이 넣어?)

107050 # 자리젓보다 하영 안 놔. 하영 안 놔. 궤기가 족은 거난이 징어리멜[145]은 흐끔 하영 놓고, 꿩멜[146]은 무신거 헤쓱허게 놔.(자리돔젓보다 많이 안 넣어. 많이 안 넣어. 고기가 작은 거니까 '징어리멜'은 조금 많이 넣고, '꿩멜'은 무엇 조금 넣어.)

107050 @ 꿩멜하고 무슨 멜? 징어리멜?('꿩멜'하고 무슨 멸치? '징어리멜'?)

107050 # 징어리멜은 홁은 거.('징어리멜'은 굵은 거.)

107050 @ 아.(아.)

107050 # 소금 헷당 궈도 먹곡 막 멜 이만썩 헌 것도 이서, 징어리멜.(소금 했다가 구워서도 먹고 막 멸치 이만큼씩 헌 것도 있어, '징어리멜'.)

107050 @ 징어리멜.('징어리멜'.)

107050 # 이젠 그런 거 잘 엇어. 못 봐.(이젠 그런 거 잘 없어. 못 봐.)

107050 @ 헷당 반찬도 허곡예, 짐치헐 때도 놓곡예.(했다가 반찬도 하고요, 김치할 때도 넣고요.)

107050 # 국 끌령도 먹고.(국 끓여서도 먹고.)

107050 @ 국도 끌령 먹어? 젓으로 멜첫으로? 어떵 헹 끌령 먹어?(국도 끓여서 먹어? 젓으로 멸치젓으로? 어떻게 해서 끓여서 먹어?)

107050 # 멜쳇 국물 놩은에게 ᄂᆞ물 놩 끌리젠 허민 맛 좋아. 자리젓도 국 끌리고.(멸치젓 국물 넣어서 나물 넣어서 끓이려고 하면 맛 좋아. 자리돔젓도 국 끓이고.)

107050 @ 자리젓도 국 끌령 먹고?(자리돔젓도 국 끓여서 먹고?)

107050 # 게, 자리젓도 저 자리 서너 개 걸영인에 더운 물로 영영 헤가멍 젓어가멍 가시영 삭아지게 허영. 자리젯국도 맛 좋아. 엿날에 경헨 살아시네.(그렇지, 자리돔젓도 저 자리돔 서너 개 떠서 더운 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저어가면서 가시랑 삭아지게 해서. 자리돔젓국도 맛 좋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7050 @ 뒌장 안 놓고?(된장 안 넣고?)

107050 # 장 안 놩, 그것이 소금에 절여지난.(장 안 넣어서, 그것이 소금에 절여지니까.)

107050 @ 그게 장이난 그걸로 국 끌령 먹고.(그게 장이니까 그걸로 국 끓여서 먹고.)

107050 # 응, 멜쳇도 놩 국 끌령 먹고 이젠 주로 짐치에만 사용허주.(응, 멸치젓

145) '징어리멜'은 '정어리'와 '멸치'라는 말이 결합된 것으로 크기가 큰 멸치를 뜻한다.
146) '꿩멜'은 크기가 작은 멸치를 말한다.

도 넣어서 국 끓여서 먹고 이젠 주로 김치에만 사용하지.)

107050 @ 게난예 이젠 짐치에만 허지만 멜쳇이나 자리젓으로 국 끌렁 먹고예.(그러니까요. 이젠 김치에만 하지만 멸치젓이나 자리돔젓으로 국 끓여서 먹고요.)

107050 # 응, 자리젓도 국 끌리젠 허민 자리 멧 개 거려당은에 뭬는 물에 놩인에 영영 헤가민 가시영 그 술이영 허민 그자 쪼륵쪼륵 쫄라 놩 가신 던져불민 자리국. 맛이서.(응, 자리돔젓도 국 끓이려고 하면 자리돔 몇 개 떠다가 끓는 물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가시랑 그 살이랑 하면 그저 '쪼륵쪼륵' 잘라 놓고서 가신 던져버리면 자리돔젓국. 맛있어.)

107050 @ 거기 무신거 놔?(거기 무엇 넣어?)

107050 # 메역을 놓나, 누물을 놓나 헤여. 겡헹 먹어.(미역을 넣거나, 나물을 넣거나 해. 그렇게 해서 먹어.)

107051 @ 혹시 아가미젓. 이런 것도 헤낫수과? 아가미젓.(혹시 아가미젓. 이런 것도 했었습니까? 아가미젓.)

107051 # 아가미젓은 우리 이 촌에는 아니허고 저 시에, 시에서 바당에 뎅기는 사름덜이. 우리 시고모가 넴꿴네가 바당에서 시에 시민이 아가미젓을이 코돋은망데기 이만은 큰 걸로 하나 헤영은에 시꺼 와. 우리 시고모네가. 시꺼 오민 아가미젓을, 얼마나 맛 좋으카부덴.(아가미젓은 우리 촌에는 안 하고 저 시에, 시에서 바다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시고모가 남편이 바다에서 시에 있으면 아가미젓을 '코돋은망데기' 이만큼은 큰 걸로 하나 해서 실어 와. 우리 시고모네가. 실어 오면 아가미젓을, 얼마나 맛 좋을까 봐.)

107051 @ 아, 맛 좋아?(아, 맛 좋아?)

107051 # 막 맛 좋아. 돔베에 놩인에 큰 궤기 문 이 귀생이 ᄀᆞ튼 거, 대가리 ᄀᆞ튼 거 문딱 놩인에 젓 헤영 담앙 오민 그 시고모 담앙 오민 ᄉᆞ뭇 그거 빌어당 먹지 못헹 광낭은에.(아주 맛 좋아. 도마에 놔서 큰 고기 모두 이 용치놀레기 같은 거, 대가리 같은 거 모두 놔서 젓 해서 담가서 오면 그 시고모가 담가서 오면 사뭇 그거 빌어다가 먹지 못해서 미쳐서.)

107051 @ 코돋은망데긴 어떤 거?('코돋은망데기'는 어떤 거?)

107051 # 큰 망데기, 코 돋은 거.(큰 '망데기', '코' 돋은 거.)

107051 @ 옆에 영 들르는 거 이신 거?(옆에 이렇게 드는 거 있는 거?)

107051 # 육지 망데기.(육지 '망데기'.)

107051 @ 육지 망데기? 제주도 건 아니고?(육지 '망데기'? 제주도 건 아니고?)

107051 # 게게. 제주돈 코돋은망데기 안 헤여. 육지서 허영 그런 거 허영 오민 ᄉᆞ뭇. 우리 시고모 오민 벨 거만은 알앙 저끗듸 사름덜 혼 보시썩 주곡. ᄉᆞ뭇 그거 먹어나민 ᄉᆞ뭇 입이 축축 다시멍 지네, 우리 시어멍ᄀᆞ라 이모 그거 ᄒᆞ쏠 더 도렌헹 빌어당 드러 먹고 헌 것이 경.(그렇지. 제주도는 '코돋은망데기' 안 해. 육지서 해서 그런 거 해서 오면 사뭇. 우리 시고모 오면 별 것만큼 알아서 곁의 사람들 한 보시씩 주고. 사뭇 그거 먹고 나면 사뭇 입이 축축 다시면서 자기네, 우리 시어머니

보고 이모 그거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빌어다가 들이 먹고 한 것이 그렇게.)

107052 @ 깅이젓?(게젓?)

107052 # 깅이젓도 허여. 깅이젓도 깅이 잡으민 그냥 온채 젓 아니 허는 거라. 깅이 탁탁 두드령 배야지 영 까좡 경 허영인에 소금허영, 깅이젓. 육지서 우리 메누리 성이 우리 자꾸 마농 보내난이 깅이젓 이런 거 헹 보냇더라.(게젓도 해. 게젓도 게 잡으면 그냥 통째 젓 안 하는 거야. 게 탁탁 두드려서 배 이렇게 깨서 그렇게 해서 소금해서, 게젓. 육지서 우리 며느리 형이 우리 자꾸 마늘 보내니까 게젓 이런 거 해서 보냈더라.)

107052 @ 제주돈 그런 큰 깅이 엇수게?(제주돈 그런 큰 게 없잖습니까?)

107052 # 이만한 상자로 오난 이건 무시건고이. 거 무신 박스에이.(이만한 상자로 오니까 이건 무엇인가. 그거 무슨 박스에.)

107052 @ 응, 아이스박스.(응, 아이스박스.)

107052 # 응, 이거 무신거 ᄉᆞ뭇 배달 오란에 이거 뭐시꽈 허난, 몰라요 허멍이 줘둰 간 뚤덜ᄀᆞ라 오렌 헨 족은년신디 전화허난 받지 안허연 셋뚤신디 허난, 야 이만저만 헨에 니네 아주망 성이노렌 헹 큰큰헌 상자에 열안 깡 보난이 거펑 닮은 깅이젓이여 허멍, 이만헌 거이.(응, 이거 무엇 사뭇 배달 와서 이거 뭡니까 하니까, 몰라요 하면서 줘두고 가서 딸들보고 오라고 해서 막내딸에게 전화하니까 받지 않아서 둘째딸에게 하니까, 야 이만저만 해서 너희 아주머니 형이라고 해서 크디큰 상자에 열어서 까보니까 '거펑' 같은 게젓이다 하면서, 이만큼 한 거.)

107052 @ 거펑은 무신거?('거펑'은 무엇?)

107052 # 거펑이엔 헌 거 잇나게. 그런 거 몰라도. 그 바당에 가문 거펑 닮은 것에도.('거펑'이라고 한 거 있어. 그런 거 몰라도. 그 바다에 가면 '거펑' 같은 것에도.)

107052 @ 전복 말고?(전복 말고?)

107052 # 전복 종류라도 틀린 거. 그런 거 영헌 거 이서. 동글락헹 영헌 거. 경 허엿젠 허영 아시ᄀᆞ라 오렌 헐 거 아니꽈, 전화헤도 아니 받암저, 보난 성제가 와선게 아이구 이거 얼마나 맛 좋은 거꽝, 어머니 이거 생전에 먹어 보젠 헤도 못 먹음니덴.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 어른들이꽝 허멍.(전복 종류라도 다른 거. 그런 거 이런 거 있어. 동그래서 이렇게 한 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우보고 오라고 할 거 아니꽈, 전화해도 안 받는다, 보니까 형제가 왔던데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맛 좋은 겁니까, 어머니 이거 생전에 먹어 보려고 해도 못 먹는다고.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 어른들입니까 하면서.)

107052 @ 옛날에 제주도는 쪼그락한 깅이 이서나지 안헷수과? 요만헌 거.(옛날에 제주도는 조그마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요만한 거.)

107052 # 이제도 이서.(이제도 있어.)

107052 @ 그걸로 젓 허지 아니허여?(그걸로 젓 하지 않아?)

107052 # 그런 거 어느제랑 잡앙 젓허느니? 그런 거 무신거 흔 사발쯤 잡아지민

집이서 오랑인에 물 팔팔 끌린 디 들이청인에 ᄀᆞ루 허껑 그 깅이 지미엔 허영 그거 버무려근에 익으민 깅이도 싯곡 그것도 먹곡 헹.(그런 거 언제랑 잡아서 젓하니? 그런 거 무엇 한 사발쯤 잡게 되면 집에서 와서 물 팔팔 끓인 데 들이뜨려서 가루 섞어서 그 게 '지미'라고 해서 그거 버무려서 익으면 게도 있고 그것도 먹고 해서.)

107052 @ 무신거 깅이 지미? 지미가 뭐?(무엇 게 '지미'? '지미'가 뭐?)

107052 # 그거 일름이 잊어불엇어. 깅이 뭣이엔 허영. 젠젠헌 깅이 이만썩헌 거 잡아당 경헹 먹어낫어. 경 허난 난 하나도 먹어보도 아니허고 우리 똘네 그자 갈라단 먹어.(그거 이름 잊어버렸어. 게 무엇이라고 해서. 자잘한 게 이만큼씩한 거 잡아다가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 그러니까 난 하나도 먹어보지도 않고 우리 딸네 그저 갈라다가 먹어.)

107052 @ 아니, 뼈에 좋넨 허멍은에, 깅이젓갈.(아니, 뼈에 좋다고 하면서, 게젓.)

107052 # 응, 깅이 하영 잡아지민 뿟아근에 죽 쒕 먹곡 허민 좋넨 헤. 경헤도 경 하영 잡아지나? 이젠 못 잡나. 아무나 강 잡도 못허고 난 바당에 가민 재수 좋앙 물꾸럭도 서너 개썩 잡아지고.(응, 게 많이 잡으면 빻아서 죽 쑤어서도 먹고 하면 좋다고 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니? 이젠 못 잡아. 아무나 가서 잡지도 못하고 난 바다에 가면 재수 좋아서 문어도 서너 개씩 잡을 수 있고.)

107054 @ 출레는 무신거꽈?('출레'는 무엇입니까?)

107054 # 촐랭이가 뭐시라?('촐랭이'가 무엇이야?)

107054 @ 출레, 출레.('출레, 출레'.)

107054 # 출레엔 헌 건이 무조건 아무 반찬이나 짠 거이니까 출레.(출레라고 한 건 무조건 아무 반찬이나 짠 거니까 '출레'.)

107054 @ 아, 짠 거니까 출레.(아, 짠 거니까 '출레'.)

107054 # 응, 출레에 밥 먹으라 경.(응, '출레'에 밥 먹어라 그렇게.)

107054 @ 출레에 밥 먹으라. 자리젓이나 멜첫 닮은 거?('출레'에 밥 먹어라. 자리돔젓이나 멸치젓 같은 거?)

107054 # 응, 경헤도 그런 것에 먹으렌 허민.(응, 그래도 그런 것에 먹으라고 하면.)

마농지

107055 @ 마농지 말고 또 지 담가 먹는 거 뭐 이수과?(마늘장아찌 말고 또 장아찌 담가 먹는 거 뭐 있습니까?)

107055 # 마농지벳긔 더 이서?(마늘장아찌밖에 더 있어?)

107055 @ 유썹? (깻잎?)

107055 # 유썹지.(깻잎 장아찌.)

107055 @ 양에?(양하?)

107055 # 양엣근지.(양하 꽃이삭 장아찌.)

107055 @ 그런 거 또 뭐 이서?(그런 거 또 뭐 있어?)

107055 # 거벳긔 엇어. 유썹도 하영 갈민 튿아당인에 소금에 버무령. 유썹도 밧듸덜 어정강 먹나마는, 이젠 나 유도 아니 갈곡.(그거밖에 없어. 깻잎도 많이 갈면 뜯어다가 소금에 버무려서. 깻잎도 밭에들 가져가서 먹는다마는, 이젠 나 들깨도 안 갈고.)

107056 @ 마농지 만드는 법?(마늘장아찌 만드는 법?)

107056 # 마농지. 마농지 철에 마농지 헐 때 난리가 나주. 사름덜 마농지 담젠 마농 사당인에 이파린 이파리로 떼뒁 대 썰엉 소금에 버무령이 소금에 버무렷당 간 맛게 헷당 ᄒᆞᆯ이 씻어뒁인에 또시 어느 정도 먹어봥은에 튿아 먹어봥 싱거우민 ᄒᆞ끔 소금 놩 놔두민 그것이 마농지 뒈더라.(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 철에 마늘장아찌 할 때 난리가 나지. 사람들 마늘장아찌 담그려고 마늘 사다가 이파린 이파리로 떼어두고 대 썰어서 소금에 버무려서 소금에 버무렸다가 간 맞게 했다가 깨끗이 씻어두고 또 어느 정도 먹어봐서, 뜯어 먹어봐서 싱거우면 조금 소금 넣어서 놔두면 그것이 마늘장아찌 되더라.)

107056 @ 아, 간장에 안 하고?(아, 간장에 안 하고?)

107056 # 간장에 아니혀. 소금에 버무령.(간장에 안 해. 소금에 버무려서.)

107056 @ 아, 소금에 버무령.(아, 소금에 버무려서.)

107056 # 간장엔 급허게 즉시 이젠 먹젠 허민 간장에 ᄃᆞᆼ가. 소금에 버무령 놔두민 마농지 뒈어.(간장엔 급하게 즉시 이젠 먹으려고 하면 간장에 담가. 소금에 버무려서 놔두면 마늘장아찌 돼.)

107056 @ 그 마농대로 허는 거지예? 대산이 마농대로.(그 마늘 대로 하는 거지요? '대산' 마늘 대로.)

107056 # 응, 마농쫑 대.(응, 마늘종 대.)

107055 @ 마농대로예? 마농지 허는 거예? 근데 그 밑에 잇는 대산이 마농으로도 마농지 허지 안헙니까, 무사?(마늘 대로요? 마늘장아찌 하는 거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대산이' 마늘로도 마늘장아찌 하지 않습니까, 왜?)

107056 # 그것도 허곡. 대산 거 다 꺼끄멍 풀주게. 요만썩 메영이. 풀민 그걸로도 지 담주게. 것도 썰엉인에 소금 버무령 놔두민 좋아.(그것도 하고. '대산' 거 다 꺾으면서 팔지. 요만큼씩 매어서. 팔면 그걸로도 장아찌 담지. 그것도 썰어서 소금 버무려서 놔두면 좋아.)

107056 @ 아, 소금에 버무령 놔두민.(아, 소금에 버무려서 놔두면.)

107056 # 응.(응.)

107056 @ 소금은 어만이씩 놔야 뒈어?(소금은 어느만큼씩 넣어야 돼?)

107056 # 버무려 보민 어느 정도 알아지주게. 많이 놓지 아니허영이. 경 허민 이 육지 우리 사돈집이 전인 우리도 마농 싱그난 우영에 마농 싱그민 마농쫑 굽으로 그창 ᄎᆞ근ᄎᆞ근헤영 무껑 상자로 헤영은에 사돈네, 사돈네가 뚤 시 성제, 아덜 헤영 다섯 개나 육지 살암주게. 경 허난 그레 우리 메누리ᄀᆞ라 헤여근에 언니네 집이

보내렌 허민 그디 셋언니네가 큰 바당물추룩 집안네 궤기헤영 키우고 삼층에서 사스미 헤영 풀곡 막 허는 사름이여게.(버무려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많이 넣지 않아서. 그러면 이 육지 우리 우리 사돈집에 전엔 우리도 마늘 심으니까 텃밭에 마늘 심으면 마늘종 밑동으로 잘라서 차근차근해서 묶어서 상자로 해서 사돈네, 사돈네가 딸 삼 형제, 아들 해서 다섯 명이나 육지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리 우리 며느리보고 해서 언니네 집에 보내라고 하면 거기 둘째언니가 큰 바닷물처럼 집안에 고기해서 키우고 삼층에서 회 해서 팔고 막 하는 사람이야.)

107056 @ 응.(응.)

107056 # 궤기 어딜로 강 시껑 오랑 어드레 시꺼 가라 헤영 셋성네가 그 바당ᄀᆞ듸 크게 집 짓엉 삼층엔 사스미 헤영 ᄑᆞ는 디고 게난 그 집이로만 주로 보내라게. 셋성이 집이 드난 그걸 받넨. 지네 오라방네도 다 직장 이선 아주망네도 가불고 주로 큰 성네 두가신 바당에서만 살고 바당에서 돌도 뒈곡 보름도 뒈곡 헨 살곡 허난 셋성네 집이만 경 보내난 셋성네가 깅이 보냇어라. 이만헌 상자에, 아이고.(고기 어디로 가서 실어 와서 어디로 실어 가라 해서 둘째형이 그 바닷가에 크게 집 지어서 삼층엔 회 해서 파는 데고 그러니까 그 집으로만 주로 보내. 둘째형이 집에 있으니까 그걸 받는다고. 자기네 오라버니네도 다 직장 있어서 아주머니네도 가버리고 주로 큰 형네 부부는 바다에서만 살고 바다에서 달도 되고 보름도 되고 해서 살고 하니까 둘째형네 집에만 그렇게 보내니까 둘째형네가 게 보냈더라. 이만한 상자에, 아이고.)

107056 @ 할머닌 안 먹어도 매해에 마농지 허주예?(할머닌 안 먹어도 매해 마늘장아찌 하지요?)

107056 # 게, 매해 헤여.(그렇지, 매해 해.)

107056 @ 반찬이난예?(반찬이니까요?)

107056 # 매해 헤영인에 아이덜 ᄋᆞ져가주게.(매해 해서 아이들 가져가지.)

107056 @ 더 옛날에는?(더 옛날에는?)

107056 # 엿날엔 집이서 일꾼도 먹고.(옛날엔 집에서 일꾼도 먹고.)

107056 @ 일꾼들 먹젠 허민예.(일꾼들 먹으려고 하면요.)

107056 # 나만 안 먹주, 다 먹어.(나만 안 먹지, 다 먹어.)

107057 @ 훼. 자리훼, 방어훼, 이런 것들 먹어낫수과?(회, 자리돔회, 방어회, 이런 것들 먹었었습니까?)

107057 # 방어훼 아니허고 비께훼.(방어회 아니고 수염상어회.)

107057 @ 아, 비께훼 헹 먹어낫수과? 옛날에.(아, 수염상어회는 해서 먹었었습니까? 옛날에.)

107057 # 엿날에 세계 사름덜이 바당에 뎅기난 조팟 허민 불리젠. 우리 집이 물이 삼십 필 시민, 보리 허게 뒈민이 보리덜 비엉덜 보리 드러 허젠 헐 때에 멕에정 오랑. 세계 하르방이 져 ᄋᆞ져오민 아이고 뭐시꽝? 허민 아이구 시원히 훼 먹읍센 헤영 비께 ᄋᆞ져오민 그디서 가죽 다 베껑 오민이. 꽁다리 이렇게 무껑 저런 도

르 걸어.(옛날에 사계 사람들이 마당에 다니니까 조밭 하면 밟으려고. 우리 집에 말이 삼십 필 있으면, 보리 하게 되면 보리들 베어서 보리 들이 하려고 할 때에 멱서리에 져서 와서. 사계 할아버지가 져서 가져오면 아이고 뭡니까? 하면 아이구 시원히 회 먹으시라고 해서 수염상어 가져오면 거기서 가죽 다 벗겨서 오면. 꽁지 이렇게 묶어서 저런 '도르' 걸어.)

107057 @ 어디 걸어?(어디 걸어?)

107057 # 이거 영허젠 허민 도르, 도르엔 헌다.(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르', '도르'라고 한다.)

107057 @ 도르?('도르'?)

107057 # 응, 그레 영 못 박앙 걸민 먹지 기리우민 그거 칼로 강 ᄒᆞ쏠 그창인에 훼 헤영 먹곡 허민이 우리 집이 보리가 서너 눌썩 눌엉 허민 맥타기 사름덜 보리 조는 사름은 그 클 심젠 가와 벳겨 가네 뭣 벳겨 가네 헤도이 우리 집인 보리 헤당 탁 눌엇다 허민 그 맥타기 보리 뚜리는 사름덜 ᄌᆞ원헤영 와. 게민 그 사름덜 오민 아적이 나룩죽, 나룩죽 쒕은에 말채 쒕인에 보리 때리레 맥타기 사름덜 ᄋᆞ라이 와. 기계 보는 사름이영, 멕이는 사름이영 ᄋᆞ라이 오민 나룩죽 쒕은에.(응, 그리 이렇게 못 박아서 걸면 먹고 싶으면 그거 칼로 가서 조금 잘라서 회 해서 먹고 하면 우리 집에 보리가 서너 가리씩 가려서 하면 맥타기 사람들 보리 조는 사람들 그 기계 잡으려고 가죽 벗겨 가네, 뭣 벗겨 가네 해도 우리 집은 보리 해다가 탁 가렸다가 하면 그 맥타기 보리 때리는 사람들 자원해서 와.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아침에 쌀죽, 쌀죽 쑤어서 말째 쑤어서 보리 때리러 맥탁기 사람들 여럿 와. 기계 보는 사람이랑, 먹이는 사람이랑 여럿이 오면 쌀죽 쑤어서.)

107057 @ 나룩죽은 곤죽?('나룩죽'은 '곤죽'?)

107057 # 곤죽. 나룩으로 곤죽 쒕인에 사발 이만이헌 걸로 다 거령인에 식어. 웃가죽 이디 식엉인에 아이구 죽 문 식엄시메 먹으렌 허민 그 사름덜 먹엉 또 낮인 그 비께 허영 훼헤영 이만헌 다라로이 훼 허민 이 사름덜 어딜 옵데강이.('곤죽'. 벼로 '곤죽' 쑤어서 사발 이만큼 한 걸로 다 떠서 식혀. '웃가죽' 여기 식어서 아이구 죽 모두 식었으니 먹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먹어서 또 낮엔 수염상어 해서 회해서 이만큼 한 대야로 회 하면 이 사람들 어디를 오셨습니까.)

107057 @ 훼? 어떵헹? 그냥 궤기만 먹는 거?(회? 어떻게 해서? 그냥 고기만 먹는 거?)

107057 # 이디. 궤기에 문딱 하근 양님이영 다 썰어 놩게.(여기. 고기 모두 온갖 양념이랑 다 썰어 넣어서.)

107057 @ 하간 갖은 양념 놩.(온갖 갖은 양념 넣어서.)

107057 # 그 웨도 썰어 놓곡이 웨도 막 썰엉, 채소로 썰어 놓고 훼도 썰어 놓고 마늘이영 뭣이영 다 놩인에 삐져도 놓고 게민 이만한 다라로 허민 그 장남덜 두 사발썩 먹어. 경 허난 우린 보리 헤여와도 클 심으켄도 안허고 언제 뚜려 도렌도 아니형. 우리 보리눌 눈 거 닮으믄 클 임제가 언제 홀트쿠겐 허영.(그 외도 썰어 넣고

외도 막 썰어서, 채소로 썰어 넣고 회도 썰어 넣고 마늘이랑 뭐랑 다 넣어서 빻아 넣고 그러면 이만한 대야로 하면 그 장정들 두 사발씩 먹어. 그러니까 우린 보리 해와도 틀 잡겠다고도 않고 언제 때려 달라고도 않고. 우리 보릿가리 가린 거 같으면 틀 임자가 언제 홅겠냐고 해서.)

107057 @ 하하하.(하하하.)

107057 # 클 두 개 놩 홀트주게. 하나만도 아니형. 장남덜 빌엉, 클 두 개 혜영 줴우는 사름도 뜻나고 홀트는 사름도 뜻나고 이거 지치는 사름도 뜻나고 허멍 막 혜 놓으믄 ᄉᆞ뭇 고고리가 이만 허믄 ᄌᆞ원헹 우리 집엔 오더라게.(틀 두 개 놔서 홅지. 하나만도 않고. 장정들 빌려서, 틀 두 개 해서 죄는 사람 다르고 홅는 사람도 다르고 이거 끼얹는 사람 다르고 하면서 막 해 놓으면 사뭇 이삭이 이만 하면 자원해서 우리 집엔 오더라.)

107058 @ 거 말고는 또 반찬은 무신 반찬 헹 먹어낫수과? 옛날에.(거 말고 또 반찬은 무슨 반찬 해서 먹었었습니까? 옛날에.)

107058 # 그거벳긘, 무슨 자리 반찬이 촌에선 주로이. 자리젓 못헌 사름도 한한허여. 자리젓 못혜영 빌어당도 먹고.(그거밖엔. 무슨 자리돔 반찬이 촌에선 주로. 자리돔젓 못한 사람도 많아. 자리돔젓 못해서 빌어다가도 먹고.)

107058 @ 응, 주로 반찬이 자리젓이영?(응, 주로 반찬이 자리돔젓이랑?)

107058 # 응, 자리젯, 멜젯은 그거 목적, 밑반찬으로 다헤여. 게민 우린 자리젯은 헤여도 멜 반찬, 멜젯은 아니 헹은에 시에서 알개미젓, 그 고모가 허영 오랑.(응, 자리돔젓, 멸치젓은 그거 목적, 밑반찬으로 다 해. 그러면 우린 자리돔젓은 해도 멸치 반찬, 멸치젓은 안 해서 시에서 아가미젓, 그 고모가 해서 와서.)

107058 @ 응.(응.)

장

107059 @ 뒌장은 언제 담읍니까?(된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 뒌장은 이제 가을에 숣앗당 가을에 메주 숣앙 메주 숣앙 틔왕. 잘 ᄆᆞ리왕. 잘 ᄆᆞ리왕 ᄏᆞᆯ이 씻엉 놨당 섣ᄃᆞᆯ그믐날 이디론 섣ᄃᆞᆯ그믐날 허젠 허민 미릇 이제 장 담는 통개[147].(된장은 이제 가을에 삶았다가 가을에 메주 삶아서 메주 삶아서 띄워서. 잘 말려서. 잘 말려서 깨끗이 씻어서 놨다가 섣달그믐, 여기로는 섣달그믐 하려고 하면 미리 이제 장 담그는 '통개'.)

107059 @ 응.(응.)

107059 # 통개, 이제 장 담앙인에 큰 통개 장 담앙인에 준 그릇에 장물도 거리고 준 그릇에 그 뒌장도 거리민 그 큰 통개 씻엉 놔둘 거 아니라. 씻엉 놔두민 장 담젠 이젠 허젠 허민 그 검질로 그 황 안을 불 살롸근에 기시려.('통개', 이제 장 담가서 큰 '통개' 장 담가서 잔 그릇에 간장도 뜨고 잔 그릇에 그 된장도 뜨면 그 큰 '통개' 씻어서 놔둘 거 아니냐. 씻어서 놔두면 장 담그려고 이젠 하려고 하면 그 김

147) '통개'는 항아리의 일종이다.

으로 그 항아리 안을 불 사라서 그을려.)

107059 @ 아.(아.)

107059 # 기시렁인에 그 소독허는 거주게. 기시렁은에 이젠 식으민 ᄏᆞᆯ이 씻엉 어펑 놧당 소금을 허주게. 소금을 허젠 허민 다른 그릇에 소금을 막 ᄀᆞᆯ멍 계란 틔와.(그을려서 그 소독하는 거지. 그을려서 이젠 식으면 깨끗이 씻어서 엎어서 놨다가 소금을 하지. 소금을 하려고 하면 다른 그릇에 소금을 막 갈면서 계란 띄워.)

107059 @ 아.(아.)

107059 # 계란 하나 틔우민 계란이 저 노린 돈 구리전 돈 요마니 튼 거만 허게 ᄃᆞᆨ새기 동글동글허게 트민 간 맞아. 그것이 간 맞으민 섣ᄃᆞᆯ그믐날은 메주 미릇 씻어. ᄏᆞᆯ이 솔로 다끄멍 씻엉 ᄆᆞᆯ리왓당 섣ᄃᆞᆯ그믐날에 세벡일 허나, 섣ᄃᆞᆯ그믐날 헤지건 들이치나 허영 해 뜨기 전이 강 메주 들이쳥도 장 ᄃᆞᆼ그주게. 경헤영 장황 안에도 계란 하나 톡 ᄃᆞᆼ강 놔두민 돗수가 어느 정도 뒛구나 허민 간 맞앙. 그렇게 맛 좋아.(계란 하나 띄우면 계란 저 노란 돈 구리동전 돈 요만큼 뜬 거만큼 하게 달걀 동글동글하게 뜨면 간 맞아. 그것이 간 맞으면 섣달그믐에는 메주 미리 씻어. 깨끗이 솔로 닦으면서 씻어서 말렸다가 섣달그믐에 새벽엘 하나, 섣달그믐날 할 수 있으면 들이뜨리거나 해서 해 뜨기 전에 가서 메주 들이뜨려서도 장 담그지. 그렇게 해서 장독 안에도 계란 하나 톡 담가서 놔두면 도수가 어느 정도 됐구나 하면 간 맞아서. 그렇게 맛 좋아.)

107059 @ 소금은 얼만이 놔?(소금은 얼만큼 넣어?)

107059 # 그디서 장 흔 말이민 얼마 뒈는 거. 소금을 ᄀᆞᆯ아보민 알아져. 경 허난 요디 ○○이 삼춘 장 담앙줍서, 장 담앙줍서 허곤데 간 문 통개 불 기시리고 메주 흔 말 숢앙인에 섣ᄃᆞᆯ그믐날 강 ᄃᆞᆼ갓주게. 그디 들이쳥. 소금물 ᄀᆞᆯ아 놧다근에 들이쳥. 벳 나건 매날 널곡, 두께 열곡, 비만 오라가민 더끄라이 허난 알아수다 허연. 이제 또시 봄 나민 그거 거려사 헐 거라이. 섣ᄃᆞᆯ그믐날 헹 봄 나민 거리젠, 거리레 가난 장맛 좋아라. 장물 좁아보난 맛 좋난 장물 펭이 질어주고 개미장은 우선 급허게 먹으렌 헤연이.(거기서 장 한 말이면 얼마 되는 거. 소금을 갈아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요기 ○○이 삼촌 장 담가주세요, 장 담가주세요 하길래 가서 모두 '통개' 불 그을리고 메주 한 말 삶아서 섣달그믐 가서 담갔지. 거기 들이뜨려서. 소금물 갈아 놨다가 들이뜨려서. 볕 나면 매일 널고, 뚜껑 열고, 비만 와 가면 덮어라 하니까 알았습니다 해서. 이제 또 봄 되면 그거 떠야 할 거야. 섣달그믐 해서 봄 나면 뜨려고, 뜨러 가니까 장맛 좋더라. 간장 집어보니 맛 좋으니까 간장 병에 길어주고 된장은 우선 급하게 먹으라고 해서.)

107059 @ 개미장이 뭐?('개미장'이 뭐?)

107059 # 뒌장.(된장.)

107059 @ 아, 뒌장이 개미장.(아, 된장이 '개미장'.)

107059 # 뒌장은 임시 먹으렌 ᄒᆞ쏠 줘두고 집에서 또시 콩 흔 사발 숢아. 숢아지민 딱딱 삐져. 그 또시 콩 숢아난 물이영 ᄋᆞ져간에 뒌장. 임시 먹을 건 거려두고

그 뒌장 쪙 놔당인에 이 장 다 먹어지건 여름 나건 먹으렌 허난. 아이구 그 동네 사름 날 봐지난 장 맛 좋게 담앗젠 허멍 저 할망 맛 좋게 담으난 우리 빌어단 자리 훼도 헹 먹엇고렌 허멍.(된장은 임시 먹으라고 조금 줘두고 집에서 또 콩 한 사발 삶아. 삶으면 딱딱 빻아. 그 또 콩 삶았던 물이랑 가져가서 된장. 임시 먹을 건 떠 두고 그 된장 찧어서 놨다가 이 장 다 먹으면 여름 나면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구 그 동네 사람 나 보니까 장 맛 좋게 담갔다고 하면서 저 할머니 맛 좋게 담그니까 우리 빌려다가 자리돔회도 해서 먹었다고 하면서.)

107059 @ 뒌장을 거리민 메주를 거리민 또 다른 데 통개에다 또 놔?(된장을 뜨면 메주를 뜨면 또 다른 데 '통개'에다 또 놔?)

107059 # 그건 통개에 다 장물이영 다른 것에영 그 담아난 통개레 놓지게. 뒌장.(그건 '통개'에 다 간장이랑 다른 것에강 그 담았던 '통개'에 놓지. 된장.)

107059 @ 장물은?(간장은?)

107059 # 장물은 다른 폥에 질어.(간장은 다른 병에 길어.)

107059 @ 장물은 먼저 따로 폥에 질곡 경 그 통에.(간장은 먼저 따로 병에 긷고 그렇게 그 통에.)

107059 # 그 통에 그 말저. 그날 메주 솖은 거 집이서 삐졍 가주게, 콩 솖은 거 뻿곡. 콩 솖아난 물이영 바가쓰 ᄋᆞ정간에 ᄀᆞ찌 뒌장에 소금 ᄒᆞ쏠 놘.(그 통에 그 말째. 그날 메주 삶은 거 집에서 빻아서 가지, 콩 삶은 거 빻고. 콩 삶았던 물이랑 양동이 가져가서 같이 된장에 소금 조금 놨어.)

107059 @ 서꺼?(섞어?)

107059 # 쪈, 쪈에 망데기 딱 담앙 놔뒷당은에 그 거린 장 다 먹어지건 먹으렌 허난 그 동네 사름 날 봐지난 장 어떵 경 맛 좋게 담읍디겐 허멍 자리훼 허젠 허난 빌어당 먹노렌 ᄀᆞᆯ아라.(쪄서, 쪄서 '망데기' 딱 담아서 놔뒀다가 그 뜬 장 다 먹으면 먹으라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 나 보니까 장 어떻게 그렇게 맛 좋게 담갔냐고 하면서 자리돔회 하려고 하니까 빌려다가 먹는다고 말하더라.)

107059 @ 그 나중에, 뒌장 헐 때 콩 솖은 건 얼만이 놓은 거꽈?(그 나중에, 된장 할 때 콩 삶은 건 얼마만큼 넣는 겁니까?)

107059 # 하여튼, 콩 하영 솖으민 하영 솖지마는 콩 ᄒᆞᆫ 말쯤 장 담은 메주 담은 건 무시거 양재기로 ᄒᆞ쏠 하영 솖앙인에 문작이 솖앙 물이영 혜영 놩 솖앙인에 그거 삐져사 뿟앙인에 뒌장. 장물 거려두고 뒌장 임시 먹을 것도 넴겨두고 그것에 쪙 놔두민 익엉 경 맛 좋아.(하여튼, 콩 많이 삶으면 많이 삶지마는 콩 한 말쯤 장 담근 메주 담근 건 무엇 양재기로 조금 많이 삶아서 '문작이' 솖앙 물이랑 놔서 삶아서 그거 빻아야 빻아서 된장. 간장 떠두고 된장 임시 먹을 것도 남겨두고 그것에 쪄서 놔두면 익어서 그렇게 맛 좋아.)

107059 @ 그디 뭐 놓고 허는 건 엇수과?(거기 뭐 놓고 하는 건 없습니까?)

107059 # 놓는 거 엇어.(놓는 거 없어.)

107059 @ 아무것도 안 놔도 뒈어. 막 자랑헤여, 그 사름. 나 봐지민, 아이구 저

할망 장 담은 거 잘도 맛 좋아.(아무것도 안 놔도 돼. 막 자랑해, 그 사람. 나 보이면, 아이구 저 할머니 장 담근 거 아주 맛 좋아.)

107061 @ 고추장도 헙니까?(고추장도 합니까?)

107061 # 고치장도 경 허주게.(고추장도 그렇게 하지.)

107061 @ 고치장은 어떵 허는 거꽈?(고추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61 # 요새 고치장 신식으로 다 담는 모냥이라라.(요새 고추장 신식으로 다 담그는 모양이더라.)

107061 @ 이젠 다 사당 먹주마는 옛날은 고치장도 담앙 먹어낫수과?(이젠 다 사다가 먹지마는 옛날은 고추장도 담가서 먹었었습니까?)

107061 # 담안 먹엇지게.(담가서 먹었지.)

107061 @ 건 어떵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61 # 고치장도 그 저 뒌장 담는 것에 ᄀᆞ치 서꺼.(고추장도 그 저 된장 담그는 것에 같이 섞어.)

107061 @ 어떵?(어떻게?)

107061 # 뒌장, 콩 복삭허게 ᄒᆞᆯ이 뿟앙인에 이 고치ᄀᆞ루 서껑인에 간 맞게 쪙인에 놔두민 썩어.(된장, 콩 복삭하게 깨끗이 빻아서 이 고춧가루 섞어서 간 맞게 쪄서 놔두면 썩어.)

107061 @ 메주 헤난 거?(메주 했던 거?)

107061 # 응. 메주, 메주 그 장 담은 거.(응. 메주, 메주 그 장 담근 거.)

107061 @ 장 담은 거, 뒌장 메주 헤난 그 뒌장에다가.(장 담근 거, 된장 메주 했던 그 된장에다가.)

107061 # 메주채 들이치주게. 들이쳥 익으민 그 뒌장. 개미장 건졍인에 고치ᄀᆞ루영 ᄀᆞ치 쪙인에 근 맞게 헹 놔두민 고치장이 뒈더라게.(메주째 들이뜨리지. 들이뜨려서 익으면 그 된장. 된장 건져서 고춧가루랑 같이 쪄서 간 맞게 해서 놔두면 고추장이 되더라.)

107061 @ 아, 뒌장이영 서껑 허는 거구나예? 고추장은예?(아, 된장이랑 섞어서 하는 거군요? 고추장은요?)

107061 # 응, 서껑도 허고 고치장만도 허는 사름도 이서. 고치장만 헌 건 등겁지 아니혀.(응, 섞어서도 하고 고추장만도 하는 사람도 있어. 고추장만 한 건 '등겁지' 않아.)

107062 @ 메주는 어떵헤근에 만드는 거마씨?(메주는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107062 # 메주는 콩 숢지게.(메주는 콩 삶지.)

107062 @ 가을 들엉 콩 나민 콩 숢아?(가을 들어서 콩 나면 콩 삶아?)

107062 # 콩 숢앙인에 무슨것에 놩 막 뿟주게.(콩 삶아서 무엇에 놔서 막 빻지.)

107062 @ 무신거에? 도고리에?(무엇에? 함지박에?)

107062 # 게. 도고리에 놔놩 막 뿟으민 영 줴영 놔두주게. 줴영 메주 멘들주게.

메주 멘들앙인에.(그렇지. 함지박에 놓고 막 빻으면 이렇게 쥐어서 놔두지. 쥐어서 메주 만들지. 메주 만들어서.)

107062 @ 어디 걸어 놔둬?(어디 걸어서 놔둬?)

107062 # 응, 이제 다마네기 망사덜 잇잖아.(응, 이제 양파 망사들 있잖아.)

107062 @ 옛날에, 그거 엇일 때?(옛날에, 그거 없을 때?)

107062 # 그거 엇은 때 찝겁, 찝. 영 삼발이로 놩 이레 톡 놩. 하나 놩인에 그거 멘든 거 하나 놩 그레 동그락허게 허영 이 새에 놩 메주 두 덩어리 놩 똑 졸라메영 돌아멧주게. 돌아메영 틔와. 그 메주가 썩어야 썩어근에 장 담젠 허민 그거 ᄂᆞ령은에 씻엉 ᄆᆞᆯ령인에.(그거 없을 때. 짚, 짚. 이렇게 삼바리로 놔서 이리 톡 놔서. 하나 놔서 그거 만든 거 하나 놔서 그리 동그랗게 해서 이 사이에 놔서 메주 두 덩어리 놔서 똑 졸라매어서 달아맸지. 달아매서 띄워. 그 메주가 썩어야 썩어서 장 담그려고 하면 그거 내려서 씻어서 말려서.)

107062 @ 아, 다시 곰팡이 닮은 거 슨 건 다 시쳥은에, 다 시쳥은에 다시 또 ᄆᆞᆯ령?(아, 다시 곰팡이 같은 거 슨 건 다 씻어서, 다 씻어서 다시 또 말려서?)

107062 # 응, 씻엉인에 ᄆᆞᆯ림도 허곡 막 ᄆᆞᆯ리주게, 씻젠 허민 바싹 ᄆᆞᆯ령인에 ᄏᆞᆯ이 씻엉 그 물기 엇이 또 ᄆᆞᆯ려야 허주게. ᄆᆞᆯ령 통개레 들이쳥 소금은 들이쳥인에 소금을 들이치민이 계란을 하나 톡 들이쳐 보민이 계란이 돈만헌 동글동글 트민 간 맞아. 하나 족으나. 족은 것도 계란 들이쳥 터보민 간 맞곡.(응, 씻어서 말리기도 하고 막 말리지, 씻으려고 하면 바싹 말려서 깨끗이 씻어서 그 물기 없이 또 말려야 하지. 말려서 '통개'에 들이뜨려서 소금은 들이뜨려서 소금을 들이뜨리면 계란을 하나 톡 들이뜨려 보면 계란이 돈만큼 동글동글 뜨면 간 맞아. 많거나 적거나. 적은 것도 계란 들이뜨려서 띄워보면 간 맞고.)

107062 @ 그 메주, 어디 찰리에 담앙은에 막 ᄇᆞᆯ랑은에 헨게마는?(그 메주, 어디 자루에 담아서 막 밟아서 하던데마는?)

107062 # 찰리에 담앙도 허곡 그냥 도고리에서 마께로 ᄆᆞᆺ앙도 멘들곡. 경헌다게.(자루에 담아서도 하고 그냥 함지박에서 방망이로 마서도 만들고. 그런다.)

107063 @ 혹시 장 담글 때 뭰장헐 때 이런 거 허민 안뭰다 허는 거 이수과? 뭐 허민 안 뭰다. 장 담을 때 뭐 앗아 뎅기민 안 뭰다, 이런 거.(혹시 장 담글 때 된장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장 담글 때 뭐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거.)

107063 # 그런 말은 없고.(그런 말은 없고.)

107063 @ 장은 어떤 날 담아야 뭰다. 닭날? 이런 날 엇어?(장은 어떤 날 담아야 된다. 닭날? 이런 날 없어?)

107063 # 응, 그 그냥 존 날 봥인에 담아. 토께날 ᄀᆞ튼디. 그자.(응, 그 그냥 좋은 날 봐서 담아. 토끼날 같은데. 그저.)

107063 @ 토께날 ᄀᆞ튼 날?(토끼날 같은 날?)

107063 # 그냥. 모날 ᄀᆞ튼 날 들이치는디 이 쉐날에 들이치민 느치름[148]. 장이

느치름 뭰덴 헤여.(그냥. 모날 같은 날 들이뜨리는데 이 소날에 들이뜨리면 '느치름'. 장이 '느치름' 된다고 해.)

107063 @ 쉐날은 허문 안 뒈는 거?(소날은 하면 안 되는 거?)

107063 # 경헌덴. 경 허민 영헹 섣돌그믐날은 날도 아이 보곡, 음력으로 섣돌그믐날.(그런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섣달그믐은 날도 안 보고, 음력으로 섣달그믐.)

107063 @ 예.(예.)

107063 # 소금물 미릇 허영 소금물 골앙. 이젠 계란 틔와보민 동글동글 우이터. 튄 냥 내불엇당 이제 섣돌그믐날은 메주가 장 담는 통개레 비왕인에 또시 그 계란도 그리 들이쳥 놔두민 제대로 경 뒈는 거.(소금물 미리 해서 소금물 갈아서. 이젠 계란 띄워보면 동글동글 위에 떠. 띄운 대로 내버렸다가 이제 섣달그믐은 메주가 장 담는 '통개'에 비워서 또 그 계란도 그리 들이뜨려서 놔두면 제대로 그렇게 되는 거.)

떡

107064 @ 떡은 무신 떡, 무신 떡 이수과?(떡은 무슨 떡, 무슨 떡 있습니까?)

107064 # 떡은 무신 떡. 침떡은 빗떡이고.(떡은 무슨 떡. 시루떡은 '빗떡'이고.)

107064 @ 침떡도 잇고.(시루떡도 있고.)

107064 # 새미도 새민 줍고.('새미'도 '새미'는 접고.)

107064 @ 또.(또.)

107064 # 중게[149].('중게'.)

107064 @ 중게도 잇고.('중게'도 있고.)

107064 # 중게는 영 소랑헌 떡. 약궤[150]는 넓은 떡. 솔벤은 또시 반둘. 또시 동그락헌 떡은 절벤.('중게'는 이렇게 기름한 떡. '약궤'는 넓은 떡. '솔벤'은 또 반달. 또 동그란 떡은 절편.)

107064 @ 절벤.(절편.)

107064 # 응, 절벤.(응, 절편.)

107064 @ 침떡, 새미, 중게, 약궤.(시루떡, '새미', '중게', '약궤'.)

107064 # 솔벤, 절벤, 침떡. 빗떡.('솔벤', 절편, 시루떡. '빗떡'.)

107064 @ 침떡은 빗떡. 절벤, 송펜?(시루떡은 '빗떡'. 절편, 송편?)

107065 # 송펜은 또시 그냥 안에 쉬 담는 거 송펜.(송편은 또 그냥 안에 소 담는 거 송편.)

107065 @ 쉬 담는 건 송펜. 차례대로예, 먼저 침떡은 어떵 헹 치는 거꽈?(소 담

148) '느치름'은 어린아이나 소가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을 말한다.

149) '중게'는 표준어의 '중계, 중계과, 중베끼'와 비슷하지만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다른 지역의 '중계'가 밀가루를 꿀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네모지게 잘라 기름에 지져 만드는 유밀과의 하나인데 제주 지역에서는 좁쌀 가루나 메밀 가루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기거나 쪄낸 떡을 말한다.

150) '약궤'는 표준어의 '약과'에서 온 말로 다른 지역과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다른 지역의 약과는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이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좁쌀 가루나 메밀 가루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넓게 만들어 기름에 튀기거나 쪄낸 떡을 말한다.

는 건 송편. 차례대로요, 먼저 시루떡은 어떻게 해서 찌는 겁니까?)

107065 # 침떡은 이제 강 ᄀᆞ르 ᄀᆞᆯ아당.(시루떡은 이제 가서 가루 갈아다가.)

107065 @ 무신 ᄀᆞ루? 쏠?(무슨 가루? 쌀?)

107065 # 기계에 ᄀᆞᆯ아당.(기계에 갈아다가.)

107065 @ 쏠로 헤? 조로 헤? 산뒤쏠로 헙니까? 좁쏠로 헙니까?(쌀로 해? 조로 해? 밭벼쌀로 합니까? 좁쌀로 합니까?)

107065 # 좁쏠로, 곤쏠로도 허는 거.(좁쌀로, 흰쌀로도 하는 거.)

107065 @ 옛날에 헤난 건?(옛날에 했던 건?)

107065 # 엿날에 좁쏠 물 컷당 기계에 강 ᄀᆞᆯ아당.(옛날에 좁쌀 물 담갔다가 기계에 가서 갈아다가.)

107065 @ 기계 엇일 때.(기계 없을 때.)

107065 # 기계 엇은 때 아니, 기계에 엇인 때 엇엇어.(기계 없을 때 아니, 기계 없을 때 없었어.)

107065 @ ᄀᆞ레에 ᄀᆞᆯ앙 안 헤?(맷돌에 갈아서 안 해?)

107065 # 아니, ᄀᆞ레에 ᄀᆞᆯ앙은 아니혀고. 좁쏠은 엿날엔 저 좁쏠 물 컷당 방에에서 물ᄀᆞ레서 삐지멍 체로 쳐. 체로 쳥인에 떡헐 때. 체로 쳥인에 침떡 시리에 놓고 곤쏠도 방에, 연자방에에서 ᄀᆞᆯ앙인에 또시 시리에.(아니, 맷돌에 갈아서는 않고. 좁쌀은 옛날엔 저 좁쌀 물 담갔다가 방에서 연자매에서 빻아서 채로 쳐서 떡할 때. 체로 쳐서 시루떡 시루에 놓고 흰쌀도 방아, 연자매에서 갈아서 또 시루에.)

107065 @ 시리에 치젠 허민 시리에 달달달 털어져불지 안헤? 막아야 뒈지 안허여? 시리 고냥.(시루에 찌려고 하면 시루에 달달달 떨어져버리지 않아? 막아야 되지 않아? 시루 구멍.)

107065 # 고냥, 시리 고냥은.(구멍, 시루 구멍은?)

107065 @ 뭘로 막아?(뭘로 막아?)

107065 # 요즘 험벅으로 ᄀᆞ는디 그땐 방풍이엔 헌 거 셔, 방풍잎. 방풍잎이나 반칫잎도 싯고. 반칫잎 커다랑헌 거 이만은 헌 거, 반칫잎. 엿날에덜 헤당인에 거치졍 시리 고망 막아. 시리 고망 놩인에 그레 흔 죽 허젠 허민 영 뒈로 거렁 영 놩인에 골로로 놩 그레 또시 쉬 서껑 또 ᄀᆞ루 놩 허멍.(요즘 헝겊으로 까는데 그땐 방풍이라고 한 거 있어, 갯기름나물잎. 갯기름나물잎이나 파초잎도 있고. 파초잎 커다란 거 이만큼은 한 거, 파초잎. 옛날에들 해다가 거 찢어서 시루 구멍 막아. 시루 구멍 놔서 그리 한 모금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로 떠서 이렇게 놔서 골고루 놔서 그리 또 고물 섞어서 또 가루 넣어서 하면서.)

107065 @ 무신 쉬 놉니까?(무슨 고물 넣습니까?)

107065 # 풋쉴 허나 녹두쉴 허나 허영 또 허곡 또 허곡 허영 시리 이빠이 허민 들러당인에 치는 거주게.(팥고물을 하거나 녹두고물을 하거나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시루 가득 하면 들어다가 찌는 거지.)

107065 @ 다 쳐지민 이젠?(다 쪄지면 이젠?)

107065 # 다 쳐지민 들러당인에 이젠 이거 페우민 그레 팍 어펑 오꼿 들렁은에 식으민 비는 거주. 비어가민 쉬 논 챙기 챙기마다 ᄌᆞ근ᄌᆞ근 아사져.(다 쪄지면 들어다가 이젠 이거 펴면 그리 팍 엎어서 전부 들어서 식으면 베는 거지. 베어가면 고물 놓은 켜 켜마다 차근차근 가질 수 있어.)

107065 @ 침떡은 어떵헐 때 헹 먹는 거마씨?(시루떡은 어떻게 할 때 해서 먹는 거예요?)

107065 # 침떡은 소, 대상헐 때 허는 거주. 아무 때나 침떡 허는 거 아니여게.(시루떡은 소, 대상할 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시루떡 하는 거 아니야.)

107065 @ 소, 대상헐 때만.(소, 대상할 때만.)

107065 # 응, 엿날엔 소, 대상허젠 허민이 좁쏠 ᄒᆞᆫ 섬썩 ᄀᆞᆯ앙. 얼마나 ᄒᆞ루 종일 그 시리로 큰 말치 시리로 들러당 비우곡. 아이구 그거 아무나 말치 시리 들러지카부덴. 들러당 비우민.(응, 옛날엔 소, 대상하려고 하면 좁쌀 한 섬씩 갈아서. 얼마나 하루 종일 그 시루로 큰 말치 시루로 들어다가 붓고. 아이고 그거 아무나 말치 시루 들 수 있을까 봐. 들어다가 부으면.)

107065 @ 두 말치? 시 말치?(두 말치? 세 말치?)

107065 # 말치 시리로.(말치 시루로.)

107065 @ 한 말 헤지는 거? 한 번 허민?(한 말 할 수 있는 거? 한 번 하면?)

107065 # ᄒᆞᆫ 말치 더 드는 거주게. 게 말치 시리 이만이 큰 거. 큰 말치 앚졍 허는 거. 다두테기 허는 건 간단허게 들러지는디 말치 앚지는 건 이만한 것에. 하영 떡허는 집인 좁쏠 ᄒᆞᆫ 섬, 열 닷 말썩 떡헤낫어. 곤쏠도 열 말썩 허고.(한 말치 더 드는 거지. 그러게 말치 시루 이만큼 큰 거. 큰 말치 안쳐서 하는 거. 두되들이 하는 건 간단하게 들 수 있는데 말치 안치는 건 이만한 것에. 많이 떡하는 집엔 좁쌀 한 섬, 열 닷 말씩 떡했었어. 흰쌀도 열 말씩 하고.)

107066 @ 송편은 어떵 헹 허는 거마씨?(송편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107066 # 송펜은 이제 ᄀᆞ레 ᄀᆞᆯ아당인에 반죽허주게, 반죽허영은에 반죽 물 맞게 허영, 이젠 ᄒᆞ끔썩 줍앙인에 이제 동글렉이 멘들앙, 이제 영영 멘들앙, 이레 이제 쉬 담아.(송편은 이제 맷돌에 갈아다가 반죽하지, 반죽해서 반죽 물 맞게 해서, 이젠 조금씩 집어서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리 이제 소 담아.)

107066 @ 무신 쉬 담아?(무슨 소 담아?)

107066 # ᄑᆞᆺ쉴 담으나 콩쉴 담으나, 경 허곡 요즘은 설탕도 놧더라. 이디 헤영 영영영 멘졍은에 송펜 영 줍앙인에 잇당 놧당 바대[151]에 놩인에 치는 것ᄀᆞ라 송펜.(팥소 담거나 콩소 담거나, 그렇게 하고 요즘은 설탕도 놨더라. 여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서 송편 이렇게 접어서 있다가 놨다가 경그레 놔서 찌는 것 보고 송편.)

151) '바대'는 솥에 무엇을 찔 때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으로 놓는 물건인 경그레의 의미로 쓰였다. 보통 다른 물건의 밑에 대는 '받침'의 의미로 쓰이는데 옷에서는 쉽게 해지는 곳에 헝겊 등을 덧붙이는 헝겊을 가리키기도 한다.

107066 @ 바대에 놩은에 쳐. 쳐나민?(겅그레에 놔서 쪄. 찌고 나면?)

107066 # 쳐나민 들어당 비왕인에 식엉인에 이른 디 널주게. 새 허영이 널민 식으민. 이젠 상헌 건 상헌 대로 아이 상헌 건 손에 지름 볼르멍 영영 헤영 즉근즉근.(찌고 나면 들어다가 비워서 식어서 이런 데 널지. 띠 해서 널면 식으면. 이젠 상한 건 상한 대로 안 상한 건 손에 기름 바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107066 @ 무신 지름?(무슨 기름?)

107066 # 춤지름게.(참기름.)

107066 @ 응. 송펜은 언제 헹 먹는 거?(응. 송편은 언제 해서 먹는 거?)

107066 # 송펜은 이 제ᄉᆞ 때에 허는 거주게.(송편은 이 제사 때에 하는 거지.)

107066 @ 제사 때에 허는 거.(제사 때에 하는 거.)

107066 # 게. 제ᄉᆞ 때에 큰 집이 크게 허는 딘이 송펜 아니 허영인에 침떡 허고 절벤, 솔벤 허영인에 허여. 솔벤은이 놀ᄀᆞ루 쪙인에 솔썹 닮은 거 요영 헤영 쪙 내영이. 떠내영인에 물에서 강인에 솖으멍 건지고.(그렇지. 제사 때에 큰 집에 크게 하는 덴 송편 안 해서 시루떡 하고 절편, '솔벤' 해서 해. '솔벤'은 날가루 쪄서 솔잎 같은 거 요렇게 해서 쪄서 내어서. 떠내어서 물에서 가서 삶으면서 건지고.)

107074 @ 본으로 영 터내는 거?(떡살로 이렇게 떠내는 거?)

107074 # 응, 본으로 떠내어, 본 서, 솔벤본 이서. 딱 솔잎 닮으게 본 딱 떠. 절벤이엔 헌 건이 또 이제 ᄀᆞ루로 쪙 동글동글 허영 두 개 짝 체와. 두 개 딱 체왕 절벤이엔 헌 건 동글락한 절벤이엔 헌 건 꼭 누들어. 꼭 누들민 절벤. 솔벤 우터레 놓는 거.(응, 떡살로 떠내어, 떡살 있어, '솔벤본' 있어. 딱 솔잎 같이 떡살 딱 떠. 절편이라고 한 건 또 이제 가루로 쪄서 동글동글 해서 두 개 짝 채워. 두 개 딱 채워서 절편이라고 한 건 동그란 절편이라고 한 건 꼭 눌러. 꼭 누르면 절편. '솔벤' 위에 놓는 거.)

107074 @ 솔벤은 반짝짜리? 반달 모양?('솔벤'은 반쪽짜리? 반달 모양?)

107074 # 솔벤은 반달 모냥.('솔벤'은 반달 모양.)

107073 @ 절벤은 동글락헌 거? 두 개 영 붙이는 거예?(절편은 동그란 거? 두 개 이렇게 붙이는 거요?)

107073 # 응.(응.)

107073 @ 중게, 약궤는 어떵 허는 거?('중게, 약궤'는 어떻게 하는 거?)

107078 # 중게, 약궤는 그걸로이 중겐 영 진 거.('중게', '약궤'는 그걸로 '중게'는 이렇게 긴 거.)

107078 @ 뭘로 허는 거라?(뭘로 하는 거야?)

107078 # 곤쏠.(흰쌀.)

107078 @ 곤쏠로?(흰쌀로?)

107078 # 모멀쏠로도 허고 모멀ᄏᆞ루도 허곡.(메밀쌀로도 하고 메밀가루로도 하고.)

107078 @ 곤쏠로도 허고?(흰쌀로도 하고?)

107078 # 곤쏠로도 허곡. 요즘은 모멀 엇이난 곤쏠로 주로 허영. 약궤는 ᄒᆞ쏠 넓은 거. 니귀방장헌 거, 약궤.(흰쌀로도 하고. 요즘은 메밀 없으니까 흰쌀로 주로 해서. '약궤'는 조금 넓은 거. 네모반듯한 거, '약궤'.)

107078 @ 그건 어떵 헹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78 # 그거 또 약궤엔 헌 것도 저 곤쏠 ᄀᆞ루로 멘들앙인에 밀엉인에 중게 어느 정도 허여지민 우선 약궤부터 문저 허여.(그거 또 '약궤'라고 한 것도 저 흰쌀 가루로 만들어서 밀어서 '중게' 어느 정도 하면 우선 '약궤'부터 먼저 해.)

107078 @ 약궤부터?('약궤'부터?)

107078 # 니귀방장헌 거부떠 문저 허당 그 지끄레기로 또 소랑헌 건 중게지게. 중게 멘들아.(네모반듯한 거부터 먼저 하다가 그 나머지로 또 기름한 건 '중게'지. '중게' 만들어.)

107078 @ 이거 언제 헹 먹는 거꽈?(이거 언제 해서 먹는 겁니까?)

107078 # 어떵 헹 먹어. 솖앙인에 시리에서 솔썹 놓으멍[노멍] 흔 징 놓고 솔썹 놓으멍[노멍] 흔 징 놓고.(어떻게 해서 먹어. 삶아서 시루에서 솔잎 놓으면서 한 켜 놓고 솔잎 놓으면서 한 켜 놓고.)

107078 @ 시리에 치는 거?(시루에 찌는 거?)

107078 # 시리에 쳥인에 비왕인에 이젠 다라레 어프지. 시리채 어펑. 그 시리 앗아동 그레 물 놩 영영 허영 솔썹 건져두고 솔잎떡 영허고 절벤은 그냥 ᄀᆞ루로 익영. 돌레 멘드랑.(시루에 쪄서 부어서 이젠 대야에 엎지. 시루째 엎어서. 그 시루 가져두고 그리 물 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솔잎 건져두고 솔잎떡 이렇게 하고 절편은 그냥 가루로 익혀서. 도래 만들어서.)

107078 @ 중게, 약궤?('중게, 약궤'?)

107078 # 게메. 그걸로 놀떡으로.(글쎄. 그걸로 날떡으로.)

107078 @ 지름 불라, 것도?(기름 발라, 그것도?)

107078 # 놀떡으로 지름. 놀떡으로 멘들앙 또시 물에 들이쳥인에 그 솔썹 놓으멍 익이나 허영인에 쳥. 익은 이상은 식은 이상엔 지름 불라.(날떡으로 기름. 날떡으로 만들어서 또 물에 들이뜨려서 그 솔잎 놓으면서 익히거나 해서 쪄서. 익은 이상은 식은 이상엔 기름 발라.)

107078 @ 아, 중게, 약궤는 모멀쏠이나 아니면 그냥 쏠로?(아, '중게, 약궤'는 메밀쌀이나 아니면 그냥 쌀로?)

107078 # 응.(응.)

107078 @ 쌀로 헤 가지고 물에 들이치나 아니민 시리에 치나.(쌀로 해 가지고 물에 들이뜨리거나 아니면 시루에 찌거나.)

107078 # 약궨. 저 이 절벤은 그냥 ᄀᆞ루로 쪙인에 동글레기 멘들앙 절벤은 멘드는 디, 중게, 약궤는 ᄀᆞ루로 쪙, 약궨 영 소랑헌 거이. 또 중게도 소랑 중겐.('약궤'는. 저 이 절편은 그냥 가루로 쪄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절편은 만드는데. '중게, 약궤'는 가루로 쪄서, '약궤'는 이렇게 기름한 거. 또 '중게'도 기름 '중게'는.)

107078 @ 중게가 소랑헌 거. 약궨 네모방장헌 거.(‘중게’가 기름한 거. ‘약궤’는 네모반듯한 거.)

107078 # 약궤는 니귀방장헌 거. 기추룩 허여. 솔벤은 영 또시 반둘 닮은 거.(‘약궤’는 네모반듯한 거. 그렇게 해. ‘솔벤’은 이렇게 또 반달 같은 거.)

107078 @ 중게, 약궤. 솔벤, 절벤은 알겟는데 중게, 약궤는 뭐가 그거는 저.(‘중게, 약궤’. ‘솔벤’, 절편은 알겠는제 ‘중게, 약궤’는 뭐가 그거는 저.)

107078 # 모멀쏠로 허는 거주.(메밀쌀로 하는 거지.)

107078 @ 영 트는 거꽈, 아니면 본으로 트는 거꽈? 아니면 손으로 영 멘드는 것꽈?(이렇게 뜨는 겁니까, 아니면 본으로 뜨는 겁니까?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107078 # 손으로. 중게, 약궤는 그냥 밀엉. 밀엉인에 소랑헌 건 중게. 니귀방장은 약궤. 칼로 썰어.(손으로. ‘중게, 약궤’는 그냥 밀어서. 밀어서 기름한 건 ‘중게’. 네모반듯은 ‘약궤’. 칼로 썰어.)

107078 @ 칼로 썰어.(칼로 썰어.)

107078 # 솔벤은 본으로 뜨고 절벤도 동그락허영 두 개 부쩡인에 절벤 본으로 누들고.(‘솔벤’은 떡살로 뜨고 절편도 동그래서 두 개 붙여서 절편판으로 누르고.)

107078 @ 거난. 중게, 약궤는 제삿날 쓰는 거 아니면?(그러니까. ‘중게, 약궤’는 제삿날 쓰는 거 아니면?)

107078 # 소상날도 쓰는 거.(소상날도 쓰는 거.)

107078 @ 이건 소상날 쓰는 거?(이건 소상날 쓰는 거?)

107078 # 소상날도 다 그거 치는 거. 큰집이 큰하르방넨 식게에도 중게, 약궤, 절벤, 솔벤 다.(소상날도 다 그거 찌는 거. 큰집의 큰할아버지넨 제사에도 ‘중게’, ‘약궤’, 절편, ‘솔벤’ 다.)

107078 @ 아, 식게에도 허여.(아, 제사에도 해.)

107078 # 절벤, 솔벤 다 허여.(절편, ‘솔벤’ 다 해.)

107078 @ 중게, 약궤도 허곡.(‘중게’, ‘약궤’도 하고.)

107075 # 대종손칩인 다 그거 쳐. 엿날에 그 동그락 떡 절벤 우이 엿 주베기 허영 똑허게.(대종손집엔 다 그거 쪄. 옛날에 그 동그란 떡 절편 위에 엿 수제비 해서 똑하게.)

107075 @ 그건 무신거꽈?(그건 무엇입니까?)

107075 # 동그락허게시리 요만헌 동그락허게 멘들앙, 엿 멘드는 디 강 톡 줍아당 그 절벤 동그락헌 거 절벤 잇저, 그레 톡 하나 놔.(동그랗게끔 요만한 동그랗게 만들어서, 엿 만드는 데 가서 톡 집어다가 그 절편 동그란 거 절편 있어, 그리 톡 하나 놔.)

107075 @ 무사 놓는 거?(왜 놓는 거?)

107075 # 그거 대종손칩인 허더라.(그거 대종손집은 하더라.)

107075 @ 대종손칩이?(대종손집?)

107075 # 너네 하르방네 집인 그거 허영 헐 철인디 그런 거 아니 허더라.(너희 할아버지네 집엔 그거 해서 할 차례인데 그런 거 안 하더라.)

107075 @ 소상 때 허는 게 아니고 식게 때도? 멩질 때도?(소상 대 하는 게 아니고 제사 때도? 명절 때도?)

107075 # 멩질 때.(명절 때.)

107075 @ 아, 이건 멩질 때. 무신 떡이엔 골아?(아, 이건 명절 때. 무슨 떡이라고 말해?)

107075 # 동그락 떡 아니. 지름떡. 지름떡. 요만썩허게 동글동글동글허게 멘들앙 인에 그 엿허영 저 감저허영 딸리민 엿 뒈주게. 그것에 좁앙 톡톡 놓으민[노민] 멩질 먹으레 가민 그 상에도 그거 다 올리는 디 늙은 어른신뒨 그 떡을 절벤 우이 동그락 떡 위의 하나 놓는디 그냥 하가지 아이덜은 그런 거 주도 아니혀. 아무나 주도 아니혀. 게곡 대중손칩이 그거 허주, 아무 집이나 그것 허도 아니혀.(동그란 떡 아니. 기름떡. 기름떡. 요만큼씩하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그 엿해서 저 고구마해서 달이면 엿 되지. 그것에 집어서 톡톡 놓으면 명절 먹으러 가면 그 상에도 그거 다 올리는 데 늙은 어른에겐 그 떡을 절편 위에 동그란 떡 위에 하나 놓는데 그냥 하가지 아이들은 그런 거 주지도 않아. 아무나 주지도 않아. 그리고 대종손집에 그거 하지, 아무 집이나 그것 하지도 않아.)

107075 @ 절변 위의 놓는 쪼끌락헌 거예?(절편 위에 놓는 조그마한 거요?)

107075 # 엿떡.('엿떡'.)

107075 @ 엿떡.('엿떡'.)

107075 # 우리 웨가에 경 웨할르방 집이 가민 그거 그 떡 허민 그 떡만 하나 얻어먹젠 ᄉᆞ뭇 하르방 얼굴러레 훌떡훌떡 붸려가민 말쩬 불렁인에 주곡.(우리 외가에 그렇게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거.(우리 외가에 그렇게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거 그 떡 하면 그 떡만 하나 얻어먹으려고 사뭇 할아버지 얼굴로 '훌떡훌떡' 보면 말째는 불러서 주고.)

107078 @ 새미떡은 어떤 거꽈?('새미떡'은 어떤 겁니까?)

107078 # 새미떡은 또시 ᄀᆞ루 쪙인에 밀엉인에. 이영 헌 본이 이서. 본 시민 동그락허게 뜨주게. 동그락허게 떵. 그거 영 오그리민 새미떡 뒈는 거.('새미떡'은 또 가루 쪄서 밀어서. 이렇게 한 떡살이 있어. 떡살 있으면 동그랗게 뜨지. 동그랗게 떠서. 그거 이렇게 오그리면 '새미떡' 되는 거.)

107078 @ 아, 반달 모양으로. 조개 송펜추룩?(아, 반달 모양으로. 조개 송편처럼?)

107078 # 응.(응.)

107078 @ 속에 쉬는 뭐 놔?(속에 소는 뭐 넣어?)

107078 # 풋을 놓나.(팥을 넣거나.)

107072 @ 은절미는 뭐꽈?('은절미'는 뭡니까?)

107072 # 은절미는 중게, 약궤에 들어가는 거. 은절미주게.('은절미'는 '중게', '약

궤'에 들어가는 거. '은절미'지.)

107072 @ 중게, 약궤추룩 허는 게 은절미. 은절미는 따로 잇는 건 아니고 중게 약궤 잇는 거.('중게', '약궤'처럼 하는 게 '은절미'. '은절미'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중게', '약궤' 있는 거.)

107072 # 응.(응.)

107067 @ 빙떡?(빙떡?)

107067 # 빙떡은 모멀ᄀᆞ루 허영인에 후라이판에 ᄀᆞ루 탁허게 거려놩 뒈민 확 걷어당 탁 놓으민[노민] 무수 채소 허영인에 풀풀 감으민 빙떡.(빙떡은 메밀가루 해서 프라이팬에 가루 탁하게 떠놔서 되면 확 걷어다가 탁 놓으면 무 채소 해서 '풀풀' 감으면 빙떡.)

107067 @ 무수 채소 헤근에.(무 채소 해서.)

107067 # 무수 채소.(무 채소.)

107067 @ 무수만 놔? 무수에 무신거 놔?(무만 넣어? 무에 무엇 넣어?)

107067 # 무수에 ᄂᆞ물 채소 썰엉인에 데왕인에 그레 마늘도 놓곡 꿰도 서끄곡 허영 그거 톡 좁아놩 톡허게 ᄆᆞᆯ민 빙떡.(무에 나물 채소 썰어서 데쳐서 그리 마늘도 놓고 깨도 섞고 해서 그거 톡 집어놔서 톡하게 말면 빙떡.)

107067 @ 어떵헐 때 먹는 거꽈? 빙떡은?(어떻게 할 때 먹는 겁니까? 빙떡은?)

107067 # 그 제ᄉᆞ 때도 허여.(그 제사 때도 해.)

107067 @ 제ᄉᆞ 때도 허여.(제사 때도 해.)

107067 # 응. 다른 떡 아니허영 그것 딱 하나 허는 집도 셔.(응. 다른 떡 않고 그것 딱 하나 하는 집도 있어.)

107067 @ 아.(아.)

107067 # 풋도 놩인에 풋 솖앙 풋도 뿟앙인에 그디 놓으민[노민].(팥도 넣어서 팥 삶아서 팥도 빻아서 거기 넣으면.)

107067 @ 아, 빙떡 안에 풋도 놓는 디도 이서마씨?(아, 빙떡 안에 팥도 넣는 데도 있어요?)

107067 # 풋 놓는 디도 이서. 무수 철 엇엉인에 허민, 경 허민. 무수 논 것이 제일 맛 좋주게. 무수.(팥 넣는 데도 있어. 무 철 없어서 하면, 그러면. 무 넣은 것이 제일 맛 좋지. 무.)

107067 @ 무수 놓는 게 맛 좋아예? 모멀은 무수허고 맞나봐예?(무 넣는 게 맛 좋아요? 메밀은 무하고 맞나봐요?)

107067 # 응, 모멀은.(응, 메밀은.)

107068 @ 상웨떡?(상화떡?)

107068 # 상웨떡은 쪙인에 저 무시거 보시로 톡허게 트민 반ᄃᆞᆯ이 뒈주게.(상화떡은 쪄서 저 무엇 보시기로 톡하게 뜨면 반달이 되지.)

107068 @ 새미떡 말고 상웨떡?('새미떡' 말고 상화떡?)

107068 # 상웨, 빵떡?(상화, 빵떡?)

107068 @ 그건 어떵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68 # 그건 ᄀᆞ루 이제 쪄. ᄀᆞ루 허영인에 순다리 잇잖아. 순다리에 쪙이.(그건 가루 이제 쪄. 가루 해서 '순다리' 있잖아. '순다리'에 쪄서.)

107068 @ ᄀᆞ루는 무신 ᄀᆞ루?(가루는 무슨 가루?)

107068 # 게, 곤쏠 ᄀᆞ룰 테주게.(그러게, 흰쌀 가루일 테지.)

107068 @ 상웨떡도, 밀가루로 안허고?(상화떡도, 밀가루로 안 하고?)

107068 # 게, 밀ᄀᆞ룰 허나.(그러게, 밀가루를 하나.)

107068 @ 빵떡 허젠 허민?(빵떡 하려고 하면?)

107068 # 게, 밀ᄀᆞ룰 허나. 이제 곤쏠 ᄀᆞ루를 허나 허영인에 그걸 쪙인에 이제 놔두민 귀는 거라이. 귀게 뒈민 쪙인에. 새미떡 허젠 허민.(그러게, 밀가루를 하나. 이제 흰쌀 가루를 하나 해서 그걸 쪄서 이제 놔두면 괴는 거야. 괴게 되면 쪄서. '새미떡' 하려고 하면.)

107068 @ 새미떡 아니고 빵떡.('새미떡' 아니고 빵떡.)

107068 # 빵떡은 허젠 허민 손으로 만들아. 그 그치멍, 그치멍 만들앙인에 그 속에 앙꼬 놩인에 영영영 헤영 마무리 뒈민 톡허게 놓으민[노민] 빵떡. 쉬와.('빵떡'은 하려고 하면 손으로 만들어. 그 자르면서, 자르면서 만들어서 그 속에 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면 톡하게 놓으면 빵떡. 쉬워.)

107068 @ 빵떡은 언제 허는 거꽈?(빵떡은 언제 하는 겁니까?)

107068 # 그 아무 때라도 제ᄉᆞ 때에 간단허게 다른 떡 허지 말앙 그것만 헤영도 먹는 수도 셔.(그 아무 때라도 제사 때에 간단하게 다른 떡 하지 말고 그것만 해서도 먹는 수도 있어.)

107070 @ 영장 난 디 부주로 헹 가는 건 무신 떡?(영장 난 데 부조로 해서 가는 건 무슨 떡?)

107070 # 영장칩이 떡 헹 가는 거?(상갓집에 떡 해서 가는 거?)

107070 @ 응, 빵떡 안 헹 가?(응, 빵떡 안 해서 가?)

107070 # 그런 거는 소상날은 빵떡 사가고 또시 영장에 그냥 묻지 아니헌 딘 저 빗떡으로 쳥 강은에.(그런 거는 소상날은 빵떡 사가고 또 영장에 그냥 묻지 않은 덴 저 '빗떡'으로 쪄서 가서.)

107070 @ 그건 어떵허는 거꽈? 빗떡은?(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빗떡'은?)

107070 # 빗떡은게 시리에 떡. 시리에 ᄀᆞ레 골아당인에.('빗떡'은 시루에 떡. 시루에 맷돌 갈아다가.)

107070 @ 아까 침떡추룩?(아까 시루떡처럼?)

107070 # 경헹 비어당인에 멕이고.(그렇게 해서 베어다가 먹이고.)

107070 @ 침떡은 빗떡으로 가졍 가는 거? 상웨떡 가졍 가는 거 아니고?(시루떡은 '빗떡'으로 가져 가는 거? 상화떡 가져 가는 거 아니고?)

107070 # 새미떡 아니?('새미떡' 아니?)

107070 @ 새미떡 아니고 빵떡?('새미떡' 아니고 빵떡?)

107070 # 빵떡도 ᄋᆞ져가는 사름 싯곡. 그건 제라한 상제덜이 그런 떡 헤간다게. 우리 셋뚤 큰어멍 죽으난에 너미 너미 고마우난 침떡 둬세 개 헹 강 장밧듸 묻딱 멕엇젠. 그디 뚤도 도로목 살아도 큰뚤도 아니헌디 우리 뚤은 강인에 문 멕엇젠. 시리떡 둬 시리 쳥 강 ᄉᆞ뭇.(빵떡도 가겨가는 사람 있고. 그건 제대로 된 상제들이 그런 떡 해서 간다. 우리 둘째딸 큰어머니 죽으니까 너무 너무 고마우니까 시루떡 둬 세 개 해서 가서 장지에서 모두 먹였다고. 시루떡 둬 시루 쪄서 가서 사뭇.)

107071 @ 그냥 하양한 백설기는?(그냥 하얀 백설기는?)

107071 # 게 그건 흰떡이엔 허여. 백설기는.(그러게. 그건 흰떡이라고 해. 백설기는.)

107071 @ 그냥 흰떡? 그건 그 위에 쉬 안 놓으민[노민] 그건 어떵허민 곱갈라?(그냥 흰떡? 그건 그 위에 소 안 넣으면 그건 어떻게 하면 나눠?)

107071 # 쉬 안 놔도 다 곱갈라져.(소 안 놔도 다 나눌 수 있어.)

107071 @ 어떵? 붙어불지 안허여?(어떻게? 붙어버리지 않아?)

107071 # 아니, 부떠불지 안허여. 시리에 놩인에 다 저 그 얄룬 뭣을.(아니. 붙어버리지 않아. 시루에 놔서 다 저 그 얇은 뭣을.)

107071 @ 천 놔? 얄룬 헝겊을 놔?(천 놔? 얇은 헝겊을 놔?)

107071 # 아, 이젠 떡들 경 복잡허게 아니헹 헌다게.(아, 이젠 떡들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서 한다.)

107075 @ 그 떡 위에 제일 위에 놓는 떡은 무신 떡 헙니까? 지름떡 같은 거 올려놉니까? 아까 엿떡 놓는 건가? 이디선 무신거 올려놓읍니까?(그 떡 위에 제일 위에 놓는 떡은 무슨 떡 합니까? 기름떡 같은 거 올려놓습니까? 아까 '엿떡' 놓는 건가? 여기선 무엇 올려놓습니까?)

107075 # 이디서 이제 침떡 위의 중게, 약궤엔 헌 거, 모멀떡으로 질게 허곡 넙게 헌 떡 우선 침떡 우이 놩 그다음은 솔벤, 반돌, 반돌 놩. 그 반돌 우인 동그락헌 절벤 놔. 그거 끝.(여기서 이제 시루떡 위에 '중게', '약궤'라고 한 거, 메밀떡으로 길게 하고 넓게 한 떡 우선 시루떡 위에 놔서 그다음은 '솔벤', 반달, 반달 놔서. 그 반달 위엔 동그란 절편 놔. 그거 끝.)

107075 @ 그다음 엿떡?(그다음 '엿떡'?)

107075 # 엿떡은 엿 조베긴 특별한 집이 허지. 아무나 아니 혀.('엿떡'은 엿 수제비는 특별한 집이 하지. 아무나 안 해.)

107075 @ 혹시 기름떡? 지름떡은 안 헙니까?(혹시 기름떡? 기름떡은 안 합니까?)

107075 # 게메 게 그것이.(글쎄 그러게 그것이.)

107075 @ 엿떡이 지름떡?('엿떡'이 기름떡?)

107075 # 이제 지름떡 허영인에 저 주는 디 어디 이시느니? 그 집인 대종손칩이난에 우리 친정엔 경 허난 그딘 다 절벤, 솔벤에 지름 불르멍 멘들아 내논 거고 그건 요만한 떡허영 그 절벤 우터레 엿 줍앙은에 톡허게 놓앙인에 엿ᄌᆞ베기엔 허영.

(이제 기름떡 해서 저 주는 데 어디 있니? 그 집엔 대종손집이니까 우리 친정엔 그러니까 거긴 다 절편, '솔벤'에 기름 바르면서 만들어 내놓은 거고 그건 요만한 떡 해서 그 절편 위에 엿 집어서 톡하게 놓아서 '엿ᄌᆞ베기'라고 해.)

107075 @ 이제 요새 무사 별 모양으로 영영영영 동글랑헌 거 지름떡 헹은에 폽니께?(이제 요새 왜 별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거 기름떡 해서 팔잖아요?)

107075 # 요즘 허는 거 나 몰라.(요즘 하는 거 나 몰라.)

107075 @ 동글락헹은에 이디가 영영영 뭰 거? 기름에 후라이팬에 지지는 거. 지름떡. 그건 이 동넨 안 허여?(동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기름에 프라이팬에 지지는 거. 기름떡. 그건 이 동넨 안 해서?)

107075 # 안 헤여.(안 해.)

107075 @ 안 헤여예.(안 해요.)

107075 # 다 뜰려.(다 틀려.)

107075 @ 다 틀려예.(다 틀려요.)

107075 # 그런 건 특히나이 대중손칩이덜 허여.(그런 건 특히나 대종손집들 해.)

107069 @ 제사헐 때 식게 허젠 허민 무신 떡, 무신 떡 헙니까?(제사할 때 제사하려고 하면 무슨 떡, 무슨 떡 합니까?)

107069 # 식게 헐 때 간단허게시리 저 침떡을 허젠 허민이 떡 가지 으라 갤 헤사 허곡이. 경 허난 침떡 허지 아니허영 모멀쏠 허영 모멀 빙허영 그자 상에 올리고 간단허게 허영 좋아. 침떡 험 시작허민 중게, 약궤 허지, 절벤, 솔벤 허지.(제사할 때 간단하게끔 저 시루떡을 하려고 하면 떡 가지 여러 개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루떡 하지 않고 메밀쌀 해서 메밀 빙떡 해서 그저 상에 올리고 간단하게 해서 좋아. 시루떡 하기 시작하면 '중게', '약궤' 하지, 절편, '솔벤' 하지.)

107075 @ 다 헤야 뒈어?(다 해야 돼?)

107075 # 게, 우찍 헤야지.(그러게, 웃기 해야지.)

107075 @ 우찍은 무신거?(웃기는 뭐?)

107075 # 계란으로 요렇게 요렇게 헤영인에 계란으로 ᄒᆞ끔썩 허영 우찍으로 절벤 위의 톡 놓는 거.(계란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계란으로 조금씩 해서 웃기로 절편 위에 톡 놓는 거.)

107075 @ 그게 우찍. 계란으로 헹 놓는 거.(그게 웃기. 계란으로 해서 놓는 거.)

107075 # 응. 계란으로.(응. 계란으로.)

107075 @ 그게 우찍.(그게 웃기.)

107075 # 게 시끄로와. 그런 거 요새 복잡허게 허는 집 어디 시카부덴.(그러게 시끄러워. 그런 거 요새 복잡하게 하는 집 어디 있을까 봐.)

107069 @ 옛날 허듯이 허민?(옛날 하듯이 하면?)

107069 # 엿날 식은 헤여사 그렇게 허는 거지게.(옛날 식은 해야 그렇게 하는 거지.)

107069 @ 엿날 식은 식게 때 다 허는 거?(옛날 식은 제사 때 다 하는 거?)

107069 # 게. 대중손칩인 다 허여.(그러게. 대종손집은 다 해.)

107070 @ 게민 누게 죽언에 영장난 딘 떡 어떵 어떵허여?(그러면 누가 죽어서 상난 덴 떡 어떻게 어떻게 해?)

107070 # 영장 난 디도 그 중게, 약궤 허영 침떡이영 다 허주마는이 그추룩 오만가지 귀곶지 아니헹 그자, 묵이나 허곡 그추룩 허영 간단허게 헌다게.(상 난 데도 그 '중게', '약궤' 해서 시루떡이랑 다 하지마는 그처럼 오만가지 온전히 갖추지 않고 그저, 묵이나 하고 그처럼 해서 간단하게 한다.)

107070 @ 아, 식게헐 때 말고 영장 난 집인 다 갖추지 안허고 침떡하고 중게, 약궤허고.(아, 제사할 때 말고 상 난 집엔 다 갖추지 않고 시루떡하고 '중게', '약궤' 하고.)

107070 # 그런 거 헌다게. 솔벤, 절벤 허고 경 허영 그자.(그런 거 한다. '솔벤', 절편 하고 그렇게 해서 그저.)

107070 @ 다 귀곶치는 건 침떡, 중게, 약궤, 침떡, 솔벤, 절벤, 우찍끄지. 엿떡은 안허고?(다 갖추는 건 시루떡, 중게, 약궤, 시루떡, '솔벤', 절편, 웃기까지. '엿떡'은 안하고?)

107070 # 응.(응.)

107070 @ 엿떡 허민 우찍 안허고 우찍 허민 엿떡 안허는 거꽈?('엿떡' 하면 웃기 않고 웃기 하면 '엿떡' 안 하는 겁니까?)

107070 # 응, 엿떡은 좀 허는 집 안 헌다.(응, '엿떡'은 좀 하는 집 안 한다.)

107070 @ 거난 엿떡도 허곡 우찍도 허여. 두 개 다?(그러니까 '엿떡'도 하고 웃기도 해. 두 개 다?)

107070 # 아니 안 헌다.(아니 안 한다.)

107070 @ 두 개 다 안허여.(두 개 다 하지 않아.)

107070 # 응.(응.)

107070 @ 보통은 우찍허고 좀 허는 집은 엿떡허고 허는 거구나예?(보통은 웃기하고 좀 하는 집은 '엿떡'하고 하는 거군요?)

107070 # 응.(응.)

107076 @ 당에 갈 때, 어디 하르방당이나 할망당에 갈 때 무신 떡 헹 갑니까?(당에 갈 때, 어디 '하르방방'이나 '할망당'에 갈 때 무슨 떡 해서 갑니까?)

107076 # 간단허게시리 허영 간다.(간단하게끔 해서 간다.)

107076 @ 무신거?(무엇?)

107076 # 아무거라도 당에 갈 때 집이서 허기 쉬운 거. 기냥 모멀ᄀᆞ루 시민 빙떡. 빙이라도 부껑 어정 가고 경 안허민 곤쏠 ᄀᆞ루로 다데[152] 멘들앙 동글락 동글락헌 떡. 멧 개 멘들앙 가정 간다.(아무거라도 당에 갈 때 집에서 하기 쉬운 거. 그냥 메밀가루 있으면 빙떡. 빙이라도 부쳐서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흰쌀 가루로

152) '다데'는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거나 장례 때 장지에서 상여꾼에게 제공하는 동글납작한 떡이다.

‘다데’ 만들어서 동그랗게 동그란 떡. 몇 개 만들어서 가져간다.)

107076 @ 다데, 다데가 뭐?(‘다데’, ‘다데’가 뭐?)

107076 # 동글락헌 떡 멘들앙 동글동글허게 떡 멘들앙.(동그란 떡 만들어서 동글동글하게 떡 만들어서.)

107076 @ 쳥은에?(쪄서?)

107076 # 응, 솖앙 건졍 경헹 그게 메 허곡, 당에 가는 건.(응, 삶아서 건져서 그렇게 해서 그게 메 하고, 당에 가는 건.)

107076 @ 당에 갈 때. 굿헐 땐 무신 떡 허여?(당에 갈 때. 굿할 땐 무슨 떡 해?)

107076 # 굿헐 때 넙삭헌 떡허여. 넙삭헌 이만한 너븐 떡허고 좁은 떡 허영인에 굿헐 땐 널븐 떡. 모멀떡으로 널븐 거 허곡. 흰떡은 또시 족게 허곡 허영 굿헐 때 다 올려.(굿할 땐 넓적한 떡해. 넓적한 이만한 넓은 떡하고 좁은 떡 해서 굿할 땐 넓은 떡. 메밀떡으로 넓은 거 하고. 흰떡은 또 작게 하고 해서 굿할 땐 다 올려.)

107076 @ 떡 일름은 없고?(떡 이름은 없고?)

107076 # 응.(응.)

107076 @ 아까 모멀 넓은 떡. 모멀쏠로 헌 넓은 떡허고 쏠로 헌 ᄒᆞ끔 족은 떡허고 두 개만 헙니까? 침떡 닮은 건 안 헤?(아까 메밀 넓은 떡. 메밀쌀로 한 넓은 떡하고 쌀로 한 조금 작은 떡하고 두 개만 합니까? 시루떡 같은 건 안 해?)

107076 # 아니 허여.(안 해.)

107078 @ 사발떡 이런 거 안 헤?(‘사발떡’ 이런 거 안 해?)

107078 # 사발떡[153]도 허는 집인 허곡 사발러레 그냥 앚졍 쳥 그냥 올리는 거. 그런 거 허여도 대정더렌 그런 거 안 허여.(‘사발떡’도 하는 집은 하고 사발에 그냥 안쳐서 쪄서 그냥 올리는 거. 그런 거 해도 대정엔 그런 거 안 해.)

107078 @ 대정더렌 안 허여. 만뒤떡도 이수과? 만뒤떡.(대정엔 안 해. ‘만뒤떡’도 있습니까? ‘만뒤떡’.)

107078 # 대정더렌이 경 떡 막 ᄋᆞ러 가지 안허여.(대정엔 그렇게 떡 여러 가지 안 해.)

107078 @ 아, 여러 가지 안 허여.(아, 여러 가지 안 해.)

107078 # 엿날덜 우리 어린 때 보민 ᄉᆞ뭇 엿떡이여 뭣이여 허영덜 허여도. 게난 하르방 조끗디 앚앙 헤뜩헤뜩 하르방 주민 먹젠.(옛날들 우리 어린 때 보면 사뭇 ‘엿떡’이다 뭣이다 해서들 해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헤뜩헤뜩’ 할아버지 주면 먹으려고.)

107078 @ 그 떡 말고 혹시 옛날 헹 먹어나신디 이젠 안 허는 떡 이수과?(그 떡 말고 혹시 옛날 해서 먹었었는데 이젠 안 하는 떡 있습니까?)

107078 # 제ᄉᆞ 때나 멩질 때 아니 허는 떡 엇어.(제사 때나 명절 때 안 하는 떡 없어.)

153) ‘사발떡’은 사발에 쌀가루를 놓고 쪄낸 떡을 말한다.

107078 @ 옛날에는 헹 먹어나신디 요샌 엇인 거? 옛날에 헹 먹어난 거 엇수과?(옛날에는 해서 먹었었는데 요샌 없는 거? 옛날에 해서 먹었던 거 없습니까?)

107078 # 그냥 제ᄉᆞ 때 아니영 그냥 헹 먹는 떡?(그냥 제사 때 안 해서 그냥 해서 먹는 떡?)

107078 @ 아무 때나.(아무 때나.)

107078 # 아무 때나 이 대죽, 드릇밧듸 대죽남 신 땐이 그런 걸로 떡 헤영 먹겐 헤영은에 먹어낫저마는 이거 어느제고. 우리 어린 때 그거 헨 먹어낫주.(아무 때나 이 수수, 들판에 수수나무 있을 땐 그런 걸로 떡 해서 먹자고 해서 먹었었다마는 이거 언제고. 우리 어린 때 그거 해서 먹었었지.)

107078 @ 대죽으로 헹 어떵 헹 먹어?(대죽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먹어?)

107078 # 옥수수, 대죽 고고리, 대죽 고고리 ᄋᆞ물 젭힌 거 이서, 그거 헤영인에.(옥수수, 수수 이삭, 수수 이삭 여물 잡힌 거 있어, 그거 해서.)

107078 @ 쏠대죽?(쌀수수?)

107078 # 쏠대죽. 그거 헤영인에 막 뿟앙인에 쏠 멘들앙이 물 컷당 삐정인에 떡을 헤민 그것벳긔 맛 좋은 거 엇어낫어.(쌀수수. 그거 해서 막 빻아서 쌀 만들어서 물 담갔다가 빻아서 떡을 하면 그것밖에 맛 좋은 거 없었어.)

107078 @ 그건 어떵 헹 떡 헙니까?(그건 어떻게 해서 떡 합니까?)

107078 # 그거 ᄀᆞ루로게.(그거 가루로.)

107078 @ 떡 쳥?(떡 쪄서?)

107078 # 쳥도 먹곡 다데 멘들엉도 숢앙도 먹고.(쪄서도 먹고 '다데' 만들어서도 삶아서도 먹고.)

107078 @ 다데는 동글랑허게 손으로 멘드는 거?('다데'는 동그랗게 손으로 만드는 거?)

107078 # 응.(응.)

107078 @ 아무것도 안 놓고 그것만?(아무것도 안 넣고 그것만?)

107078 # 응, 잘도 맛 좋아. 겐디 그 대죽이 어루와, 이젠. 전인 막 그런 대죽 헹인에 헤나신디.(응, 아주 맛 좋아. 그런데 그 수수가 어려워, 이젠. 전엔 막 그런 수수 해서 했었는데.)

107078 @ 그거 말곤 옛날에 먹어난 떡 이제 안 먹는 건 엇어?(그거 말곤 옛날에 먹었던 떡 이제 안 먹는 건 없어?)

107078 # 엇어.(없어.)

소와 고물

107079 @ 떡 그 속에 넣는 거나 아니면 침떡 위에 놓는 거?(떡 그 속에 넣는 거나 아니면 시루떡 위에 놓는 거?)

107079 # 풋이나.(팥이나.)

107079 @ 쉬예?(소요?)

107079 # 응.(응.)
107079 @ 쉰 풋이나?(소는 팥이나?)
107079 # 녹디나.(녹두나.)
107079 @ 녹디나.(녹두나.)
107079 # 그런 거 엇이민 콩 보깡 골앙인에.(그런 거 없으면 콩 볶아서 갈아서.)
107079 @ 콩ᄀᆞ루? 콩ᄀᆞ루나.(콩가루? 콩가루나.)
107079 # 응, 보깡인에 근 거. 그런 것만 놔.(응, 볶아서 간 거. 그런 것만 넣어.)
107079 @ 설탕이나예.(설탕이나요.)
107079 # 설탕은.(설탕은.)
107079 @ 송편은 속이 그런 거 놓는 거라예?(송편은 속이 그런 거 넣는 거지요?)
107079 # 응.(응.)
107079 @ 그건 그민 풋 놓젠 허민 시리떡에 풋 위에 쉬 놓젠 허민 쉬는 어떵헤? 숢앙은에?(그건 그러면 팥 놓으려고 하면 시루떡에 팥 위에 고물 놓으려고 하면 고물은 어떻게 해? 삶아서?)
107079 # 숢앙 뻣앙.(삶아서 빻아서.)
107079 @ 아, 숢앙 뻣앙.(아, 삶아서 빻아서.)
107080 # 숢앙 뻣앙 ᄀᆞ루 논 다음에 손으로 골라난 다음에 풋을 이젠 더꺼. 풋을 더꺼놩 또 그 ᄀᆞ루 놩 흔 징허고 흔 징허고 게민 탁 비우민 썰민 또긋또긋 들르기 좋주게.(삶아서 빻아서 가루 넣은 다음에 손으로 고르고 난 다음에 팥을 이젠 덮어. 팥을 덮어놔서 또 그 가루 놔서 한 켜하고 한 켜하고 그러면 탁 비우면 썰면 '또긋또긋' 들기 좋지.)
107080 @ 게난 떡 베끗듸 놓는 것도 쉬. 떡 안에 넣는 것도 쉬예? 송펜 같은 안에 넣는 것도 쉬?(그러니까 떡 밖에 놓는 것도 '쉬'. 떡 안에 넣는 것도 '쉬'요? 송편 같은 안에 넣는 것도 '쉬'?)
107080 # 응, 쉬 풋.(응, '쉬' 팥.)
107080 @ 베끗디 불르는 것도 쉬.(바깥에 바르는 것도 '쉬'.)
107080 # 아니 저 콩 보깡인에 그 두루루허게 골앙도 그런 것도 ᄒᆞ는 집도 잇더라마는 보통으로 풋 주장.(아니 저 콩 볶아서 그 '두루루허게' 갈아서도 그런 것도 하는 집도 있더라마는 보통으로 팥 주로.)
107080 @ 다시 한번. 침떡추룩 떡 쳐 낭 그 위에 놓는 종류는 풋이나 녹디나 그다음?(다시 한번. 시루떡처럼 떡 찌고 나서 그 위에 놓는 종류는 팥이나 녹두나 그다음?)
107080 # 거뿐.(거뿐.)
107079 @ 거뿐. 그다음엔 송펜 헹은에 그 소곱에 넣는 건 무신거 이수과?(거뿐. 그다음엔 송편 해서 그 속에 넣는 건 무엇 있습니까?)
107079 # 녹디나 풋이나.(녹두나 팥이나.)

107079 @ 녹디나 풋이나.(녹두나 팥이나.)

107079 # 콩 보끈 거. 근 ᄀᆞ루도 놔.(콩 볶은 거. 간 가루도 놔.)

107079 @ 요 안에? 송펜 소곱이? 베끗디 부치는 게 아니고?(요 안에? 송편 속에? 밖에 붙이는 게 아니고.)

107079 # 아니.(아니.)

107079 @ 아, 요기 콩도 놓는구나예?(아, 요기 콩도 넣는군요?)

107079 # 콩ᄀᆞ루에 그냥 심심허게 안허영 설탕 ᄀᆞ루 서껑 ᄒᆞ쏠 좁아낭 멘든 디 싯더라. 우린 그런 거 안 헤봐난.(콩가루에 그냥 심심하게 않고 설탕 가루 섞어서 조금 집어놔서 만든 데 있더라. 우린 그런 거 안 해봤어.)

107079 @ 우린 옛날엔 뭐 엇이민 꿰가루에 설탕 놩도 헤난 거 닮은디.(우린 옛날엔 뭐 없으면 깻가루에 설탕 놔서도 했던 거 같은데.)

107079 # 그건 존 거주게.(그건 좋은 거지.)

107079 @ 그것도 송펜 소곱에 놔나신디.(그것도 송편 속에 넣었었는데.)

107079 # 그런 건 보통으로 그런 거 하영 허여. 콩ᄀᆞ루 경헌 건 드물어.(그런 건 보통으로 그런 거 많이 해. 콩가루 그런 건 드물어.)

107079 @ 콩ᄀᆞ루 그런 거 잘 안 봐나신디예.(콩가루 그런 거 잘 안 봤었는데요.)

107070 # 응.(응.)

107081 @ 떡 무사 떡이랑 관련뒈어 잇는 속담이나 떡헐 때 영허민 안 뒌다 허는 거 이수과?(떡 왜 떡이랑 관련되어 있는 속담이나 떡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107081 # 뭐이엔 곧지 아니헌다게. 속담에 아이고 떡이 영헷저, 정헷저, 설엇저 허멍. 시리에 고장이 나 떡 뭐헷젠 헹 이상한 소리허민 떡 쳥인에 잘 익은 거 닮으민 비와도 안 익은 디가 이서. 이상허메.(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속담에 아이고 떡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설었다 하면서. 시루에 고장이 나서 떡 뭐했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떡 쪄서 잘 익은 거 같으면 비워도 안 익은 데가 있어. 이상해.)

107081 @ 뭐렌 말 골으민 안 뒈어, 떡 칠 때?(뭐라고 말 하면 안 돼, 떡 찔 때?)

107081 # 경 허난게 떡 치는 디 절로 정지서 큰 시리에 앚졍 떡 앚지민 예펜 활딱 들어오도 못허게 헤낫어. 정성으로.(그러니까 떡 찌는 데 저리로 부엌에서 큰 시루에 안쳐서 떡 안치면 여편네 활딱 들어오지도 못해서 했었어. 정성으로.)

107081 @ 정성으로. 떡 칠 땐 화장실도 가민 안 뒈어? 오줌 싸레도 가민 안뒈어?(정성으로. 떡 찔 땐 화장실도 가면 안 돼? 오줌 싸러도 가면 안 돼?)

107081 # 아니 그디 죽장 그디 허던 사름 갓다 오는 건 이신 디 새사름 들어오지 못허게 영영 헤여.(아니 거기 '죽장' 거기 하던 사람 갔다 오는 건 있는 데 새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107081 @ 오지 못허게 헤여. 떡헐 땐.(오지 못하게 해. 떡할 땐.)

107081 # 응, 고장 잘 나. 경 페랍게 허는 집인.(응, 고장 잘 나.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집은.)

107081 @ 시리떡으로 점도 칩니까?(시루떡으로 점도 칩니까?)

107081 # 시리떡 잘 뒈민 좋으는 거고 시리떡이 자꾸 안 뒈민 ᄒᆞ쏠 그 집이 이 덤빈덴 허고.(시루떡 잘 되면 좋은 거고 시루떡 자꾸 안 되면 조금 그 집에 이 덤빈다고 하고.)

1007081@ 뭐 헨덴?(뭐 한다고?)

107081 # 쫓긴덴게.(쫓긴다고.)

107081 @ 쫓긴덴.(쫓긴다고.)

107081 # 아이구, 오글오글 떡 잘도 뒈언 좋다 영 허영.(아이구, 오글오글 떡 잘도 되어서 좋다 이렇게 해서.)

107081 @ 막떡은 아이들 안 먹는 거여 영 허는 말허던데 그건 뭐꽈?('막떡'은 아이들 안 먹는 거야 이렇게 하는 말하던데 그건 뭡니까?)

107081 # 막떡[154]은 그 저 절변, 솔변 헤놩 마지막으로 헌 건 어린 아이 막 뒌 거난 아니 준덴 허영 허지마는 요즘 그런 거 시냐?('막떡'은 그 저 절편, '솔벤' 해 놓고 마지막으로 한 건 어린아이 막 된 거니까 안 준다고 해서 하지마는 요즘 그런 거 있니?)

107081 @ 아니, 옛날 ᄀᆞᆯ아난 말. 마지막에 거는 어린아이 안 주는 거?(아니, 옛날 말했던 말. 마지막의 거는 어린아이 안 주는 거?)

107081 # 주도 안허고 그거 마지막 허당 족은 건 그냥 그 떡 치는 디 청은에 들러내민 그디 들러내는 사름이나 심부름꾼들 줍앙 먹엉 어디사 가신디.(주지도 않고 그거 마지막 하다가 작은 건 그냥 그 떡 찌는 데 쪄서 들어내면 거기 들어내는 사람이나 심부름꾼들 집어 먹어서 어디야 갔는지.)

107081 @ 절벤. 딱 붙어진 거예. 떼엉 먹으민 안 뒌다 헨게마는.(절편. 딱 붙어 있는 거요. 떼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마는.)

107081 # 응, 떼엉 먹으민 안 뒈.(응, 떼어서 먹으면 안 돼.)

107081 @ 무사 안 뒈?(왜 안 돼?)

107081 # 몰라. 그것이 좋은 상사가 아니주게이.(몰라.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지.)

107081 @ 겡 이거 붙여진 채로 그냥 먹어야 뒈는 거? 떼엉 먹지 말라 경헨게마는. 이디서도 경 ᄀᆞᆯ아예?(그래서 이거 붙여진 채로 그냥 먹어야 되는 거? 떼어서 먹지 말라 그렇게 하던데마는.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107081 # 응, 어린 때. 우리 어린 때 그래.(응, 어린 때. 우리 어린 때 그래.)

---

154) '막떡'은 떡을 만들 때 맨 마지막으로 만든 떡이라는 뜻으로 떡을 만들다 남은 마지막 조각을 가지고 만든 떡이다.

별식

107082 @ 수에?(순대?)

107082 # 수에? 순대 담는 거?(순대? 순대 담는 거?)

107082 @ 그건 어떵 허는 거?(그건 어떻게 하는 거?)

107082 # 순대 담는 건 모멀ᄀᆞ루, 모멀ᄀᆞ루에 피 서껑.(순대 담는 건 메밀가루, 메밀가루에 피 섞어서.)

107082 @ 무슨 피?(무슨 피?)

107082 # 뒈야지 피. 뒈야지 피 헤영인에 그레이 쏠밥도 헌 거 서끄고 경헹인에 모멀ᄀᆞ루에 쏠밥에 서껑 막 간 맞촹 맛 좋게 간 맞촹 순대에 질주게. 질엉인에 치민 순대도 맛 좋고. 요샌 오죽 순대 새나게덜이[155].(돼지 피. 돼지 피 해서 그리 쌀밥도 한 거 섞고 그렇게 해서 메밀가루에 쌀밥에 섞어서 막 간 맞춰서 맛 좋게 간 맞춰서 순대에 길지. 길어서 치면 순대도 맛 좋고. 요샌 오죽 순대 '새나게들'.)

107082 @ 요새 건 맛엇어. 당면만 막 놩예. 옛날추룩 찹쌀 순대.(요새 그건 맛없어. 당면만 막 넣어서요. 옛날처럼 찹쌀 순대.)

107082 # 아이구, 그거 갑이 얼마고.(아이구, 그거 값이 얼마고.)

107082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82 # 밀ᄀᆞ루 헤영 버무령.(밀가루 해서 버무려서.)

107082 @ 요샌 밀ᄀᆞ루영 당면 놩예. 맛엇어. 그민 그 순대 창지는 어디서 낭 허는 거꽈?(요샌 밀가루랑 당면 넣어서요. 맛없어. 그러면 그 순대 창자는 어디서 나서 하는 겁니까?)

107082 # 어디서 나? 뒈야지 잡으민 배설 아니가게, 배설.(어디서 나? 돼지 잡으면 배설 아니냐, 배설.)

107082 @ 그 속에 거 다 시쳥은에?(그 속의 거 다 씻어서?)

107082 # ᄀᆞᆯ이 싯엉. ᄀᆞᆯ이 싯엉인에 배설러레 ᄀᆞ루 찐 거 담앙 숢앙인에 허는 거 아니라. 모멀ᄀᆞ루 ᄀᆞ튼 거 모멀 는쟁이 ᄀᆞ튼 거 순대에 담으민 맛이 더 좋아. 그런 거 엇엉 다른 ᄀᆞ루 논 거 쿠살지고 맛이 엇어.(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배설에 가루 찐 거 담아서 삶아서 하는 거 아니냐. 메밀가루 같은 거 메밀 나깨 같은 거 순대에 담으면 맛이 더 좋아. 그런 거 없어서 다른 가루 넣은 거 '쿠살지고' 맛이 없어.)

107082 @ 그건 그민 잔치 때나 헹 먹는 거구나예?(그건 그러면 잔치 때나 해서 먹는 거군요?)

107082 # 잔치 때도 허곡 또시 영장 때도 심심허민 그것덜 담앙덜 그냥 그 배설 내부느니 숢앙덜도 먹고 잔치 때 허영 난리가 나.(잔치 때도 하고 또 상 때도 심심하면 그것들 담아서 그냥 그 배설 내버리느니 삶아서들도 먹고 잔치 때 해서 난리가 나.)

107082 @ 맛 좋앙?(맛 좋아서?)

155) '세나다'는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107082 # 게. 구경꾼덜이영 그거 막 먹젠. 솖앙 건져 놓으민[노민] 막 굽 들르멍 썰멍, 먹으멍 난리가 나주게. 그런 맛으로 허는 거주게.(그러게. 구경꾼들이랑 그거 막 먹으려고. 삶아서 건져 놓으면 막 굽 들면서 썰면서, 먹으면서 난리가 나지. 그런 맛으로 하는 거지.)

107082 @ 그냥 아무 때나 헹 먹진 못허주예? 수에예?(그냥 아무 때나 해서 먹진 못하지요? 순대요?)

107082 # 게.(그렇지.)

107082 @ 순대렌 헙니까? 수에렌 헙니까? 옛날에 골아난 말?(순대라고 합니까? '수에'라고 합니까? 옛날 말했던 말?)

107082 # 순대.(순대.)

107082 @ 옛날도 순대? 수에엔 말은 안 골아난?(옛날도 순대? '수에'라는 말은 안 말했어?)

107082 # 응(응.)

107083 @ 두부?(두부?)

107083 # 두분 또시 콩 골앙게. 콩 골앙인에 짱. 콩 물우쩟당[156] 콩 ᄀᆞ는 물ᄀᆞ레 잇주게. 그것에 이젠 ᄀᆞ루가 이젠 골앙인에 찰리가 이서. 그것에 짱인에 이제 그 물을 솟듸서 막 솖아. 솖아가민 드불드불헤여이, 막 건지가. 콩ᄀᆞ루가 덩어리져. 계란 영 탕인에 솖아가민 드불드불허듯, 드불드불허민 막 트락트락 헤가민 그디 이제 놓는 바닷물인디 무시거 ᄒᆞ끔 들이쳐. 들이쳥인에 이제 찰리더레 비왕인에 졸끈 좁아 뎅경인에 꽉 누들민 두부가 뒈어. 맛 좋아.(두분 또 콩 갈아서. 콩 갈아서 짜서. 콩 '물우쩟당' 콩 가는 '물ᄀᆞ레' 있지. 그것에 이젠 가루가 이젠 갈아서 자루가 있어. 그것에 짜서 이제 그 물을 솥에서 막 삶아. 삶아가면 '드불드불'해, 막 건더기가. 콩가루가 덩어리져. 계란 이렇게 타서 삶아가면 '드불드불'하듯, '드불드불'하면 막 '트락트락' 해가면 거기 이제 놓는 바닷물인데 무엇 조금 들이뜨려. 들이뜨려서 이제 자루에 비워서 '졸끈' 잡아당겨서 꽉 누르면 두부가 돼. 맛 좋아.)

107083 @ 그냥 두부렌 골아낫수과? 옛날도? 둠비 안 허고?(그냥 두부라고 말했었습니까? 옛날도? '둠비' 안 하고?)

107083 # 둠비, 둠비.('둠비', '둠비'.)

107083 @ 옛날 말은 둠비? 바당물 강 질엉왕 허여?(옛날 말은 '둠비'? 바닷물 가서 길어와서 해?)

107083 # 바당물 아니민 소금물이라도 헤사. 바당물이 더 잘 뒌덴.(바닷물 아니면 소금물이라고 해야. 바닷물이 더 잘 된다고.)

107083 @ 바당물이 잘 뒌덴 헹 바당물로 허는 거구나. 그냥 엇이민 소금물로라도 허고?(바닷물이 잘 된다고 해서 바닷물로 하는 거군요. 그냥 없으면 소금물로라도 하고?)

107083 # 바당물이 근 맞주게. 이디 소금물로 허민 짬도 허곡 싱거움도 허곡 허

156) '물우찌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이다.

영 잘 안 뒈는 수도 시난에. 큰 궤 ᄉᆞ뭇 대소상 허젠 허민 그런 거 허젠 허민 잔치라도 소문난 집인 그 물 강 질어당인에 두부허여. ᄀᆞ레로 골멍 두부덜 허영 허젠 허민.(바닷물이 간 맞지. 여기 소금물로 하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해서 잘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큰 궤 사뭇 대소상 하려고 하면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잔치라도 소문난 집엔 그 물 가서 길어다가 두부해. 맷돌로 갈면서 두부들 해서 하려고 하면.)

107083 @ 허젠 허민 잘도 힘들 거라예? 그거예?(하려고 하면 잘도 힘들 거예요? 그거요?)

107083 # 아이고, 첨.(아이고, 첨.)

104084 @ 메밀묵 헤난 말 ᄒᆞ끔 골아줍서.(메밀묵 했던 말 조금 말해주세요.)

104084 # 메밀묵?(메밀묵?)

104084 @ 응, 메밀묵, 어떵 헹 허는 거꽈?(응, 메밀묵,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84 # 메밀묵 허젠 허민이 메밀묵은 ᄀᆞ루 캉, 솟듸서. ᄀᆞ루 캉인에 들구 젓으멍 불 솜지, 불 솜앙 풀추룩 막 허영 어느 정도 푸글락탁 푸글락탁 ᄆᆞ멀ᄏᆞ루 물 엇이민 푸글락 푸글락 들구 젓으민 그 솟채 들렁 다라레 비와. 다라레 다 비와난 다음에 다라 흔글흔글 골로로 딱 젭시레 놔두민 언티어 그건 청묵이엔 허메. 그건 이 묵을 언디민 두부 비듯이 비어. 두부 비듯이 비곡. 또 경 안헹인에 간단허게 허젠 허민이 모멀ᄏᆞ루 물에 탕 빙 허듯이 빙 짓듯이 두껍게 후라이판에.(메밀묵 하려고 하면 메밀묵은 가루 타서, 솥에서. 가루 타서 마구 저으면서 불 때지, 불 때면서 풀처럼 막 해서 어느 정도 '푸글락탁 푸글락탁' 메밀가루 물 없으면 '푸글락 푸글락' 마구 저으면 그 솟째 들어서 대야에 다 비워. 대야에 다 비운 다음에 대야 흔들흔들 골고루 딱 접시에 놔두면 엉겨서 그건 '청묵'이라고 해. 그건 이 묵을 엉기면 두부 베듯 베어. 두부 베듯 베고. 또 그렇게 않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메밀가루 물에 타서 빙떡 하듯이 빙떡 지지듯이 두껍게 프라이팬에.)

104084 @ 후라이판에?(프라이팬에?)

104084 # 영 놩인에 ᄒᆞ쏠 두둑허게 허영 익어가민 탁 데쌍 익영인에 이젠 또시 묵 그런 묵 허는 거 잇지. 경헹 비엉인에 묵 허고 경 허여.(이렇게 놔서 조금 두둑하게 해서 익어가면 탁 뒤집어서 익혀서 이젠 또 묵 그런 묵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베어서 묵하고 그렇게 해.)

107085 @ 청묵은 저 메밀쌀로 헤가지고 영영 익영 허는 거 아니? 찰리에 놩?('청묵'은 저 메밀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익혀서 하는 거 아니? 자루에 넣어서?)

107085 # 찰리에 놩 아니 허여도 모멀ᄏᆞ루로 좀질이 헌 건 그걸로도 뒈어. 모멀ᄏᆞ루로 헌 건 청묵인디 좀 헌 사름 쑤도 못허곡. 뒈도 아니혀. 근 맞촤사주. 그거이 모멀쏠이 물우쪙 막 짱 허민 이 막 뒌 것 닮아도 ᄉᆞ뭇 파글락 파글락 캄직허게 시리 헌 후제 솟채 들렁인에 비우민 솟 바위 그릇을 흔글흔글헤사 골로로 가는 거주

게. 경 허난 청묵이엔 허는 건 막 힘들어. 그냥 ᄀᆞ루묵은 쒕인에 뒈게 쒀지민 보민 푸글락 푸글락 헌다게. 푸글락 푸글락 헤가민 비왕인에 비운 그릇 탁탁 헤가민 골로로 싹 뒈어. 경헹 놔두민 언디민 칼로 그자 촥촥 비엉.(자루에 넣어서 안 해도 메밀가루로 자잘하게 한 건 그걸로도 돼. 메밀가루로 한 건 '청묵'인데 좀 한 사람 쑤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아. 간 맞춰야지. 그거 메밀쌀이 '물우쩡' 막 짜서 하면 이 막 된 것 같아도 사뭇 '파글락 파글락' 탈 것 같이 시루 한 후에 솥째 들어서 비우면 솥 가장자리 그릇을 흔들흔들해야 골고루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청묵'이라고 하는 건 아주 힘들어. 그냥 '가루묵'은 쑤어서 되게 쑤어지면 보면 '푸글락 푸글락' 한다. '푸글락 푸글락' 해가면 비워서 비운 그릇 탁탁 해가면 골고루 싹 돼. 그렇게 해서 놔두면 엉기면 칼로 그저 촥촥 베어서.)

107085 @ ᄀᆞ루묵허고 청묵 중 무신거가 ᄐᆞ나?('가루묵'하고 '청묵' 중 무엇이 달라?)

107085 # 청묵은 짠 거.('청묵'은 짠 거.)

107085 @ 찰리에 놩 짠 거 맞아? 찰리에 놩 짠 거 어떵 헹 허는 거꽈? 다시 ᄀᆞᆯ아 줍서.(자루에 넣어서 짠 거 맞아? 자루에 넣어서 짠 거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 주세요.)

107085 # 찰리에 그 ᄀᆞ루 물우쩟당 막 찰리에서 짜가민 흰 물 나와. 주셍이 모멀 주셍이 나오민 그것이 이젠 곤 맞추젠 허민 힘들어. 그것이 이젠 솟듸 놩 그 물을 솖아.(자루에 그 가루 '물우쩟당' 막 자루에서 짜가면 흰 물 나와. 찌꺼기 메밀 찌꺼기 나오면 그것이 이젠 간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 그것이 이젠 솥에 넣어서 그 물을 삶아.)

107085 @ 그 물만 놩 솖아?(그 물만 놔서 삶아?)

107085 # 그 짠 물 놩 솖으민 이 한들한들헌 게 곱닥허주게.(그 짠 물 넣어서 삶으면 이 한들한들한 게 곱지.)

107085 @ 그게 청묵예?(그게 '청묵'요?)

107085 # 그냥 묵은 또시 드글드글허는 거고.(그냥 묵은 또 '드글드글'하는 거고.)

107085 @ ᄀᆞ루로 캉 탕은에 허는 건? 간단허게 허젠 허민 후라이판에 지지는 두껍게 지지는 거고 그것도 메밀묵이지예? 모멀묵예?(가루로 타서 타서 하는 건?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프라이팬에 지지는 두껍게 지지는 거고 그것도 메밀묵이지요? 메밀묵요?)

107085 # 그냥 묵허젠 허민 또시 ᄀᆞ루로 풀 썽 허는 거고 경 아니민 모멀쏠 물 컷당 모멀쏠로 막 짱, 짱인에 모멀쏠로 물 컷당 막 밀멍 짱인에 밀껑헌 물 허민 한들한들 허믄 청묵.(그냥 묵하려고 하면 또 가루로 풀 쑤어서 하는 거고 그렇게 아니면 메밀쌀 물 담갔다가 메밀쌀로 막 짜서, 짜서 메밀쌀로 물 담갔다가 막 밀면서 짜서 '밀껑헌' 물 하면 한들한들하면 '청묵'.)

107085 @ 모멀묵은 세 종류구나. 청묵, ᄀᆞ루 놩 허는 묵, 그다음에 지지는 묵.

(메밀묵은 세 종류구나. ‘청묵’, 가루 놔서 하는 묵, 그다음에 지지는 묵.)

107085 # 게. 청묵 아무나 못 허메. 익숙은 사름덜 허주.(그러게. ‘청묵’ 아무나 못 해. 익숙한 사람들 하지.)

107085 @ 계속 저어야 뒈는 거 아니?(계속 저어야 되는 거 아니?)

107085 # 게. 계속 젓어야 파글락탁 파글락탁 물 엇이민 푸글렉이 파글락 파글락 허주. 게민 청묵이엔 헌 건이 아랑아랑[157]헌 거 곱닥허여.(그러게. 계속 저어야 ‘파글락탁 파글락탁’ 물 없으면 ‘푸글렉이’ ‘파글락 파글락’ 하지. 그러면 ‘청묵’이라고 한 건 ‘아랑아랑’한 거 고와.)

107085 @ 청묵이나 메물묵은 언제 헹 먹는 거마씨?(‘청묵’이나 메밀묵은 언제 해서 먹는 거예요?)

107085 # 허이튼. 아무 때라도 헤어지민 헹 먹는 거주게.(하여튼.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먹는 거지.)

107085 @ 식게 때도 허곡?(제사 때도 하고?)

1070845 # 응, 식게 때도 허곡.(응, 제사 때도 하고.)

107086 @ 게역은 언제 헹 먹는 거?(미숫가루는 언제 해서 먹는 거?)

107086 # 게역은 여름이게.(미숫가루는 여름에.)

107086 @ 무신 ᄀᆞ루로?(무슨 가루로?)

107086 # 술오릴 보깡을 허나 맥주보리로 보깡 허나 기계 강 골아 게역 간단허여.(쌀보리 볶아서 하거나 맥주보리로 볶아서 하나 기계 가서 갈아 미숫가루 간단해.)

107086 @ 그건 언제 먹는 거꽈?(그건 언제 먹는 겁니까?)

107086 # 여름이 시원히 물 탕 먹는 거 아니라게. 게역 먹을탸, 저디 싯저.(여름이 시원히 물 타서 먹는 거 아니냐. 미숫가루 먹겠니, 저기 있어.)

107086 @ 아니마씨. 게역 아이들 ᄀᆞ루로도 먹고 물에 탕도 먹고, 밥 대신에도 먹고?(아니에요. 미숫가루 아이들 가루로도 먹고 물에 타서도 먹고, 밥 대신에도 먹고?)

107086 # 엿날 어른은 밥에 버무렁도 먹고 시원히 게역 흔 적 도라 헹 물에 탕 시원히 드르쌈도 허고.(옛날 어른은 밥에 버무려서도 먹고 시원히 미숫가루 한 숟가락 달라 해서 물에 타서 시원히 들이키기도 하고.)

107086 @ 간식으로예? 콩도 놩 헙니까?(간식으로요? 콩도 놔서 합니까?)

107086 # 게역 허는 디?(미숫가루 하는 데?)

107086 @ 예.(예.)

107086 # 콩 보리 보끌 때 ᄀᆞ치 보깡 허민 게역이 더 쿠시룽헹 더 맛 좋아. 실픈 때 밥 먹기 실픈 때 밥 거렁놩인에 게역 놩 버무렁도 먹으민 좀 먹어지고.(콩 보리 볶을 때 같이 볶아서 하면 미숫가루가 더 구수해서 더 맛 좋아. 싫은 때 밥 먹기 싫은 때 밥 떠놔서 미숫가루 놔서 버무려서도 먹으면 좀 먹을 수 있고.)

157) ‘아랑아랑’은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07087 @ 지지미도 헹 먹어낫지예?(부침개도 해서 먹었었지요?)

107087 # 지지미. 떡 지지는 거ᄀᆞ라 지지미엔 허는 거 아니?(부침개. 떡 지지는 거보고 부침개라고 하는 거 아니?)

107087 @ 어떤 때 허는 거꽈?(어떤 때 하는 겁니까?)

107087 # 아무 때라도 심심허민 지지미 지졍.(아무 때라도 심심하면 부침개 부쳐서.)

107087 @ 무신거 놩은에 헤?(무엇 넣어서 해?)

107087 # ᄀᆞ루 놩인에 아무거라도 놩 헤영 먹지 기로우민 ᄂᆞ물이라도 썰엉 놩인에 지졍 먹고 경 안허민 말곡 허주.(가루 넣어서 아무거라도 넣어서 해서 먹고 싶으면 나물이라도 썰어서 넣어서 지져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고 하지.)

107087 @ 덴뿌라추룩.(‘덴뿌라’처럼.)

107086 # 덴뿌라추룩 허나 쉽게 또시 후라이판 ᄀᆞ득게시리 허영 탁 데쌍인에 익건 썰멍덜토 먹곡.(‘덴뿌라’처럼 하나 쉽게 또 프라이팬 가득하게끔 해서 탁 뒤집어서 익으면 썰면서들도 먹고.)

107087 @ 요즘에 얘기헐 땐 파전 이렇게 허는 데에 할머닌 파도 잘 안 먹는 디 무신거 놩 헤? 새우리도 잘 안 먹고?(요즘에 얘기할 땐 파전 이렇게 하는 데 할머닌 파도 잘 안 먹는 데 무엇 넣어서 해? 부추도 잘 안 먹고?)

107087 # 난 그런 거 아니 헌다. 게난 우리 집인 그런 거 허영 나신디 아이 준다. 주젠도 안허고 허도 안허고.(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 해서 나에게 안 준다. 주려고도 않고 하지도 않고.)

107090 @ 이번엔 술 멘드는 거. 어떵헹 멘드는 거꽈? 할머니 누룩도 헤근에 널어 놔선게?(이번엔 술 만드는 거.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할머니 누룩도 해서 널어 놨던데?)

107090 # 누룩 헤영인에 다끄는 술 허젠 허민 이 보리쏠을 물우쪙 놧당 시리에 쳥.(누룩 해서 고는 술 하려고 하면 이 보리쌀을 ‘물우쪙’ 놨다가 시루에 쪄서.)

107090 @ 보리를?(보리를?)

107090 # 보리쏠. 보리쏠을 놧당 시리에 쳥 시리에 쳥, 쳥인에 이제 저 누룩에 버무령 시리에 쳥 식으민 누룩에 버무령 통개에 들이쳥 나중에 바글바글 귄다. 귀민 엿날에 고시리 서, 다끄는 거. 이젠 솟듸에 그 술을 거려 놓고 고시리엔 헌 건 그 이것이 솟이민 이 솟듸 술 놓주게. 술 놩 고시리엔 헌 건 또시 이레 놩인에 고시리가 고냥 뚤라진 거지, 이레 놩인에 일로 짐, 이 깃딜로 짐 나가지 못허게 술을 놩인에 발랑발랑 숢는디. 허민 그 고시리엔 헌 건 그 짐으로 올라강, 짐으로 올라강 고시리 조젱이로 졸졸졸 ᄂᆞ리민 소주가 뒈어.(보리쌀. 보리쌀을 놨다가 시루에 쪄서 시루에 쪄서, 쪄서 이제 저 누룩에 버무려서 시루에 쪄서 식으면 누룩에 버무려서 ‘통개’에 들이뜨려서 나중에 바글바글 귄다. 괴면 옛날에 소줏고리 있어, 고는 거. 이젠 솥에 그 술을 떠 놓고 소줏고리라고 한 건 그 이것이 솥이면 이 솥에 술 놓지. 술 놔서 소줏고리라고 한 건 또 이리 놔서 소줏고리가 구멍 뚫린 거지, 이리 놔

서 이리로 김, 이 가장자리로 김 나가지 못하게 술을 놔서 ‘발랑발랑’ 삶는데. 하면 그 소줏고리라고 한 건 그 김으로 올라가서, 김으로 올라가서 소줏고리 코로 졸졸졸 내리면 소주가 돼.)

107086 @ 응.(응.)

107086 # 소주가 뒈곡, 뭰술[158]이엔 헌 건이 그냥 이디 청주엔 헌 건이 좁쏠. 좁쏠 강인에 골아당 다데 멘들앙 솟듸서 숢아. 그 떡 저.(소주가 되고, ‘뭰술’이라고 한 건 그냥 여기 청주라고 한 건 좁쌀. 좁쌀 가서 갈아다가 ‘다데’ 만들어서 솥에서 삶아. 그 떡 저.)

107086 @ 오메기떡?(‘오메기떡’?)

107086 # 오메기떡추룩 멘들앙인에 그냥 오메기떡 솟듸 들이쳥 숢으민 눌어불곡 데쓰도 못허민이 대썹, 대썹 헷당 솟더레 톡 놩. 그 떡을 멘든 건 이제 솟듸 놩인에 발랑발랑 숢아가당 데쓰게 뒈민 그 대썹을 싹허게 들으멍 톡 어프민 데싸진 거.(‘오메기떡’처럼 만들어서 그냥 ‘오메기떡’ 솥에 들이뜨려서 삶으면 눌어버리고 뒤집지도 못하면 댓잎, 댓잎 했다가 솥에 톡 놔서. 그 떡을 만든 건 이제 솥에 놔서 ‘발랑발랑’ 삶아가다가 뒤집게 되면 그 댓잎 싹하게 들면서 톡 엎으면 뒤집어진 거.)

107086 @ 하하하.(하하하.)

107086 # 이젠 막 숢으민 오메기떡이 동글동글 터. 게민 어느 정도 익은 돗수 알아지주게, 헤난 사름은. 알아지민 이젠 건정인에 식영, 숢아난 물도 식영 놧당 누룩 ᄀᆞ레 강 문짝 골아당 저것에 이젠 오메기도 싯고 허민 막 쪄. 막 쪙인에 통개에 들이쳥인에 어느 정도 뒈겟다 돗수 맞촹 모르게 헤도 아니 뒈고 질게 헤도 아니뒈고 어느 정도 뒛다 허민 이젠 바글바글바글 귀당 귄 흔 넘으민 노랑허게 청 앚아. 그 우이 물만 근근헤여. 그 술이 진짜 술.(이젠 막 삶으면 오메기떡이 동글동글 떠. 그러면 어느 정도 익은 도수 알 수 있지, 했던 사람은. 알면 이젠 건져서 식혀서, 삶았던 물도 식혀서 놨다가 누룩 맷돌 가서 모두 갈아다가 저것에 이젠 오메기도 있고 하면 막 쪄. 막 쪄서 ‘통개’에 들이뜨려서 어느 정도 되겠다 도수 맞춰서 모르게 해도 안 되고 길게 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이젠 바글바글바글 괴다가 괸 한 넘으면 노랗게 청 앉아. 이 위에 물만 근근해. 그 술이 진짜 술.)

107090 @ 그게 청주?(그게 청주?)

107090 # 청주. 경헤영인에 경헌디 그거 다 거린 다음엔 뭰술 먹는 사름은이 저 흰죽 쒕, 흰죽 쒕인에 그 뭰술 배술기로 딱딱 때렁 놔두민 그거 ᄒᆞ쏠 거려다 놩 탕 먹으민 막 좋덴 허는디, 뭰술 못 먹는 사름은 애당초 그거 경 허민 다음에 얄룬 기지에 우의 거 거려불민 죽 닮은 거 아냐.(청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뜬 다음엔 ‘뭰술’ 먹는 사람은 저 흰죽 쑤어서, 흰죽 쑤어서 그 ‘뭰술’ 죽젓개로 딱딱 때려서 놔두면 그거 조금 떠다가 놔서 타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 ‘뭰술’ 못 먹는 사람은 애당초 그거 그렇게 하면 다음에 얇은 천에 위의 거 떠버리면 죽 같은

158) ‘뭰술’은 건더기가 많은 술로 맑은 술을 만들기 위해 걸러낸 남은 건더기가 섞인 술을 말하며 주로 막걸리나 탁배기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거 아니냐.)

107090 @ 예.(예.)

107090 # 얄룬 것에 쌍인에 톡허게 놔두민 청주 물은 다 짜져. 다 짜정인에 건 청주로 고급술.(얇은 것에 싸서 톡하게 놔두면 청주 물은 다 짤 수 있어. 다 짜서 그건 청주로 고급술.)

107090 @ 그 청주는 좁쌀로 헹은에 허는 거고? 그 밑에 잇는 건 뒌술로 헹은에 흰죽 쒕은에 ᄀᆞ치 서껑 먹는다고? 그게 뒌술? 흰죽 먹을 때 먹는다고?(그 청주는 좁쌀로 해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건 '뒌술'로 해서 흰죽 쒀서 같이 섞어서 먹는다고? 그게 '뒌술'? 흰죽 먹을 때 먹는다고?)

107090 # 흰죽 먹을 때에.(흰죽 먹을 때.)

107090 @ 뒌술 흔 잔?('뒌술' 한 잔?)

107090 # 뒌술 그 죽 풀풀헌 죽. 그 저 청주 빠분 거. 거려당인에 흰죽에 탕.('뒌술' 그 죽 팔팔한 죽. 그 저 청주 빼버린 거. 떠다가 흰죽에 타서.)

107090 @ 흰죽에 탕.(흰죽에 타서.)

107090 # 탕 먹어. 우리 아부지 젊은 때 밧 갈레 가젠 허민 아적이 뒌술 그냥 풀풀헌 뒌술 흔 사발 주민 먹엉 강 밧 갈앙오민 어머니가 또 흰죽 쒀. 흰죽 쑤민 또 뒌술 강인에 사발에 거려당 권허민 당신냥으로 흰죽더레 뒌술 탕인에 먹으민 밥도 아이 먹곡. 밧 매날 갈아도 놋 씻으난 양지가 문닥헹 지름 낫젠 헤. 나 그런 거 다 배완.(타서 먹어. 우리 아버지 젊을 때 밭 갈러 가려고 하면 아침에 '뒌술' 그냥 팔팔한 '뒌술' 한 사발 주면 먹어서 가서 밭 갈아오면 어머니가 또 흰죽 쒀. 흰죽 쑤면 또 '뒌술' 가서 사발에 떠다가 권하면 당신대로 흰죽에 '뒌술' 타서 먹으면 밥도 안 먹고. 밭 매일 갈아도 낮 씻으니까 양지가 '문닥'해서 기름 났다고 해. 나 그런 거 다 배웠어.)

107090 @ 감주는 어떵허는 거꽈?(감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90 # 감주는 이제 보리골 놓지.(감주는 이제 엿기름 놓지.)

107090 @ 골은 어떵 놓는 거꽈?(골은 어떻게 놓는 겁니까?)

107090 # 보리 이제 물우쪙[159] 놧당. 물우쪙 놧당 발[160]이 나. 물우쪙 자꾸 물 줘가민 발 나민, 보리 물에 컷당 건졍 발이 나민 이젠 자꾸 마다리에 놔둠서 물 ᄋᆞ져당 촉촉촉촉 뿌리민 발은 문저 나고 말째 이제 순 나는 거 이만썩 뽀족뽀족 나. 남 시작허민 흔 번에 물리민 맛이 엇이는디 ᄒᆞ루 물리왕 또 더껑 놧당 물리곡 ᄒᆞ루 물리왓당 더껑 놧당 허고 천천히 물리민 그 놈의 골이 맛이 좋아. 경 허민 이젠 뒌술. 감주헐 때이 그 골을 감주헐 때엔 밥허영인에 조팝허영 그 감주 쏠에 밥에 ᄀᆞ루 이제 버무령 놔두민 바글바글 귀민 이 젭찌랑인에 감주. 딸리민 감주 뒈는 거. (보리 이제 '물우쪙' 놨다가. '물우쪙' 놨다가 '발'이 나. '물우쪙' 자꾸 물 줘가면 '발' 나면, 보리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발'이 나면 이젠 자꾸 마대에 놔두고 물 가

159) '물우찌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이다.
160) '발'은 보리에 물을 뿌려서 나온 싹을 말한다.

져다가 촉촉촉촉 뿌리면 ‘발’은 먼저 나고 말째 이제 순 나는 거 이만큼씩 뾰족뾰족 나. 나기 시작하면 한 번에 말리면 맛이 없는데 하루 말려서 또 덮어 놨다가 말리고 하루 말렸다가 덮어서 놨다가 하고 천천히 말리면 그 놈의 엿기름이 맛이 좋아. 그러면 이젠 ‘뭰술’. 감주할 때 그 골로 감주할 땐 밥해서 조밥해서 그 감주 쌀에 밥에 가루 이제 버무려서 놔두면 바글바글 괴면 이 짜서 감주. 달이면 감주 되는 거.)

107090 @ 감주는 보리골에 조팝 헹 서껑은에.(감주는 엿기름에 조밥 해서 섞어서.)

107090 # 경 허난 저디 ○○이엔 헌 거 혼 삼 년이나 골 놔 도렌 우리 집이 오란게. 놔줘도 갑도 안 허는 거. 혼번은 보릴 ᄋᆞ져온 거 보난 이수펭 열 개에 질언 오랏어. 그 물펭에 질어다 놓난 그것이 술오리민 잘잘 나컬 어디 간 겉보리 꺼레기 부뜬 거 그디 담아 놓난 그거 파내젠 허난 부에가 어떻게 난디. 경 허난 막 똘ᄀᆞ라 골앗주게. 보리도 그냥 마다리에 비왕 믄 비왕 오랑 골 내도렌 펭 여남은 것에 나 비우젠 허난 멧 시간 들고.(그러니까 저기 ○○이라고 한 거 한 삼 년이나 골 놔 달라고 우리 집에 왔어. 놔줘도 값도 안 하는 거. 한번은 보릴 가져온 거 보니까 ‘이수펭’ 열 개에 길어서 왔어. 그 물병에 길어다 놓으니까 그것이 쌀보리면 잘잘 날걸 어디 가서 겉보리 껍질 붙은 거 거기 담아 놓아서 그거 파내려고 하니까 부아가 어떻게 났는지. 그러니까 막 딸보고 말했지. 보리도 그냥 마대에 비워서 모두 비워서 와서 엿기름 내달라고 병 여남은 것에 나 비우려고 하니까 몇 시간 들고.)

107091 @ 엿은 어떵 만드는 거꽈?(엿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7091 # 엿은 그 골에.(엿은 그 엿기름에.)

107091 @ 보릿골에?(엿기름에?)

107091 # 응. 골 헹 놧당 조팝허주게. 조팝허민 조팝이 식어. 식게 펑 놔뒷당 이젠 그 조팝에 이젠 골을 버무령 게민 조불조불 물 잇게 버무령 놔두민 두께 더껑 놔두민 귀여. 귀게 뒈어. 푸그락 푸그락 귀어 가민 그때 그것이 체 받앙인에 짜.(응. 엿기름 해서 놨다가 조밥하지. 조밥하면 조밥이 식어. 식게 퍼서 놨다가 이젠 그 조밥에 이젠 엿기름 버무려서 그러면 ‘조불조불’ 물 있게 버무려서 놔두면 뚜껑 덮어서 놔두면 괴어. 괴게 돼. ‘푸그락 푸그락’ 괴어 가면 그때 그것이 체 받아서 짜.)

107091 @ 그게 감주렌 허지 안헨 아까?(그게 감주라고 하지 않았어 아까?)

107091 # 게 감주게. 짜, 막 짱인에 딸리민 감주 뒈고 너미 딸리민 엿 뒈고.(그러게 감주. 짜, 막 짜서 달이면 감주 되고 너무 달이면 엿 되고.)

107091 @ 아, 더 오래 딸리민 엿 뒈는 거? 감주를?(아, 더 오래 달이면 엿 되는 거? 감주를?)

107091 # 응.(응.)

107091 @ 아, 감주영 엿이영 허는 건 똑ᄀᆞ튼디 오래 딸리민 엿 뒈는 거?(아, 감주랑 엿이랑 하는 건 똑같은데 오래 달이면 엿 되는 거?)

107091 # 겡 듹 잡앙인에 저 시민 듹ᄀᆞ치 엿을 바글바글 이젠 쩹찌랑 귀여가민

그 둑을 들이쳐. 둑을 들이쳥인에 문작이 감주에서 익으민 건져내엉 궤기 막 치정인에 그 감주 귀는 드레 놩인에 꽝은 줏어두곡 딸리민 둑엿 뒈어. 빨강헌 게 맛 좋아. 우리 하르방 일 년에 엿 열 번 헷저, 열 번. 둑 잡앙 엿허지, 뒈야지궤기 잡앙 엿허지 허멍 짓 멕경인에.(그래서 닭 잡아서 저 있으면 닭처럼 엿을 바글바글 이젠 짜서 괴어가면 그 닭을 들이뜨려. 닭을 들이뜨려서 '문작이' 감주에서 익으면 건져내어서 고기 막 찢어서 그 감주 괴는 데로 놔서 뼈는 주워두고 달이면 닭엿 돼. 빨간 게 맛 좋아. 우리 할아버지 일 년에 엿 열 번 했어, 열 번. 닭 잡아서 엿하지, 돼지고기 잡아서 엿하지 하면서 마구 먹여서.)

107091 @ 도새기궤기도 경헹 엿 허여?(돼지고기도 그렇게 해서 엿 해?)

107091 # 도새기궤기도 엿 헤영인에 감주 허영 쩹질지. 쩹지랑인에 보글보글 귀게 뒈가민 도새기궤기 그디 좀질이 썰엉 들이쳐.(돼지고기도 엿 해서 감주 해서 짜지. 짜서 보글보글 괴게 되어가면 돼지고기 거기 자잘하게 썰어서 들이뜨려.)

107091 @ 경 허민 엿 뒈는 거?(그러면 엿 되는 거?)

107091 # 경 허민 막 딸리민 발강허게 엿 뒈어.(그러면 막 달이면 발갛게 엿 돼.)

107091 @ 아까 저 누룩하고 좁쌀은 쩹찌랑은에 건져불고 국물만 허는 거지예?(아까 저 누룩하고 좁쌀은 짜서 건져버리고 국물만 하는 거지요?)

107091 # 응.(응.)

107091 @ 누룩은 어떵 멘드는 거꽈?(누룩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7091 # 누룩은이 보리ᄀᆞ루 헤당 보리 신 사름은 보리 ᄀᆞᆯ앙인에 쪙인에 다데 멘드는디 다데 멘들랑 티우민 누룩이 뒈는 건디. 방에 지는 디 갓단에 저 누룩, 보리ᄀᆞ루 담아단 누룩 허연에, 봄이 나 대음헤부난에 저추룩 믄 헤싸젼. 누룩허영 자꾸 틔와가민이 또시 다른 검질 놩 썩곡 헐 건디 아판에 드르 던졍 내부난 저추룩 믄 부서지멍 헤도 저거 미깡밧 허는 사름이 미깡밧 허는 사름 누룩이 하민이 무시거 물통에 저 누룩 담곡 검은 설탕 담곡 경 허영 그 미깡 파치 던져부는 거 담곡 허영 놧당 그것이 액비라. 액비 뭔 거엔 헹 미깡낭에 줘도 좋고, 다른 농사허는 디 뿌려도 그렇게 좋아.(누룩은 보릿가루 해다가 보리 있는 사람은 보리 갈아서 쪄서 '다데' 만드는데 '다데' 만들어서 틔우면 누룩이 되는 건데. 방아 찧는 데 갔다가 저 누룩, 보릿가루 담아다가 누룩 해서, 봄에 나 게을리해 버리니까 저렇게 모두 갈라졌어. 누룩해서 자꾸 틔워가면 또 다른 검불 놔서 썩고 할 건데 아파서 마구 던져서 내버리니까 저처럼 모두 부서지면서 해도 저거 귤밭 하는 사람이 귤밭 하는 사람 누룩이 많으면 무엇 물통에 저 누룩 담고 검은 설탕 담고 그렇게 해서 그 귤 파치 던져버리는 거 담고 해서 놨다가 그것이 액비야. 액비 된 거라고 해서 귤나무에 줘도 좋고, 다른 농사하는 데 뿌려도 그렇게 좋아.)

107091 @ 비료로?(비료로?)

107091 # 그 물로게, 영양제 물로.(그 물로, 영양제 물로.)

107091 @ 거름으로? 누룩은 보리ᄀᆞ루로?(거름으로? 누룩은 보릿가루로?)

107091 # 보리ᄀᆞ루 멘들앙게.(보릿가루 만들어서.)

107091 @ 떡 멘들아?(떡 만들어?)

107091 # 떡 멘들앙 뭐 더껑 놔두민.(떡 만들어서 뭐 덮어서 놔두면.)

107091 @ 뭐 더꺼?(뭐 덮어?)

107091 # 아무거라도.(아무거라도.)

107091 @ 풀? 보리찍?(풀? 보리짚?)

107091 # 보리찍이나 아무거나 시민 더껑인에 잘 헤영 놧당 또시 놩 내불지말앙 따시 영 보민 텀시민 따시 자리 바꽈주곡 헤사여. 이디서 물 울어불곡 허민.(보리짚이나 아무거나 있으면 덮어서 잘 해서 놨다가 또 놔서 내버리지 말고 다시 이렇게 보면 트고 있으면 다시 자리 바꿔주고 해야 해. 여기서 물이 돌아버리고 하면.)

107091 @ 거믄 안 뒈고?(그러면 안 되고?)

107091 # 영 따시 헤주곡 헤주곡 헤가민 누룩 냄살 낭 막 좋나. 경헤영 그거 ᄆᆞᆯ르민 누룩허민 밥 먹당 실퍼도 둬 ᄌᆞ베기 그창인에 밥 줌앙. 무신 그릇에 줌앙 ᄀᆞ루로 허지 아니혀. 요만썩 줍앙 들이쳣당 건져뒁 순다리로도 먹고.(이렇게 다시 해주고 해주고 해가면 누룩 냄새 나서 막 좋아. 그렇게 해서 그거 마르면 누룩하면 밥 먹다가 싫어도 둬 수제비 잘라서 밥 말아서. 무슨 그릇에 말아서 가루로 하지 않아. 요만큼씩 집어서 들이뜨렸다가 건져두고 '순다리'로도 먹고.)

107089 @ 쉰다리는 만들엉 먹는 거 아니?('쉰다리'는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니?)

107089 # 그것이 순다리 멘드는 거주게.(그것이 '순다리' 만드는 거지.)

107089 @ 어떵 헹 순다리는 밥으로 헹인에 허는 거 아니마씸?(어떻게 해서 '순다리'는 밥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107089 # 밥허민 그 누룩 벙뎅이 놓으민[노민] ᄀᆞ루 놓으민[노민] 골아당 놓으민[노민] 허주마는 밥더레.(밥하면 그 누룩 덩어리 넣으면 가루 넣으면 갈아다가 넣으면 하지마는 밥에.)

107089 @ 밥 먹당 남은 걸로 허는 거 아니? 식은 밥으로.(밥 먹다 남은 걸로 하는 거 아니? 식은 밥으로.)

107089 # 응, 식은 밥 남으민 물 놩 줌주게. 줌아지주게, 자불자불 줌아지민 벙뎅이 그창인에 흔 멧 개 놔, 그레. 놩 놔두민 그거 응집으로 그디가 다 귀여. 귀민 또시 골로로 영 젓엉 내불민 귀엇당 영 ᄒᆞ쏠 약허민 그디 누룩 벙뎅이 영 숫구락에라도 누들어불곡 그렇지 아니허믄 그거 줏어뒁인에 순다리로 먹엉 막 좋아. 그 ᄌᆞ베기 건졍인에 바싹 ᄆᆞᆯ렷당인에 그거 들이쳐도 순다리 뒈어.(응, 식은 밥 남으면 물 넣어서 말지. 말 수 있지, '자불자불' 말면 덩어리 잘라서 한 몇 개 넣어, 그리. 넣어서 놔두면 그거 응집으로 거기가 다 괴어. 괴면 또 골고루 이렇게 저어서 내버리면 괴었다가 이렇게 조금 약하면 거기 누룩 덩어리 이렇게 숟가락에라도 눌러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주워두고 '순다리'로 먹어서 아주 좋아. 그 수제비 건져서 바싹 말렸다가 그거 들이뜨려도 '순다리' 돼.)

107089 @ 헷던 거 또 써도 뒈어?(했던 거 또 써도 돼?)

107089 # 응, 열로.(응, 열로.)

107089 @ 게민 누룩은 순다리도 만들고 술도 아까 멘들고?(그러면 누룩은 '순다리'도 만들고 술도 아까 만들고?)

107089 # 아니 누룩은 보리ᄀᆞ루로 멘드는디.(아니 누룩은 보릿가루로 만드는데.)

107090 @ 어디 놓는 거꽈? 누룩은 만들민 무신거 헐 때, 무신거 헐 때 써?(어디 놓는 겁니까? 누룩은 만들면 무엇 할 때, 무엇 할 때 써?)

107090 # 누룩은 멘들민 순다리 헐 때나 쓰곡게 술이나 헴시민 술에.(누룩은 만들면 '순다리' 할 때나 쓰고 술이나 하고 있으면 술에.)

107090 @ 술 헐 때도 쓰고?(술 할 때도 쓰고?)

107090 # 게. 술 허영인에 술 귀민 술이 뒈는 거지게. 돗수가 넘으민 술이 뒈는 거. 나 술도 흔 번에 열 항썩 헤낫저. 큰 항으로 열 개썩 허영.(그렇지. 술 해서 술 괴면 술이 되는 거지. 도수가 넘으면 술이 되는 거. 나 술도 한 번에 열 항씩 했었어. 큰 항으로 열 개씩 해서.)

107092 @ 그거 말고 또 옛날에 이런 거 말고 또 먹어난 거 이수과? 이젠 안 먹는데 옛날엔 이런 것도 먹어낫저, 영허는 거?(그거 말고 또 옛날에 이런 거 말고 또 먹었던 거 있습니까? 이젠 안 먹는데 옛날엔 이런 것도 먹었었어, 이렇게 하는 거?)

107092 # 엿날에 아이 먹어난 거 엇어.(옛날에 안 먹었던 거 없어.)

107092 @ 먹는 거 다 ᄀᆞᆯ아진 철인가?(먹는 거 다 말한 차례인가?)

107092 # 다 ᄀᆞᆯ아진 것 닮다. 난이 나이 먹은 건 하난 다 ᄀᆞᆯ아진 것 닮다.(다 말한 거 같다. 난 나이 먹은 건 많으니까 다 말한 거 같다.)

107092 @ 하하하.(하하하.)

107092 # 미깡밧 허는 사름은 누룩 허영인에 미깡 던져부느니 썩는 거 그거 통개에 담곡 그 누룩 담아 헉설탕 헹 놔두민 액비가 뒈어. 경 허민 미깡낭 영양제로 줭인에.(귤밭 하는 사람은 누룩 해서 귤 던져버리느니 썩는 거 그거 '통개'에 담고 그 누룩 담아서 흑설탕 해서 놔두면 액비가 돼. 그러면 귤나무 영양제로 줘서.)

107092 @ 흑설탕?(흑설탕?)

107092 # 헉설탕. 게민 스피카통으로 그걸 뿌리젠 허민 스피카통에 이제 이수펭으로 물펭으로 하나 놩인에 미깡낭에 뿌렷주마는 또시 열 말 통에 허젠 허민 스피카통으로 하나 물을 놔야 또시 열 말 돗수가 맞앙인에 뿌리고 미깡에.(흑설탕. 그러면 '스피카통'으로 그걸 뿌리려고 하면 '스피카통'에 이제 '이수펭'으로 물병으로 하나 놔서 귤나무에 뿌렸지마는 또 열 말 통에 하려고 하면 '스피카통'으로 하나 물을 놔야 또 열 말 도수가 맞아서 뿌리고 귤에.)

107092 @ 스피카통 어만이 헌 거?('스피카통' 얼마만큼 한 거?)

107092 # 저 우리 이디 그.(저 우리 여기 그.)

107092 @ 약 허는 거. 영 헹 약 허는 약통?(약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약 하는 약통?)

107092 # 약통도 싯곡. 그냥 그 약 ᄋᆞ져오민 그 통이 잇잖아게. 들르는 그 지는

통 부럭진 담아지는 통으로 하나.(약통도 있고. 그냥 그 약 가져오면 그 통이 있잖아. 드는 그 지는 통 부피는 담을 수 있는 통으로 하나.)

107092 @ 그게 스피카통?(그게 '스피카통'?)

107092 # 응, 그걸로 하나 열 말 물. 그 물더레 허젠 허민 그걸로 하나 탕인에 그 밧 뿌려도 뒈고 미깡 영양제로 막 좋아.(응, 그걸로 하나 열 말 물. 그 물에 하려고 하면 그걸로 하나 타서 그 밭에 뿌려도 되고 귤 영양제로 아주 좋아.)

107092 @ 할머니 저거 누룩 뭐허젠 헷수과?(할머니 저거 누룩 뭐하려고 했습니까?)

107092 # 저거 누룩 헤영인에 그 저 미깡 나오건 파치덜 내부는 이 액비 멘들젠 헤영 놔두난에 저추룩 문 헤싸젼.(저거 누룩 해서 그 저 귤 나오면 파치들 내버리는 이 액비 만들려고 해서 놔두니까 저렇게 모두 갈라졌어.)

107092 @ 순다리 헹 먹는 건 아니고?('순다리' 해서 먹는 건 아니고?)

107092 # 순다리 헹 먹는 건 더 깨끗허게 헤사주게. 저건 그냥.('순다리' 해서 먹는 건 더 깨끗하게 해야지. 저건 그냥.)

107092 @ 나중에 비료로 미깡밧이 주젠 헌 거?(나중에 비료로 귤밭에 주려고 한 거?)

107092 # 응.(응.)

107088 @ 이제 무사 오메기떡, 오메기떡 헹 막 풀고 헙니께? 풋 헤근에 풋 쉬무쳐근에.(이제 왜 '오메기떡', '오메기떡' 해서 막 팔고 하잖습니까? 팥 해서 팥 고물 무쳐서.)

107088 # 오메기떡 헹 픈는 딘 못 봣어.('오메기떡' 해서 파는 덴 못 봤어.)

107088 @ 할머니 안 먹어봣구나. 나 다음엔 사오쿠다. 오메기떡 헹예 만들어근에 다 풀아. 그냥예 찹쌀인지 그냥 저 좁쌀인지 모르겟는데.(할머니 안 먹어봤구나. 나 다음엔 사오겠습니다. '오메기떡' 해서요 만들어서 다 팔아. 그냥요 찹쌀인지 그냥 저 좁쌀인지 모르겠는데.)

107088 # 여기선 이 오메기떡이엔 허민이 큰일칩[161]인 떡 허젠 허민 흰ᄀᆞ루 쪙인에 이젠 동그락허게시리 오메기추룩 허영 가운데 터좌. 영영 가운데 터좡인에 솟듸 물에 놩 숢아. 그 오메기 건지렌 헹 건졍 그 식으민 막 쪙인에 절벤도 멘들고 밀멍이, 절벤도 밀곡, 솔벤도 밀곡 경 허메. 오메기떡이엔 이딘선 경 ᄀᆞᆯ아.(여기선 이 오메기떡이라고 하면 '큰일칩'엔 떡 하려고 하면 흰가루 쪄서 이젠 동그랗게끔 '오메기'처럼 해서 가운데 터뜨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터뜨려서 솥에 물에 넣어서 삶아. 그 '오메기' 건지라고 해서 건져서 그 식으면 막 찧어서 절편도 만들고 밀면서, 절편도 밀고, '솔벤'도 밀고 그렇게 해. '오메기떡'이라고 여기선 그렇게 말해.)

107088 @ 아, 잠깐만. 술헐 때 오메기술 헐 때 허는 게 아니고 떡헐 때도 오메기 떡 멘들앙은에 밀엉은에 절벤도 멘들고 솔벤도 멘들아?(아, 잠깐만. 술할 때 '오

161) '큰일칩'은 결혼, 회갑, 초상 따위의 큰 잔치나 예식 등의 큰일을 치르는 집이라는 뜻이다.

메기술'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떡할 때도 '오메기떡' 만들어서 밀어서 절편도 만들고 '솔벤'도 만들어?)

107088 # 응.(응.)

107088 @ 영 도나스추룩 영 동그랑허게 헤근에, 이게 오메기떡?(이렇게 도넛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게 '오메기떡'?)

107088 # 응, 그냥 그 ᄀᆞ루로 오메기 멘들앙 솟듸서 솖앙 건져내영인에 쪙인에 절벤 또시 허멍 누둘민 절벤 뒈고 또시 이제 그 솔잎떡 본으로 뜨민 솔벤 뒈고 경 허는 거주게.(응, 그냥 그 가루로 '오메기' 만들어서 솥에서 삶아서 건져내어서 쪄서 절편 또 하면서 누르면 절편 되고 또 이제 그 솔잎떡 본으로 뜨면 '솔벤' 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

107088 @ 다시 치지 안헹 거믄?(다시 찌지 않아서 그러면?)

107088 # 응.(응.)

107088 @ 아, 원래 쌀가루로 헐 때는.(아, 원래 쌀가루로 할 때는.)

107088 # 쏠ᄀᆞ루로, 쏠로 ᄀᆞ루로 헐 때는 또시.(쌀가루로, 쌀로 가루로 할 때는 또.)

107088 @ 쳐야 뭡니께?(쪄야 되잖습니까?)

107088 # 치곡 또 오메기 솖아야 허고. 오메기 솖젠 허민 영영 멘든 거 그 이제 동그락 떡 멘든 건 솖젠 허민 그냥 이 대썹을 ᄋᆞ져당 놩 그 오메기 멘든 거 잇지, 솟듸 놩 솖당 데쓰젠 허민 요것이 싹허민 데싸져. 게고 솔벤은 그냥 ᄀᆞ루로 쪙 솔벤본[162]으로 딱딱 떠.(찌고 또 '오메기' 삶아야 하고. '오메기' 삶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 그 이제 동그란 떡 만든 건 삶으려고 하면 그냥 이 댓잎을 가져다가 놔서 그 '오메기' 만든 거 있지, 솥에 놔서 삶다가 뒤집으려고 하면 요것이 싹 하면 뒤집어져. 그리고 '솔벤'은 그냥 가루로 쪄서 '솔벤본'으로 딱딱 떠.)

107088 @ 게난.(그러니까.)

107088 # 솔벤으로 뜨민 무사 솔벤이엔 허민 시리에 솔잎을 끌앙 솔잎 끌앙 그 우터레 떡 놓민 또 떡 우터레 솔썹은 술술술 더껑 또 더끄곡 더끄곡 헤영 시리 이빠이 허민 이젠 시리에 치당인에 다 익은 거 닮으민 큰 동이에 물 놩, 물 놩 그 시리채 탁 어펑 시리 들러 뒁인에 영영영 헤가민 솔썹 ᄐᆞ로 이레 가곡 떡은 떡대로 건졍 경헹 그것이 솔펜.('솔벤'으로 뜨면 왜 '솔벤'이라고 하면 시루에 솔잎을 깔아서 솔잎 깔아서 그 위에 떡 놓으면 또 떡 위에 솔잎은 살살살 덮어서 또 덮고 덮고 해서 시루 가득 하면 이젠 시루에 찌다가 다 익은 거 같으면 큰 동이에 물 놔서, 물 놔서 그 시루째 탁 엎어서 시루 들어 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솔잎 따로 이리 가고 떡은 떡대로 건져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솔벤'.)

107088 @ 솔벤. 아, 게난 오메기떡은 무신 헐 때 쓰는 거?('솔벤'. 아, 그러니까 '오메기떡'은 무엇 할 때 쓰는 거?)

107088 # 오메긴 그자 절벤 헐 때 쓰는 거주게.('오메기'는 그저 절편 할 때 쓰

162) '솔벤본'은 '솔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반달 모양의 떡살이다.

는 거지.)

107088 @ 절벤헐 때도 오메기로 헤? 술 헐 때만 허는 거 아니고?(절편할 때도 '오메기'로 해? 술 할 때만 하는 거 아니고?)

107088 # 술 헐 때도 오메기 허영인에 오메기로 허영 숢앙인에 그 누룩에 버무령인에 술 허곡.(술 할 때도 오메기 해서 오메기로 해서 삶아서 그 누룩에 버무려서 술 하고.)

107088 @ 거난 떡헐 때도.(그러니까 떡할 때도.)

107088 # 오메기 말은 놀채 멘들앙, 놀채 멘들앙인에 숢앙인에 누룩에 버무령은.('오메기' 말은 날째 만들어서, 날째 만들어서 삶아서 누룩에 버무려서는.)

107088 @ 술 뒈고.(술 되고.)

107088 # 또시 이제 절벤도 그 오메기로 쪙인에 밀엉 판이로 꼭꼭 누들민 절벤떡 뒈고, 솔벤떡 뒈고.(또 이제 절편도 그 '오메기'로 쪄서 밀어서 떡본으로 꼭꼭 누르면 절편떡 되고, '솔벤'떡 되고.)

107088 @ 오메기떡 숢앙은에 절벤 본 찍은 건 또 치진 안허고 그냥 허여?('오메기떡' 삶아서 절편 떡살 찍은 건 또 찌지 않고 그냥 해?)

107088 # 지름 불르멍 딱딱 쪄내주. 솔벤 불랑 솔잎떡 그냥 청인에 탁 시리채 비우민 솔썹 ᄂᆞ리치멍 그거 씻엉 이젠 새 꼴주게, 새 꼴민 그레 짝 널엉 시들어가민 줏으멍 상헌 건 상헌 대로 ᄀᆞ진 건 ᄀᆞ진 것대로 손에 ᄋᆞ정 지름 영영 불르멍.(기름 바르면서 딱딱 쪄내지. '솔벤' 발라서 솔잎 떡 그냥 쪄서 탁 시루째 비우면 솔잎 내리치면서 그거 씻어서 이젠 띠 깔지, 띠 깔면 그리 쫙 널어서 시들어가면 주우면서 상한 건 상한 대로 온전한 건 온전한 것대로 손에 가져서 기름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서.)

107088 @ 그럼 솔벤 만드는 방법이 두 개? 두 가지?(그럼 '솔벤' 만드는 방법이 두 개? 두 가지?)

107088 # 하나.(하나.)

107088 @ 게민 오메기 숢앙 허는 건 뭐라 게난?(그러면 '오메기' 삶아서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107088 # 오메기 숢은 건 그저 절벤게.(오메기 삶는 건 그저 절편.)

107088 @ 아, 절벤.(아, 절편.)

107088 # 절벤은 동글락떡.(절편은 동그란 떡.)

107088 @ 아, 솔벤 아니고 절벤은 오메기 숢앙은에 영영 헹은에 딱 찍으는 거? 또 치지 안허고.(아, '솔벤'은 아니고 절편은 '오메기' 삶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찍는 거? 또 찌지 않고.)

107088 # 응.(응.)

107088 @ 또 치지 안허고?(또 찌지 않고?)

107088 # 안 쳐. 숢앙 건정 오메기 숢앙이 건정인에 바삭바삭 데불멍 쪙인에 이젠 동그레기 멘들주게. 동그레기 멘드는 사름 ᄯᅳ나고 두 개 부청인에 영영허민 본

으로 딱딱 뜨민 절벤.(안 쪄. 삶아서 건져서 ‘오메기’ 삶아서 건져서 바삭바삭 뜨거워서 쪄서 이젠 동그라미 만들지. 동그라미 만드는 사람 다르고 두 개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떡살로 딱딱 뜨면 절편.)

107088 @ 절벤은 원래 가루로 반죽헹 안 만드는 거꽈?(절편은 원래 가루로 반죽해서 안 만드는 겁니까?)

107088 # 아니.(아니.)

107088 @ 만드는 방법이 뜻나구나.(만드는 방법이 다르구나.)

107088 # 솔벤은 ᄀᆞ루로 멘들앙 놀ᄀᆞ루로 멘들앙인에 이제 영영 밀엉 그 솔벤 떡으로 떠. 뜨민 이제 시리에 솔썹 끌고 그레 톡톡 놓고 솔썹 놓고 톡톡 놓고 허영 다 익으민 시리채 이젠 그 다라레 들러당 탁 비왕 시리 들러뒁 그레 물 근근 놓민 영영영 솔썹 이레 좔좔 옆더레 가고 솔떡은 줏엉인에 새 넌 더레 쫙 널고.(‘솔벤’은 가루로 만들어서 날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그 ‘솔벤’ 떡으로 떠. 뜨면 이제 시루에 솔잎 깔고 그리 톡톡 놓고 솔잎 놓고 톡톡 놓고 해서 다 익으면 시루째 이젠 그 대야에 들어다가 탁 비워서 시루 들어두고 그리 물 근근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솔잎 이리 좔좔 옆으로 가고 ‘솔떡’은 주워서 띠 넌 데로 쫙 널로.)

107088 @ 이젠 오메기떡이엔 헌 건 할머니, 요만이 헹은에 저 찹쌀이나 좁쌀로 헹은에 만들엉 이디에 풋 막 부친 거. 그게 오메기떡이엔 헹 풀암서.(이젠 ‘오메기떡’이라고 한 건 할머니, 요만큼 해서 저 찹쌀이나 좁쌀로 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팥 막 붙인 거. 그게 ‘오메기떡’이라고 해서 팔고 있어.)

107088 # 이젠?(이젠?)

107088 @ 응.(응.)

107088 # 그것ᄀᆞ라. 오메기떡?(그것보고. ‘오메기떡’?)

107088 @ 응.(응.)

107088 # 게, 오메기 경 만든 건 오메기떡이엔 헤도.(그러게, ‘오메기’ 그렇게 만든 건 ‘오메기떡’이라고 해도.)

107088 @ 요렇게 도나스추룩 안 만들고예 그냥 동그락허게 헹인에.(요렇게 도넛처럼 안 만들고 그냥 동그랗게 해서.)

107088 # 게메게. 입으로 난 것 다 그렇게 ᄀᆞᆯ으민 뒈는 거게. 오메기 삶앙인에 건져내민 바삭바삭 손 떼불어도 그거 막 찌민 이젠 동글락 동글락 떡을 멘들민 두 개 합쳥 본으로 딱 떵 절벤.(그러게. 입으로 난 것 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오메기’ 삶아서 건져내면 바삭바삭 손 뜨거워도 그거 막 찧으면 이젠 동그란 동그란 떡을 만들면 두 개 합쳐서 떡살로 딱 떠서 절편.)

107088 @ 그게 절벤.(그게 절편.)

107088 # 영 데쌍 누둘곡 영 데쌍 누둘곡 경 지름 불르멍 놓고 솔벤은 솔잎 끌멍 쳥인에 씻으멍 놓고.(이렇게 뒤집어서 누르고 이렇게 뒤집어서 누르고 그렇게 기름 바르면서 놓고 ‘솔벤’은 솔잎 깔면서 쪄서 씻으면서 놓고.)

8. 주생활

구조

108001 @ 옛날에 집 지어난 경험 잇수과?(옛날에 집 지었던 경험 있습니까?)

108001 # 응, 집 짓젠 허난 이디 토신제 헤여. 이 톨, 토신제 놉 빌언에 허연. 이젠 목시 빌언에 집을 짓게 뒈난 목시영 계약헤연 얼마 허켄 헨 그때에 집을 그 사름 시 거리 마타서. 집을 시 거리 마탄 짓으는디 우린 밥을 아니 헤주기로 허연에 지네냥으로 오랑은에 밥 먹엉은에 집 짓으기로 허연. 허엿는디 경헤도 너미 미안헤영이 저냑엔 오랑인에 보민 인부들이 가지 아니시민 일꾼들이 안 가시민 너미 미안헤영 요 집이 판매칩[163]이난 고기 멧 근 사곡 산뒤쏠 밥 허영 일허는디 쉬렌 허여근에 이디서 주난이 그 사름이 놈의 집보단 더 잘헤줘. 재게 헤줘. 재게 헤주고 이.(응, 집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 토신제 해. 이 톨, 토신제 놉 빌려서 했어. 이젠 목수 빌려서 집을 짓게 되니까 목수랑 계약해서 얼마 하겠다고 해서 그때에 집을 그 사람 세 채 맡아서. 집을 세 채 맡아서 짓는데 우린 밥을 안 해주기로 해서 자기대로 와서 밥 먹어서 집 짓기로 했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저녁엔 와서 보면 인부들이 가지 않았으면 일꾼들이 안 갔으면 너무 미안해서 요 집이 '판매집'이니까 고기 몇 근 사고 밭벼쌀 밥해서 일하는데 쉬라고 해서 여기서 주니까 그 사람이 남의 집보단 더 잘해줘. 재게 해줘. 재게 해주고.)

108001 @ 이 집 짓을 때 말이주예?(이 집을 지을 때 말이지요?)

108001 # 음, 재게 헤주고 또 낭을 전시 집 시 거리에 거 전시 이 근처 오란에 놔뒀어. 우리 거 다 짓어가난 저 동부락 사름은 우리 낭으로 낭 뽑아단에 좋은 걸로만 짓엇젠 허멍 우리신듸 막 시비허멍. 저 인성 사름은이 허곡. 보성 할망은 지네 서방은 늙어부난에 어떵 헤도렌 허지 안 헷젠 헤영이 우리 집 짓은 거 오란 보난 이것도 잘허고 이것도 잘허고 뚤들 둘안 오란이 그 사름도 아들 성제 신 사름인디 뚤들 둘안 오란 아이고 하르방 동산에 잘헤 도렌 헌디 니네 아방은 곧지 안혀놓난 이것도 족영 허고 이것도 족영 헷젠 허멍 우리 집이레 왕 울멍게이.(음, 재게 해주고 또 나무를 모두 집 세 채에 그거 모두 이 근처 와서 놔뒀어. 우리 그거 다 지어가니까 저 동부락 사람은 우리 나무로 나무 뽑아다가 좋은 걸로만 지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막 시비 하면서. 저 인성 사람은 하고. 보성 할머니는 자기네 서방은 늙어버리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집 지은 거 와서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딸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도 아들 형제 있는 사람인데 딸들 데리고 와서 아이고 할아버지 동산에 잘해 달라고 했는데 너희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서 이것도 적게 하고 이것도 적게 했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울면서.)

108001 @ 응.(응.)

108001 # 우리가 무슨 잘헤 도렌 그 사름네보다 잘헤 도렌 헌 것도 아니고 그

163) '판매칩'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파는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사름네 영 꼭ᄀᆞ치 돈 내놩 꼭ᄀᆞ치 짓은 건디 경 허영 우리신듸 막 ᄉᆞ뭇 엄살허영근에 몸새허곡 그 할망 경 헤 가난 우리 아방은 아니 나가 무슨 우리 낭 좋은 걸로 뽑아 도렌도 아니허곡 우린 낮에 일 강 오랑 보민 드러 헴시민 미안헤영 우리 애기 아방은 술도 아이 먹는 사름이난 미안헤영 술 대접 헐 중은 모르곡 고기 사당은에 이디서 구웡인에 먹으렌 허게시리 헤영 고기 사당 이디서 구멍 이제 우리 그때 우리 하르방은 우린 보리밥 먹을 때 그 사름은 우리 주인은 곤밥 먹으멍 살앗주게. 게난 당신 밥허는 쏠로 밥 낭푼이에 헤영 오란 고기 구우멍 먹으렌 허난 특별히 잘 헤줘게. 특별히 잘헤 주난 양펜이 오란 양펜이 사름들이 ᄃᆞᆫ딱 낭도 좋은 걸로 빼어 졋젠 우리 하르방이영 막 시비허멍 쌉젠 허곡 헤나시네게.(우리가 무슨 잘해 달라고 그 사람네보다 잘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네 이렇게 똑같이 돈 내놔서 똑같이 지은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막 사뭇 엄살해서 '몸새'하고 그 할머니 그렇게 해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니 내가 무슨 우리 나무 좋은 걸로 뽑아 달라고 안하고 우린 낮에 일 가서 와서 보면 들이 하고 있으면 미안해서 우리 아기 아버지는 술도 안 먹는 사람이니까 미안해서 술 대접 할 줄은 모르고 고기 사다가 여기서 구워서 먹으라고 하게끔 해서 고기 사다가 여기서 구우면서 이제 우리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린 보리밥 먹을 때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은 흰쌀밥 먹으면서 살았지. 그러니까 당신 밥하는 쌀로 밥 양푼에 해서 와서 고기 구우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특별히 잘 해줬어. 특별히 잘해 주니까 양편이 와서 양편이 사람들이 모두 나무도 좋은 걸로 빼었다고 우리 할아버지랑 막 시비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했었어.)

108001 @ 이 집은 짓은 지 얼마나 뒛수과?(이 집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8001 # 이 집 짓언 얼마 뒈신고?(이 집 지어서 얼마 됐는고?)

108001 @ 혼 이십 년 뒈신가?(한 이십 년 됐나?)

108001 # 이십 년 더 뒛어.(이십 년 더 됐어.)

108001 @ 더 뒛어?(더 됐어?)

108001 # 게.(그렇지.)

108001 @ 경헤도 그때 막 큰 집 아니꽈예? 이거 이 집예? 이 정도 허믄예.(그래도 그때 아주 큰 집 아닙니까요? 이거 집요? 이 정도 하면요.)

108001 # 응. 그때 우리 애기가 이디 오란 중흑교 들어가신디.(응 그때 우리 아기가 여기 와서 중학교 들어갔는데.)

108001 @ 아, 이디 왕 중흑교 들어간?(아, 여기 와서 중학교 들어갔어?)

108001 # 큰아들.(큰아들.)

108001 @ 그믄 삼십 년 넘어신게.(그럼 삼십 년 넘었네.)

108001 # 게.(그렇지.)

108001 @ 아들이 중흑교 뎅겨시민게 이제 혼 오십 뒈지 안허연?(아들이 중학교 다녔으면 이제 한 오십 되지 않았어?)

108001 # 오십 더 뒛저게.(오십 더 됐다.)

108001 @ 거난 경 허민게예.(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108001 # 경혜연. 이 집이서 살멍.(그랬어. 이 집에서 살면서.)

108001 @ 혹교, 중혹교 허젠 허난에.(학교, 중학교 하려고 하니까.)

108001 # 혹쏠 어려워 붸연에 뭐 허난에 모실포 우리 셋뚤네 집에 간에 일 년 살앗주게. 일 년 살젠 허민 돈을 노랑 구리전 바꽝인에 똑 모실포 강 올 때 돈을 주주게, 아길. 경 주멍 헤여젼게. 오랫주게. 노랑 구리전 줄 때난이. 경 허연, 저 모실포 숭악허연. 모실포서 고등혹교 허난 그디서 공부 잘허는 아이 육지서 회사에서 지네 회사에 강인에 그디서 일등한 아이들 회사에 강 공부시경은에 큰 혹교 시기켄 헨에 추첨을 오난 우리 아들도 가지 기루완이 돈 아이 들언 어무니네 아버지네 돈 아이 들엉인에 헐 거난 가지 기루완 막 허난 우리 하르방은 큰아들네도 머리 엇엉 큰아들도 머리 엇엉 공부 못한디 그거 하나 어디 노동하멍 못 시기느넨 절대 안 보내켄. 겐 못 보냇주게. 우리 아들 친군 그 회사에 가네 홀어멍 아들이난 그 회사서 공부허연 출세허연 잘 뒈곡 우리 아들은 이디서 허연.(조금 어려워 보여서 뭐 하니까 모슬포 우리 둘째딸네 집에 가서 일 년 살았지. 일 년 살려고 하면 돈을 노란 구리전 바꿔서 꼭 모슬포 가서 올 때 돈을 주지, 아기를. 그렇게 주면서 했는데. 오랬지. 노란 구리전 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저 모슬포 흉악해. 모슬포서 고등학교 하니까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아이 육지서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가서 거기서 일등한 아이들 회사에 가서 공부시켜서 큰 학교 시키겠다고 해서 추천을 오니까 우리 아들도 가고 싶어서 돈 안 들어서 어머니네 아버지네 돈 안 들어서 할 거니까 가고 싶어서 막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큰아들도 머리 없어서 큰아들도 머리 없어서 공부 못했는데 그거 하나 어디 노동하면서 못 시키겠냐고 절대 안 보내겠다고. 그래서 못 보냈지. 우리 아들 친구는 그 회사에 가서 홀어머니 아들이니까 그 회사에서 공부해서 출세해서 잘 되고 우리 아들은 여기서 했어.)

108001 @ 이디서 헤도 출세헷주 무신.(여기서 해도 출세했지 무슨.)

108001 # 이디서 혜연 대혹교 시험 치러도 일등으로 뒈연게.(여기서 해서 대학교 시험 치러도 일등으로 되었어.)

108002 @ 거난. 옛날에는예 할머니 옛날 할머니 어렷을 땐 집은 무신 집 무신 집 잇수과?(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할머니 옛날 할머니 어렸을 땐 집은 무슨 집 무슨 집 있습니까?)

108002 # 옛날 집 이간집 잇곡.(옛날 집 이간집 있고.)

108002 @ 아니, 초가집 이런 거.(아니, 초가집 이런 거.)

108002 # 초가집 이간으로.(초가집 이간으로.)

108003 @ 응, 초가집.(응, 초가집.)

108002 # 초가집 이간으로 짓엇주게 다. 이간으로 짓곡 또시 혹쏠 큰 집은 세간이라이. 삼간집이영 허곡. 또 잘사는 집은 ᄉᆞ간집이엔 헹 구들 두 개 정지 허영인에 짓는 거주게. 거난 이간막살이, 삼간막살이, ᄉᆞ간집은 부제칩으로 짓곡.(초가집 이간으로 지었지 다. 이간으로 짓고 또 조금 큰 집은 삼간이야. 삼간집이랑 하고. 또 잘사는 집은 사간집이라고 해서 구들 두 개 부엌 해서 짓는 거지. 그러니까 이간막살

이, 삼간막살이, 사간집은 부잣집으로 짓고.)

108002 @ 기와집은?(기와집은?)

108002 # 기와집은 이 정도 뭔 거 기와 올리면 기와집이랏주게.(기와집은 이 정도 된 거 기와 올리면 기와집이었지.)

108002 @ 이디 옆에 헉으로 지으면 헉집이엔 허고 돌로 지으면 돌집이엔 허는가?(여기 옆으로 흙으로 지으면 흙집이라고 하고 돌로 지으면 돌집이라고 하는가?)

108002 # 게게.(그렇지.)

108002 @ 주로 옛날엔 뭘로 헉으로 헤신가마씨?(주로 옛날엔 뭘로 흙으로 했는가요?)

108002 # 헉으로게.(흙으로.)

108002 @ 헉으로예?(흙으로요?)

108002 # 주로 헉으로, 헉으로 그자 저 거적 여끈 거 닮은 거 여깡인에이 대나무로 여깡 헉덜 안팎이서 불르멍 헉집헤낫주게. 경헹 마 뒈가믄 헉 털어져가믄 또 헤당 불르멍도 허고 경헤난.(주로 흙으로, 흙으로 그저 저 거적 엮은 거 같은 거 엮어서 대나무로 엮어서 흙들 안팎에서 바르면서 흙집했었지. 그렇게 해서 장마 되어가면 흙 떨어져가면 또 해다가 바르면서도 하고 그랬어.)

108002 @ 돌집은 어떤 디 지어낫수과?(돌집은 어떤 데 지었었습니까?)

108002 # 돌집은 대걸룽 담 다근에 문 둘 디만 옆이 다 돌집이 다 경헷주게.(돌집은 대강 담 쌓아서 문 달 데만 옆에 다 돌집에 다 그렇게 했지.)

108002 @ 그런 집도 이서난?(그런 집도 있었어?)

108002 # 게, 이섯주게. 하영 이섯주게.(그렇지, 있었지. 많이 있었지.)

108003 @ 그믄 영 집이 이시민 이디 안에는 안거리 저 베끗딘 밧거리 영 헙니께예? 보통 경 허믄 집은 어떵 안거리는 몇 거리나 뒈는지.(그러면 이렇게 집에 있으면 여기 안에는 안채 저 밖엔 바깥채 이렇게 하잖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집은 어떻게 안채는 몇 채나 되는지.)

108003 # 안거리는 잘사는 사름은 ᄉᆞ간이영 헹 안거린이 구들 양편이 싯곡 ᄉᆞ간이영 헹 짓곡 밧거리는 그자 방 하나 이간허여근에 ᄒᆞᆫ 펜이 쉐 메곡 ᄒᆞᆫ 펜인 또시 사름 눌 방 하나 멘들엉 밧거리엔. 경 허곡 헤낫주게.(안채는 잘사는 사람은 사간이랑 해서 안채는 방 양편에 있고 사간이랑 해서 짓고 바깥채는 그저 방 하나 이간해서 한 편에 소 매고 한 편엔 또 사람 누울 방 하나 만들어서 바깥채엔. 그렇게 하고 했었지.)

108003 @ 밧거리 말고는 또 뭐 잇수과? 모커리 이런 거 이서?(바깥채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곁채 이런 거 있어?)

108003 # 엇어. 모커리가 밧거리.(없어. 곁채가 바깥채.)

108003 @ 아, 모커리가 밧거리? 저 대문 문 잇는 올레에 이신 거?(아, 곁채가 바깥채? 저 대문 문 있는 올레에 있는 거?)

108003 # 올레에 대문 ᄃᆞᆯ아낫주.('올레'에 대문 달았었지.)

108003 @ 그거 무신거엔 골아?(그거 무엇이라고 말해?)

108003 # 이문이엔, 이문거리.(문간이라고, 문간채.)

108003 @ 이문거리? 그믄 이문거리 잇곡, 밧거리 잇고, 안거리 잇고. 모커리엔 한 건 모커리나 밧거리나 똑ᄀᆞ튼 거? 그믄 삼칸집을 짓젠 허민, 세칸집을 짓젠 허민 어떵 헹은에 짓어사 뒈는 거꽈?(문간채? 그러면 문간채 있고, 바깥채 있고, 안채 있고. 곁채라고 한 건 곁채나 바깥채나 똑같은 거? 그러면 삼간집을 지으려고 하면, 세간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지어야 되는 겁니까?)

108004 # 삼칸집이엔 헌 건이 구들 하나하고 마리하곡 정지헤영 그것이 세간.(삼간집이라고 한 건 방 하나하고 마루하고 부엌해서 그것이 삼간.)

108004 @ 아, 그게 세칸집이구나예? 삼칸집예? 보통 게민 경헹 짓곡.(아, 그게 삼간집이군요? 삼간집요? 보통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짓고.)

108004 # 그건 가난한 사름들은 그거 세 칸. 이 정지, 마리, 구들만 헤여근에 세 칸만 짓어. 체암이 들어오는 디 정지 이거 구들 저거.(그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삼간. 이 부엌, 마루, 방만 해서 삼간만 지어. 처음에 들어오는 데 부엌 이거 방 저거.)

108004 @ 마리?(마루?)

108004 # 마린 가운디게.(마룬 가운데.)

108004 @ 아, 마린 가운디 잇곡.(아, 마룬 가운데 있고.)

108004 # 저펜 거 구들 경헹 세 커리만 잇는데 이젠 다 잘사난 삼칸집이 엇어. 옛날에이. 다 이추륵 멋지게 지성. 우리 집 지슬 때도 이거 옛날.(저편 거 방 그렇게 해서 세 채만 있는데 이젠 다 잘사니까 삼간집이 없어. 다 이처럼 멋있게 짓어서. 우리 집 짓을 때도 이거 옛날.)

108004 @ 집을 짓젠 허민 밑에 먼저 주춧돌 넣고 지둥 세우고 영 헙니께? 그건 어떵 헹 허는 거꽈?(집을 지으려고 하면 밑에 먼저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8004 # 그건 문저 이런 집 아닌 땐 우선.(그건 먼저 이런 집 아닌 땐 우선.)

108004 @ 초집 짓을 때.(초가집 짓을 때.)

108004 # 초집 짓을 때 초집 엿날에 짓을 때 삼각받이로 영 헹은에 쉐 헤영은에 영영 허민 삼칸집은 짓젠 허민 주춧돌 이디 세우고이 세웡인에 그거 받후곡 요디 강 주춧돌 영 세우곡 허영 그자 삼칸칩 간단하게 짓주게. 경 허난 이제, 이 우리 집 짓을 때도 주칫돌도 엇이 그저 밋밋 그자.(초가집 지을 때 초가집 옛날에 지을 때 삼각받이로 이렇게 해서 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삼간집은 지으려고 하면 주춧돌 여기 세우고 세워서 그거 받치고 요기 가서 주춧돌 이렇게 세우고 해서 그저 삼간집 간단하게 짓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집 지을 때도 주춧돌도 없이 그저 '밋밋' 그저.)

108004 @ 이건 다 벽돌로 헹은에 지으니까.(이건 다 벽돌로 해서 지으니까.)

108004 # 응, 벽돌로 허연 그자.(응, 벽돌로 해서 그저.)

108004 @ 옛날에 할 때 초집 짓을 때 헐 때는 낭 헤당은에예?(옛날에 할 때 초가집 지을 때 할 때는 나무 해다가요?)

108004 # 낭 헤당게. 낭 헤당인에 다 정지도 건상으로 잇곡 부엌도 건상으로 이성 마리 하나만 지둥 삼앙인에 서리 영 허영인에 마리 하나만 지둥 삼아근에 지둥 요디 세우고 요디 세웡이 요디 정제레 가는디 세우고 요딘 또시 구들레 가는디 마리에 세왕인에 지둥 양펜이 세와. 양편이 세왕인에 큰 꽝 양편이 저끄지 세왕 기추룩 허영 짓은 거주게, 옛날에. 경 허민 우에 서슬도 곤 낭 비어당.(나무 해다가. 나무 해다가 다 부엌도 건성으로 있고 부엌도 건성으로 있어서 마루 하나만 기둥 삼아서 서까래 이렇게 해서 마루 하나만 기둥 삼아서 기둥 요기 세우고 요기 세워서 요기 부엌으로 가는데 세우고 요긴 또 방으로 가는데 마루에 세워서 기둥 양편에 세워. 양편에 세워서 큰 뼈 양편에 저까지 세워서 그처럼 해서 지은 거지, 옛날에. 그러면 위에 산자도 고운 나무 베어다가.)

108004 @ 무신 낭?(무슨 나무?)

108004 # 서슬이엔 헌 거. 곤 낭 비어당 큰 낭들 영영 헴시민 이디가 헉 더꺼졍 허민 곤 낭 비어당 이디들 만딱 여끄멍 헤영인에 이디 헉 털어지지 아니허게 영 마당에서 헉이영 그 우터레 헉 볼라. 지붕 우터레 헉 볼라근에 다 볼라지민 그땐 새 올려 급하게 새 올려근에 그 헉 위 새로 더꺼근에 집 위로 줄 노왕이 줄 놩 줄로 얼건. 요즘 집 짓음사 기가 멕히주. 지인들도 돈만 내놓으민 착착 짓곡.(산자라고 한 거. 고운 나무 베어다가 큰 나무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가 흙 덮여서 하면 고운 나무 베어다가 여기들 모두 엮으면서 해서 여기 흙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마당에서 흙이랑 그 위에 흙 발라. 지붕 위에 흙 발라서 다 바르면 그땐 띠 올려 급하게 띠 올려서 그 흙 위 띠로 덮어서 집 위로 줄 놔서 줄 놔서 줄로 얽었어. 요즘 집 짓기야 기가 막히지. 지인들도 돈만 내놓으면 착착 짓고.)

108006 @ 게난예? 그 헉질허는 건 어떵 헉 헤근에 허젠 허믄 마당에 다 헉 다 파다근에 그건 어떵허는 거꽈?(그러니까요? 그 흙질하는 건 어떻게 흙 해서 하려고 하면 마당에 다 흙 다 파다가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8006 # 애당초 그 마당에 헉이 서. 그 마당에서 새로 갈아. 마당에 헉 끌앙인에 이젠 저 다른 데 헉 족으민 우져당 시껑 마당에 놩 이젠 그슨새[164]나 뭐 찝 ᄀᆞ튼 거 보리낭이나 놩인에 쉐로 막 볼려, 헉을. 막 볼령 이젠 또시 지붕 우터레 올리멍 헉으로 대걸룽 더끄주게. 어느 정도 더꺼젼에 듬성듬성 더끄민 그땐 이제 새로 집 일민 초가집 짓으민 영 누민 하늘이 배롱배롱 봐져.(애당초 그 마당에 흙이 있어. 그 마당에서 새로 갈아. 마당에 흙 깔아서 이젠 저 다른 데 흙 적으면 가져다가 실어서 마당에 놔서 이젠 '그슨새'나 뭐 짚 같은 거 보릿대나 놔서 소도 막 밟아, 흙을. 막 밟아서 이제 또 지붕 위에 올리면서 흙으로 대강 덮지. 어느 정도 덮여서 듬성듬성 덮으면 그땐 이제 띠로 집 이면 초가집 짓으면 이렇게 누우면 하늘이 '배롱배롱' 보여.)

164) '그슨새'는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그신새', '기신새'라고 한다.

108006 @ 응.(응.)

108006 # 우리 어린 때 이디서 우리 오라방네가 성제 우리 우이 우리 언니 우로 오라방이 홍역헹 둘이 죽어부난 이젠 우리 언니 다음 나, 나 다음 우리 남동생 시난 막 우리 어머니네가 화난 위에 오레비덜 아들 성제 죽으난 화난에 허난 우리 외삼촌네가 우리 어머니네가 팔남매 그 집에서 살멍 다 키왕 출세하난 우리 어머니 큰오라방이 우리 묵은 집 대강 집을 짓엉 살렌 경 허난 그때에 우리 오레빈 나영 아파서. 우리 오라방은 다 죽고 언닌 아니 아프고 나 아팡 막 죽어가난에 동네 권당 할망들이 아이고 지집아이 이젠 큰일이여, 큰일이여 하단 보난 난 빼쪽하게 살고 우리 오레비가 그 시간에 다 죽어가난이 그 집은 그날 이제 누게가 우리 사는 집은 사레 왓어.(우리 어린 때 여기서 우리 오라버니네가 형제 우리 위에 우리 언니 위로 오라버니 홍역해서 둘이 죽어버리니까 이젠 우리 언니 다음 나, 나 다음 우리 남동생 있으니까 막 우리 어머니네가 화난 위에 오라버니들 아들 형제 죽으니까 화나서 하니까 우리 외삼촌네가 우리 어머니네가 팔남매 그 집에서 살면서 다 키워서 출세하니까 우리 어머니 큰오라버니가 우리 헌 집 대강 집을 지어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오라비는 나랑 아파서. 우리 오라버니는 다 죽고 언니는 안 아프고 나 아파서 막 죽어가니까 동네 권당 할머니들이 아이고 계집아이 이젠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다 보니까 난 빼쪽하게 살고 우리 오라비가 그 시간에 다 죽어가니까 그 집은 그날 이제 누가 우리 사는 집은 사러 왔어.)

108006 @ 응.(응.)

108006 # 우린 이제 저디 강 살젠 헨 사레 오난 아이고 씀엣거리 엇인 건 살아나고 날ᄀᆞ라 씀엣거리 엇인 건 살아나고 우리 넛할망이 오란 아이고 씀엣건 아이고 씀엣거 저것 아이고 씀엣거 어떵허리. 아이고 씀엣거, 씀엣거리 엇인 건 살아나곡 아이고 씀엣건 다 죽어 감젠 오래비 다 죽어감젠 경 허멍 혜연, 그 집 흥성할 때엔.(우린 이제 저기 가서 살려고 해서 사러 오니까 아이고 '씀엣거리' 없는 건 살아나고 나보고 '씀엣거리' 없는 건 살아나고 우리 넛할머니 와서 아이고 '씀엣거'는 아니고 '씀엣거' 저것 아니고 '씀엣거' 어떻게 하리. 아이고 '씀엣거', '씀엣거리' 없는 건 살아나고 아이고 '씀엣거'는 다 죽어간다고 오라비 다 죽어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 그 집 흥정할 때엔.)

108006 @ 씀에 거 뭐? 씀에 거.('씀에 거' 뭐? '씀에 거'.)

108006 # 씀엣거리 엇인 거.('씀엣거리' 없는 거.)

108006 @ 쓸 데 없는 거?(쓸 데 없는 거?)

108006 # 쓸모 엇인 똘년은 살아나고 이제 살 아인 죽엄젠 허멍 막 허난 그 아시날ᄁᆞ지 나 다 죽엄젠 할망들이, ᄌᆞ들던 할망이 난 살아가난 좋덴 허곡 죽어도 좋덴 허곡 우리 오레비가 다 죽어가난. 게난 집 산 사름이 빵떡을 산 오란 허난 빵떡 먹으렌 헤도 나도 눈치 받안 아이 먹으멍 헨 뒷날은 헉질하는 집이 업엉 강 보난 누우난에 하늘이영 봐지는 집이 눤게. 우리 오레비 그디서 크고 또시 우리 어머니도 족은똘도 그디서 나고 허연 서 오누이 컷주게. 컹 살단.(쓸모 없는 딸년은 살아

나고 이제 살 아인 죽는다고 하면서 막 하니까 그 전날까지 나 다 죽는다고 할머니들이, 걱정하던 할머니들이 난 살아가니까 좋다고 하고 죽어도 좋다고 하고 우리 오라비가 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집 산 사름이 빵떡 사서 와서 하니까 빵떡 먹으라고 해도 나도 눈치 받아서 안 먹으면서 해서 뒷날은 흙질하는 집에 업어서 가서 보니까 누우니까 하늘이랑 보이는 집에 누웠어. 우리 오라비 거기서 크고 또 우리 어머니도 작은딸도 거기서 낳고 해서 세 오누이 컸지. 커서 살다가.)

108007 @ 방은 네칸집이 허민 방은 멧 개나 뒙니까?(방은 사간집에 하면 방은 몇 개나 됩니까?)

108007 # 네칸집이 이것이 ᄉᆞ간형이여.(사간집이 이것이 사간형이야.)

108007 @ 거난 방 요기가 큰방?(그러니까 방 요기가 큰방?)

108007 # 응.(응.)

108007 @ 요거는?(요거는?)

108007 # 것도게 ᄀᆞ튼 방이어서 ᄉᆞ간이엔 헤여.(그것도 같은 방이라서 사간이라고 해.)

108007 @ 요기는 뭐라? 요기는.(요기는 뭐야? 요기는.)

108007 # 건 족은방이엔 허여.(그건 작은방이라고 해.)

108007 @ 옛날에 이렇게 큰 집 허기 전에 초집 헐 때는 이디가 큰방 이디는 족은방?(옛날에 이렇게 큰 집 하기 전에 초가집 할 때는 여기가 큰방 여기는 작은방?)

108007 # 족은방.(작은방.)

108007 @ 이딘?(여긴?)

108007 # 건 이추룩 헌 방이 엇어.(그건 이처럼 한 방이 없어.)

108009 @ 고팡은 뭐라?(고방은 뭐야?)

108009 # 이거 대신 고팡.(이거 대신 고방.)

108009 @ 거난 옛날엔 이디가 고팡예? 그믄 저딘?(그러니까 옛날엔 여기가 고방요? 그러면 저긴?)

108010 # 부억게.(부엌.)

108010 @ 부엌 가기 전이 이딘 뭐라? 찻방?(부엌 가기 전에 여긴 뭐야? '찻방'?)

108010 # 청방마리.('청방마리'.)

108010 @ 청방? 응, 청방마리예. 부엌 가기 전이 청방마리. 그럼 여기는 마리?('청방'? 응, '청방마리'요. 부엌 가기 전에 '청방마리'. 그럼 여기는 마루?)

108008 # 응, 마리.(응, 마루.)

108007 @ 방에는 벡장도 이서낫지예?(방에는 벽장도 있었지요?)

108007 # 벡장 잇주게.(벽장 있지.)

108007 @ 벡장 이디 큰방에도 잇곡 족은방에도 이십니까?(벽장 여기 큰방에도 있고 작은방에도 있습니까?)

108007 # 다 이서.(다 있어.)

108007 @ 아, 다 이서 벡장이.(아, 다 있어 벽장이.)

108007 # 게, 다 이성은에 벡장 위에 이불 놧주게. 이젠 벡장 필요 엇언. 단스들 허난이.(그러게, 다 있어서 벽장 위에 이불 놨지. 이젠 벽장 필요 없어. 장롱들 하니까.)

108007 @ 게난예. 그믄 옛날에는 벡장 엇인 디난 이불상 이런 것도 헤난 건가? 이불상 이신 디도 이서라.(그러니까요. 그러면 옛날에는 벽장 없는 데니까 이불상 이런 것도 했던 건가? 이불상 있는 데도 있더라.)

108007 # 이불상은 이불 놀 데 엇인 디, 상, 이불상 허영 와.(이불상은 이불 놓을 데 없는 데, 상, 이불상 해서 와.)

108007 @ 이디도 이불상 헤난?(여기도 이불상 했었어?)

108007 # 응.(응.)

108007 @ 벡장에 이불 안 놩?(벽장에 이불 안 놔서?)

108007 # 벡장에 이불 아이 놩은에. 벡장엔 궤 놘 시난. 시집올 때, 시집올 때게 벡장에 이불 시난게.(벽장에 이불 안 놔서. 벽장에 궤 놔 있으니까. 시집올 때, 시집올 때 벽장에 이불 있으니까.)

108008 @ 이런 마리는 낭으로 헷주예?(이런 마루는 나무로 했지요?)

108008 # 낭으로.(나무로.)

108008 @ 낭으로 어떵 헹은에 허는 거?(나무로 어떻게 해서 하는 거?)

108008 # 낭으로 이제 큰 낭들 영 놩은에 널판으로 이만썩 헌 거 놔낫주마는 우린 이거.(나무로 이제 큰 나무들 이렇게 놔서 널판으로 이만큼씩 한 거 놨었지마는 우린 이거.)

108008 @ 보일라 놩예? 지금 말고 옛날에 낭으로 헐 때는 널판으로.(보일러 놔서요? 지금 말고 옛날에 나무로 할 때는 널판으로.)

108008 # 응, 널판으로, 요만썩 한 널판으로.(응, 널판으로, 요만큼씩 한 널판으로.)

108008 @ 그믄 요디 무뚱에는?(그러면 요기 '무뚱'에는?)

108008 # 요기 무뚱에는 난간 놧주게. 낭으로 난간 놩은에.(요기 '무뚱'에는 난간 놨지. 나무로 난간 놔서.)

108008 @ 난간 놩.(난간 놔서.)

108008 # 저 아랜 신 벗엉 들어오곡 난간더레 신 신은 양 올라오지 못허게 허곡.(저 아랜 신 벗어서 들어오고 난간으로 신 신은 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108008 @ 신 벗는 딘 그디 돌멩이 무신거옌 골아?(신 벗는 덴 거기 돌멩이 무엇이라고 말해?)

108008 # 그딘 그자 무뚱에 신 벗주게.(거긴 그저 '무뚱'에 신 벗지.)

108008 @ 무뚱에 그냥 신 벗어?('무뚱'에 그냥 신 벗어?)

108008 # 응.(응.)

108008 @ 그디 돌에 돌 영 놩은에 돌 우트레.(거기 돌에 돌 이렇게 놔서 돌 위로.)

108008 # 아, 어떤 덴 보민 돌 서도 이 대정골은 돌 신 디는 엇곡 부엌더레 가는디 돌은 요만이 잇더라, 초가집이.(아, 어떤 덴 보면 돌 있어도 이 대정골은 돌 있는 데는 없고 부엌으로 가는 데 돌은 요만큼 있더라, 초가집이.)

108008 @ 그건 무신거 허는 거라?(그건 무엇 하는 거야?)

108008 # 정제레 넘어 오젠 허믄 ᄒᆞ쏠 발 지프기 힘드난.(부엌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조금 발 짚기 힘드니까.)

108008 @ 안에? 정제 안에?(안에? 부엌 안에?)

108008 # 응, 정제 안터레 들어오젠 허민. 정젠 옴탕허난.(응, 부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부엌은 움푹하니까.)

108008 @ 그믄 마리엔 뭐 놓는 거 엇수과?(그러면 마루엔 뭐 놓는 거 없습니까?)

108008 # 마리에 놓는 건 아무것도 엇엉 곡석 놓는 두지벳긔 엇어.(마루에 놓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곡식 넣는 뒤주밖에 없어.)

108008 @ 아, 마리엔 두지. 이쪽 뒤쪽으로도 문 잇지예?(아, 마루엔 뒤주. 이쪽 뒤쪽으로도 문 있지요?)

108008 # 게, 뒷문.(그렇지, 뒷문.)

108008 @ 이게 대문?(이게 대문?)

108008 # 대문.(대문.)

108009 @ 요디 뒷문? 이디 고팡.(요디 뒷문? 이디 고방.)

108009 # 이건 고팡.(이건 고방.)

108009 @ 고팡에는?(고방에는?)

108009 # 항덜이영 곡석 놓는 거.(항아리들이랑 곡식 넣는 거.)

108009 @ 응, 거기 혹시 영 창문도 ᄒᆞ나 영 멘듭니까?(응, 거기 혹시 이렇게 창문도 하나 이렇게 만듭니까?)

108009 # 창고냥[165].('창고냥'.)

108009 @ 창꼼? 창고냥?('창꼼'? '창고냥'?)

108009 # 창꼼 영허영 그자.('창꼼' 이렇게 해서 그저.)

108098 @ 창꼼?('창꼼'?)

108009 # 응.(응.)

108009 @ 창꼼 영 멘들앙 그디로 바람 통허렌?('창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로 바람 통하라고?)

108009 # 바람 통허거들랑 그자 영 붉게끔 영 허영 그디도 가라스가 엇어도 무시거 뎅기지 못허게 영영영 헤여.(바람 통하거든 그저 이렇게 밝게끔 이렇게 해서 거기도 글라스가 없어도 무엇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165) '창고냥'은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 낸 구멍이다. '창꼼, 창곰, 창굼'이라고도 한다.

108009 @ 응, 맞아. 중이라도예? 들어오민예? 저 어디 저 어느 쪽드렌 이디 고팡에 무슨 칠성도 모시고 헌덴 헨게 이딘 그런 거 안 허지예?(응, 맞아. 쥐라도요? 들어오면요? 저 어디 저 어느 쪽으로 여기 고방에 무슨 칠성도 모시고 한다고 하던데 여긴 그런 거 안 하지요?)

108009 # 이 대정드렌 칠성 엇어.(이 대정엔 칠성 없어.)

108009 @ 칠성이 엇지예?(칠성 없지요?)

108009 # 저 정의렌 다 칠성 모시고.(저 정의라고 다 칠성 모시고.)

108009 @ 다 칠성 모시고 허는데.(다 칠성 모시고 하는데.)

108009 # 그렌 칠성이 하서.(그리는 칠성이 많아.)

108009 @ 그럼 저 고팡에 식게헐 때 고팡드레 뭐 올리고 허는 거 잇수과?(그럼 저 고방에 제사할 때 고방에 뭐 올리고 하는 거 있습니까?)

108009 #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안헤여.(우리 집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아.)

108009 @ 그런 거 엇지예?(그런 거 없지요?)

108009 # 그런 거 허는 집 이 대정도 드물어.(그런 거 하는 집 이 대정도 드물어.)

108009 @ 거난 이쪽드레 드물어예?(그러니까 이쪽으로 드물어요?)

108009 # 정의에서 시집 온 아이덜 살아난 딘 경.(정의에서 시집 온 아이들 살았던 덴 그렇게.)

108010 @ 게민 정지레 한번 가보게예? 아까 영 정지드레 들어가민 정짓문 열엉 들어가민 돌 영 지펑.(그러면 부엌으로 한번 가봐요. 아까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문 열어서 들어가면 돌 이렇게 짚어서.)

108010 # 영한 돌 지펑 정지레 들어오랑 불 솜는 디 아궁이 허곡.(이렇게 한 돌 짚어서 부엌에 들어와서 불 때는 데 아궁이 하고.)

108010 @ 불 솜는 디, 솟덕 앚지는 디 잇곡 그다음 또 옛날 집으로.(불 때는 데, 봇돌 안치는 데 있고 그다음 또 옛날 집으로.)

108010 # 솟덕 앚진 다음엔 요만은 가민 물항 잇곡 옆펜드렌 뒷트레 가는 뒤에 잇주게. 뒤에 장독 놓는 뒤에.(봇돌 안친 다음엔 요만큼 가면 물항아리 있고 옆편으론 뒤로 가는 뒤에 있지. 뒤에 장독 놓는 뒤에.)

108010 @ 그거 장독 놓는 딘 무신거옌 골아?(그거 장독 놓는 덴 무엇이라고 말해?)

108010 # 장팡뒤.('장팡뒤'.)

108010 @ 장팡뒤? 장팡뒤드레 가는 문 잇어? 정지에?('장팡뒤'? '장팡뒤'로 가는 문 없어? 부엌에?)

108010 # 응.(응.)

108010 @ 살렌 어드레 놉니까?(찬장 어디 놓았습니까?)

108010 # 살렌 그레 가는 요짝드레 놓곡.(찬장 거기로 가는 요쪽으로 놓고.)

108010 @ 재 모아 놓는 데도 따로 잇어?(재 모아 놓는 데도 따로 있어?)

108010 # 게, 불 솜는 디 재 올리는 디 부엌에 이섯주게.(그러게, 불 때는 데 재 올리는 데 부엌에 있었지.)

108010 @ 응, 짇을커영 막.(응, 땔감이랑 막.)

108010 # 짇을컨 이레.(땔감은 이리.)

108010 @ 데명 놔두곡.(쌓아서 놔두고.)

108010 # 이것이 부엌이면 요디 짇을커 데미곡 이디 솟 앚지민 이디 불채 불 솜으멍 이레 불채영 모다지게 허곡.(이것이 부엌이면 요기 땔감 쌓고 여기 솥 안치면 여기 재 불 사르면서 이리 재랑 모아지게 하고.)

108010 @ 거믄 아까 나가는 문은 어디라, 장팡뒤로 가는 문은 어디 신 거라?(그러면 아까 나가는 문은 어디야, 장독대로 가는 문은 어디 있는 거야?)

108010 # 장팡뒨 그 장독 논 디레.(장독대 그 장독 놓은 데로.)

108010 @ 응, 그레 문 하나 더 잇고?(응, 그리 문 하나 더 있고?)

108010 # 문 하나 더 돌안 거기 장독 놓주게. 정지 옆편더레. 그런 거 보기 힘들 거라.(문 하나 더 달아서 거기 장독 놓지. 부엌 옆에. 그런 것 보기 힘들 거야.)

108010 @ 기지, 옛날에 헤난 말 물어보는 거주마씨.(그렇지, 옛날에 했던 말 물어보는 거지요.)

108010 # 응.(응.)

108012 @ 옛날에 문은 이디 대문은 무신걸로 만들어?(옛날에 문은 여기 대문은 무엇으로 만들어?)

108012 # 낭으로.(나무로.)

108012 @ 낭으로 큰 낭으로? 널로 헤근에?(나무로 큰 나무로? 널로 해서?)

108012 # 옛날엔 다 큰 낭. 널착.(옛날엔 다 큰 나무. 널짝.)

108012 @ 아, 겡 그 문 영.(아, 그래서 그 문 이렇게.)

108012 # 문지드리 이디 나오곡 이디 나오랑 웃지방에고 알지방에고 이것추룩 허주게. 경헨에 문 열엉 영 허곡.(문지도리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와서 윗문지방에고 아랫문지방에고 이것처럼 하지. 그렇게 해서 문 열어서 이렇게 하고.)

108012 @ 그걸 무신거엔 골아 그걸? 영허는 거.(그걸 무엇이라고 말해, 그걸? 이렇게 하는 거.)

108012 # 요거? 돌조젱이 문 좃 빠젼에 저 문 털어지켜 영.(요거? '돌조젱이' 문 '좃' 빠져서 저 문 떨어지겠다 이렇게.)

108012 @ 무신거, 무신거라?(무엇, 무엇이야?)

108012 # 문 무신 이거 지드리 빠졍인에 저더레 털어지켜. 영 열민 잘못 열앙인에 요레 벗어지는 디 서. 하도 이거 다하고 열앗다, 열앗다 하는 따문, 저 문지드리.(문 무슨 이거 지도리 빠져서 저리로 떨어지겠어. 이렇게 열면 잘못 열어서 요리 벗겨지는 데 있어. 하도 이거 다하고 열었다, 열었다 하는 때문, 저 문지도리.)

108012 @ 문지드리?(문지도리?)

108012 # 응, 문지드리 저거 오꼿 벗어졍 저 문 털어지켜, 저거 강 잘 놓으렌

놓으민[노렌] 허민 강은에 톡 놓곡.(응, 문지도리 저거 그만 벗겨져서 저 문 떨어지겠다, 저거 가서 잘 놓으라고 하면 가서 톡 놓고.)

108012 @ 문 영 잡앙은에 여는 건 뭐라? 영 문 잡앙 여는 거.(문 이렇게 잡아서 여는 건 뭐야? 이렇게 문 잡아서 여는 거.)

108012 # 문손.(문손.)

108012 @ 문손?(문손?)

108012 # 손젭이.(손잡이.)

108012 @ 손젭이. 이런 거는 문지방? 예?(손잡이. 이런 거는 문지방? 예?)

108012 # 응, 문지방.(응, 문지방.)

108012 @ 그믄 뒤에 뒷문은 어떤 문이꽈? 뒷문도 널문?(그러면 뒤에 뒷문은 어떤 문입니까? 뒷문도 널문?)

108012 # 뒷문도 널문 허주게. 널문 헤영 가르쌍인에. 다 이런 이렇게 널착문 이렇게 헹 싯주게이. 다 이렇게 헤서 영 열곡 영 열곡.(뒷문도 널문 하지. 널문 해서 뒤집어서. 다 이런 이렇게 널문 이렇게 해서 있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108012 @ 아, 이런 방은?(아, 이런 방은?)

108012 # 이런 방은 이추륵 살.(이런 방은 이처럼 살.)

108012 @ 창호지.(창호지.)

108012 # 창호지로 볼라.(창호지로 발라.)

108012 @ 창호지로 볼랑예?(창호지로 발라서요?)

108012 # 이 문은 하도 험, 창호지로도 아이 볼랑 종이로 볼르당 보민 막 두꺼와. 창문은 저 베끗듸레 가는 거는 창호지로 볼라.(이 문은 하도 험, 창호지로도 안 발라서 종이로 바르다가 보면 막 두꺼워. 창문은 저 밖으로 가는 거는 창호지로 발라.)

108012 @ 아, 베끗듸으로 가는 것만 창호지로 볼라.(아, 바깥으로 가는 것만 창호지로 발라.)

108012 # 응, 붉게시리 이것사 붉지 안혀도 뒐 거난이. 막 볼라불민 두꺼와.(응, 밝게끔 이것이야 밝지 않아도 될 거니까. 막 발라버리면 두꺼워.)

108012 @ 아, 두꺼와. 그믄 저기 창문 창호지로 허민 비 허민 다 젖어불지 안허여?(아, 두꺼워. 그러면 저기 창문 창호지로 하면 비 하면 다 젖어버리지 않아?)

108012 # 경 저디 영 가까워사 비 허주게. 저디 잇주게.(그렇게 저기 이렇게 가까워야 비 하지. 저기 있지.)

108012 @ 베끗듸 또 창 하나 더 이서?(밖에 또 창 하나 더 있어?)

108015 # 창 하나 잇지 안혀고 그 비 들이지 말게시리 푼채[166] 달아, 푼채.(창 하나 있지 않고 그 비 들이치지 않게 '푼채' 달아, '푼채'.)

166) '푼채'는 '풍채'라고도 하며 나무 둘로 기둥을 삼고 가로 나뭇가지를 드물게 질러 붙여 겉으로 띠를 덮고 세워서 눈,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 물건이다.

108015 @ 아, 푼채 들아 창문에도?(아, ‘푼채’ 달아 창문에도?)

108015 # 응, 창문에고 이 대문으로 그 우테끄지 쫙 푼채 달아 저 무뚱에.(응, 창문에도 이 대문으로 그 위까지 쫙 ‘푼채’ 달아 저 ‘무뚱’에.)

108015 @ 그 이디 영 창호지로 요 방에 창호지로 문 영 들민 누게 사람 왐신가 헤근에 요기 ᄒᆞ꼼 영 똘랑은에 유리창 박은 거 잇수게?(그 여기 이렇게 창호지로 요 방에 창호지로 문 이렇게 달면 누구 사람 오고 있나 해서 요기 조금 이렇게 뚫어서 유리창 박은 거 있습니까?)

108015 # 그런 것도 허여.(그런 것도 해.)

108015 @ 그런 것도 허지예? 그건 이름 혹시 따로 잇수과?(그런 것도 하지요? 그건 이름 혹시 따로 있습니까?)

108050 # 일름 따론 엇고 사름 소리 남젠 헹 누게가 왐신고 영 보긴 헤여. 가라스 붙여 가라스. 벌러진 거 쪼꼼 헤당. 그 가라스로. 보라 사름 소리 난게 누게 왐시냐, 영.(이름 따로는 없고 사람 소리 난다고 해서 누가 오고 있나 이렇게 보긴 해. 글라스 붙여 글라스. 깨진 거 조금 해다가. 그 글라스로. 봐라 사람 소리 났는데 누가 오고 있나, 이렇게.)

108015 @ 그 창문은 종이 불르젠 허믄 어떵 얼만에 한 번씩 불라야 뒈어?(그 창문은 종이 바르려고 하면 어떻게 얼마만에 한 번씩 발라야 돼?)

108015 # ** 팔월 나민 또시 불라.(** 팔월 나면 또 발라.)

108015 @ 팔월 나민 불라?(팔월 나면 발라?)

108015 # 팔월 나민 시커멍허고 막 살아나고 또시 아이덜 터주와 불민 다른 종이 또 부쳇당 또 부쳇당 허민 팔월 낭인에 막 일기 좋곡 허민 문 떼엉인에 종이 불라난 데 톡허게 물로 씻곡 저기 세왕은에 창호지 사당 싹 불르곡 유리 또시 창문에 유리 요만이 헌 거 달주게. 그것도 이제 영 헤영은에 부치곡 헤여. 사름 소리 나민 이 유리로 사름 누겐고 헹 바레.(팔월 나면 시커멓고 막 살아나고 또 아이들 터뜨려 버리면 다른 종이 또 붙였다가 또 붙였다가 하면 팔월 나서 막 일기 좋고 하면 문 떼어서 종이 발랐던 데 톡하게 물로 씻고 저기 세워서 창호지 사다가 싹 바르고 유리 또 창문에 유리 요만큼 한 거 달지.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붙이고 해. 사람 소리 나면 이 유리로 사람 누군가 해서 봐.)

108013 @ 옛날에는 옛날 살아난 그 집이서 호령창이엔 헌 거 잇수과? 호령창.(옛날에 옛날 살았던 그 집에서 ‘호령창’이라고 한 거 있습니까? 호령창.)

108013 # 호령창이 아니고 저 무시거 정제레 가는 디, 정제레 가는 디 검질 데미는 아이고 잊어부렀져. 고랑케[167].(‘호령창’이 아니고 저 무엇 부엌으로 가는 데, 부엌으로 가는 데 검불 쌓는 아이고 잊어버렸다. ‘고랑케’.)

108013 @ 고랑케?(‘고랑케’?)

108030 # 응, 고랑케에 검질 영 들어가는 데 요거 닮게시리 요것 닮게시리 검질을 막 데명 놔둬. 고랑케 검질 소곱에 묻언 놔뒀저, 그거 앗아내라 영허영 영 보믄

167) ‘고랑케’는 제주도 초가에서, 부엌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이다.

이 솔썹 헤당 여기 묻어 놔두민이 겨울엔이 감저 파당은에 우리 어머니네가 몇 마다리썩 솔썹에 묻어. 묻으민 그 고랑케 감저 강은에 댓 개 내놩 요 살불러레 꼭꼭 찔럿당 먹으라 경헤.(응, '고랑케'에 검불 이렇게 들어가는 데 요거 같이 요것 같이 검불을 막 쌓아 놔둬. '고랑케' 검불 속에 묻어서 놔뒀다, 그거 꺼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 솔잎 해다가 여기 묻어 놔두면 겨울엔 고구마 파다가 우리 어머니네가 몇 마대씩 솔잎에 묻어. 묻으면 그 '고랑케' 고구마 파다가 우리 어머니네가 몇 마대씩 솔잎에 묻어. 묻으면 그 '고랑케' 고구마 가서 댓 개 내놔서 요 '살불'에 꼭꼭 찔렀다가 먹어라 그렇게 해.)

108013 @ 겡 고랑켄 어디 마리에서?(그래서 '고랑케'는 어디 마루에서?)

108013 # 마리에 나가는 데는 엇곡 정제레 나가는 데 요 영한 고랑케가 잇주게.(마루에 나가는 데는 없고 부엌에 나가는 데 요 이렇게 한 '고랑케'가 있지.)

108013 @ 정지서 어디로 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부엌에서 어디로 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108013 # 밧거리로 가는 바깟드레 가는.(바깥채로 가는 바깥으로 가는.)

108013 @ 아, 바깟드레 가는 데 요런 이런 데가 잇는 거? 아, 그걸 고랑케렌 골아?(아, 바깥으로 가는 데 요런 이런 데가 있는 거? 아, 그걸 '고랑케'라고 말해?)

108013 # 응. 고랑케에 검질을 데미주게. 검질도 보릿대 안 허여. 솔썹을 데메야 솔썹에 소곱에 그 감절 묻어놧당은에 저 화릿불 살롱인에 좋민 화릿불레 꼭꼭 찔럿당인에. 이 어머닌이 그 아덜 하나벳긔 몰라라게.(응. '고랑케'에 검불을 쌓았지. 검불도 보릿대 안 해. 솔잎을 쌓아야 솔잎 속에 그 고구마를 묻어놨다가 저 화롯불 사라서 좋으면 화롯불에 꼭꼭 찔렀다가. 이 어머니는 그 아들 하나밖에 모르더라.)

108013 @ 응.(응.)

108013 # 밧듸 강 우리 어머니네영 강 오랑 보민이 우리 오레비 흑교 강 오민 주젠이 화릿불에 감자 꼭꼭 찔럿당인에 오게 뒈민 어떵사 아는지 ᄀᆞᆯ이 먼지 닦고 헤영은에 저런 그릇에 톡 놧당 흑교 강 오랑 아이고 울 아덜 흑교 강 오는구나, 손 실려냐 허멍 영 쥐언이 요레 듯은 데 앚으렌 앚청이 감저 그 차롱착 그 풀볼른 차롱착에 감자 줭 어멍이 껍데기 벳경 요디만 아이 벳경 마, 먹으라, 먹으라 허멍.(밭에 가서 우리 어머니네랑 가서 와 보면 우리 오라비 학교 가서 오면 주려고 화롯불에 고구마 꼭꼭 찔렀다가 오게 되면 어떻게야 아는지 깨끗이 먼지 닦고 해서 저런 그릇에 톡 놨다가 학교 갔다 와서 아이고 울 아들 학교 가서 오는구나, 손 시렸니 하면서 이렇게 쥐어서 요리 따뜻한 데 앉으라고 안쳐서 고구마 그 채롱 그 풀바른 채롱에 고구마 줘서 어머니가 껍데기 벗겨서 요기만 안 벗겨서 '마' 먹어라, 먹어라 하면서.)

108013 @ 오레비?(오라비?)

108013 # 응, 오레비. 엿허민이 말차로 엿 ᄒᆞ나 허민 거릴 땐 우리 뚤들을 줘. 거린 다음에 흰 단지로 하나 숨뿍 거련. 궤 우이 톡 놔둬. 궤 우이 놔두민이 아덜 흑교 강 온 것 닮으민 어머니가 구들서 미녕 즛당 아이고 울 아덜 손 실렷지, 요레

놓으라, 요레 놓으라[노라] 요 굴묵거리레 손 놓으렌[노렌] 혜영 영헹 엎더지민 혹 일어사낭 손 풀어져시냐, 이 엿 먹으라 헹 단지채 줘.(응, 오라비. 엿하면 말째로 엿 하나 하면 뜰 땐 우리 딸들을 줘. 뜬 다음에 흰 단지로 하나 가득 떠. 궤 위에 톡 놔둬. 궤 위에 놔두면 아들 학교 가서 온 것 같으면 어머니가 방에서 무명 짜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손 시려웠지, 요리 놓아라, 요리 놓아라 요 '굴묵거리'에 손 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 혹 일어서다가 손 풀어졌니, 이 엿 먹어라 해서 단지째 줘.)

108013 @ 아들신디만?(아들에게만?)

108013 # 응, 그믄 울 오레비 혹교 가불곡 허민 우리 아시영 나영 놀아. 굽으렌 혜영 숫가락으로 아시 입드레도 호쏠 거려내곡 나도 거려놓당 어떵헹근에 문드린 걸 발견뒈민 막 ᄉᆞ뭇. 이 지집년덜 지 오레비 먹는 걸 덜헷젠 욕 듣곡. 우린 그때 솟듸 걸릴 때뿐 못 먹주게.(응, 그러면 우리 오라비 학교 가버리고 하면 울 아우랑 나랑 놀아. 굽으라고 해서 숟가락으로 아우 입으로도 조금 떠내고 나도 떠놓다가 어떻게 해서 빠뜨린 걸 발견되면 막 사뭇. 이 계집애들 자기 오라비 먹는 걸 덜었다고 욕 듣고. 우린 그때 솥에서 뜰 때밖에 못 먹지.)

108014 @ 못 먹어. 굴묵은 어디 이신 철이과?(못 먹어. '굴묵'은 어디 있는 차례입니까?)

108014 # 응?(응?)

108014 @ 집 옛날 초집 허민 굴묵은 어느 짝에 이신 철?(집 옛날 초가집 하면 '굴묵'은 어느 쪽에 있는 차례?)

108014 # 굴묵엔 이짝엔 부엌 시민이 저짝 굴묵 뒤에 ᄀᆞ스락도 놓곡 굴묵 짇는 디가 잇어. 이짝 굴묵.('굴묵' 이쪽엔 부엌 있으면 저쪽 '굴묵' 뒤에 까끄라기도 놓고 '굴묵' 때는 데가 있어. 이쪽 '굴묵'.)

108014 @ 이짝으로 영? 방 저짝으로 헹은에. 영 방 ᄃᆞᆺ게.(이쪽으로 이렇게? 방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방 따뜻하게.)

108014 # 요 영헌 디 돌민.(요 이렇게 한 데 돌면.)

108014 @ 이쪽으로 영 돌민?(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108014 # 굴묵에 똥이여, ᄀᆞ스락이여 데명 놔둠서 굴묵 짇주게.('굴묵'에 똥이다, 까끄라기다 쌓아 놔두면서 '굴묵' 때지.)

108014 @ 방 뜻으게?(방 따뜻하게?)

108014 # 응, 그걸로 불그네로 불채 파내엉 그걸로 파내엉인에 불채 파는데 ᄯᅳ로 놓곡 또 옆이 ᄀᆞ스락이영 똥이영 그데 담앙 잔뜩 밀리멍 담앙 불 부찌믄 구들이 뜨셔.(응, 그걸로 고무래로 재 파내어서 그걸로 파내어서 재 파는데 따로 놓고 또 옆에 까끄라기랑 똥이랑 거기 담아서 잔뜩 밀면서 담아서 불 붙이면 방이 따뜻해.)

108014 @ 불채 영 담아놓는 디 엇어?(재 이렇게 담아놓는 데 없어?)

108014 # 불채 담아놓는 덴 요펜이 요 담 당헌에 허민 그레 담아놩인에.(재 담아놓는 덴 요편에 요 담 당해서 하면 그리 담아놔서.)

108014 @ 그딘 이름 머옌 골아?(거긴 이름 뭐라고 말해?)

108014 # 그 불채 놓는 디 영 허주게. 경 허여근에 허민 이제 농사철엔 그 불채 파내영 불채 씨에 보리씨도 버무령 보리 갈곡 또 이제 칠월 나믄 모멀 놓젠 허민 새벡이 그 불채 밧듸 시꺼가 모멀 허젠 허민 이젠 모멀 안 혀도.(그 재 놓는 데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농사철엔 그 재 파내서 재 씨에 보리씨도 버무려서 보리 갈고 또 이제 칠월 나면 메밀 놓으려고 하면 새벽에 그 재 밭에 실어가 메밀 하려고 하면 이젠 메밀 안 해도.)

108014 @ 불채 놔두는디 불칫막이엔 안허여?(재 놔두는데 잿간이라고 하지 않아?)

108014 # 응?(응?)

108014 @ 불칫막.(잿간.)

108014 # 불칫막[168] 뚜루 짓어근에 담앙도 놓곡 헤여.(잿간 따로 지어서 담아도 놓고 해.)

108014 @ 아, 경 허기도 허곡 그냥.(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108014 # 그디가 ᄀᆞ득어 가민 파당. 경 허민 칠월달에 모멀 가는 거난 칠월달엔 파내영은에 모멀씨 마당에서 불채에 서껑 밧듸 시꺼당인에 이젠 어머니ᄀᆞ라 불채 놓으렌[노렌] 허민 우린 불채 그거 멕에 ᄋᆞ져당 어머니는 손부리로 탁탁탁탁 불채 잡으멍 놓으민[노민] 아방 갈앙 모멀 뒈는 거. 칠월달에 가는 거 모멀은.(거기가 가득해 가면 파다가. 그러면 칠월에 메밀 가는 거니까 칠월엔 파내서 메밀씨 마당에서 재에 섞어서 밭에 실어다가 이젠 어머니보고 재 넣으라고 하면 우리 재 그거 멱서리에 가져다가 어머니 손부리로 탁탁탁탁 재 잡으면서 놓으면 아버지 갈아서 메밀 되는 거. 칠월에 가는 거 메밀은.)

108015 @ 아까 저 푼채? 문 앞에 영 ᄃᆞ는 거.(아까 저 '푼채'? 문 앞에 이렇게 다는 거?)

108015 # 푼채.('푼채'.)

108050 @ 그건 창문에만 답니까? 요긴 엇어 앞에는?(그건 창문에만 답니까? 요긴 없어 앞에는?)

108015 # 대문[169]ᄀᆞ지 짝 돌아.('대문'까지 쫙 달아.)

108015 @ 아, 대문까지?(아, '대문'까지?)

108015 # 정지만 내불어뒁.(부엌만 내버려두고.)

108015 @ 아, 정지만 내불어뒁. 비 삐지 못허게.(아, 부엌만 내버려두고. 비 들이치지 못하게.)

108015 # 응.(응.)

108015 @ 그믄 그건 날 좋은 땐 세웟당?(그러면 그건 날 좋은 땐 세웠다가?)

108015 # 아니 그냥 그대로.(아니 그냥 그대로.)

---

168) '불칫막'은 타고 남은 재나 퇴비 등을 모아두는 공간이다.

169) '대문'은 대청마루 정면에 단 문을 말한다.

108010 @ 아, 그대로?(아, 그대로?)

108015 # 막 오라가민 그 작대기가 ᄒᆞ쏠 영 헤여불곡 경 아이허면 영 과짝 세우곡.(막 오기 시작하면 그 작대기가 조금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곧게 세우고.)

108015 @ 아, 작대기로 과짝 세왓당 ᄒᆞ꼼 내렷당.(아, 작대기로 곧게 세웠다가 조금 내렸다가.)

108015 # 일론 이펜으론 문으론 다 돌아멘 거난 게난 작대기가 비 오라가믄 비 들이카부덴 작대기 안터레 영 쏙허민 소곳허곡[170] 날 좋으민 영 허민 허는 거.(이리론 이편으론 문으론 다 달아맨 거니까 그러니까 작대기가 비 오기 시작하면 비 들이칠까 봐 작대기 안으로 이렇게 쏙하면 '소곳허곡' 날 좋으면 이렇게 하면 하는 거.)

108015 @ 거믄 집에 영 잇는 거 말곡 세우는 것도 잇수과? 푼채?(그러면 집에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세우는 것도 있습니까? '푼채'?)

108015 # 푼채?('푼채'?)

108015 @ 세우는 건 엇어? 비 삐지 말렌.(세우는 건 없어? 비 들이치지 말라고.)

108015 # 푼채 비 삐지 말렌 허영 들러단 톡 세우는 거.('푼채' 비 들이치지 말라고 해서 들어다가 톡 세우는 거.)

108015 @ 거난 들러당 허는 것도 잇어?(그러니까 들어다가 하는 것도 있어?)

108015 # 게, 것도 푼채. (그렇지, 그것도 '푼채'.)

108015 @ 영 붙어 잇는 것도 잇고 그냥 들러당 놓는 것도 잇곡. 그건 뭘로 멘드는 거?(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들어다가 놓는 것도 있고. 그건 뭘로 만드는 거?)

108015 # 낭으로 멘들랑 새 비어당은에 그레 ᄂᆞ람지추룩 여끄멍 다 졸라메어. 경 잘잘 비에 헤가민 내리게.(나무로 만들어서 띠 베어다가 그리 이엉처럼 엮으면서 다 졸라매. 그렇게 좔좔 비 하면 내리게.)

108016 @ 비 내리게. 물 질레도 하영 뎅겨낫주예? 물 질레.(비 내리게. 물 길러도 많이 다녔었지요? 물 길러.)

108016 # 물 질레 가주게.(물 길러 가지.)

108016 @ 물 질레 가젠 허믄 어떵 허여?(물 길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

108016 # 물허벅에 물허벅 놩인에 졍 강.('물허벅'에 '물허벅'에 놔서 지고 가.)

108016 @ 구덕에?(바구니에?)

108016 # 구덕에.(바구니에.)

108016 @ 그다음 허벅 놓고.(그다음 '허벅' 놓고.)

108016 # 응, 허벅 놓고.(응, '허벅' 놓고.)

108016 @ 또 무신거 놔?(또 무엇 놔?)

---

170) '소곳허다'는 비스듬하게 세워진 모양을 말한다.

108016 # 허벅 놓고 물구덕에 아랜 댓가지도 여깡.(‘허벅’ 놓고 ‘물구덕’에 아랜 댓가지도 엮어서.)

108016 @ 댓가지로 여깡.(댓가지로 엮어서.)

108016 # 여깡인에 물구덕에 허벅 놩 졍 강은에 팡에 부령 그 허벅에 물 질언 일렌 들어다 놩 이젠 항드레 팡팡팡팡 비우곡.(엮어서 ‘물구덕’에 ‘허벅’ 놔서 져서 가서 ‘팡’에 부려서 그 ‘허벅’에 물 길어서 이리는 들어다 놔서 이젠 항아리에 팡팡팡팡 붓고.)

108016 @ 팡팡팡 비우고? 대바진 무신거?(팡팡팡 붓고? ‘대바지’는 무엇?)

108016 # 대바진[171] 족은 거.(‘대바지’는 작은 거.)

108016 @ 애기덜 허는 거?(아기들 하는 거?)

108016 # 조그만헌 거 대바지.(조그마한 거 ‘대바지’.)

108016 @ 조그만한 물허벅?(조그마한 ‘물허벅’?)

108016 # 대베기[172] 새끼.(‘대베기’ 새끼.)

108016 @ 대베기 새끼? 그믄 물 질레 가민 그 저 물허벅으로 영 허지 안헹 뭘로 영 거려 놔살 거 아니?(‘대베기’ 새끼? 그러면 물 길러 가면 그 저 ‘물허벅’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뭘로 이렇게 떠 놔야 할 거 아니?)

108016 # 거려 놀 때도 싯곡 물 골르민 그냥 허벅더레 팡팡팡팡 ᄀᆞ득으면 오꼿 들러옴도 허곡.(떠 놓을 때도 있고 물 고이면 그냥 허벅으로 팡팡팡팡 가득하면 전부 들고 오기도 하고.)

108016 @ 아침에 맨날 물 질레 가난 할머니?(아침에 맨날 물 길러 가니까 할머니?)

108016 # 아직이도 가곡 저녁에도 가곡.(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108016 @ ᄒᆞ루 멧 번이나 헤야 뒈여?(하루 몇 번이나 해야 돼?)

108016 # 하이컨 정제 밥허는 항엔 다 ᄀᆞ득이곡 도야지도 물 져당 주젠 허민 궂은물 져당 도야지도 놓곡 요디 산물 잇엇어. 우물. 우물 허영인에 저물아 가민 우물 져당인에 여름에 ᄂᆞ물 데왕인에 냉국허곡 겨울엔 손 실리민 뜨슨 물 이디 것 져당인에 ᄂᆞ물 씻곡. 경헌 물 각처에 물 파부난 저디 내리진 안헤여. 게도 막 ᄀᆞ문 헤도 밋창엔 물이 잇어. 밋창에 허벅 졍 강 저 아래 졍 강 부령 이젠 박세기로 그 물허벅에 놩 깅이발로 팡이영 손젭이영 다 잇어. 톡톡 헤영 올라오랑인에.(하여튼 부엌 밥하는 항아리엔 다 채우고 돼지도 물 져다 주려고 하면 구정물 져다가 돼지도 놓고 요기 산물 있었어. 우물. 우물 해서 저물어 가면 우물 져다가 여름엔 나물 데쳐서 냉국하고 겨울엔 손 시리면 따뜻한 물 여기 것 져다가 나물 씻고. 그런 물 각처에 물 파버리니까 저기 내리지는 않아. 그래도 막 가문 해도 밑창엔 물이 있어. 밑창에 허벅 져서 가서 저 아래 져서 가서 부려서 이젠 바가지로 그 물허벅에 놔서 게걸음으로 ‘팡’이랑 손잡이랑 다 있어. 톡톡 해서 올라와서.)

108016 @ 게믄 물 졍 오민 물팡은?(그러면 물 져서 오면 ‘물팡’은?)

---

171) ‘대바지’는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로 ‘대베기’라고도 한다.

172) ‘대베기’는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로 ‘대바지’라고도 한다.

108016 # 겡 물허벅더레 영 팡팡팡팡 영 허민 항더레 비와지민 허벅 부리는 물팡도 잇주게.(그래서 '물허벅'으로 이렇게 팡팡팡팡 이렇게 하면 항아리에 부어지면 허벅 부리는 '물팡'도 있지.)

108016 @ 허벅 부리는 물팡도?('허벅' 부리는 '물팡'도?)

108016 # 응, 정지 옆펜이 톡 허게.(응, 부엌 옆편에 톡 하게.)

108017 @ 올레는? 올렛질.('올레'는? '올렛질'.)

108017 # 올렛질은 게 저거게.('올렛질'은 그러게 저거.)

108017 @ 이딘 올레 별로 안 질어예? 옛날은 올레, 올레 진 집이 좋은 집?(여긴 '올레' 별로 안 길어요? 옛날은 '올레', '올레' 긴 집이 좋은 집?)

108017 # 아니여. 진 집 올레 더 들어간 디 더 궂주.(아니야. 긴 집 '올레' 더 들어간 데 더 궂지.)

108017 @ 더 궂어?(더 궂어?)

108017 # 게, 우린 항상 질 가까운 디만 살앗주, 질 들어간 딘 가보지 안혜연. 저 보성[173] 우리 막 아판 죽어가난에 큰 물 어염에 질긋집이 살매, 넘어가단 사름 물 먹켄 허여근에 어떤 땐 댓 사름썩 오랑 물 주렌 허곡 그디 초등흑교 잇어나면 물통에 물 먹으레 가주마는 물 먹을 시간 뒈민 그디 서당 허난 우리 집이 막 나라비[174] 헹 물 먹엉 가민 나 어떤 때 주지 말젠 헤민 우리 아부지, 말라, 물 줭인에 막 존나, 오랑들 다 먹으라, 다 먹으라 헤여. 경헤여.(그렇지 우린 항상 길 가까운 데만 살았지, 길 들어간 덴 가보지 않았어. 저 보성 우리 아주 아파서 죽어가니까 큰 물 곁에 길갓집에 사는데, 넘어가던 사람 물 먹겠다고 해서 어떤 땐 댓 사람씩 와서 물 달라고 하고 거기 초등학교 있었으면 물통에 물 먹으러 가지 물 먹을 시간 되면 거기 서당 하니까 우리 집에 막 줄 서서 물 먹어서 가면 나 어떤 때 주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 말라, 물 줘서 아주 좋다, 와서들 다 먹어라 다 먹어라 해, 그렇게 해.)

108018 @ 문간채, 이문간은 뭐하는 거꽈?(문간채, 문간채는 뭐하는 겁니까?)

108018 # 이문간은 올레레 가는디 이문 짓주게. 이문 짓으민 사람 나가는 디 잇곡 흔 펜이 또 소 질르는 막 잇곡.(문간채는 '올레'로 가는데 문간 짓지. 문간 지으면 사람 나가는 데 있고 한 편에 또 소 기르는 막 있고.)

108018 @ 아, 쉐막을 그디 헤. 이문간에?(아, 외양간을 거기 해. 문간채에?)

108018 # 응, 이문간에 흔 간은 이문간, 이문, 두 간을 허주게. 사름 가는 디 허곡 또시 흔 펜인 쉐 메는 두 간 짓어. 이 집 원자리엔 이디 이문 방 두 개 서난. 이딧 하르방은 엿날에 막 높은 사름 헤여난이. 무을 일 보는 사름이 저 올레서 아뢰옵니다 허민 이거 이 집이 살아난 하르방인디 올레서 막 울러도 대답 아니 헤여. 게민 드러 헤가민 또 이디 심부름 여자, 영 심부름 시민 저 누게 오란에 뭐 헴수다 허민 들어오라 허민 그 이문 안에 들어오랑 또 그디 엎더졍 또 뭣이엔 골으민 가까

173) '보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를 말한다.

174) '나라비'는 일본어 'ならび'에서 온 말로 늘어선 모양이나 늘어선 줄을 뜻하는 말이다.

이 들어오라 허영 그 하르방 난간에 턱, 이디 동더레 돌아진디 높은 집 자리라낫어. 이 참사라고 헌 참사 하르방.(응, 문간채에 한 칸은 문간채, 문간, 두 칸을 하지. 사람 가는 데 하고 또 한 편은 소 매는 두 칸 지어. 이 집 원자리엔 여기 문간 방 두 개 있었어. 여기 할아버지는 옛날에 아주 높은 사람 했었어. 마을 일 보는 사람이 저 '올레'에서 아뢰옵니다 하면 이거 이 집에 살았던 할아버진데 '올레'에서 막 외쳐도 대답 안 해. 그러면 들이 하면 또 여기 심부름 여자, 이렇게 심부름 있으면 저 누구 와서 뭐 합니다 하면 들어와라 하면 그 문간 안에 들어와서 또 거기 엎드려서 또 뭐라고 말하면 가까이 들어와라 해서 그 할아버지 툇마루에 턱, 여기 동으로 돌아있는데 높은 집 자리였었어. 이 참사라고 한 참사 할아버지.)

108018 @ 아.(아.)

108018 # 경 영허민 들어오라고 허렌 허민 마당 가운데로 오랑 딱 엎더지민 그 사름 보고헌 말 허젠 허민 그러냐고 알앗젠 허민 이젠 그냥 가렌 허카부덴 허민이 가지 말렌 허렌 정제서 무신거 주렌 그 사름 주렌 허민 뒀습니다 엎더져둠서 뒀습니다, 뒀습니다 헤도 심부름꾼이 ᄋᆞ져다 주민 먹엉 가곡 허더라. 게난 이 집이 하르방 아덜이 막 공부도 잘허곡 훌륭한 사름인디 갑자기 아판. 아판 큰굿도 몇 번 허당도 버치난에 여수 그 시절에 여수 믿엇어이. 여수 믿으난 그 아덜이 완전히 낫안게.(그렇게 이렇게 하면 들어오라고 하라고 하면 마당 가운데로 와서 딱 엎드리면 그 사람 보고한 말 하려고 하면 그러냐고 알았다고 하면 이젠 그냥 가라고 할까 봐 하면 가지 말라고 하라고 부엌에서 무엇 주라고 그 사람 주라고 하면 됐습니다 엎드려 두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해도 심부름꾼이 가져다 주면 먹어서 가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집의 할아버지 아들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갑자기 아팠어. 아파서 큰굿도 몇 번 하다가도 부치니까 예수 그 시절에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니까 그 아들이 완전히 나았어.)

108018 @ 경헹 낫아?(그래서 나아?)

108018 # 완전히 낫으난 이젠 이 집을 동드레 앚아난 집이주게. 이제 이문 싯곡 헌 디. 예배당 헤불엇저게, 예배당터.(완전히 나으니까 이젠 이 집을 동쪽으로 앉았던 집이지. 이제 대문 있고 한 데. 예배당 해버렸어, 예배당 터.)

108012 @ 아, 여기 원래 예배당 터?(아, 여기 원래 예배당 터?)

108018 # 경헨에 그 어른 막 일름나게 살안. 아덜들 일본 가곡 손지덜 그디 손지가 나영 동갑이라난디 지집아이. 근디 일본들 가불언. 그 하르방넨 이디서 죽어불곡. 이디서 ᄉᆞ뭇 큰 어른이라낫주. 이 참ᄉᆞ, 이 참ᄉᆞ 허멍.(그래서 그 어른 아주 이름나게 살았어. 아들들 일본 가고 손주들 거기 손주가 나랑 동갑이었었는데 계집아이. 그런데 일본들 가버렸어. 그 할아버지네는 여기서 죽어버리고. 여기서 사뭇 큰 어른이었지. 이 참사, 이 참사 하면서.)

108018 @ 게민 눌은 어디 눕니까?(그러면 가리는 어디 가립니까?)

108018 # 눌 누는 디? 저디게 눌덜 막 눌어낫주게.(가리 가리는 데? 저기 가리들 막 가렸었지.)

108018 @ 어, 저짝드레. 눌은 멧 개나 눕니까?(어, 저쪽에. 가리는 몇 개나 가립니까?)

108018 # 눌은게 농사허여 오민 농사헌 눌도 눌곡 쉐 메민 쉐 메는 눌도 눌곡 기추륵 허주게.(가리는 농사해 오면 농사한 가리도 가리고 소 매면 소 매는 가리도 가리고 그처럼 하지.)

108018 @ 그믄 마당이 막 널러사켜예? 눌도 눌곡 요기 앞이 날레도 널곡 허젠 허민예.(그러면 마당이 막 넓어야겠어요? 가리도 가리고 요기 앞에 '날레'도 널고 하려고 하면요.)

108018 # 이젠 눌 집에 아이 눌어.(이젠 가리 집에 안 가려.)

108018 @ 게난 지금은 안 눌주마는 옛날 눌 때.(그러니까 지금은 안 가렸지마는 옛날 가릴 때.)

108018 # 엿날에 마당에.(옛날에 마당에.)

108018 @ 눌은 어떵 헹 누는 거꽈?(가리는 어떻게 해서 가리는 겁니까?)

108018 # 눌은 그자.(가리는 그저.)

108018 @ 밋에 무신거 놔?(밑에 무엇 놔?)

108018 # 밋엔 돌멩이만 논 디주게. 돌멩이만 놓민 보릿대고 무신거고 ᄌᆞ근ᄌᆞ근이 머리로만 ᄌᆞ근ᄌᆞ근, ᄌᆞ근ᄌᆞ근 놓멍 허영 이디 소가 골르지, 소 골르민 소레 왓다갓다, 왓다갓다 놓앙인에 또 우터레 ᄌᆞ근ᄌᆞ근 눌멍 차츰차츰 올라강 누는 거주게.(밑에 돌멩이만 놓은 데지. 돌멩이만 놓으면 보릿대고 무엇이고 차근차근 이 머리로만 차근차근, 차근차근 놓으면서 해서 여기 속이 곯지, 속 곯으면 속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놓아서 또 위에 차근차근 가리면서 차츰차츰 올라가서 가리는 거지.)

108018 @ 기민 젤 우인?(그러면 제일 위엔?)

108018 # 막 헌 이상엔 ᄂᆞ람지 싹 페왕인에 주제기 더끄는 거주.(막 한 이상엔 이엉 싹 펴서 주저리 덮는 거지.)

108020 @ ᄂᆞ람지 영 페왕 주제기 더끄는 거?(이엉 이렇게 펴서 주저리 덮는 거?)

108018 # 응.(응.)

108018 @ 그믄 도새기 질르는 딘?(그러면 돼지 기르는 덴?)

108020 # 도새기 질르는 딘 요펜이 담 당인에 똥 싸는 디딜팡 두 개 허영 도새기 들어가는 집 싯곡 ᄒᆞᆫ펜 구석에 집 싯곡 사름 강은에 똥 싸는 디딜팡 우에 영 걸터앚앙 똥 싸곡 디딜팡 옆이 돗도고리 돌로 헌 거 이만헌 거 싯주게. 그레 이제 체도 거려놓곡 물도 거려 놓으민[노민] 오랑 먹고 돗집에 강 살곡.(돼지 기르는 덴 요편에 담 쌓아서 똥 싸는 부춧돌 두 개 해서 돼지 들어가는 집 있고 한편 구석에 집 있고 사람 가서 똥 싸는 부춧돌 위에 이렇게 걸터앉아서 똥 싸고 부춧돌 옆에 '돗도고리' 돌로 한 거 이만한 거 있지. 그리 이제 체도 떠놓고 물도 떠놓으면 와서 먹고 '돗집'에 가서 살고.)

108020 @ 도새긴 거난 밥 먹당 남은 거 주는 거꽈? 아니민.(돼지는 그러니까 밥 먹다가 남은 거 주는 겁니까? 아니면.)

108020 # 밥 주느냐게? 보리 갈아난 보리체영 물 위에 그냥 황에 물 주지게. 그릇 씻어난 물이영. 밥 남은 거 엿날에 밥 남은 거 주느냐? 옛날에 누넝밥도 강아지도 아이 준다, 아이구. 그땐 동냥바치들이 어떻게 많은디 말도 못 헤여.(밥 주느냐? 보리 갈았던 보릿겨랑 물 위에 그냥 항아리의 물 주지. 그릇 씻었던 물이랑. 밥 남은 거 옛날에 밥 남은 거 주느냐? 옛날에 누룽지도 강아지도 안 준다, 아이구. 그땐 거지들이 어떻게 많은지 말도 못 해.)

10802019 @ 옛날엔 무사 나도 할아버지네 집이 강은에 똥 싸젠 허민 도새긴 막 밑으로 막예? 들어오고 문도 막 잘 안 달리고 막 영헌 디서 헤난 거 닮은디 똥 싸레 가민 어떵 헤여? 도새기 잇곡 허믄.(옛날엔 왜 나도 할아버지네 집은 가서 똥 싸려고 하면 돼지 막 밑으로 막요? 들어오고 문도 막 잘 안 달리고 막 이런 데서 했던 거 같은데 똥 싸러 가면 어떻게 해? 돼지 있고 하면.)

108020 # 도새기 어떵 헤여? 도새기 들어와도 그저 똥 싸민 털어지민 도새긴 먹곡 그디 검질 보릿대, 보리낭 흔 뭇 놔두민 그거 빠내영 똥꼬냥 쓸엉 그디 들이치곡. 종이가 어디 서? 첨.(돼지 어떻게 해? 돼지 들어와도 그저 똥 싸면 떨어지면 돼지는 먹고 거기 검불 보릿대, 보릿대 한 뭇 놔두면 그거 빼내서 똥구멍 쓸어서 거기 들이뜨리고. 종이가 어디 있어? 첨.)

108022 @ 게난예. 창고 ᄀᆞ튼 건 어디서?(그러니까요. 창고 같은 건 어디서?)

108022 # 창고 ᄀᆞ튼 건 옆이 짓으민게.(창고 같은 건 옆에 지으면.)

108022 @ 어디 짓어? 이문간에? 아니믄 밧거리?(어디 지어? 문간채에? 아니면 바깥채?)

108022 # 이문거리도 싯곡 탁 터진 밧거리에 짓어근에게 쉐도 메곡.(문간채도 있고 탁 터진 바깥채에 지어서 소도 매고.)

108022 @ 그럼 잠데영 이런 건 어디 놔둡니까?(그럼 쟁기랑 이런 건 어디 놔둡니까?)

108022 # 잠덴 어디 강 놓느니? 그 저 헛간에 놓주게.(쟁긴 어디 가서 놓니? 그저 헛간에 놓지.)

108022 @ 게난 그게 어디 잇어? 밧거리에 이신 거라, 이문간에 이신 거라?(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 바깥채에 있는 거야, 문간채에 있는 거야?)

108022 # 밧거릴로나 이문간에 헛간 시믄 잠데 ᄀᆞ튼 거. 잠덴 간단허주게 낭게기에 영헌 거.(바깥채로나 문간채에 헛간 있으면 쟁기 같은 거. 쟁긴 간단하지 나뭇개비에 이렇게 한 거.)

108022 @ 아니, 잠데 말고 이것저것 놔두는 디가?(아니, 쟁기 말고 이것저것 놔두는 데가?)

108022 # 그거 저것 다 창고에 놔둬.(그거 저것 다 창고에 놔둬.)

108022 @ 거난 그 창고가 어디. 이 집이면 어디 놔두는 거꽈?(그러니까 그 창고가 어디. 이 집이면 어디 놔두는 겁니까?)

108022 # 창고 짓은 디로 놔야 허주게.(창고 지은 데로 놔야 하지.)

108023 @ 쉐막은?(외양간은?)

108023 # 쉐막이 창고주게. 흔착은 쉐 메곡 흔착은 창고 쓰곡.(외양간은 창고지. 한쪽은 소 매고 한쪽은 창고 쓰고.)

108023 @ 밧거리에 헐 때도 잇곡 이문간에다 헐 때도 잇곡.(바깥채에 할 때도 있고 문간채에다 할 때도 있고.)

108023 # 응. 이문거리에도 허곡 옆이덜도 놔둠도 하곡.(응. 문간채에도 하고 옆에들도 놔두기도 하고.)

108023 @ 보통은 집이 쉐 몇 마리나 질롸?(보통은 집에 소 몇 마리나 길러?)

108023 # 보통은 집에서 메는 쉔 두 개. 경 아니면 산에들 놩 내불어. 저슬이고 여름이고.(보통은 집에서 매는 소는 두 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에들 놔서 내버려. 겨울이고 여름이고.)

108023 @ 게민 쉐막에 쉐 메민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뒐 거 아니예?(그러면 외양간에 소 매면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8023 # 촐 눌주게. 하영 헤영. 촐 이만헌 촐눌을 멧 개썩 헤영 눌메. 드러 촐빵인에 드러 줘놓민 이젠 쉐막 ᄀᆞ득으면 소 베껏드레 내뒁 그 걸름을 또 돗통드레 다 들여. 똥 싼 쉐걸름. 들영인에 또시 돗통에서 걸름 뒈민 보리 갈젠 허민 또 마당더레 퍼내영 보리씨 서껑 밧듸 가는 거주게.(꼴 가리지. 많이 해서. 꼴 이만한 꼴가리를 몇 개씩 해서 가려. 들이 꼴 빼서 들이 줘 놓으면 이젠 외양간 가득하면 소 바깥에 내둬서 그 거름을 또 '돗통'에 다 들여. 똥 싼 소두엄. 들여서 또 '돗통'에서 거름 되면 보리 갈려고 하면 또 마당에 퍼내어서 보리씨 섞어서 밭에 가는 거지.)

108024 @ 아까 뒤에 장항은?(아까 뒤에 장독은?)

108024 # 장항은 정지 뒤에 돌 끨고 헹 돌 위에 장항 놩 장 담곡.(장독은 부엌 뒤에 돌 깔고 해서 돌 위에 장항아리 놔서 장 담고.)

108024 @ 그건 무신거옌 ᄀᆞᆯ아, 그디를?(그건 무엇이라고 말해, 거기를?)

108024 # 장팡뒤.(장독대.)

108024 @ 장팡뒤예? 장팡뒤에 장항은 보통 몇 개나 놉니까?(장독대요? 장독대에 장항아리는 보통 몇 개나 놉니까?)

108024 # 장팡뒤에 장항 하면 서너 개 놓곡 장물 놓는 항 싯곡 뒌장 놓는 항도 싯곡 처암엔 큰 항에 장 담갓당 걸영인에 허벅에도 장물은 질어 놓곡 경헨.(장독대에 그릇 하면 서너 개 놓고 간장 놓는 항아리 있고 된장 놓는 항아리도 있고 처음엔 큰 항에 장 담갔다가 떠서 허벅에도 간장은 길어 놓고 그랬어.)

108024 @ 조그만한 단지도 망데기도.(조그마한 단지도 '망데기'도.)

108024 # 즌즌한 그릇들도 장팡뒤에 씻으멍 톡톡 엎어놧당 뭐 지 담을 때 사용허곡.(자잘한 그릇들도 장독대에 씻으면서 톡톡 엎어놨다가 뭐 장아찌 담글 때 사용하고.)

108023 @ 아까 헤난 그 츰항. 아니 츰이엔 안허곡 동백 동백낭 이신디 새로 영꼬왕 허는 거 그거 흔 번만 더 ᄀᆞᆯ아줍서.(아까 했던 그 '츰항'. 아니 '츰'이라고 하지

않고 동백, 동백나무 있는 데 새로 이렇게 꼬아서 하는 거 그거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108023 # 게, 저 돔박낭에 새 허영 ᄂᆞ람지추륵 체음엔 여꺼. 경헤여근에 이젠 이 먼 끄껭인 다 영 졸라메영 문딱 먼 끄껭이 다 졸라메영 놧당인에 오월 장마에 비 체음 오랑 자르르륵 크게 굿은 거 다 씻어준 다음에 그 머리 단 거 항 두껭이 앗앙 톡허게 츰 받주게. 경헹 우리 시집이선 그걸로이 식게하곡 그 물로 다 범색 엇이 그걸 정성 드렁 그 물을 허더라. 여름에 냉국 시원히 먹젠 허민 그 낭알에 난 물이 시원헤영 그 물 ᄋᆞ져다 냉국 헤먹곡 경 허더라.(그러게, 저 동백나무에 띠 해서 이엉처럼 처음엔 엮어. 그렇게 해서 이젠 이 먼 끄트머린 다 이렇게 졸라매서 모두 먼 끄트머리 다 졸라매서 놨다가 오월 장마에 비 처음 와서 '자르르륵' 크게 굿은 거 다 씻어준 다음에 그 머리 땋은 거 항아리 뚜껑 앗아서 톡하게 '츰' 받지. 그래서 우리 시집에선 그걸로 제사하고 그 물로 다 '범색' 없이 그걸 정성 들여서 그 물 하더라. 여름에 냉국 시원히 먹으려고 하면 그 나무 아래에 난 물이 시원해서 그 물 가져다가 냉국 해먹고 그러더라.)

108023 @ 그거 아까 츰 받은덴 ᄀᆞᆯ아? 츰.(그거 아까 '츰' 받는다고 말해? '츰'.)

108023 # 응, 츰 받은 항에 받앗당.(응, '츰' 받은 항아리에 받았다가.)

108025 @ 츰항에 받앗당?('츰항'에 받았다가?)

108025 # 경 허민 비 오랑 딱 끊으믄 또시 그 옹기 그릇 항 뚜께 더꺼불어.(그러면 비 와서 딱 끊으면 또 그 옹기 그릇 항아리 뚜껑 덮어버려.)

108025 @ 아, 비 와가민?(아, 비 와가면?)

108025 # 다 끗나민 그 항 ᄀᆞ득으민.(다 끝나면 그 항아리 가득차면.)

108025 @ 아, 항 다 ᄀᆞ득으민.(아, 항아리 다 가득차면.)

108025 # 또 비 옴 시작혜영 초벌 낭 다 씻엉 ᄂᆞ린 다음에 그걸 이제 ᄂᆞ람질 항 더레 들이쳐. 물을 깨끗하게 받아. 경 물 받으민 그 물을 제ᄉᆞ헐 때 쓰곡 그냥 맨입에들 먹젠 허곡 그 밥, 보리밥이나 허지 안허더라. 그 밥물을 어룹게 알안이.(또 비 오기 시작해서 초벌 나무 다 씻어서 내린 다음에 그걸 이제 이엉을 항아리에 들이뜨려. 물을 깨끗하게 받아. 그렇게 물 받으면 그 물을 제사할 때 쓰고 그냥 맨입에들 먹으려고 하고 그 밥, 보리밥이나 하지 않더라. 그 밥물을 어렵게 알아서.)

108025 @ 예.(예.)

108025 # 이 집 말아 우리 나 아판 죽어가난에 저디 헉질허연 그자 그슨새[175] 더껀에 그 집이 보릿대 정지에 ᄀᆞᆯ안 다 죽어가난 오누이 간 그디 간 살안 커시네.(이 집 말고 우리 나 아파서 죽어가니까 저기 흙질해서 그저 '그슨새' 덮어서 그 집에 보릿대 부엌에 깔아서 다 죽어가니까 오누이 가서 거기 가서 살아서 컸어.)

초가지붕 이기

108026 @ 옛날엔 초집지붕 다 헤낫주예? 집이서예?(옛날엔 초가지붕 다 했었지

175) '그슨새'는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그신새', '기신새'라고 한다.

요? 집에서요?)

108026 # 옛날엔이 초집이 다 그 물구덩 영 허는 것처럼 다른 낭 헤당은에 그 서리가 영영 헹 싯주게. 서리 시민 그 서릿 새에 영영 놓멍 그 노 꼬왕인에이 숫ᄂᆞ끼[176] 꼬왕인에 숫ᄂᆞ끼 엇이믄 저 산에 강 찍 걷어당 찍, 찍 아나?(옛날엔 초가집에 다 그 물구덩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나무 해다가 그 서까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있지. 서까래 있으면 그 서까래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서 그 노 꼬아서 '숫ᄂᆞ끼' 꼬아서 '숫ᄂᆞ끼' 없으면 저 산에 가서 짚 걷어다가 짚, 짚 아니?)

108026 @ 예.(예.)

108026 # 찍 걷어당인에 그 낭 영영 ᄀᆞ루난 이건 큰 낭이지?(짚 걷어다가 그 나무 이렇게 이렇게 가로니까 이건 큰 나무지?)

108026 @ 아, 찍은 큰 낭? 어떵헌 거?(아, 짚은 큰 나무? 어떤 거?)

108026 # 낭, 낭. 낭 이제 산이 강은에 이레 더끄는 낭 존존허게시리 저런 섬비덜 비어오민 큰 서린 이렇게 싯주게. 서린이 이렇게 시민 그것이 영 놓으멍[노멍] 이렇게 놓으멍[노멍] 지붕 우에서 지러기 널르민 세 사람 앚앙인에 그거 놓으멍[노멍] 그거 노 꼬나 칙을 허나 허영 그 서리레 얽어. 지붕 끗에ᄁᆞ지이 상ᄆᆞ리로 시작헤영 끗에ᄁᆞ지 이제 여끄민 여까진 거 아니?(나무, 나무. 나무 이제 산에 가서 이리 덮는 나무 자잘하게끔 저런 '섬비'들 베어서 오면 큰 서까래는 이렇게 있지. 서까래는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놓으면서 지붕 위에서 길이 넓으면 세 사람 앉아서 그거 놓으면서 그거 노 꼬거나 칡을 하거나 해서 그 서까래에 얽어. 지붕 끝에까지 용마루로 시작해서 끝에까지 엮으면 엮어진 거 아니?)

108026 @ 예.(예.)

108026 # 여끄민 이제 축ᄇᆞ람도 이제 댓가지로 저추륵 허영인에 이제 축도이 댓가지로 또시 여까. 경 다 그 노 꼬앙인에 찍으로 노 꼬앙인에 댓가지도 못 아이 박앙인에 다 여깡인에 허민 마당이 헉 시꺼다놩 마당이 헉 시꺼다 놩인에 마당도 갈곡 ᄀᆞ치 마당도 갈곡 허영 물 져 오렌 허민 동네 아주망들 허벅으로 물 져 가민 그 헉 깃디 신 사름은 이ᄁᆞ지 빠지멍 장화도 엇어. 그냥 맨발에 이디 들어강 잠방잠방 허멍.(엮으면 이제 바람벽도 이제 댓가지로 저처럼 해서 이제 벽도 댓가지로 또 엮어. 그렇게 다 그 노 꼬아서 짚으로 노 꼬아서 댓가지도 못 안 박아서 다 엮어서 하면 마당에 흙 실어다 놓고 마당에 흙 실어다 놔서 마당도 갈고 같이 마당도 갈고 해서 물 져 오라고 하면 동네 아주머니들 허벅으로 물 져 가면 그 흙 가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빠지면서 장화도 없어. 그냥 맨발에 여기 들어가서 첨벙첨벙하면서.)

108026 @ 하하하.(하하하.)

108026 # 허벅 앗아내엉 팡팡팡팡 비우곡 팡팡 비우곡 허영인에 이제 물 어느 정도 받아지민 이제 그디 새 썩은 거나 ᄀᆞ스락이나이 이젠 그 헉 물 논 더레 또시 더꺼. 더껑인에 이젠 쉐로도 불르곡 사름도 불르곡 허민 헉이 다 벙뎅이 지는 거 아니? 벙뎅이 지민 이젠 요만썩 멘들멍 지붕 우이 이거 여깟주게.(허벅 꺼내서 팡팡

176) '숫ᄂᆞ끼'는 짚으로 꼬아 줄처럼 만든 것으로 '새끼'의 제주어다.

팡팡 붓고 해서 이제 물 어느 정도 받으면 이제 거기 띠 썩은 거나 까끄라기나 이젠 그 흙 물 놓은 데 또 덮어. 덮어서 이젠 소로도 밟고 사람도 밟고 하면 흙이 다 덩어리 지는 거 아니? 덩어리 지면 이젠 요만큼씩 만들어서 지붕 위에 이거 엮었지.)

108026 @ 응.(응.)

108026 # 서리 논 디이 섬비로 다 여끄난 지붕 우트레 던지믄 마트멍 이디 흔 멧 개썩 놓으멍 영 허곡 멧 개썩 놓으멍 영 허곡 허영 다 허여지민 그 고데[177] 올리는 거엥 허여, 고데 올리는 거엔. 지붕 우에 고데 올리는 거엔. 경 허영 다 헌 이상엔 또 새 올리주게. 새 올령인에 더껑 이젠 또 줄로 메영 경헹 초가집이 경헹 허는 거.(서까래 놓은 데 '섬비'로 다 엮으니까 지붕 위에 던지면 받으면서 여기 한 몇 개씩 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몇 개씩 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해서 다 하면 그 알매 올리는 거라고 해, 알매 올리는 거라고. 지붕 위에 새우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다 한 이상엔 또 띠 올리지. 띠 올려서 덮어서 이젠 또 줄로 매어서 그렇게 해서 초가집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

108026 @ 게난. 새는 흔 멧 년에 한 번씩 지붕 새로 헤야 뒈는 거꽈?(그러니까. 띠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지붕 띠로 해야 되는 겁니까?)

108026 # 게난에 일년에 처암 새로 짓은 집은 올리 허영 새헤 일어사.(그러니까 일년에 처음 띠로 지은 집은 올해 해서 새해 이어야.)

108026 @ 일년에 흔 번?(일년에 한 번?)

108026 # 아니 두 해에 흔 번 헤도 새로 짓은 집은 새로 짓으난에 좀 지깍허지 아니헐 거주게. 게민 올해 집 짓으멍 헉질 허멍 이난에 흔 칸이 곧장 허지 못헷주게. 헉 벙뎅기 싯곡 그자 그 상뒤 어른들 올랑들 막 웃음벨탁[178] 허멍 허여불민 그헤 구물엉 새해에 또시 새 비엉 흔 번 일민 두 해에 흔 번.(아니 두 해에 한 번 해도 띠로 지은 집은 띠로 지으니까 좀 빽빽하지 않을 거지. 그러면 올해 집 지으면서 흙질 하면서니까 한 칸이 곧장 하지 못했지. 흙 덩어리 있고 그저 그 향도 어른들 올라서들 막 '웃음벨탁' 하면서 해버리면 그 해 그물어서 새해에 또 띠 베어서 한 번 이면 두 해에 한 번.)

108026 @ 아, 그다음엔 두 해에 흔 번씩?(아, 그다음엔 두 해에 한 번씩?)

108026 # 두 해에 흔 번 줄도 놓곡 이제 줄로 놧다당은에 새 올령인에 허곡 허민.(두 해에 한 번 줄도 놓고 이제 줄도 놨다가 띠 올려서 하고 하면.)

108027 @ 언제쯤에 허는 거꽈, 그건? 가을에 허는 거꽈? 겨울에 허는 거꽈? 언제 허는 거?(언제쯤에 하는 겁니까, 그건? 가을에 하는 겁니까? 겨울에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거?)

108027 # 겨울에게. ᄀᆞ슬에. 여름에 저 동짓달 나민 새 빈다.(겨울에. 가을에. 여름에 저 동짓달 나면 띠 벤다.)

---

177) '고데'는 산자 위에 바르는 흙을 말한다. 표준어 '알매'에 해당하는 말이며, '고디, 고뎃흑, 고톳흑'이라고도 한다.

178) '웃음벨탁'은 여러 사람이 한바탕 웃는 것을 말한다.

108027 @ 아.(아.)

108027 # 동짓달 나민 동짓달 초ᄒᆞ루가 새 허경[179] 옛날에.(동짓달 나면 동짓달 초하루가 띠 '허경' 옛날에.)

108027 @ 응.(응.)

108027 # 새 아무 때나 못 비어.(띠 아무 때나 못 베어.)

108027 @ 맞아.(맞아.)

108027 # 새 비민이 저 모슬봉 오름에 새왓이 엄청나게 우리 가멍 이디 새왓이엔 물 파노란 헷젠. 그디 거이 대정 지기에 사름 그디 새로 인다. 게민 젯군들 오랑 막 비엉인에 이녁이 올리 안 일 사름은 풀곡 일 사름은 ᄋᆞ져가곡 경 허민 그디 미릇 새 임제 이신디 말헤여. 새 멧 뭇 줍센 헤여. 경 허곡 또시 이녁냥으로도 밧 신 사름은 새 드려. 새 불리 사당인에 묻엉.(띠 베면 저 모슬봉 오름에 띠밭이 엄청나게 우리 가면서 여기 띠밭이라고 물 판다고 했다고. 거기 거의 대정 지경에 사람 거기 띠로 인다. 그러면 '젯군'들 와서 막 베어서 자기가 올해 안 이는 사람은 팔고 이는 사람은 가져가고 그러면 거기 미리 새 임자 있는 데 말해. 띠 몇 뭇 달라고 해. 그리고 또 자기대로도 밭 있는 사람은 띠 꼬아. 띠 뿌리 사다가 묻어서.)

108027 @ 응.(응.)

108027 # 경헤근에 이녁 새왓 허여은에 새 비어당도 허곡 기추륵 허지. 두 해에 흔 해라. 게믄 새 허경 동짓달 나사 새 허경 허주게. 새 허경 아니 헌 때 도둑으로 새 비엉 뎅기당은 걸려. 게난 새 허경 헤사. 아무 날 새 허경이여 허영 대정지기에서 말 나민 새 졍 뎅겨도 놈의 새 강 도둑질로 비엇당 졍 오랑도 허경 허난 젼 왐신가 허주.(그래서 자기 띠밭 해서 띠 베어다가 하고 그처럼 하지. 두 해에 한 해야. 그러면 띠 '허경' 동짓날 나야 띠 '허경' 하지. 띠 '허경'하지 않을 때 도둑으로 띠 베어서 다니다가는 걸려. 그러니까 띠 '허경' 해야. 아무 날 띠 '허경'이다 해서 대정 지경에서 말 나면 띠 져서 다녀도 남의 띠 가서 도둑질로 베어다가 져서 와도 '허경' 하니까 져서 오고 있나 하지.)

108027 @ 아.(아.)

108027 # 경 아니헨에 허경 아니 헌 때 이녁 밧듸 비어 뎅기당도 놈의 거 헤엿젠 헤영은에 막 구체 주고 경 허여. 거난 이녁 밧도 허경 아무 날 허경이요 허민 허경 마타근에 강 헤.(그렇게 하지 않고 '허경' 안 한 때 자기 밭에 베어 다니다가 남의 거 했다고 해서 막 창피 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밭도 '허경' 아무 날 '허경'이요 하면 '허경' 맡아서 가서 해.)

108027 @ 응, 동짓ᄃᆞᆯ에?(응, 동짓달에?)

108027 # 동짓ᄃᆞᆯ에.(동짓달에.)

108027 @ 게민 그 각단은 무신거?(그러면 그 '각단'은 뭐?)

108027 # 각단은 그 새 졸른 거게. 새 질지 못헌 거. 새 질지 못헌 건 각단은

179) '허경'은 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베는 것을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베기 시작하는 일을 의미한다.

비민 거꾸로 ᄂᆞ다 놩 무끄주게. 일로만 메민 등케긴 독지고 꼴렝인 빠져불어. 게민 욜로 ᄒᆞ꼼만 엇곡, 욜로 ᄒᆞ꼼만 거꾸로 ᄂᆞ다 허영 오랑 집이 놧당 각단으론 줄 놓는 거.(‘각단’은 그 띠 짧은 거. 띠 길지 못한 거. 띠 길지 못한 건 ‘각단’은 베면 거꾸로 바로 놔서 묶지. 이리로만 매면 둥치는 두껍고 꼬리는 빠져버려. 그러면 요리로 조금만 없고, 요리로 조금만 거꾸로 바로 해서 와서 집에 놨다가 ‘각단’으로는 줄 놓는 거.)

108027 @ 어, 줄은 어떵헹 놓는 거꽈?(어, 줄은 어떻게 해서 놓는 겁니까?)

108027 # 줄은 이젠 어뜬 하르방이 이젠 이렇게 줄 놔가민 이제 새 혜영 저 이거 새민 이거 호렝이[180] ᄋᆞ져와. 영 뚱그런 거.(줄은 이젠 어떤 할아버지가 이젠 이렇게 줄 놔가면 이제 띠 해서 저 이거 띠면 이거 ‘호렝이’ 가져와. 이렇게 둥그런 거.)

108027 @ 예.(예.)

108027 # ᄋᆞ져당 이제 새가 영허게시리 그 코걸이에 걸어. 코걸이에 그 앚은 하르방이 걸어. 걸민 이젠 영허영 이레 대민 새 이레 영영영영 맞일 만썩 주민 그래서 떼와 가면서.(가져다가 이제 띠가 이렇게 하게끔 그 코에 걸어. 코에 그 앉은 할아버지가 걸어. 걸면 이젠 이렇게 하면 이리 대면 띠 이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을 만큼씩 주면 그래서 틀어 가면서.)

108027 @ 떼와 가?(틀어 가?)

108027 # 응, 솔솔 저ᄁᆞ지 강 저디 공젱이, 지러기 재어근에 공젱이 박주게. 이디서 지붕 우에 공젱이 또시 진 줄은 더 질게 허곡. 경혜영인에 그디 강 고만 헙서 허믄 이제 영 혜여둬근에 또 그냥 이디 영 나둬. 이레 발로시.(응, 살살 저기까지 가서 저기 ‘공젱이’. 길이 재어서 ‘공젱이’ 박지. 여기서 지붕 위에 ‘공젱이’ 또 긴 줄은 더 길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그만 하세요 하면 이제 이렇게 해두고 또 그냥 여기 이렇게 놔둬. 이리 ‘발로시’.)

108027 @ 아.(아.)

108027 # 줄 체암에 이제 저디 강 다 왓수다, 고만 헙서 허민 그 사름은 그거 빵인에 그 못더레 박아뒁 올 동안은 요거 ᄒᆞᆫ 착 부찌지 아니헌 건 하르방이 요영 디뎌. 영 블랑인에 또 새로 시작혜영 새로 시작혜영 저디 가믄 다 왓수다 허민 요것에 영 부쩡 돌리민 잇어져.(줄 처음에 이제 저기 가서 다 왔습니다, 그만 하세요 하면 그 사람은 그거 빼서 그 못에 박아두고 올 동안은 요거 한 쪽 붙이지 않은 건 할아버지 요렇게 디뎌. 이렇게 밟아서 또 새로 시작해서 새로 시작해서 저기 가면 다 왔습니다 하면 요것에 이렇게 붙여서 돌리면 이어져.)

108027 @ 응.(응.)

108027 # 잇어지민 요레 또시 낭 혜영 요거 톡 걸주게이.(이어지면 요리 또 나무 해서 요거 톡 걸지.)

---

180) ‘호렝이’는 줄이나 참바 따위를 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호롱이, 훼롱, 훼롱이’라고 한다.

108027 @ 예.(예.)

108027 # 요디 진진헌 낭 톡 걸고 그 사름은 저레 강 찔르곡 그추룩 헤여. 그추룩 헤연에 말젠 이제 줄 이거 두 개 노 꼬는 거추룩 어울리젠 허민 또 이디 고냥 이만은 똘른 거 시민 그것이 이것이 두 곱 친 거 이레 찔러. 이레 또시 영 허는 거 찔르민 저디선 이제 둘이가 그 하나썩이, 하나썩 두 사름이 영영 둘러가민 이디선 또 이거 영 둘르민 한 사름은 이디 오랑인에 그거 영 헤영 심엉 자르르륵 헤가민 노 꼬아져. 혼 사름은 저디끄지 강 고만 옵서 허민 이제 그만 옵서 허민 이젠 하르방은 이거 픽 던져둰인에 또시 다른 거 또시 요거 끼왐시민 그 사름넨 저디서 말저 또시 그거 이제 요만썩 허민 그 사름넨 그디 상은에 빠불민 안 뒌덴 허난. 이거 또시 영허민 그 사름넨 다 빠민 요 고냥더레 꼭 찔렁은에 어우러지게 풀어지지 아니허게 헤영 픽 던지민 그 지가 영 노 꼬아간 사름이 그걸로 사려. 동글락허겔 사리나 또 그냥 저 촌에서 짐패[181] 사리듯 영 헤영 사리나 허영 픽허게 던져.(요기 길디긴 나무 톡 걸고 그 사람은 저리 가서 찌르고 그처럼 해. 그처럼 해서 말째 이제 줄 이거 두 개 노 꼬는 거처럼 어울리려고 하면 또 여기 구멍 이만큼 뚫은 거 있으면 그것이 이것이 두 겹 친 거 이리 찔러. 이리 또 이렇게 하는 거 찌르면 저기선 이제 둘이 그 하나씩, 하나씩 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둘러 가면 여기선 또 이거 이렇게 두르면 한 사람은 여기 와서 그거 이렇게 해서 잡아서 자르르륵 해가면 노 꼬을 수 있어. 한 사람은 저기까지 가서 그만 오세요 하면 이제 그만 오세요 하면 이젠 할아버지는 이거 픽 던져두고 또 다른 거 또 요거 끼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기서 말자 또 그거 이제 요만큼씩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서서 빼버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빼면 요 구멍에 꼭 찔러서 어울리게 풀어지지 않게 해서 픽 던지면 그 자기가 이렇게 노 꼬아간 사람이 그걸로 사려. 동그랗게를 사리거나 또 그냥 저 촌에서 '짐패' 사리듯 이렇게 해서 사리거나 해서 픽하게 던져.)

108028 @ 그 진줄도 잇곡 쫄른줄도 잇어?(그 긴줄도 있고 짧은줄도 있어?)

108028 # 게, 진줄은 지러기 맞추곡 쫄른줄도 지러기 맞춰인에 헤여.(그러게, 긴 줄은 길이 맞추고 짧은줄도 길이 맞춰서 해.)

108028 @ 어떤 지러기가 진 지러기?(어떤 길이가 긴 길이?)

108089 # 진 지러긴 이거. 이 ᄀᆞ룬 지러긴 쫄른 거. 이 기럭인 질주게이. 방 여러 개곡 이 지럭인 이 지러기뿐이난.(긴 길이는 이거. 이 가로는 길이 짧은 거. 이 길이는 길지. 방 여러 개고 이 길인 이 길이뿐이니까.)

108029 @ ᄒᆞ꼼 쫄르난. 그믄 이거 헐 때 아까 영 돌리는 거 이거 이름이 뭐라?(조금 짧으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 아까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이름이 뭐야?)

108029 # 호루기[182]엔 헤여.('호루기'라고 해.)

108029 @ 호루기?('호루기'?)

---

181) '짐패'는 짐을 지는 데에 쓰는 줄을 말한다.

182) '호루기'는 줄이나 참바 따위를 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호롱이, 호렝이, 훼롱, 훼롱이'라고 한다.

108029 # 호루기 ᄋᆞ져오렌 허여.(‘호루기’ 가져오라고 해.)

108029 @ 호루기 ᄋᆞ져오렌? ᄒᆞ루기 말고 그다음 또 줄 영 어울리는 건 뭐라?(‘호루기’ 가져오라고? ‘호루기’ 말고 그다음 또 줄 이렇게 어울리는 건 뭐야?)

108029 # 이거 뒤치는 것ᄀᆞ라 또 뭐시엔 ᄀᆞᆯ안게 잊어불어서.(이거 뒤치는 거보고 또 뭐라고 말하던데 잊어버려서.)

108029 @ 뒤치는 거?(뒤치는 거?)

108029 # 이디서 하르방이 영영 그 사름 영 헹 가민 이디서 영영 들러줘사 저디서도 오곡 허멍 노 꼬아지는 거주게. 그거 잊어불엇저. 저 호루기 저것들. 뒤치는[183] 거엔만 허믄 뒈여.(여기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줘야 저기서도 오고 하면서 노 꼬아지는 거지. 그거 잊어버렸어. 저 ‘호루기’ 저것들. ‘뒤치는’ 거라고만 하면 돼.)

108029 @ 뒤치는 거엔만예.(‘뒤치는’ 거라고만요.)

108029 # 뒤칠 때 여ᄌᆞ도 이거 허곡 남ᄌᆞ도 허곡 허는 거난이.(‘뒤칠’ 때 여자도 이거 하고 남자도 하고 하는 거니까.)

108029 @ 겡 줄 다 멘들믄 줄 어떵 헹 매어?(그래서 줄 다 만들면 줄 어떻게 해서 매?)

108029 # 줄만 딱 메민 개영 갓당 날 봥 ᄇᆞᆫ[184] 날, ᄇᆞᆯ앙 ᄇᆞ름 엇어사.(줄만 딱 매면 개어서 갔다가 날 봐서 ‘ᄇᆞᆫ’ 날, 날이 ‘ᄇᆞᆯ앙’ 바람 없어야.)

108029 @ 아, ᄇᆞ름 엇인 ᄇᆞᆫ 날.(아, 바람 없는 ‘ᄇᆞᆫ’ 날.)

108029 # ᄇᆞ름 엇어사주. 새 그냥 영영 작두 질 처음에 이제 새가 질 처음에 무조건 이 집가지 널어가주게 차례로. 등케기로 영 헹 널어가민 빙빙빙빙 그 지붕 이는 사름이 집가지 어염으로 문저 널민 등케기 이레 오는 거라. 게민 또시 새 어졍 그 등케기 우터레 더끄민 또 허영 상머리ᄁᆞ지 오랑 저 우녁펜이영 우녁펜으로도 이젠 그추룩 헤영 오민 우녁펜인 요초룩 크게 일로도 오곡 일로도 오민 요디 오민 그거 막아지게시리 새 이레 짝 ᄭᆞᆯ아불민 또 어욱 막아졍 오는 거라. 경 허믄 줄 메영 은에. ᄍᆞ른줄 멜 땐 절루도 사름 상 어이 허민 어 허멍들 줄덜 잡아뎅겨.(바람 없어야지. 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작두 제일 처음에 이제 띠가 제일 처음에 무조건 이처마 널어가지 차례로. 밑동으로 이렇게 해서 널어가면 빙빙빙빙 그 지붕 이는 사람이 처마 옆으로 먼저 널면 밑동 이리 오는 거야. 그러면 또 띠 가져서 그 밑동 위에 덮으면 또 해서 용마루까지 와서 저 오른쪽이랑 오른쪽으로도 이젠 그렇게 해서 오면 오른쪽엔 요처럼 크게 이리로도 오고 이리로도 오면 요기 오면 그거 막을 수 있게끔 띠 이리 쫙 깔아버리면 또 억새 막혀서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줄 매어서. 짧은줄 맬 땐 저리로도 사람 서서 어이 하면 어 하면서들 줄들 잡아당겨.)

108029 @ 던져? 영 던져?(던져? 이렇게 던져?)

108029 # 지붕 위에 놩은에 줄을 양편더레 놀주게, 게민 줄 심엉 잡아뎅기켄 헤

183) ‘뒤치다’는 두 가닥의 줄을 꼬아서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린다는 뜻의 제주어다.
184) ‘ᄇᆞᆯ다’는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잔잔하다는 뜻의 제주어다.

영 혼밧듸서 문저 심은 사름이 어이 허민 이짝에서도 어이 허영 서로 잡아뎅경은에.(지붕 위에 놔서 줄을 양편에 날지, 그러면 줄 잡아서 잡아당기겠다고 해서 한군데서 먼저 잡은 사람이 어이 하면 이쪽에서도 어이 하면서 서로 잡아당겨서.)

108029 @ 어디 무꺼?(어디 묶어?)

108029 # 그 저런 서리레 무꺼.(그 저런 서까래에 묶어.)

108031 @ 서리레 무꺼. 그럼 여러 사름 이서사켜예. 허젠 허믄예.(서까래에 묶어. 그럼 여러 사람 있어야겠네요. 하려고 하면요.)

108031 # 게민 지붕 이는 사름이 싯곡 줄 메는 사름 서이면 뒈여.(그러면 지붕 이는 사람이 있고 줄 매는 사람 셋이면 돼.)

108032 @ 서이. 그건 잘허는 사름 빌어사 허는 건가?(셋. 그건 잘하는 사람 빌려야 하는 건가?)

108032 # 집 이는 사름은 잘허는 사름. 잘 못 빌민 홈 졍인에 새 간 디도 싯곡 아이 간 디 시민 글로 물 앚앙인에 아이고 집 이는 사름 잘못헤부난 오꼿 지붕에 홈 젼에 물 새엄젠 허메. 게난 우리 친정 아버진 이런 거 줄도 놓곡 이런 호레기도 싯곡 뒤치기, 뒤치는 것도 잇곡 허민 그거 나 줍센 혜여근에 이제 가을 들엉 봄 나가민이 그거 노래 막 맞촤. 하르방덜 맞추곡 또시 지붕 일 때도 우리 오레비 일름 거니리멍 아이고 가네 아방 빌어사 지붕 골 지지 안허주, 아이고 다른, 빌지 못허난에 허엿당 골 져불언 ᄉᆞ뭇 그 어른 오랑은에 그 골진 디도 문 손 봐줍센 혜사켜 헹 우리 아버진 늙도록 헤라, 늙도록.(집 이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잘 못 빌면 홈 생겨서 띠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 있으면 그리로 물 앉아서 아이고 집 이는 사람 잘못해 버리니까 그만 지붕에 홈 생겨서 물 샌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친정 아버진 이런 거 줄도 놓고 이런 '호레기'도 있고 '뒤치기', 뒤치는 것도 있고 하면 그거 나 달라고 해서 이제 가을 들어서 봄 나가면 그거 노래 막 맞춰. 할아버지들 맞추고 또 지붕 일 때도 우리 남동생 이름 들먹이면서 아이고 걔네 아버지 빌려야 지붕 골 생기지 않지, 아이고 다른, 빌리지 못하니까 했다가 골 생겨버려서 사뭇 그 어른 와서 그 골 생긴 데도 모두 손 봐 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우리 아버진 늙도록 하더라, 늙도록.)

108032 @ 잘헤낫구나예?(잘했었군요?)

108032 # 손매가 좋아. 경헹 또 젊은 사름덜 아들 풀젠[185] 허민 신이 엇엇지. 신이 엇으믄이 나룩찝 소들개[186] 빵, 소들개 빵인에 이제 치짓물 들영, 그때 치칫물 들영인에 이제 물르민 나룩 소들기 그 말뚝으로 영 빵인에 이 나룩 끗뎅이 부떠난 거 안 들게시리 요 새에만 허영 치칫물 들영인에 물르민 이젠 하르방이 이젠 다리 영 걷어근에 그 그걸 이제 영 허게 떼왕 톡허게 놓민 요초록 코거리 뒈게시리 톡허게 멘들앙 톡 놓곡 톡 놓민 신 혼 베가 멧 개민, 그거 이제 신 삼을 때 그 코거리 놩인에 이레도 놓곡 이레도 놓곡 헹 삼아놩인에 말젠 그 콜 이제 다 끼왕인에

185) '아들 풀다'는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뜻으로 쓰인 제주어다.
186) '소들개'는 곡식의 대나 억새 따위의 속줄기를 말한다. '소독, 소들기'라고도 한다.

다 잡아당이믄 곱딱한 노랑한 치짓물 들은 초신.(손매가 좋아. 그렇게 해서 또 젊은 사람들 아들 팔려고 하면 신이 없었지. 신이 없으면 볏짚 '소들개' 빼서, '소들개' 빼서 이제 치잣물 들여서, 그때 치잣물 들여서 이제 마르면 벼 '소들기' 그 말뚝으로 이렇게 빼서 이 벼 끄트머리 붙었던 거 안 들어가게끔 요 사이에만 해서 치잣물 들여서 마르면 이젠 할아버지가 이젠 다리 이렇게 걷어서 그 그걸 이제 이렇게 하게 틀어서 톡하게 놓으면 요처럼 코 되게끔 톡하게 만들어서 톡 놓고 톡 놓으면 신 한 켤레가 몇 개면, 그거 이제 신 삼을 때 그 코 놔서 이리도 놓고 이리도 놓고 해서 삼아놔서 말째는 그 코를 이제 다 끼워서 다 잡아당기면 고운 노란 치잣물 든 짚신.)

108032 @ 아.(아.)

108032 # 경 새각시덜 창신 못 헤준 집인이 아이고 어떵헙네깡? 아주방 새각시에 허젠 허난 돈 엇엉 못허곡 헤여줍서, 헤여줍서 허민 허여. 이디 우리 권당 삼촌네도 아덜 성제 쌍둥이 푸는디 다 그 초신으로 새각시 주더라. 초신 삼앙.(그렇게 새색시들 가죽신 못 해준 집은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버니 새색시에 하려고 하니까 돈 없어서 못하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해. 여기 우리 권당 삼촌들도 아들 형제 쌍둥이 파는데 다 그 짚신으로 새색시 주더라. 짚신 삼아서.)

108032 @ 아버지가 다 헤줜, 경헹?(아버지가 다 해줬어, 그렇게 해서?)

108032 # 아버지가 선사로 곱게 헤줘.(아버지가 선물로 곱게 해줘.)

108032 @ 게민 그 줄 허당 남은, 그 집줄 허당 남은 거 쫄른 거 처음부터 쫄라불지 안헹 놔뒷당 쫄르지예?(그러면 그 줄 하다가 남은, '집줄' 하다가 남은 거 자른 거 처음부터 잘라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자르지요?)

108032 # 놔뒷당은에 틈 자민 지붕에 틈 자민 이젠 또 잡아뎅기멍 다 무꺼. 무껑인에 그 졸라멘 디서 요만썩만 냄기영 ᄆᆞᆯ싹 그쳐. 그치민 그 줄거리, 그 줄거린이 또 부엌에 앚는 줄방석 멘들어. 방석, 영 동글락허게 멘들어 놩 그걸로 영 감곡 영 감곡 허민 정제, 부인들 앚앙인에 ᄁᆞᆯ앙 앚는 줄방석. 그 일름은 줄방석.(놔뒀다가 뜸 자면 지붕에 뜸 자면 이제 또 잡아당기면서 다 묶어. 묶어서 그 졸라맨 데서 요만큼씩만 남겨서 'ᄆᆞᆯ싹' 잘라. 자르면 그 줄기, 그 줄기는 또 부엌에 앉는 '줄방석' 만들어. 방석,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놔서 그걸로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하면 부엌, 부인들 앉아서 깔아 앉는 '줄방석'. 그 이름은 '줄방석'.)

108032 @ 아, 줄방석.(아, 줄방석.)

108032 # 거 아무도 못 헤여. 우리 아부지가 선수로.(그거 아무도 못 해. 우리 아버지가 선수로.)

108032 @ 잘 허는 사름이 헤사주.(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108032 # 방석도 곱딱, 그런 걸로 멘들민 아이고 아주방 그거 허건 방석 멧 개 멘들아둬 갑서 허민 에에, 실픈디 손도 아프곡 실픈디, 아이고 어떵 헙니까? 어떵 헙니깡? 헤연. 이젠 낭 방석이여, 고무 방석이여 벨 거 다 싯주마는.(방석도 고와, 그런 걸로 만들면 아이고 아주버니 그거 하면 방석 몇 개 만들어두고 가십시오 하

면 에에, 싫은데 손도 아프고 싫은데,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젠 나무 방석이다, 고무 방석이다 별 거 다 있지마는.)

108032 @ 플라스틱으로예.(플라스틱으로요.)

108032 # 응.(응.)

연장

108034 @ 집 지을 때 연장 ᄀᆞ튼 거 잇어야 뭽니께. 톱이영 뭐영 이런 거예?(집 지을 때 연장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톱이랑 뭐랑 이런 거요?)

108034 # 게. 톱이영, 자귀영 이제 그 못 엇엉 그땐 굼기 뚤라근에 그레 드물못 멘들앗주게. 옛날엔. 못으로 안 박앙. 그추룩 허민 그런 끌이영 굼기 뚤르는 끌도 서사 낭 그치멍 끌도 서사.(그러게. 톱이랑, 자귀랑 이제 그 못 없어서 그땐 구멍 뚫어서 그리 '드물못' 만들었지. 옛날엔. 못으로 안 박아서. 그처럼 하면 그런 끌이랑 구멍 뚫는 끌도 있어야 나무 자르면서 끌도 있어야.)

108034 @ 톱도 종류가 여러 갠가?(톱도 종류가 여러 개인가?)

108034 # 게, 줌진 톱이영 홁은 톱이영. 밧듸 강은에 허는 건 홁은 톱이고 존 톱 헤영은에, 이 창살도 다 톱으로 엿날엔, 이젠 기계로 헤도 다 손으로 창살 멘들앙인에 저거 ᄀᆞ늘이 만들엉 믄딱 헤영 창살 멘들언. 옛날 창은 ᄉᆞ뭇 삔지룽케이. 기추룩. 그런 건 목시가 헤, 목시.(그러게, 가는 톱이랑 굵은 톱이랑. 밭에 가서 하는 건 굵은 톱이고 잔 톱 해서, 이 창살도 다 톱으로 옛날엔, 이젠 기계로 해도 다 손으로 창살 만들어서 저거 가늘게 만들어서 모두 해서 창살 만들었어. 옛날 창은 사뭇 '삔지룽케이'. 그처럼. 그런 건 목수가 해, 목수.)

108035 @ 목시가예.(목수가요.)

108035 # 믄차는 목시.(먼저는 목수.)

108035 @ 못 영 박은 거 빼는 것도 따로 잇수과?(못 이렇게 박은 거 빼는 것도 따로 있습니까?)

108035 # 뻰찌.(펜치.)

108035 @ 펜치로 빼? 아니 왜 이렇게 뒈 잇는 저 망치 가튼 거 뒤에 이렇게 허민 영 뒈는 거 잇수게?(펜치로 빼? 아니 왜 이렇게 돼 있는 저 망치 같은 거 뒤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습니까?)

108035 # 게, 그런 걸로도 빼곡. 그 집이 그런 거 다 귀ᄀᆞᆺ추느냐? 목시네 집엔 다 귀ᄀᆞᆺ추주마는. 못 들민 요거 쏙 허영 빠는 것도 잇곡. 엇은 사람들은 그 못이 잘못 뒈영은에 오꼿 꺼껄지나 어떵허믄 그걸 빠뒁 허젠 허민 뻰찌 놈의 집에 강 빌어당 그거 때우멍 빵인에 하고 기추룩. 집집마다 그런 기구가 옛날엔 없어.(그렇지, 그런 걸로도 빼고. 그 집에 그런 거 다 갖추느냐? 목수네 집엔 다 갖추지마는. 못 들면 요거 쏙 해서 빼는 것도 있고. 없는 사람들은 그 못이 잘못 뒈어서 그만 꺾어지거나 어떻게 하면 그걸 빼두고 하려고 하면 펜치 남의 집에 가서 빌려다가 그거 때우면서 빼서 하고 그처럼. 집집마다 그런 기구가 옛날엔 없어.)

108035 @ 엇어예.(없어요.)

108035 # 응, 우리 아부지 귀곶앙 ᄉᆞ뭇 아이고 야 니네 아부지 시냐? 엇수다. 야 엇은디 니네 아부지 연장 그 논 디 강은에 그 뻰찌 ᄒᆞᄉᆞᆯ 빌어다 도라, 앗아 도라, 앗아 도라. 앗아나민 아부지 오민 욕허민 난 몰라, 몰라. 아이고 나 오기 전이 ᄀᆞᆯ으켜, ᄀᆞᆯ으켜.(응, 우리 아버지 다 갖춰서 사뭇 아이고 야 너희 아버지 있니? 없습니다. 야 없는데 너희 아버지 연장 그 놓은 데 가서 그 펜치 조금 빌려 달라, 가져다 달라, 가져다 달라. 가지고 나면 아버지 오면 욕하면 난 몰라, 몰라. 아이고 나 오기 전에 말하겠어, 말하겠어.)

108036 @ 그 목시들이 허는 거주마는 나무 영 멘짝허게 하젠 하민 미는 거 잇수게?(그 목수들이 하는 거지마는 나무 이렇게 매끈하게 하려고 하면 미는 거 있잖습니까?)

108036 # 대패.(대패.)

108036 @ 대패예. 그것도 목시네 집에만 이신 거?(대패요. 그것도 목수네 집에만 있는 거?)

108037 # 게, 목시네 집에만 이서. 우리 아버지네 집인 대패도 잇곡, 끌도 잇곡 다 귀곶아.(그렇지, 목수네 집에만 있어. 우리 아버지네 집엔 대패도 있고, 끌도 있고 다 갖춰.)

108037 @ 이서난?(있었어?)

108037 # 응.(응.)

108037 @ 자도 여러 종류가 이신가? 자, 잣대?(자도 여러 종류가 있나? 자, 잣대?)

108037 # 자? 게, 잣대 여러 종류.(자? 그러게, 잣대 여러 종류.)

108037 @ 영 기역 자로 된 것도 이신가?(이렇게 기역 자로 된 것도 있나?)

108037 # 기역 자로 헌 것도 싯곡 기냥 영 ᄌᆞ근ᄌᆞ근 싯당 싹 풀민 질게 뒈는 것도 싯곡. 그건 말짜라 가난 일본시대에이 지러기 요만은 허연 막 개어졍인에 질게 재젠 허민 짝 풀민 저ᄁᆞ지 강 재곡. 엿날에 그거 아니 난 땐이 옛날에 우리 삼춘네가 다 일본 살안, 저 웨삼춘네가. 일본 사난에 그 우리 아버지가 소소헌 이 쉐막 ᄀᆞ튼 걸 짓으레 뎅기난에 ᄒᆞᆫ 번 오랑 보난에 그 곱은자가 잇주게.(기역 자로 한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있다가 싹 풀면 길게 되는 것도 있고. 그건 말째 되어 가니까 일본 시대에 길이 요만큼 해서 막 개어져서 길게 재려고 하면 짝 풀면 저까지 가서 재고. 옛날에 그거 안 나온 땐 옛날에 우리 삼촌네가 다 일본 살았어, 저 외삼촌네가. 일본 사니까 그 우리 아버지가 소소한 이 외양간 같은 걸 지으러 다니니까 한번 와보니까 그 곱자가 있지.)

108037 @ 응.(응.)

108037 # 곱은자로 영 재영 가곡 허여가민 큰 건 영 잿다 영 잿단 막 헤난에 아이고 형님 나 이번에 강 일본엔양 싹 페우민 이ᄁᆞ지 큰 자가 잇곡 또시 요 정도 뒈는 자가 잇수다. 하나 상 보내쿠덴 허민이 우리 말젯삼촌이 그거 두 개 상 보내여.

영 페우민 이꼬지 오는 자가 잇곡 요만한 자가 잇곡. 곱은잔 제우 요디서 요만은 헹 영 곱은자는 또시 재곡 또시 재곡 허니 이 널판이 싹 페왕인에 재렌.(곱자로 이렇게 재어서 가고 해가면 큰 건 이렇게 쟀다 이렇게 쟀다가 막 하니까 아이고 형님 나 이번에 가서 일본에는요 싹 펴면 이까지 큰 자가 있고 또 요 정도 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 사서 보내겠다고 하면 우리 셋째삼촌이 그거 두 개 사서 보내. 이렇게 펴면 이까지 오는 자가 있고 요만한 자가 있고. 곱자는 겨우 요기서 요만큼 해서 이렇게 곱자는 또 재고 또 재고 하니까 이 널판이 싹 펴서 재라고.)

108038 @ 이것도 목시들 허는 건데 먹통하고 먹줄 이런 거 잇수게? 어떵 허는 거꽈?(이것도 목수들 하는 건데 먹통하고 먹줄 이런 거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8038 # 먹통은이, 먹통이엔 헌 건이 낭으로 이것이 낭이난 이레 홈 파지? 홈 팡인에 먹 긑앙인에 솜 놔, 솜.(먹통은, 먹통이라고 한 건 나무로 이것이 나무니까 이리 홈 파지? 홈 파서 먹 갈아서 솜 놔, 솜.)

108038 @ 솜이 뭐?(솜이 뭐?)

108038 # 소게, 소게.(솜, 솜.)

108038 @ 아, 소게.(아, 솜.)

108038 # 소게 놓으민[노민] 요기 고냥 뚤라이. 고냥 뚤르민 그 실은 또시 이디 실 감는 것 이서. 실 감는 거 시민 이레 먹물 놩인에 그 소게에 막 허민 그 실을 이레 빠멍 먹물을 막 들여, 시커멓게.(솜 넣으면 요기 구멍 뚫어. 구멍 뚫으면 그 실은 또 여기 실 감은 것 있어. 실 감은 거 있으면 이리 먹물 놔서 그 솜에 막 하면 그 실을 이리 빼면서 먹물을 막 들여, 시커멓게.)

108038 @ 응.(응.)

108038 # 들영인에 이 감아가민 요건 꽁지 싯당 감아오랑 믄 감아지민 헷당은에 무시거 영 줄 발리젠 허민 이거 저레 강은에 박으렌 헤영 요레 강 박으민 자르르륵 허게 이디 오랑 이건 그냥 놓곡 이것이 그 사름 끗어당 경 허민 가운데로 탁허민 먹물 착허게 그믓이 긋어져.(들여서 이 감아가면 요건 꽁지 있다가 감아와서 모두 감기면 했다가 무엇 이렇게 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이거 저리 가서 박으라고 해서 요리 가서 박으면 자르르륵하게 여기 와서 이건 그냥 놓고 이것이 그 사람 끌어다가 그러면 가운데로 탁하면 먹물 착하게 금 그어져.)

108038 @ 아.(아.)

108038 # 실을, 실을 탁허민 짝 그믓 긋어져.(실을, 실을 탁하면 짝 금 그어져.)

108038 @ 어. 그거 먹통이엔 긑아?(어. 그거 먹통이라고 말해?)

108038 # 게, 이게 담는 것이 먹통, 이디 홈 팡 낭 이 정도허게, 이 정도허게 이디 홈 팡 이레 솜을 놓곡 먹 곤 거 놔. 놓으민[노민] 이딘 고냥 뚤랑인에 무신거 요런 거 딩겨, 못이나 하나 등기곡 이딘 또시 감는 것이 이서. 감앗다 풀엇다 이젠 또시 머리에 실 감는 거 이디 안에.(그렇지, 이게 담는 것이 먹통, 여기 홈 파서 나무 이 정도하게, 이 정도하게 여기 홈 파서 이리 솜을 놓고 먹 간 거 놔. 넣으면 여

긴 구멍 뚫어서 무엇 요런 거 늘어져, 못이나 하나 늘이고 여긴 또 감는 것이 있어. 감았다 풀었다 이젠 또 머리에 실 감는 거 여기 안에.)

108038 @ 아.(아.)

108038 # 이거 저레 강은에 발류라 헹 죽허게 발리민 어느 정도 허민 하르방이 가운델로 강 탁허민 그뭇 탁 긋어져.(이거 저리 가서 바루어라 해서 쭉하게 바루면 어느 정도 하면 할아버지 가운데로 가서 탁하면 금 탁 그어져.)

108038 @ 이 실은 무신거옌 ᄀᆞᆯ아?(이 실은 무엇이라고 말해?)

108038 # 그냥 먹술 아니냐, 먹술.(그냥 먹줄 아니냐, 먹줄.)

108038 @ 먹술?(먹줄?)

108038 # 응, 먹술. 게난 먹 부쪈에 허난게, 먹술. 먹통 ᄋᆞ졍 오렌 허곡. 그 먹통 ᄋᆞ졍 오라 이거 발롸사켜, 먹통 ᄋᆞ져당 짝 발루민.(응, 먹줄. 그러니까 먹 붙여서 하니까, 먹줄. 먹통 가져서 오라고 하고. 그 먹통 가져서 와라 이거 바루어야겠다, 먹통 가져다가 짝 바루면.)

108039 @ 흑질할 때 할머니 손으로 허여? 무신거, 영.(흙질할 때 할머니 손으로 해? 무엇, 이렇게.)

108039 # 손으로게. 그냥, 헉 뀌어근에 손으로 영영.(손으로. 그냥, 흙 이겨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108039 @ 손으로 영영 헤? 나중에 뭐 영 허는 거.(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거.)

108039 # 없어.(없어.)

108039 @ 목시들은 무신 뭐 낭으로 헌 거 멘짝허게 허는 거 잇수게?(목수들은 무슨 뭐 나무로 한 거 매끈하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108039 # 엇어. 그건 말짜라 가난. 새 세상 나가난에. 저 두불 도비헐 때, 두불 도비할 땐 초벌 도비헐 땐 그슨새영 보릿대영 놩인에 막 허지. 겡 두불 도비헐 땐 ᄀᆞ스락만.(없어. 그건 말째라 가니까. 새 세상 나가니까. 저 두벌 도배할 때, 두벌 도배할 땐 초벌 도배할 땐 '그슨새'랑 보릿대랑 넣어서 막 하지. 그래서 두벌 도배할 땐 까끄라기만.)

108039 @ 응.(응.)

108039 # 궂은 거 엇이 벙뎅이 엇이 ᄀᆞ스락 청인에 헉만 부쳥 막 반죽 곤쏠 반죽허듯이 막헌 이상엔 요만썩 요거만씩 ᄋᆞ져당은에 그릇더레 놓민 하르방들은 요만썩 헤영 짝짝 ᄇᆞᆯ랑 다 이디 ᄇᆞᆯ라지민 손으로 영 영 허면 판찍 뒈여.(궂은 거 없이 덩어리 없이 까끄라기 쳐서 흙만 붙여서 막 반죽 흰쌀 반죽하듯이 막한 이상에는 요만큼씩 요거만큼씩 가져다가 그릇에 넣으면 할아버지들은 요만큼씩 해서 짝짝 발라서 다 여기 바르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깨끗이 돼.)

108039 @ 옛날엔 다 손으로예?(옛날엔 다 손으로요?)

108039 # 손으로 ᄋᆞ졍 영 헤영 영허믄 축ᄇᆞ름 경 허민 이젠 그 문 흔 착 요딘 다 ᄇᆞᆯ라지민 물 톡 적져근에 우로 삭삭삭삭 허민 ᄆᆞᆫ짝헤져. 경헹 그 헉 ᄆᆞᆯ르민 어

디 똥종이 사당 블르곡 엇은 집엔 아이덜이 글 써난 거 데작데작 블르곡.(손으로 가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벽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문 한 짝 요긴 다 바르면 물 톡 적셔서 위로 삭삭삭삭 하면 매끈해. 그렇게 해서 그 흙 마르면 어디 갱지 사다가 바르고 없는 집은 아이들 글 썼던 거 덕지덕지 바르고.)

108039 @ 데작데작 블르고.(덕지덕지 바르고.)

9. 신앙

109001 @ 집에 무사 조왕에도 신 잇고, 문전에도 신 잇고 영허덴 헙니께. 집에 여기 집에 신이 이신가?(집에 왜 조왕에도 신 있고, 문전에도 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습니까. 집에 여기 집에 신이 있는가?)

109002 # 아니 그거 먹는 집이도 잇곡 안 먹는 집이도 이서.(아니 그거 먹는 집도 있고 안 먹는 집도 있어.)

109002 @ 대정골 쪽은?(대정골 쪽은?)

109002 # 대정골은 잘 아이 모사. 저 동드렌 그거 막 모사근에. 똘도 동드레 시집 아이 보내젠 허곡 동이 새각시 허여 오젠도 아이 허곡. 이젠 동이 새각시도 오곡.(대정골은 잘 안 모셔. 저 동쪽으론 그거 막 모셔서. 딸도 동쪽으로 시집 안 보내려고 하고 동쪽 새색시 해 오려고도 안 하고. 이젠 동쪽의 새색시도 오고.)

109005 @ 이젠 그런 거 안 허니까.(이젠 그런 거 안 하니까.)

109005 # 이젠 경 안허난이. 그거 막 동이 새각시 허여 오민 막 무섭게 생각헤여. 잘못허민이 오꼿 척허여 불곡.(이젠 그렇게 안 해. 그거 막 동쪽 새색시 해 오면 막 무섭게 생각해. 잘못하면 그만 '척허여' 버리고.)

109005 @ 척허는 게 뭐?('척허는' 게 뭐?)

109005 # 게 아팡. 정성 안 들이민.(그러게 아파서. 정성 안 들이면.)

109005 @ 경헤도 집 짓으민 성주는 ᄂᆞ려옵니께예?(그래도 집 지으면 성주는 내리잖습니까?)

109002 # 게, 성주허주게.(그렇지, 성주하지.)

109002 @ 성주 어떵 헹 허는 거꽈?(성주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9002 # 성주 어떵 헤게. 집 짓으민 이제 심방 돌아당 성주허젠 허민 성주굿 허주게. 경 허민 목시 강은에 불러당은에 집 짓는 넋으로 강태공 서목장아, 어디 강 죽엇저 살앗저 허멍 심방이 막 허영 강태공 서목시 헤도 대답을 안 헤여. 대답을 안 허면 혼 서너 번 아이고 어디 강 죽엇인ᄀᆞ라 소식도 엇다, 심방이 드러 주죽거리당이 또시 강태공 서목시 허민 ᄒᆞ꼬만허게 예허민 아이고 어디 먼 디서 소리난디 기산디 아이산디 모르켜 입으로 심방이 요런 대문 발라 상 헤여.(성주 어떻게 해. 집 지으면 이제 무당 데려다가 성주하려고 하면 성주굿 하지. 그러면 목수 가서 불러다가 집 짓는 넋으로 강태공 서목장아, 어디 가서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무당이

막 해서 강태공 서목수 해도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면 한 서너 번 아이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소식도 없다, 무당이 들이 중얼거리다가 또 강태공 서목수 하면 조그맣게 예하면 아이고 어디 먼 데서 소리 났는지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입으로 무당이 요런 대문 앞에 서서 해.)

109002 @ 응.(응.)

109002 # 게민 그디 이거 두둔 사름들이 아이고 흔번 더 크게나 불러봅서게. 저 소리가 어떵 잘 아이 들렴사헴신디 크게 불러봅서 허민 또시 힘내영 하는 듯이난이 강태공 서목시 허민 또 무신거엔 절로 이디 서두서 예 하민 아이고 아이고 우리도 들어졈덴 아이고 살앗수다, 살앗수다 또 불릅셍 헹 막 불러가민 아이고 살앗구나 크게 그 사름이 예 허고 오랑 마당에 오랑 그 멩텡이 둘러메곡 도치 들른 냥 마당에서 한참 춤춰. 춤추당은에 이젠 들어오렌 허민 강태공 서목시 걸리렌 헤여. 그 이제 광목 무시걸로 허영이 강태공 서목시 허멍 요 신 벗는 디 오민 탁 걸령인에 탁 잡아뎅기민 마리레 탁 걸려근에 아이고 죽엇인가 살아신가 허단보난 살앗구넨 허멍이 기추륵 헤여 심방 말로.(그러면 거기 이거 두드리는 사람들이 아이고 한번 더 크게나 불러보십시오. 저 소리가 어떻게 잘 안 들리는지 크게 불러보십시오 하면 또 힘내서 하는 듯이 강태공 서목수 하면 또 무엇이라고 저기로 여기 서서 예 하면 아이고 아이고 우리도 들린다고 아이고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또 부르세요 해서 막 불러가면 아이고 살았구나 크게 그 사람이 예 하고 와서 마당에 와서 그 멱서리 둘러매고 도끼 든 대로 마당에서 한참 춤춰. 춤추다가 이젠 들어오라고 하면 강태공 서목수 걸리라고 해. 그 이제 광목 무엇으로 해서 강태공 서목수 하면서 요 신 벗는 데 오면 탁 걸려서 탁 잡아당기면 마루에 탁 걸려서 아이고 죽었나 살았나 하다보니까 살았다고 하면서 그처럼 해서 무당 말로.)

109002 @ 응.(응.)

109002 # 강태공 서목시 ᄒᆞ는 사름 막 우습게시리 소리도 좋곡 헤사 허여. 그거울 아부지 허레 뎅기메. 큰 심방 동네에 ᄏᆞ시허젠 허민 아이고 저 보성이 이제 저 누게네 저 누님 서방 우리 삼촌이 선생이난 이 선생 누님 서방 그런 거 막 잘헌덴 허메. 저 인성서만 오랑 빌어간다.(강태공 서목수 하는 사람 막 우습게끔 소리도 좋고 해야 해. 그거 우리 아버지 하러 다녀. 큰 무당 동네에 고사하려고 하면 아이고 저 보성에 이제 저 누구네 저 누님 서방 우리 삼촌이 선생이니까 이 선생 누님 서방 그런 거 막 잘한다고 해. 이 인성에서만 와서 빌려간다.)

109002 @ 겡 무신거 영 올리지 안허여?(그래서 무엇 이렇게 올리지 않아?)

109002 # 무사 올리주게.(왜 올리지.)

109002 @ 어떵 헹 허여?(어떻게 해서 해?)

109002 # 펭풍 쳥인에 막 굿허는 거 떡 같은 것도 올리고게.(병풍 쳐서 막 굿하는 거 떡 같은 것도 올리고.)

109002 @ 아니, 지붕에 무신 거 올려야 뒈네?(아니, 지붕에 무엇 올려야 되네.)

109002 # 지붕인 아니 올려. 아니 올령 강태공 서목시 허영은에 굿 ᄆᆞ칠 때사

그 걸명 허영 제사 때 걸명 허영 강태공 영 불러오민 집을 어떵 헹 짓어지자 허민 이제 바닥에 집 짓는 넉식으로 그 심방 칼로 다 그디서 뭐 삼간이여, 이간이여 뭣 이엔 허멍 이젠 요런 쒜 영 놩 아고 아고 이제 상머리가 홍글홍글헴저, 뭣헴저 심방은 헤여가민 아유 강태공 서목시가 어뜨난 잘못 허당 혼 잔 먹언에 손 털엄시냐, 뭣헴시냐?(지붕엔 안 올려. 안 올려서 강태공 서목수 해서 굿 마칠 때야 그 고수레 해서 제사 때 고수레 해서 강태공 이렇게 불러오면 집을 어떻게 해서 지어지자 하면 이제 바닥에 집 짓는 식으로 그 무당 칼로 다 거기서 뭐 삼간이다, 이간이다 뭐라고 하면 이젠 요런 쇠 이렇게 놔서 아이고 아이고 이제 용마루가 흔들흔들한다, 뭐한다 무당은 해가면 아유 강태공 서목수가 어쩐지 잘못 하다가 한 잔 먹어서 손 떨고 있니, 뭐 하고 있니?)

109002 @ 하하하.(하하하.)

109002 # 막 구정거려. 심방이 구정거리민 아니 술이 나빤산디 혼 잔 더 드렁인에 정신 출리렌 허렌. 이거 두드는 어른은 큰심방으로 골으민 혼 잔 이거 더 먹엉 정신 출령은에 잘허렌이 집을 잘 짓으렌 허민 먹는 체헤여. 이젠 그 집 짓는 너드레 허주게. 경 허민 그 사발에 상머리 걸치는 거, 도리 걸치는 거 그 큰 다라에 낭으로 댓가지로 허영인에 또시 저 상머리레 올라감젱 허멍 무시거 영헹 잡아뎅경 떡 걸어. 떡 걸엉 올라강 아이고 잘 뒈엄젠 허멍 또시 앚은 심방 북 두두는 심방들 아이고 목시가 여간 아니 춤말로 야속한[187] 어른이난 아이고 집도 곱게 잘도 올라감젠 헤영 집 그 상모리 탁 올라가민 그 하르방이 이제 발리주게. 그디 발리민 원 잣대 놓나 아녀나 눈이 좋아 불써 착허게 상머리 잘 올라갓젠 경헹 이젠 입성게로 허여. 입성게로 그 심방들이.(막 휘정거려. 무당이 휘정거리면 아니 술이 나빴는지 한 잔 더 드려서 정신 차리라고 하라고. 이거 두드리는 어른은 큰무당으로 말하면 한 잔 이거 더 먹어서 정신 차려서 잘하라고 집을 잘 지으라고 하면 먹는 체해. 이젠 그 집 짓는 '너드레' 하지. 그러면 그 사발에 용마루 걸치는 거, 도리 걸치는 거 그 큰 대야에 나무로 댓가지로 해서 또 그 용마루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무엇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떡 걸어. 떡 걸어서 올라가서 아이고 잘 된다고 하면서 또 앉은 무당 북 두드리는 무당들 아이고 목수가 여간 아니 참말로 '야속한' 어른이니까 아이고 집도 곱게 잘도 올라간다고 해서 집 그 용마루 탁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이제 바루지. 거기 바루면 원 잣대 놓거나 않거나 눈이 좋아 벌써 착하게 용마루 잘 올라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젠 '입성게'로 해. '입성게'로 그 무당들이.)

109002 @ 그 뭐는? 독, 독 머리 잘르곡 영 헤? 그건 어떵허는 거?(그 뭐는? 닭, 닭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해? 그건 어떻게 하는 거?)

109002 # 독 머리 쫄랑인에게 대가리 저 던지고게. 그런 거 막 헌다. 이 가을 들민 ᄒᆞ시허는 디마다 강인에, 우린 아부지 가지 말젠 막 허여도 그 사름덜 오란 빌어가민 홀 수 엇이.(닭 머리 잘라서 대가리 저 던지고. 그런 거 막 해. 이 가을 들면 고사하는 데마다 가서, 우린 아버지 가지 않으려고 막 해도 그 사람들 와서

187) '야속하다'는 사람이 꼼꼼하고 세심한 성질이 있다는 뜻이다.

빌면 할 수 없이.)

109003 @ 문전젠 지냅니께예?(문전제는 지내잖습니까?)

109003 # 응?(응?)

109003 @ 문전 제사는 지냅니께? 제사할 때 문전제 허듯이.(문전 제사는 지내잖습니까? 제사할 때 문전제 하듯이.)

109003 # 게.(그렇지.)

109003 @ 그 집에서 명절 안 허는 사름도 집에서 문전은 헙니께?(그 집에서 명절 안 하는 사람도 집에서 문전은 하잖습니까?)

109003 # 게, 문전 이녁집이 이 집 짓을 때 성주헤나부난, 성주헤나부난 제ᄉᆞ 다른 애기덜 물려가도 아적이 팔월에나 두 번, 두 번. 옛날엔 서너 번 헤낫저마는 요즘은 아덜네 다른 디 집 짓엉 강 다 물려가민 문전제나 어멍네가 살아도 무시거 늘레 난 거 국 끌리곡 출리지 안헤여. 밥 메나 하곡 허영 지주 흔 잔 허곡 올련에 문전제 헤뒁 아기네 집에 멩질 먹으레 가. 나도 경 한다. 나도 팔월에 기자 이디서 밥허곡 그자 아이덜 궤기덜 사 온 거 시민 국 흔 적 끌령. 우리 하르방넨 술을 아이 먹는 따문 술은 아니 올려. 게민 기자 팔월에 그자 감주 허엿당 흔 잔 올령 그 감주레 무시거 허영 걸멩허영. 게난 나 올히 하르방 식게에 감주 아니 헤다 주켜. 그디 어멍 죽엉 ᄀᆞ치 상에 올렴시네. 큰어멍 죽엉.(그렇지, 문전 자기 집에 이 집 지을 때 성주했었으니까, 성주했었으니까 제사 다른 아기들 물려가도 아침에 팔월에나 두 번, 두 번. 옛날엔 서너 번 했었다마는 요즘은 아들네 다른 데 집 지어서 가서 다 물려가면 문전제나 어머니네가 살아도 무엇 비린내 난 거 국 끓이고 차리지 않아. 밥 메나 하고 해서 제주 한 잔 하고 올려서 문전제 해두고 아기네 집에 명절 먹으러 가. 나도 그렇게 한다. 나도 팔월에 그저 여기서 밥하고 그저 아이들 고기들 사 온 거 있으면 국 한 숟가락 끓여서. 우리 할아버지네는 술을 안 먹는 때문 술은 안 올려. 그러면 그저 팔월에 그저 감주 했다가 한 잔 올려서 그 감주에 무엇 해서 고수레해서. 그러니까 나 올해 할아버지 제사에 감주 안 해다 주겠다. 거기 어머니 죽어서 같이 상에 올리고 있어. 큰어머니 죽어서.)

109004 @ 조왕은 이제 안 허지예?(조왕은 이제 안 하지요?)

109004 # 조왕은 아니 허여.(조왕은 안 해.)

109005 @ 칠성도 안 허곡예?(칠성도 안 하고요?)

109005 # 칠성은, 시는 집은 칠성 헌다.(칠성은, 있는 집은 칠성 한다.)

109005 @ 아, 이디도 헙니까? 동드레만 허는 게 아니곡?(아, 여기도 합니까? 동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109005 # 이디도 시는 집 셔. 우리 친정엔 칠성도 엇어. 우리 저 큰뚤 어멍네 할망네 집에도 칠성 엇어라. 어뜬 집이 칠성도 싯곡 앙팡에도 허곡 헤여.(여기도 있는 집 있어. 우리 친정엔 칠성도 없어. 우리 저 큰딸 어머니네 할머니네 집에도 칠성 없더라. 어떤 집에 칠성도 있고 고방에도 하고 해.)

109005 @ 안칠성? 할머니도 헤낫수과?('안칠성'? 할머니도 했었습니까?)

109005 # 그건 앙팡더레 차롱에 허영 올리곡이.(그건 고방에 채롱에 해서 올리고.)

109005 @ 고팡에?(고방에?)

109005 # 고팡에.(고방에.)

109005 @ 고팡이영 앙팡이영 똑ᄀᆞ튼 거?('고팡'이랑 '앙팡'이랑 똑같은 거?)

109005 # 응, 고팡에 게 곡석 놓곡 항아리 놩인에 옛날엔. 쏠 놓는 디.(응, 고방에 곡식 넣고 항아리 놔서 옛날엔. 쌀 넣는 데.)

109005 @ 그디레 헤? 갈 때 무신거 헹 가?(거기에 해? 갈 때 무엇 해서 가?)

109005 # 그디도 허곡 조왕에도 허곡. 문전에도 허곡 경 허여. 경헤도 우리 친정에 어머니 산 때 보민 문전에만 허연게 나도. 나 이젠 그디 큰어멍이 ᄀᆞ치 하르방이영 죽언에 상에 팔월명절이곡 정월명절이곡 허는 따문에 나 문전제 안 헤. 드러 내여불언에. 난 이제 믿어불카 허멘.(거기도 하고 조왕에도 하고. 문전에도 하고 그렇게 해. 그래도 우리 친정에 어머니 살았을 때 보면 문전에만 하던데 나도. 나 이젠 거기 큰어머니가 같이 할아버지랑 죽어서 상에 팔월명절이고 정월명절이고 하는 때문에 나 문전제 안 해. 들이 내버려서. 난 이제 믿어버릴까 해.)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정월에는 정월멩질 허주예? 처음에예.(정월에는 정월명절 하지요? 처음에요.)

110001 # 응.(응.)

110001 @ 정월멩질은 어떵 헹 허는 거?(정월명절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

110001 # 정월멩질은 어떵 헹 헤사?(정월명절은 어떻게 해서 해야?)

110001 @ 언제 허는 거?(언제 하는 거?)

110001 # 정월멩질은 정월 초하루날 허는 거 아니?(정월명절은 정월 초하룻날 하는 거 아니?)

110001 @ 응. 옛날엔 그냥 음력으로 안 헹 양력으로도 헤낫어예?(응. 옛날엔 그냥 음력으로 안 하고 양력으로도 했었어요?)

110001 # 아니. 양력으로 아년. 음력으로만 항상.(아니. 양력으로 안 했어. 음력으로만 항상.)

110001 @ 음력으로만 항상.(음력으로만 항상.)

110001 # 응. 엿날엔 정월멩질도 허곡, 오월 단오 멩질도 허곡.(응. 옛날엔 정월명절도 하고, 오월 단오 명절도 하고.)

110001 @ 한식도 허고예. 팔월멩질 허고예. 네 번 헤낫지예? 정월멩질 허는 건.(한식도 하고요. 팔월명절 하고요. 네 번 했었지요? 정월명절 하는 건.)

110001 # 응, 덕수선 오월멩질 헤낫저. 나 간 때ᄁᆞ지도. 다른 디덜은 오월멩질은 안 헌다. 오월에 멩질 허당인에 보리 비여근에 비 오라가민 멩질덜 허는 집은 제 허곡, 안 헌 딘 보리 빈 걸 무끄렌덜 ᄉᆞ뭇 돋고. 난리가 나곡 헤낫주.(응, 덕수서는 오월명절 했었어. 나 간 때까지도. 다른 데들은 오월명절은 안 한다. 오월에 명절 하다가 보리 베어서 비 오면 명절들 하는 집은 제 하고, 안 한 덴 보리 벤 걸 묶으러들 사뭇 달리고, 난리가 나고 했었지.)

110001 @ 할머니네 옛날에는. 옛날에 어렷을 때는?(할머니네 옛날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110001 # 우리 집 대정골엔 오월멩질 허는 사름 엇어. 덕수 강 보난 오월멩질들 헴서라.(우리 집 대정골엔 오월명절 하는 사람 없어. 덕수 가서 보니까 오월명절들 하고 있더라.)

110001 @ 헴십디가?(하고 있었습니까?)

110001 # 응.(응.)

110001 @ 정월멩질날은 무신거 헙니까? 아침에 일어나민.(정월명절날은 무엇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110001 # 아직 일어나민.(아침 일어나면.)

110001 @ 멩질 출리젠 허민.(명절 차리려고 하면.)

110001 # 멩질 출리젠 허민.(명절 차리려고 하면.)

110001 @ 아니 전날.(아니 전날.)

110001 # 전날 다 멩질 헐 거.(전날 다 명절 할 거.)

110001 @ 떡헐 거 다예.(떡할 거 다요?)

110001 # 다 헤영인에 다 차롱에 헤영인에. 멩질 지낼 방더레 어디다 다 놔두주게. 젓갈이니 떡이니 범세 거 멩질 놀멍 헐 집은 또시 채소 ᄀᆞ튼 거 아직이사 또 허곡. ᄒᆞ쏠 인칙 허는 집은 저녁에 다 채소 ᄀᆞ튼 거 고사리여 이제 콩ᄂᆞ물이여 저냑에 숢아 놧당 맞쳥 놔두곡.(다 해서 다 채롱에 해서. 명절 지낼 방에 어디다 다 놔두지. 젓갈이니 떡이니 '범세' 거 명절 천천히 할 집은 또 채소 같은 거 아침이야 또 하고. 조금 일찍 하는 집은 저녁에 다 채소 같은 거 고사리며 이제 콩나물이며 저녁에 삶아 놨다가 맞춰서 놔두고.)

110001 @ 정월멩질 허젠 허민 준비허젠 허민 막 힘들켜예?(정월명절 하려고 하면 준비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겠네요?)

110001 # 응?(응?)

110001 @ 며칠 전이 준비해야 뒈네예. 그믄 힘들겠다고.(며칠 전에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힘들겠다고.)

110001 # 게. 이 저 덕수 가난에 오월멩질덜 헤라. 이 대정골은 오월멩질 우리 어린 때 허는 사름은.(그러게. 이 저 덕수 가니까 오월명절들 하더라. 이 대정골은 오월명절 우리 어릴 때 하는 사람은.)

110001 @ 엇어예.(없어요.)

110001 # 보지 못헨. 우리 외가에 고칩이도 막 방답덜이영 하도 허는 거 엇고. 송칩이도 허는 거 엇고.(보지 못했어. 우리 외가에 고씨집에도 막 일가붙이들이랑 많아도 하는 거 없고. 송씨 집도 하는 거 없고.)

110001 @ 멩질은 멧 밧듸나 헹. 할머니 어렷을 때 이디 대정골 살 때.(명절은 몇 군데나 해서. 할머니 어렸을 때 여기 대정골 살 때.)

110001 # 대정골 살 때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만 혼자 오난 우리.(대정골 살 때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만 혼자 오니까 우리.)

110001 @ 혼자만?(혼자만?)

110001 # 멩질 허연 먹으민 외가에 가시네게. 이칩이 가민이 저물아. 종손칩이 먹젠 허민 저물아. 막 하. 겡 종손 칩이 이칩이 종손 칩이 가민이 절벤 솔벤 허영이. 절벤이 동글락떡 하나 헤영이 엿 무청도 절벤 우터레 톡톡 놓민이 하르방덜신딘 그거 주어. 아이덜토 안 주곡 여자 어른덜토 안 줘. 그 옆쪽벳긔 놩 안 줘. 경 허민 하르방 얼굴에 헤뜩헤뜩 바리민 하르방 아이 먹언 고개 고딱고딱 나 뚜라오라 강 아져가.(명절 해서 먹으면 외가에 갔잖아. 이 이씨 집에 가면 저물어. 종손 집에 먹으려고 하면 저물어. 아주 많아. 그래서 종손 집에 이씨 집의 종손 집에 가면 절편, '솔펜' 해서. 절편이 '동글락떡' 하나 해서 엿 묻혀서도 절편 위에 톡톡 놓으면 할아버지들에게 그거 줘. 아이들도 안 주고 여자 어른들도 안 줘. 그 옆쪽밖에 놔서 안 줘. 그러면 할아버지 얼굴에 힐끔힐끔 보면 할아버지 안 먹고 고개 까딱까딱 나 따라오라 가서 가져가.)

110001 @ 세배도 드립니께? 과세헌덴 허여?(세배도 드리잖습니까? 과세한다고 해?)

110001 # 응. 아니 서배엔 헷어. 엿날.(응. 아니 '서배'라고 했어, 옛날.)

110001 @ 서베예.('서베'요.)

110001 # 영 이젠 신식으로 과세엔 허주. 다 절허여. 경헤도 엿날은 세뱃돈 주도 안허여.(이렇게 이젠 신식으로 과세라고 하지. 다 절해. 그래도 옛날은 세뱃돈 주지도 않아.)

110001 @ 세뱃돈 아니면 뭐 동고리라도 하나씩 테와?(세뱃돈 아니면 뭐 사탕이라도 하나씩 나눠 줘?)

110001 # 아무것도 안 테와, 엿날엔. 우리 클 때엔 돈 테우는 거 엇엇어. 우리 윽은 후제 다 돈덜 테왓주.(아무것도 안 나눠줘, 옛날엔. 우리 클 때엔 돈 나눠주는 거 없었어.)

110001 @ 할머니 옛날에 어렷을 때 세뱃돈 받아난 기억 잇어?(할머니 옛날에 어렸을 때 세뱃돈 받았던 기억 있어?)

110001 # 엇어.(없어.)

110001 @ 엇어예. 그믄 세배허레 이디저디 다 다닙니께? 나이 든 분들 잇이민.(없어요. 그러면 세배하러 여기저기 다 다니잖습니까? 나이 든 분들 있으면.)

110001 # 다 절만 허영 나오주. 경 허민 그 집이 권당네 집이 강 절허민 멩질

넘어난 거 적꼬지에 떡이영 궤기영 뀌엉 주민 영 들렁 집이 오민 허여도.(다 절만 해서 나오지. 그러면 그 집에 권당네 집에 가서 절하면 명절 넘었던 거 적꼬치에 떡이랑 고기랑 꿰어서 주면 이렇게 들어서 집에 오면 해도.)

110001 @ 아, 그거 들렁 와?(아, 그거 들어서 와?)

110001 # 응. 집이 ᄋᆞ져나뒁 또 다른 집이 절허레덜 막 여러이 그자 사촌들이영 이 패짓엉 뎅기민 다 이치룩 허연. 또 이제 소상허는 디 가민 아이덜은 궤깃반 환장해, 엿날에 어떠난이. 뒈야지가 귀하덴 헹 헤끔썩 주곡. 어른덜은 하영 주민 하르방네가 먹지 아녕 적꼬지에 뀌영 집에 ᄋᆞ정강 먹으렌 허민 적고지에 뀌엉 손에 강 적헹 오단 보민 가메기 오란 확 떼영 돌아나불곡.(응. 집에 가져다두고 또 다른 집에 절하러들 아주 여럿이 그저 사촌들이랑 이 떼 지어서 다니면 다 이렇게 했어. 또 이제 소상하는 데 가면 아이들은 고기 반기 환장해, 옛날에 무슨 이유인지. 돼지가 귀하다고 해서 조금씩 주고. 어른들은 많이 주면 할아버지들이 먹지 않고 적꼬치에 꿰어서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면 적꼬치에 꿰어서 손에 간직해서 오다 보면 까마귀 와서 확 떼어서 달아나버리고.)

110001 @ 아이고 족헌 거.(아이고 아까운 거.)

110001 # 게민이 드러 울곡이. 소레기 놈덜도 어떵산디, 그 팔월멩질에나 송악새나 거 똥소레기가 그렇게 뎅겨. 가메기영. 가메기 못 보당도 그걸 곱정 오주마는 영 적고지에 뀌엉 영 들렁 오단 보민 확허게시리.(그러면 들이 울고. 솔개 놈들도 어떻게인지, 그 팔월명절에나 '송악새'나 그거 솔개가 그렇게 다녀. 까마귀랑. 까마귀도 안 보이다가도 그걸 숨겨서 오지마는 이렇게 적꼬치에 꿰어서 이렇게 들고 오다보면 확하게끔.)

110001 @ 아이 안 다침도 다행인게예.(아이 안 다친 것도 다행이네요.)

110001 # 그치룩 허연. 오죽 엿날에사 궤기도 귀허곡 그런 것도 귀헤시냐게? 이젠 ᄉᆞ뭇 궤기 지체 못 헤영 줘도 안 먹곡.(그렇게 했어. 오죽 옛날에야 고기도 귀하고 그런 것도 귀했니? 이젠 사뭇 고기 지체 못 해서 줘도 안 먹고.)

110001 @ 줘도 안 먹어, 이젠. 맛엇덴예. 정월멩질에 특별히 먹는 음식 이신가?(줘도 안 먹어, 이젠. 맛없다고요. 정월명절에 특별히 먹는 음식 있는가?)

110001 # 특별히 먹는 음식은 엇어.(특별히 먹는 음식은 없어.)

110001 @ 이제는 막 떡국도 헹 먹고 헙니게예? 엿날엔.(이제는 막 떡국도 해서 먹고 하잖습니까? 옛날엔.)

110001 # 이젠 떡국도 헤영인에 멩질에도 떡국에도 올리는 사람 서도 우리 집인.(이젠 떡국도 해서 명절에도 떡국도 올리는 사람 있어도 우리 집은.)

110001 @ 떡국 안 올려?(떡국 안 올려?)

110001 # 안 올려. 떡국 아니 헤여.(안 올려. 떡국 안 해.)

110001 @ 저 어디 동더레는 떡국 멩질 헹은에 헙디다.(저 어디 동쪽으로는 떡국 명절 해서 합디다.)

110001 # 우리 저 외가에 이칩이도 막 방답 하영 헨에 저물도록 헤도 떡국 안

허여. 멩질만 허지.(우리 저 외가에 이씨 집도 아주 일가붙이 많이 해서 저물도록 해도 떡국 안 해. 명절만 하지.)

110001 @ 멩질헐 때 그믄 무신거 무신거 올려?(명절할 때 그러면 무엇 무엇 올려?)

110001 # 게. 떡도 그자 다 전이 멩젤허듯이 경 허여. 정월멩질엔 떡국 아니헤.(그러게. 떡도 그저 다 전에 명절하듯이 그렇게 해. 정월명절엔 떡국 안 해.)

110001 @ 떡국 안 해? 떡허고 적갈허고 채소허고.(떡국 안 해? 떡하고 적하고 채소하고.)

110001 # 게. 지짐이 ᄀᆞ튼 거 다 헤.(그렇지. 지짐이 같은 거 다 해.)

110001 @ 지짐이 ᄀᆞ튼 거 허고 밥허고 국허고예?(지짐이 같은 거 하고 밥하고 국하고요?)

110001 # 응.(응.)

110002 @ 정월대보름은?(정월대보름은?)

110002 # 대보름은 뭐 이 무시거 신 집이나 허주. 엇인 집은 그런 거 허지 안헤여. 대보름도.(대보름은 뭐 이 무엇 있는 집이나 하지. 없는 집은 그런 거 하지 않아. 대보름도.)

110002 @ 달 뜹니께? 보름달 뜨민 뭐.(달 뜨잖습니까? 보름달 뜨면 뭐.)

110002 # 안 헤여.(안 해.)

110002 @ 안 헤여?(안 해?)

110002 # 안 헌 사름이 하.(안 하는 사람이 많아.)

110003 @ 뭐 방사[188]험으로 뭐 허진 안 허여?(뭐 '방사'함으로 뭐 하진 않아?)

110003 # 장사허는 집이나 또 뭐허는 집인 그거 대보름 어느제 허젠 허는 거 닮덴 헹인에 헤여도 보통으론 허는 집 엇어.(장사하는 집이나 또 뭐하는 집은 그거 대보름 언제 하려고 하는 거 같다고 해서 해도 보통으로는 하는 집 없어.)

110002 @ 이젠 막 무사 오곡밥 헹 먹은다 무신 뭐.(이젠 막 왜 오곡밥 해서 먹는다 무슨 뭐.)

110002 # 대보름에 오곡밥은 집이서 그자 허영 먹으민 허여도. 어디 위허지는 안허여.(대보름에 오곡밥은 집에서 그저 해서 먹으면 해도. 어디 위하지는 않아.)

110003 @ 위허지는 안허여예. 뭐 무신거 딱딱헌 거 씹어 먹으민 뭐 허물 안 난덴 허곡 허는 거.(위하지는 않아요. 뭐 무엇 딱딱한 거 씹어 먹으면 뭐 부스럼 안 난다고 하고 하는 거.)

110003 # 그런 것도 안 허여. 이젠 이 신식으로 미신을 이젠 잘 허질 아녀.(그런 것도 안 해. 이젠 이 신식으로 미신을 이젠 잘 하지를 않아.)

110003 @ 무신 하늘레기치룩 방쉬허는 걸로 액막이 허는 걸로 허는 거 이수과?(무슨 하눌타리처럼 '방쉬'하는 걸로 액막이 하는 걸로 하는 거 있습니까?)

110003 # 그런 건 집안이 ᄒᆞ쏠 궂으민 나그네 돌아당 액막인 헤도 그런 방법 허

188) '방사허다'는 비밀스런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말한다. '방법, 방세, 방쉬'라고도 한다.

는 건 엇어.(그런 건 집안이 조금 궂으면 무당 데려다가 액막인 해도 그런 '방법'하는 건 없어.)

110003 @ 방법 허는 건 엇어?('방법'하는 건 없어?)

110003 # 응. 나그네 돌아당.(응. 무당 데려다가.)

110003 @ 나그네가 누게?('나그네'가 누구?)

110003 # 심방 허는 사람.(무당 하는 사람.)

110003 @ 심방 허는 사람이 나그네?(무당 하는 사람이 '나그네'?)

110003 # 그것ᄀᆞ라 나그네엔 헤여.(그것보고 '나그네'라고 해.)

110003 @ 무사 나그네?(왜 '나그네'?)

110003 # 몰라.(몰라.)

110003 @ 남자?(남자?)

110003 # 남자고 여자고 나그네 온 거 닮아라, 그 집이. 경 허여.(남자고 여자고 '나그네' 온 거 같더라, 그 집에. 그렇게 해.)

110003 @ 심방을 나그네엔 ᄀᆞᆯ아?(무당을 '나그네'라고 말해?)

110003 # 응.(응.)

110003 @ 정월에 액막이 허는 걸로 허는 건 엇어?(정월에 액막이 하는 걸로 하는 건 없어?)

110003 # 응, 경 허는 집이서 ᄒᆞ쏠 좇겨가민 아이고 정월에 그 집이 나그네 온 거 닮아라, 드러 좇기는 게 그게.(응, 그렇게 하는 집에서 조금 쫓겨가면 아이고 정월에 그 집에 심방 온 거 같더라, 들이 쫓기는 게 그게.)

110004 @ 정월에 무사 마을제 지내고 헙니께?(정월에 왜 마을제 지내고 하잖습니까?)

110004 # 마을젠 ᄆᆞ을 사름덜이 그 회관에서 문 허곡. 상궤 뎅기는 사럼덜은 상궤 강 ᄒᆞᆫ 일주일 그기서 살멍.(마을젠 마을 사람들이 그 회관에서 모두 하고. 향교 다니는 사람들은 향교 가서 한 일주일 거기서 살면서.)

110004 @ 상궤가 어디?('상궤'가 어디?)

110004 # 큰 이제.(큰 이제.)

110004 @ 아, 향교, 상교.(아, 향교, 향교.)

110004 # 응, 단산[189] 앞이. 그디 강인에 각처에이 남군에 사람은 그 상궤에덜 ᄆᆞᆯ관 쓰곡덜 큰옷 도복덜 입곡 영 허민. ᄒᆞᆫ 일주일 그디서 문 여자덜신디 조역 안 허게시리 방에 눅져. 눅졋당인에 그디 직ᄒᆞ는 사럼이 돗도 잡고 쉐도 잡곡 허영 그제 지내나민. 그디서 마냥 먹고 제관덜 쉐고기여 뒈야지궤기여 다 거기서 큰 제관은 궤기 ᄒᆞ쏠 크게 얻고 크게 주곡. 또 그 하가지[190]덜은 궤기 보통으로 ᄒᆞ꼼썩 주고 경헹덜 궤기 ᄋᆞ정오고 헤여.(응, 단산 앞에. 거기 가서 각처에 남군에 사람은 그 향교에들 말관 쓰고들 큰옷 도복들 입고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거기서 모두 여자

189) '단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단산 앞에 대정향교가 있다.
190) '하가지'는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지파의 가문을 이르는 말이다.

들에게 조역 안하게끔 방에 누워. 누웠다가 거기 지키는 사람이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해서 그 제 지내고 나면. 거기서 마냥 먹고 제관들 쇠고기다 돼지고기다 다 거기서 큰 제관은 고기 조금 크게 얻고 크게 주고. 또 '하가지'들은 고기 보통으로 조금씩 주고 그렇게 해서들 고기 가져오고 해.)

110004 @ 물관은 어떤 거? 물관이 뭐? 물관이. 머리에 쓰는 거?(말관은 어떤 거? 말관이 뭐? 말관이. 머리에 쓰는 거?)

110004 # 응. 말관. 이만헌 걸로 허영 말관 썽.(응. 말관. 이만한 걸로 해서 말관 써서.)

110004 @ 말관.(말관.)

110004 # 그디도 큰어른덜이 도복 입곡 그것 허주. 매 사람이 그것 입엉 절허지 아녀. 덕순 ᄆᆞ을제도 헤여낫저. 이젠 헤염신디 말암신디. ᄆᆞ을제 허민 그 ᄆᆞ을에 장게간 사름, 그해에 장게간 사름 그 ᄆᆞ을제 허는디 일주일을 각시신디 못 가게 헤. 그해에 장게간 사름이 일주일 각시신디 못 가게 헤영은에 그 토젯단이엔 헌 디 잇어. 덕수. 토젯단에서 그디서 살아.(거기도 큰어른들이 도포 입고 그것 하지. 매 사람이 그것 입어서 절하지 않아. 덕수는 마을제도 했었어. 이젠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마을제 하면 그 마을에 장가간 사람, 그해에 장가간 사람 그 마을제 하는데 일주일을 색시에게 못 가게 해. 그해 장가간 사람이 일주일 색시에게 못 가게 해서 그 포제단이라고 한 데 있어, 덕수. 포제단에서 거기서 살아.)

110004 @ 이디 인성린 엇어? 인성리 포젯단 엇어?(여기 인성리는 없어? 인성리 포제단 없어?)

110004 # 엿날에 잇어나도 우리 어릴 때 ᄒᆞ꼼 잇어나도 덕수추룩 열심허지 안헤. 우린 덕수 간에 살도록도 장게간 사름덜이 우리 아방도 그디 간에 일주일을 살안. 니 바글바글 옷에 일민 먼발로 강인에 옷 들이치민 옷 입엉인에 옷 벗은 것 또시 던지고. 게민 기린 사름 본뎅 헤영 일주일 그디서 살렌 헤. 게난 덕수 젊은 사름덜 막 얌전헤라게. 그땐이 ᄌᆞ엽[191]이 엇엉이. 쳇 장게간 사름덜 각시영 눵 자젠 허젠 허믄 일주일 그디 살민 어떤 사름은 몰르게 곱앙인에 각시신디 오랑가젠 그 올레도 안 열앙 담 넘엉오단 그디 지키는 사름 걸령 난리가 낭인에 제도 못 맡게 허곡 욕 얻어먹고. 경 허더라.(옛날에 있었어도 우리 어릴 때 조금 있었어도 덕수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 우린 덕수 가서 살도록 장가가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도 거기 가서 일주일을 살았어. 이 바글바글 옷에 일면 먼발치로 가서 옷 들이뜨리면 옷 입어서 옷 벗은 것 또 던지고. 그러면 그리운 사람 본다고 해서 일주일 거기서 살라고 해. 그러니까 덕수 젊은 사람들 아주 얌전하더라. 그땐 'ᄌᆞ엽'이 없어서. 첫 장가간 사람들 색시랑 누워서 자려고 하려고 하면 일주일 거기 살면 어떤 사람은 모르게 숨어서 색시에게 와서 가려고 그 '올레'도 안 열어서 담 넘어오다가 거기 지키는 사람 걸려서 난리가 나서 제도 못 맡게 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러더라.)

191) 'ᄌᆞ엽'은 떠들썩하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장난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자유롭게 나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다.

110005 @ 안택 허는 것도 헙니까?(안택 하는 것도 합니까?)

110005 # 응?(응?)

110005 @ 안택.(안택.)

110005 # 안택이엔 헌 건 집이서 허는 사름덜 우리 대정골은 그런 거 엇어.(안택이라고 한 건 집에서 하는 사람들 우리 대정골은 그런 거 없어.)

110005 @ 엇어예.(없어요.)

110005 # 응.(응.)

110006 @ 정월에 보리밧도 불라?(정월에 보리밭도 밟아?)

110006 # 보리밧도 이 대정골엔 안 헤.(보리밭도 이 대정골엔 안 해.)

110006 @ 보리밧 불르는 것도 안 헤도 뒈어?(보리밭 밟는 것도 안 해도 돼?)

110006 # 응. 엿날에 제국시절에 일본 시대에 보리 갈민 보리덜 불르렌 헤영 학생덜 밧듸 강 드루 불라낫저. 이젠 보리밧 안 불라. 제국시절에 학교 강인에 시간에 보리밧 불르렌 허민 불람신디 말암신디 밧듸 담아들엉인에 우릉당 우릉당 허당덜 그냥 오곡 헷저.(응. 옛날에 제국시절에 일본 시대에 보리 갈면 보리들 밟으라고 해서 학생들 밭에 가서 들이 밟았었어. 이젠 보리밭 안 밟아. 제국시절엔 학교 가서 시간에 보리밭 밟으라고 하면 밟고 있는지 마는지 밭에 담아 들어서 우당탕 우당탕 하다가들 그냥 오곤 했다.)

110006 @ 그거 무사 불르는 거?(그거 왜 밟는 거?)

110006 # 든든허영 땅 든든허영인에 보리 여물렌 허는 거주게. 막 겨울에 눈 오랑 곳아[192] 부난에 보리 여물지 안 헌덴 헤 불르곡. 그때 일본 시대에 불르렌 헷어. 고지 줄 잡앙 불르렌 허곡 경 아니믄 학생덜 제멋대로 불르민 이리 와릉 저리 와릉 돌아뎅기멍 불리는 체만 허곡. 야속헌[193] 선생은 가민 학생덜 다 흔 고지썩 상 즈근즈근 불르렌 허곡 겡 아년 선생은 마음대로 허렌 허믄 그자 물 돌아뎅기듯 돌아뎅기당인에.(단단해서 땅 단단해서 보리 여물라고 하는 거지. 막 겨울에 눈 와서 '곳아' 버리니까 보리 여물지 않는다고 해서 밟고. 그때 일본 시대에 밟으라고 했어. 이랑 줄 잡아서 밟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제멋대로 밟으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돌아다니면서 밟는 체만 하고. '야속헌' 선생은 가면 학생들 다 한 이랑씩 서서 차근차근 밟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그저 말 돌아다니듯 돌아다니다가.)

110007 @ 걸궁도 헤낫수과?(걸궁도 했었습니까?)

110007 # 걸궁은 헤낫저.(걸궁은 했었다.)

110007 @ 걸궁은 어떵 헹 허는 거꽈?(걸궁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0007 # 걸궁은 ᄆᆞ을에 사름덜 ᄆᆞᆫ딱 ᄉᆞ뭇 다 걸궁 모저 멘들앙 ᄆᆞᆫ 이디 꼿 달리고 북 두드는 사름 대양 두드는 사름 걸이 빙빙 돌멍 당당 허영 그 집이 강은에 그 마당에 강 돌아가민 술도 주곡, 돈도 그 받는 사름 잇어. 받는 사름덜도 돈도 구

192) '곳다'는 물기가 있는 물체가 찬 기운에 굳어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땅이 얼어 굳은 것을 말한다.
193) '야속허다'는 사람이 꼼꼼하고 세심한 성질이 있다는 뜻이다.

리전 멧 개 던지곡 허민 잘 때령 드러 허곡. 우리 어릴 때 경 허민 그 사름 둘랑덜 ᄉᆞ뭇 이 인성이고 안성이고 밤새낭 ᄀᆞ치 돌단 집이 오주게. 구경허곡.(걸궁은 마을에 사람들 모두 사뭇 다 걸궁 모자 만들어서 모두 여기 꽃 달리고 북 두드리는 사람 징 두드리는 사람 그걸 빙빙 돌면서 당당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마당에 가서 돌아가면 술도 주고, 돈도 그 받는 사람 있어. 받는 사람들도 돈도 구리전 몇 개 던지고 하면 잘 때려서 들이 하고. 우리 어릴 때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들 사뭇 이 인성이고 안성이고 밤새도록 같이 돌다가 집에 오지. 구경하고.)

110007 @ 아이들. 건 무사 허는 거?(아이들. 그건 왜 하는 거?)

110007 # 몰라. 뭣사산디. 이젠 걸궁도 안 허곡. 아무것도 안 허곡 혹교 아이덜도 자유로 기자이 훈련도 안 시키곡이. 아이고 그땐 위험헤낫어. 아이고 선생덜이 왜 독허는디이 이젠 선생 독헌 거 써먹지 못 헤여.(몰라. 무엇인지. 이젠 걸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아이들도 자유로 그저 훈련도 안 시키고. 아이고 그땐 위험했었어. 아이고 선생들이 왜 독하는지 이젠 선생 독한 거 써먹지 못 해.)

110008 @ 자, 이젠 경찰이 다 잡아가. 입춘에는 뭐 헤?(자, 이젠 경찰이 다 잡아가. 입춘에는 뭐 해?)

110008 # 입춘이엔 헌 건 새해 샛날 돋으민 글 썽 대문에고 올렛문이고 입춘이엔 헌 거 딱 딱 부쪄낫어.(입춘이라고 한 건 새해 새날 돋으면 글 써서 대문에고 올레 문이고 입춘이라고 한 거 딱 딱 붙였었어.)

110008 @ 입춘 뭐옌, 새철드는날이엔 ᄀᆞᆯ아?(입춘 뭐라고, 새철드는날이라고 말해?)

110008 # 응, 새철 들게 뒈민 글 썽 놧당 새철드는날 아제기 새벽이 올레 문 사름은 올레 대문이영 마리 대문들 허영인에 그거 한글로 너베기 이만썩허게시리 너베기 허영 글 썽 딱 딱 부쳔.(응, 새철 들게 되면 글 써서 놨다가 새철드는날 아침 새벽에 '올레' 문, 사람은 '올레' 대문이랑 마루 대문들 해서 그거 한글로 넓이 이만큼씩하게끔 넓이 해서 글 써서 딱 딱 붙였어.)

110008 @ 새철드는날은 ᄂᆞᆷ의 집이 안 가는 건가?(새철드는날은 남의 집에 안 가는 건가?)

110008 # 게. 안 간덴 헤여. 여저 경 허난 그거 아무 집이나 허지 안헨덴 헤라. 경헤도이 공부 꽤나 헌 집이 사름덜은 그런 거 딱딱 공부 꽤나 헌 사름덜.(그렇지. 안 간다고 해. 여자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아무 집이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도 공부 꽤나 한 집에 사람들은 그런 거 딱딱 공부 꽤나 한 사람들.)

110008 @ 옛날도 그런 거 헤나수과?(옛날도 그런 거 했었습니까?)

110008 # 응.(응.)

110008 @ 어렷을 때도?(어렸을 때도?)

110008 # 우리 어릴 땐 ᄉᆞ뭇 그런 집 하. 우리 외삼촌에도 다 ᄉᆞ뭇 엿날 웃대부터 경 글덜 좋고 선생덜 허는디. 미릇 썽인에 오란 아덜덜이 하르방네 집이 딱 딱 부치곡. 우리 외삼촌네가 다 선생.(우리 어릴 땐 사뭇 그런 집 많아. 우리 외삼촌에

도 다 사뭇 옛날 윗대부터 그렇게 글들 좋고 선생들 하는데. 미리 써서 와서 아들들이 할아버지네 집에 딱 딱 붙이고. 우리 외삼촌네가 다 선생.)

110001 @ 정월 초하룻날은 무시거 허민 안 된다 이런 거 엇어?(정월 초하룻날은 무엇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

110001 # 그런 거 헌뎅 헹 못 헌다 정월 초하룻날 멩질 헹 먹엉 그자 놈이나벳긔. 허는 거 엇어. 우리 어린 땐 정월 초하룻날 멩질 끝나민 그자 돌아데니멍 놀젠만 허엿주.(그런 거 한다고 해서 못 한다. 정월 초하룻날 명절 해서 먹어서 그저 남이나밖에. 하는 건 없어. 우리 어릴 때 정월 초하룻날 명절 끝나면 그저 돌아다니면서 놀려고만 했지.)

110001 @ 섣둘그믐날 줌자민 눈썹 흰다 영허는 건?(섣달그믐날 잠자면 눈썹 희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건?)

110001 # 섣둘그믐날 이레 정월에 나민 옷 혜영 입젠 혜영 늙은 어른덜 옷 기지엇으민이 미녕 검정 물들영 저고리께나 허곡 미녕으로 보선, 양말이 어디시니? 보선 멘들곡 경 허민 어멍은 ᄉᆞ뭇 밤새낭 그거 정 헹 허민 ᄉᆞ뭇 그 옷 허민 입어보젠 오득하게 앚앙인에 눵 자민 눈썹 흰다 헤도 눵 자민 눈썹도 안 희여.(섣달그믐날 이리 정월에 나면 옷 해서 입으려고 해서 늙은 어른들 옷 천 없으면 무명 검정 물들여서 저고리감이나 하고 무명으로 버선, 양말이 어디 있니? 버선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사뭇 밤새도록 그거 저렇게 해서 하면 사뭇 그 옷 하면 입어보려고 '오득하게' 앉아서 누워서 자면 눈썹 희게 된다고 해도 누워서 자면 눈썹도 희지 않아.)

110001 @ 어멍 옷 허는 거 보젠 눵 자지 말젠 허는 거라?(어머니 옷 하는 거 보려고 누워서 자지 말라고 하는 거야?)

110001 # 몰라, 무사산디 눵 자민 눈썹 흰덴 허영인에 눵 자도 눈썹 흼이랑마랑.(몰라, 왜인지 누워서 자면 눈썹 희게 된다고 해서 누워서 자도 눈썹 희기는커녕.)

110001 @ 흼이랑마랑.(희기는커녕.)

110001 # 경헤도 머리 질황인에 붉은 댕긴 곱닥허게 붉은 댕기 멩지에 물들영 댕긴 헤주더라.(그래도 머리 길러서 붉은 댕기는 곱게 붉은 댕기 명주에 물들여서 댕기는 해주더라.)

110001 @ 설날 새로 옷 헹 입지멍.(설날 새로 옷 해서 입히면서.)

110001 # 응, 머리 땅 질게 헹 머리 땅 댕기 돌령.(응, 머리 땋아서 길게 해서 머리 땋아서 댕기 돌려서.)

2월

110009 @ 이디도 영등 헙니까? 영등할망 허는 거.(여기도 영등 합니까? 영등할머니 하는 거.)

110009 # 이디 대정은 안 허여. 날로 봥인에 오늘 영등할망 드는 날이여, 오는

날이여 경은 헤도. 안 허여.(여기 대정은 안 해. 날로 봐서 오늘 영등할머니 들어오는 날이다, 오는 날이다 그렇게는 해도. 안 해.)

110009 @ 그때 무신거 허민 안 뒌다 허는 것도 엇어?(그땐 무엇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없어?)

110009 # 엇어. 이제도록 살멍도 영등할망 허는 거 엇어라.(없어. 이제도록 살면서도 영등할머니 하는 거 없더라.)

110009 @ 영등할망은 바당에 뎅기는 사름덜 허는 거난?(영등할머니는 바다에 다니는 사람들 하는 거니까?)

110009 # 응. 바당에 뎅기는 사름만.(응. 바다에 다니는 사람만.)

3월

110011 @ 삼월 때면 한식.(삼월 때면 한식.)

110011 # 엿날에 우리 어린 때 한식 허는 거 아긴 때 살 때 봐난에 세벽이 눗당 보민 한식이엔 헹인에 무시거 허는 거 봐낫주. 역은 후젠 그거 이 제국시절 나난 다 치와부난. 허지 아년. 제국시절에 뭐 일본더레 공출허렌 허영 뭐 밥을 졸바로 먹겔 굴어시냐? 양석 엇언 배고팡덜이 안덕 사름덜 이 대정 다 넘어오란 살아시녜. 덕수 사름덜도 대정골 하영 오란 살아.(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식 하는 거 아기 때 살 때 봐서 새벽에 누었다가 보면 한식이라고 해서 무엇 하는 거 봤었지. 큰 후엔 그거 이 제국시절 나니까 다 치워버리니까. 하지 않았어. 제국시절에 뭐 일본으로 공출하라고 해서 뭐 밥을 제대로 먹게 굴었니? 양식 없어서 배고파서들 안덕 사람들 이 대정 다 넘어와서 살았어. 덕수 사람들도 대정골 많이 와서 살아.)

110012 @ 청명에는 뭐 헤?(청명에는 뭐 해?)

110012 # 청명이엔 헌 건 몰라. 청명이 뭣산디. 청명에도 뭣 아녀, 이 대정더렌. 청명이여 뭣이여 헤도 무시거 허지 안 허더라.(청명이라고 한 건 몰라. 청명이 뭔지. 청명에도 뭐 안 해, 이 대정으론. 청명이다 뭣이다 해도 무엇 하지 않더라.)

110001 @ 아까 할머니 정월에 무시거 헌 덴 골아신디?(아까 할머니 정월에 무엇 한다고 말했는데?)

110001 # 정월에. 정월들엔 어떤 집인 ᄀᆞ시도 허곡 토신제도 허곡.(정월에. 정월엔 어떤 집은 고사도 하고 토신제도 하고.)

110001 @ 건 어떵 허는 거라?(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110001 # ᄀᆞ시엔 헌 건 심방 돌아당 굿허멍 허는 거고. 토신제엔 헌 건 밤이 제관 빌엉 제 지낸 거ᄀᆞ라 토신제엔 허주. 토신에 축 고허곡덜.(고사라고 한 건 무당 데려다가 굿하면서 하는 거고. 토신제라고 한 건 밤에 제관 빌려서 제 지내는 거보고 토신제라고 하지. 토신에 축 고하고들.)

110001 @ 집집마다 허는 거꽈, 그건?(집집마다 하는 겁니까, 그건?)

110001 # 허는 집이 싯곡 안 허는 집이 싯곡.(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고.)

110001 @ 허는 집인.(하는 집은.)

4월

110013 @ 게민 이젠 사월달 뭰예. 사월 초파일.(그러면 이젠 사월 됐어요. 사월 초파일.)

110013 # 초파일도 절간에 가는 사름이 허주. 그냥 이 ᄉᆞ가의 사람들은 뭐 안 혀. 초파일 뒈민 절간에 다 가.(초파일도 절에 가는 사람이 하지. 그냥 이 사가의 사람들은 뭐 안 해. 초파일 되면 절에 다 가.)

110013 @ 할머닌 절간에 안 다녀?(할머니는 절에 안 다녀?)

110013 # 절간에 죽장 뎅겨낫주게.(절에 늘 다녔지.)

110013 @ 게난 초파일날엔 무신거 헙니까? 가민.(그러니까 초파일엔 무엇 합니까? 가면.)

110013 # 초파일날 절간에 강인에 불공허는 거주게. 불공허영 강인에 쏠 상 가곡. 촛대 사곡. 돈 강인에 부처님신듸 올리곡. 쏠도 그 조끗듸 강 놓곡 허영인에. 그 부처님신듼 ᄒᆞ쏠 돈 하영 올리곡. 갓단에 그자 요즘 돈으로 천 원 가치잇게 그자 올령 그자 절만 허당인에 시간 뒈민 불공헤가민 스님 ᄀᆞᆫ는 냥 드러 절만 절만 허당 그냥 믄 허민 밥 먹엉 오곡.(초파일날 절에 가서 불공하는 거지. 불공해서 가서 쌀 사서 가고. 초 사고. 돈 가서 부처님께 올리고. 쌀도 그 곁에 가서 놓고 해서. 그 부처님께 조금 돈 많이 올리고. 갔다가 그저 요즘 돈으로 천 원 가치있게 그저 올려서 그저 절만 하다가 시간 되면 불공해가면 스님 말하는 대로 들이 절만 절만 하다가 그냥 모두 하면 밥 먹어서 오고.)

110013 @ 등 싸고 영은 안 혜?(등 켜고 이렇게는 안 해?)

110013 # 등은 싸주게. 등 쌀 때가 잇어.(등은 켜지. 등 켤 때가 있어.)

110013 @ 초파일날 허는 게 아니고?(초파일 하는 게 아니고?)

110013 # 초파일날.(초파일.)

110013 @ 이젠 초파일날 허는디.(이젠 초파일 하는데.)

110013 # 초파일날 등 싸. 아기 적시덜, 아덜 적시, 손지 적시 다 드랑드랑[194] 싸. 경헌디 우리 아덜에 손지 지집아이가, ᄉᆞ나이가 손지가, ᄉᆞ나이가 울고 지집아이가 어린이집이 가난 보통 독헌 것이 아니라이.(초파일 등 켜. 아기 몫들, 아들 몫, 손자 몫 다 '드랑드랑' 켜. 그런데 우리 아들의 손주 계집아이가, 사내아이 손주가, 사내아이가 울고 계집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니까 보통 독한 것이 아니야.)

110013 @ 응.(응.)

110013 # 그디 어린이집 못살게 굴언 그디 아이덜을. 그거 지네 홍칩이 종네기엔 ᄀᆞᆯ아. 그것이. 아덜은 어진 어진이. 똘은 지네 그 고모덜 닮앙산디사 그렇게 독헹인에 어린이덜 못살게 구난. 어린이집을 시 밧듸 웽겨. 그 선생 ᄯᅳ리민 그까짓신듸 안 가켄 허멍이. ᄂᆞ시 안 가곡 안 가곡 허단 보단 마지막은 강 보난 절간 믿는

194) '드랑드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말한다.

집이라라게.(거기 어린이집 못살게 굴어서 거기 아이들을. 그거 자기네 홍씨 집 종내기라고 말해. 그것이. 아들은 어진 어진이. 딸은 자기네 그 고모들 닮았는지 그렇게 독해서 어린이들 못살게 구니까. 어린이집을 세 군데 옮겨. 그 선생 때리면 그까짓 거에게 안 가겠다고 하면서. 도저히 안 가고 안 가고 하다가 보다가 마지막은 가서 보니까 절 믿는 집이더라.)

110013 @ 아.(아.)

110013 # 그 선생이 스님 각신디 누겐디 허난. 홀 수 엇이 그디 가난에 아기도 그디 절허렌 드러 허곡 허난 아기가 어질언. 경 허난에 나 해년마다 이디서 메누리 적시영 아덜네 적시영 등 싸단에, 야, 이제랑인에 니네 아기덜 돈이랑인에 보내라. 니네 아기 돈으로 등 싸켜 허멍 허난 메누리가 어머니 싸지 맙서, 우리가 이디서 어머니 손지 스뭇 독헤놓난에 집이 허당 보난에 스님네 아주망네 어린이집이 오난 등 이제 작년부터 쌈수다. 어머니 이제랑 설러 붑센 경 허곤테 설러 불언. 게난 아이 막 착현, 지집아이.(그 선생이 스님 색신데 누구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 가니까 아기도 거기 절하라고 들이 하고 하니까 아기가 어질어서. 그러니까 나 해마다 여기서 며느리 몫이랑 아들 몫이랑 등 켜다가, 야, 이제랑 너희 아기들 돈이랑 보내라. 너희 아기 돈으로 등 켜겠다 하면서 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켜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어머니 손주 사뭇 독하니까 집에 하다 보니까 스님네 아주머니네 어린이집에 오니까 등 이제 작년부터 켜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랑 그만두세요라고 하길래 그만둬 버렸어. 그러니까 아이 막 착해졌어, 계집아이.)

110013 @ 초파일날 아기덜 머리 영 까까주곡 헙니께? 건 무사 경 허는 거?(초파일 아기들 머리 이렇게 깎아주고 하잖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

110013 # 게, 좋으렌 까까주는 거주게. 초파일날 어린애들 문드락이 다 가까.(그러게, 좋으라고 깎아주는 거지. 초파일날 어린애들 '문드락이' 다 깎아.)

110013 @ 옛날부터 경 헷지예?(옛날부터 그렇게 했지요?)

110013 # 엿날부터. 우리 어린 때부터.(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110013 @ 여자 아이덜도 박박 밀언예?(여자 아이들도 박박 밀었어요?)

110013 # 응. 어린 때.(응. 어릴 때.)

110013 @ 어린 때.(어릴 때.)

110013 # 스나이덜이나 박박 까끄주. 지집아이덜은이 가끄지 안헤라. 어린 때 우리 어린 때 존갑[195] 땅인에 뒤엔 또시 붉은 댕기 들이곡.(사내 아이들이나 박박 깎지. 계집아이들은 깎지 않더라.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존갑' 땋아서 뒤에 또 붉은 댕기 들이고.)

110013 @ 존갑은 여기 영 허는 거?('존갑'은 여기 이렇게 하는 거?)

110013 # 존갑은 막 땅인에 또 이제 뒤에 땅 이제 뒤에 다민 뒤에렌 댕기 들영 인에 놀멍 들러켜가민 댕기가 폴짝폴짝 ᄀᆞ치 놀곡.('존갑'은 막 땋아서 또 이제 뒤에 땋아서 이제 뒤에 땋으면 뒤로는 댕기 들여서 놀면서 날뛰어 가면 댕기가 폴짝

195) '존갑'은 앞머리를 양쪽으로 가늘게 땋아서 옆으로 둘러서 뒷머리와 합치는 것을 말한다.

폴짝 같이 놀고.)

110014 @ 뭐 사월에 입하, 소만 이런 거 잇인디 그런 때 무신거 허는 거 엇우과?(뭐 사월에 입하, 소만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때 무엇 하는 거 없습니까?)

110014 # 엇어. 이 대정골엔 경 허는 건 엇어. 대정은 그렇게 깨끗허여. 동더렌 잘도 하.(없어. 이 대정골엔 그렇게 하는 건 없어. 대정은 그렇게 깨끗해. 동쪽으로는 아주 많아.)

5월

110015 @ 오월달에는 단오 이신디, 대정골은 단오 안 헌덴 헷지예?(오월에는 단오 있는데, 대정골은 단오 안 한다고 했지요?)

110015 # 단오 안 혀. 그 덕순 단오 허더라.(단오 안 해. 그 덕순 단오 하더라.)

110015 @ 할머니 어렷을 때는?(할머니 어렸을 때는?)

110015 # 안 혀여. 대정골.(안 해, 대정골.)

110015 @ 애기 땐?(아기 땐?)

110015 # 애기 때도 이 대정골엔 우리 집 아닌 놈의 집도 다.(아기 때도 이 대정골엔 우리 집 아닌 남의 집도 다.)

110015 @ 단오 허는 거 안 봐봔?(단오 하는 거 안 봤었어?)

110015 # 응, 덕수 가난에 덕수서 단오 허는 츠리 알앗주.(응, 덕수 가니까 덕수서 단오 하는 차례 알았지.)

110016 @ 하지. 낮이 제일 긴 하지 뒈민 뭐 허는 거 엇어?(하지. 낮이 제일 긴 하지 되면 뭐 하는 거 없어?)

110016 # 엇어.(없어.)

6월

110017 @ 유월에예. 유월에 ᄃᆞᆨ 잡아 먹는 날.(유월에요. 유월에 닭 잡아 먹는 날.)

110017 # 유월 ᄃᆞᆨ 잡아 먹는 날은 대정골도 다 ᄃᆞᆨ은 잡아먹어.(유월 닭 잡아먹는 날은 대정골도 다 닭은 잡아먹어.)

110017 @ 어떵 헹은에 허는 거꽈?(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0017 # 그자 ᄃᆞᆨ 서너 ᄆᆞ리 잡앙들 죽 쒄들 그자 ᄃᆞᆨ 잡앙먹는 날이엔 아무 날은 ᄃᆞᆨ 잡앙 먹는 날이난 말 잘 들으라. ᄃᆞᆨ들 잡앙 주켜.(그저 닭 서너 마리 잡아서들 죽 쒀서들 그저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아무 날은 닭 잡아먹는 날이니까 말 잘 들어라. 닭들 잡아주겠다.)

110017 @ ᄃᆞᆨ은 집이서 다 질르지예?(닭은 집에서 다 기르지요?)

110017 # 아이고, 집이서 바글바글 질롸. 정월 빙에기 놓으난[노난] 바글바글 질르곡. 늦은 빙에기 놀아가고. 맨 ᄃᆞᆨ.(아이고, 집에서 바글바글 길러. 정월 병아리 놓으니까 바글바글 기르고. 늦은 병아리 놀아가고. 맨 닭.)

110017 @ 정월 빙에긴 뭐? 정월에 난 거?(정월 병아린 뭐? 정월에 낳은 거?)

110017 # 응, 정월에 놓으난[노난]. 그것이 유월에 잡아먹기 좋주게, 홁어. 유월 빙에긴 줄앙 잡아먹지 못허곡. 겡 잡앙덜 말 잘 들으민 듹 흔 마리썩 잡앙 주켄 헹 정월 빙에기 다 ᄒᆞ나썩 잡앙 줘. 잡앙 솖앙 먹으렌. 흔 번에 먹지 아녀. 먹지 못 허여. 그 솖아난 물엔 또 죽 쒕인에 먹고.(응, 정월에 놓으니까. 그것이 유월에 잡아먹기 좋지, 굵어. 유월 병아린 잘아서 잡아먹지 못하고. 그래서 잡아서들 말 잘 들으면 닭 한 마리씩 잡아서 주겠다고 해서 정월 병아리 다 하나씩 잡아서 줘. 잡아서 삶아서 먹으라고. 한 번에 먹지 않아. 먹지 못 해. 그 삶았던 물엔 또 죽 쒀서 먹고.)

110017 @ 녹디? 녹두죽? 아니면 그냥 흰죽?(녹두? 녹두죽? 아니면 그냥 흰죽?)

110017 # 그냥 흰죽 그자. 듹 솖아난 물에 이젠이 듹 솖으는디 녹디 놩인에 죽을 쑤민 그렇게 좋덴 헹 막 녹디 씻어나난이. 우리 밧듼 녹디가 간 거 아니. 작년에 갈단에 나가 아프난 녹디 잘 장만 아년 내부난. 그자 털어지고 대고 허연근에 마농 싱그레 박박 메언에 던져둰. 마농 똘네가 싱거선게. 어떠난에 마농 내연에 비니루 걷엉 보난에 그디서 문드린 것이 녹디가 하나썩 난.(그냥 흰죽 그저. 닭 삶았던 물에 이젠 닭 삶는데 녹두 놔서 죽을 쑤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마구 녹두 씻고 나니까. 우리 밭엔 녹두가 간 거 아니. 작년에 갈다가 내가 아프니까 녹두 잘 장만 않고 내버리니까. 그저 떨어지고 대고 해서 마늘 심으러 박박 매어서 던져두고. 마늘 딸네가 심었던데. 어떤지 마늘 내어서 비닐 걷어서 보니까 거기서 떨어뜨린 것이 녹두가 하나씩 났어.)

110017 @ 응.(응.)

110017 # 나난 녹디 삐엉인에 굴갱이로 긁으카 허단에 나 녹디 마농 그르에 갈켄 허난, 아이고, 어머니 아팡허멍 어떵 형 마농 그르에 녹디 갈앙 어떵 장만허쿠광? 허난에 게메이, 제발 치웁서. 먹은 성 버립니다 허난, 아, 이젠 마농 메연에 이젠 그 마농 튿으멍 보난 녹디가 솟암서이. 그디 내부난 도난[196]. 도난 쒀 앚앙 그 밧 전시 나시민 저푸게 날 건디. 도나난 잘도 아까완이.(나니까 녹두 뿌려서 호미로 긁을까 하다가 나 녹두 마늘 그루터기에 갈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파서 하면서 어떻게 해서 마늘 그루터기에 녹두 갈아서 어떻게 장만하겠습니까? 하니까 글쎄, 제발 치우세요. 먹은 '성' 버립니다 하니까, 아, 이젠 마늘 매어서 이젠 그 마늘 뜯으면서 보니까 녹두가 솟고 있어. 거기 내버리니까 '도난'. '도난' 쑤어 앉아서 그 밭 전부 났으면 엄청나게 날 건데. '도나난' 아주 아까워서.)

110017 @ 응.(응.)

110017 # 잘도 아까완에 영양제, 아파도 간에 영양제 뚤 모르게 강 뿌렷주게. 뿌리난 다글다글 좋안에. 어멍, 저 녹디 뿌련? 허난 아니. 녹디 막 좋아선게. 좋으난에 우리 밧듸 저 미깡밧듸 영양제 주단에 두 번이나 줫수다. 경 허여.(아주 아까워서 영양제, 아파도 가서 영양제 딸 모르게 가서 뿌렸지. 뿌리니까 다글다글 좋아서.

196) '도나다'는 곡식을 다 거둔 곳에 씨가 떨어져 저절로 나다는 의미이다.

어머니, 저 녹두 뿌렸어? 하니까 아니. 녹두 아주 좋았던데. 좋으니까 우리 밭에 저 귤밭에 영양제 주다가 두 번이나 줬습니다. 그렇게 해.)

110017 @ 응.(응.)

110017 # 게난 녹디 낭 하나가 이만썩 벌겨져. 게민 이젠 녹디 막 잘 열아십니다 허멍 헤여근에 간 보난 벌써 열안에 더러 익어서라게. 익언 타단에 오란 장만허난 두 뒈라라. 뒛박으로 뒈난 두 뒈난. 이거 뚤네 강인에 양펜으로 흔 뒈썩 주카 허단에, 강은에 흔번 쏠집이 이층이 빙원 서. 그디 강 주사 맞곡 들어봣어. 게난 녹디 살 거? 허난 아이고, 벌써 녹디 나와수과? 그래. 아니 어느젠 강 경 녹디 나와수과? 사쿠다 허연 저울이난이 삼만 칠천 원을 줘. 게난.(그러니까 녹두 나무 하나가 이만큼씩 벌어져. 그러면 이젠 녹두 막 잘 열었습니다 하면서 해서 가서 보니까 벌써 열어서 더러 익었더라. 익어서 따다가 와서 장만하니까 두 되더라. 됫박으로 되니까 두 되니까. 이거 딸네 가서 양편으로 한 되씩 줄까 하다가, 가서 한번 쌀집에 이층이 병원 있어. 거기 가서 주사 맞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녹두 살 거? 하니까 아이고, 벌써 녹두 나왔습니까? 그래. 아니 언젠 가서 그렇게 녹두 나왔습니까? 사겠습니다 해서 재니까 삼만 칠천 원을 줘. 그러니까.)

110017 @ 두 뒈에?(두 되에?)

110017 # 응. 삼만 칠천 원 주난 아이고 이 녹디 얼마나 ᄉᆞ뭇 어려운 거과? 어떵 허난 재기 나수과? 갈앙 이제 안 나실건디 안 나실건디 허난. 녹디 임제가 게 쏠 임제가 경 허난. 아니 이만저만 헹 나 도낫언게 헤연. 아니, 게메 이젠 녹디 안 즉은 안 난. 녹디 얼마나 좋수과? 딕 잡앙 먹는 사름덜 녹디 놩 쑤민 그렇게 보기 좋넨 헴수게 경 허멍. 아, 게난 막 지꺼졍. 다음에 오란에 탄에 얼만 처린 모르곡 강 뒈난 오만 얼만가 주는 거라. 아이고 지꺼졍이.(응. 삼만 칠천 원 주니까 아이고 이 녹두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하니까 재게 났습니까? 갈아서 이제 안 났을 건데 안 났을 건데 하니까. 녹두 임자가 그러게 쌀 임자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만저만 해서 나 '도낫언게' 했어. 아니, 글쎄 이젠 녹두 아직은 안 났어. 녹두 얼마나 좋습니까? 닭 잡아서 먹는 사람들 녹두 놔서 쑤면 그렇게 보기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 그러니까 아주 기뻐서. 다음에 와서 따서 얼마인지 모르고 가서 되니까 오만 얼마인가 주는 거야. 아이고 기뻐서.)

110017 @ 게난?(그러니까?)

110017 # 지꺼졍 이젠 뚤ᄀᆞ라 그거 헤영 두 번첸 허연에 풀고렌도 안 허고 한 번 헤 강 ᄑᆞ난 야 얼마라라게 경 허난, 아이고, 그거 잘헷수다. 니네 주젠 허단에, 에에 우리랑 주곡 안 주곡 이전이 어머니 준 거 넘은해 어머니 준 거 서네 싯수다. 그치룩 허난 세 번첸 허난에 두 뒈가 넘으쿠덴 셋뚤네 며느리 아기 낫젠 허곡 겸사로 ᄋᆞ정강 줘두곡. 경헨에 이젠 네 번체 장만허영 또시.(기뻐서 이젠 딸보고 그거 해서 두 번짼 해서 팔았다고도 않고 한번 해 가서 파니까 야 얼마더라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거 잘했습니다. 너희 주려고 하다가, 에에 우리랑 주고 안 주고 이전에 어머니 준 거 지난해 어머니 준 거 있어서 있습니다. 그처럼 하니까 세 번짼 하

니까 두 되가 넘겠다고 둘째딸의 며느리 아기 낳았다고 하고 겸사로 가져가서 줘두고. 그렇게 해서 이젠 네 번째 장만해서 또.)

110017 @ 나도 주곡.(나도 주고.)

110017 # 네 번첸 장만허영 풀지 안헨에. 동네 사름덜 양재기로 하나썩 줘불엇저게. 줘 두곤 허영 남으난 닐 줘시녜. 겡 어제 강 저거 마지막으로 낭 강 어지려완. 어제 헴시난 동녘집이 사름 ᄀᆞ치 저거 무지러줜게. 시마이[197] 뒈언.(네 번짼 장만해서 팔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양재기로 하나씩 줘버렸어. 줘 두곤 해서 남으니까 널 줬어. 그래서 어제 가서 저거 마지막으로 나무 가서 어지러워서. 어제 하고 있으니까 동녘집의 사람 같이 저거 무질러 줬어. 마무리 됐어.)

110017 @ 아.(아.)

110017 # 게난 아이고, 이제 어는제 갈아수과? 허난 간 거 아니. 어떵 헹마씨? 녹디 갈앗단에 말쩌 타기도 실프고 허난에 그냥 뭇아 불렌 헹 뭇아 놔두난 넘은해다 나시카부덴 허난에 마농 메언에 줄르레 강 보난 그자 그 마농 메어난 고냥으로 덜 하나썩 솟아시쿠테 마농 확 쫄라둰 비니루 걷으난에 하나썩 천 리 하나 만 리 하나 나선게. 경 헷젠 허난 아이고 게메 이젠 녹디 날 철이 아닌디 뭐. 겐 돈 벌언.(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언제 갈았습니까? 하니까 간 거 아니. 어떻게 해서요? 녹두 갈았다가 말째 따기도 싫고 하니까 그냥 '뭇아' 버리라고 해서 '뭇아' 놔두니까 지난해 다 났을까 봐 하니까 마늘 매어서 자르러 가보니까 그저 그 마늘 매었던 구멍으로들 하나씩 솟았길래 마늘 확 잘라두고 비닐 걷으니까 하나씩 천 리 하나 만 리 하나 났더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글쎄 이젠 녹두 날 철이 아닌데 뭐. 그래서 돈 벌었어.)

110018 @ 복날은 무신거 헤?(복날은 무엇 해?)

110018 # 응?(응?)

110018 @ 뭐 초복, 중복, 말복 영 허는 날 이수게?(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하는 날 있잖습니까?)

110018 # 초복, 중복, 말복에도 음석 허영 먹는 사름덜은 허영 먹어. 올힌 남만이 막으난에 꿰 좋넨 헨게 올히 꿰들이 경 좋아. 아이고 나 경 헐 줄 알아시민.(초복, 중복, 말복에도 음식 해서 먹는 사람들은 해서 먹어. 올해는 남쪽만 막으니까 깨 좋겠다고 하던데 올해 깨들이 그렇게 좋아. 아이고 나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110018 @ 뭐 허민 꿰 좋아?(뭐 하면 깨 좋아?)

110018 # 앞이 막앙 남 하늘 막으난 북쪽으로 막지 안헤연에.(앞에 막아서 남쪽 하늘 막으니까 북쪽으로 막지 않아서.)

110018 @ 남 하늘 막은 게 뭐?(남쪽 하늘 막은 게 뭐?)

110018 # 올히 남 막앗저, 북 막앗저, 그런 거. 경 허난 올히 저 알르레 막으난에 꿰 좋은덴 헨게 올히 꿰가 잘도 좋아. 꿰 간 사름덜. 서녁 밧듸 그거 흔 말 주민 꿰 갈컬. 우영팟. 서녁 거. 기냥 내부난 ᄒᆞ레기 돈 헷저.(올해 남쪽 막았다, 북쪽 막

197) '시마이'는 일본어 'しまい'로 '끝, 끝맺음, 치움'의 의미로 쓰인다.

았다, 그런 거. 그러니까 올해 저 아래로 막으니까 깨 좋다고 하던데 올해 깨가 아주 좋아. 깨 간 사람들. 서쪽 밭에 그거 한 말 주면 깨 갈걸. 텃밭, 서녘 거. 그냥 내버리니까 하루는 돈 했어.)

110018 @ 보린 언제 비는 거과? 게난, 오월에, 유월에?(보린 언제 베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월에, 유월에?)

110018 # 오월에 비는 거주. 보리덜 이제 익엉 비엄실 거라, 더러.(오월에 베는 거지. 보리들 이제 익어서 베고 있을 거야, 더러.)

110018 @ 이제사?(이제야?)

110018 # 게.(그러게.)

110018 @ 팔월인디.(팔월인데.)

110018 # 아, 보린 장만헷구나.(아, 보린 장만했구나.)

110018 @ 다 장만헷지.(다 장만했지.)

110018 # 다 장만헤영 개역도 헤서라.(다 장만해서 미숫가루도 했더라.)

110018 @ 게난. 보리 갈아나민 보리 그르에 그다음 무신거?(그러니까. 보리 갈고나면 보리 그루터기에 그다음 무엇?)

110018 # 보리 그르에 조 허곡게. 감저 싱그고.(보리 그루터기에 조 하고. 고구마 심고.)

110018 @ 조 허고 감제 싱그는 건 흔 유월에 허는 거라?(조 하고 고구마 심는 건 한 유월에 하는 거야?)

110018 # 게. 유월에덜 감제 우리 뚤 서너 밧 싱것젠. 작년이 감제 하영 싱건 돈 하영 벌어지난. 작년인 맨날 파민 서귀포서 멧 개 시껑오라 시내서 멧 개 시껑오라 허민 사름 빌멍 시꺼가멍 막 풀아시네. 작년이 난 감제 파는 디 가보도 못 허곡. 보리도 막 서너 밧 싱그고렌. 족은뚤. 우리 셋뚤은 감제 ᄀᆞ튼 거 아녀. 콩 갈곡 깨만 갈고렌.(그러게. 유월에들 고구마 우리 딸 서너 밭 심었다고. 작년에 고구마 많이 심어서 돈 많이 버니까. 작년엔 맨날 파면 서귀포에서 몇 개 실어와라 시내에서 몇 개 실어 와라 하면 사람 빌려서 실어가면서 막 팔았어. 작년에 난 고구마 파는 데 가보지도 못 하고. 보리도 막 서너 밭 심었다고. 막내딸. 우리 둘째딸은 고구마 같은 거 안 해. 콩 갈고 깨만 갈았다고.)

7월

110020 @ 이제 칠월 뒈민예. 칠월 칠석은 뭐 허는 날이꽈?(이제 칠월 되면요. 칠월 칠석은 뭐 하는 날입니까?)

110020 # 칠월 칠석에 절간에덜 간다. 절간에 불공허레.(칠월 칠석에 절에들 간다. 절에 불공하러.)

110020 @ 불공 허레.(불공 들이러.)

110020 # 칠석 불공 막 허느녜. 크게 허메. 이젠 절간에도 안 뎅겨.(칠석 불공 막 하잖아. 크게 해. 이젠 절에도 안 다녀.)

110021 @ 옛날엔 쉐 질를 땐 칠석 때 뭐 아니 백중이구나예. 백중 때.(옛날엔 소 기를 땐 칠석 때 뭐 아니 백중이군요. 백중 때.)

110021 # 백중 때 쉐신듸 강은에 촐 아져당 주곡.(백중 때 소에게 가사 꼴 가져다 주고.)

110021 @ 응.(응.)

110021 # 그디 또시 밧 가는 쉔 몰아당 그날 것 솖앙 멕이곡 혀. 경 허더라.(거기 또 밭 가는 소는 몰아다가 그날 먹이 삶아서 먹이고 해. 그렇게 하더라.)

110021 @ 무신거 솖아?(무엇 삶아?)

110021 # 보리 솖앙.(보리 삶아서.)

110021 @ 보리 솖앙 멕여?(보리 삶아서 먹여?)

110021 # 응. 밧 가는 쉐.(응, 밭 가는 소.)

110021 @ 어디 영 제 지내고 허는 건 엇어?(어디 이렇게 제 지내고 하는 건 없어?)

110021 # 엇어. 겐 백중엔 물 하난에 우리 시아방네 물 흔 열 멧 개 시난에 목장에 강인에 물 촐 지엉 강 물 이레 불르는 소리 어흐 헤가민 임제 소리 들엉이 잘잘잘잘 돌아와. 경 허민 촐 께 풀민 픽픽 던지민 돌아오란덜 드러 먹고 허민 백중에 강인에 시아방이 산으로 강인에 그 목장에 강 뭐 헌덴 헤라마는 어떵사 헤신디. 간 본 디도 엇고.(없어. 그래서 백중엔 말 많으니까 우리 시아버지네 말 한 열 몇 개 있으니까 목장에 가서 말 꼴 지고 가서 말 이리 부르는 소리 어흐 해가면 임자 소리 들어서 잘잘잘잘 돌아와. 그러면 꼴 매끼 풀면 픽픽 던지면 돌아와서들 들이 먹고 하면 백중에 가서 시아버지 산으로 가서 그 목장에 가서 뭐 한다고 하더라마는 어떻게야 했는지. 가서 본 적도 없고.)

110021 @ 백중에 어디 물 맞으레도 갑니께?(백중에 어디 물 맞으러도 가잖습니까?)

110021 # 게, 백중에게 산으로덜 물 맞으레 엿날에이. 엿날에 우리 클 땐 저 서림 물 맞으레 서림 바당에 뎅겻저. 화순 바당에 안 뎅경. 서림[198] 바당이 그렇게 좋아.(그렇지, 백중에 산으로 물 맞으러 옛날에. 옛날에 우리 클 땐 저 서림 물 맞으러 서림 바다에 다녔어. 화순 바다에 안 다녀서. 서림 바다가 그렇게 좋아.)

110021 @ 물 맞으민 뭐가 좋은 건가?(물 맞으면 뭐가 좋은 건가?)

110021 # 뚬띠기, 일 헤나민 뚬띠기 나민 그디 강은에 니네 일 잘헤영 부지런히 허라, 이제 저 백중날은 물 맞으러 가겐 허영은에 우영팟디 사당대죽이엔 헌 거 서. 영 껍데기 벳겨둥 그치멍 물 짜먹는 거. 거 돌곡.(땀띠, 일 하고 나면 땀띠 나면 거기 가서 너희 일 잘해서 부지런히 해라, 이제 저 백중날은 물 맞으러 가자고 해서 텃밭에 사탕수수라고 한 거 있어.)

110021 @ 아.(아.)

110021 # 강냉이 또시 옆에 싱경 강냉이 부리기 솖아근에 ᄋᆞ졍가고. 개역 ᄋᆞ졍

198) '서림'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2리를 말한다.

가고. 경헤근에 부지런히 일허민 개역 헹 주곡. 허영 백중날엔 막 벗들이영 헹 강 막 바닷가에 강 졸바로 먹도 아니허곡 바당에서 몸도 아이 곰곡 장난덜만 허당 와.(강냉이 또 옆에 심어서 강냉이 '부리기' 삶아서 가져가고. 미숫가루 가져가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면 미숫가루 해서 주고. 해서 백중날엔 막 벗들이랑 해서 가서 막 바닷가에 가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바다에서 몸도 안 감고 장난들만 하다가와.)

110021 @ 장난덜만?(장난들만?)

110021 # 더 바당에 강 더 카곡. 물에 아니 앚곡, 그자. 들구 장난만 허멍. 모살밧듸서 이레 돌악 저레 돌악 허당. 물 ᄌᆞ끗듸 가민 잘락 지치민 물러레 들어앚앙 엉치멍덜 그추룩. 서림 물이 막 실루와.(더 바다에 가서 더 타고. 물에 안 앉고, 그저. 마구 장난만 하면서. 모래밭에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하다가. 물 곁에 가면 '잘락' 끼얹고 물에 들어앉아서 언치면서 그렇게. 서림 물이 아주 시려.)

110021 @ 물 맞으민 뭐 신경통에도 좋은다[존다] 뭐 이런 말도 허던데?(물 맞으면 뭐 신경통에도 좋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110021 # 똠띠기 난 것도 싹 들어가. 물에 가근에 산물에 그날은 커 앚곡 어떤 사름은.(땀띠 난 것도 싹 들어가. 물에 가서 산물에 그날은 잠겨 앉고 어떤 사람은.)

110021 @ 물에서 영 떨어지는 물 맞는 거?(물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 맞는 거?)

110021 # 아니.(아니.)

110021 @ 폭포 ᄀᆞ튼 거?(목포 같은 거?)

110021 # 그냥 나는 물에.(그냥 나는 물에.)

110021 @ 커 앚은 거?(잠겨 앉는 거?)

110021 # 응.(응.)

110021 @ 응. 나는 물에 커 앚는 거.(응. 나는 물에 잠겨 앉는 거.)

110021 # 어떤 사름은 똠띠기가 등땡이로 엉덩이ᄁᆞ지 겁나게 나. 경 강 들어앉아.(어떤 사람은 땀띠가 등때기로 엉덩이까지 겁나게 나. 그렇게 가서 들어앉아.)

110021 @ 아니, 사진 ᄀᆞ튼 디 보면 폭포 ᄀᆞ튼 디 물 위에서 떨어지는 디 강은에 앚아근에 물 맞으곡 허던데.(아니, 사진 같은 데 보면 폭포 같은 데 물 위에서 떨어지는 데 가서 앉아서 물 맞고 하던데.)

110021 # 서귀포레사 경 허주.(서귀포로야 그렇게 하지.)

110021 @ 게난.(그러니까.)

110021 # 서귀포레.(서귀포로.)

110021 @ 이딘 그런 거 엇어난?(여긴 그런 거 없었어?)

110021 # 맞앙 좋넨 헤여.(맞아서 좋다고 해.)

110021 @ 게난예?(그러니까요.)

110021 # 경 앚앙들.(그렇게 앉아서들.)

110022 @ 혹시 모래찜질 이런 것도 헤낫수과?(혹시 모래찜질 이런 것도 했었습니까?)

110022 # 이 대정더렌 안 허곡. 이제 신식으로덜 모래찜 헴젠 헤라. 모래 그 주머니에 담앙인에 모레 팡 드러누웡.(이 대정으론 안 하고. 이제 신식으로들 모래찜질 한다고 하더라. 모래 그 주머니에 담아서 모래 파서 드러누워서.)

110022 @ 모래 팡 드러누웡.(모래 파서 드러누워서.)

110022 # 모래 세계[199] 바당 경 허는 디 좋은 디주게. 세계 바당 경헌덴 헹.(모래 사계 바다 그렇게 하는 데 좋은 데지. 사계 바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110022 @ 사계 바당? 화순 바당 말고?(사계 바다? 화순 바다 아니고?)

110022 # 게메, 화순[200] 바당.(그러게, 화순 바다.)

110022 @ 사계 바당은 모래가 엇지 안헤?(사계 바다는 모래가 없지 않아?)

110022 # 엇어. 화순 바당엔.(없어. 화순 바다엔.)

110022 @ 화순 바당에.(화순 바다에.)

110022 # 하강 물 깍에.(하강 물 끄트머리에.)

110024 @ 입추.(입추.)

110024 # 입춘 뒈민게. 글 허는 집인.(입추는 되면. 글 하는 집은.)

110024 @ 입추. 가을 들어가민. 그건 엇어?(입추. 가을 들어가면. 그건 없어?)

110024 # 엇어. 입춘이엔 헹은에 글 썽인에 문마다 한글로 썽인에.(없어. 입춘이라고 해서 글 써서 문마다 한글로 써서.)

110024 @ 그건 입춘이고.(그건 입춘이고.)

110024 # 대문에 딱딱 부쪙.(대문에 딱딱 붙여서.)

8월

110025 @ 팔월 뒈민 이제 벌초 헷수과?(팔월 되면 이제 벌초 했습니까?)

110025 # 벌초들 다 헷주게.(벌초들 다 했지.)

110025 @ 벌초는 어떵 헹은에 허는 거과?(벌초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0025 # 우리 아덜 벌초헹 가노렌 헨게게.(우리 아들 벌초해서 간다고 하더라.)

110025 @ 아, 왓당 갓수과?(아, 왔다가 갔습니까?)

110025 # 응.(응.)

110025 @ 뭐 문중 벌초 뭐 이런 거 따로따로 헤? 집안 벌초 따로 헤?(뭐 문중 벌초 뭐 이런 거 따로따로 해? 집안 벌초 따로 해?)

110025 # 아니, 그냥 지네.(아니, 그냥 자기네.)

110025 @ 혼 번 헹 끝내?(한 번 해서 끝내?)

110025 # 권당덜이영 다 기계 시난 그자 혼밧덜로 밋밋 강인에 벌초덜 허여.(권당들이랑 다 기계 있으니까 그저 한군데로 '밋밋' 가서 벌초들 해.)

110025 @ 여자들은 안 가지예?(여자들은 안 가지요?)

110025 # 여자덜 안 가. 우리 메누리 벌초허레 아니 와. 남자덜이 하난게.(여자

199) '세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200)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를 말한다.

들 안 가. 우리 며느리 벌초하러 안 와. 남자들이 많으니까.)

110025 @ 벌초는 벌초 안 가민 막 벌금도 내고 헙니께?(벌초는 벌초 안 가면 막 벌금도 내고 하잖습니까?)

110025 # 그런 거 안 헤여.(그런 거 안 해.)

110025 @ 남자 하구나.(남자 많구나.)

110025 # 흔 멧 년 우리 아덜은 호미질 안 허난 벌초헐 줄 모르곡 기계도 엇으민 우리 아덜은 멧 년 그 벌초헌 사름덜 밥 사멕연. 어떤 땐 돈도 하영 들어.(한 몇 년 우리 아들은 낫질 안 하니까 벌초할 줄 모르고 기계도 없으면 우리 아들은 몇 년 그 벌초한 사람들 밥 사먹였어. 어떤 땐 돈도 많이 들어.)

110025 @ 그지. 사람이 많은데.(그렇지. 사람이 많은데.)

110025 # 막 하. 경 허난 안 뒈켄 헨 이젠 기계 산 모냥이라. 기계 사난에 그디 저 사촌 아시덜은 농사짓는디 뎅기난 성님, 못 헙니다 허멍 그 기계로 허민 우리 아덜은 그 비어논 거 치움이나 허곡 허는 모냥이라. 게난 그때 다섯 해나 팔월에 점심 사 주는 것이 족은 돈이 안 들어.(아주 많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젠 기계 산 모양이야. 기계 사니까 거기 저 사촌 아우들은 농사짓는데 다니니까 형님, 못합니다 하면서 그 기계로 하면 우리 아들은 그 베어놓은 거 치우기나 하고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때 다섯 해나 팔월에 점심 사 주는 것이 적은 돈이 안 들어.)

110025 @ 맞아.(맞아.)

110025 # 게난 점심도 저 웃드르 고기 ᄑᆞ는 집이 강인에.(그러니까 점심도 저 '웃드르' 고기 파는 집에 가서.)

110025 @ 비싸지.(비싸지.)

110025 # 비싼 걸로만 막.(비싼 걸로만 막.)

110025 @ 쉐고기로.(쇠고기로.)

110025 # 경헹 먹곡 허난 아이고 그거 그디서 사 줭은에 먹는 돈이민 기계 살 걸 헷젠 허멍 나 드러 허난에. ᄒᆞ루기 벌초엔 가노렌 와서라.(그렇게 해서 먹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거기서 사줘서 먹는 돈이면 기계 살걸 했다고 하면서 나 들이 하니까. 하루는 벌초라고 간다고 왔더라.)

110026 @ 팔월멩질 뒈민.(팔월명절 되면.)

110026 # 팔월멩질엔 헐 거주.(팔월명절엔 할 거지.)

110026 @ 멩질 준비허젠 허민 무신거 준비헤여? 특별하게 팔월멩질에 허는 게.(명절 준비하려고 하면 무엇 준비해? 특별하게 팔월명절에 하는 게.)

110026 # 팔월멩질엔 뭐 특별히 허느니?(팔월명절엔 뭐 특별히 하니?)

110026 @ 송편은 팔월멩질에만 헙니까?(송편은 팔월명절에만 합니까?)

110026 # 지네 아방 이시난 팔월, 정월 다 할 테주.(자기네 아버지 있으니까 팔월, 정월 다 할 테지.)

110026 @ 송편, 송편.(송편, 송편.)

110026 # 송편도 허주마는 우리 메누린 ᄌᆞᆫ떡[201] 허여.(송편도 하지마는 우리 며

느리는 ‘준떡’ 해.)

110026 @ 준떡은 어떤 거?(‘준떡’은 어떤 거?)

110026 # 솔벤, 졸벤.(‘솔벤’, 절편.)

110026 @ 솔벤, 졸벤? 그게 준떡?(‘솔벤’, 절편? 그게 ‘준떡’?)

110026 # 응. 이제 침떡 허영이. 그런 거 잘 허주. 그런 건 아녀. 게난 몰라. 이번이 어멍 죽언에 팔월멩질 나오난에 지네 성네 집이서사 헐티사. 아방 죽언에 쳇식게 돌아오난 메누리가 큰메누리가 소상 ᄆᆞ쳔 가는 날은 아방 식게 아시가 허심허연에 그때부턴 우리 메누리가 헤엄주게. 경 허난.(응. 이제 시루떡 해서. 그런 거 잘 하지. 그런 건 안 해. 그리니까 몰라. 이번에 어머니 죽어서 팔월명절 나오니까 자기네 형네 집에서야 할지야. 아버지 죽어서 첫제사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큰며느리가 소상 마쳐서 가는 날은 아버지 제사 아우가 하게 해서 그때부터는 우리 며느리가 하고 있지. 그렇게 하니까.)

110026 @ 예.(예.)

110026 # 그 사람덜 가부난 난 섹일 먹으레 오민 초상을 먹으나 섹일 먹으레 오민 정지서 춤 부엌에 안 간다. 경헤은에 허민, 가부난에 소상 마지막 먹엉 가부난에 우리 메누린 정지 선에 서방은 마루에 시난 형님, 날ᄀᆞ라 아버지 제사허렌 헨게 허멍 허난 뭐 허멍 허난 성님 나가멍 아버지 제사허렌 헨게 허난 내불어. 나가 허커라. 경 안 헤도 나가 허젠 헴서 허멍 헤영.(그 사람들 가버리니까 난 삭제 먹으러 오면 초상을 먹거나 삭제 먹으러 오면 부엌에서 참 부엌에 안 간다. 그렇게 해서 하면, 가버리니까 소상 마지막 먹어서 가버리니까 우리 며느린 부엌 서서 서방은 마루에 있으니까 형님, 나보고 아버지 제사하라고 하던데 하면서 하니까 뭐 하면서 하니까 형님 나가면서 아버지 제사하라고 하던데 하니까 내버려. 내가 하겠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하고 있어 하면서 해.)

110026 @ 응.(응.)

110026 # 마루에서 그 말 들어지곤데 뭔 말고 허난 저 자이ᄀᆞ라 아버지 제사 허렌 허곤데 나가 허켄 헷수다 허난 어떠난 큰메누리가 지네 집이서 재산을 물려 오고렌 헤냐? 작산 재산 마타근에 시아방 아니 식게도 아니 허영인에 아니, 아시ᄀᆞ라 허렌 아시 밧 줘시냐, 뭣 줜에 아시ᄀᆞ라 아방 식게허라 뒈라 ᄀᆞᆯ아시냐?(마루에서 그 말 들리길래 뭔 말인고 하니까 저 재보고 아버지 제사하라고 하길래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어째서 큰며느리가 자기 집에서 재산을 물려왔다고 하더냐? ‘작산’ 재산 맡아서 시아버지 아니 제사도 안 해서 아니, 아우보고 하라고 아시 밭 줬니, 뭐 줘서 아우보고 아버지 제사하라 말라 말했냐?)

110026 @ 응.(응.)

110026 # 내붑서게, 아버지 제사 나 허쿠덴 허영, 아, 집이 섹일이영 드러 헤난 디 그릇 무슨 비더덩첸 안 허주마는 그분들 오랑 먹어난 그릇도 싯곡 헌디 식게 허젠 허난 큰큰헌 궤 그릇 놓은 궤 사오곡 그릇도 문딱 높은 그릇덜, 촛대영 펭풍이

201) ‘준떡’은 잔 떡이라는 의미일 텐데 여기서는 ‘솔벤’, 절편을 가리킨다고 제보자는 설명하고 있다.

영 다 신 걸, 아니 뭘 허젠 이디 펭풍이영 젯상이영 다 시네. 헤낭 뭣허젠 사시닌 내붑서게.(내버리세요, 아버지 제사 내가 하겠다고 해서, 아, 집에 삭제랑 들이 했었는데 그릇 무슨 '비더덩첸' 안 하지마는 그분들 와서 먹었던 그릇도 있고 한데 제사하려고 하니까 크디큰 궤 그릇 놓는 궤 사오고 그릇도 모두 높은 그릇들, 촛대랑 병풍이랑 다 있는 걸, 아니 뭐 하려고 여기 병풍이랑 제상이랑 다 있잖니. 해놓고 뭐 하려고 샀냐고 내버리세요.)

110026 @ 좋은[존] 걸로 허젠 허민.(좋은 걸로 하려고 하면.)

110026 # 경헹 궤에 탁 종간. 아이고 착험도. 놈의 아이 닮지 아녀. 아직이 아방 제사헐 때엔 우터레 먼저 앗을 그릇은 우터레 놓고 말저 음식 담을 것은 밋창더레 씻어놓민 우리 메누리 말이 ○○이 아방 그릇 씻어근에 문딱 다끄민 그레 ᄋᆞ져다놓민 ○○이 아방으로 놩 나 놓민 놓지 못허게 헙니다 허난 무사 허난 말자 앗아논 사발은 문저 밋창에 놓고 문저 앗은 사발은 우터레 놓겐 허멍 저 사름 히어뜩허게 담아놓으민[담아노민] 이거 아삿다 저거 아삿다 헌덴 허멍. 겐디 아들이 착혀.(그래서 궤 탁 잠가서. 아이고 착하기도. 남의 아이 같지 않아. 아직 아버지 제사할 때엔 우로 먼저 가질 그릇은 위로 놓고 말째 음식 담을 것은 밑으로 씻어놓으면 우리 며느리 말이 ○○이 아버지 그릇 씻어서 모두 닦으면 그리 가져다 놓으면 ○○이 아버지가 놔서 나 놓으면 놓지 못하게 합니다 하니까 왜 하니까 말째 가져놓은 사발은 먼저 밑에 놓고 먼저 가져간 사발은 위로 놓자고 하면서 저 사람 '히어뜩하게' 담아놓으면 이거 가졌다 저거 가졌다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아들이 착해.)

110026 @ 게난.(그러니까.)

110026 # 따깡 ᄋᆞ져가도 두불 다끄멍 문딱 말제 앗을 사발은 밋창에 놓고 문저 앗을 것은 숟가락이영 다 사와. 젯상도 큰큰헌 거 세 개 사당 벌이곡.(닦아서 가져가도 두벌 닦으면서 모두 말째 가질 사발은 밑에 놓고 먼저 가질 것은 숟가락이랑 다 사와. 제상도 크디큰 거 세 개 사다가 벌이고.)

110026 @ 엿날에 팔월멩질 때 어디 뭐 달구경 가고 이런 거 헤나수과?(옛날에 팔월명절 때 어디 뭐 달구경 가고 이런 거 했었습니까?)

110026 # 엇어.(없어.)

110026 @ 뭐 강강술래허고 뭐 이런 거 놀레 가고.(뭐 강강술래하고 뭐 이런 거 놀러 가고.)

110026 # 그런 거 동네서 뭐 놀믄 헤여. 팔월멩질날 돌에덜 막.(그런 거 동네서 뭐 놀면 해. 팔월명절날 달에들 막.)

110026 @ 돌 보레 돌 구경 가고.(달 보러 달 구경 가고.)

110026 # 응. 돌 구경은 안 가곡 막 팔월에 메왕덜 소리덜 허곡 놀곡.(응. 달 구경은 안 가고 막 팔월에 모여서들 소리들 하고 놀고.)

110026 @ 아, 밤이?(아, 밤에?)

110026 # 어. 밤이. 경헤시냐? 팔월 덕수서 솟불미, 솟불미 헤낫주게이. 솟불미 헤나난 팔월멩질날 총연습 허영. 모실포 사름덜 노래쟁이덜 오랑덜 노래허곡 헐 거

난 총연습헐 거난에 우리 ○○이 아방이 명질 먹엉 오란에 저 노래쟁이덜 오라근에 덕수서 총연습허여근에 솟불미 아무 날은 시에 강 헌덴 헤겐 솟불미 총연습 허는디 구경 가겐 허난. 난 다른 이디 사름덜이영 놀레 가젠 약속헌디 아이 가켄 허난 안 가근에 진 가곡 난 다른 데 놀앙 오민 기분 좋지 안 허카부덴 안 가켄 허난. 정기 탕 가근에 구경 허단 얼른 와불게게, 와불게게 하도 허곤테 경 헤켄 헤근에.(어. 밤이. 그렇게 했니? 팔월 덕수에서 '솟불미', '솟불미' 했었지. '솟불미' 해서 팔월명절 총연습해서. 모슬포 사람들 노래쟁이들 와서들 노래하고 할 거니까 총연습할 거니까 우리 ○○이 아버지 명절 먹어서 오니까 저 노래쟁이들 와서 덕수에서 총연습해서 '솟불미' 아무 날은 시에 가서 한다고 해서 '솟불미' 총연습하는 데 구경 가자고 하니까. 난 다른 여기 사람들이랑 놀러 가려고 약속했는데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안 가서 자기는 가고 난 다른 데 놀아서 오면 기분 좋지 않을까봐 안 가겠다고 해서.)

110026 @ 응.(응.)

110026 # 그냥 조끗듸 요 집의 사름ᄀᆞ라 나 놀레 가지 못허켄 ᄀᆞᆯ아 도렌 헤둰에 정기 또꼬냥에 탕 가난 덕수 상사에 사름이 이빠이 가서라게. 이빠이 가난 들어갈 데 엇으난 정문으로 들어가난 정문 옆이 톡허게 사고. 또 정문 베겻듸 남자들이 시난에 우리 애기 아방은 남자들이영 산 말 ᄀᆞᆫ는디. 흔 이십 분은 시난에 하르방 메누리가 들어오멍 아버지도 옵데강 허난 어 허난 저 안에 어멍도 와수다 안터레 옵서 허난 기여 허여도 그 아방이 안에 안 간. 안에 안 간에 그디서 이젠 올레서 남자덜이영 산 드러 말 ᄀᆞᆫ는디 나도 오줌 싸레도 안 가곡 그 상사광 집이 새가 멀어.(그냥 곁에 요 집의 사람보고 나 놀러 가지 못하겠다고 말해 달라고 해두고 경운기 뒤에 타서 가니까 덕수 향사에 사람이 가득 갔더라. 가득 가니까 들어갈 데 없으니까 정문으로 들어가니까 정문 옆에 톡하게 서고. 또 정문 바깥에 남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기 아버지는 남자들이랑 서서 말하는데. 한 이십 분은 있으니까 할아버지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버지도 오셨습니까 하니까 어 하니까 저 안에 어머니도 왔습니다 안으로 오세요 하니까 그래 해도 그 아버지 안에 안 갔어. 안에 안 가서 거기서 이젠 '올레'서 남자들이랑 서서 들이 말하는데 나도 오줌 싸러도 안 가고 그 향사랑 집이 사이가 멀어.)

110026 @ 응.(응.)

110026 # 새가 먼 디 이젠 메누리가 옵센 헤도 안 간디 노래헐 사름 이름 올리렌 허난 날ᄀᆞ라 저사름 노래 하나 허커라 허난 안 허쿠다 그디 가난 헐 기분이 안 난 안 허쿠다 허난 게건 가게 정기 탕 기냥 와 불엇는데.(사이가 먼 데 이젠 며느리가 오라고 해도 안 갔는데 노래할 사람 이름 올리라고 하니까 나보고 당신 노래 하나 하려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할 기분이 안 나서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가자 경운기 타서 그냥 와버렸는데.)

110026 @ 무신거 탕 왓어? 정운기?(무엇 타고 왔어? 경운기?)

110026 # 정기 탕.(경운기 타서.)

110026 @ 그거 뭐? 경운기?(그거 뭐? 경운기?)
110026 # 조엥기, 조엥기.(자전거, 자전거.)
110026 @ 조엥기가 뭐?('조엥기'가 뭐?)
110026 # 두 발 조엥기.(두 발 자전거.)
110026 @ 자전거?(자전거?)
110026 # 어. 자전거. 일본말로 조엥기.(어. 자전거. 일본 말로 '조엥기'.)
110026 @ 아.(아.)

9월

110028 @ 구월달에는 뭐 특별하게 허는 거 엇어?(구월에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
110028 # 엇어.(없어.)
110028 @ 음력 구월에.(음력 구월에.)
110028 # 엇어.(없어.)

10월

110029 @ 시월에.(시월에.)
110029 # 시월에 ᄀᆞ슬거 헌 거 잇주게.(시월에 가을걷이 한 거 있지.)
110029 @ ᄀᆞ슬 허는 거 무시거 무시거 헤야 뒈어, 그믄?('ᄀᆞ슬' 하는 거 무엇 무엇 해야 돼, 그러면?)
110029 # 게 산듸도 베곡, 조도 비곡, 콩도 허영 장만허곡. 이제 와랑자랑[202]헐 때주게. 감제도 이제 파 가곡.(그러게 밭벼도 베고, 조도 베고, 콩도 해서 장만하고. 이제 '와랑자랑'할 때지. 고구마도 이제 파 가고.)
110029 @ 제일 바쁜 때네예.(제일 바쁜 때네요.)

11월

110030 @ 게믄 음력 십일월 뒈믄 동지엔 무신거 헙니까?(그러면 음력 십일월 되면 동지엔 무엇 합니까?)
110030 # 동지엔 뭣 헤여? 동지 불공 허는 사름은 허곡. 동지 죽이나 썽 먹고.(동제엔 뭐 해? 동지 불공하는 사람은 하고. 동지 죽이나 쑤어서 먹고.)
110030 @ 죽은 무슨 죽 쒕 먹어?(죽은 무슨 죽 쑤어서 먹어?)
110030 # 풋죽게. 풋죽. 동지 풋죽 허는디.(팥죽. 팥죽. 동지 팥죽 하는데.)
110030 @ 동지 풋죽 썽 먹어?(동지 팥죽 쑤어서 먹어?)
110030 # 절간에도 풋죽 헌다.(절에도 팥죽 한다.)
110030 @ 절간에 안 뎅기는 사람들도 풋죽 썽 먹주예?(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

202) '화랑치랑'은 무척 바빠서 바삐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도 팥죽 쑤어서 먹지요?)

110030 # 게. 다 썽 먹어.(그렇지. 다 쑤어서 먹어.)

110030 @ 무사 풋죽 썽 먹는 거?(왜 팥죽 쑤어서 먹는 거?)

110030 # 몰라. 감기 방법 뭔덴 헹 어떵 헹 겡 풋죽에 보민 그 곤쏠 골아근에 요만썩 즈배기 허영 들이청은에. 절간에도 경 헹 쑨다.(몰라. 감기 '방법'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팥죽에 보면 그 흰쌀 갈아서 요만큼씩 수제비 해서 들이뜨려서. 절에도 그렇게 해서 쑨다.)

110032 @ 동지가 ᄒᆞ꼼 십일월 초순에 들민 뭐 동짓달 초순에 뒈민 뭐 애기동지여 영 허는 말도 이선게마는 그거 무신거꽈?(동지에 조금 십일월 초순에 들면 뭐 동짓달 초순에 되면 뭐 오동지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던데 그거 무엇입니까?)

110032 # 몰라. 애기동지엔 헌 말만 들엇주. 뭣산디. 동지엔 다 풋죽덜 쒀. 가난부제 엇이.(몰라. 오동지라고 한 말만 들었지. 뭔지. 동지엔 다 팥죽들 쒀. 가난 부자 없이.)

110030 @ 동짓둘에 무신 뭐 엿 헹 먹는 날도 싯수과?(동짓달에 무슨 뭐 엿 해서 먹는 날도 있습니까?)

110032 # 엿 헹 먹는 건 아니고 저슬 들면 그자 ᄃᆞᆨ 잡으멍 엿 헤영들 드러 먹고.(엿 해서 먹는 건 아니고 겨울 들면 그저 닭 잡으면서 엿 해서들 들이 먹고.)

110031 @ 엿 허는 날 따로 엇어? 납펭날 이런 말 엇어?(엿 하는 날 따로 없어? 납평날 이런 말 없어?)

110031 # 그런 날은 엇어. 우리 어머니 그자 아덜 하나 그자 동짓둘 나민 정월 비에기 하영 깨왓당 서너니 ᄆᆞ리 잡앙 두말띠기로 엿 허영. 엿 허영 거릴 땐 뚤덜토 한 사발썩 주곡 벡단지에 거령 그자 궤 위에 놔두곡. 아들만 핵교 갓다 오면 먹으렌도 허곡. 게민 우리 족은아시영 나영 나 굽으크메 족은아시 숟구락 가졍강은에 그거 거령 먹고 거령 날 도렌 헤영 먹으멍 ᄒᆞ쏠 문드려 불어이. 경 허민 어멍 어디 강 왓당 문드린 걸로 표시가 뒈엉이. 아이고 매도 맞곡. 아덜은 벡단지에 거려근에 오랑인에 주곡. 우린 그때 거릴 땐 사발에덜 거려 줭 먹어 그걸로 끗. 아들이 뭣산디.(그런 날은 없어. 우리 어머니 그저 아들 하나 그저 동짓달 나면 정월병아리 많이 깨웠다가 서너 마리 잡아서 두말들이로 엿 해서. 엿 해서 뜰 땐 딸들도 한 사발씩 주고 백단지에 떠서 그저 궤 위에 놔두고. 아들만 학교 갔다 오면 먹으라고도 하고. 그러면 우리 작은아우랑 나랑 나 굽을 테니 작은아우 숟가락 가져가서 그거 떠서 먹고 떠서 나를 달라고 해서 먹으면서 조금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어머니 어디 가서 왔다가 떨어뜨린 걸로 표시가 되어서. 아이고 매도 맞고. 아들은 백단지에 떠서 와서 주고. 우린 그때 뜰 땐 사발에 떠 줘서 먹고 그걸로 끝. 아들이 뭔지.)

110031 @ 게메 아들이 뭣산디.(그러게 아들이 뭔지.)

12월

110033 @ 십이월달 뒈민 신구간.(십이월 되면 신구간.)

110033 # 신구간 뒈민 어디 집 빌엉 나갈 사름은 신구간에 나가곡. 신구간에 뭐 토신제여 무신거여. 또시 궂덴 허민 또 나근에 청헤영도 뭣 허곡. 경 헤.(신구간 되면 어디 집 빌려서 나갈 사람은 신구간에 나가고. 신구간에 뭐 토신제다 무엇이다. 또 궂다고 하면 또 나서 청해서도 뭐 하고. 그렇게 해.)

110034 @ 이사 갈 때는 집은 이사 갈 집은 어떵 헹 구혜?(이사 갈 때 집은 이사 갈 집은 어떻게 해서 구해?)

110034 # 이사 갈 때 어떵 헤여? 가민.(이사 갈 때 어떻게 해? 가면.)

110034 @ 집 어디 비어 이신 집 비어 잇인 거 어떵 알아? 지금이사 신문에 다 나주마는.(집 어디 비어 있는 집 비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지금이야 신문에 다 나지마는.)

110034 # 신문에 안 나도 다 알아. 어디 집 비언 싯저. 누구네 집 싯젠 허민 것도 빌엉 가게 뒈민.(신문에 안 나도 다 알아. 어디 집 비어서 있어. 누구네 집 있다고 하면 그것도 빌려서 가게 되면.)

110034 @ 그믄 주로 옛날에도 신구간에 이사 가낫수과?(그러면 주로 옛날에도 신구간에 이사 갔었습니까?)

110034 # 신구간에도 허곡 신구간 아니라도 새 집 짓으민 신구간에 들어가젠 부랴부랴 신구간에 들어가젠 허난. 아이고 저딘 부지런히 집 사고 도비도 헴저, 뭣 헴저 허여도 경 집 엇은 사름이 드물더라게.(신구간에도 하고 신구간 아니라도 새 집 지으면 신구간에 들어가려고 부랴부랴 신구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긴 부지런히 집 사고 도배도 하고 있다, 뭐 한다 해도 그렇게 집 없는 사람이 드물더라.)

110034 @ 옛날에는예?(옛날에는요?)

110034 # 초가집이라도 다 션이.(초가집이라도 다 있어서.)

110035 @ 그민 새 집 헹 갈 때는 무사 이사 갈 때 무신거부터 가져가야 뒌다, 날 뒈민 그날 집 다 안 뒈도 무신거 먼저 갖다 놓으민[노민] 이사허는 거나 마찬가지여 막 영 허던데?(그러면 새 집 해서 갈 때는 왜 이사 갈 때 무엇부터 가져가야 된다, 날 되면 그날 집 다 안 돼도 무엇 먼저 갖다 놓으면 이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막 이렇게 하던데?)

110035 # 경 헌덴 헤도 뭣산디 몰라. 그런 거 가져가는 거 몰라.(그렇게 한다고 해도 뭔지 몰라. 그런 거 가져가는 거 몰라.)

110035 @ 이사 갈 때 젤 먼저 가져가는 거?(이사 갈 때 제 먼저 가져가는 거?)

110035 # 나도 이 집 짓엉 젤 먼저 가져오는 건 몰라. 홈치 집 다 뒈난에 구루마에 잘잘 시껀. 시껀 오라가난 동네 사람덜도 차로 확 시껀 오란.(나도 이 집 지어서 젤 먼저 가져오는 건 몰라. 한꺼번에 집 다 되니까 달구지에 잘잘 실어서. 실어서 와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차로 확 실어서 왔어.)

110035 @ 이디 살기 전에는 어디 살아낫수과?(여기 살기 전에는 어디 살았습니까?)

110035 # 이디 살 땐 저 우녁 질 옆짝이 집이. 이제 추사관 짓어불언.(여기 살 땐 저 우녘 길 옆쪽에 집이. 이제 추사관 지어버렸어.)

110035 @ 아, 추사관 짓은 디?(아, 추사관 지은 데?)

110035 # 겐디 우리 아버지네 집에 살당.(그런데 우리 아버지네 집에 살다가.)

110036 @ 이젠 집들이도 헙니께?(이젠 집들이도 하잖습니까?)

110036 # 응.(응.)

110036 @ 집들이헐 땐 옛날에도 집들이 헹 헹은에 놈의 집 가고 헤낫수과?(집들이할 땐 옛날에도 집들이 해서 해서 남의 집 가고 했었습니까?)

110036 # 집들이 헐 땐 놈덜 집 짓엉 집들이 헴젠 허민 다 강 보곡 헌다게. 게난 우리도 이 집 짓으난 집들이 헴젠 미깡 타레 강 경사로 도새기 잡앙 잡앗주게. 도새기 잡으난 야, ○○이 우리 집들이 허는 디 삼천 원 부지헹 왓어라. 삼천 원.(집들이 할 땐 남들 집 지어서 집들이 한다고 하면 다 가서 보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집 지으니까 집들이 한다고 귤 따러 가서 경사로 돼지 잡아서 잡았지. 돼지 잡으니까 야, ○○이 우리 집들이 하는 데 삼천 원 부조해서 왔더라. 삼천 원.)

110036 @ 놈들은 얼마 헐 때라 그땐?(남들은 얼마 할 때야 그땐?)

110036 # 그때 게도 만 원썩 허고 오천 원썩 헐 때고. 무시걸로 나가켄 헹 우리 하르방 십만 원 담앙 강 주곡 헷저. 조합장 허켄 헹.(그때 그래도 만 원씩 하고 오천 원씩 할 때고. 무엇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십만 원 담아서 가서 주고 했어. 조합장 하겠다고 해서.)

110037 @ 집들이 헐 땐 부주로 돈으로 부주 헷구나예?(집들이 할 땐 부조로 돈으로 부조 했군요?)

110037 # 삼천 원, 삼만 원이라도 홀디.(삼천 원, 삼만 원이라도 할지.)

110037 @ 그 전에는 무신거 헤낫어?(그 전에는 무엇 했었어?)

110037 # 그전에는 떡 다 쏠로도 헤영.(그전에는 떡 다 쌀로도 해서.)

110037 @ 쏠로도 헹 완?(쌀로도 해서 왔어?)

110037 # 우리 동센 쏠 흔 말 아졍오란. 메누리 두 뒈 허곡 지 두 뒈엔 이거 흔 말 아졍 오고렌 허멍 막 우리 집이 오란에 들어오도 안허고 올레에 이문에 오란 드러 울어라게. 무사 울엄디, 무사 울엄디 허난 서방 노름 안 헤시민 엿날에 우리도 이런 집 짓엉, 집 짓은 거 보난 오꼿 광이 난. 막 혼동안 울언. 울지 말렌 헤도 울단 집이 들어오렌 헤도 안 들어오곡 이 문도에서 ᄉᆞ뭇 목이 터지게 울언 그때. 나이 쏠 받은 생각헨 강은에 메누리도 두 뒈 주곡 동세도 두 뒈 먹으렌 그냥 돌렷저, 그냥 돌렷어. 에이그 어느 절에.(우리 동서는 쌀 한 말 가져와서. 며느리 두 되 하고 자기 두 되라고 이거 한 말 가져 왔다고 하면서 막 우리 집에 와서 들어오지도 않고 '올레'에 대문에 와서 들이 울더라. 왜 우냐고, 왜 우냐고 하니까 서방 노름 안 했으면 옛날에 우리도 이런 집 지어서, 집 지은 거 보니까 그만 광이 나서. 막 한동안 울었어. 울지 말라고 해도 울다가 집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이 문 입구에서 사뭇 목이 터지게 울었어 그때. 나 쌀 받은 생각해서 가서 며느리도 두 되

주고 동서도 두 되 먹으라고 그냥 돌렸어, 그냥 돌렸어. 에이구 어느 겨를에.)
110037 @ 집들인 이디 왕 밥 먹어근에 가는 거주예?(집들인 여기 와서 밥 먹어서 가는 거지요?)
110037 # 게.(그렇지.)
110037 @ 뭐 답례품도 헤?(뭐 답례품도 해?)
110037 # 답례품도 주고 또시.(답례품도 주고 또.)
110037 @ 답례품은 무신거 헤?(답례품은 무엇 해?)
110037 # 답례품은 ᄒᆞ다 못헹 슈퍼타일 사나 아무거나.(답례품은 하다 못해서 슈퍼타이를 사거나 아무거나.)
110037 @ 그때도? 이 집 짓을 때도?(그때도? 이 집 지을 때도?)
110037 # 응. 막 이 동네 사름덜이영 하영 오난에 ᄉᆞ뭇 도새기 잡고 헹 헤시네게. 도새기 잡안에 허난.(응. 막 이 동네 사람들이랑 많이 오니까 사뭇 돼지도 잡고 해서 했잖아. 돼지 잡아서 하니까.)
110038 @ 뭐 대한, 소한 영 헐 때 허는 거 이수과?(뭐 대한, 소한 이렇게 할 때 하는 거 있습니까?)
110038 # 대한, 소한 헤도 우린 그런 거 헤본 디도 엇곡.(대한, 소한 해도 우린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110038 @ 헤본 디도 엇곡.(해본 적도 없고.)

11. 놀이

111001 @ 옛날에 할머니 어렷을 때 무신거 허멍 놀아나신고 허는 거 물어볼 거.(옛날에 할머니 어렸을 때 무엇 하면서 놀았는가 하는 거 물어볼 거.)
111001 # 여름에?(여름에?)
111001 @ 아니 어렷을 때.(아니 어렸을 때.)
111001 # 어려신 땐.(어렸을 땐.)
111001 @ 뭐허멍 놀아난? 테레비도 엇고.(뭐하면서 놀았었어? 텔레비젼도 없고.)
111001 # 테레비도 엇고 뭐허멍 노느니게?(텔레비젼도 없고 뭐하면서 노니?)
111001 @ 게난.(그러니까.)
111001 # 어린 땐 기자 뭣사 헤어져신디.(어릴 땐 그저 뭐야 했었는지.)
111001 @ 일만 헤신가?(일만 했는가?)
111001 # 어린 때 ᄒᆞᆫ 일고ᄋᆞ답 술 나도록은 일은 안 헷어.(어릴 때 한 일고여덟 살 나도록은 일은 안 했어.)
111001 @ 게난.(그러니까.)
111001 # 게난 이 열 술 난 후제 이 일본말 통헐 때에 그때에 그자 밧듸 갓다오

라근에 가민 야혹에 가근에 야혹에 강 글 베운 거나벳긔.(그러니까 이 열 살 난 후에 이 일본말 통할 때에 그때 그저 밭에 갔다와서 가면 야학에 가서 야학에 가서 글 배운 거나밖에.)

연

111002 @ 연날리기도 헤난?(연날리기도 했었어?)

111002 # 연?(연?)

111002 @ 연 띄우는 거.(연 띄우는 거.)

111002 # 그런 건 안 허고 여즌 그런 건 안허고 우리 동생 남동생 시민 우리 아버지가 연 멘들앙 이 꼴리 든 연이 아니고 정연이엔 헌 거. 댓가지로 니귀방장허영 그거 허영인에 아버지가 올령인에 저 질레 강인에 올령 오랑인에 우리 오레빈 여술곱 술에 오라근에 이 지둥에 무껑 그거 연 올리는 거 손으로 영영 잡아뎅기렌 허는 거 그자 ᄀᆞ치 그자 올리레 가민 날ᄀᆞ라 이거 영 허렌 헌다게.(그런 건 안 하고 여잔 그런 건 안하고 우리 동생 남동생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연 만들어서 이 꼬리 단 연이 아니고 방패연이라고 한 거. 댓가지로 네모반듯해서 그거 해서 아버지가 올려서 저 길에 가서 올려서 와서 우리 오라비는 예닐곱 살에 와서 이 기둥에 묶어서 그거 연 올리는 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라고 하는 거 그저 같이 그저 올리러 가면 나보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한다.)

111002 @ 예.(예.)

111002 # 연 지치렌 아부진 영 잡아뎅겨. 경헹 영영헹인에 잘 뒈민 그땐 저디 독고동산[203]에 살 때난이 이런 낭서리도 잘 엇곡 허난 오랑은에 지둥에 무꺼. 아버지가 지둥에 무껑 그거 허당인에 우리 오레비가 실프덴 허영인에 헤가민 게민 내불렌 허여근에 허고. 게곡 우리 오레비가 어린 때 또 서당에 ᄒᆞ쏠 뎅기단 국민ᄒᆞ교엔 허연이 그 우리 집 동녁펜이 크게 일본서 오란에 이 대정골 사름이 일본서 오란 돈덜 문딱 제주도 사름들안티 허연 오란 크게 저 독고동산 큰 물 앞이 크게 학굘 짓엇어.(연 날리라고 아버지 이렇게 잡아당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그땐 저기 '독고동산'에 살 때니까 이런 나무도 잘 없고 하니까 와서 기둥에 묶어. 아버지가 기둥에 묶어서 그거 하다가 우리 오라비가 싫다고 해서 해가면 그러면 내버리라고 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오라비가 어릴 때 또 서당에 조금 다니다가 국민학교라고 해서 그 우리 집 동녘 편에 크게 일본서 와서 이 대정골 사람이 일본서 와서 돈들 모두 제주도 사람들에게 해서 와서 크게 저 '독고동산' 큰 물 앞에 크게 학교를 지었어.)

111002 @ 예.(예.)

111002 # 학교 짓으난 구억[204], 신퀭[205], 인넹이[206] 이제 모슬포도 큰 학교 서

203) '독고동산'은 대정읍 인성리의 동산 이름이다.
204) '구억'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를 말한다.
205) '신퀭'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206) '인넹이'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인향동을 말한다.

도 모슬포 사름도 그거 학교 왓더라게. 오민이 게민 우린 학교 발레에 집이 이선에 허민이 아이덜이 놀당이 우리 집이 물 먹으레 막 왕. 아이덜이 막 줄 사멍 물 먹으레 오민 어뜬 땐 나 코삿헌[207] 땐이 물 주고 코삿 안헌 땐 학교 물 엇나, 학교에 물 먹지. 학교에 물 안 먹엄젠 허멍이 학교엔 그땐이 수도가 엇으난.(학교 지으니까 구억, 신평, 인향동 이제 모슬포도 큰 학교 있어도 모슬포 사람들 그거 학교 왔더라. 오면 그러면 우리 학교 앞에 집이 있어서 하면 아이들이 놀다가 우리 집에 물 먹으러 마구 와서. 아이들이 막 줄 서면서 물 먹으러 오면 어떤 땐 나 '코삿헌' 땐 물 주고 '코삿' 안 할 땐 학교 물 없나, 학교의 물 먹지. 학교의 물 안 먹는다고 하면서 학교엔 그땐 수도가 없으니까.)

111002 @ 아.(아.)

111002 # 그 급서.(그 급사.)

111002 @ 예.(예.)

111002 # 그땐 고짓겡이엔 헷어. 급서엔 안헹. 이제사 급서엔 헷주. 고짓겡이. 겡 그 사름이 물 져다근에 뭣에 놓으민[노민] 그 뭐 통에나 하영 놓으민[노민] 허주마는 경 안허민 여름엔 민두룽허민 우린 이제 항에 놔두난이 싱싱허민 하나 아이 빙삭 웃으멍 날 보멍 물 먹으레 오민 막 나라비헹게.(그땐 '고짓겡이'라고 했어. 급사라고 안 해서. 이제야 급사라고 했지. '고짓겡이'. 그래서 그 사람이 물 져다가 뭐에 놓으면 그 뭐 통에나 많이 놓으면 하지마는 그렇게 안 하면 여름에 미지근하면 우린 이제 항아리에 놔두니까 싱싱하면 하나 아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 보면서 물 먹으러 오면 막 줄 서서.)

111002 @ 하하하.(하하하.)

111002 # 겡 나 코삿허민 물 먹으렌 허고 경 안허민 먹지 말렌 허영은에 더런 먹고 더런 아이 먹곡 허민 우리 아부지 어디 강 놀다 오라근에 못먹게 헤가민 아이덜은 시무룩 시무룩 허민 막 날ᄀᆞ라 욕허여. 물 준 거 무슨 물 먹은 거 어떵 허느넨. 아이덜 오랑 물 먹으렌. 경헹 우리 아부지 조름에 도록이 오라근에 물 먹언게. 나도 그 약헤, 쿠세로 어뜬 땐 미왕 안 줫어. 막 나라비허멍이 ᄃᆞ투멍덜이.(그래서 나 '코삿허민' 물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먹지 말라고 해서 더러는 먹고 더러는 안 먹고 하면 우리 아버지 어디 가서 놀다 와서 못 먹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시무룩 시무룩 하면 막 나보고 욕해. 물 준 거 무슨 물 먹은 거 어떻게 하느냐고. 아이들 와서 물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뒤에 '도록이' 와서 물 먹었어. 나도 그 약해, 텃세로 어떤 땐 미워서 안 줬어. 막 줄서면서 다투면서들.)

111002 @ 아. 연은 아까 정연 말고 또 무신 연 이신고?(아. 연은 아까 방패연 말고 또 무슨 연 있는가?)

111002 # 그것ᄀᆞ라 저 게우리, 게우리연이렌.(그것보고 저 가오리, 가오리연이라고.)

111002 @ 꼴리 달린 거?(꼬리 달린 거?)

---

207) '코삿허다'는 무슨 일이 마음에 맞아 흡족하다는 의미이다.

111002 # 것ᄀᆞ라 게우리연이엔 허메.(그것보고 가오리연이라고 해.)

111002 @ 그믄 정연허고 게우리연 두 개가 잇구나예?(그러면 방패연하고 가오리연 두 개가 있군요?)

111002 # 응.(응.)

111004 @ 실에 무신거 멕이고 허지 안허여?(실에 무엇 먹이고 하지 않아?)

111004 # 엿날에 사름덜이 청년덜이 우리 클 땐 그런 시합이 없엇어. 우리보단 믄저 난 사름덜이 대정 그런 연 시합 안 허여. 경헌디 덕순 간 보난 그 연 시합을 헤낫어라. 촌에덜 살멍이. 겐에 그 저 먹돌[208] 닮은 것에 영 혹도 잇더라. 게고 이 먹돌 이거 유리 ᄲᆞᆺ는 것도 잇고.(옛날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리 클 땐 그런 시합이 없었어. 우리보단 먼저 난 사람들이 대정 그런 연 시합 안 해. 그런데 덕수는 가서 보니까 그 연 시합을 했었더라. 촌에들 살면서. 그래서 그 저 '먹돌' 같은 것에 이렇게 확도 있더라. 그리고 이 '먹돌' 이거 유리 빻는 것도 있고.)

111004 @ 응.(응.)

111004 # 그추룩 헤연에 이거 신 처리도 몰르고 헤엿는디 이젠 그디서 그 우리보단 밑에 사름이 말말허단 이젠 이 덕수도 연 올령 연타불도 안허곡 허난 헐 것이 엇덴 허멍이 ᄀᆞᆯ으멍 헤라게. 허난 연타불 뭣인곤 헷주. 우린 대정골선 연타불 연 쌉는 거 본 디 엇언. 경 허난 그디 나술이 먹은 송칩이 어른이 당신네 클 때에 연 헤영 올리민 연 허영 올리민 다른 사름이영 그 연줄에 ᄀᆞ치 강 허영 그창 나가는 것이 지는 거.(그처럼 해서 이거 있는 차례도 모르고 했었는데 이젠 거기서 그 우리보단 밑에 사람이 말말하다가 이젠 이 덕수도 연 올려서 연싸움도 안 하고 하니까 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하더라. 하니까 연싸움이 무엇인가 했지. 우린 대정골에선 연싸움 연 싸우는 거 본 적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 나이 먹은 송씨 집 어른이 당신네 클 때에 연 해서 올리면 연 해서 올리면 다른 사람이랑 그 연줄에 같이 가서 해서 잘라서 나가는 것이 지는 거.)

111004 @ 응.(응.)

111006 # 경 허난, 아, 경 허는 거로구나 허여신디. 내가 갑자기 아판에 막 ᄆᆞᆯ란 일을 못허게 뒈난 우리 친정 아부지가 인숨을 ᄒᆞᆫ 멧 불리 영 헌 거 가졍완. 이거 저 무시걸로 ᄀᆞᆯ아근에 ᄀᆞᆯ리 붓앙인에 흰죽에도 탕 먹곡 허라. 나 뚤 어뜨난 경 막 힘이 엇엄시닌 허멍 허난 그거 ᄲᆞᆺ을 디가 없어.(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했는데. 내가 갑자기 아파서 막 말라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인삼을 한 몇 뿌리 이렇게 한 거 가져왔어. 이거 저 무얼로 갈아서 가루 빻아서 흰죽에도 타서 먹고 해라. 내 딸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막 힘이 없어지느냐고 하면서 하니까 그거 빻을 데가 없어.)

111006 @ 응.(응.)

111006 # 경 허난 말말허단 날보단 ᄒᆞᆫ 술 우잇 사름이 이서. 뚤이 살림 안 사는 뚤이 그 할망네 그 하르방네 집이 오란. 야 우리 아부지네 집이 엿날이 유리 ᄲᆞᆺ아

208)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이다.

난 거 잇젠. 간 보난 이런 디 그 먹돌 커다란 것에 혹 이서라게. 게난 그디 아방이 눈이 어두와부난에 앚아두서 이 저 덩드렁, 것ᄀᆞ란 덩드렁이라. 이 덩드렁에 혹은 무시거 허는 거꽈? 꿰 뻣는 거꽝 허난. 아이 꿰 뻣는 거 아니여. 우리 어린 때에 연타불 헐 때에 유리 놩 ᄆᆞᆺ앙.(그렇게 하니까 말말하다 나보다 한 살 위 사람이 있어. 딸이 살림 안 사는 딸이 그 할머니네 그 할아버지네 집에 왔어. 야 우리 아버지네 집이 옛날에 유리 빻았던 거 있다고. 가서 보니까 이런 데 그 먹돌 커다란 것에 확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앉아서 이 저 '덩드렁', 그것보고 '덩드렁'이야. 이 '덩드렁'에 확은 무엇 하는 겁니까? 깨 빻는 겁니까 하니까. 아니 깨 빻는 거 아니야. 우리 어릴 때에 연싸움 할 때에 유리 놔서 마서.)

111006 @ 응.(응.)

111006 # 골리[209] ᄆᆞᆺ앙인에 실에 밥을, 보리밥 헤영 실에 멕영. 그 유릴 또시 ᄀᆞ룰 내영 서껑 연 올리민 어느 연이 그창 나가느닌 겐 연타불 허여난 유리 뻣아난 그 혹이엔.(개미 마서 실에 밥을, 보리밥 해서 실에 먹여서. 그 유리 또 가루 내어서 섞어서 연 올리면 어느 연이 잘라서 나가느냐고 그래서 연싸움 했던 유리 빻았던 그 확이라고.)

111006 @ 아.(아.)

111006 # 거난 이디 저 ᄆᆞᆺ으는 건 엇수덴 허멍 허난 누게사 줏어가신디 몰르켄. 영 ᄉᆞ랑헌 거, 것도 먹돌로 뭔 거 바당에 강 줏어 온디.(그러니까 여기 저 무수는 건 없다고 하면서 하니까 누가 주워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기름한 거, 그것도 '먹돌'로 된 거 바다에 가서 주워 왔는데.)

111006 @ 아.(아.)

111006 # 경 허난 그냥 그디 서도 다른 걸로 그자 돌 봉간 ᄆᆞᆺ안에 골리 뻣안에 아적이 밥 먹기 실프민 그 ᄀᆞ루 째끌락헌 걸로 ᄒᆞ쏠 먹어긴에 물 먹고 허난 아픈 것도 도망가고 힘도 나고 헤라게. 경헤연 그거 연타불 헤난 거 알지. 이 대정 쪽엔 연타불 안 헤여.(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어도 다른 걸로 그저 돌 주워다가 마서 개미 빻아서 아침에 밥 먹기 싫으면 그 가루 조그마한 걸로 조금 먹어서 물 먹고 하니까 아픈 것도 도망가고 힘도 나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거 연싸움 했던 거 알지. 이 대정 쪽엔 연싸움 안 해.)

제기차기

111007 @ 아, 제기차기.(아, 제기차기.)

111007 # 제기차긴 동네서.(제기차긴 동네에서.)

111007 @ 남자아이덜 헙니까?(남자아이들 합니까?)

111007 # 남자아이덜 막 허영 우리 아버지가 제기차기 돈으로 안 헤연에 그 엽전이엔 헌 거. 고냥 뚤라진 거 이서. 가운데 고냥 뚤라지고 옆으론 글 써진 거라.(남자아이들 막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제기차기 돈으로 안 해서 그 엽전이라고 한 거.

209) '골리'는 가루가 되게 빻아 놓은 물건이나 사기나 유리 따위를 빻아 놓은 가루를 말한다.

구멍 뚫린 거 있어. 가운데 구멍 뚫리고 옆으론 글 쓰인 거야.)

111007 @ 예.(예.)

111007 # 엽전 헤여근에 우리 아버진 그런 엽전은 우리 아버지네 집이 이만은 잇더라.(엽전 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엽전은 우리 아버지네 집이 이만큼은 있더라.)

111007 @ 아.(아.)

111007 # 뭣사 허는 것산디. 거난 그거 이제 종이에 감앙인에 요디 똑 졸라매민 그딘 ᄀᆞ새로 ᄀᆞ사근에 제기 차는 거 멘들앙이 경헹 주민 우리 오레비 드러 차곡 놈도 또시 하나 멘들앙 줍센 허민 우리 오레비 친구 보민 우리 아버지 쌉지 안헤영인에 착허게 살민 멘들아 주켄 멘들아 주곡 경 헤라게.(뭐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종이에 감아서 요기 꼭 졸라매면 거긴 가위로 잘라서 제기 차는 거 만들어서 그래서 주면 우리 오라비 들이 차고 남도 또 하나 만들어서 주라고 하면 우리 오라비 친구 보면 우리 아버지 싸우지 않고 착하게 살면 만들어 주겠다고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더라.)

111007 @ 하하하.(하하하.)

111010 # 경 아방이 아기덜 그런 멘들아 주는 사름 잘 엇엇어.(그렇게 아버지 아기들 그런 만들어 주는 사람 잘 없었어.)

111010 @ 게난 이제사민 몰르카 옛날에예.(그러니까 이제야면 모를까 옛날에요.)

111010 # 엿날에 잘 멘들아 주는 사름 엇어. 우린 귀헌 오레비난 멘들아 줫주이.(옛날에 잘 만들어 주는 사람 없어. 우린 귀한 오라비니까 만들어 줬지.)

111010 @ 응.(응.)

111010 # 영 가만히 보민이 아기 뭘 허영은에 영 허여주는 사름이 엇은 것 닮아, 없어이.(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기 뭘 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없어.)

111010 @ 바빤. 일 허젠 허민예.(바빠서. 일 하려고 하면요.)

111010 # 경 우리 오레비 친구덜이 크게 공부헌 사름덜토 엇엉이 게나마나 밧듸 뎅기고이 게나마나 경 헤라게. 우린 우로 오라방 엇어부난 그거 ᄒᆞ나난 영 받앙인에 ᄉᆞ뭇 어린 때도 서당에 돌앙 가고 강인에 더디 오라가민 아버지가 돌레 가곡 벨 거만은 헤라.(그렇게 우리 오라비 친구들이 크게 공부한 사람들도 없어서 그러나저러나 밭에 다니고 그러나저러나 그렇게 하더라. 우린 위로 오라버니 없어버리니까 그거 하나니까 이렇게 받아서 사뭇 어릴 때도 서당에 데리고 가고 가서 더디 와 가면 아버지가 데리러 가고 별 거처럼 하더라.)

자치기

111011 @ 예, 자치기.(예, 자치기.)

111011 # 자치긴 헤여라.(자치긴 하더라.)

111011 @ 건 어떵 헹 허는 거?(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거?)

111011 # 자치긴이 낭 지러기 요만이 헌 거 그창 그창인에 이디 그믓을 긋엇더라.(자치기는 나무 길이 요만큼 한 거 잘라서 잘라서 여기 금을 긋더라.)

111011 @ 응.(응.)

111013 # 땅에. 그믓 긋엉 이디서 이거 이제 영 허민 이걸로 탁 두드렁 저레나, 저레 탁 두들민, 영 탁 두들민 둥둥 떠가민 탁 받으민 그 뭐 표시헌 디 넘어가민 이기는 거더라.(땅에. 금 그어서 여기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로 탁 두드려서 저리나, 저리 탁 두드리면, 이렇게 탁 두드리면 둥둥 떠가면 탁 받으면 그 뭐 표시한 데 넘어가면 이기는 거더라.)

111013 @ 아.(아.)

111013 # 경 혜영인에 그디 넘어가민 그 그믓 넘어가민 그믓 새에 영 재더라. 그.(그렇게 해서 거기 넘어가면 그 금 넘어가면 금 넘어가면 금 사이에 이렇게 재더라. 그.)

111013 @ 아.(아.)

111013 # 그 탁 두드는 낭으로 영 재영 멧 불이민 멧 불 뒛젠 더 멀리 나갓젠 허멍 막 지꺼졍 허고. 경 헤라게 게난 나 그것에 그더지 정신을 안 뒨.(그 탁 두드리는 나무로 이렇게 재어서 몇 발이면 몇 발 됐다고 더 멀리 나갔다고 하면서 막 기뻐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나 그것에 그다지 정신을 안 뒀어.)

111013 @ 예.(예.)

111012 # 우리 오레비 그자 우리 아버지.(우리 오라비 그저 우리 아버지.)

111012 @ 허는 거 봐난예.(하는 거 봤었어요.)

111012 # 이거 때리는 것도 곱게 멘들아 주곡 그 요만은 헹 저 때리는 것도 가시 영 ᄏᆞᆯ이 다듬앙 요 지름은 허여. 요 지름은 허영인에 처암엔 몰란, 우리 오레비도 몰란. 이거 당신네 어린 때 허여난 거엔. 거난 거 오죽 오래 시냐이.(이거 때리는 것도 곱게 만들어 주고 그 요만큼은 해서 저 때리는 것도 다시 이렇게 깨끗이 다듬어서 요 지름은 해. 요 지름은 해서 처음엔 몰랐어. 우리 오라비도 몰랐어. 이거 당신네 어릴 때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오죽 오래 됐니.)

111012@ 거난예.(그러니까요.)

111013 # 그런 거벳긔 안 헤난 말이라, 아버지가. 경 허난 이거 영 허여근에 던지민 이걸로 착 때렁인에 저 그믓 베끗디 가민 이기는 거, 그믓 안네 가민 지는 거.(그런 거밖에 안 했던 말이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던지면 이걸로 착 때려서 저 금 바깥에 가면 이기는 거. 금 안에 가면 지는 거.)

111013 @ 아.(아.)

111013 # 경헹 저디 그믓 긋고 이디 그믓 긋엉 이디 그믓 발로 ᄇᆞᆯ랑.(그렇게 해서 저기 금 긋고 여기 금 그어서 여기 금 발로 밟아서.)

111013 @ 응.(응.)

111013 # 영 그믓 발로 ᄇᆞᆯ랑 픽 던져근에 그거 탁 던지면 저만은 가고. 그것이

자치기.(이렇게 금 발로 밟아서 픽 던져서 그거 탁 던지면 저만큼은 가고. 그것이 자치기.)

111013 @ 그게 자치기예.(그게 자치기요.)

111013 # 응.(응.)

말타기

111015 @ 말타기.(말타기.)

111015 # 물타긴 잘 안 허더라.(말타기는 잘 안 하더라.)

111015 @ 아.(아.)

111015 # 이디 대정골은 물 신 사름이 없엇어.(여기 대정골은 말 있는 사람이 없었어.)

111015 @ 아니 말 타는 거 말고 아이들.(아니 말 타는 거 말고 아이들.)

111015 # 아이들 그런 물 그건 혜여.(아이들 그런 말 그건 해.)

111015 @ 영 굽어근에 우에 영 타는 거.(이렇게 굽어서 위에 이렇게 타는 거.)

111019 # 그거 헌 사름 쟁겸보시 헹 진 사름은 굽으민 그 저 저런 돌에 업더졍 인에 한 사름은 영 시민 이 사름 으지허영 영 굽으민 돌아가멍 피짝허영 그 아이 우리 서너이 탕인에 털어지지 안허민 탄 사름이 이기는디 하나 타곡 둘 탕인에 셋 탈 때엔 널어짐 시작허민 그 사름 다 널어져 불민 지곡 그거. 말타기.(그거 한 사람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은 굽으면 그 저 저런 돌에 엎드려서 한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굽으면 달려가면서 피짝해서 그 아이 우리 서넛 타서 떨어지지 않으면 탄 사람이 이기는 데 하나 타고 둘 타서 셋 탈 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다 무너져 버리면 지고 그거. 말타기.)

111019 @ 하하하. 할머니도 헤난 그거?(하하하. 할머니도 했던 그거?)

111019 # 나 일등이라.(나 일등이야.)

111019 @ 나 일등이라. 하하하.(나 일등이야. 하하하.)

111019 # 저 줄넘기 영 심으민이 돌아가멍 곤작 상 탁 발로 넘어가는 것도 나 일등으로 헤낫저.(저 줄넘기 이렇게 잡으면 달려가면서 물구나무 서서 탁 발로 넘어가는 것도 나 일등으로 했었다.)

구슬치기

111027 @ 남자아이덜 허는 건데 구슬치기.(남자아이들 하는 건데 구슬치기.)

111027 # 그 구슬치긴 안 헤여난. 구슬치긴 안 허고 아이덜 구슬치긴 계속 요 멧 년 전이꼬지 헷어.(그 구슬치긴 안 했었어. 구슬치긴 안 하고 아이들 구슬치긴 계속 요 몇 년 전까지 했어.)

111027 @ 예.(예.)

111027 # 구슬 맞촹인에 그자 다른 디레 들어가나 그거 맞앙 그 놈으 돌로 저레 강 맞이민덜 허곡. 마치젠 허고.(구슬 맞춰서 그저 다른 데로 들어가나 그거 맞아서

그 놈의 돌로 저리 가서 맞으면 하고. 맞히려고 하고.)

딱지치기

111028 @ 딱지치기.(딱지치기.)

111028 # 딱지치기도 우리 오레비 허여. 그자 그땐 이 골련곽이 엇엇어.(딱지치기도 우리 오라비 해. 그저 그땐 이 골판지가 없었어.)

111028 @ 응.(응.)

111028 # 골련곽이 엇엉은에 허영 어떵허영 어디서 무스거 일본서나 무스거 어디 육지서나 오라 나민 그런 거 시민 이 막 뚜껍게 허여. 이젠 골련곽이 천지빗갈인디. 경헤여근에.(골판지가 없어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서 무엇 일본서나 무엇 어디 육지에서나 오고 나면 그런 거 있으면 이 아주 두껍게 해. 이젠 골판지가 '천지빗갈'인데. 그렇게 해서.)

111028 @ 골련곽은 어떤 거?('골련곽'은 어떤 거?)

111028 # 보로[210] 상지게.(폐 상자.)

111028 @ 상자 종이? 상자?(상자 종이? 상자?)

111028 # 상자 이거 이런 거. 상자 이런 거 오기려근에 딱지 멘드는디 전인 이런 거 엇어근에 종이 멧 곱 영 잡앙 경 헤여근에 멘들아. 경 헤여근에 그 착 두들민 뒈싸지민 먹는 거.(상자 이거 이런 거. 상자 이런 거 오그려서 딱지 만드는데 전엔 이런 거 없어서 종이 몇 겹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 착 두드리면 뒤집어지면 먹는 거.)

111028 @ 응.(응.)

111031 # 우리 오레비 우리 아버지가 자꾸 멘들아줘. 그땐 종이도 귀헤엿어.(우리 오라비 우리 아버지가 자꾸 만들어줘. 그땐 종이도 귀했었어.)

111031 @ 맞아, 예.(맞아, 예.)

숨바꼭질

111032 @ 곱을락.(숨바꼭질.)

111032 # 곱을락도 허고.(숨바꼭질도 하고.)

111032 @ 잘 헤낫지예, 할머니예.(잘 했었지요, 할머니요.)

111032 # 잘허곡말곡.(잘하고말고.)

111032 @ 하하. 곱을락은 어떵 헹 허는 거꽈?(하하. 숨바꼭질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1032 # 곱을락은 기자 쟁겸보시 골령인에 진 사름은 영 눈 감앙인에 지둥에라도 영 감앙 하나둘 허영 열 개꼬지 세영 곱아불민 그 사름 촛아사주. 촛아진 사름은 또시 오라, 그 사름이 허고 여라이 촛으민 또 지네들끼리 쟁겸보시 골령 진 사름이 허고.(숨바꼭질은 그저 가위바위보 가려서 진 사람은 이렇게 눈 감아서 기둥에

210) '보로'는 일본어 'ぼろ'로 낡은 것 혹은 고물 등을 말한다.

라도 이렇게 감아서 하나둘 해서 열 개까지 세어서 숨어버리면 그 사람 찾아야지. 찾은 사람은 또 와. 그 사람이 하고 여럿 찾으면 또 자기네들끼리 가위바위보 가려서 진 사람이 하고.)

111033 @ 아. 촞이는 사름ᄀᆞ라 뭐렌 ᄀᆞᆯ아?(아. 찾는 사람보고 뭐라고 말해?)

111033 # 응?(응?)

111033 @ 촞이는 사름ᄀᆞ라. 하나둘셋넷 세근에 곱은 사름 촞는 사름 가인 뭐엔 ᄀᆞᆯ아?(찾는 사람보고. 하나둘셋넷 세서 숨은 사람 찾는 사람 걔는 뭐라고 말해?)

111033 # 뭐엔사 ᄀᆞᆯ아신디 ᄀᆞᆫ지 안헤여, 그런 말은 안 ᄀᆞᆯ앗어.(뭐라고 말했는지 말하지 않아, 그런 말은 안 말했어.)

111034 @ 게민 주로 어디 곱읍니까? 곱을 디도 엇인디.(그러면 주로 어디 숨습니까? 숨을 데도 없는데.)

111034 # 곱을 디 어디 시니? 굴묵에도 강 곱고 어디 구들 트멍에도 강인에 솔짝 들어가는 체허곡. 눌 눌주게.(숨을 데 어디 있니? '굴묵'에도 가서 숨고 어디 방틈에도 가서 살짝 들어가는 체하고. 가리 가리지.)

111034 @ 예.(예.)

111034 # 마당에 눌이 멧 개. 그런 디로 강은에 곱곡.(마당에 가리가 몇 개. 그런 데로 가서 숨고.)

111034 @ 눌 뒤에?(가리 뒤에?)

111034 # 응. 마당에 눌이 멧 개 눌어.(응. 마당에 가리 몇 개 가려.)

111034 @ 예.(예.)

111034 # 새촐 눌지, 검질 눌지. 그런 거 눌민 그 트멍에도 강 곱곡 이 집 근처에 낭서리 신 집이 잘 엇어. 이젠 영 막 집집마다 낭서리. 가끔 부제칩이 유지낭은 하나썩 이섯어.(꼴가리 가리지, 검불 가리지. 그런 거 가리면 그 틈에도 가서 숨고 이 집 근처에 나무 있는 집이 잘 없어. 이젠 이렇게 막 집집마다 '낭서리'. 가끔 부잣집에 유자나무는 하나씩 있었어.)

111035 @ 유지낭?(유자나무?)

111035 # 응.(응.)

111035 @ 아.(아.)

111035 # 유지 이젠 그땐 유지도 벨거로 알안. 이제도 유지 고뿔에 끌여 먹넨 허영 막 귀허게 생각허여. 이제 유지 저디 우리 밧 저끗듸 사름 창천이 사름네 밧듸 유지낭 큰 거 서. 가을 뒈민 지락지락 연다게. 올앙 어뜬 땐 날 봐지민 삼촌 ᄋᆞ정강은에 솖앙은에 먹읍센 허영 감기에. 게민 나 ᄋᆞ져오민 우리 아이덜은 거 벨 거만이 알아근에 지네 ᄋᆞ정강 솖앙 아이덜 감기 걸리민 주켄 ᄋᆞ져가고.(유자 이젠 그땐 유자도 별것으로 알았어. 이제도 유자 감기에 끓여먹는다고 해서 막 귀하게 생각해. 이제 유자 저기 우리 밭 곁에 사람 창천 사람 밭에 유자나무 큰 거 있어. 가을 되면 주렁주렁 열린다. 열어서 어떤 땐 나 보면 삼촌 가져가서 삶아서 드시라고 해서 감기에. 그러면 나 가져오면 우리 아이들은 그거 별것만큼 알아서 자기네 가

져가서 삶아서 아이들 감기 걸리면 주겠다고 가져가고.)

실뜨기

111036 @ 예, 실뜨기.(예, 실뜨기.)

111036 # 응?(응?)

111036 @ 실로 헤근에 영 헤근에 영 데쓰곡 허는 거.(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고 하는 거.)

111036 # 그런 건 헤엿어.(그런 건 했었어.)

111036 @ 그거 헤낫지예. 그건 어떵 헹 허는 거꽈?(그거 했었지요. 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1036 # 그냥 영 실을 그냥 졸라메어근에 허민 실을 영허지. 영허영 또시 영허영 이 사름이 영허지. 게민 그 사름은 영허영 영허영 또시 영허민 또시 다음은 이 셍끼손가락으로 어떵허고 또시 영 헤난디 이제 잊어불언.(그냥 이렇게 실을 그냥 졸라매어서 하면 실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음은 이 새끼손가락으로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잊어버렸어.)

111036 @ 하하하. 이제 잊어불언예. 여자아이덜이 많이 헤 이거는?(하하하. 이제 잊어버렸어요. 여자아이들이 많이 해, 이거는?)

111036 # 여자아이덜 조용히 많이 허여.(여자아이들 조용히 많이 해.)

111036 @ 실뜨기는?(실뜨기는?)

111036 # 지집아이 저 ᄉᆞ나이덜은 그건 안 허고.(계집아이 저 사내아이들은 그건 안 하고.)

111037 @ 실뜨기 헐 때는 어느 손가락, 어느 손가락 허여.(실뜨기 할 때는 어느 손가락, 어느 손가락 해.)

111037 # 영영 허여, 영 끼엉.(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끼어서.)

111037 @ 이거 엄지손가락.(이거 엄지손가락.)

111037 # 이거.(이거.)

111037 @ 이건 무신 손가락이라?(이건 무슨 손가락이야?)

111037 # 이거ᄀᆞ라. 그 무슨 손가락이엔 헨게 잊어불언.(이거보고. 그 무슨 손가락이라고 하던데 잊어버렸어.)

111037 @ 이거 두 개 손가락으로 주로 해?(이거 두 개 손가락을 주로 해?)

111040 # 응, 두 개 손가락으로 체음에 영 허영 허민 이번은 다른 아이가 또시 욜로 허영 또 말쩬 여러, 요 손가락으로 영허영 끼고 또시 영허영 잘못허민 잘못허영 안 뒈엇젠 허고. 것도 막 허지 못 허는 아이가 하.(응, 두 개 손가락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번은 다른 아이가 또 요리로 해서 또 말째는 여러,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끼고 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잘못해서 안 되었다고 하고. 그것도 막 하지 못 하는 아이가 많아.)

111040 @ 하하하.(하하하.)

111040 # 익숙은 사름 톡 허민 다른 아인 또시 요거 걸려당 또시 어떵 혜영 톡 허민 멧 가달 뒈민 또 일로 걸리메. 일로 걸리곡 헹 어떵 헷당 영 허곡. 익숙언 게 이젠이 것도 이젠 늙어부난 어떻게 사는 것산디.(익숙한 사람 톡 하면 다른 아인 또 요거 걸려다가 또 어떻게 해서 톡 하면 몇 가닥 되면 또 이리로 걸려. 이리로 걸리고 해서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익숙해서 그러게 이젠 그것도 이젠 늙어버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인지.)

공기놀이

111041 @ 공기.(공기.)

111041 # 공긴 잘헤여. 공기 기냥, 그냥 공기 니 저 기냥 허여근에 어떵 혜영 허민 그 공기가 먹엉인에 그냥 영허영인에 손 우이 올령 탁 먹는 공기가 잇곡이 거 멧 가지 공기 영허곡 영허곡 허영 말젠 이제 영 마치곡 또시 영허곡 허멍 공기도 두 가지라낫어.(공긴 잘해. 공기 그냥, 그냥 공기 네 저 그냥 해서 어떻게 해서 하면 그 공기가 먹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손 위에 올려서 탁 먹는 고기가 있고 거 몇 가지 공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말째는 이제 이렇게 맞히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공기도 두 가지였어.)

111041 @ 응.(응.)

111041 # 공긴 일등 헤낫저.(공기는 일등 했었다.)

111041 @ 일등 헤난?(일등 했었어?)

111041 # 응.(응.)

111042 @ 이젠 공기 다섯 개로 헤근에 처음엔 하나씩 잡고, 그다음 두개씩 잡고, 세 개씩 잡고 영허는디 옛날에도 경헨?(이젠 공기 다섯 개로 해서 처음엔 하나씩 잡고, 그다음 두 개씩 잡고, 세 개씩 잡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

111042 # 엿날도 그래. 경혜영 또 마지막은 네 개 놓으민[노민] 탁혜영 그 네 개 ᄋᆞ져. 네 개 ᄋᆞ지민 이번은 이제 탁허게 그 네 개에 탁 올령 손에 놩 탁 털어지지 안헹 먹엉 멧 개 먹는 거.(옛날도 그래.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은 네 개 놓으면 탁해서 그 네 개 가져. 네 개 가지면 이번은 이제 탁하게 그 네 개에 탁 올려서 손에 놔서 탁 떨어지지 않고 먹어서 몇 개 먹는 거.)

111041 @ 공기 그거 돌은 무신걸로 멘들아?(공기 그거 돌은 무엇으로 만들어?)

111041 # 그냥 돌로 이녁냥으로 뭇앙 곱게 멘들아. 다. 드러 돌로. 그거 계속 ᄋᆞ정 뎅기주게.(그냥 돌로 자기대로 마서 곱게 만들어. 다. 들이 돌로. 그거 계속 가져서 다니지.)

111041 @ ᄋᆞ정 뎅겨?(가지고 다녀?)

111042 # 게. 그런 것도 난 선수라나시메. 그냥 솟덕 앚지고 혜영 그런 공기 말고 그자 그 공기 다섯 개로 허여근에 시 개ᄁᆞ지 허영 네 번첸 이젠 네 개 이레 앚

지지. 그거 탁허게시리 영허영 이거 네 개 심으민 그 공기 그것꺼지 허영인에 탁 허영 우터레 올령 아래 털어지지 안헤영 탁 멧 개 먹으민 경 허는 거지. 엿날엔 솟덕 앚졋다, 무시거 헷다.(그러게. 그런 것도 난 선수였었어. 그냥 봇돌 안치고 해서 그런 공기 말고 그저 그 공기 다섯 개로 해서 세 개까지 해서 네 번째 이젠 네 개 이리 앉히지. 그거 탁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거 네 개 잡으면 그 공기 그것까지 해서 탁해서 위로 올려서 아래 떨어지지 않게 탁 몇 개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옛날엔 봇돌 안쳤다, 무엇 했다.)

111042 @ 솟덕 앚지는 건 어떤 거?(봇돌 안치는 건 어떤 거?)

111042 # 솟덕 앚지는 건이 그 공기돌이 세 개. 세 개가 이디 시민 또 하나 영헹 집어당 그 세 개 신 더레 공깃돌 톡 올려두고 톡 놔야.(봇돌 안치는 건 그 공깃돌이 세 개. 세 개가 여기 있으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집어다가 그 세 개 있는 데로 공깃돌 톡 올려두고 톡 놔야.)

111042 @ 아.(아.)

111043 # 경 허영 허고, 그거 여러 가지라낫어. 경헌디 이젠 캄캄헤영 몰르크라.(그렇게 해서 하고, 그거 여러 가지였었어. 그런데 이젠 캄캄해서 모르겠어.)

111043 @ 아.(아.)

111043 # 캄캄헤영. 말쩬 이제 마치고. 공기돌 저디 놩 마치곡 그추룩 허는 거. 말쩨 신식으로 난 건 세 개꺼지 치멍 네 개첸 톡허게 이레 올령 네 개 놩 공깃돌 올령 네 개 영 심엉 그 공기돌 그거꺼지 이젠 또 심엉인에 탁 올령 손등뗑이에 멧 개 올라가민 거 털어지지 안헤영 먹으민 멧 개썩 먹는 거. 그런 거 아울라[211] 다 그래.(캄캄해서. 말쨴 이제 마치고. 공깃돌 저기 놔서 마치고 그처럼 하는 거. 말쨰 신식을 난 건 세 개까지 치면서 네 개쨴 톡하게 이리 올려서 네 개 놔서 공깃돌 올려서 네 개 이렇게 잡아서 그 공깃돌 그거까지 이젠 또 잡아서 탁 올려서 손등에 몇 개 올라가면 그거 떨어지지 않아서 먹으면 몇 개씩 먹는 거. 그런 거 '아울라' 다 그래.)

땅뺏기

111051 @ 예, 땅뺏기, 땅뽑아먹을락.(예, 땅뺏기, 땅뽑아먹기.)

111051 # 그런 건.(그런 건.)

111051 @ 땅따먹기. 그런 거 안 헤봔?(땅따먹기. 그런 거 안 해봤어.)

111051 # 아, 그런 건 이걸로 이걸로 영허영인에 허민 영 쁨으멍 끊어 먹는 거.(아, 그런 건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뼘으면서 잘라 먹는 거.)

111051 @ 응, 땅에서, 바닥에서?(응, 땅에서, 바닥에서?)

111051 # 응, 흑땅에서.(응, 흙땅에서.)

111049 @ 흑땅에서 무신거 돌멩이로?(흙땅에서 무엇 돌멩이로?)

111049 # 아니, 사그마치.(아니, 사금파리.)

211) '아울라'는 '아울러, 마저'의 의미이다.

111049 @ 아, 사그마치로.(아, 사금파리로.)

111049 # 응, 옹기그릇 닮은 걸로 믓앙 곱닥허게.(응, 옹기그릇 같은 걸로 마서 곱게.)

111049 @ 응.(응.)

111049 # 동글락허게이. 하엿튼 이 정도 허게 다 멘들앙 내놔.(동그랗게. 하여튼 이 정도 하게 다 만들어서 내놔.)

111049 @ 건 어디서 가근에 줏엉.(그건 어디서 가서 주워서.)

111049 # 그릇 벌러진 디 강 헹 이녁냥으로 곱게 다헹 이추룩 동글락허게 멘들주게이.(그릇 깨진 데 가서 해서 자기대로 곱게 다해서 이처럼 동그랗게 만들지.)

111049 @ 응.(응.)

111051 # 요추룩 동글락허게 멘들민 착허영은에 그믓 타민 안 뒈는 거고.(요처럼 동그랗게 만들면 착해서 금 타면 안 되는 거고.)

111051 @ 응.(응.)

111051 # 그믓 안 타민 또시 그 아이 허곡 또 그 아이 허곡 허당 막 돌아오민 이젠 그 이것이 그 아이 돌을 착 허영 그 아이 돌을 맞앙 저레 나가민 그 땅 쁨으로 쁨아먹어. 그 땅을. 그추룩.(금 안 타면 또 그 아이 하고 또 그 아이 하고 하다가 막 돌아오면 이젠 그 이것이 그 아이 돌을 착 해서 그 아이 돌을 맞아서 저리 나가면 그 땅 뼘으로 뼘어서 먹어. 그처럼.)

윷놀이

111058 @ 응. 윳놀이.(응, 윷놀이.)

111058 # 윳놀인게 그 윳 영 놩인에 허는 거.(윳놀이야 그 윳 이렇게 놔서 하는 거.)

111058 @ 그건 남자덜 저 넉둥베기 허는 거 말고 아이덜은 안 헷수과?(그건 남자들 저 넉둥치기 하는 거 말고 아이들은 안 했습니까?)

111058 # 넉둥베기 허는 거. 이젠 넉둥베기, 넉둥베기. 그땐 윳놀이라. 윳이엔 허영 윳 놔. 아이덜토 헤엿어.(넉동치기 하는 거. 이젠 넉동치기, 넉동치기. 그땐 윳놀이야. 윳이라고 해서 윷 놔. 아이들도 했어.)

111058 @ 아이덜토 경 쪼끌락헌 윳으로 헤?(아이들도 그렇게 조그만 윷으로 해?)

111058 # 아니. 아이덜토 그 우리 어린 때 아이덜 낭 요만썩허게 허는디 이젠 안 헤여. 아이덜 그 스나이덜은 우리 연걸에 아이덜은 구슬치긴 허더라.(아니. 아이들도 그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나무 요만큼씩하게 하는데 이젠 안 해. 아이들 그 사내아이들은 우리 연배의 아이들은 구슬치긴 하더라.)

111058 @ 응.(응.)

111058 # 그런 구실이 잇더라.(그런 구슬이 있더라.)

111058 @ 예.(예.)

111058 # 시민이 방 기려근에 구슬 그믓 타민 안 뒈곡 그 아이 구슬을 맞쳐근에 먹는 거. 구슬치기.(있으면 방 그려서 구슬 금 타면 안 되고 그 아이 구슬을 맞혀서 먹는 거. 구슬치기.)

팽이치기

111059 @ 팽이치기.(팽이치기.)

111059 # 팽이치긴 남저덜 잘헤.(팽이치긴 남자들 잘해.)

111059 @ 어떵 헹 허는 거마씨? 팽이치긴.(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111059 # 팽인이 우리 아버지 보민이 낭 그창 팽일 멘들아. 팽이 멘들앙 멧 개 멘들앙 우리 아버지가 영 허영 돌려근에 낭께기에 물루레기[212] 줄라메민 톡톡 두드령 잘 돌민 어드레 드러눕지 못허게 잘 돌민 잘 뒌 거 헤영 우리 오레비 드러 마당에서 시겨줭인에. 시겨줘 그런 거. 지집아인 팽이치기 안 헤여. 경 허민 그 팽이가 저 아이도 두들곡 이 아이도 두들민 그 가까이 두들어강인에 그 아이 팽이 둥그리는 디 가근에 이 팽이채로 팍 두들어근에 그 팽이 맞앙 그 팽이가 영영허멍 쓰러졍 이팽이가 안 쓰러지민 먹는 거고. 이 팽이 그것 강 두드러뒁 이것도 자빠지곡 저거 자빠지민 안 먹는 거고.(팽이는 우리 아버지 보면 나무 잘라서 팽이를 만들어. 팽이 만들어서 몇 개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돌려서 나뭇개비에 '물루레기' 줄라매면 톡톡 두드려서 잘 돌면 어디로 드러눕지 못하게 잘 돌면 잘 된 거 해서 우리 오라비 들이 마당에서 시켜줘서. 시켜줘 그런 거. 계집아인 팽이치기 안 해. 그러면 그 팽이가 저 아이도 두드리고 이 아이도 두드리면 그 가까이 두드려서 그 아이 팽이 굴리는 데 가서 이 팽이채로 막 두드려서 그 팽이 맞아서 그 팽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쓰러져서 이 팽이가 안 쓰러지면 먹는 거고. 이 팽이 그것 가사 두드려두고 이것도 자빠지고 저거 자빠지면 안 먹는 거고.)

111063 @ 예. 팽이채는 낭으로 만들지예?(예. 팽이채는 나무로 만들지요?)

111063 # 낭으로 멘들곡.(나무로 만들고.)

111063 @ 앞에는?(앞에는?)

111063 # 낭께기로 만들곡 이디 낭께기 벗어지지 안허게 툭지게 멘들아.(나뭇개비로 만들고 여기 나뭇개비 벗겨지지 않게 턱지게 만들어.)

111063 @ 아.(아.)

111063 # 영영허영 툭지게 멘드앙인에 다른 아이덜은 그냥 어떵헤도 우리 아버진 멘들아줘라게. 아덜이나. 낭께기 겁데기 곱닥이 벳경 요디 툭지게 헤영인에 숫노끼로 이디 무슨 헝겁이라도 허여근에 이디 줄라메엉인에 이만은 질게 헤여.(이렇게 이렇게 해서 턱지게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우리 아버진 만들어줘야. 아들이나. 나뭇개비 껍데기 곱게 벗겨서 요기 턱지게 해서 새끼로 여기 무슨 헝겊이라도 해서 여기 졸라매서 이만큼은 길게 해.)

111063 @ 질게 무신거 허는 건 험벅으로 허는 거?(길게 무엇 하는 건 헝겊으로

212) '물루레기'는 옷을 마르다가 남은 작은 헝겊 조각 따위를 말한다.

하는 거?)

111063 # 응, 험벅으로 허더라. 그거 영 질게 허영인에 우리 아버지가 영 때려봐. 때려봉인에 허민 아들이 이디 앚앙 드러 시겨. 이거 영 착 두들민 저레 들어가민 또 저디 강 착 두들곡 혜영 저 팽이 신 디끄지 다른 디레 가지 못허게시리 저레 가민 또 그레 오곡 허영은에 그레 ᄒᆞ쏠 두들곡 혜영 가까이 오민 너미 씨게 두들민 그거 안 맞일 거난 ᄒᆞ꼼만 두드렁 그 팽이 자빠지게 멘들더라.(응, 헝겊으로 하더라. 그거 이렇게 길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때려봐. 때려봐서 하면 아들이 여기 앉아서 들이 시켜. 이거 이렇게 착 두드리면 저리 들어가면 또 저기 가서 착 두드리고 해서 저 팽이 있는 데까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끔 저리 하면 또 그리 오고 해서 그리 조금 두드리고 해서 가까이 오면 너무 세게 두드리면 그거 안 맞을 거니까 조금만 두드려서 그 팽이 자빠지게 만들더라.)

111065 @ 아. 할머닌 안 혜보고 오레비 허는 것만.(아. 할머닌 안 해보고 오라비 하는 것만.)

111065 # 여즌 안 헤여.(여잔 안 해.)

굴렁쇠

111068 @ 아, 여잔 안 헤여. 굴렁쉐라고예. 그 똥글랑헌 바퀴 같은 거 이런 거 이시민 쉐로 영 잡앙 굴리는 거.(아, 여자는 안 해. 굴렁쇠라고요. 그 동그란 바퀴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쇠로 이렇게 잡아서 굴리는 거.)

111068 # 줄렁기가 아니고 엿날도 좌엥이가 잇더라.('줄렁기'가 아니고 옛날도 자전거가 있더라.)

111068 @ 줭이?('줭이'?)

111068 # 자전차.(자전거.)

111068 @ 응.(응.)

111068 # 그거 이제 살이 털어지고.(그거 이제 살이 떨어지고.)

111068 @ 응.(응.)

111068 # 쒜가 똥글락헌 거 이서.(쇠가 동그란 거 있어.)

111068 @ 예, 예.(예, 예.)

111068 # 게민 그 낭께기 대는 딘 요렇게 요렇게 옴스록허여.(그러면 그 나뭇개비 대는 덴 요렇게 요렇게 움푹해.)

111068 @ 예.(예.)

111068 # 옴스록허민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간 그거 봉가단에 이거 영 혜영 졸졸졸졸 둥그리렌 마당에서 허민 우리 아버지 그 오라방덜 죽어부난 그 아덜을 벨거 다 시겻어.(움푹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그거 주워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졸졸졸졸 굴리라고 마당에서 하면 우리 아버지 그 오라버니들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을 별거 다 시켰어.)

111068 @ 아.(아.)

111068 # 벨거 다 시겻어. 경 허민 졸졸졸 허민 우리 오레비가 최고 잘헤여.(별거 다 시켰어. 그러면 졸졸졸 하면 우리 오라비가 최고 잘해.)

111068 @ 어.(어.)

111068 # 다른 부미덜은 거 멘들아주는 부미 엇더라.(다른 부모들은 그거 만들어주는 부모 없더라.)

111068 @ 게난. 맞아. 어디 셔근에.(그러니까. 맞아. 어디 있어서.)

111068 # 우리 아버진이 막 그걸 ᄉᆞ뭇 벨거만은 알앙이 팽이도 ᄉᆞ뭇 멘들앙 잘 둥그는 걸로 허영 당신이 때려봉 잘 돌민 허곡 안허민 또 손보곡. 연도 정연도 허영인에 꽁지 둘게 허영 연 올려근에 집이 올랑 지둥에 무껑 오레비ᄀᆞ라 영영만 허렌 헤영.(우리 아버지는 막 그걸 사뭇 별거만큼 알아서 팽이도 사뭇 만들어서 잘 구르는 걸로 해서 당신이 때려봐서 잘 돌면 하고 안 하면 또 손보고. 연도 방패연도 해서 꽁지 달게 해서 연 올려서 집에 올라서 기둥에 묶어서 오라비보고 이렇게 이렇게만 하라고 해서.)

111068 @ 예.(예.)

111068 # 어리난 그거 못허민 영 영 허렌 허영 시기고. 벨것만인 아덜을.(어리니까 그거 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고. 별것만큼 아들을.)

깡통차기

111071 @ 깡통차기, 통차기?(깡통차기, 통차기?)

111071 # 그런 건 안 헤봔.(그런 건 안 해봤어.)

111071 @ 그런 건 안 헤봔.(그런 건 안 해봤어.)

삘기치기

111074 @ 삥이치기.(삘기치기.)

111074 # 팽이치긴 그거.(팽이치긴 그거.)

111074 @ 아니 삥이, 삥이.(아니 삘기, 삘기.)

111074 # 삥이?(빌기?)

111074 @ 빵이.(삘기.)

111074 # 팽이주게.(팽이지.)

111074 @ 말고 저 새왓듸.(말고 저 띠밭에.)

111074 # 아, 그거 삥이치긴 헤여.(아, 그거 삘기치긴 해.)

111071 @ 건 어떵 허는 거꽈?(그런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1071 # 새왓듸 가민이 부룩 삥이가 이서이.(띠밭에 가면 배동 삘기가 있어.)

111071 @ 응.(응.)

111071 # 아까 나 저번이 그 밧듸 근처 아이덜이 가근에 ᄉᆞᆼ키바구리로 ᄒᆞ나썩 빠 와.(아까 나 저번에 그 밭에 근처 아이들이 가서 ‘ᄉᆞᆼ키바구리’로 하나씩 빼서 와.)

111071 @ 아, 경 하영?(아, 그렇게 많이?)

111071 # 빠 오민 그 벵이 빠 오민이 꽁지가 요레 아슬아슬 벵이 읏물이 나와.(빼서 오면 그 벨기 빼서 오면 꽁지가 요리 아슬아슬 벨기 여물이 나와.)

111071 @ 응.(응.)

111071 # 나온 건 그렇게 지러기 이만썩 길어. 경헌 걸로 골렁인에 대게 손 뿌른 아인 그거 우선 확확확 뽑앙인에 조락바구리로 반썩, 구덕 족은 걸로 반썩 허여당은에.(나온 건 그렇게 길이 이만큼씩 길어. 그런 걸로 가려서 대게 손 빠른 아이는 그거 우선 확확확 뽑아서 종다래끼로 반씩, 바구니 작은 걸로 반씩 해다가.)

111071 @ 구덕 족은 건 조락바구니?(구덕 작은 건 종다래끼?)

111071 # 응, 조락바구리. 그걸로 반썩 헤여당인에 그 저 벵이치긴이 영 혜영 영 혜영 착허게 놓으민[노민] 이추룩 가돠지멍 허민 먹곡이 그냥 수랑이 논 건 못 먹는 거.(응, 종다래끼. 그걸로 반씩 해다가 그 저 벨기치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착하게 놓으면 이처럼 가둬지면서 하면 먹고 그냥 기름하게 놓은 건 못 먹는 거.)

111071 @ 아.(아.)

111071 # 땅을 멘들아사. 땅 멘들아사. 영 혜영 그 아이 멧 개 내놓곡, 이녁 영 멧 게 내놓으민[내노민] 둘이가 이거 영허영 착허게 돌리민 저디 강인에 ᄂᆞ란히 허민 땅이 엇는 거. 어떵 허영 그거 가돠지는 수가 셔. 경 허민 땅인에 혜영인에 그거 먹는 거.(땅을 만들어야. 땅 만들어야. 이렇게 해서 그 아이 몇 개 내놓고, 자기 이렇게 몇 개 내놓으면 둘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착하게 돌리면 저기 가서 나란히 하면 땅이 없는 거. 어떻게 해서 그거 가둬지는 수가 있어. 그러면 따서 해서 그거 먹는 거.)

111071 @ 아.(아.)

111071 # 경헤영 그레 그믓 긋어ᄋᆞ졍 그레 그, 저레ᄁᆞ지 그믓 긋어가멍 경 허고 벵이 이젠 벨라.(그렇게 해서 그리 금 그어서 그리 그, 저리까지 금 그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벨기 이젠 벌려.)

111071 @ 응.(응.)

111074 # 벨랑인에 이젠 막 놓주게. 놩인에 허민 메역이엔 허멍이 메역 무끈 거엔 혜영인에 저 벵이 삽센 안헹 메역 삽서 허멍 벗덜끼리이.(벌려서 이젠 막 넣지. 넣어서 하면 미역이라고 하면서 미역 묶은 거라고 해서 저 벨기 사라고 않고 미역 사세요 하면서 벗들끼리.)

111074 @ 응.(응.)

111074 # ᄑᆞ는 숭, 이제 사는 숭 믄 그추룩 아이고 얼마꽝 허멍 허영은에 얼마엔 허여근에 우스개로 허영 얼마엔 허민 사쿠덴 허영 아이고 이건 영허고 정허곡.(파는 흉내. 이제 사는 흉내 모두 그처럼. 아이고 얼마입니까 하면서 해서 얼마라고 해서 우스개로 해서 얼마라고 하면 사겠다고 해서 아이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111074 @ 하하하.(하하하.)

111074 # 지러기가 줄르고 뭐 경 허연 뭣이엔 허여도 아이고 지러기 줄르난 싸게 주쿠덴 허멍 허곡이 헉밥도 허곡이.(길이가 짧고 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도 아이고 길이가 짧으니까 싸게 주겠다고 하면서 하고 흙밥도 하고.)

111074 @ 헉밥?(흙밥?)

111074 # 응.(응.)

111074 @ 헉밥은 뭐?(흙밥은 뭐?)

111074 # 헉밥은이 옹기 그릇 사발에 굽자리가 잇주게. 굽에이 돌새기 더꺼앚영 헉 놩인에 밥헷젠 허영인에 헉밥 허영. 아이고 이제 나 우리 우리 집이 누게 제ᄉᆞ우다, 오랑 식게 먹읍센.(흙밥은 옹기 그릇 사발에 굽이 있지. 굽에 돌멩이 덮어서 흙 놔서 밥했다고 해서 흙밥 해서. 아이고 이제 나 우리 우리 집에 누구 제사입니다, 와서 제사 먹으라고.)

111074 @ 하하하.(하하하.)

111074 # 헉밥 헴젠 허영 그런 장난도 허고.(흙밥 한다고 해서 그런 장난도 하고.)

111074 @ 아, 소꿉놀이 이런 거구나예?(아, 소꿉놀이 이런 거군요?)

111074 # 응. 소꿉놀이. 그런 것도 헤나고.(응. 소꿉놀이. 그런 것도 했었고.)

111074 @ 삥이 뽑아근에 먹기도 헤나지 안헤수과?(삘기 뽑아서 먹기도 했었지 않았습니까?)

111074 # 아이고 삥이 먹어. 맛 좋아. 경헹인에 하영 ᄉᆞᆼ키바구리로 하나 헹 오민 어무니넨 드러 일허민 이만인 벨랑인에 어무니 주민 어멍도 먹곡 아방도 먹곡 막 맛 좋아.(아이고 삘기 먹어. 맛 좋아. 그렇게 해서 많이 ‘ᄉᆞᆼ키바구리’로 하나 해서 오면 어머니네는 들이 일하면 이만큼은 벌려서 어머니 주면 어머니도 먹고 아버지도 먹고 막 맛 좋아.)

111074 @ 아이들만 그냥 장난으로 먹는 게 아니고?(아이들만 그냥 장난으로 먹는 게 아니고?)

111074 # 응, 어른덜토 허영은에 영 주민 어무니 먹읍서 허민 그자 혹허게 어무니도 먹곡 아부지도 먹고. 아부지도 마당, 마레에서 무시거 영영허당인에 느네나 먹으라 허민 아버지 잡숴, 잡숴 허멍 허민 받앙인에 아방도 먹고.(응, 어른들도 해서 이렇게 주면 어머니 드세요 하면 그저 혹하게 어머니도 먹고 아버지도 먹고. 아버지도 먹고. 아버지도 마당, 마루에서 무엇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너희나 먹어라 하면 아버지 잡수세요, 잡수세요 하면서 하면 받아서 아버지도 먹고.)

111074 @ 하하하.(하하하.)

111074 # 우스개로 이녁 어멍신듸도 그거 허영인에이 벨랑인에 그걸로 이젠 무껑.(우스개로 자기 어머니에게도 그거 해서 벌려서 그걸로 이젠 묶어서.)

111074 @ 예.(예.)

111074 # 할망 메역 삽서 허영 우스개 허민 우리 뚤 아이고 착허다 메역 헤여왓구나 어멍이 경헤여. 어멍 메역 삽서 허민 나 돈 엇언 아이 사크라 허영 허민이. 아

이고 외상에 주쿠다 허멍 주민 우리 어멍 확 받앙 먹어.(할머니 미역 사세요 해서 우스개 하면 우리 딸 아이고 착하다 미역 해왔구나 어머니 그렇게 해. 어머니 미역 사세요 하면 나 돈 없어서 안 사겠어 해서 하면. 아이고 외상에 주겠습니다 하면서 주면 우리 어머니 확 받아서 먹어.)

111074 @ 하하하.(하하하.)

고무줄놀이

111076 @ 할머니 잘헤난 거 고무줄 놀이.(할머니 잘했던 거 고무줄 놀이.)

111076 # 고무줄 놀이 잘헷저. 피짝[213]피짝피짝.(고무줄 놀이 잘했어. '피짝피짝피짝'.)

111076 @ 영 상 영 잡앙 두 사람이 잡으민.(이렇게 서서 이렇게 잡아서 두 사람 잡으면.)

111076 # 양착으로 탁탁탁탁 허당 이만ᄁᆞ지 노프게도 허곡이 이젠 또시 막 노프게 영 들르민 영 곤작 상 발로 탁 걸렁 일어사근엥 그것도 피짝피짝 그렇게도 헤낫어.(양쪽으로 탁탁탁탁 하다가 이만큼까지 높게 하고 이젠 또 막 높게 이렇게 들면 이렇게 물구나무서서 발로 탁 걸려서 일어서서 그것도 '피짝피짝' 그렇게도 했었어.)

111076 @ 응. 고무줄은.(응. 고무줄은.)

111076 # 또시 고무줄 영 헹 영 심엉 노프민 ᄃᆞᆯ아가다근에 피짝 뜀도 허고.(또 고무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높으면 달려가다가 '피짝' 뛰기도 하고.)

111076 @ 아.(아.)

111076 # 기냥 삿가달[214]로 저만은 강은에 허민 ᄃᆞᆯ아가당 곤작 탁 상 이 발로 확 걸렁 탁 놓민 그추룩도 허고.(그냥 '삿가달'로 저만큼 가서 하면 달려가다가 물구나무 탁 서서 이 발로 확 걸려서 탁 놓으면 그처럼도 하고.)

111076 @ 곤작사는 거허고 삿가달치기허고.(물구나무서는 거 하고 '삿가달치기' 하고.)

111076 # 삿가달치기가 그거주게.('삿가달치기'가 그거지.)

111076 @ 틀린 거, ᄀᆞ뜬 거?(틀린 거, 같은 거?)

111076 # ᄀᆞ뜬 거게.(같은 거.)

111076 @ 삿가달이나 곤작이나?('삿가달'이나 물구나무나?)

111076 # 응. 영 허는 거. 곤작은 우리 이딧 말 삿가달은 일본말이라.(응. 이렇게 하는 거. 물구나무는 우리 여기 말, '삿가달'은 일본말이야.)

111076 @ 아.(아.)

111076 # 그땐 일본말이.(그땐 일본말이.)

111077 @ 노래도 불르멍 허여, 고무줄은?(노래도 부르면서 해, 고무줄은?)

---

213) '피짝'은 가볍고 날렵하게 높이 뛰는 모양. 높은 곳에서 아래로, 또는 장애물을 잽싸게 건너뛰는 모양이다.
214) '삿가달'은 일본어 'さかだち'에서 온 말로 물구나무서기라는 뜻이다.

111077 # 노래 불르멍 허여, 잊어불엇어, 그 노래.(노래 부르면서 해, 잊어버렸어, 그 노래.)

111077 @ 응.(응.)

111077 # 일본말로 허는 거난. 이쯔 데스 간 빵. 체암은 쳇곡벳긔 몰라. 이쯔 데스 강 빵. 뭣이엔 허영 피짝피짝 그 노래 탁 불르민 잘못허당 걸리민 그 노래 문 안 뒈민 죽엉 다른 아이가 허곡.(일본말로 하는 거니까. '이쯔 데쓰 간 빵'. 처음은 첫곡밖에 몰라. '이쯔 데스 강 빵'. 뭐라고 해서 피짝피짝 그 노래 탁 부르면서 잘못하다가 걸리면 그 노래 모두 안 되면 죽어서 다른 아이가 하고.)

줄넘기

111078 @ 응. 줄넘기.(응. 줄넘기.)

111078 # 것이 줄넘기주.(그것이 줄넘기지.)

111078 @ 베뜰락.(줄넘기.)

111078 # 베뜰락.(줄넘기.)

111078 @ 베뜰락은 어떵?(줄넘기는 어떻게?)

111078 # 베뜰락도게.(줄넘기도.)

111078 @ 영 사근에 돌려?(이렇게 서서 돌려?)

111078 # 아니 이녁냥으로 영 뛰어근에 멧 개 뛸락도 허곡 또시 가르쌍 영 허민 또시 그 사름이 이디서 피짝피짝 가운디 사두서 뛰는 수도 잇곡. 또시 이제 마지막으론 이만은 허민 돌아가당인에 피짝 곤작 상인에 넘어오는 수도 싯고.(아니 자기대로 이렇게 뛰어서 몇 개 뛰기도 하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 여기서 '피짝피짝' 가운데 서서 뛰는 수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론 이만큼은 하면 달려가다가 '피짝' 물구나무서서 넘어오는 수도 있고.)

111078 @ 베틀락허는 것도 그런 식으로.(줄넘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111078 # 고무줄뛰기.(고무줄뛰기.)

111078 @ 고무줄허는 게 경 허는 거 아니?(고무줄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

111078 # 응, 고무줄뛰기. 그냥 이디서 가까운 디선 이디서 피짝피짝 뛰당 이젠 막 노프주게. 노프게 영 허영은에 손 들르민이 가달로 어뜬 아인, 우린이 요 정도 들른 건 돌아가다근에 탁허게시리 넘어와지는디, 어뜬 아이덜은 못 넘어. 못 넘으민 그디 오랑인에 줄 심은 디 저디 싯당 돌아오랑 줄 심엉 삿가달로 헹 그거 걸려도 못 걸령인에.(응, 고무줄뛰기. 그냥 여기서 가까운 데선 여기서 '피짝피짝' 뛰다가 이젠 막 높지. 높게 이렇게 해서 손 들면 가랑이로 어떤 아인, 우린 요 정도 든 건 달려가다가 탁하게끔 넘어올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못 넘어. 못 넘으면 거기 와서 줄 잡은 데 저기 있다가 달려와서 줄 잡아서 '삿가달'로 해서 그거 걸려도 못 걸려서.)

111079 @ 할머니 키도 크고 허난 잘헤시크라.(할머니 키도 크고 하니까 잘 했을

거야.)
111079 # 잘헤여. 그런 거 잘헷어. 선수랏주게.(잘해. 그런 거 잘했어. 선수였지.)
111079 @ 선수랏주게예.(선수였지.)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기.(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긴 최고고.(그네뛰긴 최고고.)
111080 @ 그네뛰긴 옛날 말로 무신거엔 ᄀᆞᆯ아?(그네뛰긴 옛날 말로 무엇이라고 말해?)
111080 # 굴메뛰기.('굴메뛰기'.)
111080 @ 굴메뛰기. 어디 저 무껑.('굴메뛰기'. 어디 저 묶어서.)
111080 # ᄒᆞᆨ교에 ᄒᆞᆨ교에 가민 굴메 뛰는 거 두 개 헤영 시민 우리 동네, 저 동네 살 때난 ᄉᆞ뭇 그 동넷 사름은 지네 왕이라. 다른 디 아이덜 오라근에 참여 못헤영 생각허영 주민 뛰어도 뛰도 못헤여.(학교에 학교에 가면 그네 뛰는 거 두 개 해서 있으면 우리 동네, 저 동네 살 때니까 사뭇 그 동네 사람은 자기네가 왕이야. 다른 데 아이들 와서 참여 못 하서 생각해서 주면 뛰어도 뛰지도 못해.)
111080 @ 앚앙 허는 거꽈, 사근에 허는 거꽈?(앉아서 하는 겁니까, 서서 하는 겁니까?)
111080 # 앚지지 안헤영 앚앙도 그 굴메 영 밀리민 왓다 갓다 허곡 상은에 이녁 냥으로 발로 익숙으민 영 허민 영 영허민 저 낭ᄁᆞ지 피짝피짝피짝피짝허여.(앉히지 않고 앉아서도 그 그네 이렇게 밀면 왔다 갔다 하고 서서 자기 발로 익숙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 나무까지 '피짝피짝피짝피짝'해.)
111080 @ 안 ᄆᆞᄉᆞ와?(안 무서워?)
111080 # 안 ᄆᆞᄉᆞ와.(안 무서워.)
111080 @ 하하하.(하하하.)
111080 # 저 낭 지레기ᄁᆞ지 ᄀᆞ찌 강은에 이레 오고 ᄀᆞ찌 강 이레 오고, 나 무섭게 헤낫어.(저 나무 길이까지 같이 가서 이리 오고 같이 가서 이리 오고, 나 무섭게 했었어.)
111080 @ 하하하.(하하하.)
111081 # 경 허난 노래도 ᄂᆞᆷ보단 더 먼저 베우곡이. 저디 활동 사진 구경 강 오랑인에 ᄂᆞᆷ은이 잊어불엉 졸바로 ᄀᆞᆫ도 못행 거꾸로도 ᄀᆞᆯ아도. 아이고 자이 ○○이 잘 ᄀᆞᆫ나, ○○이가 ᄀᆞᆯ으라, ᄀᆞᆯ으라. 아이고 난 잊어불언 뭣이 어떵 헌 디 몰른다. 일허레 강 ᄀᆞᆯ으민 아이고 맞아 경헷어, 경헷어 허멍이. 난 그런 거 잊어불지 안헤져라게.(그러니까 노래도 남보단 더 먼저 배우고. 저기 활동 사진 구경 갔다 와서 남은 잊어버려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해서 거꾸로도 말해도. 아이고 저 아이 ○○이 잘 말한다, ○○이가 말해라, 말해라. 아이고 난 잊어버려서 무엇이 어떻게 한 지 모른다. 일하러 가서 말하면 아이고 맞아 그랬어, 그랬어 하면서. 난 그런 거 잊어버리

지 않더라.)

한다리인다리

111082 @ 흔다리인다리?(‘흔다리인다리’?)

111082 # 흔다리인다리도 허여.(‘흔다리인다리’도 해.)

111082 @ 영 헹은에 발 영 허민 어떵 헤영 허는 거?(이렇게 해서 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하는 거?)

111083 # 흔다리인다리 개천개 주메오전 버문개 허허 장장 고노꼬 따락허민 이거 영.(‘흔다리인다리 개천개 주메오전 버문개 허허 장장 고노꼬 따락’하면 이거 이렇게.)

111083 @ 오글리는 거?(오그리는 거?)

111083 # 응, 오그리는 거.(응, 오그리는 거.)

111083 @ 또 계속 노래 불러서?(또 계속 노래 불러서?)

111083 # 흔개인개 개천개 주메오전 버문개 허허 장장 고노꼬 뚤깍허민 뚤깍허민 오그리는 거.(‘흔개인개 개천개 주메오전 버문개 허허 장장 고노꼬 뚤깍’하면 ‘뚤깍’하면 오그리는 거.)

111084 @ 남은 사름이 이기는 거?(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

111084 # 남은 사름이 지는 거.(남은 사람이 지는 거.)

111084 @ 아, 젤 마지막에 남은 사름이 지는 거.(아,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지는 거.)

111084 # 그것에 노래 맞추당 보민 남은 사름 이서.(그것에 노래 맞추다가 보면 남은 사람 있어.)

111084 @ 아, 젤 남은 사름이 지는 거.(아, 젤 남은 사람이 지는 거.)

111084 # 응.(응.)

111085 @ 그건 여자, 남자아이덜도 허여?(그건 여자, 남자아이들도 해?)

111085 # 남저덜토 허주마는 여저가 잘헤여.(남자들도 하지마는 여자가 잘해.)

111085 @ 건 집이서 앚아근에 허는 거 아니?(그건 집에서 앉아서 하는 거 아니?)

111085 # 앚앙덜 그자 놀당인에 그거 허여. 나 못허는 거 엇어나시녜.(앉아서들 그저 놀다가 그거 해. 나 못하는 거 없었어.)

111085 @ 그거 무신거옌 골아? 그냥 흔다리인다리옌 골아? 무신거 허게 헹.(그거 무엇이라고 말해? 그냥 ‘흔다리인다리’라고 말해? 무엇 하게 해서.)

111085 # 우리 흔다리인다리 허게 헤영은에.(우리 ‘흔다리인다리’ 하게 해서.)

111085 @ 아.(아.)

111085 # 그 그거 그런 노래도 잘 불르지 못허는 사름도 서.(그 그거 그런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111085 @ 맞아.(맞아.)

111085 # 난이 그것도이 놈보단 먼저 초라니[215]ᄀᆞ찌 알아.(난 그것도 남보다 먼저 '초라니'같이 알아.)

111085 @ 초라니ᄀᆞ찌. 하하하.('초라니'같이. 하하하.)

111085 # 우리 아부지가.(우리 아버지가.)

111085 @ 예.(예.)

111085 # 저녈이 ᄌᆞ석 아덜로 나시민 못 헐 것이 엇은디, 엇은디 그렇게 헤낫어.(저놈의 자식 아들로 났으면 못 할 것이 없는데, 없는데 그렇게 했었어.)

111085 @ 예.(예.)

111085 # 저녈이 ᄌᆞ석 흔 ᄌᆞ만 아덜이엔 안헹 흔 ᄌᆞ만 돋앙 나시민 춤말로.(저놈의 자식 한 자만 아들이라고 않고 한자만 돋아서 났으면 참말로.)

111085 @ 흔 자만 돋앙 나시민.(한 자만 돋아서 났으면.)

111085 # 무서운 것이 엇을 건디 똘로 나불엇젠.(무서운 것이 엇을 건데 딸로 나버렸다고.)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옛날엔 애기, 영 애기 가지민.(옛날엔 아기, 이렇게 아기 가지면.)

112001 # 응.(응.)

112001 @ 뭐 애기 가질 때 뭐 허지 말라 허고 영허는 거 이서낫수과?(뭐 아기 가질 때 뭐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습니까?)

112001 # 아기 가질 땐 뭐 허지 말렌은 허는 것이 엇고.(아기 가질 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고.)

112001 @ 응. 아니 이젠 무사 막예 좋은 것만 봐야 뒌다 뭐.(응. 아니 이젠 왜 막요 좋은 것만 봐야 된다 뭐.)

112001 # 아, 옛날도 좋은 거 봐고 궂인.(아, 옛날도 좋은 거 보고 궂은.)

112001 @ 먹을 때도 곤 거 먹어사 뒌다.(먹을 때도 고운 거 먹어야 된다.)

112001 # 옛날에도 경 그것사 좋은[존] 것도 먹곡 좋은[존] 것도 보곡 놈신디레 아기 가진 때 나쁜 소리도 허지 말렌 허곡 나쁜 거 보건, 봐지건 피헤불렌도 허곡 헤낫주게.(옛날에도 그렇게 그것이야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남에게 아기 가진 때 나쁜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고 나쁜 거 보건, 볼 수 있으면 피해버리라고도 하고 했었지.)

112001 @ 응. 지금은 막 노래도 듣고예 막 영허는디 옛날엔 그런 거 못헤실 거 아니예?(응. 지금은 막 노래도 듣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그런 거 못했을 거 아니에요?)

215) '초라니'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물의 하나로, 행동거지가 가볍고 방정맞은 하인이다.

112001 # 노래도 허렌도 안허고 갑자기[깜자기] 아기 밴 것도 엿날엔 부치르왕 처암 곧도 안헷어. 요샌 자기가 아기 배고렌 자랑헤엥 영영 헤도 아기 배고렌 곧도 못헷어.(노래도 하라고 않고 갑자기 아기 밴 것도 옛날엔 부끄러워서 처음 말하지도 않았어. 요샌 자기가 아기 뱄다고 자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아기 뱄다고 말도 못했어.)

112002 @ 애기 가지면 애기 나중에 태어날 때 헐 거 뭐뭐뭐 준비헤야 뒈어?(아기 가지면 아기 나중에 태어날 때 할 거 뭐뭐뭘 준비해야 돼?)

112002 # 뭐뭐 준비허여 아기 옷 입을 거 창옷.(뭐뭐 준비해 아기 옷 입을 거 창옷.)

112002 @ 응.(응.)

112002 # 그거 준비허고 지성귀 준비허고.(그거 준비하고 기저귀 준비하고.)

112002 @ 응.(응.)

112002 # 경 허주게.(그렇게 하지.)

112002 @ 애긴 주로 어디 강 납니까? 이젠 병원 강 나주마는.(아긴 주로 어디 가서 낳습니까? 이젠 병원 가서 나지마는.)

112002 # 아, 건 이녁 집이서 나. 죽으나 사나 나 아기 멧 개 내왓저. 아기 내와 나지 안헌디 새각시, 젊은 때주, 그때. 젊은 땐디 ○○이 할망이 ○○이 셋아시 각시가 아길 가졋어.(아, 건 자기 집에서 낳아. 죽으나 사나 나 아기 몇 개 받았어. 아기 받지 않았는데 새색시, 젊을 때지, 그때. 젊을 땐데 ○○이 할머니 ○○이 둘째아우 색시가 아길 가졌어.)

112002 @ 응.(응.)

112002 # ○○이 셋아시 각시가 아기 나게 뒈난 ○○어멍이 셋메느리영 ᄒᆞ쏠 털어지난 셋메누리영 이제 ○○이 어멍이영 비틀어지난 시어멍이 간 느네 셋메누리 아기뻬 맞촷젠[216] 헤도 생전 오지 안헴젠. 보레.(○○이 둘째아우 색시가 아기 낳게 되니까 ○○ 어머니가 둘째며느리랑 조금 틀어지니까 둘째며느리랑 이제 ○○이 어머니랑 비틀어지니까 시어머니가 가서 너희 둘째며느리 '아기뻬' 맞췄다고 해도 생전 오지 않는다고. 보러.)

112002 @ 애기뻬 맞춘 건 무신거?('애기뻬' 맞춘 건 무엇?)

112002 # 아기 나젠 막 아팡.(아기 낳으려고 아주 아파서.)

112002 @ 아.(아.)

112002 # 아픈 것ᄀᆞ라 아기뻬 맞촷젠 헤여.(아픈 것보고 '아기뻬' 맞췄다고 해.)

112002 @ 응.(응.)

112002 # 경헨에 골으난 오지 안허난 나신디 간. 아이고, 조케야 저 가이, 가네 신랑이 뭣이여마는 막 아기 나젠 막 허는디 저 시어멍신디 간 골으난 오도 가도 안헴저게. 조케 오랑인에 봐도라, 봐도라. 처암이라, 나가이. 아기 내우는 디 봐보질 안헤연. 나가 남뿐 헷지, 처암이난.(그렇게 해서 말하니까 오지 않으니까 나에게 가

216) '아기뻬 맞추다'는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서. 아이고, 조카야 저 걔, 걔네 신랑이 뭐다마는 막 아기 낳으려고 막 하는데 저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하니까 오도 가도 안 한다. 조카 와서 봐 달라, 봐 달라. 처음이라, 내가. 아기 받는 데 봐 보지 않았어. 내가 낳기만 했지, 처음이니까.)

112002 @ 응.(응.)

112002 # 아이고, 게민 어떵 허코 혜연에 이젠 갓주게, 간에. 배 아판에 허난 아이고 아파도 츰으라, 츰으라 허곡이 느냥으로이 알로이 나도 모르게 힘도 나고, 나도 아기 나나난 나도 모르게 자연히 그 알로 힘이 날 때랑은에 날ᄀᆞ라 힘 남젠 혜영 곧고 허라이. 나도 분수 몰란이 허멍 허난.(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젠 갔지, 가서. 배 아파서 하니까 아이고 아파도 참아라, 참아라 하고 너대로 아래로 나도 모르게 힘도 나고, 나도 아기 낳았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히 그 아래로 힘이 날 때랑은 나보고 힘 난다고 해서 말하고 해라. 나도 분수 몰라서 하면서 하니까.)

112002 @ 응.(응.)

112002 # 알앗수다 허멍 혜연 이젠, 힘 남젠. 힘 남젠 허난 힘 나가건 날 줄건 심엉이, 줄건 심엉 니도 저 장석허곡이[217] 저 힘 남젠 허민 나 니 이 요디 오목가슴 나 꼭허게 이 동무릅으로 누드렁 나신디레 시꺼지렌 허영이.(알았습니다 하면서 해서 이젠, 힘 난다고. 힘 난다고 하니까 힘 나면 날 불끈 잡아서, 불끈 잡아서 너도 '장석'하고 저 힘 난다고 하면 나 너 이 요기 오목가슴 나 꼭하게 이 무릎으로 눌러서 나에게 실리라고 해서.)

112002 @ 응.(응.)

112002 # 시꺼지렌 꼭허게 누들곡 허리이, 누들곡 허리 허난 예, 예허멍, 그 ○○이 셋각시영, ○○ 셋아시영은 나 막 둘도 엇게 이녁 아덜추룩 곱게 살단 그 ○○이 각시 따문덜 육지 가불어시네, 가네.(실리라고 꼭하게 누르고 해라, 누르고 해라 하니까 예, 예하면서, 그 ○○이 둘째색시랑, ○○ 둘째아우랑은 나 막 둘도 없게 자기 아들처럼 곱게 살다가 그 ○○이 색시 때문들 육지 가버렸어, 걔네.)

112002 @ 응.(응.)

112002 # ○○이 셋아신이 인물도 좋고이 각시도 막 좋은[존] 아이여.(○○이 둘째아운 인물도 좋고 색시도 아주 좋은 아이야.)

112002 @ 할머니 애기 날 땐 누게가 완 혜줍디가?(할머니 아기 낳을 땐 누가 놔서 해주셨습니까?)

112002 # 나 아기 날 땐이 부치르완게 그때 어린 때난이 아기삘 마추난 이젠 아기 낳게 뒈난에 우리 시어멍이 보리낭을 ᄀᆞ졍오란 끌젠 허는 거라이.(나 아기 낳을 땐 부끄러워서 그때 어릴 때니까 '아기삐'를 맞추니까 이젠 아기 낳게 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보릿대를 가져와서 깔려고 하는 거야.)

112002 @ 바닥에?(바닥에?)

112002 # 응, 구들에 끌젠 허난 아이고 맙서게, 맙서게, 맙서게 허난 아이고 영

217) '장석허다'는 몸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적에 끙끙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허는 거여. 나도 그런 거 눈친 아는디 아이고 이땅 헙서, 이땅 헙서 허영. 허는 거여, 저 속엣옷이랑 벗어불라 치메만 입엉 속엣옷 벗어불라 헤도 막 부치르왕 말젠만, 말젠만 막 허는디, 아기 내우는 할망 강 어디 강 들아오켄 가난 그 집인 또 해필 제서.(응, 방에 깔려고 하니까 아이고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그런 거 눈친 아는데 아이고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하세요 해서. 하는 거야, 저 속의 옷이랑 벗어버려라 치마만 입어서 속의 옷 벗어버려라 해도 막 부끄러워서 말려고만, 말려고만 막 하는데, 아기 받는 할머니 가서 어디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가니까 그 집엔 또 하필 제사.)

112002 @ 아이고.(아이고.)

112002 # 제서난 가시민 이제 제 끗나민 가켄 헨, 겡허난 우리 시어멍도 아기 나는디 당신 남은 헤도 그런 걸 아이 봐나신ᄀ라 아이 봐나난. 이젠 보리낭 이레 꼴안 이 보리낭더레 앚이라, 앚이라 헤도, 내붑서게, 내붑서게, 어무니 가붑서, 어무니 가붑서, 어멍이 안 가. 안 강인에 나 막 고통혜 가민 이거 그레 꼴게, 꼴게 혜가민. 내붑서, 내붑서.(제사니까 갔으면 이제 끝나면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아기 낳는데 당신 낳기는 해도 그런 걸 안 봤었는지 안 봤었어. 이젠 보릿대 이리 깔아서 이 보릿대에 앉아라, 앉아라 해도, 내버리세요, 내버리세요, 어머니 가버리세요, 어머니 가버리세요, 어머니가 안 가. 안 가서 나 막 진통해 가면 이거 그리 깔자, 깔자 해가면. 내버리세요, 내버리세요.)

112002 @ 하하하.(하하하.)

112002 # ᄌ연이 아프난이 아이고 어머니 날 살려줘 허멍이, 허난에 나신디레 영 들아지라 보게 허멍 막 다 뒈어가난이. 아이고 어머니 나 죽어지크라 날 살려줘 허멍 헤 가난, 게건 이레 나신디레 오라, 오라 혜연, 검질 ᄋ져단 나 알르레 놓고 이레 오라, 오라 혜연 기자 털어지난 그 똘 하나 조젱이라도 돋은 거 나주마는.(자연히 아프니까 아이고 어머니 날 살려줘 하면서,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매달려 봐라 하면서 막 다 되어가니까. 아이고 어머니 나 죽겠어 날 살려줘 하면서 해가니까, 그러면 이리 나에게 와라, 와라 해서, 검불 가져다가 나 아래로 놓고 이리 오라, 오라 해서 그저 떨어지니까 그 딸 하나 '조젱이'라도 돋은 거 나지마는.)

112003 @ 하하하. 게민 그 애기 날 때 태허고 탯줄은 그건 어떵 헤?(하하하. 그러면 그 아기 낳을 때 태반하고 탯줄은 그건 어떻게 해?)

112003 # 탯줄은.(탯줄은.)

112003 @ 어떵 쫄라?(어떻게 잘라?)

112003 # 탯줄은이 너미 ᄌ르게 그차불민이 애기 오줌을 줏넨 혜영이 탯줄을 나민 그 탯줄, 그 봇 신 디서 아기신더레 영영 무시거산디 훌텅 이레 하영 가게이.(탯줄은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아기 오줌 잦는다고 해서 탯줄을 나면 그 탯줄, 그 태반 있는 데서 아기에게 이렇게 이렇게 무엇인지 훑어서 이리 많이 가게.)

112003 @ 아.(아.)

112003 # 훌터둥 실로 양펜이 졸라메어.(훑어두고 실로 양편에 졸라매.)

112003 @ 응.(응.)

112003 # 실로 양펜이 졸라메어근에 톡허게 그창 이건 또시 뭣에 싸곡 이건 기자 아기 허곡.(실로 양편에 졸라매서 톡하게 잘라서 이건 또 뭐에 싸고 이건 그저 아기 하고.)

112003 @ 아, 요건 봇, 아까?(아, 요건 태반, 아까?)

112003 # 봇은 이제 그 검질에 ᄀᆞ찌 쌍.(태반은 이제 그 검불에 같이 싸서.)

112003 @ 어떵 헤? 데껴불어?(어떻게 해? 던져버려?)

112003 # ᄀᆞ찌 상인에 던져사 불엉사 뒈느냐게, 팡인에 묻으나 어떵 허는 거주게.(같이 싸서 던져버려야 되느냐. 파서 묻거나 어떻게 하는 거지.)

112003 @ 팡, 땅에 팡.(파서, 땅에 파서.)

112003 # 땅에 팡인에 아무 디나 묻지 안허여. 정성허는 사름은 지슷물 짓는 디 묻어.(땅에 파서 아무 데나 묻지 않아. 정성 들이는 사람은 낙숫물 떨어지는 데 묻어.)

112003 @ 아.(아.)

112003 # 잘못 묻당은이 개미, 개이미, 개이미 인 디 강 묻어 놓민 아기 개이미 무는 거추룩 막 그런 거 낭인에 못 젼디곡 경 허여.(잘못 묻다가 개미, 개미, 개미인 데 가서 묻어 놓으면 아기 개미 무는 것처럼 막 그런 거 나서 못 견디고 그렇게 해.)

112003 @ 아.(아.)

112003 # 경 아무 디라도 묻지 안허여. 것도 정성껏 지슷물 짓는 디 대 걸렁은이 집가지에 지슷물 짓는디 솔째기 쥐도 개도 모르게 팡인에 묻엉인에 허는 거라라.(그렇게 아무 데라도 묻지 않아. 그것도 정성껏 낙숫물 떨어지는 데 대 걸러서 처마에 낙숫물 떨어지는 데 살짝이 쥐도 새도 모르게 파서 묻어서 하는 거더라.)

112003 @ 응.(응.)

112003 # 나 난 때, 우리 애기 난 땐 어디사 파단 묻어신디 모르고. 보도 쓰도 안허고이.(나 낳을 때, 우리 아기 낳을 땐 어디야 파다가 묻었는지 모르고. 보지도 쓰지도 않고.)

112003 @ 응.(응.)

112003 # 경헌디이 그디 훼장네 그디 저 송칩이 사름인디 송칩이 ○○ 각시엔 헌 사름 이서. 덕수, 송 ○○ 각시엔 사름이, ○○엔 헌 사름은 홍칩이 장게간에 똘 하나 나뒨 아이 살안 각시 얻어오란에 허는디 홍칩이 사름인디 ○○엔 헌 사름은 멘에 ᄒᆞ꼼 뎅겻주게. 경 허단 아길 배난 아길 가지난 아기 막 잘도 엄살허는 사름게.(그런데 거기 회장네 거기 저 송씨 집안에 사람인데 송씨 집안에 ○○ 색시라고 한 사람 있어. 덕수, 송 ○○ 색시라고 한 사람이, ○○이라고 한 사람은 홍씨 집안에 장가가서 딸 하나 낳아두고 안 살아서 색시 얻어 와서 하는데 홍씨 집안 사람인데 ○○이라고 한 사람은 면에 조금 다녔지. 그러다가 아기를 배니까 아기를 가지니까 아기 아주 잘도 엄살하는 사람.)

112003 @ 하하하.(하하하.)

112003 # 그 사름 이제 덕수 그 여자 살아신디 몰라. 동부락에. 막 ᄉᆞ뭇 사름 죽는 걸로 막 울러. 울러가난에 그 이 선생 어멍 훼장이엔 헌 사름이, 야 이제 우리 저 아주망네 애기 이제 남시메 왕 보렌, 지네 아지망네 오라방 메누리주게이.(그 사람 이제 덕수 그 여자 살았는지 몰라. 동부락에. 막 사뭇 사람 죽는 걸로 막 외쳐. 외쳐가니까 그 이 선생 어머니 회장이라고 한 사람이, 야 이제 우리 저 아주머니네 아기 이제 낳고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자기네 아주머니네 오라버니 며느리지.)

112003 @ 응.(응.)

112003 # 겡 오랑 보렌 헨 아주망도 앚고 이 선생 고모도 앚고 나도 앚인디. 야, 이 고통허민 아이고 아프다 허질 아녕 아이고 요놈으 ᄌᆞ석 오랏어라. 손으로, 손콥으로 벳겨켜 무스걸로. 서방 오라시민 지 못 젼디게 헴젠 요놈으 ᄌᆞ석 콥으로 무시거 허켜 허멍 막 아파도이 아이고 아프덴 헌 소린 안 허곡 아파가민 서방을 다 죽일 말만 허는 거라.(그래서 와서 보라고 해서 아주머니도 앉고 이 선생 고모도 앉고 나도 앉았는데. 야, 이 진통하면 아이고 아프다 하질 않고 아이고 요놈의 자식 왔더라. 손으로, 손톱으로 벗기겠다 무엇으로. 서방 왔으면 자기 못 견디게 한다고 요놈의 자식 손톱으로 무엇 하겠다 하면서 아주 아파도 아이고 아프다고 한 소린 않고 아파가면 서방을 다 죽일 말만 하는 거야.)

112003 @ 하하하.(하하하.)

112003 # 아이고, 저 다 경헌다게, 다 경헌다이 시어멍은 아무거엔도 안 곧고 이 선생 고모엔 헌 사름이 다 경 허영 나는 거여게. 다 경, 무사 경 힘 내멍 경 헴디게. 자 힘내어근에 알로 힘 나는 거 닮건 힘으로 느가 ᄀᆞ찌 허곡 허라게, 고통헤가민 그 힘은 내우젠 안허곡 요놈으 ᄌᆞ석 오라 콥으로 벳기켜, 요놈으 ᄌᆞ석 오랏어라 무시거 허켜 허멍 드러 허난 서방놈은 와게? 시간 안 뒈난. 아, 경헌디 굴그락허게 소리 나난에. 난 앞이 앚앗주게.(아이고, 저 다 그런다, 다 그런다 시어머니는 아무 것이라고도 안 말하고 이 선생 고모라고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낳는 거야. 다 그렇게, 왜 그렇게 힘내면서 그렇게 하니. 자 힘내서 아래로 힘나는 거 같으면 힘으로 네가 같이 하고 해라, 진통해가면 그 힘은 나오게는 않고 요놈의 자식 와라 손톱으로 벗기겠다, 요놈의 자식 왔더라 무엇 하겠다 하면서 들이 하니까 서방놈은 오니? 시간 안 되니까. 아, 그런데 '굴그락'하게 소리 나니까. 난 앞에 앉았지.)

112003 @ 응.(응.)

112003 # 나신디 힘내라믄게, 힘내라믄게. 날보다 아래 사름이난 힘도 안 내곡 막 경 성질 내멍 우트레만 헤가민 아기가 나나게? 알러레 힘을 내와사주게. 아이고 요놈으 ᄌᆞ석 옴만 헤서라, 옴만 헤서라 허난. 아기가 굴그락허게 털어지는 거 닮으난 할망덜이, 시어멍은 욮이 앚곡 그 고모가 바로 앚앗단 아이고, 아이고게, 아이고 자이 주둥이가 나쁘게 ᄀᆞᆯ안게 아기가 아니옌.(나에게 힘내라, 힘내라. 나보다 아래 사람이니까 힘도 안 내고 막 그렇게 성질 내면서 위로만 해가면 아기 나오니? 아래로 힘을 내어야지. 아이고 요놈의 자식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하니까. 아기가

‘굴그락’하게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 할머니들이, 시어머니는 옆에 앉고 그 고모가 바로 앉았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쟤 주둥이가 나쁘게 말하던데 아기가 아니라고.)

112003 @ 어?(어?)

112003 # 아기가 아니여. 아이고 이거 무시것고게, 아이고 이거 무시것고게 허난 뭣이꽝 허난 아이고게 ○○ 어멍 이레 오랑 보라게, 뭣고게. 영 보난이 봇 싼에 봇채 나와부난이 아기 안 닮안게.(아기가 아니야. 아이고 이거 무엇이니, 아이고 이거 무엇이니 하니까 뭡니까 하니까 아이고 ○○ 어머니 이리 와서 봐라, 뭐니. 이렇게 보니까 태반 싸서 태반째 나와버리니까 아기 안 같았어.)

112003 @ 아.(아.)

112003 # 영 웅크려젼 그 봇은 영허난 아기 안 닮안.(이렇게 웅크려져서 그 태반은 이렇게 하니까 아기 안 같아.)

112003 @ 응.(응.)

112003 # 경 허난 아이고 아기 아니여게. 저 아이고. 그 예펜은 일어난 영 보도 안 허고이 그 나오난에 즘즘허고 시어멍, 우두커니 시어멍은 아무것도 몰랑 멍청이 닮은 할망이난. 그 시고모가 아이고게, 야 ○○어멍 요 오랑 보라게. 이젠 확허게시리 들어간 보난 봇 썬 나부난 아기가 아니라. 봇 썬 영 털어져 부난.(그러니까 아이고 아기 아니야. 저 아이고. 그 여편네는 일어나서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 나오니까 잠잠하고 시어머니, 우두커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서 멍청이 같은 할머니니까. 그 시고모가 아이고, 야 ○○ 어머니 요 와서 봐라. 이젠 확하게끔 들어가서 보니까 태반 써서 나버리니까 아기가 아니야. 태반 써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112003 @ 응.(응.)

112003 # 봇채 털어지난에 힘도 안 든 걸 지랄헌 거이.(태반째 떨어지니까 힘도 안 든 걸 지랄한 거.)

112003 @ 하하하.(하하하.)

112003 # 아기가 아니여게, 무슨 아기가 아니꽝게, 이거 봇 쓴 거 아니꽝게, 영 허연에 영허난 욜로산디사 나 손으로 영허난 짝 찢이난 앵혜연 애기, 지집아이 난.(아기 아니야, 무슨 아기 아닙니까, 이거 태반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요리로인지 나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짝 찢으니까 앵해서 아기, 계집아이 낳았어.)

112003 @ 아, 봇채로 헹은에 나는구나예.(아, 태반째로 해서 낳는군요.)

112003 # 응, 봇채 털어젼.(응, 태반째 떨어졌어.)

112003 @ 아. 경헤도 가이 건강허게 잘 컨?(아. 그래도 걔 건강하게 잘 컸어?)

112003 # 응, 컨게.(응, 컸어.)

112003 @ 아프지 안허고?(아프지도 않고?)

112003 # 아프지 안허연 컨에 시집도 가고.(아프지 않고 커서 시집도 가고.)

112003 @ 응.(응.)

112003 # 경 허난이 그 예펜이 아주 몰상식허게 욕을 헤라게. ○○이 셋아시 각신, 아이고 삼춘, 다 경헌다, 아이고 삼춘, 다 경헌다 허멍이 경 말짠이 어뜨난 느네 시어멍이영 니영 아인 막 곱닥허고 착헌 아인디 ○○이 각시 몽니만 피우곡 헌디 어뜨난 니영 경헤시닌 허난 아이고 나가 잘못이우다게 허난, 무사?(그러니까 그 여편네 아주 몰상식하게 욕을 하더라. ○○이 둘째아우 색신, 아이고 삼촌, 다 그런다, 아이고 삼촌, 다 그런다 하면서 그렇게 말째는 어떻게 하니까 너희 시어머니랑 너랑 아인 아주 곱고 착한 아인데 ○○이 색시 몽니만 피우고 한데 어떻게 하니까 너랑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입니다 하니까, 왜?)

112003 @ 응.(응.)

112003 # 그 동녘집이 간에 동녘집이 사름네가 잔치 넘으난 일본서 온 사름이난 일본 접시덜이 막 한. 접시덜이 막 한 곱닥헌 접시덜이 한디 가네 시어멍 ᄀᆞ찌 누게영 설거지허단 접시 멧 개 가져가분 거라. 가져가난 젭시가 어떵헌 꼿 그려진 어떵헌 거 허난에 가이가 그걸 봣어.(그 동녘집에 가서 동녘집에 사람들이 잔치 넘으니까 일본서 온 사람이니까 일본 접시들이 아주 많아. 접시들이 아주 많아서 곱다란 접시들이 많은데 걔네 시어머니 같이 누구랑 설거지하다가 접시 몇 개 가져가버린 거야. 가져가니까 접시 어떤 꽃 그려진 어떤 거 하니까 걔가 그걸 봤어.)

112003 @ 응.(응.)

112003 # 봐난 그디서 설거지헌 사름덜을 자꾸 못 믿으멍 하도 허고 가이도 설거지 ᄀᆞ찌 설러오곡 뭣허난 기자 가이신디레 잔뜩 못 믿는, 젊은 아이난이 못 믿는 소리덜 그 다른 사름덜이 가네 시어멍 가져간 걸 가이신디레만 허는 거라. 허난 이녁 테 벗젠 허난 ᄀᆞᆯ아사 헐 거 아니가게.(보니까 거기서 설거지한 사람들을 자꾸 못 믿으면서 하도 하고 걔도 설거지 같이 마치고 무엇하니까 그저 걔에게 잔뜩 못 믿는, 젊은 아이니까 못 믿는 소리들 그 다른 사람들이 걔네 시어머니 가져간 걸 걔에게만 하는 거야. 하니까 자기 '테' 벗으려고 하니까 말해야 할 거 아니냐.)

112003 @ 응.(응.)

112003 # 경 허난 난 그런 거 가져가보도 안 헤수덴. 하도 허난 게난 누게가 ᄋᆞ져가시닌 설거지허멍 헌 사름만 ᄋᆞ져갓젠 허난 가인 설거질 허난 가네 마당이영 ᄀᆞ찌 부뜬 디서 설거지허난 곱질 수가 신 거난 ○○이 어멍네 건 그 질 건너가사 허는 거 아니가.(그러니까 난 그런 거 가져가보지도 안 했다고.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냐고 설거지하면서 한 사람만 가져갔다고 하니까 걘 설거질 하니까 걔네 마당이랑 같이 붙은 데서 설거지하니까 숨길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어머니네 건 그 길 건너가야 하는 거 아니냐.)

112003 @ 응.(응.)

112003 # 곱닥허게 싯은디 어느 때사 헌디 접시 서너 개 ○○이 어멍이 ᄋᆞ져가는 거 가이 눈에 껄린 모냥이라게. 허난 아이고, ᄀᆞᆫ지 말카, ᄀᆞᆫ지 말카 허단이 잔뜩 다른 사름덜이 가이신더레 ᄀᆞᆫ는 거라. 가이 ᄀᆞ찌 허난 그 아이만 의심헷젠 지네덜끼리 수군수군허난 나 테 벗젠 허민 ᄀᆞᆯ아야 헐 거주게. 난 안 ᄋᆞ져갓젠, 모가지에

칼 들어도 안 ᄋᆞ져갓ᄀᆞ렌 막 허엿젠. 그디 사름덜. 경헌디 그걸 ᄀᆞᆯ아불어사주 잔뜩 그 새파랑헌 어린 아이 우트레 씨우민 뒈느냐게, 난 안헷수덴, 겐 시어멍신디레 ᄀᆞᆯ아불어시녜게.(곱다랗게 씻었는데 어느 때야 했는지 접시 서너 개 ○○이 어머니가 가져가는 거 그 아이 눈에 걸린 모양이야. 하니까 아이고, 말하지 말까, 말하지 말까 하다가 잔뜩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야. 그 아이 같이 하니까 그 아이만 의심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하니까 나 '테' 벗으려고 하면 말해야 하거지. 난 안 가져갔다고, 모가지에 칼 들어와도 안 가져갔다고 막 했어. 거기 사람들. 그런데 그걸 말해버려야지 잔뜩 그 새파란 어린 아이 위에 씌우면 되니, 난 안 했습니다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해버렸어.)

112003 @ 예.(예.)

112003 # 경헨 시어멍 접시 멧 개 가져가는 거 봣젠, 난 안 허고렌 허난 그때부터 그 메누리 경 궂인 체허더라게.(그래서 시어머니 접시 몇 개 가져가는 거 봤다고, 난 안 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며느리 그렇게 궂은 체하더라.)

112004 @ 애기 나민 할무니, 애기 난 어멍신디 무신거 멕여?(아기 낳으면 할머니, 아기 낳은 어머니에게 무엇 먹여?)

112004 # 어멍신디 무시거 바당궤기 국 끌령은에 우선 멕이고 털어지민 어거레 뭣을 멕이느니?(어머니에게 무엇 바닷고기 국 끓여서 우선 먹이고 떨어지면 곧 무엇을 먹이니?)

112004 @ 뭐 모멀조베기 멕인덴 헨게마는.(뭐 메밀수제비 먹인다고 하던데마는.)

112004 # 모멀초베기 멕여. 모멀초베기가 아니고 모멀ᄀᆞ루 헹 놧당이 ᄂᆞᆯ 물에 그냥 ᄂᆞᆯ 물에 ᄀᆞ루 ᄒᆞᆯ 놩 탕인에 탕인에 드르싸렌 허곡 그걸로 수제비추룩 헤영 기자 이만썩 그창인데 그 국물도 필필허게 허영 멕인다.(메밀수제비 먹여. 메밀수제비가 아니고 메밀가루 해서 놨다가 날 물에 그냥 날 물에 가루 조금 놔서 타서 들이키라고 하고 그걸로 수제비처럼 해서 그저 이만큼씩 잘라서 그 국물도 풀풀하게 해서 먹인다.)

112004 @ 거 무사 멕이는 거?(거 왜 먹이는 거?)

112004 # 게, 그 모멀은 피 삭는 거난.(그러게, 그 메밀은 피 삭는 거니까.)

112004 @ 아.(아.)

112004 # 모멀은 피 삭는 거난에 피가 다 삭아지렌 멕이는 거주게. 그 궂인 피 알러레 다 빠지렌.(메밀은 피 삭는 거니까 피가 다 삭아지라고 먹이는 거지. 그 궂은 피 아래로 다 빠지라고.)

112004 @ 메역 놩 허는 거?(미역 넣어서 하는 거?)

112004 # 그 조베긴 메역 안 놩.(그 수제비는 미역 안 넣어서.)

112004 @ 아.(아.)

112004 # 그냥 헤영케 그 모멀ᄀᆞ루 조베기 허곡 아기 곧 털어지민 사발에 ᄀᆞ루 ᄒᆞᆫ 줌 놩 탁탁 때령 얍지룽허게 탕은에 드르싸렌 허곡.(그냥 하얗게 그 메밀가루 수

제비 하고 아기 곧 떨어지면 사발에 가루 한 줌 놔서 탁탁 때려서 얇게 타서 들이키라고 하고.)

112004 @ 응.(응.)

112004 # 또 그 모멀ᄀᆞ루로 조베기 헤영 이만썩 숟구락으로 그창 메역 놩 국 끌령 먹으렌 헹 주곡, 경.(또 그 메밀가루로 수제비 해서 이만큼씩 숟가락으로 잘라서 미역 넣어서 국 끓여서 먹으라고 해서 주고, 그렇게.)

112004 @ 아, 거난.(아, 그러니까.)

112004 # 그 모멀ᄀᆞ룬 피 삭는 거.(그 메밀가룬 피 삭는 거.)

112004 @ 아, 겡 경헤나민 바닷궤기라도 헤근에 국 끌령.(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나면 바닷고기라도 해서 국 끓여서.)

112004 # 응, 국 끌령 멕이는 거.(응, 국 끓여서 먹이는 거.)

112005 @ 애기 목욕은 언제 시키는 거꽈?(아기 목욕은 언제 시키는 겁니까?)

112005 # 모욕은 그때 털어졋지, 금방 털어지민 금방 벳똥줄 끈어두곡 그 시간에 모욕도 시겨. 그 시간에.(목욕은 그때 떨어졌지, 금방 떨어지면 금방 탯줄 잘라 두고 그 시간에 목욕도 시켜. 그 시간에.)

112005 @ 그냥 ᄯᅳ뚯헌 물 데왕은에?(그냥 따뜻한 물 데워서.)

112005 # 응, ᄯᅳ뚯험 물 데왕.(응, 따뜻한 물 데워서.)

112005 @ 응.(응.)

112005 # ᄯᅳ뚯헌 물 무신 애기새끼 요영헌 거 심엉인에 물 지치멍 시쳥 따끄는 체, 쳇날은 따끄는 체헤영 그냥 눅지고. 다음부떤 다 아기 옷이영 지성귀영 다 허곡 그 엿날 어른덜은 비누 안 멕영은에 허민 끈닥끈닥허메.(따뜻한 물 무슨 아기새끼 요렇게 한 거 잡아서 물 끼얹으면서 씻어서 닦는 체, 첫날은 닦는 체해서 그냥 눕히고. 다음부턴 다 아기 옷이랑 기저귀랑 다 하고 그 옛날 어른들은 비누 안 먹여서 하면 끈적끈적해.)

112005 @ 응.(응.)

112005 # 겡 체암에 그런 어른덜ᄀᆞ란 허렌 허민 졸바로 안 헤불민 이녁냥으로 허젠 허민 끈닥끈닥허민 비누 멕이멍 그런 디 ᄀᆞᆯ이 막.(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른들보곤 하라고 하면 제대로 안 해버리면 자기대로 하려고 하면 끈적끈적하면 비누 먹이면서 그런 데 깨끗이 막.)

112005 @ 옛날에도 비누로?(옛날에도 비누로?)

112005 # 응, 옛날에도.(응, 옛날에도.)

112005 @ 비누 이서낫수과?(비누 있었습니까?)

112005 # 게, 잇엇어.(그렇지, 있었어.)

112006 @ 그 애기 입지는 옷은 봇뒤.(그 아기 입히는 옷은 '봇뒤'.)

112006 # 봇디창옷이엔 허영게 무슨 무멘으로 베, 베적삼 새끼 하나 멘들앙 입진다게. 벤이 후제 크민 이 등 ᄀᆞ르왕인에, 그런 봇데창옷 안 입지민 등 ᄀᆞ릅넨 헤영 그런 거 입지는 거.('봇디창옷'이라고 해서 무슨 무명으로 베, 베적삼 새끼 하나

만들어서 입힌다. 베는 후에 크면 이 등 가려워서, 그런 '봇데창옷' 안 입히면 등 가렵다고 해서 그런 거 입히는 거.)

112006 @ 건 다 집이서 멘들아?(그건 다 집에서 만들어?)

112006 # 다 집이서 멘들주게. 그거 무슨 베 조각으로 멘든 거 무슨.(다 집에서 만들지. 그거 무슨 베 조각으로 만든 거 무슨.)

112006 @ 어디 강 빌어당도 입져?(어디 가서 빌려다가도 입혀?)

112006 # 엇은 사름은 빌어단도 입지지 안허영. 그냥도 허민 막 등 ᄀᆞ르왐젠 헤영이 그거 벤 ᄂᆞ슨 거난 입지난 등 ᄀᆞ릅지 안허영. 아이고 베창옷 아니 입져부난 막 등 ᄀᆞ르완 헴젠 경 허여. 베창옷은 그 베난에 ᄀᆞ릅지 안허는 거라. 것도 방법으로 입지는 거라라.(없는 사람은 빌려다가도 입히지 않아서. 그냥도 하면 막 등 가렵다고 해서 그거 베는 날카로운 거니까 입히니까 등 가렵지 않아서. 아이고 '베창옷' 안 입혀버리니까 막 등 가려워 한다고 그렇게 해. '베창옷'은 그 베니까 가렵지 않은 거야. 그것도 '방법'으로 입히는 거더라.)

112006 @ 아기 연헌 살에 그거 베옷 허민 애기 막 벌겅허게 뒈지 안허여?(아기 연한 살에 그거 베옷 하면 아기 아주 벌겋게 되지 않아?)

112006 # 아니 헤여.(안 해.)

112006 @ 안 허여.(안 해.)

112006 # 아니 헤여.(안 해.)

112006 @ 겨울에 나도 베창옷 헹 입져?(겨울에 낳아도 '베창옷' 해서 입혀?)

112006 # 응, 저울에도 곧 털어지민 벳똥줄 끈창인에 모욕시기민 모욕 안 시긴 땐 안 헷당 모욕 시경인에 물 ᄏᆞᆯ이 따까두고 요즘덜은 아이덜 벨 거 다 ᄇᆞᆯ라 놓곡 헤영 그거 입경인에 경.(응, 겨울에도 곧 떨어지면 태줄 잘라서 목욕시키면 목욕 안 시킨 땐 안 했다가 목욕 시켜서 물 깨끗이 닦아두고 요즘은 아기들 별 거 다 발라 놓고 해서 그거 입혀서 그렇게.)

112006 @ 요새야 벨 거 다 ᄇᆞᆯ람주마는 옛날엔 무신.(요새야 별 거 다 바르고 있지마는 옛날엔 무슨.)

112006 # 안 ᄇᆞᆯ랑 그냥 맨 물에서 비누도 안 멕영은에 그냥 물 지치멍 그 는질는질 헌 거 시쳐뒁인에, 그 베창옷, 소미도 이만은 질게 헤영 넹경 내불곡 헤영인에 입져.(안 발라서 그냥 맨 물에서 비누도 안 먹여서 그냥 물 끼얹으면서 그 '는질는질' 한 거 씻어둬서, 그 '베창옷'. 소매도 이만큼은 길게 해서 넘겨서 내버리고 해서 입혀.)

112006 @ 응.(응.)

112006 # 베창옷[218] 입으민 다 뒈는 거라.('베창옷' 입으면 다 되는 거야.)

112006 @ 응.(응.)

112006 # 그거 아기덜 ᄋᆞ라 개 나도록 대대로 놔뒀당 입져.(그거 아기들 여러 개 낳도록 대대로 놔뒀다가 입혀.)

---

218) '베창옷'은 배냇저고리의 제주어로 '봇뒤창옷', '봇데창옷'이라고도 한다.

112006 @ 아, ᄒᆞ나 헤근에 큰아이도 입지곡 족은아이도 입지곡?(아, 하나 해서 큰아이도 입히고 작은아이도 입히고.)

112006 # 응, 대대로 놔둬뒁. 또 그거 콤콤헌 사름은 놔뒷당 후제 ᄌᆞ손 나민 ᄌᆞ순 ᄋᆞ져당도 주곡 경헤.(응, 대대로 놔두고. 또 그거 꼼꼼한 사람은 놔뒀다가 후에 자손 낳으면 자손 가져다가도 주고 그렇게 해.)

112006 @ 메칠이나 그거 입어? 아인, 애긴.(며칠이나 그거 입어? 아인, 아긴.)

112006 # 아기게, 메틀은 메틀게. 겨울엔 메틀 안 입엉은에 모욕시긴 적마다 서너 번 헤영 입져사주게.(아기, 며칠은 며칠. 겨울엔 며칠 안 입어서 목욕시킬 적마다 서너 번 해서 입혀야지.)

112006 @ 게민 봇뒤창옷은 하나 아니고 여러 개 만들어사 헤?(그러면 '봇뒤창옷'은 하나 아니고 여러 개 만들어야 해?)

112006 # 하나, 하나.(하나, 하나.)

112006 @ 하나.(하나.)

112006 # 하나. 소미도 이만은 질게 헹 이디 터주고 이디도 질게 허영 기자 짓도 엇곡 이 아무것도 엇곡 단추도 엇곡 그자 요디 칫거리[219] ᄒᆞ나 ᄃᆞᆯ앙인에.(하나. 소매도 이만큼은 길게 해서 여기 트고 여기도 길게 해서 그저 깃도 없고 이 아무것도 없고 단추도 없고 그저 요기 '칫거리' 하나 달아서.)

112006 @ 칫거리?('칫거리'?)

112006 # 무시거 ᄆᆞᆯ루레기[220] 요디 하나 ᄃᆞᆯ앙 영헹 졸라메고 단추도 아니 ᄃᆞᆯ아.(무엇 'ᄆᆞᆯ루레기' 요기 하나 달아서 이렇게 해서 졸라매고 단추도 안 달아.)

112007 @ 할망상도 헙니까? 할망상 출려?('할망상'도 합니까? '할망상' 차려?)

112007 # 할망상[221] 놓는 사름도 싯곡, 아기가 ᄌᆞ들아[222] 가민 아이고 그거 할망상 놔주라 헹 할망상 놓곡 경 안허민, 우린이 아기덜 할망상 놔보지 안헷저.('할망상' 놓는 사람도 있고, 아기가 'ᄌᆞ들아' 가면 아이고 그거 '할망상' 놔주라 해서 '할망상' 놓고 그렇지 않으면, 우린 아기들 할망상 놔보지 않았다.)

112007 @ 응.(응.)

112007 # 아기덜이 팔자가, 나가 기박헤부난 그걸로 다 마련헤신ᄀᆞ라.(아기들이 팔자가, 내가 기구해버리니까 그걸로 다 마련했는지.)

112008 @ 음. 애기 배소곱에머리 언제 그치는 거꽈?(음. 아기 배냇머리 언제 자르는 겁니까?)

112008 # 배소곱에머리 언제 그치느니. 아기가 어떤 애기덜은 이 모가지ᄁᆞ지 듬벡이 머리 싯곡, 어뜬 애기덜은 머리 엇은 애기덜도 싯고 경헌다.(배냇머리 언제 자르니. 아기가 어떤 아기들은 이 목까지 '듬벡이' 머리 있고, 어떤 아기들은 머리 없

219) '칫거리'는 문맥상 매듭단추를 가리키는 말이다.
220) 'ᄆᆞᆯ루레기'는 자그마한 헝겊 따위를 말하는데 문맥상 매듭단추를 가리키는 말이다.
221)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 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이다.
222) 'ᄌᆞ들다'는 걱정하다, 근심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아기가 힘들어 하는 것을 말한다.

는 아기들도 있고 그런다.)

112008 @ 예.(예.)

112008 # 경 허민 낭인에 아기 뱅글뱅글 웃어가민 머리, 초파일날 돌아오민 머리 문들레기 깃아주는 아이 싯곡.(그러면 낳아서 아기 방글방글 웃어가면 머리, 초파일날 돌아오면 머리 매끈하게 잘라주는 아이 있고.)

112008 @ 예.(예.)

112008 # 또 안 깃앙인에 시커멍케 머리 돋아도 깃으는 사름도 셔. 경 허주마는 기자 아기 낭인에 겨울쯤 나민, 초파일 뒈민 그날은 무조건 기자 ᄀᆞ새로라도 깃곡, 이젠 이발소에 강 문들렉기덜 다 깃아불엄선게. 민도로 작작 밀어.(또 안 잘라서 시커멓게 머리 돋아도 자르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마는 그저 아기 낳아서 겨울쯤 낳으면, 초파일 되면 그날은 무조건 그저 가위로라도 자르고 이젠 이발소 가서 매끈하게 다 잘라버리고 있더라. 면도로 작작 밀어.)

112009 @ 응. 옛날엔 애기덜 아파근에 하영 죽엇잖아예. 주로 죽는 게 마누라?(응. 옛날엔 아기들 아파서 많이 죽었잖아요. 주로 죽는 게 천연두?)

112009 # 마누라.(천연두.)

112009 @ 응.(응.)

112009 # 낭인에 메틀 엇으민 가불엇저. 낭인에 둥긋둥긋허민 가불엇저이.(낳아서 며칠 없으면 가버렸어. 낳아서 '둥긋둥긋허민' 가버렸다.)

112009 @ 응.(응.)

112009 # 이젠 마누라 엇엉게. 나민 빙원에서 나민 그날 다 주사 놓곡이 애기 나 멧 개 내왓저.(이젠 천연두 없어서. 낳으면 병원에서 낳으면 그날 다 주사 놓고 아기 나 몇 개 낳게 했다.)

112009 @ 응.(응.)

112004 # 요 동넨 아기 내우난에 밥허연에 냄비에 국 하나 끌리고 스뎅 낭푼새끼에 밥 하나 허고 우리 집 식솔 다 먹게 ᄋᆞ져왓어라게.(요 동넨 아기 받으니까 밥해서 냄비에 국 하나 끓이고 스테인리스 양푼에 밥 하나 하고 우리 집 식솔 다 먹게 가져왔더라.)

112004 @ 응.(응.)

112004 # ᄋᆞ져오난에 우리 집 옆이 담배 ᄑᆞ는 하르방도 그 집이아울라 ᄋᆞ져완. 그 어른 헨 ᄋᆞ져오란게. 애기 난 이선에 내복 ᄒᆞᆫ 벌 사왓어라게. 경헤신디 따시 다른 딘 아기 나난에 아기 왕 내와도렌 내와주난 아기밥[223]도 아니 주고 양말을 ᄒᆞᆫ 컬리 사왓고이.(가져오니까 우리 집 옆에 담배 파는 할아버지도 그 집까지 가져왔어. 그 어른 해서 가져왔더라. 아기 낳아서 있어서 내복 한 벌 사왔더라. 그랬는데 다시 다른 덴 아기 낳으니까 아기 와서 받아 달라고 받아 주니까 아기 밥도 안 주고 양말 한 켤레 사왔고.)

112004 @ 응.(응.)

223) '아기밥'은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밥을 해서 주변에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112004 # 또시 요 아래 장칩이 아긴 막 ᄉᆞ뭇 다 죽어가노렌 허멍 허연에 다 경헹 난다게, 다 경헹 난다, 쳇 애기난이. 아이고 죽어지켜, 아이고 죽어지켜. 다 경헌다 경 울리지 말라, 울리지 말라 허멍 간 헨에 그거 나난 친정어멍이 큰큰헌 바당고기 하나 사고 곤쌀 ᄒᆞᆫ 말 ᄋᆞ져왓어라게.(또 요 아래 장씨 집안에 아긴 막 사뭇 다 죽어간다고 하면서 해서 다 그렇게 해서 낳는다, 다 그렇게 해서 낳는다, 첫 아기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다 그런다 그렇게 울리지 마라, 울리지 마라 하면서 가서 해서 그거 낳으니까 친정어머니가 크디큰 바닷고기 하나 사고 흰쌀 한 말 가져왔더라.)

112004 @ 아.(아.)

112004 # 겨난 아이고 이거 무사 이차락 ᄋᆞ져와, 아이고 그것이 어떵헌 일이꽝, 어떵헌 일이꽝 허멍 허연에. 그 어른은 뚤네 집이 올 적마다 ᄉᆞ뭇 나신디 아이고 잘도 고마운 어른, 고마운 어른 허멍 경헨 잘 헨게.(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왜 이처럼 가져와, 아이고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해서. 그 어른은 딸네 집에 올 적마다 사뭇 나에게 아이고 잘도 고마운 어른, 고마운 어른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잘 하더라.)

112004 @ 경 허단 애기 나당 잘못뒌 사름도 이신가?(그렇게 하다가 아기 낳다가 잘못된 사람도 있는가?)

112004 # 아기가 잘못 뒈는 애기도 싯고 잘못, 어멍도 잘못허는 디도 싯주게.(아기가 잘못 되는 아기도 있고 잘못, 어머니도 잘못하는 데도 있지.)

112004 @ 예.(예.)

112004 # 경헌디 요 집은이 ᄉᆞ뭇 죽어지켄 허멍 아기 나도이 시어멍도 양말 ᄒᆞᆫ 커리도 안 주고 아기밥덜 헤영 먹엇젠 헤도 아기밥도 ᄒᆞᆫ 적 안 줜, 요 집이.(그런데 요 집은 사뭇 죽겠다고 하면서 아기 낳아도 시어머니도 양말 한 켤레도 안 주고 아기밥들 해서 먹었다고 해도 아기밥도 한 숟가락 안 줬어, 요 집에.)

112004 @ 응.(응.)

112004 # 이제 그 아기 ᄉᆞ뭇 아덜 헤연 장게간 아기 서너 개썩 나곡 헤신디. 벨벨헌 사름 다 서, 경 허여.(이제 그 아기 사뭇 아들 해서 장가가서 아기 서너 개씩 낳고 했는데. 별별 사람 다 있어, 그렇게 해.)

112004 @ 맞아, 예.(맞아, 예.)

112004 # 벨벨헌 사름 다 서.(별별 사람 다 있어.)

112009 @ 마누라도 잇고 족은마누라도 이서?(천연두도 있고 홍역도 있어?)

112009 # 우리 이, 아기 날 땐 마누라가 엇어라. 우리 난 때는 이섯는디 이젠 주사로 다.(우리 이, 아기 낳을 땐 천연두가 없더라. 우리 낳을 때는 있었는데 이젠 주사로 다.)

112009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12009 # 옛날엔 족은마누란 ᄒᆞ쏠만 허는 거고 큰마누란 막 허멀도 나고 지랄허는 거주.(옛날엔 홍역은 조금만 하는 거고 천연두는 아주 허물도 나고 지랄하는 거지.)

112009 @ 응.(응.)

112002 # 게난 독고동산[224] 아인디 아기뻬 맞촷젠 허멍 하필 친정어멍이 요디 동네 사난 돌아간에 허난. 그때 여름에란게 간 보난에 막 아기 어멍은 쳇 애기난, 그 집이 나 아기 네 개 내왓주게.(그러니까 '독고동산' 아인데 '아기뻬' 맞췄다고 하면서 하필 친정어머니가 요기 동네 사니까 달려가서 하니까. 그때 여름에던데 가서 보니까 막 아기 어머니는 첫 아기니까, 그 집에 나 아기 네 개 낳게 했지.)

112002 @ 응.(응.)

112002 # 겐 간 보난에 친정어멍은 아이고 모기만 웽웽헴젠 허멍 저 뒷문에 앚안 선재로 영영영영 부끄고. 경헨 이젠 간 보난에 구들에서 아판 헤 가난 나 영 배 쓸어가난. 아이고, 저 우리 어멍 봅서, 모기 물엄젠 허멍양 나 배 아팡 헌 것도 씰어주지 안허곡양 모기만 물엄젠 허멍 경 헴수게 허멍 나 영 배 문직아가난 아이고 삼춘 오난 두루 아프덴.(그래서 가서 보니까 친정어머니는 아이고 모기만 앵앵한다고 하면서 저 뒷문에 앉아서 부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치고. 그래서 이젠 가서 보니까 방에서 아파서 해가니까 나 이렇게 배 쓸어가니까. 아이고, 저 우리 어머니 보세요, 모기 문다고 하면서요 나 배 아파서 한 것도 쓸어주지 않고요 모기만 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 이렇게 배 만져가니까 아이고 삼촌 오니까 덜 아프다고.)

112002 @ 응.(응.)

112002 # 경헤라게. 겨난 다 경헌다게, 다 경 헌다, 다 경 헌다 허멍 헨. 경 헨 이젠 드러 느가 알로 이녁냥으로 힘 내는 거 닮건 ᄒᆞ쏠 느가 장석[225]허민 나도 도와 헐 거난이 경 허라이 허난, 경 헙니깡 허멍 아프다, 아프다 허난, 삼춘 알로 힘이 나왐서. 오, 힘 내라 힘 내라 허연 처암 안 뒈언, 두 번채, 쳇 애기난. 두 번채 또시 아이고 죽어지쿠다 허난 힘 내렌, 힘 내렌 헨 시 번째 아이고 삼춘 나 이번은 죽어지커라 허멍 허난 죽지 안헌다게 힘만 내렌 허멍 오목가슴더레 요레 콱 찔런 불끈 잡아뎅이난 굴그락허게[226] 털어져라게.(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다 그런다, 다 그런다, 다 그런다 하면서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젠 들이 네가 아래로 자기대로 힘내는 거 같으면 조금 네가 '장석'하면 나도 도울 거니까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아프다, 아프다 하니까, 삼촌 아래로 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힘내라, 힘내라 해서 처음 안 됐어, 두 번째, 첫 아기니까. 두 번째 또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죽지 않는다 힘만 내라고 하면서 오목가슴에 요리 꽉 찔러서 불끈 잡아당기니까 '굴그락'하게 떨어지더라.)

112002 @ 응.(응.)

112002 # 아이고, 삼춘 따문 살아지켜 헤라게.(아이고, 삼촌 때문 살 수 있겠다 하더라.)

112002 @ 하하하.(하하하.)

---

224) '독고동산'은 대정읍 인성리의 한 지명이다.
225) 장석은 몸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적에 끙끙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226) '굴그락허다'는 힘들게 좁은 곳을 지나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는 모양을 말한다.

112002 # ᄒᆞ꼼 싯당인에 ᄀᆞ만이 싯당 또 믄 나와사 헌다, 무시거마씸? 또 아기마씸? 아니여게, 또 ᄒᆞ꼼 시민 지냥으로 나오난 니가 ᄒᆞ꼼 장석헤부나 허라 허난, 베똥줄을 자게 못 그찻주게. 아기 털어진 거만 그디 수건 시난 영영 머리 막 곶인 거 부떤, 는잘는잘 부뜨난 그거만 영 씨노렌 허난. 아이고, ᄋᆞ게, 힘내라 아이고 느가 장석 나왐구나 힘내라 허난 뭣 나왓수다. 뭣 나와시민 뒛저. 경헨 이젠 방석 나오난 그 베똥줄을 아기신디레 가게 영영 훌터.(조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모두 나와야 한다, 무엇이요? 또 아기요? 아니야, 또 조금 있으면 자기대로 나오니까 네가 조금 '장석'하거나 하라 하니까, 탯줄을 빨리 못 잘랐지. 아기 떨어진 거만 거기 수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머리 막 곶은 거 붙었어, '는잘는잘' 붙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아이고, 응, 힘내라 아이고 네가 '장석' 나오는구나 힘내라 하니까 뭐 나왔습니다. 뭐 나왔으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젠 태반 나오니까 그 탯줄을 아기에게 가게 이렇게 이렇게 홅어.)

112002 @ 응.(응.)

112002 # 훌텅인에 베똥줄 어느 정도 뒈민 양펜이 졸라메어, 실로이. 실로 양펜이 졸라멩 가운딜로 ᄀᆞ새로 그창 이건 또시 보리낭 꼴아나난 보리낭 신 디 내불곡 이건 또 아기신디레 지성귀레 영 낄영 그자. 겡 그 집이 아기 시 개 내완. 똘도 또 다음도 똘 난에. 이젠 눈 팡팡허는디 이디 문 종가부난 저 밧들로 오란 삼춘, 삼춘. 누게고 허난 아이고 집이사름 막 아판 죽어감수다게. 재게 옵서게. 아이고 이 눈 온 디 어떵 가느니, 아이고 와줍서, 와줍서 허난. 올레로 문 열안 가난 눈이 어떻게 와신디 팡팡 빠지멍 저 독고동산 물 신 동넬 올라가시녜. 올라가난 아이고 죽어지쿠다, 아이고 죽어지쿠다 허멍 허연, 친정어멍 이젠 저 동부락에 살레 가도, 친정어멍도 오도 안허고 아이고 죽어지쿠덴 허멍, 아이고 이번은 어뜨난 영 오래니게, 힘 더 내라, 내라 허멍 막 허연. 밤새낭 퍼들단 나라게.(홅어서 탯줄 어느 정도 되면 양편에 졸라매, 실로. 실로 양편에 졸라매서 가운데로 가위로 잘라서 이건 또 보릿대 깔아서 보릿대 있는 데 내버리고 이건 또 아기에게 기저귀에 이렇게 끌여서 그저. 그래서 그 집에 아기 세 개 낳게 했어. 딸도 또 다음도 딸 낳아서. 이젠 눈 팡팡하는데 여기 문 잠가버리니까 저 밭들로 오니까 삼촌, 삼촌. 누군고 하니까 아이고 집 사람 아주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게 오세요. 아이고 이 눈 왔는데 어떻게 가니, 아이고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니까 올레로 문 열어서 가니까 눈이 어떻게 왔는데 팡팡 빠지면서 저 '독고동산' 물 있는 동네를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해서, 친정어머니 이젠 저 동부락에 살러 가도, 친정어머니도 오지도 않고 아이고 죽겠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번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오래니, 힘 더 내라, 내라 하면서 막 했어. 밤새도록 '퍼들단' 낳더라.)

112002 @ 응.(응.)

112002 # 난 건 보난 조젱이난 아이고 아덜이여. 애씨게 허난 이번은 아덜 낫저.(난 그건 보니까 '조젱이'니까 아이고 아들이야. 애쓰게 하니까 이번은 아들 낳았다.)

112002 @ 하하하.(하하하.)

112002 # 소나 새끼난에 더 니 못 젼디엇구나 허멍 경헨 이젠 베똥줄 끈언에 이젠 ᄐᆞ로 방석은 방석대로 놔두고 물, 서방ᄀᆞ라 데우렌 헨에, 물 ᄋᆞ져오렌 헨에, 건 거 아기 따깐에 지성귀에 뭉두크련 눅져두고 헨, 아기 나멍 치메 입언 아기 낫주게, 게난 그 치메영 ᄀᆞᆯ안 앚인 방석이영 피 부뜬 거, 그때 눈 팡팡 오난에 어멍이 ᄲᆞᆯ아 주느냐? 그 똘 난 때도 애기 아방이 ᄲᆞᆯᄀᆞ렌. ᄲᆞᆯ지 안허영. 어멍이 궂인 거 안 ᄲᅳ난. 경 허고렌 허곳데, 야 말치에 물 데우라, 물 데우멍 ᄲᆞᆯ앙인에 그 궂인 피 ᄀᆞᆯ이 ᄲᆞᆯ앙 두불 시불 ᄲᆞᆯ앙인에 창고에 널엉 내불민 풀어졋다 ᄆᆞᆯ랏다 허주. 이 피 부뜬 거 이제 눈 녹도록 놔두민 누게가 ᄃᆞ시 ᄲᆞᆯ 거닌 허멍. 그거 이젠 물 데우라, 데우라 허멍 아래 ᄀᆞᆯ아난 거영 아기 난 거영 시 번, 니 번 붉은 물 안 나도록 물 데우멍 데우멍 ᄲᆞᆯ안 창고에 널어뒨 오라시네.(사내 새끼니까 더 너 못 견뎠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젠 탯줄 잘라서 이젠 따로 방석은 방석대로 놔두고 물, 서방보고 데우라고 해서, 물 가져오라 해서, ‘건’ 거 아기 닦아서 기저귀 ‘뭉두크련’ 눕혀두고 해서, 아기 낳으면서 치마 입어서 아기 낳지, 그러니까 그 치마랑 깔아서 앉은 방석이랑 피 붙은 거, 그때 눈 팡팡 오니까 어머니가 빨아주느냐? 그 딸 낳은 때도 아기 아버지가 빨았다고. 빨지 않고. 어머니 궂은 거 안 빠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야 말치에 물 데워라, 물 데워라 빨아서 그 궂은 피 깨끗이 빨아서 두벌 세벌 빨아서 창고에 널어서 내버리면 풀어졌다 말랐다 하지. 이 피 붙은 거 이제 눈 녹도록 놔두면 누가 또 빨 거냐고 하면서. 그거 이젠 물 데워라, 데워라 하면서 아래 깔았던 거랑 아기 낳은 거랑 세 번, 네 번 붉은 물 안 나도록 물 데우면서 데우면서 빨아서 창고에 널어두고 왔어.)

112002 @ 응.(응.)

112002 # 널어뒨 오난 그 ᄀᆞ슬 드난에 그 여름 나고 ᄀᆞ슬 드난에 산뒤 허연 먹어신ᄀᆞ라 산뒤ᄉᆞᆯ ᄒᆞᆫ 말을 ᄋᆞ젼 왓어라게. ᄋᆞ젼 오라시난에 우리 아기 시 개 내왕 산뒤 ᄉᆞᆯ ᄒᆞᆫ말이 하냐?(널어두고 오니까 그 가을 드니까 그 여름 나고 가을 드니까 밭벼 해서 먹었는지 밭벼 한 말을 가져 왔더라. 가져 왔으니까 우리 아기 세 명 나오게 해서 밭벼 쌀 한 말이 많니?)

112002 @ 하하하.(하하하.)

112002 # 우리 하르방은 소파에 톡 앚곡 헌 디서 더러만 두 뒈만 거려줭 두 뒈랑 줘불카 생각헷는디, 아기 시 개 내우난 이젠 하나 내와도 어려운디 시 개ᄁᆞ지 내왕은에 이 양말 ᄒᆞᆫ 테기도 안 헌 거 이거 비와도 숭은 안 헐테주 허난, 야 그 그 ᄉᆞᆯ ᄒᆞᆫ 말 비와 아지난이 저슬에 난 건디 새ᄀᆞ슬 들언엔 ᄉᆞᆯ은 ᄋᆞ져온디 바구리 주난 이 재게 일어산 가질 아녀라게. 아무거엔도 ᄀᆞᆫ지 안허고이.(우리 할아버지는 소파에 톡 앉고 한 데서 더러만 두 되만 떠주고 두 되랑 줘버릴까 생각했는데, 아기 세 명 받으니까 이젠 하나도 낳게 하기도 어려운데 세 명까지 받아서 이 양말 한 켤레도 안 한 거 이거 비워도 흉은 안 하겠지 하니까, 야 그 그 쌀 한 말 비워 가지고 겨울에 낳은 건데 새 가을 들어서 쌀은 가져왔는데 바구니 주니까 재게 일어서서 가

질 않더라. 아무거라고도 말하지 않고.)

112002 @ 무사? 응.(왜? 응.)

112002 # 쏠 흔 말 나 다 비와 아지난산디사이. 아무거엔도 곧지 안허고 ᄀᆞ만이 멧 시간 앚아. 앚안에 나가 깜자기 생각이, 아이고 내가 잘못헤졋구나.(쌀 한 말 나 다 비워 가지니까인지. 아무거라고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몇 시간 앉아. 앉아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112002 @ 응.(응.)

112002 # 두 뒈만 거려줭 그냥 가렌 허컬 나가 너미 욕심부려졋구나. 아기 시 개 내왕은에 쏠 흔 말이 하냐?(두 되만 떠줘서 그냥 가라고 할걸 내가 너무 욕심 부렸구나. 아기 세 명 받아서 쌀 한 말이 많니?)

112002 @ 응.(응.)

112002 # 경 헷구나 허연, 하르방 엇어시민 무사 니 그디 앚안디? 나 흔 말 ᄋᆞ져부난 섭섭허냐 헹 확허게시리 구덕 ᄋᆞ정강 둬 뒈 거려주지도 기룬 생각이 나도, 하르방 시난이 아기 멧 개 내왕인에 그거 흔 말이 하랴 흔 생각에 안 헷주. 어느 때 앚앗단 간게 다음은 아기 배난이 날ᄀᆞ라 왕 내와도렌 안 허여.(그랬구나 해서, 할아버지 없었으면 왜 너 거기 앉았니? 나 한 말 가져버리니까 섭섭하냐 해서 확하게끔 바구니 가져가서 둬 되 떠주고 싶은 생각이 나도, 할아버지 있으니까 아기 몇 개 받고 그거 한 말이 많으랴 한 생각에 안 했지. 어느 때 앉았다가 갔는데 다음은 아기 배니까 나보고 와서 받아 달라고 안 해.)

112002 @ 하하.(하하하.)

112002 # 내와도렌 안 헨에 지네 아주망 아무 분수대가리도 모른 거 돌안 뎅기단 시간은 오바 뒈부난 이젠 서구포 가난 아기 오꼿 거꾸로 뒈불언.(받아 달라고 않고 자기네 아주머니 아무 분수대가리도 모른 거 데리고 다니다가 시간은 오버 돼버리니까 이젠 서귀포 가니까 아기 그만 거꾸로 되어버렸어.)

112002 @ 아.(아.)

112002 # 거꾸로 뒈부난이 양착, 거꾸로 뒈도 바로, ᄎᆞ례로 두 개, 가달 하나만 발로 나오게 뒈불언.(거꾸로 되어버리니까 양쪽, 거꾸로 돼도 바로, 차례로 두 개, 다리 하나만 발로 나오게 되어버렸어.)

112002 @ 아이고, 아이고. 어떵 헤?(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

112002 # 그런 사름이 못뒌 몽니 아지민 쉐로 아다루[227]허여. 그 쏠 흔 말이 하냐?(그런 사람이 못된 몽니 가지면 죄로 '아다루'해. 그 쌀 한 말이 많니?)

112002 @ 게난예.(그러니까요.)

112002 # 나신디 와시민 술술 쓸엉 ᄎᆞ례로 앚정이, 아팡 허민 앚정인에 집이서 아기 나나곡 허난 헐 건디 서구포 간에 퍼들단 서구포서 아이 뒈난 어디 다른 드레 가단에 벵원장 불런에 이젠 지네 아주망, 아무 분수대가리도 몰른 아주망 영 헨에 불런에 이젠 또 빙원에 가난 디 간 불런 보난, 거꾸로 뒈언에 문 아기가 문 잡아

227) '아다루'는 일본어 'あたる'에서 온 말로 '적중하다', '들어맞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왓단다. 사름이 그렇게 헤여.(나에게 왔으면 살살 쓸어서 차례로 앉혀서, 아파서 하면 앉혀서 집에서 아기 낳았었고 하니까 할 건데 서귀포 가서 '퍼들단' 서귀포서 안 되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다가 병원장 불러서 이젠 자기네 아주머니, 아무 분수도 모른 아주머니 이렇게 해서 불러서 이젠 또 병원에 갔던 데 가서 불러서 보니까, 거꾸로 되어서 모두 아기가 모두 잡아서 나왔다더라. 사람이 그렇게 해.)

112009 @ 응. 게난 아까 마누라 안 허게 허젠 허민 어떵허민, 어떵허는 방법이 이신가?(응. 그러니까 아까 천연두 안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112009 # 빙원에 다 저 주사 놓으민[노민].(병원에 다 저 주사 놓으면.)

112009 @ 아니, 옛날에게.(아니, 옛날에.)

112009 # 옛날엔 없엇어.(옛날엔 없었어.)

112009 @ 그냥 내불어사 뒈어.(그냥 내버려야 돼.)

112009 # 응, 그냥 내불어. 옛날엔 없엇어.(응, 그냥 내버려. 옛날엔 없었어.)

112009 @ 마누라 허민 어떵 헤?(천연두 하면 어떻게 해?)

112009 # 마누라 어떠헤게. 몸 조심혜영인에 동넷사름ᄀᆞ라도 집이 나그네 들엇젠 헹은에 오지도 못허게 허고 정성 들영 집이서 아기 ᄇᆞ름도 쒜우지 말곡 곱게 살당인에 곱게 뒈는 사름 싯고 또 잘못헹 누게 오랑 고제[228] 풀아불민이.(천연두 어떻게 해. 몸 조심해서 동네 사람보고도 집에 '나그네' 들었다고 해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정성 들여서 집에서 아기 바람도 쏘이지 말고 곱게 살다가 곱게 되는 사람 있고 또 잘못해서 누구 와서 '고제' 팔아버리면.)

112009 @ 무신거 풀아불민?(무엇 팔아버리면?)

112009 # 고제 풀아불민.('고제' 팔아버리면.)

112009 @ 고제가 뭐?('고제'가 뭐?)

112009 # 무시거엔 정체 엇은 소리 헤불민.(무엇이라고 정처 없는 소리 해버리면.)

112009 @ 아.(아.)

112009 # 마누라 허민 뭣을 나.(천연두 하면 무엇을 나.)

112009 @ 응.(응.)

112009 # 경 허민 뭣이엔 정체 엇은 소리 헤불민 아기 덩티 낭인에 안 뒈곡 허주게. 또 ᄒᆞᆫ 집인 메누리 쳇 애기 남젠 허멍 오랑 내와도렌 허멍 간 밤새낭 허연 ᄒᆞ룻밤 ᄒᆞ룰 허엿는디 닐은 이제 아기 머리 ᄀᆞᆷ, 머리 ᄆᆞᆷ ᄀᆞᆷ는 날이난 시어멍이 밥헐 거냐게? 친정어멍이 쏠 ᄋᆞ젼완 밥헐 건디. 요 집이 할망인디 낼 아칙이랑 오랑인에 밥 먹어. 야, 낼 아칙 우리 집이 아덜 성제 싯지, 하르방 싯지, 나만 강 밥 먹으민 뒈느냐?(그러면 무엇이라고 정체 없는 소리 해버리면 아기 동티 나서 안 되고 하지. 또 한 집은 며느리 첫 아기 낳는다고 하면서 와서 받아 달라고 하면서 가서 밤새도록 해서 하룻밤 하룰 했는데 내일은 이제 아기 머리 감, 머리 몸 감는 날이

228) '고제'는 실없거나 믿을 수 없는 말 따위를 말한다.

니까 시어머니가 밥할 거냐? 친정어머니가 쌀 가져와서 밥할 건데. 요 집 할머닌데 내일 아침이랑 와서 밥 먹어. 야,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아들 형제 있지, 할아버지 있지, 나만 가서 밥 먹으면 되느냐?)

112009 @ 하하하.(하하하.)

112009 # 밥 흔 사발 흐영 우정 오랑 먹으렌 헹 줄 거주. 지가 밥헐 거냐게, 사둔이 쏠 우정왕 밥헐 거주게. 괘씸헤연, 다음에 아기뻬 맞촷젠 허난 나 아팡 못 가켄. 다음엣 애긴 아팡 못 가켄 헨 나 안 가난 도레 싯저.(밥 한 사발 해서 가져와서 먹으라고 해서 줄 거지. 자기가 밥할 거냐, 사돈이 쌀 가져와서 밥할 거지. 괘씸해서, 다음에 '아기뻬' 맞춰서 하니까 나 아파서 못 가겠다고. 다음의 아긴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해서 나 안 가니까 도리 있어.)

112010 @ 애기 날 때 이런 거 하민 안 뒌다 뭐 이런 거 이서? 뭐 조심헤야 뒌다.(아기 낳을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어? 뭐 조심해야 된다.)

112010 # 게, 입도 조심허고 그자 누게신디레 고제 엇이 곧도 말고 젯 아니 남젠도 곧지 못허곡, 젯 안 남젠 허민 젯 탁 가돠불어.(그러게, 입도 조심하고 그저 누구에게 '고제' 없이 말하지도 말고 젖 안 난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젖 안 난다고 하면 젖 탁 가둬버려.)

112010 @ 아.(아.)

112010 # 젯 영 안 나. 게난 애기 어멍신디서도 아무거엔도 곧지 말곡 경헤사여. 게난 요 집이 사름은 아기 나난 큰메누리 아기 나난, 큰큰헌 스뎅 낭푼으로 밥 하나 허고 큰큰헌 냄비로 우리 집이 아덜 성제허고 하르방이영 너으 먹으렌, 아 이거 무시거 허젠 우리 집이 무슨 잔치 헴수광? 이추룩 설러 옵디강 허난 아이고 그거 어떵헌 일이고이, 아시 줌줌헹 먹으라 허멍. 아주방이영 먹게시리 니만 먹으민 뒈느냐 아주방이영 아이덜이영 먹게 우져왓젠 허영. 나 덕분에 요디 우리 요 담배집, 요 질 우녁집 큰 집 동녘집이 살 때난 그 집이 담뱃집이 하르방신디도 아기밥, 조케 간 아기 내왓젠 허멍, 조케 간 아기 내우난 나안티 아기밥 우져왓어라 허멍.(젖 이렇게 안 나. 그러니까 아기 어머니에게도 아무거라고도 말하지 말고 그래야 해. 그러니까 요 집의 사람은 아기 낳으니까 큰며느리 아기 낳으니까, 크디큰 스테인리스 양푼으로 밥 하나 하고 크디큰 냄비로 우리 집 아들 형제하고 할아버지랑 넷이 먹으라고, 아 이거 무엇 하려고 우리 집에 무슨 잔치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설러' 왔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한 일이고, 아우 잠잠해서 먹어라 하면서. 아주버니랑 먹게끔 너만 먹으면 되느냐 아주버니랑 아들이랑 먹게 가져왔다고 하면서. 나 덕분에 요기 우리 요 담뱃집, 요 길 우녘집 큰 집 동녘집에 살 때니까 그 집에 담뱃집이 할아버지에게도 '아기밥', 조카 가서 아기 받았다고 하면서, 조카 가서 아기 받으니까 나에게 '아기밥' 가져왔더라 하면서.)

112010 @ 예.(예.)

112010 # 에이구, 사름덜 경 좋은 사름도 이서.(에이구, 사람들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어.)

112010 @ 아기 날 때 막 무슨 궤문도 열라 영헌덴 헨 게마는 건 무신거?(아기 낳을 때 막 무슨 궤문도 열어라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마는 그건 무엇?)

112010 # 궤문 열라 무시거 허렌 헨 아기가 막 애기 어멍 이녁 힘은 안 쓰곡 놈이 힘만 허젠 아이고 죽어지켜, 죽어지켜 엄살허는 사름이 싯나게. 나 곳사 안 골아냐. 힘은 안 쓰곡이 놈의 힘으로만 허젠 허민 그 사름이 입으로 보통 말이 안 허더라게. 겨근에 그 봇채 나오난에 그 할망덜 아기가 아니옌 헨게.(궤문 열어라 무엇 하라고 해서 아기가 막 아기 어머니 자기 힘은 안 쓰고 남의 힘만 하려고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엄살하는 사람이 있어. 나 아까 안 말하더냐. 힘은 안 쓰고 남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입으로 보통 말을 안 하더라. 그래서 그 태반째 나오니까 그 할머니들 아기가 아니라고 했어.)

혼례

112011 @ 옛날 결혼, 옛날 결혼헐 때 어떵어떵 헹은에 헤신디 순서대로.(옛날 결혼, 옛날 결혼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순서대로.)

112011 # 엿날. 나 열일곱에, 열일곱 설에 그때 군인들 저레 간덴 허난 ᄌᆞ원헹덜 주젠 헤신ᄀᆞ라 열일곱 술에 열여섯 살 난 사름안티 시집을 가게 뒈어.(옛날. 나 열일곱에, 열일곱 살에 그때 군인들 저리 간다고 하니까 자원해서들 주려고 했는지 열일곱 살에 열여섯 살 난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

112011 @ 멧 살?(몇 살?)

112011 # 열여섯, 한 살 알.(열여섯, 한 살 아래.)

112011 @ 열네 살. 열여섯 살. 한 살 아래.(열네 살. 열여섯 살. 한 살 아래.)

112011 # 응, 한 살 아래. 겨난 대띠가 맞덴 헨 이젠. 부젯칩이엔 헨 시집가렌 헨 시집을 가젠 허난, 그 사름네 삼월에 어디 우리 저 보성 살아난에 보성 우이 어디 산소에 오란에 그 묘제, 묘제 헨 가단이 이 집이 처갓칩이엔 그 늙은 어른덜 장게 올 사름이엔 골으난 새서방은 올레에 ᄀᆞ만이 사고 우리 마당에 들어오란 계시꽝, 계시꽝 허난 오라가멍 곧는 소리 나난이 바싹 부치르완이.(응, 한 살 아래. 그러니까 대띠가 맞다고 해서 이젠. 부잣집이라고 해서 시집가라고 해서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네 삼월에 어디 우리 저 보성 살았으니까 보성 위에 어디 산소에 와서 그 묘제, 묘제 해서 가다가 이 집에 처갓집이라고 그 늙은 어른들 장가 올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새신랑은 올레에 가만히 서고 우리 마당에 들어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와가면서 말하는 소리 나니까 바싹 부끄러워서.)

112011 @ 응.(응.)

112011 # 요샌 엿날은 다, 바싹 부치르완, 엿날 장독 놓는 디가 이서. 장팡뒤엔 헌 디, 그디 간 ᄀᆞ만이 곱으난 아, 사름은 이슨 거 닮은디 물 좀 먹쿠다, 물 좀 먹쿠다, 물 먹으레 오라근에 정제 오랑 뒷문 열민 어떵허리 헨 가슴이 탕탕헤도 계시꽝, 계시꽝 드러 그 궨당덜이 오란에 경 허고 ᄉᆞ나 사름은 보난 ᄀᆞ만이 날보다 밋틔 사름이난 ᄀᆞ만이 산 거 영 보난 셔도 대답 안 헷주게. 대답 안 헨 그 새서방은

이디 디물아근에 물 먹켄 허렌 막 헤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완에. 가을 드난에 시집을 가게 뒌 거라이.(요샌 옛날은 다, 바싹 부끄러워서, 옛날 장독 놓는 데가 있어. 장독대라고 한 데, 거기 가서 가만히 숨으니까 아, 사람은 있는 거 같은데 물 좀 먹겠습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물 먹으러 와서 부엌 와서 뒷문 열면 어떻게 하리 해서 가슴이 탕탕해도 계십니까, 계십니까 들이 그 권당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사내 사람은 보니까 가만히 나보다 밑에 사람이니까 가만히 선 거 이렇게 보니까 있어도 대답 안 했지. 대답 안 하고 그 새신랑은 여기 들이밀어서 물 먹겠다고 하라고 막 해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와서. 가을 드니까 시집을 가게 된 거야.)

112011 @ 응.(응.)

112011 # 이젠 이불을 헤살 거 아니라.(이젠 이불을 해야 할 거 아니냐.)

112011 @ 응.(응.)

112011 # 이불을 허젠 허난 우리 어머니 일본, 저 시에 강인에 당신네 오라방 메누리안티 강 이불 기지 강 끊어오렌. 저 끊어줍센 헨 끊어오렌 헨에 이젠 가난에 이불 두 채허곡 요 우알 채 끊어오렌 허난 가난에 그디 우리 아주망이 일본서 온 어른이 양단으로 이불 껍데기 허고 또시 저 붉은 걸론 요 껍데기 헨 이불 두 개 헤 줘라게. 경헨 베개도 집이서 허고 헨. 이녁 멘네 갈안 이불 허고 허연. 이젠 잔치허게 뒈난 도야지 잡는 거 아니. 이제 잔치 날짜 돌아오난에 새서방허고 시아방허고 오는 거데.(이불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일본, 저 시에 가서 당신네 오라버니 며느리한테 가서 이불 감 가서 끊어오라고. 저 끊어달라고 해서 끊어오라고 해서 이젠 가니까 이불 두 채하고 요 위아래 채 끊어오라고 하니까 가니까 거기 우리 아주머니 일본에서 온 어른이 양단으로 이불 껍데기하고 또 저 붉은 걸론 요 껍데기 해서 이불 두 개 해 주더라. 그래서 베개도 집에서 하고 해서. 자기 목화 갈아서 이불 하고 해서. 이젠 잔치하게 되니까 돼지 잡는 거 아니. 이제 잔치 날짜 돌아오니까 새신랑하고 시아버지하고 오는 거대.)

112011 @ 응.(응.)

112011 # 오란이 인사허연이.(와서 인사 해서.)

112011 @ 물 탕 와?(말 타고 와?)

112011 # 아니, 저 잔치 미릇 허기 전이.(아니, 저 잔치 미리 하기 전에.)

112011 @ 아, 허기 전이.(아, 하기 전에.)

112011 # 응, 이제 영 소개허연 영 인서왓젠 헨, 새서방이영 시아방이영 완 인서허는디 우리 아버지가 셋넌 나오랑인에 인사드리라, 드리라 헤도 안 드리난에, 장팡뒤에 간 또 곱아불어시녜. 곱아부난 셋넌 어디 가니, 어디 가니 허난 우리 밋틔 아시가 언니 벌써 올레 나가불엇수다, 그래.(응, 이제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인사 왔다고 해서, 새신랑이랑 시아버지랑 와서 인사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딸 나와서 인사드려라, 드려라 해도 안 드리니까, 장독대에 가서 또 숨어버렸어. 숨어버리니까 둘째딸 어디 갔니, 어디 갔니 하니까 우리 밑의 아우가 언니 벌써 올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112011 @ 응.(응.)

112011 # 경 허난 그 새서방 아방이 뒛수다, 뒛수다 그래. 겐 올레 나가불엇젠 허난 뒛젠 헨 기냥 마지막 이제 고생허영 잔치헙센 헌 말 허연 간디 이젠 뭣을 새각시, 세계 시집갓어, 내가.(그러니까 그 새신랑 아버지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올레 나가버렸다고 하니까 됐다고 해서 그냥 마지막 이제 고생해서 잔치하라고 한 말 해서 갔는데 이젠 무엇을 새색시, 사계 시집갔어, 내가.)

112011 @ 응, 덕수 아니고?(응, 덕수 아니고?)

112011 # 응. 세계 시집 가난이 흔 술 밑이난이 그때이 그 사름은 게다 신엉은에 혹교 뎅길 때라. 게다 신엉, 그 낭토막 게다.(응. 사계 시집 가니까 한 살 밑이니까 그때 그 사람은 왜나막신 신어서 학교 다닐 때야. 왜나막신 신어서, 그 나무토막 왜나막신.)

112011 @ 응.(응.)

112011 # 신덜이 없어. 시집 가난인 난 밤이 눅지 안헹 둘아나불엄시녜게. 밤이 눅지 안허영 흔 술 밑이고, 그건이 쩨끌락헌 것이 담배 피우고이.(신들이 없어. 시집 가니까 난 밤에 눕지 않고 달아나버리고 있었어. 밤에 눕지 않고 한 살 밑이고, 그건 쪼끄마한 것이 담배 피우고.)

112011 @ 아.(아.)

112011 # 술도 먹곡 허난이 밉성발란 이제 어린 것이 술도 먹엄젠 밉성발란 둘아나불언, 안 살안.(술도 먹고 하니까 밉상스러워서 이제 어린 것이 술도 먹는다고 밉상스러워서 달아나버렸어, 안 살아서.)

112011 @ 안 살안. 하하하.(안 살아서. 하하하.)

112011 # 응, 큰큰헌 게다 신엉은에 저 화순 국민혹교 으성으성 강오곡이.(응, 크디큰 왜나막신 신어서 저 화순 국민학교 으상으상 갔다오고.)

112011 @ 응.(응.)

112011 # 경헹은에 밤이 누렌 허민 저끗듸레 오라 가민 발로 차불민 바들랑바들랑 싸와가민 시어멍넨 동녘방에 자고 우린 서녘방에 자민 무시거 ᄃᆞ탐지, 무시거 ᄃᆞ탐지 허멍 쌉지 말라, 쌉지 말라. 저 무슨 애기엔 헷어, 날ᄀᆞ라. 무슨 애기 쌉지 말라, 쌉지 말라 그추룩 허멍. 경헹인에 이젠 물에 가고렌 물질에 강오멍 보민 정제서 불 솜으멍 시어멍이 불 솜으멍 아덜은 불 솜는 저끗디 가민 그거 제왕인에 곡누들지[229] 못허크넨, 경헤라게.(그렇게 해서 밤에 누우라고 하면 곁에 와 가면 발로 차버리면 바들랑바들랑 싸워가면 시어머니네는 동녘방에 자고 우린 서녘방에 자면 무엇 다투니, 무엇 다투니 하면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저 무슨 아기라고 했어, 나보고. 무슨 아기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처럼 하면서. 그래서 이젠 물에 간다고 물질하러 다녀오면서 보면 부엌에서 불 때면서 시어머니가 불 때면서 아들은 불 때는 곁에 가면 그거 겨워서 '곡누들지' 못하겠냐고, 그렇게 하더라.)

112011 @ 응.(응.)

229) '곡누들다'는 힘이나 무게를 가하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다는 뜻이다.

112011 # 곡누들지 못허크넨 허멍 허난 즘즘 아덜은 대답도 안허고. 그거 제왕 곡누들지 못헹 경 밤새낭 픅들랑픅들랑 싸왐젠. 경 허단 오꼿 나 돌아나불어시네. 그디 안 살안.('곡누들지' 못하겠냐고 하면서 하니까 잠잠 아들은 대답도 않고. 그거 겨워서 '곡누들지' 못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픅들랑픅들랑' 싸운다고. 그렇게 하다고 그만 나 달아나버렸어. 거기 안 살아서.)

112011 @ 아.(아.)

112011 # 돌아난에 그 사름 군인 간에 제대헨 오란이 나신디 와. 살겐. 와도 안 살켄 헷주게. 안 살켄 허단에 우리 큰뚤 아방 일본 간 오난에 이제 장게가젠 헴젠 허난에 그디 셋시누이가 우리 동네 시집오란.(달아나서 그 사람 군대 가서 제대해서 와서 나에게 와. 살자고. 와도 안 살겠다고 했지. 안 살겠다고 하다가 우리 큰딸 아버지 일본 갔다 오니까 이제 장가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 둘째시누이가 우리 동네 시집 왔어.)

112011 @ 응.(응.)

112011 # 사난에 우리 오라방이영 이제 육지 강은에 살렌 헨 보난이 사름도 일본서 배우고이 또시 점잖허고 경 허난에 이제 가켄 헷주게. 가켄 헨 또 그디 또 시집가나도 시집가는 거추룩 헤연 그디 간 그 일가서 잔치 근사허게 헨 먹고이 사진도 그디서도 치고. 이디 간은 사진도 안 치고. 엿날식이난이 안 치고 그치룩헤연 그 사름이영 살앗주게.(사니까 우리 오라버니랑 이제 육지 가서 살라고 해서 보니까 사람도 일본에서 배우고 또 점잖고 그러니까 이젠 가겠다고 했지. 가겠다고 해서 또 거기 또 시집갔어도 시집가는 거처럼 해서 거기 가서 그 일가에서 잔치 근사하게 해서 먹고 사진도 거기서 찍고. 여기 가서는 사진도 안 찍고. 옛날식이니까 안 찍고 그처럼 해서 그 사람이랑 살았지.)

112011 @ 아.(아.)

112011 # 게난 장게 시집간 것이 너미 어린 때 가민 못써.(그러니까 장가 시집간 것이 너무 어릴 때 가면 못써.)

112011 @ 게난 덕수 간 건 멧 살에 간 거꽈? 멧 살에?(그러니까 덕수 간 건 몇 살에 간 겁니까? 몇 살에?)

112011 # 그땐 스무나믄 낫주게. 읔앗주게.(그땐 스무남은 났지. 컸지.)

112011 @ 흐꼼 읔안예.(조금 커서요.)

112011 # 읔고 막 놀아뎅기멍 ᄉᆞ뭇 이녁도 처녀 빗나게 놀아뎅기고 놀아뎅길 만이 놀아뎅기고 ᄉᆞ뭇 들 돌아뎅기단 우리 동네 일본서 온 사름 시누이가 일본서 오란에 날 봐지난 아이고 우리 아지망 허라, 우리 아지망 허라 허멍 나 처녀카부덴 경 허난 나 시집 가난디, 가난디. 아이고 가나도 좋다게, 가나도 좋다게, 이.(크고 막 날아다니면서 사뭇 자기도 처녀 비싸게 날아다니고 날아다닐 만큼 날아다니고 사뭇 들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동네 일본서 온 사람 시누이가 일본에서 와서 나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주머니 해라, 우리 아주머니 해라 하면서 나 처녀일까 봐 그렇게 하니까 나 시집 갔었는데, 갔었는데. 아이고 갔어도 좋다, 갔어도 좋다, 응.)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 경헤연 이젠 오레빌 보낸 거라. 보내난 아메도 배우고 날보단 우잇사름이고 허난 점잖여라게. 우리 영 오랑인에 혼번 봥인에 ᄆᆞ음에 잇으민 따시 지네 누님안티 말허민 오곡 또 싫덴 허는 사름신디 강도 재미도 엇곡 그러니까 그럽시다 허멍 일본말로 ᄀᆞᆯ아라게. ᄀᆞᆯ으난 알앗젠 헨 나도 대답헤연. 사름이 점잖허고 또 일본서 오란 서울 간 산덴 허고 재산도 많고 나 시집간 딘 재산은 엇어. 막둥이 아들이고이. 우로 아덜 시 성젠디 큰아덜은 죽어불고 뚤도 엇은 집이. 재산도 엇고 헌 집이 그자 사름이 순허덴 허연에 헤도 순허민 순헌 깝허주. 술은 고래.(그래서 이젠 오라비를 보낸 거야. 보내니까 아무래도 배우고 나보다 윗사람이고 하니까 점잖더라. 우리 이렇게 와서 한번 봐서 마음에 있으면 다시 자기네 누님한테 말하면 오고 또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하면서 일본말로 말하더라. 말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나도 대답했어. 사람이 점잖고 또 일본서 와서 서울 가서 산다고 하고 재산도 많고 나 시집간 덴 재산은 없어. 막둥이 아들이고. 위로 아들 삼 형젠데 큰아들은 죽어버리고 딸도 없는 집. 재산도 없고 한 집에 그저 사람이 순하다고 해서 해도 순하면 순한 값하지. 술은 고래.)

112011 @ 누게가?(누가?)

112011 # 문저 시집가난 사름은.(먼저 시집갔던 사람은.)

112011 @ 아.(아.)

112011 # 술을 망창 먹엉 오민이 밤이 죽어도 몰르고 살아도 몰라. 경 허난 뭐 무슨 나가 ᄒᆞ쏠 경험이 서사 달램이라도 허지이.(술을 흥청망청 먹어서 오면 밤에 죽어도 모르고 살아도 몰라. 그렇게 하니까 뭐 무슨 내가 조금 경험이 있어야 달래기라도 하지.)

112011 @ 어린 나이에 무슨.(어린 나이에 무슨.)

112011 # 게메, 경 허민 그자 비들랑비들랑. 그거 잘 때 새벡이도 집이 오라불고. 집이 오민 아버진 아, 뭘 허젠 완딘 허멍 막 욕헤가민 말도 안 ᄀᆞᆫ곡, 술만 먹곡, 담배만 피우곡 경헴젠 허멍.(그러게, 그러면 그저 바들랑바들랑. 그거 잘 때 새벽에도 집에 와버리고. 집에 오면 아버진 아, 뭘 하려고 왔냐고 하면서 막 욕해가면 말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 흑교 뎅기난게이.(학교 다니니까.)

112011 @ 예.(예.)

112011 # 경 헨에 허난 아이고 기자 사돈에 속안 잔치헌 거 닮다, 닮다 허멍 아이 가크라 아이 가크라 허멍 ᄃᆞᆯ아난 뎅기고 그추룩 허단 덕수 갓주게.(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이고 그저 사돈에 속아서 잔치한 거 같다, 같다 하면서 안 가겠어 안 가겠어 하면서 달아나서 다니고 그처럼 하다가 덕수 갔지.)

112011 @ 결혼식은 허젠 허민 처음에 가문잔치.(결혼식은 하려고 하면 처음에 '가문잔치'.)

112011 # 그때 시집갈 때 결혼식 허고 안허고이. 가문잔칫날 도새기 잡앙 일가 어른덜 먹엉 우리 시집갈 땐. 경헹인에 새서방 오민 상 앚지민 정말로 새서방 대반 앚이난 그땐이 가메도 엇어, 나 시집갈, 가메 아니 도께.(그때 시집갈 때 결혼식하고 안 하고. '가문잔칫날' 돼지 잡아서 일가 어른들 먹어서 우리 시집갈 땐. 그렇게 해서 새신랑 오면 서서 앉으면 정말로 새신랑 대반 앉으니까 그땐 가마도 없어, 나 시집갈, 가마 아니 독교.)

112011 @ 도께.(독교.)

112011 # 도껜디 이젠 ᄆᆞᆯ 메완이.(독교인데 이젠 말 메워서.)

112011 @ 응.(응.)

112011 # 도께에 ᄆᆞᆯ 앞뒤터레 영 메왕인에 그치룩 허민 도께에 타렝 허난에 이 불은 이제 우리 ᄆᆞ을에서 일보는 어른ᄀᆞ라 져 가렌 허곡 헨에 남저 어른은 ᄆᆞᆯ 중메 들러근에 '호옹호옹'허멍 세계ᄁᆞ지 갓주게.(독교에 말 앞뒤에 이렇게 메워서 그렇게 하면 독교에 타라고 하니까 이불은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일보는 어른보고 져 가라고 하고 해서 남자 어른은 말 '중메' 들어서 '호옹호옹'하면서 사계까지 갔지.)

112011 @ ᄆᆞᆯ 무신거 들렁?(말 무엇 들어서?)

112011 # ᄆᆞᆯ, ᄆᆞᆯ정매 이디.(말, 'ᄆᆞᆯ정매' 여기.)

112011 @ 정매?('정매'?)

112011 # 이거 모자 정매. 이거 들렁 이 대정골서 이 거리 나갈 때ᄁᆞ진 호옹호옹허당 거리 엇인 디 가민 즘즘헹 이꺼강 또 세계 지경 가난 호옹호옹허멍 들어가더라게.(이거 '모자 정매'. 이거 들어서 이 대정골에서 이 거리 나갈 때까진 '호옹호옹'하다가 거리 없는 데 가면 잠잠해서 이끌어가서 또 사계 지경 가니까 '호옹호옹' 하면서 들어가더라.)

112011 @ 예.(예.)

112011 # 들어가난에 이젠 마당에 간에 그 도께 세완 ᄆᆞᆯ 클런에 ᄆᆞᆯ 클러두고 도껜 그냥 마당 가운디 싯단에 이젠 대반 어른 오렌 헨 늙은 어른이 대반이대.(들어가니까 이젠 마당에 가서 그 독교 세워서 말 끌러서 말 끌러두고 독교는 그냥 마당 가운데 있다가 이젠 대반 어른 오라고 해서 늙은 어른이 대반이대.)

112011 @ 응.(응.)

112011 # 머리 영 예진 어른 대반 오란 날 영 손 심어단 구들에 앚젼. 밥, 그 어른 우선 나 상, 나신디레 밥 놓으난[노난] 우선 밥 뜨고 계란 하나 젭시에 톡허게시리 앗안에 상 알러레 놔뒨 이제랑 저 새각시 밥 먹어 영 헤여. 밥 먹을 생각도 안 나.(머리 이렇게 짠 어른 대반 와서 나 이렇게 손 잡았다가 방에 앉아서. 밥, 그 어른 우선 내 상, 나에게 밥 놓으니까 우선 밥 뜨고 계란 하나 접시에 톡하게끔 가져서 상 아래에 놔두고 이제랑 저 새색시 밥 먹어 이렇게 해. 밥 먹을 생각도 안 나.)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 밥 먹지도 안허고이.(밥 먹지도 않고.)

112011 @ 예.(예.)

112011 # 밥 숟구락 떠, 떠. 이 중방으로 앚인 어른, 저 새각시 밥 먹어사 나도 밥 먹을 건디 새각시 숟가락 심엉 밥 떠, 떠, 하도 허여가난 기냥 밥 무시거 흠발은 영 거련에 먹는 체허난 그 어른은 덤벅덤벅 먹언 아이고 새각신 밥도 안 먹언 수질허연 안 먹엄신가. 그 도께 탄에 오라나난 수질헨 안 먹엄신가. 먹고프도 안허고이 열일곱에 무슨.(밥 숟가락 떠, 떠. 이 중방으로 앉은 어른, 저 새색시 밥 먹어야 나도 밥 먹을 건데 새색시 숟가락 잡아서 밥 떠, 떠, 하도 해가니까 그냥 밥 무엇 조금은 이렇게 떠서 먹는 체하니까 그 어른은 '덤벅덤벅' 먹어서 아이고 새색신 밥도 안 먹어서 멀미해서 안 먹고 있는가. 그 독교 타서 와서 멀미해서 안 먹고 있는가. 먹고 싶지도 않고 열일곱에 무슨.)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 아이고 첨. 새서방은 열여섯에.(아이고 참. 새신랑은 열여섯에.)

112019 @ 게난. 대반허고 중방 다 ᄀᆞ치 안지는 거?(그러니까. 대반하고 중방 다 같이 앉는 거?)

112019 # 게난 대반 그 나 새각시 청허는 예펜 어른은 나영 ᄀᆞ치 앚아.(그러니까 대반 그 나 새색시 청하는 여자 어른은 나랑 같이 앉아.)

112019 @ 그 사름이 대반?(그 사람이 대반?)

112019 # 응.(응.)

112019 @ 중방은?(중방은?)

112019 # 그건 신랑 모시는 것이 중방이엔 허고.(그건 신랑 모시는 것이 중방이라고 하고.)

112019 @ 아, 신랑 모시는 건 중방. 새각시 모시는 건 대반.(아, 신랑 모시는 건 중방. 새색시 모시는 건 대반.)

112019 # 대반.(대반.)

112019 @ 건 어뜬 사름이 허는 거꽈?(그건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112019 # 새각시 모시는, 안트레 들이는 시집강인에 아기도 잘살고 복좋게[230] 사는 어른 새각시 영 심엉 들어오는 거고.(새색시 모시는, 안으로 들이는 시집가서 아기도 잘살고 '복좋게' 사는 어른 새색시 이렇게 잡아서 들어오는 거고.)

112019 @ 응.(응.)

112019 # 중방도 신랑, 신랑 중방허영 영영허는, 중방 오렌 영영 세 번챈 오라가민 영 그 중방도 신랑이 장게강.(중방도 신랑, 신랑 중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중방 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와가면 이렇게 그 중방도 신랑이 장가가서.)

112019 @ 응.(응.)

112019 # 귀ᄀᆞᆺ게 아기덜이영 나멍 잘사는 사름이 이녁 일가에. 우리 정칩이서 우리 오라방 저디 대정골서 우린 저 독고동산 살고 이 안성 사는 오라방 날보단 영

230) '복좋다'는 복이 많거나 운수가 아주 길하다는 뜻이다.

영 세 설 우이 오라방이 영영헨 중방헨 톡허게 요디 오민 기자 ᄀᆞ찌 상 받고 경헤연 중방이엔 헌 건 새서방 중방이고, 대반은 새각시 대반이고.(갖춰서 아기들이랑 나면서 잘사는 사람이 자기 일가에. 우리 정씨 집안에서 오리 오라버니 저기 대정골에서 우린 저 '독고동산' 살고 이 안성 사는 오라버니 나보단 이렇게 이렇게 세 살 위 오라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방해서 톡하게 요기 오면 그저 같이 상 받고 그렇게 해서 중방이라고 한 건 새신랑 중방이고, 대반은 새각시 대반이고.)

112012 @ 예. 게난 할머닌 저 중매는 누게가 산 거?(예. 그러니까 할머닌 저 중매는 누가 선 거?)

112012 # 중매는 누게사 사신디도 몰라.(중매는 누가 섰는지도 몰라.)

112012 @ 몰라.(몰라.)

112012 # 몰라. 엿날 우리 할아버지네가 세곗어른덜이주게. 세곈디 그때에 우리 큰할망은 죽어부난 우리 할망 얻어단 사는디 큰할망 몸엔 우리 큰아버지 딱 난에 죽어부난 우리 할망은 얻어오난 아덜 성제 나고 뚤 나고 서 오누이 난 사는디 우리 고모가 젤 맞이로 난.(몰라. 옛날 우리 할아버지네가 사계 어른들이지. 사계인데 그때에 우리 큰할머니 죽어버리니까 우리 할머니 얻어다가 사는데 큰할머니 몸엔 우리 큰아버지 딱 낳아서 죽어버리니까 우리 할머니는 얻어오니까 아들 형제 낳고 딸 낳고 삼 남매 낳아서 사는데 우리 고모가 제일 맏이로 태어났어.)

112012 @ 응.(응.)

112012 # 하르방 얻언 오난 맞이로 나난에 이젠 재산이 막 좋으난[조난] 그 큰어멍에 아덜이 부랑허여.(할아버지 얻어서 오니까 맏이로 나니까 이젠 재산이 아주 좋으니까 그 큰어머니의 아들이 부랑해.)

112012 @ 응.(응.)

112012 # ᄉᆞ뭇 거짓말로 우리 할망을 막 잡주멍 이제 재산 다 풀앙인에 애기덜 이영 돌앙인에 도망가젠 헴젠 허멍이 지냥으로 문딱 재산을, 큰 밧은 다 풀아불어.(사뭇 거짓말로 우리 할머니를 막 못살게 굴면서 이제 재산 다 팔아서 아기들이랑 데리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대로 모두 재산을, 큰 밭은 다 팔아버려.)

112012 @ 응.(응.)

112012 # 다 풀아가난에 아이고 이디 못 살로고나 헨에 이젠, 우리 고모가 시집 안 사난에 이디 관개 사는디 수청 들어불엇어.(다 팔아가니까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해서 이젠, 우리 고모가 시집 안 사니까 여기 관기 사는데 수청 들어버렸어.)

112012 @ 응.(응.)

112012 # 그 전이 춘향이.(그 전에 춘향이.)

112012 @ 예, 예.(예, 예.)

112012 # 말 들으렌 허듯이 헌디 이 사름은 불써 춘향이 대신 들어간 그 관개헹 살게 뒈불엇어. 경 허난 아이고, 대정골 뚤년도 가곡 허난 대정골 강인에 방이라도 빌엉 살앙 그거 사는 거라도 보겐 헨 대정골 오란 집 산. 집 산에 아덜 성제 둘고 오란 살단 우리 족은삼촌은 일본 간. 우리 아버진 그자 우리 할머니 직허멍 사는디

큰삼춘은 장게간에 아이 살고 또 장게강 안 살곡 큰아방 뒌 사름은 안 살곡 밧만 드러 풀아먹곡 허단 어떵헨 아덜 하나 난디 아덜이 잘 안 뒈언.(말 들으라고 하듯이 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춘향이 대신 들어가서 그 관기해서 살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대정골 딸년도 가고 하니까 대정골 가서 방이라도 빌려서 살아서 그거 사는 거라도 보자고 해서 대정골 와서 집 샀어. 집 사서 아들 형제 데리고 와서 살다가 우리 작은삼촌은 일본 갔어. 우리 아버진 그저 우리 할머니 지키면서 사는데 큰삼촌은 장가가서 안 살고 또 장가가서 안 살고 큰아버지 된 사람은 안 살고 밭만 들이 팔아먹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잘 안 됐어.)

112012 @ 응.(응.)

112012 # 안 뒈언에 장게간 각시 내불어뒨 일본 간 소식도 끊어불언. 끊어부난 그 삼춘은 말쩐 갈 디 올 디 엇언, 갈 디 올 디 엇언엔 아판 다 죽어가난 날ᄀᆞ라 강 직허렌 헨에 자꾸 나 강인에 살멍 그 큰아방.(안 돼서 장가가서 각시 내버려둬서 일본 가서 소식도 끊어버렸어. 끊어버리니까 그 삼촌은 말째 갈 데 올 데 없어서, 갈 데 올 데 없어서 아파서 다 죽어가니까 나보고 가서 지키라고 해서 자꾸 나 가서 살면서 그 큰아버지.)

112012 @ 사계에?(사계에?)

112012 # 세계.(사계.)

112012 @ 응.(응.)

112012 # 큰아방 죽 쒕인에 우리 아버지 ᄂᆞ려강인에 이걸로 헹 죽 쒕인에 멕이렌 헤영 죽 쒕인에 아부지 잡숩센 헹 큰아방 멕이곡 허단 흔 보름 살앗어. 큰아방네 집, 어린 때.(큰아버지 죽 쑤어서 우리 아버지 내려가서 이걸로 해서 죽 쑤어서 먹이라고 해서 죽 쑤어서 아버지 잡수시라고 해서 큰아버지 먹이고 하다가 한 보름 살았어. 큰아버지네 집, 어릴 때.)

112012 @ 응. 게난 고우난 할머니 고우난 새각시 허켄 헷구나. 멧 번 봐지난.(응. 그러니까 고우니까 할머니 고우니까 새색시 하겠다고 했구나. 몇 번 보니까.)

112012 # 게메 경헷어.(글쎄 그랬어.)

112012 @ 하하하.(하하하.)

112012 # 경 허난에 이젠 그때 우리 큰아방 다 죽어가는 거라게. 경 허난에 그 옆집이 막 친헌 어른이 신게. 대정골 갓다 오쿠다. 저 큰아부지 다 죽는 거 닮수다. 죽 거려놔도 안 먹고 다 죽는 거 닮수다 허난. 아이고 가만이 이시렌. 내가 갓다오켄.(그렇게 하니까 이젠 그때 우리 큰아버지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집에 막 친한 어른이 있어. 대정골 갔다 오겠습니다. 저 큰아버지 다 죽는 거 같습니다. 죽 떠놔도 안 먹고 다 죽는 거 같다고 하니까. 아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갔다 오겠다고.)

112012 @ 응.(응.)

112012 # 대정골 어디곤? 저 세계서 이디 저 독고동산 갓다오켄 헨 간에 밤이 우리 아버지영 어머니영 둘아왓어라게. 둘안 오란 게도 우리 아버지 산 때 오란에

큰아방 산 때 오란 물도 거려놓고 보난에 목숨 엇어가난에 어멍이 정제 간 물 데완 오란에 우리 큰아방 모욕 시기멍 헤라게. 게멍 날ᄀᆞ라 저 방에 가근에 눠 자라, 눠 자라. 그때 눳단 보난에 큰아방 다 무껀에 관ᄁᆞ지 차불어선게.(대정골 어디냐고? 저 사계에서 여기 저 '독고동산' 갔다오겠다고 해서 가서 밤에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데리고 왔더라. 데리고 와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와서 큰아버지 살았을 때 와서 물도 떠놓고 보니까 목숨 없어가니까 어머니 부엌 가서 물 데워서 와서 우리 큰아버지 목욕시키면서 하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저 방에 가서 누워서 자라, 누워서 자라. 그때 누웠다가 보니까 큰아버지 다 묶어서 관까지 짜버렸어.)

112012 @ 게난 중매 누게가 산에 시집갑디가게?(그러니까 중매 누가 서서 시집가셨습니까?)

112012 # 어디 세계 사름. 세계 사름. 그디 아버지네 막 잘 아는 사름도 그 엿날 부제로 잘 살아나고 허난.(어디 사계 사람. 사계 사람. 거기 아버지네 막 잘 아는 사람도 그 옛날 부자로 잘 살았었고 하니까.)

112012 @ 중매허는 전문으로 중매쟁이는 엇어?(중매하는 전문으로 중매장이는 없어?)

112012 # 전문으로도 안 허고.(전문으로도 안 하고.)

112012 @ 다 그냥.(다 그냥.)

112012 # 응, 경 허민 우리 큰아방 산 땐 강인에 자리 사줍센 헹 가렌 허민 우리 큰아방넨 축항에 큰 집 두 거리 성 ᄂᆞᆷ 빌리곡 살앗주게. 우리 나오라 불고 허난. 게민 강인에 큰아방ᄀᆞ라 자리 사도렌 허민 자리 상인에 섹유통이 잇엇어. 섹유통에 물구덕에 졍 가민 자리 사신지사 그냥 빌어신지사 돈은 주민 큰아방 먹고 헨. 겐 큰아방 죽엉 우리 아버지네가 영장 허고 경헨.(응, 그러면 우리 큰아버지 살았을 때 가서 자리 달라고 해서 가라고 하면 우리 큰아버지네는 축항에 큰 집 두 채 있어서 남 빌리고 살았지. 우리 나와 버리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큰아버지보고 자리돔 사 달라고 하면 자리돔 사서 석유통이 있었어. 석유통에 '물구덕'에 져서 가면 자리돔 샀는지 그냥 빌었는지 돈은 주면 큰아버지 먹고 해서. 그래서 큰아버지 죽어서 우리 아버지네가 영장하고 그렇게 했어.)

112013 @ 응. 막펜진 뭐마씨?(응. '막편지'는 뭐예요?)

112013 # 막펜진[231] 아무 날 택일 낫다 헌 거 ᄋᆞ져가는 거 새각시칩이. 새서방칩이서.('막펜지'는 아무 날 택일 났다 한 거 가져가는 거 새색시집에. 새신랑집에서.)

112013 @ 새서방칩이서.(새신랑집에서.)

112013 # 응, 막펜지. 아무 날 이제 택일 낫수다 허영은에 경헹 ᄋᆞ져가는 거.(응, '막편지'. 아무 날 이제 택일 났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

112014 @ 아. 이버진 뭐라 게민?(아, 이바지는 뭐야 그러면?)

231)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말한다.

112014 # 아바진 그거 막펜지 ᄋᆞ져갈 때 와이루가 이바지주게.(이바지 그거 '막편지' 가져갈 때 '와이루'가 이바지지.)

112014 @ 와이루가 무신거? 일본말로 말고.('와이루'가 무엇? 일본말로 말고.)

112014 # 선물.(선물.)

112014 @ 선물.(선물.)

112014 # 소개허는 사름.(소개하는 사람.)

112014 @ 아, 소개허는 사름.(아, 소개하는 사람.)

112014 # 신디 주는 거.(에게 주는 거.)

112014 @ 무신거 무신거 줍니까?(무엇 무엇 줍니까?)

112014 # 게, 허다 못헹인에 아무. 그때엔 이 돈도 주는 것도 몰르고 주로.(그러게, 하다 못해서 아무. 그때엔 이 돈도 주는 것도 모르고 주로.)

112014 @ 쏠?(쌀?)

112014 # 아니 뭣사 주는디 몰라. 뭣사 주는딘 몰른디 우리 시집갈 땐 소개자 뭣사 주는디 몰른디 내가 살멍 세계 영영 허여 보민이 돈도 주곡 미시거 옷기지도 사다 주곡 허더라.(아니 무엇이야 주는지 몰라. 무엇이야 주는지 모르는데 우리 시집갈 땐 소개자 무엇이야 주는지 모르는데 내가 살면서 사계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 돈도 주고 무엇 옷감도 사다 주고 하더라.)

112014 @ 아, 중매 선 사름안티? 중신 선 사름안티?(아, 중매 선 사람한테? 중매 선 사람한테?)

112014 # 응, 나가 여러 개 헤봣주게.(응, 내가 여러 개 해봤지.)

112014 @ 응. 거 말고 그냥 이버지. 신랑칩이서 신부칩이 가져오는 거 엇어?(응. 그거 말고 그냥 이바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가져오는 거 없어?)

112014 # 신부칩이.(신부집에.)

112014 @ 도새기라도.(돼지라도.)

112015 # 아니 그거 그 구허영인에 예장 ᄋᆞ져오민 그 신부칩이 뭣을 가져옵니까 허민 우린 아무것도 필요엇덴 허민 가져오지 안허고. 곤란허민 아이고 우린 곤란허난에 뭣 허우다 허민 도새기 ᄒᆞᆫ ᄆᆞ리 깝 받는 디도 싯고.(아니 그거 그 구해서 예장 가져오면 그 신부집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면 우린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하면 가져오지 않고. 곤란하면 아이고 우린 곤란하니까 뭐 합니다 하면 돼지 한 마리 값 받는 데도 있고.)

112015 @ 아.(아.)

112015 # 또 가망 엇엉인에 출리지 못헹 허민 그 지집아이 옷 이불허영 간. 겡난 시집갈 때 양단으로 파랑 이불에 붉은 요허연에 두 개, 두 개 헤연 갓는디 우리 욱은 후제 시집을 가보난 시집가는디 우리 친구덜 날보단 시 설 우이 사름덜신디 시집가는 거보난이 요도 안허고이 딱허게 이불 하나만 헷더라.(또 가망 없어서 차리지 못해서 하면 그 계집아이 옷 이불해서 가서. 그래서 난 시집갈 때 양단으로 파란 이불에 붉은 요해서 두 개, 두 개 해서 갔는데 우리 큰 후에 시집을 가보니까

시집가는데 우리 친구들 나보단 세 살 위에 사람들에게 시집가는 거보니까 요도 않고 딱하게 이불 하나만 했더라.)

112015 @ 응.(응.)

112015 # 우리 동네 사는디 가난에 그딘 ᄀᆞᆯ리기가 시집가게 뒈언. ᄀᆞᆯ리기.(우리 동네 사는데 가니까 거긴 쌍둥이가 시집가게 됐어. 쌍둥이.)

112015 @ ᄀᆞᆯ리기?(쌍둥이?)

112015 # 응.(응.)

112015 @ 둘이 쌍둥이?(둘이 쌍둥이?)

112015 # 응, ᄒᆞ루에 시집가게 뒈언.(응, 하루에 시집가게 됐어.)

112015 @ 아.(아.)

112015 # 날보단 두 설 우인디.(나보단 두 살 위인데.)

112015 @ 응, 이 동네 사름?(응, 이 동네 사람?)

112015 # 응. 나는 시집은 간 땐디.(응. 나는 시집은 간 땐데.)

112015 @ 응.(응.)

112015 # 아, 난 어린 때 시집가고 그 사름덜은 ᄋᆞᆨ아사 시집을 갓어이. 겐 시집가는디 그 아시 새서방이 ᄆᆞᆫ저 완게.(아, 난 어릴 때 시집가고 그 사람들은 커야 시집을 갔어. 그래서 시집가는데 그 아우 새신랑이 먼저 왔어.)

112015 @ 응.(응.)

112015 # 아시 새서방은 저 인넹이[232]엔 헌 디고 또 이제 그 성 서방은 저 안성 사름이고이. 보성인디. 새각신 보성인디 경 허난 그 인넹이 새서방은.(아우 새신랑은 저 인향동이라고 한 데고 또 이제 그 형 신랑은 저 안성 사람이고. 보성인데. 새색신 보성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 인향동 새신랑은.)

112015 @ 인넹이가 어디 일과리?(인향동이 어디 일과리?)

112015 # 아니 저 어디냐? 구억 저펜이.(아니 저 어디냐? 구억 저편에.)

112015 @ 구억 저펜이.(구억 저편에.)

112015 # 서펜이.(서쪽에.)

112015 @ 응.(응.)

112015 # 저 사구서 넘어간디 인넹이엔 헌 디.(저 사구에서 넘어갔는데 인향동이라고 한 데.)

112015 @ 인넹이.(인향동.)

112015 # 고산 동쪽에. 경 허난에 그 새서방이 ᄆᆞᆫ저 완게. ᄆᆞᆫ저 오난 들이게시리 안 허더라.(고산 동쪽에. 그렇게 하니까 그 새신랑이 먼저 왔어. 먼저 오니까 들이게끔 안 하더라.)

112015 @ 아.(아.)

112015 # 에이구 어뜨난 새서방 저영 세왐신고, 세왐신고 허난 이제 저 안성 새서방 오는 소리 나주게. ᄆᆞᆯ 타난 어흐 허멍 들어오는 거 닮으난 우리 저 추사관으

232) ‘인넹이’는 대정읍 무릉2리 인향동의 옛지명이다.

로 저레 들어가는디 그 사름넨 살앗어. 겡헹 우리도 어흐허멍 들어오는 거 닮으난 큰새서방 들어왐젠 허멍 이제 그 새서방 올레에 멧 시간 인넹이 사름은 세왓단에 서녘집이 그 새각시 하르방네 사는 집이 임시 들이기성 시렌.(에이구 어떻게 하니까 새신랑 저렇게 세워두고 있나, 세워두고 있나 하니까 이제 저 안성 새신랑 오는 소리 나지. 말 타니까 '어흐' 하면서 들어오는 거 같으니까 우리 저 추사관으로 저리 들어가는데 그 사람네는 살았어.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흐' 하면서 들어오는 거 같으니까 큰새신랑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제 그 새신랑 올레에 몇 시간 인향동 사람은 세웠다가 서녘집에 그 새색시 할아버지네 사는 집에 임시 들어가서 있으라고.)

112015 @ 응.(응.)

112015 # 겐 이젠 안성 사름 들이기스난에 이불은 요도 안 허고.(그래서 이젠 안성 사람 들어오니까 이불은 요 안 하고.)

112015 @ 응, 어떵 이불만.(응, 어떻게 이불만.)

112015 # 응, 이불은 요도 안 허고. 베개 지러기가 이만은 크게 헤연.(응, 이불은 요도 안 하고. 베개 길이가 이만은 크게 해서.)

112015 @ 베갠 무사 경 질게?(베갠 왜 그렇게 길게?)

112015 # 두가시 누렌게.(부부 누우라고.)

112015 @ 아, ᄀᆞ치?(아, 같이?)

112015 # 응. 누렌. 요도 안허고 이불은 이불 저 이제 올레레 저 도께레 날라가렌 허멍 우리 시난에 나영 흔 술 밑에 아시가, 새각시 아시가 안앙 가는 거 보난 미녕에 검은 물 들연 이불 딱 하나.(응, 누우라고. 요도 않고 이불은 이불 저 이제 올레에 저 독교에 날라 가라고 하면서 우리 있으니까 나랑 한 살 밑의 아우가, 새색시 아우가 안아서 가는 거 보니까 무명에 검은 물 들여서 이불 딱 하나.)

112015 @ 응.(응.)

112015 # 게난 그 족은아신 또 베개, 자부동도 엇고. 경 허난 나가 깜짝 놀래져라이.(그러니까 그 작은아운 또 베개, 방석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112015 @ 응, 집이 가난헤서 그런 거 아니?(응,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

112015 # 몰라, 어떵사산디. 가난헤도 베개도 헤주곡, 자부동도 헤주곡, 요도 헤주주.(몰라, 어떻게야인지. 가난해도 베개도 해주고, 방석도 해주고, 요도 해주지.)

112015 @ 요는 헤야 뒐 거 닮은디.(요는 해야 될 거 같은데.)

112015 # 요도 안 허연.(요도 안 해서.)

112015 @ 아.(아.)

112015 # 딱 이불 미녕 검은 물 들인 거 우알 허연에 들러가렌 날보다 흔 술 밑이 아시ᄀᆞ라 들러가렌 허난 올레레 들러가난 그 가메 안트레 쏙 놓고 베개 놓고, 오강은 헷더라.(딱 이불 무명 검은 물 들인 거 위아래 해서 들고 가라고 나보다 한 살 밑의 아우보고 들고 가라고 하니까 올레에 들고 가니까 그 가마 안으로 쏙 놓고 베개 놓고, 요강은 했더라.)

112015 @ 응.(응.)

112015 # 시집갈 때 오강은 다 놔. 나도 백공 놘게. 경헌디 자부둥도 안 놓고 베개 딱 하나고 요도 안 놓고 허난 난 그 날보단 흔 술 밑에 아이ᄀᆞ라 야, 어뜨난 요도 안헤시니 허난, 뚤 두 개 풀젠 허난에 요 헐 거 잇나?(시집갈 때 요강은 다 놔. 나도 백공 놨어. 그런데 방석도 안 놓고 베개 딱 하나고 요도 안 놓고 하니까 난 그 나보다 한 살 밑에 아이보고 야, 어떻게 하니까 요도 안 했니 하니까, 딸 두 개 팔려고 하니까 요 할 거 있니?)

112015 @ 하하하. 두 개 홈치 풀젠 허난.(하하하. 두 개 한꺼번에 팔려고 하니까.)

112015 # 게고게 첨 가난허고게이.(그리고 첨 가난하고.)

112015 @ 응.(응.)

112015 # 가난헤도 헤줘살 건디.(가난해도 해줘야 할 건데.)

112015 @ 게메예.(글쎄요.)

112015 # 베개 진진헌 거 ᄒᆞ나 허고. 베개매기도 허지 안헨에 베개 진진헨 검은 물 들연 베개 껍데기도 엇이 저 요놈이 베개 진진헌 건디 요거 베개 진진헌 건디 요렇게 귀에 저 실로 졸라메언 영허연 졸라멘 거, 베개.(베개 길디긴 거 하나 하고. 베갯모도 하지 않고 베개 길디긴 검은 물 들어서 베갯잇도 없이 저 요놈의 베개 길디긴 건데 요거 베개 길디긴 건데 요렇게 귀에 저 실로 졸라매서 이렇게 졸라맨 거, 베개.)

112015 @ 응.(응.)

112015 # 실로 영헨 졸라멘 영헨 허연 기자 베개 진진헌 거 하나. 어뜨난 베개 하나만 경 허난 그 나 흔 살 밑에 아이, 너네 한 소리 허지 말아 허멍 나신더레 욕 허멍이.(실로 이렇게 해서 졸라매서 이렇게 해서 그저 베개 길디긴 거 하나. 어떻게 하니까 베 개 하나만 그렇게 하니까 그 나 한 살 밑의 아이, 너네 많은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나에게 욕하면서.)

112015 @ 하하하.(하하하.)

112015 # 아, 게난 하나 안허나게 베개 하나 흔듸 누렌 헴서 허멍 헨 기자 철엇이. 경헨 허는 디가 잇더라게.(아, 그러니까 하나 안하나 베개 하나 함께 누우라고 하고 있어 하면서 해서 그저 철엇이.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

112015 @ 거믄 잘 출리는 집인 무신거 헹 가?(그러면 잘 차리는 집은 무엇 해서 가?)

112015 # 잘 출리는 디게 이불도게 두 개썩 허고게 나도 이불 두 개, 요 두 개, 자부동 두 개 경헨 가시네게.(잘 차리는 데 이불도 두 개씩 하고 나도 이불 두 개, 요 두 개, 방석 두 개 그렇게 해서 갔어.)

112015 @ 응.(응.)

112015 # 우리 저 웨삼춘 메누리가 문딱 그런 기지 문 보내난. 우리 집이서 멘네 갈안. 게난 다 틀려.(우리 저 외삼촌 며느리가 모두 그런 옷감 모두 보내왔어. 우리 집에서 목화 갈아서 그러니까 다 달라.)

112016 @ 게난예. 예장은 무신거마씨?(그러니까요. 예장은 뭐예요?)

112016 # 예장은 저 우선 새서방, 새서방은 올레 물 탕 세우민 우시로 온 사름이 무시거 ᄋᆞ정 오랑인에 요레 내물민 이디선 상 받앙 그거 받아. 받앙인에 그거 익어라 예장이엔 헌 거.(예장은 저 우선 새신랑, 새신랑은 올레 말 타서 세우면 위요로 온 사람이 무엇 가져와서 요리 내밀면 여기선 상 받아서 그거 받아. 받아서 그거 읽어라 예장이라고 한 거.)

112016 @ 응.(응.)

112016 # 익엉인에 이젠 영 개영 놓민 새서방 들이기시민 대반 영영허영.(읽어서 이젠 이렇게 개어 놓으면 새신랑 들어오면 대반 이렇게 이렇게 해서.)

112016 @ 아.(아.)

112016 # 새각신 나 도께 탄 간에 가메에 ᄂᆞ리난에 그디 늙은 어른, 머리 이만은 헌 늙은 어른이 오란에 날 장옷 영 심언 이레 와 허멍 헨 들이고.(새색시는 나 독교 타서 가서 가마에 내리니까 거기 늙은 어른, 머리 이만큼 한 늙은 어른이 와서 나를 장옷 이렇게 잡아서 이리 와 하면서 해서 들이고.)

112016 @ 뭐 예장 잘못 쓰민 다시 썽 오렌 허고 헤낫덴 헨 게마는.(뭐 예장 잘못 쓰면 다시 써서 오라고 하고 했었다고 하던데마는.)

112016 # 응.(응.)

112016 @ 그런 것도 들어봅디가?(그런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112016 # 응. 우리 저 덕수 우리 ᄉᆞ춘 시누이 아방.(응. 우리 저 덕수 우리 사촌 시누이 아버지.)

112016 @ 응.(응.)

112016 # 아방 ᄉᆞ춘 시누이 시아방.(아버지 사촌 시누이 시아버지.)

112016 @ 응.(응.)

112016 # 시아방 강칩인디, 강칩이 어른인디 화순 지칩이 양제, 첨, 장게가난 새서방이 키가 헤끄만허난 예장 잘 쓰는 사름이 한글[233]이 저프게[234] 아는 어른인디 잘못 썻젠.(시아버지 강씨 집인데, 강씨 집 어른인데 화순 지씨 집에 양자, 첨, 장자가니까 새신랑이 키가 자그마하니까 예장 잘 쓰는 사람이 '한글'을 '저프게' 아는 어른인데 잘못 썼다고.)

112016 @ 응.(응.)

112016 # 경 허난에 새서방 쓴 건디 잘못 썻젠 화순 지칩이 장겔 가난 잘못 썻젠 허난에 이젠 물 탄 냥 예장, 우시로 간 사름이 영 헤영 물 탄 냥 ᄂᆞ리기 전이 이디서 문전에서 상 받아근에 예장 익어보난 잘못 썻젠 허난 그때에 그 새서방이 붓이영 이제 저 글 쓸 거영 가져 들이렌.(그렇게 하니까 새신랑 쓴 건데 잘못 썼다고 화순 지씨 집안에 장가를 가니까 잘못 썼다고 하니까 이젠 말 탄 대로 예장, 위요로 간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말 탄 대로 내리기 전에 여기서 문전에서 상 받아서

233) '한글'은 글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문 등의 글을 말하는 것이다.
234) '저프다'는 보통에서 뛰어나 놀라고 두려울 만하다는 뜻이다.

예장 읽어보니까 잘못 썼다고 하니까 그때에 그 새신랑이 붓이랑 이제 저 글 쓸 거랑 가져 들이라고.)

112016 @ 응.(응.)

112016 # 믈 우이서 삭삭 썬에 탁 들엿젠. 그거 예장도 시비허젠 새서방 헤끄만 허난 나무리젠 그 새서방 쓴 거주마는 시비허젠 그 지칩이 글도 몰르는 멍청이덜이 그 하르방은 한문 ᄉᆞ장인디.(말 위에서 삭삭 써서 탁 들였다고. 그거 예장도 시비하려고 새신랑 조그마하니까 얕보려고 그 새신랑 쓴 거지마는 시비하려고 그 지씨 집안에 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그 할아버지는 한문 사장인데.)

112016 @ 응.(응.)

112016 # 경헌디 헤끄만헤놓난 나무련 예장 잘못 썻젠 글도 모른 멍청이 하르방 ᄀᆞ찌 봐두서 막 헤 가난 글 안 사름은 곧지 말렌 영 직은 철이옌. 그 새서방 하르방 말이.(그런데 자그마해서 얕봐서 예장 잘못 썼다고 글도 모른 멍청이 할아버지 같이 봐서 막 해가니까 글 아는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을 차례라고. 그 새신랑 할아버지 말이.)

112016 @ 예.(예.)

112016 # 그추룩 헤도 붓이영 이레 다 가져 들이렌. 나 믈 탄 디서 쓰켄. 믈 탄 디서 삭삭 썬에 탁 들이난 말도 못헨에.(그처럼 해도 붓이랑 이리 다 가져 들이라고. 나 말 탄 데서 쓰겠다고. 말 탄 데서 삭삭 써서 탁 드리니까 말도 못해서.)

112016 @ 응.(응.)

112016 # 예장 받앗젠 헤라. 게난 그 하르방 잘도 유식헌 하르방인디 지네 깐엔 족으난 나무련. 것이 예장이주게. 새서방 칩이서 우선 새서방 차에 ᄂᆞ리기 전이, 믈에 ᄂᆞ리기 전이 ᄀᆞ찌 우시로 간 양반이 내물민 상 받앙 그디 글 아는 사름 익엉인에 뒈엇젠 허민 이젠 저 ᄂᆞ람지 페와.(예장 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주 유식한 할아버진데 자기네 깐에는 작으니까 얕봐서. 그것이 예장이지. 새신랑 집에서 우선 새신랑 차에 내리기 전에, 말에 내리기 전에 같이 위요로 간 양반이 내밀면 상 받아서 거기 글 아는 사람 읽어서 됐다고 하면 이젠 저 이엉 펴.)

112016 @ 응.(응.)

112016 # 믈 세운 디 ᄂᆞ람지 싹 페우민 그디 또 도고리 탁 더프민 그 믈 탄 사름이 도고리 지펑인에 이젠 영 사민 중방헌 사름이 영영 헹 강은에 경 허난 그 새서방도 꿰가 좋난 먼 디 사두서 영영 허난에 걸어오지 안허연.(말 세운 데 이엉 싹 펴면 거기 또 함지박 탁 덮으면 그 말 탄 사람이 함지박 짚어서 이젠 이렇게 서면 중방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 새신랑도 꽤가 좋으니까 먼 데 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걸어오지 않았어.)

112016 @ 하하하.(하하하.)

112016 # 배짱으로이.(배짱으로.)

112016 @ 하하하.(하하하.)

112016 # 배짱으로 허난 또시 재차 허렌 헹인에 삼 판, 세 번채 간 심어오렌 헨

심어, 그 하르방도 어려도 배짱 내멍.(배짱으로 하니까 또 재차 하라고 해서 삼 판, 세 번째 가서 잡아오라고 해서 잡아, 그 할아버지도 어려도 배짱 부리면서.)

112016 @ 게난예.(그러니까요.)

112016 # 응. 게민 옥수록이 나무리지 말앙 톡 강 심엉 오라불컬. 영영헹 오렌 허난 나무련 쪼끌락허난 나무련 배짱 내물안 가만히 사난 또시 허렌 허난 또시 헤뒨 세 번챈 그 집안에서 즘즘헹 강은에 심어오렌. 경 허난 심언 들어왓젠. 막 그거 옛날 곧더라.(응. 그러면 '옥수록이' 얕보지 말고 톡 가서 잡아 와버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하니까 얕봐서 조그마하니까 얕봐서 배짱 부려서 가만히 서니까 또 하라고 하니까 또 해두고 세 번째는 그 집안에서 잠잠해서 가서 잡아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잡아서 들어왔다고. 막 그거 옛날 말하더라.)

112017 @ 가문잔칫날은 무신거 헹은에 멕여?('가문잔칫날'은 무엇 해서 먹여?)

112017 # 가문잔칫날은게 도새기 잡앙 솖으멍 그자 궤기덜 썰곡 동네 어른덜 기자 밥헤영 멕이는 거주게. 가문잔치.('가문잔칫날'은 돼지 잡아서 삶으면서 그저 고기들 썰고 동네 어른들 그저 밥해서 먹이는 거지. '가문잔치'.)

112017 @ 저 잔칫날 써야 뒈니까 도새기도 궤기 못 주고 뭐 다른 거 배설이나 뭐 이런 거 멕여?(저 잔칫날 써야 되니까 돼지도 고기 못 주고 뭐 다른 거 창자나 뭐 이런 거 먹여?)

112017 # 아니 뒈야지 배설덜이영 다 놓멍 가문잔칫날 다 먹어. 게고 가문잔칫날러렌 저냑인 여즈덜은 그 산꾸, 옛날엔 어떠헤신디 우리 시집갈 땐 게도 그 뎀뿌라, 고구마 뎀뿌라 허연덜 동네 친구덜이영 앚앙덜 드러 먹으멍 허긴 헷어.(아니 돼지 창자들이랑 다 놓으면서 가문잔칫날 다 먹어. 그리고 '가문잔치' 날엔 저녁엔 여자들은 그 '산꾸', 옛날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집갈 땐 그래도 그 튀김, 고구마 튀김 해서들 동네 친구들이랑 앉아서들 들이 먹으면서 하긴 했어.)

112017 @ 응.(응.)

112017 # 게난 잔치허는 것이 여러 가지게.(그러니까 잔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112017 @ 응, 그 가문잔칫날은 누게 누게 와근에 헙니까?(응, 그 '가문잔칫날'은 누구 누구 와서 합니까?)

112017 # 동네 사름덜 다 와. (동네 사람들 다 와.)

112017 @ 아.(아.)

112017 # 동네 궨당덜도 오랑 다 준비허고 궤기도 솖앙인에 닐은 먹을 거, 도감 빌민 도감 썰곡. 심부름, 밥 멕일 사름 정허고 궤기 ᄋᆞ져다 놓을[놀] 사름 정허곡 다허여.(동네 권당들도 와서 다 준비하고 고기도 삶아서 내일은 먹을 거, 도감 빌리면 도감 썰고. 심부름, 밥 먹일 사람 정하고 고기 가져다 놓을 사람 정하고 다 해.)

112017 @ 잔칫날 헐 거 미리 의논헹.(잔칫날 할 거 미리 의논해서.)

112017 # 응, 다 정허여. 이제 저 마리에 손님 받으민 마리에 누게가 밥 멕이고 누게가 허고. 이제 새각시 돌아오는 딘 새각시 대반 누게가 앚일 거난에 새각시 오라가건 대반 앚일 사름도 출리렌 헤영.(응, 다 정해. 이제 저 마루에 손님 받으면

마루에 누가 밥 먹이고 누가 하고. 이제 새색시 데려오는 덴 새색시 대반 누가 앉을 거니까 새색시 와가면 대반 앉을 사람도 차리라고 해서.)

112020 @ 응. 부주는 어떵헤?(응. 부조는 어떻게 해?)

112020 # 부준 새각시신디 엿날에 우리 시집갈 땐 안 줘.(부조는 새색시에게 옛날에 우리 시집갈 땐 안 줘.)

112020 @ 아, 어멍 아방신디만?(아,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112020 # 응, 어멍 아방만 줘.(응, 어머니 아버지만 줘.)

112020 @ 그믄 할머니네 옛날에는 뭘로 부주헤낫수과? 돈으로 헤? 그때도.(그러면 할머니네 옛날에는 뭘로 부조했었습니까? 돈으로 해? 그때도.)

112020 # 쏠로덜 다 부주 와, 그때.(쌀로들 다 부조 와, 그때.)

112020 @ 쏠로.(쌀로.)

112020 # 쏠을 막 부주 오민 쏠을 막 멕으로 막 받으주게.(쌀을 막 부조 오면 쌀을 막 멱서리로 막 받지.)

112020 @ 아, 보통 쌀 얼만이나 헙니까?(아, 보통 쌀 얼마나 합니까?)

112020 # 동네 사름은 둬 뒈허고 경 안허민 권당덜은 혼 말. 경 안헌 사름은 친형제간덜은 저 곤쏠 혼 말썩.(동네 사람은 둬 되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당들은 한 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형제간들은 저 흰쌀 한 말씩.)

112020 @ 아, 그믄 곤쏠 아니고 다른 건 보리쏠?(아, 그러면 흰쌀 아니고 다른 건 보리쌀?)

112020 # 보리쏠게, 보리쏠 기자 혼 말썩.(보리쌀, 보리쌀 그저 한 말씩.)

112020 @ 아.(아.)

112020 # 보리가 주장이난.(보리가 주니까.)

112020 @ 주장이난.(주니까.)

112020 # 보리쏠 혼 말덜.(보리쌀 한 말들.)

112020 @ 응.(응.)

112020 # 형제간은 곤쏠로 말로 ᄋᆞ져오고.(형제간은 흰쌀로 말로 가져오고.)

112018 @ 응. 우시 가는 건 누게 가는 거꽈?(응. 위요 가는 건 누가 가는 겁니까?)

112018 # 우시 가는 건 저 경헤도 장게강인에 착허게 사는 사름으로 새서방 우시 가렌 허고.(위요 가는 건 저 그래도 장가가서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새신랑 위요 가라고 하고.)

112018 @ 멧 멩이나 가?(몇 명이나 가?)

112018 # 웨가 성펜 헹 둘리.(외가 성편 해서 둘이.)

112018 @ 아, 그믄 새서방허고 웨가 한 명, 성가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가는 거라?(아, 그러면 새신랑하고 외가 한명, 성가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가는 거야?)

112018 # 응. 성펜이영 웨펜이영. 우시로 가.(응. 성편이랑 외편이랑. 위요로 가.)

112018 @ 새각시 우시도 이수과?(새색시 위요도 있습니까?)

112018 # 응?(응?)

112018 @ 새각시도 우시 가?(새색시도 위요 가?)

112018 # 새각시신딘 우시 안 가더라. 우리 갈 때.(새색시에겐 위요 안 가더라. 우리 갈 때.)

112018 @ 응.(응.)

112018 # 그 새서방 쪽에 우시허고. 아방 쪽에 우시허곡 헨에 우신 둘리 가더라. 물 탄에.(그 새신랑 쪽의 위요하고. 아버지 쪽의 위요하고 해서 위요는 둘이 가더라. 말 타서.)

112018 @ 응.(응.)

112018 # 우리 웨삼촌 둘랑둘랑 물 탄. 나 시집갈 때 이불 졍가는 할망이 ᄆᆞ을 일 보는 사름네 할망이 이불 젼 가더라.(우리 외삼촌 달랑달랑 말 타서. 나 시집갈 때 이불 져가는 할머니 마을 일 보는 사람네 할머니가 이불 져서 가더라.)

112018 @ 응. 사둔잔치엔 헹은에 잔치헤난 날 다음에도 또 허는 거 이수과?(응. 사돈잔치라고 해서 잔치한 날 다음에도 또 하는 거 있습니까?)

112018 # 사둔잔치엔 헌 건 잔치헤난 다음에 뭐 속안에 무신거 탈난 것이나 엇언 기자 잘 뒈수광 헹 인ᄉᆞ허레.(사돈잔치라고 한 건 잔치하고 난 다음에 뭐 수고해서 무엇 탈난 것이나 없어서 그저 잘 됐습니까 해서 인사하러.)

112018 @ 인ᄉᆞ허레 가? 사둔칩이?(인사하러 가? 사돈집에?)

112018 # 응.(응.)

112018 @ 누게누게 가?(누구누구 가?)

112018 # 게 새서방 아방허곡 새각시영 새각시, 새서방이영 ᄀᆞ찌 가메.(그러게 새신랑 아버지하고 새색시 새색시, 새신랑이랑 같이 가.)

112018 @ 아, 게민 신부칩이 와?(아, 그러면 신부집에 와?)

112018 # 응, 신부칩이 오랑인에 새각시 저 아방은 새서방 어멍네 집이 안 가고. 오랑 기자 그날 기자 무ᄉᆞ히 잘 넹겻수겐, 네 덕택에 잘 넹겻습니다.(응, 신부집에 와서 새색시 저 아버지는 새신랑 어머니네 집에 안고. 와서 그저 그날 그저 무사히 잘 넘겼냐고, 네 덕택에 잘 넘겼습니다.)

112018 @ 뭐 들렁 가? 먹을 거라도.(뭐 들어서 가? 먹을 거라도.)

112018 # 게 그디서 쏠 혼 말허고 궤기허고. 잘허는 딘 돗다리 하나 탁 놩 오곡. 못허는 디 궤기 멧 근. (그러게 거기서 쌀 한 말하고 고기하고. 잘하는 덴 돼지 다리 하나 탁 놔서 오고. 못 하는 데 고기 몇 근.)

112018 @ 응. 새서방칩이서 새각시집이?(응. 새신랑 집에서 새색시 집에?)

112018 # 응.(응.)

112018 @ 거믄 또 새각시칩이선 또 새각시 저 뭐 보내 또?(그러면 또 새색시 집에서 또 새색시 저 뭐 보내 또?)

112018 # 저 새각시칩이선 그자 그걸로 끗.(저 새색시 집에서 그저 그걸로 끝.)

112018 @ 끗. 아, 또 가진 안허고?(끝. 아, 또 가진 않고?)

112018 # 응. 가져가진 안허고 새서방 새각시 아방은 또시 옵센 하도 허민.(응. 가져가진 않고 새신랑 새색시 아버지는 또 오라고 하도 하면.)

112018 @ 또 갓다와?(또 갔다와?)

112018 # 뒷날이나 그날 또시 가시민 가켄 헹은에 조름에도 강 허는 디도 잇곡 뒷날 가는 디도 잇곡 그래.(뒷날이나 그날 또 갔으면 가겠다고 해서 뒤에도 가서 하는 데도 있고 뒷날 가는 데도 있고 그래.)

112018 @ 아, 그믄 새각시 아방은 또 새서방 집이 혼번 갓다 오긴 허는구나예?(아, 그러면 새색시 아버지는 또 새신랑 집에 한번 갔다 오긴 하는군요?)

112018 # 응.(응.)

112018 @ 잔치 끗낭예?(잔치 끝나서요?)

112018 # 응. 그저 무사히 잘 넹겻젠 인ᄉᆞ로.(응. 그저 무사히 잘 넘겼다고 인사로.)

112018 @ 응, 게민.(응, 그러면.)

112018 # 우리 아버진 다 이거 좋게 넘어시난 안 가켄 헨.(우리 아버진 다 이거 좋게 넘겼으니까 안 가겠다고 해서.)

112018 @ 하하하. 경헨 안 간?(하하하. 그래서 안 갔어?)

112018 # 응, 안 간.(응, 안 갔어.)

112011 @ 게민 저 잔치허젠 허민 그 젤 처음, 아, 누게가 중신 사민 순서대로 골아보민예 중신 사민 이제 막펜지 가졍왕.(그러면 저 잔치하려고 하면 그 제일 처음, 아, 누가 중매 서면 순서대로 말해보면요 중매 서면 이제 '막펜지' 가져와서.)

112011 # 응.(응.)

112011 @ 아니, 막펜지 가져오기 전이.(아니, '막펜지' 가져오기 전에.)

112011 # 중맨 사민.(중매는 서면.)

112011 @ 응.(응.)

112011 # 이젠 그 소개자영 그 신랑 아방이영 오랑 새각시 어느 둘 메튼날 어떵 낫젠 헹.(이젠 그 소개자랑 그 신랑 아버지랑 와서 새색시 어느 달 며칠 어떻게 났다고 해서.)

112011 @ 응. 거 가져가야 뭘 거 아니예?(응. 그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112011 # 응, 써주주게.(응, 써주지.)

112011 @ 예, 그믄 그거 가졍강 날 봉.(예,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날 봐서.)

112011 # 응, 날 봐.(응, 날 봐.)

112011 @ 그다음.(그다음.)

112011 # 날 보민 택일 낫습니다 허영 택일기 새각시 집이 ᄋᆞ져와.(날 보면 택일 났습니다 해서 택일기 새색시 집에 가져와.)

112011 @ 그게 막펜지?(그게 '막펜지'?)

112011 # 응.(응.)

112011 @ 막펜진 ᄐᆞ난 거, 그게 막펜지?('막펜지'는 다른 거, 그게 '막펜지'?)

112011 # 게, 막펜지게.(그렇지, ‘막펜지’.)
112011 @ 그게 막펜지.(그게 ‘막펜지’.)
112011 # 응.(응.)
112011 @ 막펜지 새각시집이 가졍왕.(‘막펜지’ 새색시 집에 가져와서.)
112011 # 응, 가졍오랑인에 아무 날 난 날은 잔치가 뒈는 거주게.(응, 가져와서 아무 날 난 날은 잔치가 되는 거지.)
112011 @ 응.(응.)
112011 # 막펜지 왓젠 헨게 그디 택일 난 모냥이여 영.(‘막펜지’ 왔다고 해서 거기 택일 난 모양이야 이렇게.)
112011 @ 아, 그믄 막펜지 가져오민 그다음엔 도새기 잡고.(아, 그러면 ‘막펜지’ 가져오면 그다음엔 돼지 잡고.)
112011 # 게, 그 날짜로.(그렇지, 그 날짜로.)
112011 @ 가문잔치허고.('가문잔치'하고.)
112011 # 게.(그렇지.)
112011 @ 그다음 잔치허고.(그다음 잔치하고.)
112011 # 그래.(그래.)
112011 @ 그다음엔 사둔잔치허고.(그다음엔 사돈잔치하고.)
112011 # 응.(응.)
112011 @ 거믄 잔치가 끗나는 거예, 순서대로 골으믄예.(그러면 잔치가 끝나는 거요, 순서대로 말하면요.)
112011 # 응.(응.)
112013 @ 막펜지 가져오는 날도 뭐 헹 멕여?(‘막펜지’ 가져오는 날도 뭐 해서 먹여?)
112013 # 게, 막펜지 저 신랑칩이서 오민 아이고 막펜지 온덴 헨게 강인에 심부름 헤사켜 헹은에 그 신부칩이서 밥헹 멕여.(그렇지, ‘막펜지’ 저 신랑집에서 오면 아이고 ‘막펜지’ 온다고 하던데 가서 심부름 해야겠어 해서 그 신부집에서 밥 해서 먹여.)
112013 @ 아, 밥헹 멕여.(아, 밥해서 먹여.)
112013 # 응, 막펜지 영 택일 잘 낫수덴 헹. 아이고 술술 잘 뒛수다 허영, 술 혼 잔덜 ᄂᆞ놩 먹어.(응, ‘막펜지’ 이렇게 택일 잘 났다고 해서. 아이고 술술 잘 됐습니다 해서, 술 한 잔들 나눠 먹어.)
112013 @ 그믄 새각시 생년월일 난 날 난 시 그거 가져가는 날은 뭐 안 헹 멕여?(그러면 새색시 생년월일 난 날 난 시 그거 가져가는 날은 뭐 안 해서 먹여?)
112013 # 그것이.(그것이.)
112013 @ 뭐 안 멕이는 날 잇던데, 아무것도 안 헤준덴 허멍.(뭐 안 먹이는 날 있던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서.)
112013 # 막펜지옌 헌 것이 멧 날 메틀 낫젠 허민 그날 그 사름 갈 때 밥헹 멕

이는 거주게.(‘막펜지’라고 한 것이 몇 날 며칠 났다고 하면 그날 그 사람 갈 때 밥 해서 먹이는 거지.)

112013 @ 응.(응.)

112013 # 게, 멕이민 그 사름 택일 낫젠 헹 오랑 여기 드리민 또 술이라도 먹이나 게도 밥이라도. 아이고 막펜지 ᄋᆞ경간 택일 낫젠 헨게 오늘 사둔 올 날이엔 허영은에.(그렇지, 먹이면 그 사람 택일 났다고 해서 와서 여기 드리면 또 술이라도 먹이거나 그래도 밥이라도. 아이고 ‘막펜지’ 가져가서 택일 났다고 하던데 오늘 사돈 올 날이라고 해서.)

112011 @ 응. 결혼식할 때 할무니, 신랑, 신랑하고 신부하고 입는 옷은 뭐 입어마씨?(응. 결혼식할 때 할머니, 신랑, 신랑하고 신부하고 입는 옷은 뭐 입어요?)

112011 # 예펜 입는 건 장옷.(여편네 입는 건 장옷.)

112011 @ 장옷.(장옷.)

112011 # 남저 입으는 건 도복.(남자 입는 건 도포.)

112011 @ 도복. 장옷은.(도포, 장옷은.)

112011 # 장옷은 두루막으로 여저 푸린 걸로 허고 골름, 옷골름허곡 짓 붉은 걸로 허영은에 두루막추룩 간단허고 도복이엔 헌 건 남전 도복이엔 헌 건 멩지로, 흰 멩지로 우이 이디 가달 ᄃᆞᆫ지고, 가달 ᄃᆞᆫ정은에 이디 허곡 이 우무니[235] 허곡, 이 우무니 헌 거.(장옷은 두루마기로 여자 푸른 걸로 하고 고름, 옷고름하고 깃 붉은 걸로 해서 두루마기처럼 간단하고 도포라고 한 건 남자는 도포라고 한 건 명주로, 흰 명주로 위에 여기 가랑이 달리고, 가랑이 달려서 여기하고 이 ‘우무니’ 하고, 이 ‘우무니’ 한 거.)

112011 @ 우무니? 이거 우무니?(‘우무니’? 이거 ‘우무니’?)

112011 # 응.(응.)

112011 @ 아, 우무니 허고.(아, ‘우무니’ 하고.)

112011 # 경헤영 그 도복 입엉 남전 이 준등띠도 무끄곡.(그래서 그 도포 입어서 남자는 이 허리띠도 묶고.)

112011 @ 준등띠도 무끄곡.(허리띠도 묶고.)

112011 # 응, 그것도 이제 넙작허게시리 멩지로 헹 이레 도복 입어.(응, 그것도 이제 넓적하게끔 명주로 해서 이리 도포 입어.)

112011 @ 아, 여잔 족두리 써?(아, 여자는 족두리 써?)

112011 # 족두리도 쓰고 또시 족두리 엇으민 그냥 머리.(족두리도 쓰고 또 족두리 없으면 그냥 머리.)

112011 @ 머리 어떵 헤?(머리 어떻게 해?)

112011 # 머리 이만은 예찐 우이 족두리도 쓰곡 머리 예쩡 그냥 가는 사름도 싯곡. 그 족두리 썽은에 물 탕 올랑올랑헤 가난 벗어져가난 난 귀찮여라.(머리 이만큼은 얹은 위에 족두리 쓰고 머리 얹어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족두리 써서 말

235) ‘우무니’는 ‘우머니’라고도 하며 두루마기나 도포 팔 안자락에 주머니처럼 만든 것이다.

타서 울렁울렁해가니까 벗겨져가니까 난 귀찮더라.)

112011 @ 하하하. 머리 예짜는 건 어떵 허는 거?(하하하. 머리 얹는 건 어떻게 하는 거?)

112011 # 머리게, 이디 영 갈랑인에 영 헤영 맺엉 이디 상퉁이 채왕 이녁 머리 족으민 또 돌래[236]가 이서.(머리, 여기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해서 맺어서 여기 상투 채워서 자기 머리 작으면 또 다리가 있어.)

112011 @ 응.(응.)

112011 # 머리 헤여근에 그 허는 돌래. 겡 이디 머리영 ᄀᆞ찌 이레 영 놩인에 ᄀᆞ찌 당인에 이만은 상퉁이 차게 헤영 이제 빈네도 이디 찔르곡.(머리 해서 그 하는 다리. 그렇게 해서 여기 머리랑 같이 이리 이렇게 놔서 같이 닿아서 이만큼 상투 차게 해서 이제 비녀도 여기 찌르고.)

112011 @ 응.(응.)

112011 # 경 허민 머리 벗어지카부덴 빈네 이디 찔르주게.(그러면 머리 벗겨질까봐 비녀 여기 찌르지.)

112011 @ 예.(예.)

112011 # 찔르민 이디 검은 걸로이 돌아나지 못허게 이디 영허영 이 빈네 끗껭 이 이착이영 딱.(찌르면 여기 검은 걸로 달아나지 못하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비녀 끄트머리 이쪽이랑 딱.)

112011 @ 무꺼?(묶어?)

112011 # 무꺼. 이 상퉁이, 이 예진 것도 돌아나지 못허게.(묶어. 이 상투, 이 얹은 것도 달아나지 못하게.)

112011 @ 아.(아.)

112011 # 빈네로 이디 질러.(비녀로 여기 찔러.)

112011 @ 응.(응.)

112011 # 질렁인에 영 머리띠 검은 걸로 머리띠 딱 헤영 이디 내물주게.(찔러서 이렇게 머리띠 검은 걸로 머리띠 딱 해서 여기 내밀지.)

112011 @ 응.(응.)

112011 # 이디 졸라매고 이디 졸라매고 경헹인에 족두리도 그 발로, 이 머리 예진 우이 족두리도 족지 안허여. 이만은 헌 거 이디 탁허게 놓으민[노민] 그것도 이디 무껑인에. 가메로는 궤양 가는디.(여기 졸라매고 여기 졸라매고 그래서 족두리로 그 발로, 이 머리 얹은 위에 족두리 작지 않아. 이만큼은 한 거 여기 탁하게 놓으면 극서도 여기 묶어서. 가마로는 고이 가는데.)

112011 @ 도께 타민.(독교 타면.)

112011 # 도께 타민 흔들흔들 자꾸 벗어점직 벗어점직허멍.(독교 타면 흔들흔들 자꾸 벗겨질 듯 벗겨질 듯하면서.)

112011 @ 도껜 우이 영 집 엇인 거?(독교는 위에 이렇게 집 없는 거?)

---

236) '돌래'는 표준어 '다리'로 여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딴머리이다.

112011 # 집 셔도.(집 있어도.)

112011 @ 도께허고 가만 뭐가 틀려?(독교하고 가마는 뭐가 달라?)

112011 # 가멘게 영 톡 들렁 돌랑돌랑돌랑 가는 거. 도껜 그냥 이추룩 허영은에 사드레 닮게 헤영은에 물 메우주게, 도께엔.(가마는 이렇게 톡 들어서 달랑달랑달랑 가는 거. 독교는 그냥 이처럼 해서 사다리 같이 해서 말 메우지, 독교에.)

112011 @ 응.(응.)

112011 # 물도 두 개. 앞두에 물 메왕. 물 메왕 물 허허엉 헤가민 물이 돌랑돌랑 헤가민 이것도 돌랑돌랑.(말도 두 개. 앞뒤에 말 메워서. 말 메워서 말 '허허엉' 해가면 말이 달랑달랑 해가면 이것도 달랑달랑.)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 가메사 사름 걷는 거.(가마야 사람 걷는 거.)

112011 @ 아, 사름이 영 들르민 가메고 물에 메우민 도께?(아, 사람이 이렇게 들면 가마고 말에 메우면 독교?)

112011 # 응. 먼 디.(응. 먼 데.)

112011 @ 모양은 비슷해?(모양은 비슷해?)

112011 # 아니 틀려.(아니 달라.)

112011 @ 아, 틀려.(아, 달라.)

112011 # 도껜이 궹장허게시리 엉중허여, 높으고. 가멘 이쁘지, 가메.(독교는 굉장하게끔 엄중해, 높고. 가마는 이쁘지, 가마.)

112011 @ 예, 가멘 많이 봐난.(예, 가마는 많이 봤어.)

112011 # 그것에 쏙 들어앚이민이 가메 안네이 오강단진 톡허게 놔줘.(그것에 쏙 들어앉으면 가마 안에 요강단지 톡하게 놔줘.)

112011 @ 응. 게난 도께가 가메보단 훨씬 커?(응. 그러니까 독교가 가마보다는 훨씬 커?)

112011 # 커. 이만은 허영은에 ᄉᆞ뭇 물 메우는 거난게 물 우터레 탁 메왕, 덜렁덜렁.(커. 이만큼은 해서 사뭇 말 메우는 거니까 말 위에 탁 메워서, 덜렁덜렁.)

112011 @ 응. 영 흥글어 불지 안허여?(응. 이렇게 흔들어 버리지 않아?)

112011 # 흥글주게.(흔들지.)

112011 @ 게민 어떵허여?(그러면 어떻게 해?)

112011 # 왈탕왈탕왈탕.(와당탕와당탕와당탕.)

112011 @ 잡기라도 헤야 뒈큰게.(잡기라도 해야 되겠네.)

112011 # 다 잡게 뒌 거라. 쓰러지카부덴. 다 이거 든든이 잘 심으라 영 시겨.(다 잡게 된 거야. 쓰러질까 봐. 다 이거 단단히 잘 잡아라 이렇게 시켜.)

112011 @ 응. 신랑은 머리에 무신거 안 써?(응. 신랑은 머리에 무엇 안 써?)

112011 # 신랑은게 사모관대 썽 오주게.(신랑은 사모관대 써서 오지.)

112011 @ 아.(아.)

112011 # 사모관대.(사모관대.)

112011 @ 그 옷은 다 이녁만썩 다 허는 거 아니민 어디서 빌렁 입는 거?(그 옷은 다 자기만큼씩 다 하는 거 아니면 어디서 빌려서 입는 거?)

112011 # 다 집이서 허여. 남전 도복, 멩지로. 이디 딩기게 멩지로 큰옷 멘들고 우무니 잇게 멘들어.(다 집에서 해. 남자는 도포, 명주로. 여기 늘어지게 명주로 큰 옷 만들고 '우무니' 있게 만들어.)

112011 @ 집이서 다 멘드는 거?(집에서 다 만드는 거?)

112011 # 게, 다 상. 빗나도 사멍 다 멘들아. 후제 놔뒁당 죽으민도 입는 거 아냐.(그렇지, 다 사서. 비싸도 사면서 다 만들어. 후에 놔뒀다가 죽으면 입는 거 아니냐.)

112011 @ 아.(아.)

112011 # 그거 놔뒁당.(그거 놔뒀다가.)

112011 @ 그거 놔뒁당은에.(그거 놔뒀다가.)

112011 # 응.(응.)

112011 @ 할머니는 죽엉 갈 때 입을 옷 헤 놔둡디가?(할머니는 죽어서 갈 때 입을 옷 해서 놔둡디가?)

112011 # 우린 죽으민, 우린 장옷 헷주게.(우린 죽으면, 우린 장옷 했지.)

112011 @ 응.(응.)

112011 # 물색 들연, 이디 이제 붉은 끗동 놓고 다 골름도 붉은 거 둘고, 이 몸뚱이엔 파란 것으로 장옷을 허엿는디, 덕수 간 살멍 폭도채, 궤채 문딱 카불언.(색깔 들여서, 여기 이제 붉은 끝동 놓고 다 고름도 붉은 거 달고, 이 몸뚱이엔 파란 것으로 장옷을 했는데 덕수 가서 살면서 폭도째, 궤째 모두 타버렸어.)

112011 @ 아.(아.)

112011 # 궤채, 궤 안네 돈도 놔뒁지. 나 오만 가지 사전 다 놔뒁지. 우리 집이서 케우지 안허고 그 부제칩이 오랑 다 털어간덴 허난 그디 족은 막살이 헹 사는 사름네 집이 강 머처사 헌덴 허난 일본서 우리 성님 고무신 허영 보낸 거영, 성님 돈 보낸 거영, 항가지[237]에 문 싸곡 헨 궤에 놘 오고셍이 궤채 술아져불언. 하나토 엇어.(궤째, 궤 안에 돈도 놔뒀지. 나 오만 가지 사전 다 놔뒀지. 우리 집에서 태우지 않고 그 부잣집에 와사 다 털어간다고 하니까 거기 작은 오막살이 해서 사는 사람네 집에 가서 맡겨야 한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우리 형님 고무신 해서 보낸 걸아, 형님 돈 보낸 거랑, 손수건에 모두 싸고 해서 궤에 놔서 그대로 궤째 살라버렸어. 하나도 없어.)

112021 @ 아이고. 암창개는 무신거마씨?(아이고. '암창개'는 무엇이에요?)

112021 # 암창개[238]엔 헌 건 사둔네도 오렌도 안 허곡 그자 암창개엔 헌 건 기자 그 아이고 어디 누게 새각시 싯젠 헤영은에 게건 데령 오렌 허영은에 없는 집이 사름 데려당 그날 밥헹 먹은 것이 암창개.('암창개'라고 한 건 사돈네도 오라고도

237) '항가치'는 일본어 'ハンカチ'에서 온 말로 손수건을 말한다.

238) '암창개'는 약혼하고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이 상제가 되거나, 먼 곳에 갔다가 혼례 당일 부득이 돌아오지 못할 때 신랑 없이 치르는 혼례를 말한다.

안 하고 그저 ‘암창개’라고 한 건 그저 그 아이고 어디 누구 새색시 있다고 해서 그러면 데려오라고 해서 없는 집의 사람 데려다가 그날 밥해서 먹은 것이 ‘암창개’.)

112021 @ 아, 데리러 가지 안허고 그냥 조용히?(아, 데리러 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112021 # 응. 사름이 또 남자가 황당헌 거 싯주게. 경헌디 그런 디도 암창개로 새각시가 속여. 이, 가난헌 집이 아이덜이, 암창개로 어디 시집감젠, 암창개로 감젠, 암창개로 감젠, 암창개로 감시민 어떵 새각시가 어떵 새서방이 황당헌가 어뜨난 암창개로 허염신고게 경 허멍 허영은에 그냥 아무것도 안헤영 그냥 돌아가. 걸엉 강 이 암창개로 갓젠 헤렌 헹 보민 새서방도 오도 안허곡이 자기대로 그 소개자가 돌앙 강 밥헹 먹엉 그것이 암창개.(응. 사람이 또 남자가 황당한 거 있지. 그런데 그런 데도 ‘암창개’로 새색시를 속여. 이,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암창개’로 어디 시집간다고, ‘암창개’로 간다고, ‘암창개’로 간다고, ‘암창개’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새색시가 어떻게 새신랑 황당한가 어째서 ‘암창개’로 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데려가. 걸어서 가서 ‘암창개’로 갔다고 하더라고 해서 보면 새신랑도 오지도 않고 자기대로 그 소개자가 데리고 가서 밥해서 먹어서 그것이 ‘암창개’.)

112021 @ 아니 게믄 여자는 그런 시집가구정 안헐 거 아니꽈?(아니 그러면 여자는 그런 시집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112021 # 아이고 어린 때 부모님 멩령이지. 요새 지집아이덜은 벨허영 연애허영도 가곡 지네 냥으로 부떵 애기도 낭 던져불곡, 그 시절엔 부미네가 죽으라 허민 죽는 서늉도 헐 거 아니가게, 에이구.(아이고 어릴 때 부모님 명령이지. 요새 계집아이들은 별나서 연애해서도 가고 자기네대로 붙어서 아기도 낳아서 던져버리고, 그 시절엔 부모네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도 할 거 아니냐, 아이고.)

112021 @ 아.(아.)

112021 # 게다 낭토막, 게다 신언에 들그락들그락 혹교 가는 놈신디 시집가렌 간 보난 게다 신엉 들그락들그락 가난 날 살지 기루느냐? 난 게도 으망진 체, 제선 으망진 첸 문 허곡. 처녀에선 왕이라난디.(왜나막신 나무토막, 왜나막신 신어서 달그락달그락 학교 가는 놈에게 시집가라고 가서 보니까 왜나막신 신어서 달그락달그락 가니까 나 살고 싶겠니? 난 그래도 야무진 체, 온갖 야무진 체는 모두 하고. 처녀에선 왕이었는데.)

112021 @ 하하하. 그 집이 잘사는 집인 모양인게게.(하하하. 그 집이 잘사는 집인 모양이네.)

112021 # 양반이 집이 뭐, 양반이 배부나? 상놈이 집이라도 배불어사주.(양반의 집이 뭐, 양반이 배부르냐? 상놈의 집이라도 배불러야지.)

112022 @ 하하하. 죽은 사름끼리도 결혼시킵니까?(하하하. 죽은 사람끼리도 결혼시킵니까?)

112022 # 죽은 사름끼리도 다 헌덴 허여. 죽은 사름끼리 헌덴은 헤도 어떵허는

건 몰.(죽은 사람끼리도 다 한다고 해. 죽은 사람끼리 한다고는 해도 어떻게 하는 건 몰.)

112022 @ 봐보진 안헨?(보진 않았어?)

112022 # 응.(응.)

112022 @ 결혼허지 못헹 죽은 남자 여자 나중에 결혼시켜 주는 건가?(결혼하지 못해서 죽은 남자 여자 나중에 결혼시켜 주는 건가?)

112022 # 응.(응.)

112022 @ 주변에서 그런 거 본 적은 엇고예?(주변에서 그런 거 본 적은 없고요?)

112011 # 나 우리 성님 시집갈 땐 둘랑 가봣저.(나 우리 형님 시집갈 때 따라서 가봤어.)

112011 @ 우시?(위요?)

112011 # 우시라게? 헤끄만헌 때게, 시 설 아래난 성님보단 시 설 아래난.(위요니? 조그마한 때, 세 살 아래니까 형님보다 세 살 아래니까.)

112011 @ 아, 예.(아, 예.)

112011 # 막 ᄀᆞ찌 가켄 허난에 ᄀᆞ찌 글렌. 우리 성님은 ᄀᆞ뜬 ᄆᆞ을이난에 가메로 들런 간.(아주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우리 형님은 같은 마을이니까 가마로 들어서 갔어.)

112011 @ 아.(아.)

112011 # 아이고 저 새각시 아시 왓구나, 새각시 아시 왓구나 허멍.(아이고 저 새색시 아우 왔구나, 아우 왔구나 하면서.)

112011 @ 예.(예.)

112011 # 우리 성은 오지 말렌 헤라게. 겡헤도 언니 가는 디 가켄 허멍 허난에 막 그디 우리 삼춘네영, 내불라게 가게, 내불라게 가게 헨 둘란 가난 무시거 알앗어게? 이. 경 허난 둘란 가난 새각시 아시도 ᄀᆞ찌 그 성 앚인 디 ᄀᆞ찌 앚이렌 헨에 밥도 ᄀᆞ찌 상드레 놔줜게. 겐 밥도 안 먹고게 무시거 허젠 가느니, 밥도 안 먹으멍이.(우리 형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도 언니 가는 데 가겠다고 하면서 하니까 막 거기 우리 삼촌네랑, 내버려라 가게, 내버려라 가게 해서 따라서 가니까 무엇 알았어? 응.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가니까 새색시 아우도 같이 그 형 앉은 데 같이 앉으라고 해서 밥도 같이 상에 놔주더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무엇 하려고 가니, 밥도 안 먹으면서.)

112011 @ 게난. 새각시 상허고 새서방 상은 ᄒᆞ꼼 특별하게 출리지예?(그러니까. 새색시 상하고 새신랑 상은 조금 특별하게 차리지요?)

112011 # 게. 새각시 상에 보민 뒈야지고기도 정반 무룩이 갈리로 지러기 이만썩 썰엉 놓곡이, 계란 놓곡 지지미 놓곡이 다 헌다. 부찌개덜이영 다 놓고.(그렇지. 새색시 상에 보면 돼지고기도 쟁반 가득히 갈비로 길이 이만큼씩 썰어서 놓고, 계란도 놓고 지짐이도 놓고 다 한다. 부침개들이랑 다 놓고.)

112011 @ 국은 무신 국 끌렁은에?(국은 무슨 국 끓여서?)

112011 # 국은게 니 발 탄 거, 도야지고기 안 먹는 사름은 바당고기로 주로 국 끌려. 겡 바당고기로 국 끌렁인에 보난에 나신딘 조그만헌 우럭산디사 대가리채 톡 사발에 거련 서라. 올렷어라.(국은 네 발 달린 거,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바닷고기로 주로 국 끓여. 그래서 바닷고기로 국 끓여서 보니까 나에게 조그마한 우럭인지 대가리째 톡 사발에 떠서 있더라. 올렸더라.)

112011 @ 메역국 아니민?(미역국 아니면?)

112011 # 메역국.(미역국.)

112011 @ 아, 메역국.(아, 미역국.)

112011 # 그거 저 우럭이라, 우럭. 경헨 조그만, 요만인 헌 거 사발에 톡 대가리채, 온 채 헤서라.(그거 저 우럭이야, 우럭. 그렇게 해서 조그만, 요만큼 한 거 사발에 톡 대가리째, 온째 했더라.)

112011 @ 옥돔 아니고 옥돔?(옥돔 아니고 옥돔?)

112011 # 옥돔도 아니고 거스러부도 아니고 뭐 밥 뜨라, 밥 뜨라, 서너 번 떠사 헌덴 가민, 시집갈 때 서너 번 뜬덴 헌 말은 들언에 서너 번 뜨고 안 뜨고 신부가 숟가락 심으렌 영영 허난에 숟구락 심언에 시길 땐 놈은 시집가난 사름은 국 ᄒᆞ쏠 영 먹어봉인에 허렌 헤라마는 먹어보도 안허고 밥 뜨라, 밥 뜨라 허난 숟구락 앗안 밥 미시거 서너 방울 거련에 국 ᄒᆞ쏠 영 먹는 체헨 숟구락 내불언.(옥돔 아니고 건드려 보지도 않고 뭐 밥 떠라, 밥 떠라, 서너 번 떠야한다고 가면, 시집갈 때 서너 번 뜬다고 한 말은 들어서 서너 번 뜨고 안 뜨고 신부가 숟가락 잡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숟가락 잡아서 시킬 땐 남은 시집갔던 사람은 국 조금 이렇게 먹어봐서 하라고 하더라마는 먹어보지도 않고 밥 떠라, 밥 떠라 하니까 숟가락 가져서 밥 무엇 서너 방울 떠서 국 조금 이렇게 먹는 체해서 숟가락 내버렸어.)

112011 @ 그믄 그 저 밥 아이덜 태와주고 헌덴 헨게마는.(그러면 그 저 밥 아이들 나눠주고 한다고 하던데.)

112011 # 경 허난 ᄃᆞᆨ새기가 상에 올리주게. 경 허민 그 가지 열앙 그 대반 앚인 사름이 숟구락으로 밥 시 번 접시레 거려놩, 계란 올렷지. 계란 올리민 그거 계란허고 상 알러레 놔.(그러니까 계란 상에 올리지. 그러면 그 바리뚜껑 열어서 그 대반 앉은 사람이 숟가락으로 밥 세 번 접시에 떠놔서, 계란 올렸지. 계란 올리면 그거 계란하고 상 아래로 놔.)

112011 @ 응, 거 뭐허는 거?(응, 그거 뭐하는 거?)

112011 # 몰라. 상 알르레 놧당인에 그 대반 앚인 사름사 ᄋᆞ져감신디 어떵헴신디 몰랏는디 내중엔 보난 그 대반 앚인 사름 ᄋᆞ져가나, 다른 사름을 ᄋᆞ져가도 아무 일도 안 헤.(몰라. 상 아래로 놨다가 그 대반 앉은 사람이야 가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엔 보니까 그 대반 앉은 사람 가져가나, 다른 사람을 가져가도 아무 일도 안 해.)

112011 @ 아니, 아이들 베끗디 상 구경허는 아이들.(아니, 아이들 바깥에 서서

구경하는 아이들.)

112011 # 베끗디 상 구경허는 아이덜, 우리 시집갈 때 그런 거 본 디 엇은디 그루후제 시집가민이 새서방, 새각시 왓젠 허민 아이덜이 아기업개질 허는 아이덜이 요디 일본서 공부허연 온 사름 부제칩이, 아방은 면에, 면서기로 뎅기곡 허는 집인디, 아기덜이 다 아기업개덜이라. 아기덜 업곡 헹은에 잔치허는디 새각시 들어오랑 상 받암젠 허민 그 난간에 수드레기 막 헤여. 수두레기 막 허민 다 새각시 그 대반 앚인 사름이, 대반 앚인 사름이, 대반, 새각시 밥 영 떵인에 그레 독새기 놩 아래 놔둰인에 새각시ᄀᆞ라 밥 먹으렌 헤둰 그 대신 그 밥 아니랑 다른 밥 불렁인에 그 대반 앚인 사름이 그 아이덜 숟ᄀᆞ락으로 밥, 손 받으렌 다 주민, 손 받으멍 다 먹주게. 받지 못헌 사름은 ᄉᆞ뭇 난리 나곡.(바깥에 서서 구경하는 아이들, 우리 시집갈 때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그후에 시집가면 새신랑 새색시 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업저지 하는 아이들이 요기 일본서 공부해서 온 사람 부잣집, 아버지는 면에, 면서기로 다니고 하는 집인데, 아기들이 다 업저지들이야. 아기들 없고 해서 잔치하는데 새색시 들어와서 상 받는다고 하면 그 난간에 수두룩하게 막 해. 수두룩하게 막 하면 다 새색시 그 대반 앉은 사람이, 대반 앉은 사람이, 대반, 새색시 밥 이렇게 떠서 그리 달걀 놔서 아래 놔두고 새색시보고 밥 먹으라고 해두고 그 대신 그 밥 아니고 다른 밥 불러서 그 대반 앉은 사람이 그 아이들 숟가락으로 밥, 손 받으라고 다 주면, 손 받으면서 다 먹지. 받지 못한 사람은 사뭇 난리 나고.)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 그추룩 허는디, 아, 그 집은 단아덜이고 똘도 아덜토 엇은디 새서방 어멍이 오란 아이덜 다울려두고 문 더꺼불엇젠. 게난 아이덜이, 아기 업은 아이덜이영 안 업은 아이여 밥 얻어먹젠 허단 사름인디, 요 학교 집이 산디 문딱 그 아기덜 으남은 난 지집아이덜 ᄉᆞ뭇 목이 카지게 울언. 목이 카지게.(그처럼 하는데, 아, 그 집은 외아들이고 딸도 아들도 없는데 새신랑 어머니가 와서 아이들 쫓아내고 문 닫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기 업은 아이들이랑 안 업은 아이 밥 얻어먹으려고 하던 사람인데, 요 학교 집인지 모두 그 아기들 여남은 난 계집아이들 사뭇 목 터지게 울었어. 목이 터지게.)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 잔치 먹으레 간 사름덜 아이고 어뜨난 저디 아이덜 산 드러 울엄젠 허난 아이고 새각시 들어오란 그 새각시 밥 먹카부덴 새서방 어멍 간에 문 떠꺼불어 놓난 저 노릇 아니라게 허멍. 겐 그 집이 막 욕헤라게. 욕헨이 그 할망네 아주 나쁜 것들이엔 허멍 막 욕해.(잔치 먹으러 간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하니까 저기 아이들서서 들이 울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새색시 들어와서 그 새색시 밥 먹을까 봐 새신랑 어머니 가서 문 닫아놓으니까 저 노릇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그 집을 막 욕하더라. 욕해서 그 할머니네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하면서 막 욕해.)

112011 @ 밥은 곤밥 헤근에?(밥은 흰쌀밥 해서?)

112011 # 곤밥, 곤밥.(흰쌀밥, 흰쌀밥.)

112011 @ 새각시밥은.(새색시밥은.)

112011 # 새각시밥 우선 그 새각시 밥 흔 숟구락, 둬 숟구락 영 거리고 독새기 놩 상 알레 놔둰 새각시ᄀᆞ라 먹으렌 헤동인에 다른 밥, 그릇으로 ᄋᆞ져온다. 그 아이덜 주젠.(새색시 밥 우선 그 새색시 밥 한 숟가락, 둬 숟가락 이렇게 뜨고 달걀 놔서 상 아래 놔두고 새색시보고 먹으라고 해서 다른 밥, 그릇으로 가져온다. 그 아이들 주려고.)

상례

112024 @ 이번에는 할머니 누구 사름 죽으민 어떵헙니까 허는 거 물어볼 거예.(이번에는 할머니 누구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 물어 볼 거요.)

112024 # 응.(응.)

112024 @ 저 뭐 아버지 어머니나예 돌아가실 때 헤난 거 생각헹 ᄀᆞᆯ아줍서예. 옛날 헤난 거예.(저 뭐 아버지 어머니나요 돌아가실 때 했던 거 생각해서 말해주세요. 옛날 했던 거요.)

112024 # 응.(응.)

112024 @ 처음 사름이 죽엇젠 허민 어떵 헹 알아져?(처음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알아?)

112024 # 죽엇젠 허민게 아팡은에 헤가민 죽는 거 알아지주게이.(죽었다고 하면 아파서 해가면 죽는 거 알 수 있지.)

112024 @ 마지막에.(마지막에.)

112024 # 마지막에 물도 거려놓젠 허민 ᄂᆞ리도 안허곡 아이고 이젠 어머니 다 죽엄구나 다 죽엄구나 이 물 흔 적만 먹읍서, 먹읍서. 난 우리 어머니넨 젊은 때 죽어불고 아부지 헐 때엔 우리 이디 양제 어른덜이 동산에 허난에 우리 그 양제 오라방이 ᄀᆞ찌 눳주게. 눠도 우리 아부진 아프지 안헹 죽언.(마지막에 물도 떠 놓으려고 하면 내리지도 낳고 아이고 이젠 어머니 다 죽고 있구나 다 죽고 있구나 이 물 한 모금만 드세요, 드세요. 난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 죽어버리고 아버지 할 때엔 우리 여기 양자 어른들이 지켜서서 하니까 우리 그 양자 오라버니가 같이 누었지. 누워도 우리 아버진 아프지 않고 죽었어.)

112024 @ 어떵 허당은에?(어떻게 하다가?)

112024 # 하도 늙으난에 노빙으로.(하도 늙으니까 노병으로.)

112024 @ 아, 멧 술에 돌아갓수과?(아,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112024 # 아흔 멧 술에 죽는디 경헤연 아부지 죽는 건이 그디 동네 늙은 하르방 오란 놀멍 우리 족은뚤이 그 지집아이 멧 술이라 허난에. 이제 열 멧 술이우다 허난 아이고 착험도 요ᄒᆞ루기 오란 보난 물 데와단 물 데와단에 하르방 수건으로 적젼에 문딱 등뗑이영 문 가슴이영 다 풀이영 다리영 다 시찌멍 아이고 그 염치 날 생각이 어디로 나신곤이 국민ᄒᆞ교 오학년짜린디 경헷젠 허멍 하도 착허연. 겨난 아이 성질이 경헙니다. 우리 막둥이뚤 경헙니다.(아흔 몇 살에 죽는데 그렇게 해서 아

버지 죽는 건 거기 동네 늙은 할아버지 와서 놀면서 우리 막내딸이 그 계집애 몇 살이냐 하니까. 이제 열 몇 살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착하기도 요전에 와서 보니까 물 데워다가 물 데워다가 할아버지 수건으로 적셔서 모두 등이랑 모두 가슴이랑 다 팔이랑 다리랑 다 씻으면서 아이고 그 염치 날 생각이 어디로 났는고 초등학교 오 학년짜리인데 그랬다고 하면서 하도 착해서. 그러니까 아이 성질이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딸 그렇게 합니다.)

112024 @ 응.(응.)

112024 # 집안도 깨끗허게 청소, 두 번 시 번 허는 아이라.(집안도 깨끗하게 청소, 두 번 세 번 하는 아이야.)

112024 @ 응.(응.)

112024 # 인물도 곱주마는 기추룩 헙니다 허난 경헷구나 헨에 그 하르방 오란 앚인디 날, 나가 셋똘은 셋년은 오널 니네 똘 허듯이 날 이 우로만 ᄒᆞ쏠 물 데왕은에 ᄒᆞ쏠 밀어 도렌.(인물도 곱지마는 그처럼 합니다 하니까 그랬구나 해서 그 할아버지 와서 앉았는데 날, 내가 둘째딸은 둘째딸은 오늘 너희 딸 하듯이 날 이 위로만 조금 물 데워서 조금 밀어 달라고.)

112024 @ 응.(응.)

112024 # 경 허난 이젠 그 하르방 앚인 냥 이젠 물 데완에 이젠 다라에 놔서 수건에 적젼에 등뗑이영 ᄆᆞᆫ딱 따끄고 얼굴이영 ᄂᆞᆺ이영 다깐 이 가슴팍이영 다 헨 다리 벗읍센 헨 이디도 ᄆᆞᆫ 따끄고 허멍 허난에.(그러니까 이젠 그 할아버지 앉은 채 이젠 물 데워서 이젠 대야에 놔서 수건 적셔서 등이랑 모두 닦고 얼굴이랑 낯이랑 닦아서 이 가슴팍이랑 다 해서 다리 벗으라고 해서 여기도 모두 닦고 하면서 하니까.)

112024 @ 응.(응.)

112024 # 막 따끄난에, 아부지가 요딜 톡 지퍼보렌.(막 닦으니까, 아버지가 요길 톡 짚어보라고.)

112024 @ 응.(응.)

112024 # 요딜 톡 지퍼보렌 허난, 착착 가단 툭 끈어지고 착착 가단 툭 끈어져라게. 경 허난 어떵 헴시 허난 요펜인 허난 그냥 착착 가고 요만은 허난 착착 가단 톡 끈어지고 착착 가단 톡 끈어졈수다 허난.(요길 톡 짚어보라고 하니까, 착착 가다가 툭 끊어지고 착착 가다가 툭 끊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니 하니까 요편은 하니까 그냥 착착 가고 요만큼은 하니까 착착 가다가 톡 끊어지고 착착 가다가 톡 끊어집니다 하니까.)

112024 @ 응.(응.)

112024 # 기자 묵은날에만 돌아가민 손을 보주만은 샛날에 죽으민 손을 못 보게 뒈켜 허난에 그 하르방은 그거 알아져 허난 대개 짐작허여. 우리 아버지가 유식허더라.(그저 전날에만 돌아가면 손을 보지마는 새날에 죽으면 손을 못 보게 되겠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거 알아 하니까 대개 짐작해. 우리 아버지가 유식하더라.)

112024 @ 아.(아.)

112024 # 식자도 좋고 유식허여. 그런 거 짐작허여져. 야, 밤이 우린 동녁방에 눅고 서녁방에 우리 아부지 눅곡 양제 오라방이 ᄀᆞ찌 눴주게. 눈디 꿈에 보난에 우리 질 우녁집이난 한질.(식자도 좋고 유식해. 그런 거 짐작할 수 있어. 야, 밤에 우린 동녘방에 눕고 서녘방에 우리 아버지 눕고 양자 오라버니가 같이 누었지. 누웠는데 꿈에 보니까 우리 길 윗집이니까 한길.)

112024 @ 응.(응.)

112024 # 올레가 한질이난에 요 우녁집 질이 한질 그 동녁집이 이제 튿어불언 우영팟 뒈엇주마는 것이 우리 집터주게. 경헌디 추사관 서녁 거.(‘올레’가 한길이니까 요 우녘집 길이 한길 그 동녘집에 이제 뜯어버려서 텃밭 되었지마는 그것이 우리 집터지. 그런데 추사관 서녘 거.)

112024 @ 응.(응.)

112024 # 경헌디 하르방이 헤영헌 두루막 입언 올레에 삿어, 꿈에.(그런데 할아버지가 하얀 두루마기 입어서 ‘올레’에 섰어, 꿈에.)

112024 @ 응.(응.)

112024 # ᄀᆞ만이 우리 이디 눴단 파짝 깨난 보난 꿈이난 올레레 영 바레멍 확 간 보난 우리 아버지가 똠이 송송허연에.(가만히 우리 여기 누웠다가 파짝 깨어나서 보니까 꿈이니까 ‘올레’에 이렇게 보면서 확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땀이 송송해서.)

112024 @ 아.(아.)

112024 # 똠이 털어지지 안허연 동글동글동글동글 헌 냥 이서. 이런 디영이 이런 디 동글동글동글 방울똠으로만 둘아젼. 오라방, 오라방 아이고 아부지 얼굴 이상헴수다게, 이상헴수다게. 영 봔 아이 이 똠이 동글동글 털어지진 안허고 동글동글헤수다게 허난. 우리 아주망넨 또 저 안네 추사관 그 초가집 동녁집이 살앗주게. 게난 간 아주망 둘아오렌 헨 둘안오난 우리 오라방은 아버지 죽은 거 겁난고라 양제 오라방인디. 이디 시렌 허멍 아바지 친구 강 둘앙 오켄 헹 혹교 뒤에 고칩이 하르방 오란. 고칩이 하르방은 아이고 성님 복 좋다, 성님 복 좋다.(땀이 떨어지지 않아서 동글동글동글동글 한 대로 있어. 이런 데랑 이런 데 동글동글동글 방울땀으로만 달렸어. 오라버니, 오라버니 아이고 아버지 얼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봐서 아니 이 땀이 동글동글 떨어지진 않고 동글동글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아주머니넨 또 저 안에 추사관 그 초가집 동녘집에 살았지. 그러니까 가서 아주머니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오니까 우리 오라버니는 아버지 죽은 거 겁났는지 양자 오라버닌데. 여기 있으라고 하면서 아버지 친구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학교 뒤에 고씨 집 할아버지 왔어. 고씨 집 할아버지는 아이고 형님 복 좋다, 형님 복 좋다.)

112024 @ 응.(응.)

112024 # 성님은 흔 이십 년 손가락 하나 ᄀᆞ딱 안헨 살앗는디 나는 아들뚤이 바글바글헤도 나냥으로 조막단지 들렁인에 물 져당인에 먹곡 할망도 서도이 할망도

ᄐᆞ로 밥헹 먹곡 ᄒᆞᆫ 집이 살멍.(형님은 한 이십 년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살았는데 나는 아들딸이 바글바글해도 나대로 조막단지 들어서 물 져다가 먹고 할머니가 있어도 할머니도 따로 밥해서 먹고 한 집에 살면서.)

112024 @ 하하하.(하하하.)

112024 # 하르방도 ᄐᆞ로 밥헹 먹곡이. 아이고 나 조케야. 성님은 복 좋다. 성님 날 ᄃᆞᆯ앙 갑서. 무사 날 내불어둰 감수광, 날 ᄃᆞᆯ앙갑서 허멍 막 울어게.(할아버지도 따로 밥해서 먹고. 아이고 나 조카야. 형님은 복 좋다. 형님 날 데리고 가세요. 왜 날 내버려두고 갑니까, 날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막 울어.)

112024 @ 응.(응.)

112024 # 경 허고테, 아, 이상허다. 그 어른은 아덜도 시 성제 잇고이 뚤도 시 성제 신디 우리는 아덜도 죽어불고이.(그러길래, 아, 이상하다. 그 어른은 아들도 삼 형제 있고 딸도 삼 형제 있는데 우리는 아들도 죽어버리고.)

112024 @ 응.(응.)

112024 # 뚤도 일본 가고 육지 가불고 나 하나 뿐인디 볼 사름 엇언 그 양제, 돈 멧견, 재산 멧길 사름벳긔 엇은디 아이고 재산 멧긴 사름 이 멧긴 사름 아덜을 우리 아부지 ᄃᆞᆯ앙 살렌 헨 멧기난 우리 아부진 아무 말도 안 헤라게.(딸도 일본 가고 육지 가버리고 나 하나 뿐인데 볼 사람 없어서 그 양자, 돈 맡겨서, 재산 맡길 사람밖에 없는데 아이고 재산 맡긴 사람 이 맡긴 사람 아들을 우리 아버지 데리고 살라고 해서 맡기니까 우리 아버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112024 @ 응.(응.)

112024 # 아무 말도 안헌디 그 담배칩이 하르방이 우리 아부지 딱 산 때에 야, 조케야 이레 오라 허난 무사마씸 허난 하르방 오늘ᄁᆞ지 밥 ᄒᆞᆫ 사발 안 먹엇저 허난 나 헌 말은 똥 쌀 디 엇언 안 먹엇수과? 양제 애기벳긔 몰라, 우리 아버지넨. 양제 손지덜벳긔 양제 손지 대학ᄁᆞ지 문 시키고. 몰라. 무신 똥 쌀 디 엇언 안 먹엇젠 헙디가 허멍, 원 조케 뭣이엔 ᄀᆞᆯ으건 들음이라도 허렌. 안 들으난. 또 ᄒᆞᆫ 사흘 넘으난 조케야 느 무사 ᄀᆞᆯ으난 말 안 들엄디, 오늘ᄁᆞ지 하르방 닷쉐여.(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담뱃집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딱 산 때에 야, 조카야 이리 오라 하니까 왜요 하니까 할아버지 오늘까지 밥 한 사발 안 먹었다 하니까 나 한 말은 똥 쌀 데 없어서 안 먹었습니까? 양자 아기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는. 양자 손자들밖에 양자 손자 대학까지 모두 시키고. 몰라. 무슨 똥 쌀 데 없어서 안 먹었다고 하더냐 하면서, 원 조카 뭐라고 말하면 듣기라도 하라고. 안 들으니까. 또 한 사흘 넘으니까 조카야 너 왜 말하니까 말 안 듣느냐고, 오늘까지 할아버지 닷새야.)

112024 @ 아.(아.)

112024 # 밥 안 먹기가 닷쉐여 헤도 내붑서, 내붑서 허멍 그치룩 허멍 헨에 이젠 오난 읏새 첸 우리 그 오라방 각시가 하르방 밥 헤주라 헤라게.(밥 안 먹기가 닷새다 해도 내버리세요, 내버리세요 하면서 그처럼 하면서 해서 이젠 오니까 엿새째 우리 그 오라버니 각시가 할아버지 밥 해주라 하더라.)

112024 @ 응.(응.)

112024 # 하르방 밥 헤주라 허고테 밥 헤주당에 나 무슨 말 들음사 헐티 나 밥 안허쿠다, 아이고 다신 안 허크라, 다신 안 허크라 헤라게. 게도 우리 아부진 나가 밥 굶언 메틀 안 먹노라 대노라도 안허연. 겐 하르방 보냉 하르방냥으로 부억에서 헤 먹읍렌 헙서. 우린 웃동네서 우린 헤 먹쿠다 허난 아이고 지네가 짓은 쥐가 시난 다신 경 안허켜게, 다신 경 안허켜게. 아니우다, 아니우다 헤도 아방 딱 둘아단 들이치난 큰방에 눅지고 우린 족은방에 눅게 뒈난 하르방이 그날 오는 날은 저물아가난 닐 장이여 허난. 장헹 뭣헙니까 허난. 장날에 강은에 비애기 둬 개 상 오라.(할아버지 밥 해줘라 하길래 밥 해주다가 나 무슨 말 들기야 할지 나 밥 안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신 안 하겠어, 다신 안 하겠어 하더라. 그래도 우리 아버진 내가 밥 굶어서 며칠 안 먹노라 대노라도 안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 보내서 할아버지대로 부엌에서 해 먹으라고 하세요. 우린 윗동네서 우린 해먹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자기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다신 그렇게 않겠다, 다신 그렇게 않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도 아버지 딱 데려다가 들이뜨리니까 큰방에 눕히고 우리는 작은방에 눕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그날 오는 날은 저물어가니까 내일 장이다 하니까. 장 해서 뭐 합니까 하니까. 장날에 가서 병아리 둬 개 사 와라.)

112024 @ 응.(응.)

112024 # 사당인에 느네 애기덜토 잡아주고 나도 잡아 도라 허난 우리 아버지 살 때에 그 양제 손지 멧길 때에 새끼 나는 암툭이 다섯 개 장둑끄지 으슷 개 살단에 손지 마탕 살렌 줫주게. 겨난 작산 둑 예술곱 ᄆᆞ리 잡으라 느네도 먹곡 나도 먹켄 무사 못 ᄀᆞᆯ읍디가? 똑 나신디 오랑은에 사오렌.(사다가 너희 아이들도 잡아주고 나도 잡아 달라 하니까 우리 아버지 살 때 그 양자 손지 맡길 때에 새끼 나는 암탉이 다섯 개 장닭까지 여섯 개 살다가 손지 맡아서 살라고 줬지. 그러니까 그 많은 닭 예닐곱 마리 잡아라 너희도 먹고 나도 먹겠다고 왜 못 말합니까? 꼭 나에게 와서 사오라고.)

112024 @ 하하하.(하하하.)

112024 # 경 ᄀᆞᆯ으난 뭣이엔 ᄀᆞᆯ으민 예 소리사 무사 허여 와들랑 바들랑 헴젠. 경헤도 헐 수 엇이 장날에 간에 빙아기 어린 거 두 개 산 오란 잡안 죽에 둑다리 하나 놓난 둑다린 안 튿고 죽만 먹언 안 먹어라게. 겐 우리 집이 나영 닷새 살단 죽어불언. 닷새 살안 죽언.(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예 소리야 왜 해 와들랑 바들랑 한다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장날에 가서 병아리 어린 거 두 개 사 와서 잡아서 죽에 닭다리 하나 놓으니까 닭다린 안 뜯고 죽만 먹어서 안 먹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 나랑 닷새 살다가 죽어버렸어. 닷새 살아서 죽었어.)

112024 @ 아. 죽으면예 이 사람이 죽엇구나 헌 걸 어떵 알아? 영 숨 이런 거 헤봐 아니민 이디 영 귀 대봐?(아. 죽으면요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한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숨 이런 거 해봐 아니면 여기 이렇게 귀 대봐?)

112024 # 불써게 숨 안 쉬는 거 알아져.(벌써 숨 안 쉬는 거 알 수 있어.)

112024 @ 아, 숨 안 쉬는 거 알아져.(아, 숨 안 쉬는 거 알 수 있어.)
112024 # 응.(응.)
112024 @ 영 손으로 영 헤봐? 아니?(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봐? 아니?)
112024 # 영 안 헤도 알아져. (이렇게 안 해도 알 수 있어.)
112024 @ 알아져.(알 수 있어.)
112024 # 다 죽어가민 눈 곰앙인에 딱 곰아부는 것도 알아지곡이.(다 죽어가면 눈 감아서 딱 감아버리는 것도 알 수 있고.)
112024 @ 아.(아.)
112024 # 눈 영 텃당이라도 기자 설룬 어른은이 눈물 그렁 내멍 눈 딱허게 종가불어.(눈 이렇게 떴다가라도 그저 서러운 어른은 눈물 그렁 내면서 눈 딱하게 잠가버려.)
112024 @ 아.(아.)
112024 # 경 허민이 이디 이 선생이엔 헌 사름이 훼장 아판 다 죽어가난이 물 거려 놓라, 물 거려 놓으라[노라] 헤도 생전 안 거려 놓더라게.(그러면 여기 이 선생이라고 한 사람이 회장 아파서 다 죽어가니까 물 떠 넣어라, 물 떠 넣어라 해도 생전 안 떠 넣더라.)
112024 @ 응.(응.)
112024 # 안 거려놘게. 아이고 성님. 기자 아기 숭 볼 수가 잇수과? 기자 다 손 페와뒁 싹 손 벌경인에 성님 갑서, 아기 숭볼 수가 이시광 허멍 허난 그 며느리도 시어멍 밥을 졸바로 안 주더라게.(안 떠 넣어. 아이고 형님. 그저 가기 흉 볼 수가 있습니까? 그저 손 펴두고 싹 손 벌려서 형님 가세요, 아기 흉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니까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 밥을 제대로 안 주더라.)
112024 @ 죽을 때 무사예, 무슨 미음 같은 거 쒀근에 숟가락으로 멕이던데.(죽을 때 왜요, 무슨 미음 같은 거 쑤어서 숟가락으로 먹이던데.)
112024 # 응.(응.)
112024 @ 그건 뭐마씨?(그건 뭐예요?)
112024 # 미음 ᄀᆞ뜬 거 목숨 다 떨어질 때 미음이 아니고 그냥 건지 못 먹어.(미음 같은 거 목숨 다 떨어질 때 미음이 아니고 그냥 건지 못 먹어.)
112024 @ 응.(응.)
112024 # 국물 영 거려놓민 돌깍돌깍 내려.(국물 이렇게 떠놓으면 '돌깍돌깍' 내려.)
112024 @ 죽기 전에 그거 헹 멕이는 거? 원래?(죽기 전에 그거 해서 먹이는 거? 원래?)
112024 # 다 죽어가민 그 물을 쑤주게.(다 죽어가면 그 물로 쑤지.)
112024 @ 무신걸로 허는 거? 쌀로 허는 거 아니민.(무엇으로 하는 거? 쌀로 하는 거 아니면.)
112024 # 쏠로게. 쏠로 허난. 또시 경헹 그 할망 죽어라마는. 우리 이디 친구 ᄀᆞ

찌 놀던 사름이 뚤덜이 댓 개 서도이 무신 가제산디 물 적젼 이디 더껑인에 허난야, 물 이레 ᄋᆞ져오라 헨에, 아이고 물 멕이지 맙서 그디 큰뚤이, 물 멕이지 맙서, 물 멕이지 야, 다 죽는 사름도 물 흔 적은 멕여사 헌다.(쌀로. 쌀로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 죽더라마는. 우리 여기 친구 같이 놀던 사람이 딸들이 댓 개 있어도 무슨 가제인지 물 적셔서 여기 덮어서 하니까 야, 물 이리 가져와라 해서, 아이고 물 먹이지 마세요 거기 큰딸이, 물 먹이지 마세요, 물 먹이지 야, 다 죽는 사람도 물 한 모금은 먹여야 한다.)

112024 @ 응.(응.)

112024 # ᄋᆞ져오렌 헨 이젠 거련에 영 놓난 돌깍허게 ᄂᆞ려라게. 아이고 물 ᄂᆞ렴수다. 야 목숨 다 꺼져도 물 이디 거려놓으민[거려노민] 안 ᄂᆞ려가민 요디 영영허민 돌깍 ᄂᆞ린다. 야, 어제부떠 이제도록 물을 안 거려놧젠 헌 말이 무슨 말고? 겐나 두 번 거려놘 돌깍돌깍 ᄂᆞ리난 그 집이 큰뚤 아이고 목숨 엇은 거 닮아도 물 ᄂᆞ렴수다, 물 ᄂᆞ렴수다. 물 ᄂᆞ리주 안 ᄂᆞ리느냐?(가져오라고 해서 이젠 떠서 이렇게 놓으니까 '돌깍'하게 내리더라. 아이고 물 내립니다. 야 목숨 다 꺼져도 물 이리 떠넣으면 안 내려가면 요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돌깍' 내린다. 야, 어제부터 이제도록 물을 안 떠놨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인고? 그래서 나 두 번 떠놔서 '돌깍돌깍' 내리니까 그 집에 큰딸 아이고 목숨 없는 거 같아도 물 내립니다, 물 내립니다. 물 내리지 안 내리느냐?)

112024 @ 아.(아.)

112024 # 다 죽어가도 물 거려놔.(다 죽어가도 물 떠놔.)

112025 @ 그 뭐 지붕 우에 올라강 옛날엔 복복복 영 헤근에 허는 거.(그 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옛날에 복복복 이렇게 해서 하는 거.)

112025 # 건 혼 불르는 거.(그건 혼 부르는 거.)

112025 @ 건 어떵 허는 거?(그건 어떻게 하는 거?)

112025 # 그 사름 죽엇젠 웨는 거주게.(그 사람 죽었다고 외는 거지.)

112025 @ 아, 무신거 들러근에? 그 사름 옷?(아, 무엇 들어서? 그 사람 옷?)

112025 # 적삼.(적삼.)

112025 @ 응.(응.)

112025 # 그 사름 우이 적삼.(그 사람 위에 적삼.)

112025 @ 죽은 사름?(죽은 사람?)

112025 # 응. 적삼 들러근에 이제 감젠.(응. 적삼 들어서 이젠 간다고.)

112025 @ 감젠.(간다고.)

112025 # 지붕 우이 아니라도 이런 돌 높은 디라도 올라.(지붕 위에 아니라도 이런 돌 높은 데라도 올라.)

112025 @ 응, 사근에.(응, 서서.)

112025 # 혼 불러.(혼 불러.)

112025 @ 혼 불러.(혼 불러.)

112025 # 감젠.(간다고.)
112025 @ 감젠. 그믄 그거 헤난 저고린 나중에 어떵 허는 거꽈?(간다고. 그러면 그거 하니까 저고린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25 # 그 저고린 어떵 허여?(그 저고린 어떻게 해?)
112025 @ 적삼.(적삼.)
112025 # ᄀᆞ찌 장밧디나 어디 가서 술아부는 거주.(같이 장지나 어디 가서 태워 버리는 거지.)
112025 @ 응.(응.)
112025 # 그거 헤나민 이 관, 관 우이 영 톡 더끈다.(그거 하고 나면 이 관, 관 위에 이렇게 톡 덮는다.)
112025 @ 아, 그 옷?(아, 그 옷?)
112025 # 응, 적삼. 혼 불른 거이 관 우이 톡 더껏당 장밧디 강이라도 옷 술 때ᄉᆞ나 뭐허나.(응, 적삼. 혼 부른 거 관 위에 톡 덮었다가 장지에 가서라도 옷 태울 때 태우거나 뭐하나.)
112025 @ 장밧은 어떵 헤근에?(장지는 어떻게 해서?)
112025 # 영장, 영장밧디 강.(영장, 장지에 가서.)
112026 @ 게난 영장밧은 어디 강 묻을 건지 어떵 헤근에 결정헤?(그러니까 장지에 어디 가서 묻을 건지 어떻게 해서 결정해?)
112026 # 산에 묻는 디가 이시주게.(산에 묻는 데가 있지.)
112026 @ 아니 경헤도.(아니 그래도.)
112026 # 이 대정으론 저 모슬봉 오름에 강 다 묻나.(이 대정으로 저 모슬봉 오름에 가서 다 묻나.)
112026 @ 아. 아니 뭐 밧디 강, 우리 밧디 묻는 사름도 이수게?(아. 아니 뭐 밭에 가서, 우리 밭에 묻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112026 # 응, 이녁 밧디 묻는 사름도 싯곡.(응, 자기 밭에 묻는 사람도 있고.)
112026 @ 거 어디 가근에 저 물어봐?(그거 어디 가서 저 물어봐?)
112026 # 게, 물어봐.(그러게, 물어봐.)
112026 @ 어디 강 묻는 게 좋을지?(어디 가서 묻는 게 좋을지?)
112026 # 게 방향이. 듣나게.(그러게 방향이. 듣는다.)
112026 @ 누게신디 강?(누구에게 가서?)
112026 # 그런 묻는 사름 서. 정시신듸 강은에 어드레 돌아앚지는 거.(그런 묻는 사람 있어. 지관에게 가서 어디로 돌아앉는 거.)
112026 @ 응.(응.)
112026 # 어떵 허는 거. 공동미엔이 숭이 없어.(어떻게 하는 거. 공동묘지에는 흉이 없어.)
112027 @ 관은 어떵 헤근에 짜는 거?(관은 어떻게 해서 짜는 거?)
112027 # 응?(응?)

112027 @ 관, 관. 사람 죽으민 관에 헤야 뒙니께?(관, 관. 사람 죽으면 관에 해야 되잖습니까?)

112027 # 응.(응.)

112027 @ 관은 어디 가근에 짜?(관은 어디 가서 짜?)

112027 # 관은 장애자[239]ᄀᆞ라 ᄀᆞᆯ으민.(관은 장의사보고 말하면.)

112027 @ 누게신듸?(누구에게?)

112027 # 장애자.(장의사.)

112027 @ 장애자가 누게?(장의사가 누구?)

112027 # 영장 묻는 사름덜.(송장 묻는 사람들.)

112027 @ 아, 그 사람신디. 옛날에도 경헨?(아, 그 사람에게.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

112027 # 엿날엔 이녁 집이 관을 딱 헹 그 무슨 굴무기로 허영인에 멋진 관 헹 놔뒀당은에 허메.(옛날엔 자기 집에 관을 딱 해서 그 무슨 느티나무로 해서 멋진 관 해서 놔뒀다가 해.)

112027 @ 아, 집이 헹 놔둬? 사람, 죽을 사람, 나이 든 사람 이시민?(아, 집에 해서 놔둬? 사람, 죽을 사람, 나이 든 사람 있으면?)

112027 # 막 빗난 낭으로 허영 놔뒀당인에 허주마는 요즘은 죽엇젠 허민 장애자 시민 관 ᄋᆞ져당 탁 허게.(막 비싼 나무로 해서 놔뒀다가 하지마는 요즘은 죽었다고 하면 장의사 있으면 관 가져다가 탁 하게.)

112027 @ 건 요즘이고 옛날 헤난 거 할머니.(그건 요즘이고 옛날 했던 거 할머니.)

112027 # 엿날에, 엿날에. 관덜을 헹 놔둬.(옛날에, 옛날에. 관들을 해서 놔둬.)

112027 @ 미리 헹 놔둬?(미리 해서 놔둬?)

112027 # 응. 굴무기낭으로, 굴무기 궤영 허지 안허여 빈찍빈찍.(응. 느티나무로, 느티나무 궤랑 하지 않니 번쩍번쩍.)

112027 @ 예, 예.(예, 예.)

112027 # 굴무기 궤로, 첨 낭으로.(느티나무 궤로, 참 나무로.)

112027 @ 관으로.(관으로.)

112027 # 게, 허영 놧당.(그러게, 해서 놨다가.)

112027 @ 미리 준비헹 놔두는구나예.(미리 준비해서 놔두는군요.)

112027 # 우리 친정 아버지도 굴무기로 관 헨 놔둰.(우리 친정 아버지도 느티나무로 관 해서 놔뒀어.)

112028 @ 응. 그 죽엉 갈 때 입는 옷은?(응. 그 죽어서 갈 때 입는 옷은?)

112028 # 죽엉 갈 때 옷은 멩지 바지저고리허고 남전 멩지 도복허곡.(죽어서 갈 때 옷은 명주 바지저고리하고 남자는 명주 도포하고.)

112028 @ 것도 미릿 헹 놔두는 거주예?(그것도 미리 해 놔두는 거지요?)

---

239) '장애자'는 장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112028 # 게, 허영 갱 놔둬. 나도 이제 장옷이영.(그렇지, 해서 개어서 놔둬. 나도 이제 장옷이랑.)

112028 @ 헨 놔둡디가?(해서 놔두셨습니까?)

112028 # 멩지치메 저고리영 다 헨 놔뒀어.(명주치마 저고리랑 다 해서 놔뒀어.)

112028 @아.(아.)

112028 # 나 질루난. 멩지 질루난게. 시어멍네도 저승옷 다헤주고 시아방도 헤주고 우리 뚤 시 성제, 메누리끄지 나 장옷끄지 다 헤줜. 이 보선, 신끄지 나 다 헤줜.(나 기르니까. 명주 기르니까. 시어머니네도 수의 다 해주고 시아버지도 해주고 우리 딸 삼 형제, 며느리까지 나 장옷까지 다 해줬어. 이 버선, 신까지 나 다 해줬어.)

112028 @ 그믄 그거는 언제 헹 놔둬, 언제 헤야 뒈는 거마씨?(그러면 그거는 언제 해서 놔둬,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112028 # 그건이 이 윤둘 시는 헤에.(그건 이 윤달 있는 해에.)

112028 @ 아.(아.)

112028 # 윤둘 시는 헤에 맞촹 놔두는 거. 우리 그때 윤둘 허는 헤에 나 멩지로 뚤이영 아덜 거. 우리 메누리 시집갈 때 멩지 치메 헤주켄, 멩지 치메저고리 입는 사름 어디 싯수광 허난 아니허연 아덜만 멩지 바지저고리, 멩지 두루막, 멩지 도복 믄 헷주게. 경 허난 뚤덜 허는 ᄇᆞ름에 다 헤줜. 사온 모시 산 두루막허고 베 산 중의적삼 팔월에 제 맞일 때 입으렌 다 주고. 나 경 막아진 사름 아니.(윤달 있는 해에 맞춰서 놔두는 거. 우리 그때 윤달 하는 해에 나 명주로 딸이랑 아들 거. 우리 며느리 시집갈 때 명주 치마 해주겠다고, 명주 치마저고리 입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안 해서 아들만 명주 바지저고리, 명주 두루마기, 명주 도포 모두 했지. 그렇게 하니까 딸들 하는 바람에 다 해줬어. 사온 모시 산 두루마기하고 베 사서 중의적삼 팔월에 제 맞을 때 입으라고 다 주고. 나 그렇게 막힌 사람 아니.)

112028 @ 상복은 옛날에. 이제사 강 맞추민 다 나오주마는 옛날엔 어떵 헹 멘들엇수과?(상복은 옛날에. 이제야 가서 맞추면 다 나오지마는 옛날엔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112028 # 엿날엔 베 헹 놔뒷단, 이넉 집이 상제가 멧 개민 베 헹 놔뒷단, 큰뚤이 막 오랫주게. 큰뚤이 저 나 아부지 죽으민 그저 장애자덜 그 상복허여오민 그 미녕 베로 허여 온 거 나 안 입으큰걸. 경헤라게. 경 허난이 아이고 이제 베 사오민 베옷 허는 사름이 시냐?(옛날엔 베 해서 놔뒀다가, 자기 집에 상제가 몇 명이면 베 해서 놔뒀다가, 큰딸이 아주 오랬지. 큰딸이 저 나 아버지 죽으면 그저 장애인들 그 상복해오면 그 무명 베로 해 온 거 나 안 입겠어.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베 사오면 베옷 하는 사람이 있니?)

112028 @ 옛날에 할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땐 어떵 헷수과?(옛날에 할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땐 어떻게 했습니까?)

112028 # 다 만들어 놧주 우리사.(다 만들어 놨지, 우리야.)

112028 @ 미리 만들어 놔둬?(미리 만들어 놔둬?)

112028 # 게. 우리사 그때 다 멘들아 놔둔 거주게. 춤베로 다 멘들고 아버지 멩지로 바지저고리 다 멘들고.(그러게. 우리야 그때 다 만들어 놔둔 거지. 참베로 다 만들고 아버지 명주로 바지저고리 다 만들고.)

112029 @ 죽으민 상제가 들르는 거 이수게, 아이고 아이고 허멍 지펭이 닮은 거.(죽으면 상제가 드는 거 있잖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지팡이 같은 거.)

112029 # 지펭이.(지팡이.)

112029 @ 거 뭐엔 골아?(그거 뭐라고 말해?)

112029 # 거 방, 저, 방장대.(그거 방, 저, 상장.)

112029 @ 방장대. 그다음 무슨거 영.(상장. 그다음 무엇 이렇게.)

112029 # 찝동.(짚동.)

112029 @ 찝동. 찝동은 멧 군데 무끄는 거꽈?(짚동. 짚동은 몇 군데 묶는 겁니까?)

112029 # 다 거 장애자가 무꺼줘.(다 그거 장의사가 묶어줘.)

112029 @ 아니, 옛날에 장애자 허는 거 말고.(아니, 옛날에 장의사 하는 거 말고.)

112029 # 멧 개사 무꺼신디.(몇 개야 묶었는지.)

112029 @ 몰라?(몰라?)

112029 # 응.(응.)

112029 @ 그믄 이거 방장대는 어무니 죽어실 땐 무신거 허고 아부지 죽어실 땐 무신걸로 허렌 헤라.(그러면 이거 상장은 어머니 죽었을 땐 무엇 하고 아버지 죽었을 땐 무엇으로 하라고 하더라.)

112029 # 아방 죽은 때 대막댕이, 왕대로. 어멍 죽은 땐 머구낭.(아버지 죽은 때 대막대, 왕대로. 어머니 죽을 땐 머귀나무.)

112029 @ 머구낭.(머귀나무.)

112029 # 머구낭 가시가 하영 돋주게. 게민 아방은, 어멍은 곰곰히 생각허고 아방은 무디무디 생각난덴 허영.(머귀나무 가시 많이 돋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곰곰히 생각하고 아버지는 마디마디 생각난다고 해서.)

112029 @ 아, 무디무디 생각난덴 허영.(아, 마디마디 생각난다고 해서.)

112029 # 아방은 무디무디 생각나는 거고 어멍은 가시 굽마다 생각난덴. 경헨 나 밧듸 그 가시낭, 요거 지레기만이 헌 거 매어단 싱건 놔두난 오꼿 죽어불어서라. 나 죽건 그걸로 허렌 허젠 허난.(아버지는 마디마디 생각나는 거고 어머니는 가시 옹이마다 생각난다고. 그렇게 해서 나 밭에 그 가시나무, 요거 길이만큼 한 거 매어다가 심어서 놔두니까 그만 죽어버렸어. 나 죽으면 그걸로 하라고 하려고 하니까.)

112029 @ 하하하.(하하하.)

112029 # 그런 낭 막 크민 오랑 가지덜 그차가곡 허는 게 그런 낭도 씨 멜족허연, 이제.(그런 나무 막 크면 와서 가지들 잘라가고 하는 게 그런 나무도 씨 멸족했

어, 이제.)

112030 @ 응. 두건도 만들앙 다 테웁니께예?(응. 두건도 만들어서 다 나눠주잖습니까?)

112030 # 응.(응.)

112030 @ 두건은 그때 앉앙 사람들이 멘드는 거?(두건은 그때 앉아서 사람들이 만드는 거?)

112030 # 앚앙인에 죽으민 앚앙인에 동네 권당덜은 두건 좁긴 쉽곡.(앉아서 죽으면 앉아서 동네 권당들이 두건 접기는 쉽고.)

112030 @ 응.(응.)

112030 # 것도 주멩기추룩 허영은에 오기령 톡허게 귀 좁으민 뒈는 거난.(그것도 주머니처럼 해서 오그려서 톡하게 귀 접으면 되는 거니까.)

112030 @ 그 두건도 무사 저 처음에 입관허기 전인 우이 안 줘라.(그 두건도 왜 저 처음에 입관하기 전엔 위에 안 깁더라.)

112030 # 응. 안 줘.(응. 안 기워.)

112030 @ 건 무사 경 허는 거?(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

112030 # 몰라, 바쁘난에 안 주는 거지. 바쁘난에.(몰라, 바쁘니까 안 주는 거지. 바쁘니까.)

112030 @ 하하하. 복치메는.(하하하. 복치마는.)

112030 # 복치멘 다 허영 입곡게.(복치마는 다 해서 입고.)

112030 @ 복치메 허여, 수건 허여? 여자덜은 무신거 입어?(복치마 해, 수건 해? 여자들은 무엇 입어?)

112030 # 엿날엔 수건 안 허고 건대 쓰곡 건대에 베 요만은 허영 여즈 이디 톡 놔근에 건대 썻어. 엿날엔 베수건 썻는디.(옛날엔 수건 안 하고 건대 쓰고 건대에 베 요만큼은 해서 여자 여기 톡 놔서 건대 썼어. 옛날엔 베수건 썼는데.)

112030 @ 아니 거난 상제덜 말고게, ᄒᆞ꼼 친척덜 이수게.(아니 그러니까 상제들 말고, 조금 친척들 있잖습니까.)

112030 # 친척덜, 이젠 친척덜 안 줘.(친척들, 이젠 친척들 안 줘.)

112030 @ 경헤도 가민 몸뻬바지, 베 바지.(그래도 가면 일바지, 베 바지.)

112030 # 몸뻬바지덜은 줭 심부름허렌 헤도 이 수건은 안 줘, 이젠.(일바지들은 줘서 심부름하라고 해도 이 수건은 안 줘, 이젠.)

112030 @ 아, 옛날엔 수건 줘낫수과?(아, 옛날엔 수건 줬었습니까?)

112030 # 수건 줫주게. 제라허게 형제지간에 수건 주주. ᄒᆞ쏠 가지 멀민 수건도 안 줘. 가지가 멀민.(수건 줬지. '제라하게' 형제지간에 수건 주지. 조금 가지 멀면 수건도 안 줘. 가지가 멀면.)

112030 @ 수건 주민 바지 안 주는 거?(수건 주면 바지 안 주는 거?)

112030 # 그땐 수건만 줫주게.(그땐 수건만 줬지.)

112030 @ 옛날엔 수건만 주는 거예.(옛날엔 수건만 주는 거요.)

112030 # 게.(그렇지.)

112030 @ 치메로 헤나신디 이젠 다 몸빼바지처럼.(치마로 했었는데 이젠 다 일바지처럼.)

112030 # 응, 몸빼바지 다 줭 심부름헴주.(응, 일바지 다 줘서 심부름하지.)

112030 @ 옛날엔 치메로 헤나지 안헨?(옛날엔 치마로 하지 않았어?)

112030 # 응, 치메.(응, 치마.)

112030 @ 겡 치메 허기 전인 수건 줘낫구나예. 거 무슨 수건이엔 골아?(그래서 치마 하기 전에 수건 줬었군요. 그거 무슨 수건이라고 말해?)

112030 # 베수건, 복수건[240], 복수건.(베수건, '복수건', '복수건'.)

112030 @ 복수건, 응. 치메는 복치메?('복수건', 응. 치마는 복치마?)

112030 # 응, 복치메.(응, 복치마.)

112030 @ 건 상제들 말고 친척들 주는 거지예?(그건 상제들 말고 친척들 주는 거지요?)

112030 # 응, 복치메 자이도 입언 어디 누게 죽엇구나, 영헹.(응, 복치마 저 아이도 입어서 어디 누구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112030 @ 응. 게난 두건허고 복치멘 누구까지 주는 거꽈?(응. 그러니까 두건하고 복치마는 누구까지 주는 겁니까?)

112030 # ᄉᆞ오촌까지 줘.(사오촌까지 줘.)

112030 @ ᄉᆞ오촌까지. 옛날에도 경헤난?(사오촌까지.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어?)

112030 # 응.(응.)

112031 @ 풋죽은 누게가 쒕 오는 거꽈?(팥죽은 누가 쑤어서 오는 겁니까?)

112031 # 사둔.(사돈.)

112031 @ 어떤 사둔?(어떤 사돈?)

112031 # 메누리 어멍도 쒀 오곡, 뚤 어멍도 쒀 오곡.(며느리 어머니도 쑤어 오고, 딸 어머니도 쑤어 오고.)

112031 @ 그 풋죽은 누게가 먹는 거라?(그 팥죽은 누가 먹는 거야?)

112031 # 그디 이제 영장칩이난 어른덜 먹는 거. 풋죽 못허민 다른 걸로도 허고 국수로도 테우고.(거기 이제 상갓집이니까 어른들 먹는 거. 팥죽 못하면 다른 걸로도 하고 국수도 나눠주고.)

112031 @ 이젠 경 허주마는 옛날엔 다 죽 쒕 가낫지예?(이젠 그렇지마는 옛날엔 다 죽 쑤어서 갔었지요?)

112031 # 다 풋죽, 풋 엇으민 사당이라도 풋죽을 쒕 갓어.(다 팥죽, 팥 없으면 사다가라도 팥죽을 쑤어서 갔어.)

112031 @ 건 무사 헹 가는 거마씨?(그건 왜 해서 가는 거예요?)

112031 # 비림 가린덴.(비림 가린다고.)

112031 @ 아.(아.)

240) '복수건'은 상이 났을 때 여자 친척들이 머리에 쓰는 베나 무명으로 만든 머릿수건을 말한다.

112031 # 비림 타는 거.(비림 타는 거.)
112031 @ 아, 근데 옛날에는 그 죽을 어떵 헹 날랑 갓어?(아, 근데 옛날에는 그 죽을 어떻게 해서 날라서 갔어?)
112031 # 허벅에 질엉. 허벅에 질엉은에 쉐에 시껑. 사둔칩이 흔 허벅 안 허주게. 흔 바리. 아이고 죽 흔 바리 사둔칩이서 왓저.(허벅에 길어서. 허벅에 길어서 소에 실어서. 사돈집에 한 허벅 안 하지. 한 바리. 아이고 죽 한 바리 사돈집에서 왔다.)
112031 @ 흔 바린 얼만이 헌 거?(한 바리는 얼마만큼 한 거?)
112031 # 허벅으로 두 개 허영 쉐에 시껑.(허벅으로 두 개 해서 소에 실어서.)
112032 @ 성복제는 어떤 거?(성복제는 어떤 거?)
112032 # 성복 지낸덴 허는 거, 거 제지내는 거.(성복 지낸다고 하는 거, 그거 제지내는 거.)
112032 @ 건 언제 허는 거꽈?(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112032 # 영장 나민 성복 지네곡게, 초ᄒᆞ루 보름 허는 거주. 성복은. 죽은 다음에 제지내는 것ᄀᆞ라 성복 지낸덴.(상 나면 성복 지내고, 초하루 보름 하는 거지. 성복은. 죽은 다음에 제지내는 것보고 성복 지낸다고.)
112033 @ 일포는?(일포는?)
112033 # 일포는 이제 죽엉 강 묻젠 헤가민 일포.(일포는 이제 죽어서 가서 묻으려고 하면 일포.)
112033 @ 전날예.(전날요.)
112033 # 응, 전날 허는 거.(응, 전날 하는 거.)
112033 @ 지금은 전날 헹 손님들도 왕은에 밥 먹곡 영허는디.(지금도 전날 해서 손님들도 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112032 # 성복이엔 헌 건 죽엇젠 헹 제 체암이 성복제.(성복이라고 한 건 죽었다고 해서 제 처음이 성복제.)
112032 @ 아, 체암 허는 게.(아, 처음 하는 게.)
112032 # 아이고, 성복제도 허연에 죽언 불써 성복제도 헷구나, 영.(아이고, 성복제도 해서 죽어서 벌써 성복제도 했구나, 이렇게.)
112032 @ 아, 건 죽엉 젤 처음 허는 게 성복제고.(아, 그건 죽어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성복제고.)
112032 # 응.(응.)
112033 @ 일포는.(일포는.)
112033 # 뒷날 그자.(뒷날 그저.)
112033 @ 저 장날 전날 헹은에 밥헹 멕이는 거예?(저 장날 전날 해서 밥해서 먹이는 거요?)
112033 # 응.(응.)
112033 @ 이때는 제 지낼 때 음식은 무신거 무신거 헹 올려?(이때는 제 지낼

때 음식은 무엇 무엇 해서 올려?)

112033 # 미시거 미시거 헹게. 떡 다 헹 제 지낼 때 기자 고사리 탕쉬[241] 다 허곡. 고사리 탕쉬도 무수 채소도 허곡게. 콩ᄂᆞ물.(무엇 무엇 해. 떡 다 해서 제 지낼 때 그저 고사리 '탕쉬'도 다 하고. 고사리 '탕쉬'도 무 채소도 하고. 콩나물.)

112033 @ 국은 무신 국 끌려?(국은 무슨 국 끓여?)

112033 # 국은 게 바당고기 아니민 뒈야지라도 놩 국허곡, 제 지낼 때. ᄆᆞ른 고기 허곡.(국은 게 바닷고기 아니면 돼지라도 놔서 국하고, 제 지낼 때. 마른 고기 하고.)

112033 @ ᄆᆞ른 고기 허곡.(마른 고기 하고.)

112033 # 응. 주로 정성 들이 저 바당고기 게영허영인에 장밧듸 강 제 지내젠 허민 냄비에 거령 간다.(응. 주로 정성 들여 저 바닷고기 갱해서 장지 가서 제 지내려고 하면 냄비에 떠서 간다.)

112034 @ 응, 부주는?(응, 부조는?)

112034 # 부주는 이녁 허구정헌 냥. 가까우민 하영 허곡 ᄒᆞ쏠 새 멀민 족영 허곡.(부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까우면 많이 하고 조금 사이 멀면 적게 하고.)

112034 @ 것도 옛날엔 다 쏠로 헤낫수과? 보리쏠로?(그것도 옛날엔 다 쌀로 했었습니까? 보리쌀로?)

112034 # 쏠로. 쏠로 다 허여 갓주게. 조케덜은 두 뒈곡 형제 버릇은 ᄒᆞᆫ 말 허곡 경 헤낫어, 엿날은.(쌀로. 쌀로 다 해 갔지. 조카들은 두 되고 형제 뻘은 한 말 하고 그랬었어, 옛날은.)

112035 @ 토신제도 지냅니까?(토신제도 지냅니까?)

112035 # 토신제엔 헌 건이 일 년 살앙인에.(토신제라고 한 건 일 년 살아서.)

112035 @ 죽어실 때 허는 건 엇어?(죽었을 때 하는 건 없어?)

112035 # 아니 토신에 제 허는 거주. 거 매 집이 안 허여.(아니 토신에 제 하는 거지. 그거 매 집에 안 해.)

241)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祭祀)에 쓰는 나물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3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모사전송:**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